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공안집

07-2



대한불교조계종 韓國傳統思想書 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07-2

精選公案集 정선공안집 · 譯註역주

Gonggan Collections

Collected Works of Korean Buddhism, vol. 7-2

역주 ▣ 김영옥

엮은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전화 · 팩스 ▣ 02)725-0364 · 02)725-0365

펴낸이 ▣ 대한불교조계종

펴낸곳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출판부

등록번호 제 300-2009-5호(2009.1.22)

인쇄일 2010년 03월 20일

발행일 2010년 03월 30일

편집 · 디자인 ▣ 아르떼203

인쇄 · 제책 ▣ 동화인쇄공사 · (주)가원

ISBN 978-89-94117-02-7 94220

ISBN 978-89-962509-0-6 (세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 홈페이지(<http://www.nl.go.kr/cip.ph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 2010000388

© 2010 by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Buddhist Thought,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이 “한국전통사상총서” 간행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전통사상총서 · 불교편

정선
精選
공안집
公案集

07-2

역주... 김영옥 金榮郁

조영미 · 한재상



목차

471칙 조주이룡趙州二龍	0741
488칙 장사백척長沙百尺	0745
494칙 장사애처長沙礙處	0761
507칙 감지심자甘贊心字	0767
508칙 비마차각秘魔叔却	0773
533칙 덕성천척德誠千尺	0787
553칙 말산남녀末山男女	0797
559칙 석상교증石霜敎中	0811
598칙 향엄거년香嚴去年	0817
600칙 향엄여인香嚴如人	0835
607칙 임제불법臨濟佛法	0859
633칙 임제편할臨濟便喝	0877
639칙 목주담판睦州擔板	0887
655칙 목주대사睦州大事	0899
672칙 덕산편방德山便棒	0905
677칙 덕산아야德山啊嘍	0915
685칙 동산삼신洞山三身	0925
688칙 동산체득洞山體得	0935
704칙 동산구화洞山救火	0945
707칙 동산불병洞山不病	0951
726칙 투자대사投子大死	0959
776칙 복분작무覆盆作舞	0973
780칙 설봉종승雪峰宗乘	0979
782칙 설봉해탈雪峯解脫	0989





792칙 설봉복선雪峯覆船	0999
802칙 설봉불일雪峯佛日	1007
857칙 운거우종雲居雨從	1017
859칙 운거승가雲居僧家	1027
864칙 운거지고雲居持袴	1039
883칙 조산변이曹山變異	1047
890칙 조산천주曹山泉州	1059
892칙 조산토각曹山兎角	1067
911칙 백수성전白水聲前	1071
926칙 남탑백설南塔百舌	1087
931칙 대광달마大光達磨	1093
949칙 낙포귀향洛浦歸鄉	1099
988칙 현사주인玄沙主人	1107
1000칙 현사친전玄沙親傳	1119
1034칙 운문동산雲門東山	1125
1069칙 운문일언雲門一言	1135
1074칙 운문답파雲門踏破	1143
1076칙 운문묘희雲門妙喜	1149
1078칙 운문시궐雲門屎橛	1155
1109칙 장경묘봉長慶妙峯	1165
1122칙 경청줄탁鏡淸啼啄	1175
1125칙 경청종자鏡淸鐘子	1183
1173칙 도비금계道丕金雞	1189
1175칙 동안향거同安向去	1197





1176칙 동안의경 同安依經	1209
1202칙 나산석우羅山石牛	1215
1221칙 파릉계한巴陵鷄寒	1223
1222칙 파릉낙정巴陵落井	1233
1272칙 명초풍두明招風頭	1241
1283칙 지문적각智門赤脚	1249
1294칙 법안지렴法眼指廉	1259
1299칙 법안병정法眼丙丁	1267
1314칙 홍진명지洪進明知	1279
1331칙 수산죽비首山竹篲	1285
1355칙 설두제인雪竇諸人	1295
1365칙 도상삼결道常三訣	1301
1368칙 북선세진北禪歲盡	1309
1378칙 혜각절중慧覺漸中	1321
1379칙 낭야청정瑯琊淸淨	1333
1412칙 백운타인白雲他人	1343
1415칙 오조오역五祖五逆	1349
1418칙 오조절각五祖切脚	1355
1429칙 대사공수大士空手	1361
1463칙 파자소암婆子燒菴	1377

● 찾아보기	1385
● 역주자	1435
●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1437
● 한국전통사상총서	1439





정선 공안집 I 목차

선문염송집서 禪門拈頌集序	0045
1칙 세존도솔 世尊兜率	0055
2칙 세존주행 世尊周行	0083
5칙 세존엄화 世尊拈花	0135
33칙 세존자자 世尊自恣	0175
44칙 열반도독 涅槃塗毒	0201
65칙 문수채약 文殊採藥	0209
74칙 비목집수 毗目執手	0229
98칙 달마성제 達磨聖諦	0241
108칙 사조해탈 四祖解脫	0275
110칙 육조풍번 六祖風幡	0283
118칙 도명본래 道明本來	0331
161칙 마조일구 馬祖一口	0337
165칙 마조원상 馬祖圓相	0357
177칙 백장야압 百丈野鴨	0365
181칙 백장재참 百丈再參	0375
184칙 백장야호 百丈野狐	0415
204칙 남전매신 南泉賣身	0465
207칙 남전참묘 南泉新貓	0481
250칙 반산심월 盤山心月	0509
261칙 귀종기권 歸宗起拳	0527
284칙 분주망상 汾州妄想	0533
294칙 부배잉어 浮盃刺語	0541
312칙 방온시방 龐蘊十方	0553
313칙 거사세채 居士洗菜	0565
321칙 단하소불 丹霞燒佛	0577
324칙 약산삼승 藥山三乘	0597
351칙 천황쾌활 天皇快活	0619
359칙 위산무심 鴈山無心	0625
399칙 환중식병 寰中識病	0633
411칙 조주깍다 趙州喫茶	0643
417칙 조주구자 趙州狗子	0675
429칙 조주세발 趙州洗鉢	0703





471책 趙州二龍 조주이룡



471칙 조주이룡 趙州二龍

[본칙]

조주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데, 어떤 놈이 얻겠습니까?” “노승은 다만 지켜보기만 할 것이다.”¹⁾

趙州因僧問, “二龍爭珠, 誰是得者?” 師云, “老僧只管看.”

[설화]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다 : 마치 ‘밝은 구슬이 손에 들려 있으니, 공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상으로 주리라’²⁾고 한 말과 같다. 범부 앞에 있으면 전적으로 범부의 형상만 나타나고, 성인 앞에 있으면 남김없이 성인의 형상만 나타날 뿐이다. 또한 사사로움이 없는 하나의 자리에 손님과 주인으로 갈린 두 사람이 서로 바꾸어가며 주인이 되니 두 가지 뜻(손님과 주인)이 모두 타당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 동일하게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한 예가 보인다. “‘두 마리 용이 여의주를 다투는데 어떤 놈이 얻겠습니까?’ ‘얻는 놈이 잃는다.’ ‘얻지 못하는 놈은 어떻습니까?’ ‘여의주가 어디에 있단 말이나?’”(『景德傳燈錄』 권13 「首山省念傳」大51 p.304b7. 問, ‘二龍爭珠, 誰是得者?’ 師曰, ‘得者失.’ 僧曰, ‘不得者又如何?’ 師曰, ‘珠在什麼處?’); “두 마리 어느 편이라 해도 착각이다.”(같은 책 권16 「巖頭全豁傳」大51 p.326c20. 俱錯.)

2) 설두중현의 계송에 나오는 구절. 『碧巖錄』 97則 「頌」大48 p.220c18.

노승은 다만 지켜보기만 할 것이다 : 방관할 뿐 승패에는 전혀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二龍爭珠者，如明珠在掌，有功者賞。居凡全凡，處聖全聖。又無私一位，賓主兩箇，互相作主，兩義皆得。老僧只管看者，只可傍觀，都不干涉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엄

“지켜보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다투면 얻지 못한다. 말해 보라! 그 학인의 입장을 옹호한 것인가, 조주의 입장을 옹호한 것인가?”

雪竇顯拈，“看則不無，爭則不得。且道！扶者僧，扶趙州？”

[설화]

지켜보는 것도 ~ 얻지 못한다 : 조주는 비록 지켜보기만 할 것이라고 했지만 다투어도 얻지 못한다. 곧 양편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켜보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라는 말은 조주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고, 다투면 얻지 못한다는 말은 그 학인의 입장을 옹호한 것이다.

雪竇：看則云云者，趙州雖然看，爭則不得也。謂兩頭不落也。看則不無，則扶趙州；爭則不得，則扶這僧也。



488칙 長沙百尺 장사백척



488칙 장사백척 長沙百尺¹⁾

[본칙]

장사경잠선사가 어떤 학인을 시켜 여회(如會)화상에게 물었다. “화상께서 남전을 만나기 이전의 시기²⁾에는 어떠했습니까?” 여회가 말없이 있었다. 그 학인이 “만난 다음에는 어떠했습니까?”라고 묻자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학인이 돌아와 그 문답을 들려주자 경잠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었다. “백척간두에 앉아 요지부동한 사람이여! 깨달았다 해도 아직은 진실이 아니라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야, 시방세계 전체가 자신의 온몸이 되리라.” 그 학인이 물었다.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진보합니까?” “낭주는 산이 좋고 예주는 물이

-
- 1)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사경잠(長沙景岑)의 말과 백척간두를 고수하는 여회(如會)의 말을 대칭시킨 공안이다. 백척간두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향상의 극치이다. 진보도 퇴보도 불가능한 이곳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일보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가 이 공안의 관문인데, 여회의 입장이 대척점에서 이 공안의 긴장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있다. 두 선사에 대하여 어느 한쪽이 우월하다는 식으로 편중된 견해를 보이면 이 공안의 기초는 무너진다.
 - 2) 남전을 만났다는 말은 단순히 남전의 처소로 찾아가 그 얼굴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남전의 본분과 마주쳐서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뜻으로 쓰인다. 따라서 만나기 이전은 남전의 본의를 파악하기 이전을 나타낸다.

중다.”³⁾ “잘 모르겠습니다.” “4해와 5호⁴⁾가 모두 왕의 교화⁵⁾ 안에 있다.”

長沙景岑禪師, 令僧問會和尚曰, “和尚未見南泉時, 如何?” 會良久. 僧云, “見後, 如何?” 會云, “不可更別有也.” 僧迴舉似師, 師作偈云, “百尺竿頭坐底人! 雖然得入未爲眞. 百尺竿頭須進步, 十方世界是全身.” 其僧便問, “百尺竿頭如何進步?” 師云, “朗州山, 澧州水.” 僧云, “不會.” 師云, “四海五湖王化裏.”

[설화]

만송행수(萬松行秀)는 “호남 장사초현대사의 휘는 경잠이고, 마조의 손 제자이며 남전의 제자이자 조주의 사형이다. 그 당시 양산(仰山)과 같이 강직하고 남에게 굽히지 않던 선사도 몸을 낮추도록 만들었기에 잠대충(岑大蟲)⁶⁾이라 일컬어졌다.”⁷⁾라고 말했다. 회화상은 동사여회(東寺如會)라는 선사로서 마조의 법을 이은 제자인 절상여회(折床如會)⁸⁾를 말한다.

- 3) 낭주는 중국 호남성 상덕현, 예주는 호남성 예현. 백척간두에 머물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 산과 물과 같은 차별된 현상을 마주해야 한다는 말이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 속에도 한정되지 않는 화두이다.
- 4) 사해오호(四海五湖). 중국 전역을 통괄하여 나타내는 말. 오호사해(五湖四海)라고도 한다.
- 5) 왕화(王化). 왕의 통치. 주로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德治)를 나타내는 말.
- 6) 호랑이[大蟲]와 같은 위세를 발휘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는 뜻.
- 7) 만송행수가 이 화두에 대한 「평창」에서 한 말이다. 『從容錄』 79則 「評唱」 大48 p.277c18.
- 8) ‘折床’(평상이 부러졌다는 뜻)이라는 호가 붙여진 유래는 다음과 같다. “학도가 많아지자 승당 안의 평상이 그로 인해 부러졌고, 당시 학인들이 절상회(折床會)라 불렀다.”(『景德傳燈錄』 권7 「東寺如會傳」 大51 p.255b15. 學徒既衆, 僧堂內床榻, 爲之陷折, 時稱折床會也.) 이 고사에 따라 ‘절상’은 대중이 많은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이들은 남전의 가르침을 받고 은밀하게 부합하여 친밀하게 깨달은 문도들이다.

‘남전을 만나기 이전의 시기’란 미혹하였을 때를 말하고 ‘만난 다음’이란 깨달았을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우두(牛頭)가 4조(四祖)를 만나기 이전의 사정, 4조를 만난 다음의 사정’⁹⁾이라는 인연과 같은 뜻은 아니다.

말없이 있다가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말 : 만나기 이전에도 그랬고, 만난 다음에도 그랬다는 뜻이니, 미혹과 깨달음이 모두 사라진 경계를 나타낸다.

백척간두에 앉아 ~ 진실이 아니라네 : 우물 안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작다고 생각하는 격이니,¹⁰⁾ 포단(蒲團)에서 보이는 것을 하늘 전체로 여긴다¹¹⁾는 뜻

9) 남전(南泉)과 학인의 문답에서 비롯한 화두이다. “우두가 4조를 아직 만나지 않았을 때 어찌서 온갖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쳤습니까?’ ‘그는 걸음마다 부처님의 계단을 밟고 다녔기 때문이다.’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는 어찌서 꽃을 물어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설사 물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제시한 한 가닥의 길에는 아직 조금 미치지 못한다.”(『南泉普願語要』古尊宿語錄12 卍118 p.291a13, ‘牛頭, 未見四祖時, 爲甚麼, 百鳥銜花獻?’ 師云, ‘爲渠步步踏佛階梯.’ 云, ‘見後, 爲甚麼, 不銜花獻?’ 師云, ‘直饒不來, 猶較王老師一線道.’) 수행이 아직 완전해지지 않은 시기는 ‘4조를 만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고, ‘4조를 만나 가르침을 받은 다음’은 본분을 깨달은 지위를 나타낸다. 새들도 그 수행을 존경하여 꽃을 바치는 단계는 깨달음의 자취가 남아 있다는 뜻이며, 그 자취마저 사라진 경지가 되어 새들이 꽃을 물어다 바칠 여지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다. 간화선에서는 이 문답을 화두로 제기하면서 꽃을 바쳤거나 바치지 않았거나 어느 한편도 더 나은 것으로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의심을 촉발하는 관문으로 활용한다.

10) 우물 안에서 본 크기가 하늘 전체라고 생각하는 우물 안 개구리의 비유에서 나온 말. 자신의 견해가 장애가 되어 근본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우물 안의 개구리와 바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물이라는 좁은 공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莊子』「秋水」, 井蛙不可以語於海者, 拘於虛也.)

이다.

백척간두에서 ~ 온몸이 되리라 : (이렇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비로소 좌선하는 자리(포단)에서 본 것이 하늘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뜻이다.

낭주는 산이 좋고, 예주는 물이 좋다 : 천차만별의 모든 존재를 가리킨다.

4해와 5호가 모두 왕의 교화 안에 있다 : 더욱 높이 한 수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니, 남들에게 가르침을 주려면 철저해야 한다는 뜻이다.

『화엄경』에 “미륵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말했다. ‘이 장자는 110개의 성을 거쳐서 내가 있는 이곳에 왔다.’”¹¹⁾라고 하였다. 10신(信)¹²⁾에 각각 원인과 결과가 있어 모두 20이 되고, 10주·10행·10회향·10지[住行向地]¹³⁾도 이것을 기준으로 따른다. 또한 5위에 각각 원인과 결과가 있으므로 모두 합하여 110이다. 공공시(共功時)는 입문이고, 지위를 바꿈으로써 마지막에 사문과(沙門果)에 이르면 공공시(功功時)가 된다.¹⁴⁾ 이전의 본인(本因)과 본

11) 좌선하는 것을 전부로 착각하는 잘못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포단에 앉아 좌선을 통하여 도달하는 절정을 백척간두로 해설한 것이다. 이 경지에 오르더라도 그것을 완성으로 생각한다면 우물에 갇힌 개구리와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12) 80권본 『華嚴經』 권35 大10 p.824a25에 나오는 이야기. ‘백척’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하에서 도입한 교설이 타당한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 나오는 교설에 대한 번잡한 설명은 염송의 대의와 관련이 희박하므로 생략한다.

13) 보살의 52계위 중 최초의 10위에서 닦아야 하는 열 가지 마음.

14) 보살의 계위는 41위·51위·52위·57위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菩薩瓔珞本業經』에서 제기한 52위설이 일반적이다. 곧 10신위(信位: 초위~10위)·10주위(住位: 11위~20위)·10행위(行位: 21위~30위)·10회향위(廻向位: 31위~40위)·10지위(地位: 41위~50위)·등각(等覺: 51위)·묘각(妙覺: 52위)을 말한다.

15) 조동종(曹洞宗)의 동산양개(洞山良价)가 설정한 공훈오위(功勳五位) 중 네 번째

과(本果)를 제외하면 100위가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 백척(百尺)이라 한다.

萬松云, “湖南長沙招賢大師, 諱景岑, 馬祖之孫, 南泉之子, 趙州之兄. 當時, 倔强如仰山者, 猶下之, 而呼以爲岑大蟲.” 會和尚者, 有東寺如會者, 法嗣馬祖, 謂折床如會. 此則南泉下, 潛符密證之徒也. 未見南泉者, 迷時也. 見後者, 悟時也. 然, 非如牛頭未見四祖前事, 已見四祖後事也. 良久, 又云, 不可更別有也者, 見前也伊麼, 見後也伊麼也, 則迷悟并沉也. 百尺竿頭至未爲真者, 坐井裏觀天, 蒲團以爲天也. 百尺云云者, 方信蒲團, 不是天也. 朗州山云云者, 差別萬法也. 四海五湖云云者, 更高一著耶, 爲人須爲徹也. 華嚴經云, “彌勒謂善財曰, ‘此長者子, 經歷一百一十城, 來至我所.’” 言十信, 各有因有果, 合成二十, 住行向地例此. 又五位, 各有因有果, 摠爲一百一十也. 共功時爲入門, 從轉位後至沙門果, 功功時也. 前除本因本果, 一百位也. 則此所謂百尺也.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송

슬프다, 회로¹⁶⁾여!

종일토록 구차하게도 거친 풀 속을 그리워하는구나.

안타깝다, 장사여!

가 ‘共功時’이고 마지막 단계가 ‘功功時’이다.

16) 會老. 여회(如會)에 대한 존칭.

진보에만 욕심을 부려 집으로 돌아올 줄 모르네.
 백 척의 장대 끝에 누구인들 도달하지 못하리오?
 안개 걷히고 구름 흩어지면 해는 밝게 비추리라.
 남으로 북으로 돌아다니던 나그네가 되돌아오니,
 예주와 낭주의 산과 물이 참으로 좋구나.

蔣山泉頌, “悲哉會老! 終日區區戀荒草. 嗟爾長沙! 祇貪進步
 忘還家. 百尺竿頭誰不到? 霧卷雲收日杲杲. 南北遊人歸去來,
 澧朗州中山水好.”

[설화]

슬프다 ~ 돌아올 줄 모르네 : 두 선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뜻을 읊었다.
 ‘백 척의 장대 끝에 ~ 참으로 좋구나 : 두 선사 모두에게 잘못이 없다는 뜻을
 읊었다.

蔣山云云, 忘還家者, 二俱有過也. 百尺云云已下, 二俱無過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옥인¹⁷⁾을 꿈에서 깨우는 외마디 닭 울음,
 살림살이 눈 돌려보니 색색이 고루 있네.¹⁸⁾
 봄 알리는 바람과 우레는 재촉하며 동면을 깨우려 하고,
 말 없는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아래 저절로 길이 생기네.¹⁹⁾

17) 玉人. 용모가 옥같이 아름다운 사람.

18) 시방세계 전체가 자신의 온몸이라 한 장사의 소식과 같다.

19) 나무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아래
 에 사람들의 잣은 발길로 길이 난다는 뜻. 덕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부지런히 밭을 가는 법이거늘,

봄 밭두둑의 진흙에 밭목 빠지는 것 누가 두려워하리오!

天童覺頌, “玉人夢破一聲雞, 轉眄生涯色色齊. 有信風雷催出
蟄, 無言桃李自成蹊. 及時節力耕犁, 誰怕春疇沒脛泥!”

[설화]

앞의 두 구절은 여회화상의 백척간두를 밝혔고, 그 아래 구절들은 장사가 제시한 진일보의 경계를 밝혔다.

天童：二句, 明會和尚百尺竿頭也. 下明長沙進步處.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상당

영은사(靈隱寺)에 이르러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논쟁²⁰⁾에 대해 말하자면, 당사자 개개의 역량이 화살촉이 허공에서 맞닿은 것²¹⁾과 같이 되

그 덕이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따른다는 뜻을 나타내는 비유이다. “이광(李廣)이 죽었을 때, 천하에서 그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 극진히 슬퍼했다. 그의 충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참으로 사대부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속담에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이 없어도 그 아래 저절로 길이 생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비록 작지만 큰 뜻을 깨우치게 한다고 할 것이다.”(『史記』「李將軍列傳」. 及死之日, 天下知與不知, 皆爲盡哀. 彼其忠實心, 誠信於士大夫也. 諺曰, ‘桃李不言下自成蹊.’ 此言雖小, 可以諭大也.)

20) 논전(論戰). 불법의 진실을 두고 벌이는 논쟁. 법전(法戰)과 상통한다.

21) 진봉상주(箭鋒相拄). ‘拄’는 ‘拄’ 또는 ‘值’와 통한다. 하나의 화살촉과 또 다른 화살촉이 허공에서 맞닿는 것. 실력이 대등하여 우열을 가리기 힘든 적수들이 탁월한 기량을 드러내는 것 또는 서로의 의중이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화살촉이 허공에서 맞닿는 것이니, 날카로운 기봉(機鋒)으로 서로 대적한다는 뜻이다; 삼산등래(三山燈來)의 송. ‘두 진영에서 기봉을 교환하니 누구도 대적할 상대가 없고, 활을 당기고 화살을 메겼으니 어찌 보통 일이겠는가! 화살촉이 딱 들어맞

어 반드시 특출 난 사람들이라야 한다. 만약 분별하는 기관[意根]이 여전히 막혀 있다면²²⁾ 마땅히 앞으로 나아갈지 말지 진퇴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장사는 ‘백척간두에 앉아 ~ 온몸이 되리라’고 했던 것이다.” 이어서 “어떤 학인이 남전에게 장사의 계송을 제기하고 ‘백척간두에서 어떻게 걸음을 내디딤니까?’라고 묻자 남전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대답했고, 와관(瓦官)〈어떤 본에는 염관(鹽官)으로 되어 있다〉에게 묻자 와관은 ‘백척간두에서 나아가 무엇 하겠는가?’²³⁾라고 대답했는데, 그 학인이 그 말을 수긍하지 않자 와관이 그를 때렸다”는 문답을 제기하고 설두가 이에 대하여 말했다. “대중들이여, 옛사람들이 기틀에 응하여 드러내는 작용[機變]은 한순간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방편이기에 그 행간에는 별도로 헤아릴 겨리가 남아 있으니, 그것은 아직 말로 다하지 못한 것이다. 가령 내가 오늘 영은사에 다시 들어온 것은 백척간두와 같았지만, 남전의 말에 의지하여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며, 기쁘게도 대중과 이렇게 만났으니 시방 세계를 한순간에 빠짐없이 둘러본 것과 같다.”

雪竇顯，到靈隱，上堂云，“論戰也，箇箇力在箭鋒相拄，又須是箇特達漢，始得。若意根尚滯，直須向前決擇。所以，長沙道，‘百尺竿頭至是全身。’僧舉問南泉，‘百尺竿頭如何進步？’

게 허공에서 마주치는 순간, 갑옷[征衣]을 벗고 한바탕 웃노라.”(『五家宗旨纂要』 권하 卍114 p.561b4. 箭鋒相拄, 機鋒相敵也; 三山來頌云, ‘兩陣交鋒莫可當, 彎弓架矢豈尋常! 箭頭的의相逢處, 脫却征衣笑一場。)

- 22) 의근(意根)은 분별을 본질로 하는 인식기관이다. 이것이 막혀 있다는 것은 무분별과 무차별의 백척간두만 고수하여 머물고 진일보를 외면하는 입장을 나타낸다.
- 23) 남전과 와관의 대답되는 말을 저 ‘화살촉’처럼 맞붙여 놓아 우열이 없는 경계로 유도한 것은 설두의 의도적 연출이다. 백척간두와 진일보 중 어느 한편을 선택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어야 이 문답이 화두로서 바르게 드러난다.

泉云, ‘更進一步.’ 僧復問瓦官<一本鹽官>, 官云, ‘百尺竿頭用進, 作什麼?’ 僧不肯, 官便打.” 師云, “大衆, 古人機變, 出在一時, 其間別有商量, 亦未言著. 且如雪竇, 今日再入靈隱, 也似百尺竿頭, 依南泉之言, 得進一步. 喜與大衆相見, 則十方世界, 一時周匝.”

[설화]

논쟁에 대해 말하자면~ : ‘백척간두’라 한 말[여회]과 ‘낭주는 산이 좋고 예주는 물이 좋다’라는 말[장사]은 특출 난 사람들의 본분에서 나온 것이니 허공에서 화살촉이 맞닿은 것과 같다. 여회화상의 의근은 여전히 막혀 있으니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남전] : 장사의 진일보를 거듭 밝힌 말.

백척간두에서 나아가 무엇 하겠는가 : 백척간두의 뜻을 밝혔다.

때렸다 : 질문한 학인은 진보만 좋은 것으로 알았을 뿐이니, 그 또한 의근이 여전히 막혀 있었기 때문이다.²⁴⁾

설두가 ‘오늘 영은사에 다시 ~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 말 : 장사의 진일보가 곧 남전의 진일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영은사에 주석했다가 그 뒤 다시 영은사에 주석하는 것도 그와 같다.

기쁘게도 대중과 이렇게 만났으니 ~ 둘러본 것과 같다 : 그 현장에 있는 본분의 소식을 밝힌 것이다.

雪竇 : 論戰云云者, 百尺竿頭, 朗州山澧州水, 在特達漢分上, 則箭鋒相拄. 如會和尚, 意根尚滯, 則未可也. 更進一步者, 重

24) 생각으로는 진일보가 더 나은 견해라 여겼지만, 백척간두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는 뜻.

明長沙進步也。用進作什麼者，明百尺竿頭也。便打者，這僧只知進步，亦意根尚滯故也。雪竇今日云云者，長沙進一步，卽是南泉進一步故，前住靈隱，後住靈隱如之也。喜與大衆云云者，明其中消息也。

승천전종(承天傳宗)의 상당

장사가 ‘백척간두에 ~ 내딛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한 말을 제기한 다음, 주장자를 집어 들고 말했다. “백척간두는 바로 이 안(주장자)에 있다! 진일보해도 여기서 뛰쳐나가지 못하고, 진일보하지 않아도 뛰쳐나가지 못하고, 돌부처의 주장자를 꺾어버린다고 해도 또한 뛰쳐나가지 못할 것이다.²⁵⁾ 어째서 이리한가?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을 돌부처는 모두 이해하지만, 돌부처가 이해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한 구절에 ‘시방세계 전체가 자신의 온몸이 되리라’고 한 말로써도 또한 뛰쳐나가지 못한다. 사망팔방으로 자유롭게 통하는 안목이 없다면 장사가 파놓은 함정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承天宗，上堂，舉長沙道，‘百尺竿頭，至須進步.’ 師拈拄杖云，
“百尺竿頭在者裏！進也跳不出，不進也跳不出，忽若拗折石佛
拄杖子，也跳不出。爲什麼如此？諸人會處，石佛總會；石佛
會處，諸人不會。末後一句道，‘十方世界是全身.’ 更跳不出。
若無七穿八穴底眼，未免墮在長沙窠裏。”

25) 진일보 자체를 하나의 화두로 설정한 것이다. 진일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 밖의 어떤 시도로도 이 주장자의 함정에서 뛰쳐나갈 수 없다.

[설화]

진일보해도 여기서 뛰쳐나가지 못한다 : 진일보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 자루의 주장자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이다. 돌부처의 주장자를 꺾어버리면 견해가 고매하다 할 만하지만, 이 또한 이 소식을 벗어날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을 ~ 뛰쳐나가지 못한다 : 돌부처가 이해하는 부분은 어떤 것으로도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방세계 전체가 자신의 온몸이 되리라’는 구절로도 뛰쳐나가지 못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반드시 사방팔방으로 자유롭게 통하는 안목이 있어야 비로소 이러한 경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장사가 파놓은 함정 : 언어의 함정²⁶⁾을 가리킨다.

承天：進也跳不出者，進不進，不離一條柱杖也。拗折石佛柱杖，則見解可謂高邁，亦不離這箇消息也。諸人會處云云者，石佛會處，直得無限故，十方世界是全身，更跳不出也。雖然，須有七穿八穴地眼，方能如是也。長沙窠裏者，葛藤窠裏也。

승천전종의 거

다시 남전과 염관의 말을 제기하고 말했다. “만약 남전 문하에서 공부했다면 틀림없이 한 걸음 나아갈 것이며, 염관 문하에서 공부했다면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날 것이다.²⁷⁾ 밝은 눈을 가진 자라면 그 뜻을 가려내 보라!”

26) 갈등과리(葛藤窠裏). 선사들의 언어는 앞에서 긍정했다가 뒤에서 부정하기도 하고, 빼앗았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며, 진일보를 예찬하다가 돌연 백척간두의 경계를 지키라고도 한다. 이처럼 길으로 한 말의 이면에 그것을 잘라내는 다른 언어가 잠복하여 복잡하게 꼬인 칙녕쿨과 같으므로 ‘갈등’이라 한다. 이러한 갈등의 언어는 그 본질을 모른다면 함정과 소굴로 바뀔 요소가 많은 까닭에 갈등과리라 한다.

27) 위에서 말한 ‘언어의 함정’에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남전과 염관은 진일보라 말

又連舉南泉鹽官語，師云，“若叅南泉，須進一步；若叅鹽官，須退一步。明眼底，辨看！”

[설화]

남전이 말한 진일보 이외에 결코 퇴보할 수 없고, 염관이 말한 퇴일보 이외에 결코 진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又舉：南泉，進一步外，更不退步；鹽官，退一步外，更不進步。

승천회의 상당

‘백척간두에서 ~ 자신의 온몸이 되리라’라는 구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이여, 옛사람의 이와 같은 이야기는 대단히 기특했다. 그러나 점점해보면 물을 건널 줄만 알았지 물이 흐르는 방향은 알아채지 못한 것을 어찌라! 무슨 까닭인가? 가령 시방세계 전체가 온몸이라면 백척간두인들 그중 어디에 세워두겠는가? 이 문제를 알아맞힐 사람 있는가? 만약 알아맞힌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 편안히 앉아 쉬겠지만, 만약 아직 모르겠다면 해결할 때까지 굶어지고 다녀라.”

承天懷，上堂，舉百尺竿頭，至是全身。師云，“大衆，古人與麼語話，不妨奇特。然，奈檢點將來，只知過渡，不覺水流！何故？只如十方世界，是个全身，百尺竿頭，向什麼處安着？還有人於者裏見得麼？若也見得，便能放下，歸家穩坐；若也未見，一任擔取去。”

하면서 사실은 퇴보하고, 퇴일보하는 듯하지만 진보하는 갈등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이다. <설화>의 해설도 이 뜻이다.

[설화]

물을 건널 줄만 알았지 ~ 어쩌랴 : 진보할 줄만 알았지 퇴보는 알아채지 못했다는 뜻이다. 장사가 그렇게 한 말은 다만 병든 몸을 다른 곳으로 옮겼을 뿐, 법을 어느 곳으로나 자유롭게 옮기지 못한 격이다. 곧 백척간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承天：只知過渡云云者，只知進步，不覺退步也。長沙伊麼道，但轉其病，不轉其法，則未嘗離百尺竿頭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염

“장사의 견해를 알고자 하는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가라!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한 걸음을 나아갑니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대가 간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갈등²⁸⁾ 하나를 주겠다’라고 대답하리라.”

雲門杲拈，“要見長沙？更進一步！若有人問，‘如何進這一步？’我待款款地，與你葛藤。”

[설화]

장사가 한 말 그대로 철저하게 밝힌 것이니, 앞에서 제시한 설두의 뜻과 마찬가지로이다.

雲門：明長沙道底徹底，前雪竇義一般。

28) 주석26) 참조. 장사의 ‘진일보’를 그대로 수긍하는 듯하지만 이 또한 이면의 갈등이 있는 말이다.

무용정전(無用淨全)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대혜가 ‘장사의 견해를 알고자 하는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가라!’고 한 말을 제기한 뒤 말했다.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장사의 견해를 알고자 하는가? 다시 한 걸음 물러서라!’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 뼈를 씻어내고 장을 바꾸어 거둬 정돈하여 온몸이 눈[眼]이 된 다음에 다시 참구하라!”²⁹⁾

無用全, 上堂, 舉此話, 連舉大慧道, ‘要見長沙麼? 更進一步!’ 師云, “保寧則不然. 要見長沙麼? 更退一步! 畢竟如何? 洗骨換腸重整頓, 通身是眼更須參!”

[설화]

백척간두의 뜻을 밝혔다. 장사는 비록 진일보하라고 말했지만, 백척간두를 벗어나지 않고 다시 진일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無用: 明百尺竿頭. 長沙雖道進步, 亦未嘗離百尺竿頭, 更進一步, 始得.

29) 위에서 대혜가 장사의 진일보를 충실하게 고수하는 듯이 말했지만, 무용은 반대로 ‘퇴일보하라’고 제시했다. 진일보나 퇴일보나 모두 같등이기 때문에 온몸이 진실을 꿰뚫어 보는 눈이 될 정도로 참구한 뒤에러야 그들 말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494칙 長沙礙處 장사애처



494칙 장사애처 長沙礙處¹⁾

[본칙]

장사경잠(長沙景岑)에게 어떤 학인이 “색(色)이 곧 공(空)이고, 공이 곧 색이라 하는데, 이 이치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장사가 계송으로 답했다. “막힌 곳이 장벽은 아니요, 통하는 곳이 허공이니네. 누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마음과 색이 본래 같으리.”

長沙因僧問, “色卽是空, 空卽是色, 此理如何?” 師偈曰,
“礙處非牆壁, 通處勿虛空. 若人如是解, 心色本來同.”

[설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 이에 대하여 4교(장·통·별·원²⁾)보살의 견해

- 1) 색(色)과 공(空)이 상즉(相卽)하는 교설을 소재로 삼았지만, 묻는 자나 대답하는 자나 모두 선사로서의 본분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을 지향한다. <설화>의 해설은 다분히 교학적 내용에 치중하여 본래의 의도가 모호해졌다.
- 2) 4교로 분류하는 천태종(天台宗)의 교상판석(敎相判釋)에는 화법사교(化法四敎)와 화의사교(化儀四敎)라는 두 종류의 4교가 있다. 그중 불법의 내용[化法]으로 분류한 것이 장(藏)·통(通)·별(別)·원(圓) 등 4교이고, 불법의 형식[化儀]으로 분류한 것이 돈(頓)·점(漸)·비밀(秘密)·부정(不定) 등의 4교이다. 『法華玄義』 권1 大33 p.682c18, 권3 大33 p.706b17 등에 따르면, 공(空)에 대한 4교의 견해는 차별된다. 첫째, 4교 중 장·통 2교는 공(空)·가(假)·중(中) 3제(諦)를 밝히지 않고 일체법이 모두 허환(虛幻)한 것으로 관(觀)하여 이 공(空)에 따라서 궁극적

가 각각 다르다. 막힌 곳이 장벽은 아니므로 색이 곧 공이고, 통하는 곳이 허공은 아니므로 공이 곧 색이다. 막힌 곳과 통하는 곳이 같은 종류이고 색이 장벽도 아니고 허공도 아니라면,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 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마음과 색이 본래 같다’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원융(圓融)한 다음 항포(行布)를 행한다.³⁾

色卽是空，空卽是色者，四教(藏通別圓)菩薩，所見各別。礙處非牆壁，則色卽是空；通處勿虛空，則空卽是色耶。礙處通處一般，是色非牆壁，勿虛空，則色卽是空，空卽是色也。故若人如是解云云。此圓融後行布也。

도리로 이끌기 때문에 오로지 공만 알고 불공(不空)은 모르기 때문에 단공(但空)이라 한다. 반면에 별·원 2교에서 세운 공은 3제에 상즉(相卽)하는 공이므로 공을 알 뿐만 아니라 불공도 겸하여 알아서 불공 그대로 중도(中道)가 된다. 이것을 가리켜 부단공(不但空)이라 한다. 둘째, 장·통 2교에 대하여 말하자면 장교에서 해석하는 석공관(析空觀)이 단공이며, 통교에서 해석하는 체공관(體空觀)은 부단공이다.

- 3) 화엄종(華嚴宗)에서 수행의 계위(階位)를 두 가지 문으로 나눈 교설. 원융문은 수행의 처음과 마지막이 조금도 차이가 없이 정각을 이루는 것이다. 60권본 『華嚴經』 권8 大9 p.449c14에 “처음으로 불도를 추구하고자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곧 정각(正覺)을 이룬다.”(初發心時，便成正覺)라 한 말이 그것이다. 반면, 처음부터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서 궁극의 불과(佛果)에 이르는 것은 항포문이라 한다.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차제에 따라 수행하는 항포문이다. 곧 10신·10해·10행·10회향·10지 등을 모두 성취한 다음에야 비로소 불지(佛地)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미소한 데서부터 현저하게 큰 것에 이르기까지 수행의 계위가 점차로 높아지는 것이다. 둘째는 원융하게 서로 포섭하는 문이다. 곧 하나의 계위에 다른 모든 전후의 계위가 포섭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계위는 성취된 상태로써 모두 불지에 이른 것이다.”(『華嚴經探玄記』 권1 大35 p.108c4. 此亦二種。一，次第行布門，謂十信十解十行十迴向十地滿後，方至佛地。從微至著，階位漸次。二，圓融相攝門，謂一位中卽攝一切前後諸位，是故，一一位滿，皆至佛地。) 『華嚴經疏』 권1 大35 p.504b18 참조.

장로종색(長蘆宗蹟)의 거

“산승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옹색하게 막힌 곳이 장벽이고 통하는 곳은 허공이다. 만일 이렇게 이해한다면 해는 바다의 동쪽에서 뜨리라.”⁴⁾

長蘆蹟, 舉此話云, “山僧卽不然. 壅處是牆壁, 通處是虛空. 若能如是會, 日出海門東.”

[설화]

공이 곧 색이라는 뜻이다.

長蘆：空卽色也.

회당조심(晦堂祖心)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불자(拂子)가 곧 색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마음일까? 영리한 사람이라면 내가 제기한 말을 듣자마자 담 너머 빨을 보고 곧바로 그것이 소라고 아는 것과 같을 것이다. 반대로 분별하며 헤아린다면 흰 구름 너머 천리만리의 거리로 멀어질 것이다.”⁵⁾

4) ‘막힌 곳이 장벽이 아니다’라는 장사의 구절을 역으로 제시하여 ‘막힌 곳이 장벽이다’라고 했지만, 이 두 구절 모두 결정된 명제는 아니다. 두 선사 모두 시비(是非)를 판별할 틈이 없는 구절을 다른 형식으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 구절들은 장벽이라고 포착하려 하면 잡히지 않고, 반대로 장벽이 아니라고 물리치면 눈앞에 나타나는 화두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5) 분별의 매개 없이 눈앞에 드러난 것에서 곧바로 본분사(本分事)를 알아차리는 방식을 말한다. “마치 산 너머 연기를 보자마자 그곳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고, 담 너머 빨을 보고 곧바로 그것이 소라고 아는 것과 같다. 만약 오로지 범주[數]

晦堂心, 上堂, 舉此話云, “拂子是色, 那箇是心? 靈利漢, 才聞
舉着, 隔牆見角, 早知是牛. 更若擬議思量, 白雲千里萬里.”

[설화]

색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다.

晦堂: 見色便見心.

를 따르고 개념[名]에서 찾으려 깊고 미묘한 이치를 구하려고만 한다면,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주변에 나타난 본분사[大事]를 잃어버릴 것이다.”(『圓悟語
錄』 권10 大47 p.757a10. 如隔山見煙, 早知是火; 隔牆見角, 早知是牛. 若要只管隨數逐
名, 求玄覓妙, 則喪却自己腳跟下大事.)



507칙 甘贊心字 감지심자



507칙 감지심자 甘贄心字

[본칙]

암자에 주석하는 어떤 스님이 생활용품을 시주¹⁾ 받으러 왔을 때 감지행자²⁾가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하면 보시하겠습니다”라 말하고, 마음심(心) 자를 써놓고 물었다. “이것은 무슨 글자입니까?” “심 자입니다.” 감지가 이번에는 자신의 처에게 문자 처 역시 “심 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감지가 “저의 처[山妻]도 암자에 주석할 만하군요”라고 말했다. 이에 그 스님이 아무 말이 없었고, 감지 또한 보시하지 않았다.

甘贄行者, 因有住庵僧來, 緣化什物曰, “若道得卽施.” 乃書心字問, “是什麼字?” 僧云, “心字.” 贄却問其妻, 妻云, “心字.” 贄云, “山妻亦合住庵.” 僧無語, 贄亦無施.

[설화]

마음 심 자를 써놓고 무슨 글자인지 물은 것 : (그 스님이) 마음 심 자를 쓴 까닭

-
- 1) 연화(緣化), 법연권화(法緣勸化)의 줄임말. 법연권화를 준 것으로부터 얻는 시주물. 법연은 불법을 듣는 인연, 권화는 권하여 교화함 또는 재물을 희사하여 불교와 인연을 맺을 것을 권하는 것을 뜻한다.
 - 2) 甘贄行者. 생물연대 미상. 남전보원(南泉普願 748~834)의 제자로 지주(池州)에 살았으며 암두전활(巖頭全豁)과 설봉의존(雪峰義存)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 분명히 있다고 오인할 것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건추를 들거나 불자(拂子)를 곳곳이 세우는 행위와 똑같은 의식일까? 비록 말은 다르게 하더라도 지향하는 의도는 동일하다.³⁾

그스님이 '마음 심 자'라 대답한 말 : 사실(그 글자가 마음 心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대답한 말일까? 아니다. 마음 심 자에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 오인한 것이다.

감지가 이번에는 자신의 처에게 ~ 보시하지 않았다 : 그 스님을 점검하기 위하여 속인 것이다. 그런데 그 스님은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았을 뿐이다. 만일 안목을 갖추고서 그렇게 말했다면 감지는 틀림없이 기쁜 마음⁴⁾으로 그를 맞이했을 것이다.

저의 처(山妻) : 산(山)이 간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많은 덕을 가지고 있으므로 산처라 한다. 또는 양홍의 처⁵⁾를 가리켜 산처라 하는데, 산중에 살기 때문에 산처라 한다.

書心字問是什麼字者, 認着所以書心字義不無耶? 拈槌豎拂一般耶? 言雖別, 意則同也. 僧云心字者, 據實支對耶? 認著

3) 감지는 특별한 뜻 없이 아무 글자나 써놓았겠지만,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말이다. 아마도 그 스님은 심(心) 자 자체에 무슨 의미가 틀림없이 있다고 오인할 것이라는 뜻이 은근히 드러난다.

4) 청안(靑眼). 상대를 만나 기뻐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의미가 확장되어 마음을 알아주는 벼를 비유하기도 한다. 남을 경시하는 백안(白眼)과 상대되는 말이다.

5) 양홍처(梁鴻妻). 동한(東漢) 때 양홍(梁鴻)의 처인 맹광(孟光)을 가리킨다. 외모는 추했으나 어진 마음으로 남편에게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양홍도 남편으로서 서의 예의와 도리를 지켰으므로 양홍을 현부(賢夫)라 하고, 양홍처를 현처(賢妻)라 한다. 『後漢書』 「逸民傳」 「梁鴻」 참조.

也. 贊却問其妻云云者, 謾這僧也. 但這僧不具眼故謾耳. 若具眼伊麼道, 甘贊必然青眼相見. 山妻者, 妻有山藏之德, 故云山妻. 又梁鴻妻, 謂之山妻, 謂居山中, 故曰山妻.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염

“이러한 견해로 암자에 주석한다면 어찌 남들을 몹시 어리석게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그는 한낱 속한에게 패한 것이다. 감지가 마음 심 자를 써놓고 ‘이것은 무슨 글자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에게 ‘이것은 바로 당신 할아버지의 이름인데 그것도 모르는가?’라고 대답해 주었어야 하리라. 감지가 만약 본분을 깨달은 자라면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이했을 것이다.”

法眞一拈“伊麼住庵, 豈不鈍置殺人? 被箇俗漢折倒. 他書心字問, ‘是什麼字?’ 只向道, ‘是汝祖諱也不識?’ 甘贊若是箇漢, 必然青眼相看.”

[설화]

이것은 바로 당신 할아버지의 이름인데 그것도 모르는가 : 할아버지 이름으로 안다면 더 이상 물어볼 일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그 스님이 마음 심 자를 오인하였기에 감지가 그렇게 말했던 것일 뿐이다. 만약 이렇게 대답할 줄만 알았다면 반드시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法眞：是汝祖諱云云者, 知是祖諱, 則更無餘事也. 只認著故, 甘贊伊麼道. 若解伊麼道, 必然青眼相見也.



508칙 秘魔叔却 비마차각



508칙 비마차각 秘魔杈却

[본칙]

오대산의 비마암(秘魔崑)화상은 항상 나무집게 하나를 지니고 있다가 학인들이 찾아와서 절을 하는 순간 바로 목을 집으면서 말했다. “어떤 마구니가 그대를 출가하게 했으며, 어떤 마구니가 그대를 수행하도록 하였는가? 제대로 말해도 집어서 죽일 것이요, 말하지 못해도 집어서 죽일 것이다.¹⁾ 빨리 말하라, 빨리 말하라!” 그때 괘산²⁾이 와서 비마암의 품 안에 뛰어들자 비마암이 그의 등을 세 번 문질러 주었다. 괘산이 품에서 뛰어나가 손을 이마에 긁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삼천 리 밖에 있던 나를 속였구나.”³⁾

五臺山，秘魔崑和尚，常持一木杈，每見僧來禮拜，卽杈却頸云，“那箇魔魅，教汝出家；那個魔魅，教汝行脚？道得也，杈下死；道不得也，杈下死。速道，速道！”時有霍山來，跳入懷中，秘魔於背上撫三下。霍山跳出斫手曰，“三千里外賺我來。”

-
- 1)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도록 설정한 것이 이 공간에서 비마암의 핵심적 기틀이다.
 - 2) 霍山, 양산혜적(仰山慧寂)의 제자인 괘산경통(霍山景通). 『景德傳燈錄』 권12 大 51 p.293c18 참조.
 - 3) 삼천 리 밖에 있던 자신을 속여 이곳까지 오게 만들었다는 뜻.

[설화]

목을 집으면서 ~ 그대를 수행하도록 하였는가 : 오늘날 출가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이 모두 마구니가 그렇게 하도록 시킨 결과라는 뜻이다.

제대로 말해도 집어서 죽일 것이요 ~ 죽일 것이다 : 말하거나 말을 못하는 것은 말과 침묵이니, 말해도 착각이요 침묵해도 착각이라는 뜻인가? 제대로 말을 할 줄 알거나 제대로 말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니, 비록 제대로 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집어서 죽이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다.

빨리 말하라, 빨리 말하라 : 정면으로 달려든 것이다.

품 안에 뛰어들었다 : 비마음이 대응하는 방식을 살핀 것이니, 그 의중이 제대로 말을 하는 것 같거나 그렇지 않거나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는 뜻이다.

등을 세 번 문질러 주었다 : 하나하나가 모두 안착하는 도리이니, 고정된 태도를 지니지도 말고 반드시 그러하리라고 생각하지도 말라⁴⁾는 뜻이다.

품에서 뛰어나가다 : 이 또한 본래의 의중은 아니다.

손을 이마에 긁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 삼천 리 밖을 바라보는 동작이다.

삼천 리 밖에 있던 나를 속였구나 : 삼천 리 안에 있을 때도 삼천 리 밖에 있는 것과 흡사했으니, 이것이 ‘나를 속였다’는 뜻이다.

权却頸云那箇魔魅云云者, 今日出家行脚, 皆是魔魅所使也.
道得也权下死云云者, 道得道不得, 語默, 則語也錯, 默也錯
耶? 解道得不解道得也, 雖解道得, 亦未免权下死也. 速道速

4) 무고무필(毋固毋必), 절대적 태도를 지니지 말고 상황에 적절하게 변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 『論語』 「子罕」에 나오는 말이다.

道者，正面而去也。跳入懷中者，看他支對，其意似道得道不得，有什麼過？於背上撫三下者，一一安着，毋固毋必也。跳出者，亦不是本意也。斫手者，三千里外望見也。三千里外云云者，在三千里內，似乎在三千里外，是賺我也。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나무집계를 항상 손바닥 안에 들고 있으니,
 오가는 그 누가 이 걸출한 기틀과 대적할까?
 곽산이 품 안에 뛰어 들어가 편히 앉았으니,
 손 굿고 멀리 바라본들 어떻게 살아서 돌아갈까?

大覺璉頌，“又子常安掌內持，往來誰敢觸雄機？霍山跳入懷中坐，斫手如何得活歸？”

[설화]

곽산이 비록 그렇게 하긴 했지만 비마암이 설정한 기틀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大覺：霍山雖然伊麼，不出秘魔圈櫝。

5) 권케(圈櫝). 상대를 유인하여 시험하기 위하여 일정한 법도와 범위를 정해 놓고 설정하는 책략으로서 일종의 함정이다. 제대로 말해도 죽고 말하지 못해도 죽는 바로 그 기틀을 말한다. ‘圈櫝’·‘圈圓’·‘櫝櫝’ 등으로도 쓴다.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

스스로 용 베는 칼 쥐고 있다고 자랑하더니,
진짜 용을 만나서는 어떻게도 하지 못했다네.
마치 장군이 공연히 전투를 모색했지만,
아무 공도 못 세우고 헛되이 병력만 동원한 격이로다.

海印信頌, “自誇獨握誅龍劍, 及遇眞龍不奈何. 也似將軍空索戰, 無功虛枉動干戈.”

[설화]

곽산이 비마암에게 이겼다는 말이니, 곽산과 마주치고서는 비마암이 어떻게도 해 볼 도리가 없었다는 뜻이다.

海印：霍山得勝秘魔，遇霍山無如之何.

황룡혜남(黃龍慧南)의 송

삼촌과 조카가 만나 서로 의심하지 않더니,
결국 등을 문질러 어리석게 보였다네.
고개 돌려 남들이 비웃지 않을까 염려하며,
천 리 밖에서 나를 속여 오게 했다고 하네.

黃龍南頌, “叔姪相逢兩不猜, 到頭撫背似癡顛. 回首恐人生怪笑, 報云千里賺余來.”

불타덕손(佛陀德遜)의 송

대단히 큰 간과 심장을 가진 바로 그 비마암,
나무집계를 들고 바위 아래 웅크리고 앉았네.
곽산이 힐끗 보고 그의 진실한 뜻을 알았으니,
마음 아는 벗 아니라면 누가 관문 통과했으랴!

佛陀遜頌, “大膽麤心是秘魔, 擎杈崑下坐盤陀. 霍山一見知端的, 不是知音孰敢過!”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손안에 집계를 들고 있으니 누가 함께하랴?
행각하던 학인들 왕왕 헛걸음하고 돌아가네.
대선불⁶⁾이 그 품에 안겨 쉬면서,
삼천 리 나그네 길 나를 오도록 속였다 하네.

法眞一頌, “手裡擎叉孰可陪? 行僧往往只空迴. 大禪佛向懷中臥, 客路三千賺我來.”

6) 大禪佛. 일반적으로 탁월한 선 수행자를 말하지만, 그런 뜻에서 붙여진 곽산의 호이기도 하다. “대선불: 선종에는 두 명의 대선불이 있다. 하나는 경통으로 양산의 법을 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통(智通)으로 귀종지상(歸宗智常)의 법을 이었다.”(『祖庭事苑』 권2 卍113 p.40a17. 大禪佛: 禪宗有六大禪佛. 一名景通, 嗣仰山; 一名智通, 嗣歸宗常.); 『景德傳燈錄』 권12 「霍山景通傳」 大51 p.293c22.

승천회의 송

깊고 깊은 바위굴에 안개 자욱이 깔렸는데,
그 안에서 노선사 나무집게 하나 들고 있네.
찾아오는 남자는 누구든 죽으리라 말하지만,
눈 안에 핀 헛꽃 없애주려는 뜻 누가 알리오?

承天懷頌, “深深崑穴傍煙霞, 中有禪翁持一叉. 衲子到來俱謂
死, 誰知爲去眼中花?”

숭승원공(崇勝院珙)의 송

비마의 집게가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으니,
그곳 오가던 선수행자들 죽은 듯 항복하네.
대선불이 칼 하나 들고 곧바로 들어가고서야,
비로소 항우가 오강에 도착한 줄 알리라.⁷⁾

崇勝珙頌, “秘魔叉子動家邦, 來往禪流被死降. 禪佛單刀直入
處, 始知項羽到烏江.”

7) 항우(項羽)는 한(漢)나라에 패하여 오강(烏江)에서 자결했다. 물러날 곳이 없는 사지(死地)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궤산이 그 속뜻을 간파하여 비마암이 더 이상 기량을 펼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는 비유로 쓰였다. 『史記』「項羽本紀」참조. “항우가 팽성(彭城)에 도읍지를 정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한나라가 제 후들을 해하에 모아 항우의 군사를 궤멸시키고 오강까지 추격해오자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佛祖歷代通載』권4 大49 p.503c7. 都彭城, 立五年, 漢會諸侯于垓下, 大潰破之, 追至烏江, 自刎而死矣.)

무진거사의 송

주장자 어깨에 걸쳐 메고 행각하면서,
가사를 어깨에 걸치고 집을 나섰다네.
천 리 길을 속아서 왔음을 알았으니,
어찌 손안의 집게 부러뜨리지 못하랴!

無盡居士頌, “橫擔拄杖來行脚, 偏搭袈裟去出家. 知是賺行千里路, 何妨拗折手中叉!”

지비자의 송

비마가 집게 하나를 집어 든 것,
중음이 ‘명야’ 하고 내지른 소리,⁸⁾
키질할 때 주었던 가르침,⁹⁾

8) 중읍흥은(中邑洪恩)이 학인들을 볼 때마다 손뼉을 치고 입술을 놀리면서 ‘명야, 명야!’ 하고 소리 지른 것. 이 역시 특별히 분별할 의미가 있는 소리가 아니라 일종의 ‘권케’이다. 『汾陽語錄』 권중 大47 p.611a9 참조.

9) 위산영우(滙山靈祐)가 석상경저(石霜慶諸)에게 준 가르침. “석상은 위산으로 돌아와 미두(米頭)의 소임을 맡았다. 하루는 쌀을 까부르고 있었는데, 위산이 ‘시 주물을 여기저기 버리지 마라’고 함에 석상이 ‘버리지 않았습시다’라고 말했다. 위산이 바닥에서 쌀 한 알을 줍고는 ‘그대는 버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하자 석상이 대답하지 못했다. 위산이 다시 ‘이 쌀 한 알을 가별게 여기지 마라. 백천 개의 쌀알이 모두 이 하나의 쌀알에서 생긴느니라’고 하자 석상이 ‘백천 개의 쌀알은 이 하나의 쌀알에서 생긴다면 이 한 알의 쌀은 어디서 생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위산이 꺾꺾대고 크게 웃고는 방장으로 돌아갔다.”(『五燈會元』 권5 「石霜慶諸章」 卅138 p.181b12. 回抵滙山, 爲米頭. 一日篩米次, 滙曰, ‘施主物, 莫拋撒.’ 師曰, ‘不拋撒.’ 滙於地上拾得一粒曰, ‘汝道不拋撒, 這箇是甚麼?’ 師無對, 滙又曰, ‘莫輕這一粒, 百千粒盡從這一粒生.’ 師曰, ‘百千粒從這一粒生, 未審這

주장자로 바닥을 내리쳤던 작가,¹⁰⁾

그 당시에는 모두 옳았지만,

후손들의 탄식을 자아내게 할 뿐.

知非子頌, “秘魔一叉, 中邑鳴耶, 米篩接物, 打地作家, 當時
卽是, 後嗣咄嗟.”

열재거사의 송

천 리 밖에서 언제 그대를 속인 적이 있었던가?

속이려고 내가 세 번 문질렀다니 맞지 않노라.

생김새 천한 사람이라고 가까이하지 않으니,

머리를 들이밀어 오줌통 속에 묻어야 하리라.

悅齋居士頌, “千里何曾賺汝來? 賺吾三拊不當才. 賤相好人
不肯造, 刺頭須要尿中埋.”

명초덕겸(明招德謙)의 대어¹¹⁾

“내가 당시에 그를 보았다면 말을 하고자 하지만 아직 말을 토해내지
않은 그 순간에 먼저 짐게로 한 번 집어버렸을 것이다.”

一粒從甚麼處生?’ 滄呵呵大笑, 歸方丈.)

10) 혼주타지(忻州打地)의 일화를 가리킨다. 그는 학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주장자로 땅바닥을 내리쳤을 뿐이라고 한다. 『景德傳燈錄』 권8 大51 p.261c2 참조.

11) 이하의 대어(代語)는 비마암이 “빨리 말하라”고 하였으나 대부분의 학인들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대신하여 한마디 하는 형식으로 각자의 견해를 보인 것이다. 『教外別傳』 권6 「五臺祕魔巖和尚章」 卍144 p.128a14 참조. 본서 559則 주석7) 참조.

明招代, “我當時若見伊, 欲道未道, 先與一杈.”

[설화]

비마암을 사로잡겠다는 뜻이다.

明招：捉敗秘魔.

법안의 대어

“살려 주시오, 살려 주시오.”

法眼代, “乞命, 乞命!”

법등의 대어

“목을 내밀어 보여주기만 하십시오.”

法燈代, “但引頸示之.”

[설화]

법안과 법등의 대어는 비마암을 희롱한 것이다.

法眼法燈代, 賣弄秘魔.

현각의 대어

“노인이시여, 짐계를 놓으셔야 됩니다.”

玄覺代, “老兒家, 放却叉子, 得也.”

[설화]

비마암의 수단을 수궁하지 않은 것이다.

玄覺：不肯秘魔

개선선섭(開先善暹)의 대어

“당시에 다만 ‘아이고!’ 하고 탄식하며 곧바로 나왔어야 했다.”

開先暹代, “當時但云, ‘蒼天!’ 便出.”

[설화]

비마암이 그렇게 한 까닭은 죽은 사람의 꼴이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開先：秘魔伊麼，是死漢故也.

오조사계(五祖師戒)의 평

“산승이 당시에 그 광경을 보았다면 집게를 빼앗아 재빨리 그의 목을
집어 넘어뜨리고, 횃불을 붙여 들고 그의 낮가죽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살
폈을 것이다.”

五祖戒云, “山僧, 當時若見, 奪取叉來, 蕎項叉倒, 點把火看
伊面皮厚多少.”

[설화]

비마암을 간파했다는 뜻이다.

五祖：覷破秘魔.

취암수지(翠嵒守芝)의 염

“속인 부분이 있는가? 비마암이 저 대선불〈곽산은 스스로를 대선불이라 칭했다〉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오늘 대중을 속이고 있다.”

翠嵒芝拈, “還有賺處也無? 非但賺他大禪佛〈霍山, 自稱大禪佛.〉
大愚今日, 也賺大眾上來.”

[설화]

일단 속였다면, 모두 도둑질한 사람의 마음이 불안한 것과 같다는 뜻이다.

翠巖：既是賺，皆是作賊人心虛.

해인초신의 염

“활을 당길 줄만 알았지, 화살을 쏘아 보내지는 못했다.”

海印信拈, “只解張弓, 不能放箭.”

[설화]

비마암이 처음과 끝을 일관되게 들이맞추지 못했다는 말이다.¹²⁾

海印：謂秘魔無折合也.

12) 어떻게 해도 죽는다고 설정한 처음의 ‘권궤’를 마지막까지 밀고 나가지 못했다는 뜻.



533책 德誠千尺 덕성천척



533칙 덕성천척 德誠千尺

[본칙]

화정의 뱃사공 덕성¹⁾선사가 계송을 읊었다. “천 척 뉘싯줄 곧게 드리우니, 한 물결 일 때마다 모든 물결 따라 이누나. 밤 고요하고 강물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빈 배 가득 덧없이 달빛만 싣고 돌아오노라.”²⁾

1) 德誠, 약산유엄(藥山惟嚴)의 제자. 생물연대 미상. 운암(雲巖)·도오(道吾) 등과 함께 세상을 피해 수도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약산의 종지가 후세에 전하여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각자 다른 세상에 흩어져 중생을 제도하기로 하였다. 그 뒤 덕성은 소주(蘇州: 浙江省)의 화정현(華亭縣)에서 한 척의 작은 배를 띄우고 오가는 사람들을 태워주며 그들의 인연과 기틀에 따라 법을 설하였으므로 화정선자(華亭船子) 또는 선자화상(船子和尚)이라 불렸다. 『祖堂集』 권3 「華亭和尚章」 高45 p.266b23, 『景德傳燈錄』 권14 大51 p.315b19, 『五燈會元』 권5 卍138 p.175a10 등에 전한다.

2) 이에 대한 원오극근의 문답이 있다. “학인이 물었다. ‘천 척 뉘싯줄 ~ 달빛만 싣고 돌아오노라’는 계송의 도리는 어떤 것입니까?’ ‘세 치의 뉘싯바늘을 벗어나서 좀 더 높이 착안하라!’ ‘그렇다면, 다만 돌아가지 못했을 뿐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 오히려 안개 낀 물결을 누가 다투겠냐는 뜻입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세계 전체를 한꺼번에 거두어들인 것이다.’ ‘사해(四海)에 뉘싯대 드리운 뜻은 다만 용을 낚아 올리기 위한 것일 뿐이요, 격을 벗어나 깊은 도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선지식을 찾기 위한 것인데, 누가 뛰어난 선지식입니까?’ ‘진실한 마음 하나하나이니라.’”(『圓悟語錄』 大47 p.755b2. 僧問, ‘千尺絲綸直下垂, 一波纔動萬波隨. 夜靜水寒魚不食, 滿船空載月明歸. 未審此理如何?’ 師云, ‘離鉤三寸高著眼!’ 進云, ‘怎麼則, 自是不歸, 歸便得, 五湖煙浪有誰爭?’ 師云, ‘乾坤大

華亭舡子, 德誠禪師, 偈云, “千尺絲綸直下垂, 一波才動萬波隨. 夜靜水寒魚不食, 滿舡空載月明歸.”

[설화]

전등록³⁾에 선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수주 화정의 뱃사공 덕성선사는 절개와 지조가 높고 빼어나며 도량이 남달랐다. 약산에게 인가를 받은 후로 항상 도오·운암과 도반으로서 서로 잘 교섭하고 통하였다. 약산 문하를 떠날 시기가 되자 두 도반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분명 각자 한곳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약산의 종지를 건립할 것이네만, 나는 타고난 성질이 제멋대로이고 속박을 싫어하여 단지 산수를 좋아하고 자연의 정취를 즐길 뿐 부족한 재주는 그대로 버려둘 생각이요. 훗날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을 알게 되고 영리한 좌주를 만나게 되거든 한 사람 보내주시오. 혹 다름을 가치가 있는 이라면 평생 동안 터득한 일깨움을 주어 선사의 은혜에 보답하리다.’ 마침내 도반들과 따로 헤어진 덕성선사는 수주 화정에 이르러 작은 배 하나를 띄우고 인연 따라 소일하며 사방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대하였으니, 당시 사람들은 선사의 초탈한 면모를 알지 못한 채 다만 선자화상이라 불렀다. 하루는 강가에 배를 대고 한가하게 앉았는데, 어떤 관인이 물었다. ‘당신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었나?’ 선사가 노를 킁킁 세우고 ‘알겠소?’라고 하였으나, 관원은 ‘모르겠

地一時收.’ 進云, ‘只如垂鉤四海, 只釣簞龍, 格外談玄, 爲尋知識, 誰是知識者?’ 師云, ‘赤心片片.’)

- 3) 『祖庭鉗鎚錄』 권하 卍114 p.763b2, 『頌古聯珠通集』 권17 卍115 p.207b6, 『空谷集』 6則 「夾山船子」 卍117 p.538b4, 『聯燈會要』 권19 卍136 p.749b11, 『五燈會元』 권5 卍138 p.175a10, 『五燈全書』 권9 卍140 p.329b11 등에 실려 있다. 이들 전등사서(傳燈史書)를 총칭하여 ‘전등록’이라 한다.

소'라고 하였다. '노를 저어 맑은 파도를 파 뒤집어보아도 비단잉어⁴⁾를 만나기는 어려운 법이라'고 하고, 다시 게송을 지어 읊었다. '30년을 낚시터에 눌러앉아 있었건만, 낚시바늘 끝에는 이따금 황능(黃能)⁵⁾〈음은 뱀. 작은 물고기〉만 걸려들 뿐이로세. 비단잉어는 잡지도 못하고 헛수고만 하였으니, 낚시줄 거두어 돌아가리.'"

천 척 낚시줄 끝게 드리우니 ~ 신고 돌아오노라 : 30년 동안 바닷가에 노닐었으나, 맑은 물에 고기 드러나도 낚시바늘 물지 않노라. 낚시대 모두 잘라내어 다시 대나무 심은 뒤, 지난 공로 아까워하지 않고 곧바로 쉬노라.⁶⁾ 이 게송은 장지화상⁷⁾의 어부사 10수 중 한 수이다.

천 척 낚시줄 : 비단잉어는 깊디깊은 곳에 머물므로 천 척의 낚시줄을 드리워야 하니, 꼬리 붉은 비단잉어를 잡기 위해선 반드시 천 척의 낚시줄을 드리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무위(無爲)의 큰 가르침⁸⁾이다.

-
- 4) 금린(錦鱗). 고운 비늘의 살진 물고기. 아름다운 물고기 또는 물고기를 아름답게 일컫는 말로서 출중한 수행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 범린(凡鱗)과 상대되는 말이다.
 - 5) 전설상의 짐승. 『述異記』 권상에 따르면, '육지에 사는 것은 웅(熊), 물에 사는 것은 능(能)'이라 한다.
 - 6) 『五燈會元』 권5 「德誠章」 卍138 p.175b4.
 - 7) 張志和尚. '張志和'의 잘못으로 추정된다.
 - 8) 백운경한(白雲景閑)에게 동일한 취지의 글이 보인다. "무위(無爲)라는 큰 교화의 문을 활짝 열어 둔 것은 금린(金鱗)이 그물을 뚫고 나오기를 바랐던 것이다. 물이 차서 고기가 낚시밥을 물지 않을 것이라 생각지 말 것이니, 이제 낚아 올려 배에 가득 채우고 돌아오노라. 옛날에도 허공을 빈틈없이 채웠고, 지금도 허공을 가득히 채우고 있네. 설령 빈틈없이 허공을 꽉 채웠다고 해도 살펴보면 허공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 (『白雲語錄』 「答鄭僕宰臣詩韻」 韓6 p.662b15. 無爲大化門大開, 意在金鱗透網來. 莫道水寒魚不食, 如今釣得滿船廻. 古也逼塞虛空, 今也逼塞虛空, 縱然逼塞滿虛空, 看時不見如虛空.)

한 물결 일 때마다 모든 물결 따라이누나 : 낚싯대를 드리워 물결이 인 것인가?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인 것인가? ‘한 생각이 일어나자마자 5음 3계가 갖추
어진다’⁹⁾는 말과 같으니, 생사의 파도가 거세게 일며 그치지 않는다는 뜻
이다.

밤 고요하고 강물 차가워 고기 물지 않으니 : 제도할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뜻
이다.

傳燈錄云, “秀州, 華亭船子, 德誠禪師, 節操高邁, 度量不群. 自印心於藥山, 常與道吾雲巖, 爲同道交. 泊離藥山, 乃謂二同志曰, ‘公等應各據一方, 建立藥山宗旨, 予率性疎野, 唯好山水樂情, 自遣無所能也. 他後, 知我所止之處, 若遇剎利座主, 指一人來. 或堪雕琢, 將授平生所得, 以報先師之恩.’ 遂分携至秀州華亭, 泛一小舟, 隨緣度日, 以接四方來往之者, 時人莫知其高蹈, 因號船子和尚. 一日, 泊船岸邊閑坐, 有官人問, ‘如何是日用事?’ 師豎起橈子曰, ‘會麼?’ 官人曰, ‘不會.’ 師曰, ‘棹撥清波, 錦鱗罕遇.’ 師有偈曰, ‘三十年來坐釣臺, 鉤頭往往得黃能.〈音來, 小獸也.〉錦鱗不遇空勞力, 收取絲綸歸去來.’” 千尺絲綸直下垂云云, 三十年來海上遊, 水清魚現不吞鉤. 釣竿斫盡重栽竹, 不計功勞得便休. 此則張志和尚漁父詞十首之一也. 千尺絲綸者, 錦鱗正在深深處, 千尺絲綸也須垂, 則若也釣得錦鱗鱗尾, 須是千尺絲綸. 是無爲大化也. 一波才動萬波隨者, 因釣而起波耶? 因風而起波也? 如云一念才生,

9) “한 찰나 마음이 움직이면 5음이 함께 일어나며, 5음이 일어나는 가운데 50악(惡)이 갖추어져 있다.”(『金剛三昧經』「本覺利品」大9 p.369a13. 一念心動五陰俱生, 五陰生中具五十惡.)

便具五陰三界. 生死波瀾, 洶湧不停也. 夜靜水寒云云者, 無一衆生可度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염

“저 자가 애를 쓰긴 했지만 남은 공이 아무것도 없구나. 만약 운문이라면 ‘한 구절로 딱 들어맞는 말이 영원토록 나귀를 매어두는 말뚝과 같은 속박이 되니, 어떻게 해야 이 허물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¹⁰⁾”라고 했을 것이다.”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물이 차서 물고기가 물지 않는다고 하지 마라. 지금 님아서 한 배 가득 싣고 돌아오노라.”

雪竇顯拈, “者漢, 勞而無功. 忽若雲門道, ‘一句合頭語, 萬劫繫驢橛, 又作麼生免此過?’”良久云, “莫謂水寒魚不食, 如今釣得滿船歸.”

- 10) 『雲門廣錄』 권중 大47 p.562a7에 운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옛사람의 말로 나온다. 『祖庭事苑』에 옛사람이란 이 공안의 주인공인 덕성선자라고 했다. “한 구절로 딱 들어맞는 말: 살펴보면 운문의 대어(代語)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구절로 딱 들어맞는 말은 영원토록 나귀를 묶어두는 말뚝과 같은 속박이다」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밝혀야 이 잘못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여기서 옛사람은 선자화상을 가리킨다. 선자가 협산에게 물었다. ‘그대는 지금껏 어디서 배웠는가?’ ‘귀와 눈으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경계입니다.’ 선자가 웃으며 말했다. ‘한 구절로 딱 들어맞는 말은 영원토록 나귀를 묶어두는 말뚝과 같은 속박이다.’ 여기서 설두가 ‘만약 운문이라면 「한 구절로 딱 들어맞는 말」이라 운운했지만, 이는 선자의 말을 인용한 것이며 운문 자신의 말은 아니다.’(『祖庭事苑』 권2 卍113 p.41a9. 一句合頭語: 按雲門垂代, ‘古人道, 「一句合頭語, 萬劫繫驢橛.」作麼明得免此過?’ 古人謂船子也. 船子問夾山, ‘你何處學得來?’ 山曰, ‘非耳目之所到.’ 船子笑曰, ‘一句合頭語, 萬劫繫驢橛.’ 今雪竇云, ‘忽若雲門道, 「一句合頭語.」’ 此船子語, 非雲門也.)

[설화]

물이 차서 ~ 싯고 돌아오노라 : 반드시 싯훈¹¹⁾에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雪竇：莫謂水寒云云者，必借新熏也.

자수회심(慈受懷深)의 소참

이 공안과 더불어 설두가 ‘안타깝구나! 저 자가 애를 쓰긴 했지만 남은 공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한 말을 제기하고 말했다. “나도 게송 한 수를 지어보이겠노라. ‘삿갓에 도롱이 걸치고 일엽편주 저어가니, 거센 바람 물결치는 파도가 수심에 젖게 하네. 애써 뉘싯줄에 맛 좋은 미끼 달아 던져 보지만, 남김없이 휩쓸고 지나는 파도는 그칠 줄 모르네.’ 문득 한 남승이 나아와서는 ‘스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 또한 애는 쓰셨으되 아무 공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지금 이후로는 다른 사람의 뜻을 알아채도 갈대꽃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고개 돌려 보지 마라’고 말해 줄 것이다.”

慈受，小叅，舉此話，連舉雪竇拈，‘可惜！者漢，勞而無功.’ 師云，“慧林，亦有一頌. ‘雨笠煙蓑一葉舟，黑風白浪使人愁. 强將絲釣拋香餌，歷盡波濤未肯休.’ 忽有箇衲僧出來云，‘和尚恁麼道，也是勞而無功.’ 山僧，却向他道，‘自今已後知人意，深入蘆花不轉頭.’”

[설화]

삿갓에 도롱이 걸치고 ~ 파도는 그칠 줄 모르네 : 설두의 평을 표현한 게송이다.

11) 新熏, 본분에만 따르지 말고 반드시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新熏]에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이후로는 ~ 고개 돌려 보지 마라 : 선자 덕성의 뜻을 표현한 말이다.¹²⁾

이 평가는 차별의 세계인 금시(今時)와 평등의 경지인 본분(本分)이 결
림 없이 자유자재함을 뜻한다.

慈受：雨笠至肯休者，雪竇意也。自今已後云云者，船子意也。
此則今時本分自在也。

-
- 12) 화정선자가 마지막에 물속으로 모습을 감춤으로써 이별하며 뒤돌아보는 협산
에게 돌아볼 그 무엇도 없는 몰종적의 도리를 철저하게 보여 준 다음 일화에서
비롯한 말이다. “마침내 (화정선자가 협산에게) 당부의 말을 했다. ‘그대는 앞으
로 마땅히 몸을 숨긴 곳에는 종적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종적이 없는 곳에는 몸
을 숨기지 마라. 내가 약산 문하에서 수행했던 20년 동안 단지 이 일을 밝혔을
뿐이다. 그대는 이제 도리를 알았으니 앞으로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상황과 취
락에 머물지 말고 깊은 산속 가운데 수행하는 생활 환경에서 하나 중 나머지 반
을 찾아서 있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협산이 작별 인사를 올린 뒤 떠나가면서
자주 뒤돌아보자 화정선자가 ‘사리여! 사리여!’ 하고 불렀다. 협산이 고개를 돌
리자 화정선자가 노를 곳곳이 세우고 ‘그대는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줄 생
각하는구나’라 하고 마침내 배를 뒤집어엎고 물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떠났다.”
(『正法眼藏』 권4 卍118 p.84a9. 遂囑曰, ‘汝向去直須藏身處沒蹤跡, 沒蹤跡處莫藏身.
吾二十年在藥山, 只明斯事. 汝今既得, 他後不得住城隍聚落, 但向深山裏, 纓頭邊, 覓
取一箇半箇接續, 無令斷絕.’ 夾山乃辭, 行頻頻回顧, 船子遂喚, ‘闍梨! 闍梨!’ 夾山回首,
船子豎起橈云, ‘汝將謂別有.’ 乃覆船入水而逝.)



553책 末山男女 말산남녀



553칙 말산남녀 末山男女

[본칙]

말산(末山)의 비구니 요연(了然)¹⁾에게 관계지한(灌溪志閑)화상이 물었다. “말산의 진실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정상(頂上)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말산의 주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남자와 여자로 차별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한이 한 소리 내지르면서 말했다. “왜 변하지 않습니까?” “신(神)도 아니고 귀(鬼)도 아니니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지한이 이 말에 굴복하여 그 밑에서 3년 동안 원두(園頭)²⁾ 소임을 맡아 보았다.

末山尼了然，因灌溪閑和尚問，“如何是末山？”然云，“不露頂。”閑云，“如何是末山主？”然云，“非男女相。”閑乃喝云，“何不變去？”然云，“不是神，不是鬼，變个什麼？”閑於是伏膺，作園頭三載。

[설화]

‘말산’은 경계이니 주인 중의 주인의 지위이며, ‘말산의 주인’은 경계 속

-
- 1) 생몰연대 미상. 홍주(洪州) 출신으로 고안대우(高安大愚)의 제자이다.筠州) 말산에서 주석했다.
 - 2) 선원의 채원(菜園)을 경작하여 대중에게 채소를 공양하는 소임.

의 사람이니 주인 중의 주인이다.³⁾

정상(頂上)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 아무도 정상이 드러난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니, 구름이 뿔뿔하게 모여 있기 때문이다.

남자와 여자로 차별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 편위(偏位)나 정위(正位)⁴⁾와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한 소리 내지르면서 ~ 왜 변하지 않습니까 : 관계가 임제의 제자이기는 하나 터득한 경지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신(神)도 아니고 ~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 : 본래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천석(泉石)은 “변하지 않음이여! 편위와 정위를 멀리 넘어섰구나. 한 소리 내지름이여! 강함과 부드러움을 번갈아 씹먹는구나. 괴겁(壞劫)의 불⁵⁾이 털끝까지 모두 태워도 청산은 옛날 그대로 흰 구름 끄트머리에 솟아 있으리라⁶⁾”고 해설하였다.

지한이 이 말에 ~ 소임을 맡아 보았다 : 이 말에서 또한 얻은 것이 있었다는 뜻

3) 조동종(曹洞宗)의 사빈주(四賓主) 중에서 ‘주인 중의 주인[主中主]’을 가지고 본 칙을 설명한 것이다.

4) 조동종(曹洞宗)의 편정오위설(偏正五位說)에 따르는 용어. 정위는 본체·무차별·평등·정(靜)·이(理) 등의 음적인 양상을, 편위는 작용·차별·동(動)·색(色)·사(事) 등의 생멸 변화하는 양적인 양상을 각각 가리킨다.

5) 겁화(劫火). ㉔kalpāni, ㉕kappaggi. 우주의 생멸과정인 사겁(성겁·주겁·괴겁·공겁) 중 괴겁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대한 불. 세계를 모조리 태우고 파괴시킨다고 한다.

6) ‘劫火洞然毫末盡, 青山依舊白雲邊.’ 차별과 무차별 그 어느 편에도 얽매이지 않고 발휘되는 본분의 자유자재한 작용을 말한다. 여러 선적에 나오는 상용구인데, 대개 마지막 글자 ‘邊’이 ‘中’으로 되어 있다. 『圓悟語錄』 권2 大47 p.718c23, 『續傳燈錄』 권14 「妙覺願傳」 大51 p.562b17 등 참조.

이다. 이미 임제의 자손으로서 대용(大用)을 얻었다면 곧 궁극적인 구절⁷⁾을 알아차려 더 이상 할 일이 남아 있지 않거늘 여기에 이르러 굴복한 것은 어째서일까? 이 까닭은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관계는 처음에 임제에게 불법의 근본적인 뜻을 물었다가 꼼짝없이 붙들려서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말했다.⁸⁾ 이것은 단지 임제의 체(體)를 얻은 계기일 뿐이며, 이후에 반드시 그 용(用)을 얻게 되는 공간이 하나 있으므로 임제의 뜻을 모두 얻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가령 백장이 마조가 불자를 선상에 걸어 두거나 불자를 곳곳이 세운 것에서 근본적인 체와 용을 깨닫지 못하고⁹⁾ 단지 파정(把定)과 방행(放行)¹⁰⁾을 알아차리는 데 불과했던 것과 같았다.

7) 말후구(末後句), 본서 1則 주석24)·26) 참조.

8) “관계지한이 임제를 처음으로 참문하러 방장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임제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 비틀어 쥐었다. 관계가 바로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라고 말하자 밀치며 놓아주었다.”(『正法眼藏』 권1상 卍118 p.12b4. 灌溪初參臨濟, 纔入門, 濟驚胸擒住. 灌溪便云, ‘領領.’ 濟便托開.)

9) 대체대용(大體大用). 그대로의 작용[卽]과 떠난 작용[離]에 모두 의문을 붙여 해결할 단서를 빼앗는 마조의 기틀이다. 그것에 이어진 할(喝)은 눈과 귀를 멀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떤 분별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히려 화두의 본질이 실현된 경계였다는 것을 백장은 그 뒤에 알게 된다. “백장이 드디어 마조를 다시 찾아가 법을 물은 인연에 대해 말했다. ‘마조께서 내가 오는 것을 보고 불자를 곳곳이 세우기에 내가 「이것 그대로의 작용입니까? 이것을 떠난 작용입니까?」라고 물었다. 마조께서 불자를 선상 모서리에 걸쳐 놓고 잠자코 있다가 내게 「그대는 다음에 입술을 쓸데없이 나불거리며 어떻게 남들을 가르치겠는가?」라고 물었다. 내가 그 불자를 가져다 곳곳이 세우자 마조께서 「이것 그대로의 작용인가? 이것을 떠난 작용인가?」라고 하였다. 내가 불자를 가져다가 선상의 모서리에 걸어 놓자 마조께서 한 번 크게 할(喝)을 하여 나는 당시에 삼 일 동안 귀가 먹었다.”(『碧巖錄』 11則 「評唱」 大48 p.151c2. 丈遂舉再參馬祖因緣, ‘祖見我來, 便豎起拂子, 我問云, 「卽此用? 離此用?」 祖遂掛拂子於禪床角, 良久, 祖却問我 「汝已後鼓兩片皮, 如何爲人?」 我取拂子豎起, 祖云, 「卽此用? 離此用?」 我將拂子掛禪床角, 祖振威一喝, 我當時直得三日耳聾.」) 본서 181則 참조.

10) 파정과 방행. 본서 1則 주석37) 참조.

그러므로 관계가 말산에 이르러 “제대로 대답을 하면 이곳에 머물 것입니다”라 하고, 다시 할을 하면서 “왜 변하지 않습니까?”라 말한 것은 임제의 용(用)을 얻은 것을 가지고 스스로 궁극적인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마치 등불 그림자 안에서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산에게 “왜 일산을 쓰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대답하지 못하여 마침내 굴복했고, 원두 소임 3년을 살면서 말산의 뜻을 모두 얻고 비로소 임제의 수단이 근본적인 체와 용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마치 흥화(興化)¹¹⁾가 삼성(三聖)의 회하에서 두 번의 할(喝)을 써먹고 또 대각(大覺)의 회하에 이르러 그에 의해 가사가 벗겨진 채 매서운 일돈(一頓)의 방¹²⁾을 얻어맞고서야 임제의 종지를 깨닫고 적손(嫡孫)이 되었던 것과 같다.¹³⁾

11) 흥화존장(興化存獎 830~888). 산동성 출신, 속성은 공(孔)씨. 임제의 제자. 임제가 입적한 후에는 삼성혜연(三聖慧然) 회하에서 수좌로 있었다. 위부(魏府)의 흥화사(興化寺)에서 임제종풍을 크게 선양했다.

12) 일돈방(一頓棒). 일돈은 죄인을 다스리는 태형(笞刑)을 세는 단위로 20방이 1돈이다. 선종에서는 글자 뜻 그대로 20대를 때렸다는 뜻이 아니라 시의적절하게 제대로 때리거나 맞았다는 의미로 주로 쓰인다.

13) 삼성과 대각은 모두 임제의 제자로서 흥화의 사형이 된다. 이 부분의 서술 내용은 전해오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르다. 할을 두 번 내지른 것도 대각에게 한 것이고 가사를 벗고 맞은 것도 대각에게 맞은 것이다. “흥화존장이 원주로 있을 때 어느 날 대각선사가 물었다. ‘그대가 「남방을 한번 돌아다니고 왔는데, 주장자로 여기저기 파 뒤집어 보았으나 불법을 이해한 사람을 한 명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어왔다. 그대는 무슨 도리에 의지해 이런 말을 하는가?’ 흥화가 할을 내지르자 대각은 바로 때렸다. 흥화가 다시 할을 내지르자 대각도 다시 때렸다. 다음 날 흥화가 불당을 지나는 것을 보고서 대각이 불렀다. ‘원주! 나는 지금 그대가 어제 내지른 할의 의미를 모르겠는데, 나에게 말해 주게.’ ‘제가 평생토록 삼성에게 배운 것이 화상에 의해 모두 꺾어버렸습니다. 제게 안락한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이 눈먼 나귀야! 여기 와서 큰 실수를 했으니 가사를 벗고 뼈저리게 일돈방을 맞아야겠구나.’ 흥화는 이 말에 종지를 깨쳤다.”(『景德傳燈錄』 권12 「魏府大覺傳」 大51 p.295a15. 興化存獎禪師爲院宰時, 師

그러므로 관계는 일가를 이룬 다음에 대중에게 “말산의 어머니에게서 한 국자를 얻었고, 임제 아버지로부터 한 국자를 얻었다”¹⁴⁾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어찌 말산으로부터 얻은 한 국자가 임제에게 꿈쩍없이 붙들려 깨달은 것을 더욱 분명하게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굴복했다[伏膺]’는 말은 머리를 가슴[膺]까지 굽혔다[伏]는 뜻일까? 아니다. 복(伏)은 복(服)과 같은 말로 복종[服]하며 그 뜻을 받아들였음[膺]을 나타낸다.

末山者，境，是主中主位也；末山主者，境中人，是主中主也。不露頂者，無見頂露，雲攢急也。非男女相者，偏正不干也。乃喝云云者，灌溪是臨濟之子，所得不同故也。不是神云云者，本無轉變也。泉石云，“不變兮！迥超偏正。喝咄兮！迭用剛柔。劫火洞然毫末盡，青山依舊白雲邊。”於是伏膺云云者，於此，又有所得也。既是臨濟得大用，則會得末後句，更無後事，到此伏膺者，何也？此不可不辨。灌溪初問臨濟佛法大意，被他擒住，却道，“領領。”是只得其體。此後必有得其用地一公案，非盡得臨濟意。如百丈，於馬祖掛拂豎拂處，未悟得大體大用，只知得把定放行也。故到末山處云，“道得即住。”又喝云，“何不變去？”是得臨濟之用，自以爲究竟。然如在燈影裏行相似故，被末山道，“何不蓋却？”不能對，乃終伏膺也，作園頭三年，盡

一日問曰，‘我常聞汝道，『向南行一迴，拄杖頭，未曾撥著箇會佛法底人。』汝憑什麼道理，有此語？’興化乃喝，師便打。興化又喝，師又打。來日，興化從法堂過，師召曰，‘院主！我直下疑汝昨日行底喝，與我說來。’興化曰，‘存獎平生，於三聖處學得底，盡被和尚折倒了也。願與存獎箇安樂法門。’師曰，‘遮瞎驢！來遮裏納敗缺，卸却衲帔，待痛決一頓。’興化卽於語下，領旨。)

14) 『宏智廣錄』 권3 大48 p.32b5, 『列祖提綱錄』 권7 卍112 p.265b2 참조.

得末山意，方知臨濟手段，是大體大用。如興化在三聖處，用得兩喝，又到大覺處，被他脫下衲衣，痛打一頓，悟得臨濟宗旨，爲嫡孫也。故住後示衆云，“末山孃孃處，得一杓；臨濟爺爺處，得一杓。”末山處得一杓，豈非被臨濟擒住處悟得，更是分明也！伏膺者，首伏於膺耶？伏，服同，服而膺之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남녀로 차별된 모습이 아니니,
 있다거나 없다는 헤아림을 벗어났다.
 온갖 기미 나기 전의 경계를 뚫고서,
 삼계(三界)를 넘어섰구나.
 막히지만 통하고,¹⁵⁾
 간결하지만 딱 들어맞는다.
 소나무가 달을 머금으니 밤 풍경이 밝고,
 비 내린 개울에는 봄물이 넘실거리네.

天童覺頌，“非男女之相，出有無之量。透萬機之前，超三界之上。窮而通，簡而當。松含月兮夜寒，溪帶雨而春漲。”

15) 헤아릴 수도 없고 어떤 기미도 없이 막힌 곳에 이르러야 비로소 통한다는 뜻. 백척간두(百尺竿頭) 또는 은산철벽(銀山鐵壁)의 소식과 같다.

[설화]

‘막히지만 통한다’라고 한 앞뒤의 말은 편위와 정위가 본래의 지위를 떠난 적이 없다는 뜻이다.

天童云云, 窮而通云云者, 偏正不曾離本位.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송

말산이 구름 위로 솟은 정상을 드러내지 않으니,
예나 지금이나 우뚝 솟은 모습은 눈앞에 있도다.
또한 본래 남녀로 차별되는 상이 없다고 하니,
그대 아니었다면 불 속의 연꽃¹⁶⁾ 가려내지 못했으리.

眞淨文頌, “未山不露凌雲頂, 今古崑崙在目前. 又道本無男女相, 非君莫辨火中蓮.”

심문담분(心聞曇贇)의 송

산이 정상을 드러내지 않으니,
형상은 있으되 또렷하지 않네.
눈앞에 드러내 놓고 있는
이것은 어떤 모양인가?
문 나서도 한 올의 실조차 보이지 않더니,
눈 안 가득 흰 구름과 푸른 산이로다.

16) 화중연(火中蓮). 정상을 드러내지 않는 그대로 말산이 전하는 진실을 말한다. 본래 번뇌의 경계 속에 피는 깨달음의 꽃이라는 뜻이다.

心聞貴頌, “山不露頂, 形非有相. 覲面相呈, 是何模樣? 出門
不見一絲毫, 滿目白雲與青嶂.”

대홍보은(大洪報恩)의 거

“관계가 제방을 돌아다니던 시절에 말산의 비구니 요연의 회중에 가서 먼저 말했다. ‘진실과 부합하면 머물 것이요, 진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선상(禪床)을 뒤엎을 것입니다.’ 요연이 법좌에 오르자 관계가 참문하러 올라갔다. 요연이 물었다. ‘오늘 어디서 떠났습니까?’ ‘길 어귀에서 떠났습니다.’ ‘왜 일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에 관계가 대답하지 못하고 절을 하고 다시 물었다. ‘어떤 것이 말산의 진실한 모습입니까?’ ‘정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관계가 굴복하여 3년 동안 그의 회상에서 원두의 소임을 맡아 보았다”는 공안을 제기하고, 대홍이 요연의 앞말에 대하여 관계를 대신하여 “오래전부터 말산의 소문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뒤의 말에 대해서는 “말산을 다 알아버렸습니다”라는 대어(代語)를 붙인 다음 말했다. “그가 여인네라는 것을 엄두에 두고 다만 그렇게 말해 두고 다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야 했다. 만일 그가 전과 다름없이 다시 노파처럼 군다면 그 다음에 선상을 뒤엎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제방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산에 원두의 소임이 꼭 필요했다’라고 말한다.”

大洪恩舉, “灌溪遊方日, 至末山尼了然會中, 先自云, ‘相當卽住; 若不相當卽推倒禪床.’ 然陞座, 溪上參. 然問, ‘今日離何處?’ 溪云, ‘路口.’ 然云, ‘何不蓋却?’ 溪無對, 乃禮拜復問, ‘如何是末山?’ 然云, ‘不露頂’ 至溪於是伏膺, 作園頭三年.”

師代前語云, “久響末山.” 代後語云, “識得末山了也. 念伊是女人家, 但且恁麼道, 更看伊如何. 若他依舊, 又作老婆相然後, 與推倒禪床, 未遲. 諸方或謂, 不然末山園頭甚要.”

[설화]

오래전부터 말산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 또한 그 다음에 ‘왜 일산을 쓰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이는 말로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다.

말산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 원래의 견해가 단지 이와 같았다는 뜻이다.

그가 여인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 선상을 뒤엎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 만일 이렇게 했더라면 제방에서 ‘원두의 소임이 꼭 필요했다’라고 질책하는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지(遲)는 상성(上聲)이니 ‘지체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 : 불이마(不伊麼)라는 표현과 같은 말로서, 선상을 뒤엎지 못한 것을 비판한 말이다.

大洪：久響末山者，又有後語云，‘何不盖却？’此言壓倒也。識得末山了也者，元來見解，只如此也。念伊是女人家，至倒禪床者，若伊麼，不待諸方園頭甚要之噴。遲，上聲，待也。不然者，如云不伊麼也，噴不能推倒禪床。

천동정각의 소참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며, 신도 아니고 귀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요 중생도 아니로다. 단지 흰 구름이 무심한 줄만 알 뿐 누가 청산이 눈앞에 있는 줄 알랴? 어두운 밤에 광채가 나니 단사주(斷蛇珠)¹⁷⁾임을 알 수 있고, 물이 맑으니 창룡(蒼龍)의 뱀¹⁸⁾가 떨어

저 있기 때문이로다. 대수롭지 않게 자줏빛 끈을 당겨 끊으니, 하늘과 인간세상 어디서도 거두지 못한다. 거두지 못하는 일은 원래부터 함정이 없느니라.”

天童覺, 小參, 舉此話云, “不是男, 不是女; 不是神, 不是鬼; 不是佛, 不是物. 只知白雲無心, 誰辨青山在目? 夜明識取斷蛇珠, 潭寒退下蒼龍骨. 等閑掣斷紫絲條,¹⁹⁾ 天上人間收不得. 收不得底事, 從來沒窠窟.”

[설화]

단지 흰 구름이 ~ 눈앞에 있는 줄 알라 : 단지 체(體)만 알았을 뿐 용(用)이 있음은 몰랐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에 광채가 나니 ~ 창룡의 뱀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 한 말은 그 용을 밝힌 것이다. 아래도 이와 같은 뜻이다.

天童 : 只知白雲至在目者, 只知是體, 不知有用也. 故夜明至龍骨者, 辨其用也. 下亦此意也.

17) 허리가 끊어졌던 뱀이 물어온 야광주(夜光珠). 『從容錄』 48則 「頌 評唱」 大48 p.258a4에 『史記』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전한다. “수(隋)나라 제후 축원창(祝元暢)이 제(齊)나라로 가던 길에 허리가 끊겨 죽어 가는 뱀 한 마리를 보고 물에 씻고 문지른 다음 신약(神藥)을 발라주고 떠났다. 그 뒤 어느 날 밤 뜰에 광채가 빛나는 것을 보고 도적이라 생각하고 칼을 뽑아들고 다가가서 보니, 뱀 한 마리가 구슬을 물어다가 땅에다 놓고 갔다. 그는 뱀이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알았다.”

18) 창룡은 곧 청룡을 말한다. 창룡은 선종의 신묘한 중지를 상징한다. 이런 창룡의 뱀이므로 선종의 골수 중에 골수라고 볼 수 있다.

19) ‘條’는 ‘條’자의 오식.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설²⁰⁾

“예전에 관계가 말산에게 갔더니 말산이 물었다. ‘요즘 어디서 떠났습니까?’ ‘길 어귀에서 떠났습니다.’ ‘왜 일산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에 관계가 대답을 못하고 다음 날 ‘어떤 것이 말산의 경계입니까?’라는 물음부터 ‘무엇으로 변하겠습니까?’라고 반문당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와 같다면 어찌 몸소 궁극적 경지를 밟고서²¹⁾ 만 길의 벼랑에 도달한 소식²²⁾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궁극적인 한 구절을 궁구하다가 비로소 견고하게 닫힌 관문에 도달했으니, 길목²³⁾을 틀어막고 서서 범부도 성인도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²⁴⁾고 한 것이다. 옛사람도 그랬거늘 요즘 사람이라 해서 어찌 모자라겠는가! 다행히 금강왕의 보검²⁵⁾이 있으니 장차 그 뜻을 아

20) 『圓悟心要』 권상중 卍120 p.722a13~b1에 나온다.

21) 각답실지(腳踏實地). 송나라 때 소강절(邵康節)이 사마광(司馬光)에 대하여 ‘실지를 밟아본 사람’(腳踏實地人)이라고 평가한 말이 널리 알려졌고, 그 말이 선문(禪門)이나 주자학(朱子學)에서 상용하는 구절이 되었다.

22) 본서 1則 주석21) 참조.

23) 요진(要津). 통과와 요소가 되는 나루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소로 관문과 같은 뜻이다.

24) “궁극적인 한 구절을 궁구하다가 처음으로 견고하게 닫힌 관문에 도달했으니, 길목을 틀어막고 서서 범부도 성인도 통하지 못하게 하라. 최상근기의 뜻을 알고자 하면, 조사나 부처에 집착하는 견해를 이마에 붙이고 내세우지 마라. 마치 신령한 거북이가 도상(圖相)을 몸에 새기고 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잃는 원인을 취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景德傳燈錄』 권16 『樂普元安傳』 大51 p.331b3. 末後一句, 始到牢關, 鎖斷要津, 不通凡聖, 欲知上流之士, 不將祖佛見解, 貼在額頭, 如靈龜負圖, 自取喪身之本.)

25) 금강왕보검(金剛王寶劍). 금강이인(金剛利刃)이라고도 한다. 임제사할(臨濟四喝)의 하나. 금강으로 만들어진 검이 모든 것을 자르고 부수듯이, 정확하게 한번 크게 내지르는 할이 일체의 분별을 용납하지 않고 없애버리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어떤 때의 한 할은 금강왕의 보검과 같다.”(『臨濟語錄』 大47 p.504a26. 有

는 사람을 만나면 집어내어 줄 만하리라.”

佛果勤，心要云，“昔灌溪往末山，山問，‘近離甚處?’ 溪云，‘路口.’ 山云，‘何不盖却?’ 溪無語. 次日致問，‘如何是末山境?’ 〈至〉‘變个什麼?’ 如此，豈不是腳踏實地，到壁立萬仞處? 所以道，‘末後一句，始到牢關，把斷要津，不通凡聖.’ 古人既爾，今人豈少欠耶! 幸有金剛王寶劍，當須遇著知音，可以拈出.”

[설화]

말산의 입장은 결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佛果：明末山地，更無轉變也.

時一喝，如金剛王寶劍.)；“금강왕보검이란 한칼에 모든 정해(情解)를 끊어버리는 것이다.”(『人天眼目』 권2 大48 p.311b21. 金剛王寶劍者，一刀揮斷，一切情解.)



559칙 石霜敎中 석상교중



559칙 석상교증 石霜教中

[본칙]

석상경저(石霜慶諸)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경전에도 조사의 뜻이 있습니까?” “있다.” “경전에 있는 조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책 속에서 구하지 마라!”

石霜因僧問, “教中還有祖師意麼?” 師云, “有.” 僧云, “如何是教中祖師意?” 師云, “莫向卷中求!”

[설화]

경전에도 조사의 뜻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세존께서 어떤 이유로 거듭 꽃을 들어 그 뜻을 보였겠으며,¹⁾ 달마대사는 어떤 까닭에 다시 인도로부터 그것을 전하러 왔던 것일까?²⁾ 만약 없다고 한다면, 3승 12분교³⁾는 이치를 체득하고 근본을 터득한 내용이거늘⁴⁾ 어디에 별도로

- 1) 경전 밖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중지를 전한다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대표적 설화 염화시중(拈華示衆)을 말한다.
- 2) ‘만약 있다고 한다면 ~ 전하러 왔을까?’는 원오극근(圓悟克勤)의 말이다. 『碧巖錄』 40則 「評唱」 大48 p.178b2, 『從容錄』 91則 「評唱」 大48 p.286b11 참조.
- 3) 三乘十二分教. 부처님의 교설 전체를 나타낸다.
- 4) 건주처미(虔州處微)의 문답에 보이는 구절이다. “어떤 학인이 물었다. ‘3승 12분교는 이치를 체득하고 근본을 터득한 내용인데, 그것이 조사의 뜻과 같습니까,

조사의 선법이 있을까?⁵⁾ ‘있다’고 한 대답은 경전에 이치를 체득하고 근본을 터득한 내용이 실려 있다는 뜻이다.

책 속에서 구하지 마라 : 교설의 그물⁶⁾에 걸려서도 또한 안 된다는 뜻이다.

教中還有云云者, 若道有, 世尊何故更拈花, 達摩何故更西來?
若道無, 三乘十二分教, 體理得妙, 何處更有祖師禪? 有者, 體
理得妙之意也. 莫向卷中求者, 滯於教網之中, 又却不是也.

운문문언(雲門文偃)의 대어⁷⁾

“노승⁸⁾을 등지고 도리어 똥구덩이 속에 앉아버리면 안 되니, 어떻게 해

다릅니까?’ 이 문제라면 반드시 여섯 구절을 벗어나서 살펴야 하며, 소리와 색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여섯 구절이란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말하지 않는 것과 침묵하지 않는 것, 모두 긍정하는 것과 모두 부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학인이 대답하지 못했다.”(『景德傳燈錄』 권9 「虔州處微傳」 大51 p.269a8. 僧問, ‘三乘十二分教, 體理得妙, 與祖師意, 爲同爲別?’ 師云, ‘怎麼卽須向六句外鑒, 不得隨他聲色轉.’ 僧曰, ‘如何是六句?’ 師曰, ‘語底·默底·不語·不默·總是·總不是, 汝合作麼生?’ 僧無對.)

- 5) ‘있다’는 분별과 ‘없다’는 분별을 모두 의문으로 몰아 학인의 질문 자체를 하나의 화두로 수용한 해설이다.
- 6) 교망(敎網). 생사(生死)의 고해(苦海)에 빠진 중생을 건져 올리는 그물과 같다는 관점에서 경전의 교설을 나타낸 비유적인 말. 60권본 『華嚴經』 권58 大9 p.773c8, 『華嚴五教章』 권1 大45 p.482b16 참조.
- 7) 대語. 일정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이 없었거나, 법어에 대하여 응답이 없을 경우 대신하여 대답하는 것. 대어는 별어(別語)와 함께 운문문언에게서 시작되었고,

야 할까?”

雲門偃代, “不得辜負老僧, 卻向屎坑裏坐地, 作什麼?”

[설화]

등진다는 말은 경전의 뜻을 마주하고도 이렇게 질문하니 그것이 곧 경전의 뜻을 등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조사의 뜻을 경전 밖에서 별도로 찾는 것이 바로 똥구덩이다.

雲門：辜負者，當教意伊麼道，卽教意辜負也。然則別討祖師意，是屎坑也。

장로종색(長蘆宗頤)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대중을 돌아본 다음 말했다. “이 말을 알아차리면, 세존께서 360여 법회에서 남기신 5048권의 경전이 여러분의 한입에 삼켜져 모든 곳에 그 제목이 분명히 나타나고, 어떤 곳에도 글자의 뜻이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검은 먹은 글자요 누런 것은 종이⁹⁾에 불과하리라. 어떤 것이 경전을 바르게 보는 눈[看經眼]일까?”

그의 어록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석상의 두 번째 대답에 대하여 운문이 석상과 다르게 대답한 것이다. 이는 대어라기보다는 별어의 형식에 가깝다.

- 8) 老僧. 스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가리키는 말. 산승(山僧)·노납(老納)·줄납(拙納) 등과 같다.
- 9) 대장경의 교설에 대한 자수정암(資壽澄岩)의 문답에 나오는 말과 같다. “학인이 물었다. ‘대장경의 교설에도 기특한 것이 있습니까?’ ‘그대가 믿을까 걱정스러울 뿐이다.’ ‘무엇이 그것입니까?’ ‘검은 것은 먹물이고 누런 것은 종이다.’ ‘스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울에 달린 실물의 뜻을 알아차려야지, 저울 눈금이 그것이라 오인하지 마라.’”(『續傳燈錄』 권14 大51 p.557a25. 僧問, ‘大藏教中, 還有奇特事也無?’ 師曰, ‘祇恐汝不信.’ 云, ‘如何即是?’ 師曰, ‘黑底是墨, 黃底是紙.’ 曰,

長蘆蹟，上堂，舉此話，顧大衆云，“這裏會得，世尊三百六十餘會，五千四十八卷，被諸人一口吞盡，一切處題目分明，一切處字義炳然。其或未然，墨底是字，黃底是紙。那箇是看經眼？”

‘謝師答話.’ 師曰, ‘領取鉤頭意, 莫認定盤星.’)



598칙 香嚴去年 향엄거년



598칙 향엄거년 香嚴去年¹⁾

[본칙]

향엄이 “지난해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올해의 가난이 진실로 가난이라네. 지난해에는 송곳 꽃을 땅이라도 있었건만, 올해는 송곳조차 없구나”라고 읊은 계송에 대해 양산(仰山)이 말했다. “여래선(如來禪)은 사형이 이해했다고 인정하겠지만, 조사선(祖師禪)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향엄이 다시 “나에게 하나의 기틀이 있으니, 눈을 깜박거려 그것을 보이노라. 만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특별히 그를 사미²⁾라고 부르리라”라는 계송 한 수를 들려주자 양산이 말했다. “기쁘다! 사형이 조사선을 이해했구나.”

香嚴頌云, “去年貧未是貧, 今年貧始是貧. 去年無卓錫之地, 今年錫也無.” 因仰山云, “如來禪, 卽許師兄會, 祖師禪,

-
- 1) 조사선이 여래선보다 우월하다는 관념을 활용하여 만든 공안이다. 그것은 이 공안에서 설정한 관문의 빗장이다. 양산은 향엄을 점검할 목적에서 처음에는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조사선을 이해했구나’라고 칭찬하는 듯이 가장했지만 이 두 가지 선법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향엄도 그 의중을 알고서 조사선과 여래선이라는 일반적 편견에 관계없이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송을 읊었다.
 - 2) 沙彌. 7세 이상 20세 미만으로서 출가하여 10계(戒)를 받았지만 아직 구족계(具足戒)를 받지 못하여 정식으로 비구(比丘)가 되지 못한 남자. 여기서는 수행이 아직 미숙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未夢見在.”師又呈偈云,“我有一機,瞬目示伊.若人不會,別喚沙彌.”仰云,“且喜,師兄!會祖師禪也.”

[설화]

지난해의 가난은 ~ 송곳조차 없구나 : 이전에 쌍봉은 양산에게 “그대의 견해는 여전히 대상 경계에 묶여 있구나! 그대는 분별의 틀에 딱 들어맞는 법은 하나도 없다고 알고 있거늘 어찌 그렇게 아는 주체가 없겠느냐!”³⁾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아는 주체까지 사라졌기에 여래선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게 하나의 기쁨이 ~ 사미라고 부르리라 : 눈썹을 치켜세우고 눈을 깜박이는 동작 자체에 핵심이 남김없이 다 드러나 있으므로 특별히 사미라고 부르더라도 끝내 바뀔 것은 없다는 뜻이다.

去年貧云云者,前被仰山云,“你解猶在境!你能知無一法可當情,豈無能知者!”是能知亦亡,只會如來禪也.我有一機云云者,揚眉瞬目徹底無餘故,別喚沙彌,終不移易也.

-
- 3) 양산혜적(仰山慧寂)과 쌍봉(雙峰)의 문답이다. “양산이 쌍봉에게 물었다. ‘사제가 요즈음 터득한 견해는 어떤 것인가?’ ‘저의 견해에 따르면, 분별의 틀에 딱 들어맞는 법은 진실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의 견해는 여전히 대상 경계에 묶여 있군.’ ‘저의 견해는 이와 같을 뿐이라 치고, 사형께서는 어떠십니까?’ ‘그대에게 어찌 분별의 틀에 딱 들어맞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주체가 없겠는가!’ 위산이 이 문답을 듣고서 말했다. ‘혜적의 마지막 한 구절은 몹시도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을 일으킬 것이다.’”(『仰山語錄』大47 p.584a16. 師問雙峯, ‘師弟, 近日見處如何?’ 云, ‘據某見處, 實無一法可當情.’ 師云, ‘汝解猶在境.’ 云, ‘某祇如此, 師兄又如何?’ 師云, ‘汝豈不知無一法可當情者!’ 潯山聞云, ‘寂子一句, 疑殺天下人.’) ‘不知’가 『景德傳燈錄』 권11 大51 p.283b11에는 ‘無知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적합하다.

열재거사의 송

조사선이여!

한 부분의 공부에 원만하지 못한 점 있네.

씨앗이 그림자 없는 나무 되는 줄만 알 뿐,

아직도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우지는 못하네.

여래선이여!

손 합하여 손바닥 만들고 떼어 주먹 만드네.

조리로 향적국⁴⁾의 향을 남김없이 퍼낸 다음,

부채 부치자 그 향기 범왕천⁵⁾까지 이르노라.

悅齋居士頌, “祖師禪! 一處工夫有未圓. 只解種成無影樹, 未能開得火中蓮. 如來禪! 合手成掌開成拳. 茱萸畚盡香積國, 扇子扇到梵王天.”

[설화]

손 합하여 손바닥 만들고 떼어 주먹 만드네 : 파정 그대로 방행이고 방행 그대로 파정이니,⁶⁾ 두 가지를 모두 떠난 중간이라는 뜻이다.

조리로 향적국의 향을 남김없이 퍼낸 다음 : 본체[體]에 상응한다.

부채 부치자 그 향기 범왕천까지 이르노라 : 작용[用]에 상응한다.

4) 香積國. 향적여래(香積如來)가 사는 나라로 사바세계(娑婆世界) 상방의 42향하사(恆沙河) 불국토를 지난 거리에 있다, 모든 것이 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이다.

5) 梵王天. 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의 세 하늘 중 가장 위에 위치한 하늘.

6) 파정과 방행에 대해서는 본서 1則 주석37) 참조. 손바닥을 펼치는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펼치며 긍정하는 방행, 주먹으로 오므리는 것은 모든 것을 거두어들여 부정하는 파정이다.

미미한 것으로부터 현저한 것에 이른다는 말이다.

悅齋：合手成掌云云者，把定卽放行，放行卽把定，中間也。策籬云云者，體也。扇子云云者，用也。從微至著也。

장경혜릉(長慶慧稜)의 평

“동시에 모두 짓눌러 앉아라.”

長慶稜云，“一時坐却.”

[설화]

여래선과 조사선 모두 그대로 허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다.

長慶：如來禪祖師禪，皆不得放過。

현각의 징

“말해 보라! 여래선과 조사선이 나누어지는가, 나누어지지 않는가?”

玄覺徵，“且道！如來禪與祖師禪，分不分？”

[설화]

여래선을 이해했으면 그만이지 어디서 다시 조사선을 찾겠는가!

玄覺：會得如來禪，何處更討祖師禪！

운거청석(雲居淸錫)⁷⁾의 징

“대중 가운데는 여래선은 깊이가 없고 조사선은 심오하다고 헤아리기도 한다. 그렇다면 향엄이 그 당시에 어째서 ‘조사선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묻지 않았을까? 만약 이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면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⁸⁾”

雲居錫徵, “衆中商量, 如來禪淺, 祖師禪深. 只如香嚴當時, 何不問如何是祖師禪? 若置此一問, 何處有也?”

[설화]

향엄이 그 당시에 ~ 묻지 않았을까: ‘여래선을 벗어나 어떤 것이 조사선인가?’라는 뜻으로 반문한 것이다.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어디에 양산이 있는가?’라는 뜻이다.

雲居: 香嚴當時云云者, 如來禪外, 何者是祖師禪也. 何處有者, 何處有仰山也.

낭야혜각(瑯琊慧覺)의 염

“무제⁹⁾는 신선을 추구했으나 신선이 되지 못하였고, 왕교¹⁰⁾는 곳곳이 앉

7) 생물연대 미상. 법안종(法眼宗) 선사. 천주(泉州:福建省) 출신으로 법안문익(法眼文益 886~958)의 제자이다. 운거산(雲居山) 진여원(眞如院)과 천주 서명원(西明院) 등에 주석했다.

8) 조사선과 여래선을 차별되게 보았다면 향엄이 이러한 질문을 했겠지만, 그것은 양산이 파놓은 함정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만일 몰랐다면 향엄의 존재는 미미했을 것이라는 뜻이다. 주석1)의 취지와 부합한다.

9)武帝. 한(漢)나라 무제는 건장궁(建章宮)의 신명대(神明台)에 동선인(銅仙人)을

아 있기만 했으나 승천¹¹⁾하였다.”

瑯琊覺拈, “武帝求仙不得仙, 王喬端坐却昇天.”

[설화]

향엄의 계송이 ‘무제가 신선을 추구했으나 신선이 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다. 양산이 한 말은 왕교의 승천에 해당하는가? 조사선은 무제가 신선이 되지 못한 것에 상응하고, 여래선은 왕교의 승천에 상응한다.

瑯琊: 香嚴云云者, 是武帝求仙云云也. 仰山道得, 是王喬云云耶? 祖師禪, 是武帝云云也. 如來禪, 是王喬云云也.

지해본일(智海本逸)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송곳조차 없구나’라는 구절에 이르러 말했다. “나라면 그렇게 읊지 않을 것이다. ‘지난해의 부유는 부유가 아니요, 올해의 부유가 진실로 부유라네. 지난해에는 그래도 조주의 배적삼을 입었지만,¹²⁾ 올

조성하기도 하는 등 신선도를 추구했던 여러 가지 자취를 남겼다.

10) 王喬. 한(漢)나라 때 전설상의 신선.

11) 昇天. 도교에서 도를 닦아 신선이 되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설. “백석선생이라는 자는 중황장인(中黃丈人)의 제자였다. 팽조(彭祖) 때에 벌써 2천 세가량 되었다. 승천의 도를 닦으려 하지 않고 불사(不死)만을 지향했을 뿐이다.”(『神仙傳』「白石先生」. 白石先生者, 中黃丈人弟子也. 至彭祖時, 已二千歲餘矣. 不肯修昇天之道, 但取不死而已.)

12) 조주(趙州)의 배적삼과 관련된 이야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라고 물었을 때 조주가 “내가 청주에 있을 때 한 벌의 배적삼을 만들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었다”라 답하는 문답 중에 나온다. 『禪門拈頌說話』 408則 참조. 다른 하나는 남천(南泉)이 몸을 팔겠다고 하면서 ‘비싸게 값을 불러도 안 되고 싸게 불러도 안 된다’라고 하자,

해는 운거의 고쟁이¹³⁾까지 벗었다네.’ 여러 선덕(禪德)들이여, 가난한 자는 가난에 시달리는 것이 귀신을 만난 것처럼 무섭고 부유한 자는 부유를 누리는 것이 나귀에 올라탄 것처럼 편하니, 어떻게 해야 빈부가 고르게 평등하게 될까?” 스스로 말했다. “오리 다리를 늘이고 학 다리를 잘라서는 안 된다.”¹⁴⁾ 다시 말했다. “어째서 오리 다리를 늘이고 학 다리를 자르지 않는가? 큰 나무는 큰 꺾질에 둘러싸여 있고, 작은 나무는 작은 꺾질에 감싸여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智海逸, 上堂, 舉此話, 至錐也無, 師云, “智海即不然. ‘去年富未是富, 今年富始是富. 去年猶著趙州衫, 今年脫下雲居袴.’ 諸禪德, 貧者貧似鬼, 富者富如驢, 作麼生得貧富均平去?” 自云, “不可續鳧截鶴.” 又云, “爲什麼不續鳧截鶴? 大樹大皮裘, 小樹小皮纏.”

조주가 “내년에 화상께 배적삼 한 벌을 지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본서 204則「南泉賣身」참조.

- 13) 운거도옹(雲居道膺 ?~902)이 암자에 사는 제자를 시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자를 시켜 고쟁이 한 벌을 가지고 암자에 가서 건네주도록 하고 그 반응을 보았는데, 그 제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타고나면서 받은 고쟁이가 있다’고 대답한 일화. 본서 864則「雲居持袴」참조.
- 14) 『莊子』「駢拇」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에 따른다. “긴 것이라고 하여 남아돌지 않으며 짧은 것이라고 하여 부족하지 않다. 그러므로 오리 다리가 비록 짧지만 늘 이면 괴로워하고, 학 다리가 비록 길지만 자르면 슬퍼하는 것이다.”(長者, 不爲有餘, 短者, 不爲不足. 是故, 鳧脛雖短, 續之則憂, 鶴脛雖長, 斷之則悲.) ; “경에 ‘모든 법이 다르지 않다’라고 한 말이 어찌 ‘오리 다리를 늘이고 학 다리를 자르며, 산을 깎아 골짜기를 채운 다음에 서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하는 뜻이겠는가! 진실로 차별된 것들을 다르다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비록 달라도 다르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肇論』「般若無知論」大45 p.154c10. 經云, ‘諸法不異.’者, 豈曰, ‘續鳧截鶴, 夷嶽盈壑, 然後無異哉!’ 誠以不異於異故, 雖異而不異也.)

[설화]

조주의 배적삼 : 무계가 일곱 근인 배적삼을 말한다.

운거의 고쟁이 : 어머니로부터 타고나면서 받은 고쟁이를 말한다. 일곱 근 되는 배적삼을 입고는 있으나 어머니로부터 타고난 고쟁이도 필요 없다는 뜻이다.

가난하다면 속속들이 가난하고 부유하다면 위부터 아래까지 부유한 것이니, 빈부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긴 것을 잘라서 억지로 짧은 것에 덧 붙여 주는 격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오리 다리는 짧은 그대로 학 다리는 긴 그대로 두고, 큰 나무는 큰 그대로 작은 나무는 작은 그대로 두는 것만 못하다.

智海：趙州衫者，重七斤地。雲居袴者，孃生袴也。被著七斤衫，不要孃生袴也。貧則貧到底，富則富到底，則貧富平均，是裁長補短也。不如龜脰短鶴脰長，大樹大小樹小。

금산요원(金山了元)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송곳조차 없구나’라는 구절에 이르러 말했다. “여러 고덕¹⁵⁾들이여, 말해 보라! 향엄에게 송곳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주장자를 세우고 말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 차나 마시게!”

金山元，上堂，舉此話，〈至〉錐也無，師云，“諸高德，且道！香嚴錐子旣無，遮回用个什麼？”卓拄杖云，“歸堂喫茶！”

15)高德, 수행과 덕망이 숭고한 사람. 법문을 듣는 모든 이를 높여 부르는 말로 쓰였다.

[설화]

바로 지금 사용하는 모든 것이 어찌 당시의 송곳과 같지 않겠느냐는 뜻이다. (향엄은) 다만 병통만 제거한 것일 뿐이니 누구든 이 뜻을 이해한다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 차나 마시며 쉬어도 된다는 취지이다.

金山：卽今用底，豈不是當時錐子！但除其病，爾若會此意，歸堂喫茶。

장산찬원(蔣山贊元)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미 송곳 꽃을 땅도 없다면, 무엇으로 입을 틀어막고 몸을 가로막을 것인가? ‘금계(金雞)는 쌀 한 톨을 물고서 시방의 아라한을 공양할 줄 안다’¹⁶⁾라는 말을 모르는가?”

蔣山元，上堂，舉此話云，“旣無卓錫之地，將什麼塞口遮身？不見道，金雞解舍一粒米，供養十方羅漢僧？”

-
- 16) 불법이 동쪽으로 전해져 번성하리라는 달마대사의 예언. 『景德傳燈錄』 권6 「馬祖道一傳」 大51 p.245c28의 『般若多羅記』에 나온다. 금계는 달마대사를 비유한 말이다. 중국 땅에 불법을 전하여 6조 혜능(慧能) 문하의 남악회양(南嶽懷讓)과 청원행사(靑原行思) 등의 후손에 이르러 번영하고, 마조도일(馬祖道一)과 석두희천(石頭希遷)에까지 선법(禪法)이 유통될 것이라는 예언을 가리킨다. 금계는 천상의 금계성(金鷄星)에 산다고 전하는 전설상의 닭이다. “부상산에 옥계가 사는데 옥계가 울면 금계가 울고, 금계가 울면 석계가 울며, 석계가 울면 세상의 닭들이 모두 울고 조수가 그에 따른다.”(『神異經』 「東荒經」, 蓋扶桑山有玉雞, 玉雞鳴則金雞鳴, 金雞鳴則石雞鳴, 石雞鳴則天下之雞悉鳴, 潮水應之矣.) ; “금계 : 인간세상에는 본래 금계라는 명칭의 닭이 없으니 천상의 금계성에 있기 때문이다. 천상의 금계가 울면 인간세상의 닭도 따라서 운다.”(『祖庭事苑』 권5 卽113 p.133a4. 金雞：人間本無金鷄之名，以應天上金鷄星故也。天上金鷄鳴，則人間亦鳴.)

[설화]

송곳 꽃을 땅이 있어도 무방하다는 뜻이다.

蔣山：亦不妨有卓錫之地.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시중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향엄은 비록 자비심이 넓고 컸지만, 베푼 은혜가 많을수록 원망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는가!”¹⁷⁾ 산승이라면 그렇게 옳지 않았을 것이다. ‘나에게 하나의 기틀이 있으니, 번갯불도 그것보다 느리다네.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뒤통수를 쇠망치로 치리라.’”

蔣山泉，示衆，舉此話云，“香嚴，雖然慈悲廣大，豈知恩多怨深！山僧卽不然．‘我有一機，電掣猶遲．有人不會，腦後金鎚．’”

[설화]

본칙 중에 ‘눈을 깜박거리 그것을 보이노라 ~ 사미라고 부르리라’고 한 송 : 지시한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¹⁸⁾ 이것이 바로 베푼 은혜가 많으면 원망도 깊다는 뜻이다.

나에게 하나의 기틀이 있으니 ~ 뒤통수를 쇠망치로 치리라 : 눈을 깜빡이는 순간

17) 방편을 자비롭게 베푼다면, 그만큼 집착의 단서도 많이 남겨 결과적으로 원망을 사게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어지는 계송에서는 방편이 들어설 빈틈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18) 향엄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일러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함정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벌써 핵심을 빚나간다.¹⁹⁾

蔣山：話中，瞬目示伊云云，似有指示處也，是恩多而怨深也。
我有一機云云者，眨上眉毛，早已蹉過。

위산모칠(滙山慕喆)의 염

“향염은 ‘위로는 덮을 기와 한 조각도 없었고 아래로는 꽃을 송곳조차 없었다’라고 할 만한 경지였다. 벌거벗은 채 다 드러내고 깨끗이 씻은 알몸이지만 잡을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 만약 양산의 안목이 아니었다면 이자를 거의 놓칠 뻔했다. 왜 그런가? 눈과 서리의 시련이 없었다면 어찌 소나무와 잣나무의 지조를 알았겠는가!²⁰⁾”

滙山喆拈，“香嚴可謂，上無片瓦，下無卓錫。露髌髌，赤灑灑，沒可把，若不是仰山，幾乎放過這漢。何故？不得雪霜力，焉知松柏操！”

19) 마조(馬祖)의 제자인 삼각총인(三角總印)의 말. 분별할 틈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전광석화와 같이 재빠른 기틀을 나타낸다. “삼각이 대중에게 말했다. ‘본분사에 대하여 말하자면, 눈을 깜빡이는 순간 벌써 핵심을 빚나간다.’ 마곡이 나와서 물었다. ‘핵심을 빚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본분사란 어떤 것입니까?’ ‘빚나갔다!’ 마곡이 선상을 뒤집어엎자 삼각은 그의 등을 향하여 곧바로 한 방 때렸다.”(圓悟語錄』권16 大47 p.790a1. 三角, 示衆云, ‘若論此事, 眨上眉毛, 早已蹉過.’ 麻谷出問, ‘蹉過則不問, 如何是此事?’ 角云, ‘蹉過!’ 麻谷掀倒禪床, 三角劈脊便棒.)

20) 양산이 여래선이다 조사선이다 들먹이며 향염을 시험했지만 향염의 본의는 늘 푸른 소나무처럼 초지일관 변색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곧 처음의 계송은 여래선에 대응하고, 그 뒤에 안목이 향상하여 조사선에 부합하는 계송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명한 의중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인 것일 뿐이라는 뜻이다. <설화>도 이와 같은 맥락의 해설이다.

[설화]

눈과 서리의 시련 ~ 지조를 알았겠는가 : 양산이 추궁하며 따졌기 때문에 비로소 향엄이 조사선의 진수를 알았다는 뜻일까? 아니다. 여래선 그대로 조사선이라는 뜻이다.

瀉山：不得雪霜力云云者，因仰山窮詰，始會得祖師禪耶？卽如來禪，會祖師禪也。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송곳조차 없구나’라는 구절에 이르러 말했다. “향엄이 이렇게 한 말이 탁월하기는 매우 탁월하다. 문제는 가난만 알았을 뿐 부유는 몰랐다는 점이다. 나라면 그렇게 읊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의 부유는 부유가 아니요, 올해의 부유가 진실로 부유라네. 지난해의 부유는 오로지 거무죽죽한 베적삼 한 벌이 고작이었지만, 올해의 부유에는 일조(一條)의 백납산수가사²¹⁾가 더해졌도다.’ 새해 아침에 이 가사를 펼쳐 대중들에게 보이니 진실로 걸림 없는 종지[風流]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 할 만하다. 여러 선덕(禪德)들이여! 나의 이러한 견해가 옛 사람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의 견해를 지지한 것인가? 한번 분별해 보라.”

眞淨文，上堂，舉此話，〈至〉錐也無，師云，“香嚴與麼道，奇特甚奇特。要且，只知其貧，不知其富。洞山卽不然。‘去年富未是富，今年富始是富。去年富，唯有一領墨黻布褊衫，今年富，

21) 百納山水袈裟. 갖가지 비단을 잘라서 붙인 다음 꽃무늬를 수놓은 가사이다. 보통 왕이 명망 있는 대사들에게 하사하는 가사이다.

添得一條百衲山水袈裟.’ 歲朝抖擻呈禪衆，實謂風流出當家。諸禪德！洞山與麼，爲復是不肯古人耶？爲復扶古人耶？試辨看。”

[설화]

근본적인 뜻은 지해(智海)의 상당과 같다.

거무죽죽한 베적삼 : 문양이 없는 내의(內衣)이다.

백납산수가사 : 문양이 새겨진 외의(外衣)이다.

일심(一心)이 만법(萬法)이라는 뜻이다.

眞淨：大義，智海上堂同也。墨黥者，沒文彩地內衣也。百衲山水袈裟者，有文彩地外衣也。則一心萬法也。

설두법령(雪竇法寧)의 상당

향엄이 ‘나에게 하나의 기틀이 있으니 ~ 사미라고 부르리라’고 한 송을 제기하고 말했다. “나라면 그렇게 읊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하나의 기틀이 있으니, 조사도 부처도 알지 못한다네. 말은 현상을 따라 적절하게 변하고, 대상은 내 생각을 좇아 자리를 옮기노라. 때때로 마주치고서 활용하기는 하지만, 뒤쫓아가 잡을 만한 대상은 아무것도 없노라.” 이윽고 큰 소리로 ‘대중들이여!’ 하고 부르고 대중들이 머리를 들어 보자 다시 말했다. “각자 방으로 돌아가 차나 마셔라.”

雪竇寧，上堂，舉香嚴云，‘我有一機，至別喚沙彌.’ 師云，“雪竇卽不然. ‘我有一機，祖佛不知. 言隨事變，物逐意移. 有時當面用，無物可追隨.’” 乃高聲召大眾，衆舉頭，師復云，“歸堂喫茶去.”

[설화]²²⁾

부처와 조사도 알지 못한다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말은 현상을 따라 ~ 옮기노라 : 그대와 함께 헤아려 보려는 것이다.

때때로 마주치고서 ~ 아무것도 없노라 : 그대가 대단한 선기(禪機)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차나 마셔라 : 그대는 어떻게 머물 것인가?

雪竇 : 佛祖不知, 作麼生當抵? 言隨事變云云者, 要且²³⁾共汝商量也. 有時當面云云者, 如²⁴⁾也須箇人. 喫茶去者, 汝作麼生湊泊?

송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송곳조차 없구나’라는 구절에 이르러 말했다. “목은해 가고 새해 오나 가난은 여전히 가난인지라, 옮기는 조사의 발걸음 천근처럼 무겁도다. 수심에 찬 사람은 수심에 찬 사람에게 말하지 말지니, 수심에 찬 사람에게 말하면 더욱 수심만 더하게 할 뿐이리라.”

松源, 上堂, 舉此話, 〈至〉錐也無, 師云, “年去年來貧復貧, 祖

22) 이 〈설화〉의 해설은 분양선소(汾陽善昭)가 조용(照用)을 주제로 붙인 착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먼저 비추어 보고 뒤에 작용하는 것은 그대와 함께 헤아려 보려는 것이다. 먼저 작용하고 뒤에 비추어 보는 것은 그대가 대단한 선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비추어 봄과 작용을 동시에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비추어 봄과 작용을 동시에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또한 어떻게 머물 것인가?”(『景德傳燈錄』 권13 「汾陽善昭傳」 大51 p.305a19. 先照後用, 且要共爾商量. 先用後照, 爾也須是箇人, 始得. 照用同時, 爾作麼生當抵? 照用不同時, 爾又作麼生湊泊?)

23) 『景德傳燈錄』에는 ‘且要’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장상 맞다.

24) ‘汝’자의 오식(誤植).

師擡脚重千斤。愁人莫向愁人說，說向愁人愁殺人。”

[설화]

가난은 여전히 가난이니, 이것이 바로 다리를 옮기고자 하나 들리지 않아 또한 더욱 남의 수심만 늘리는 꼴이다.

松源：貧復貧，是擡脚不起，亦愁殺人.



600칙 香嚴如人 향엄여인



600칙 향엄여인 香嚴如人¹⁾

[본칙]

향엄이 대중에게 말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만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뿐, 더위잡을 가지도 없고 밟고 디딜 나무도 없는 데, 나무 아래서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다고 하자. 대답하지 않으면 그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며, 대답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러한 순간에 당면한다면 어떻게 해야 옳을까?” 그때 호두상좌가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있는 상황은 그만두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어떤지 화상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묻자, 향엄은 꺾꺾대고 크게 웃었다.

香嚴，示衆云，“如人上樹，口銜樹枝，手不攀枝，腳不踏樹，樹下有人問西來意。不對則違他所問，若對則喪身失命。當與麼時，作麼生則是？”時有虎頭上座，出問，“上樹卽不問，未上樹時，請和尚道。”師呵呵大笑。

1) 나무 위의 소식[樹上]과 나무 아래의 소식[樹下]을 대치시켜 관문으로 제시한 공간. 근경에 처한 나무 위의 상황과 아무 일도 일어나기 이전인 나무 아래의 상황을 두고 ‘다른가, 같은가?’라는 식의 의문을 던진 것이다.

[설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 어떻게 해야 옳을까 : 말해도 착각이고 침묵해도 착각이다.²⁾

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있는 상황은 그만두고 ~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말해도 되고 침묵해도 된다는 뜻일까? 아니다! ‘나무 아래’[樹下]라는 말은 나무에 올라간 뒤에 나무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나무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염송을 붙이는 사람들은 ‘나무 아래’ 또는 ‘나무에 올라가지 않다’[未上樹]라고도 하지만, ‘나무에서 내려오다’[下樹]라고 하지는 않는다.

꺄꺄대고 크게 웃었다 : 호랑이 머리와 호랑이 꼬리를 한꺼번에 거두어들였다.³⁾

如人上樹口銜樹枝云云者, 語也錯, 默也錯也. 上樹卽不問云云者, 語也得默也得耶? 非也! 樹下者, 非上樹然後下樹, 始初未上樹時也. 故拈頌家云, ‘樹下.’ 或云, ‘未上樹.’ 而不云 ‘下樹’ 也. 呵呵大笑者, 虎頭虎尾一時收也.

2) 말과 침묵의 두 길을 모두 차단하는 전형적인 배촉관(背觸關)이다. 본서 1331則 주석1) 참조.

3) 호두(虎頭)상좌의 법명이 ‘호랑이 머리’이므로 이것에 상응하여 해설한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자유롭게 대상과 접하는 선사로서의 기량을 말한다. “호랑이 머리에 타고 호랑이 꼬리를 거둔다.”(騎虎頭, 收虎尾)라는 표현도 일반적으로 쓰인다. ‘騎’는 據 또는 踞와 통한다.

분양선소(汾陽善昭)의 송

향엄이 이 화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준 이유는,
벗들을 이끌어 본래 진실에 통달케 하도록 함이었네.
하지만 분별하면서 도리어 걸말에서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이 티끌과 같이 무수히 많노라.
분양이 그대들에게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어 주리니,
구름 흩어져 끝없이 펼쳐진 허공에 달빛 신선하구나.

汾陽昭頌, “香嚴嚼樹示多人, 要引同袍達本真. 擬議却從言下
覓, 喪身失命數如塵. 汾陽爲你開天路, 雲散長空月色新.”

[설화]

티끌과 같이 무수히 많노라 : 향엄이 말한 내용이다.

구름 흩어져 ~ 신선하구나 : 나무 위의 소식이 나무 아래 소식을 떠난 적이
없다. 아래 장산의 계송도 이 뜻이다.

汾陽云云, 數如塵者, 香嚴道地也. 雲散云云者, 樹上地未嘗離
下樹地也. 下蔣山頌亦此意.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송

결결대고 크게 웃으니 찌르고 들어갈 틈이 없도다.⁴⁾

나무에 올라간 것이 오르지 않은 것과 어떻게 다른가?

향엄 자신이 갓가지 기량을 한껏 펼친다 하더라도,

4) 나무 위에서 침묵과 언어가 모두 통하지 않는 것과 같이 향엄이 마지막에 보낸
웃음 속으로도 분별의 수단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다.

옆에서 지켜보면 눈썹을 찡그리지 않을 수 없도다.⁵⁾

蔣山泉頌, “呵呵大笑沒針錐. 上樹何如未上時? 任使香嚴多
伎倆, 傍觀不免爲攢眉.”

석문원이(石門元易)의 송

옛 성인의 자비심은 후인들을 이롭게 하니,
입으로 나뭇가지를 물고 온몸을 드러냈도다.⁶⁾
설령 가물가물 먼 길에 아무 소식 없더라도,
집안의 양친 돌아가셨다는 소식 있으리라.⁷⁾

石門易頌, “古聖悲心利後人, 口銜枝上露全身. 直饒玄路無消
息, 未免家中喪二親.”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다양한 방편을 자세히 세우는 노고추⁸⁾시여!
어찌 가지에 쓸데없이 또 가지를 붙이셨는가?

5) 향엄 자신이 분별의 기량을 펼치더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뜻.

6) 향엄의 이 화두는 본분의 소식을 적나라(赤裸裸)하게 남김없이 전하고 있다는 말.

7) ‘양친’이란 향엄의 화두에 들어 있는 언어와 침묵을 말한다. 언어의 길도 침묵의 길도 모두 막히면서 이 화두가 가물가물 멀어져 결국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게 되는 바로 그때, 침묵과 언어라는 관문의 빗장이 풀린다는 뜻이다. 화두를 공부하다가 은산철벽(銀山鐵壁) 또는 백척간두(百尺竿頭)에 도달한 경계를 나타낸다.

8) 老古錐. 종사(宗師)에 대한 존칭 중 하나로 여기서는 향엄을 가리킨다. 노와 고는 법력이 높은 노덕(老德)과 고덕(古德)이라는 뜻이며, ‘추’는 핵심을 찌르는 선기(禪機)가 송곳처럼 날카로운 것을 비유한다.

뛰어난 말이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달리듯이 해야 하며,⁹⁾

흙덩이를 쫓는 개와 같이 하면 사자의 위용은 아니라네!¹⁰⁾

保寧勇頌, “曲設多方老古錐! 那堪枝上更生枝? 好如良馬窺
鞭影, 逐塊且非師子兒.”

설두법령(雪竇法寧)의 송¹¹⁾

향엄은 나무 위에서 풍파를 일으켰으나,

나무 아래 궁원¹²⁾에서 웃음으로 응답했네.

나무에 오르면 더욱 향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어찌 고요한 곳에서 성취하는 경지와 비교하라!¹³⁾

雪竇寧頌, “香嚴樹上鼓風波, 樹下窮源笑答他. 上樹更能明向
上, 爭如靜處薩婆訶!”

9) 언어의 단서만 보고도 가리키는 뜻을 안다는 말. 선어록에 널리 활용된다. “온갖 악(惡)을 멀리 여의는 것이 마치 채찍의 모습만 보고도 달리는 뛰어난 말과 같다.”(『雜阿含經』 권22 大2 p.154a11, 能遠離諸惡, 如顧鞭良馬.)

10) 본서 417則 주석37) 참조.

11) 이 계송은 나무 위에서 제기한 언어와 침묵의 긴장보다 나무에 오르기 이전에 아무 일도 없이 고요한 경계를 수궁하는 관점에 따른다.

12) 窮源, 물의 흐름이 끊어진 곳. 곧 물의 발원지(發源地)를 말한다. 나무 위에서 발생한 침묵과 언어의 갈등은 풍파에, 나무 아래의 어떤 갈등도 없는 상황은 궁원에 비유했다.

13) 정처사바하(靜處薩婆訶). ‘사바하’는 𑖀svāhā의 음사어 중 하나로 길상(吉祥)·성취(成就) 등을 뜻하며, 주로 주문(呪文)의 마지막 구절에 쓰인다. 『雲門廣錄』 권상 大47 p.549b26, 『大慧語錄』 권1 大47 p.814c17 등에 나온다. 제2구의 ‘궁원’과 상응한다. 반면 제3구의 ‘향상’은 제1구의 ‘풍파’와 상응한다.

삼계일익(雪溪日益)의 송

좁은 길에서는 몸 놀리기 어려우니,
동쪽이나 서쪽이나 온통 산이로구나.¹⁴⁾
나그네가 이르지 못하는 그곳,
바람이 멎으니 떨어지는 꽃 한가롭다.

雪溪益頌, “狹路轉身難, 東西盡是山. 行人不到處, 風定落花閑.”

열재거사의 송

그를 가엾게 여겨 나무 위의 소식을 물었건만,
나무 아래 소식 아무리 헤아려도 모자라구나.
저울추를 직접 밟아보면 무쇠와 같이 단단하고,
장안도 알고 보면 산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¹⁵⁾

悅齋居士頌, “憐渠上樹問如何, 樹下商量不較多. 踏著秤槌硬似鐵, 長安元不隔山河.”

14) 말할 수도 없고 침묵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을 나타낸다.

15) 저울추가 겉으로 보기에 작고 여러지만 아무리 밟아보아도 찌그러지지 않는 무쇠이고, 장안이 번잡한 도시라 자연의 산하와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비유. 나무 위의 긴장과 나무 아래의 평온은 주어진 그대로 보이는 진실이 아니라는 뜻이다. 나무 위도 나무 아래도 모두 주어진 그대로 통과할 수 없는 관문(關門)이자 효와(譌訛)이기 때문이다.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염¹⁶⁾

“나무 위에서 말하기는 쉽지만, 나무 아래서 말하기는 어렵다. 노승이 나무 위에 매달렸으니, 질문 하나를 던져보라.”

雪竇顯拈, “樹上道即易, 樹下道則難. 老僧上樹也, 致將一問來.”

[설화]

나무 위의 소식이 나무 아래 소식과 같다는 대의이다.

雪竇大意, 樹上即樹下也.

취암수지(翠巖守芝)의 염

“질문하는 자와 대답하는 자 모두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납승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翠巖芝拈, “問者對者, 不免喪身失命. 如今衲僧作麼生?”

[설화]

그렇다면 납승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나무 위에서 알아차리라는 뜻일까? 아니면, 나무 아래서 알아차리라는 뜻일까?

-
- 16) 침묵과 언어가 모두 통하지 않는 나무 위의 곤경(困境)은 어려운 반면 나무 아래에서는 쉽다고 여기는 상식적 판단을 뒤집어 ‘나무 위는 쉽고 나무 아래는 어렵다’라고 한 것이 설두의 요소이다. 여기서 쉽다·어렵다는 틀이 또 하나의 관문이다. 하나의 관문(공안)에 대하여 이와 같이 또 하나의 관문을 설정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이중공안(二重公案)이라 한다. 대부분의 염과 송에는 이중공안의 방식이 잠재되어 있다.

翠巖：如今衲僧作麼生者，樹上會耶？樹下會耶？

지해본일(智海本逸)의 상당

이 공안과 설두의 염을 더불어 제기하고 말했다. “설두노인은 평상시에 이전에도 앞으로도 비교할 상대가 없고 세상 전체에서 독보적인 인물이었으나, 자신도 모르게 향엄에게 나무 위로 쫓겨나게 되어 지금에 이르도록 다리로 바닥을 밟지 못하고 있다. 바른 안목이 있는 자라면 분간해 보라!”

智海逸，上堂，舉此話，連舉雪竇拈，師云，“雪竇老漢，尋常，光前絕後，獨步寰中，不覺被香嚴送放樹上，直至于今，脚不履地。具眼者，辨取！”

[설화]

호두상좌가 ‘아직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을 때’라고 한 뜻을 긍정적으로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호두상좌야말로 이전에도 앞으로도 비교할 상대가 없고 세상 전체에서 독보적인 인물이라 할 만하다는 뜻이다.

智海：扶他虎頭上座未上樹時也。然則虎頭可謂光前絕後，獨步寰中。

천동정각(天童正覺)의 거

이 공안과 설두의 염을 더불어 제기하고 말했다. “호두상좌는 지독한 도적이었으니, 도의¹⁷⁾가 전혀 없는 손으로 아무 방비도 없는 스승의 집을 털

17) 의(義), 도의(道義)·은의(恩義)·정의(情誼)·은정(恩情) 등과 통한다.

었다.¹⁸⁾ 설령 본색을 갖춘 작가¹⁹⁾일지라도 왕왕 손발을 둘 곳을 몰라 당황 하지만, 설두는 특별한 근기였으니 그는 허물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리라.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지만 그 또한 몸만 숨기고 그림자는 드러내는 잘못을 저질렀을 뿐이다.²⁰⁾ 향엄이 걸어간 경지를 알겠는가? 3천 검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로지 장주(莊周)만이 태평한 세상을 이룰 수 있었다네.²¹⁾”

天童覺, 舉此話, 連舉雪竇拈, 師云, “虎頭上座, 是个惡賊, 用無義手, 打不妨²²⁾家. 直饒本色作家, 往往措手脚不辦, 雪竇是別機, 宜識休咎底漢. 到這裏, 亦只得藏身露影. 還會香嚴做處麼? 三千劍客今何在? 獨許莊周見²³⁾太平.”

18) 호두상좌가 향엄의 속마음을 훔친 진실한 제자라는 뜻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19) 본색작가(本色作家). 다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고 타고난 바탕 그대로의 색을 갖춘 탁월한 선수행자. ‘본색’이란 본분과 같은 말이고, ‘작가’는 최고의 경지에 이른 선수행자를 나타낸다. 본색종사(本色宗師) 또는 본색납승(本色衲僧) 등이라고도 한다.

20) 몸을 숨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가 드러나 결국 정체가 발각되었다는 뜻이다. 호두상좌도 자기 말의 자취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것을 비유한다.

21) 『莊子』「說劍」에 나오는 이야기에 기초한다. 칼을 좋아했던 조나라 문왕 밑으로 3천 검객이 몰려들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칼싸움을 하여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었다. 그때 장자가 천자의 칼과 제후의 칼과 서민의 칼 등 세 종류의 칼에 대하여 설명하는 소리를 듣고 문왕은 석 달 동안 궁전 밖을 나가지 않았고 검객들은 모두 자결했다. 호두상좌를 칼 한번 안 쓰고 난국을 평정한 장자와 견주고 있다.

22) 『請益錄』 7則 卍117 p.819a1에는 ‘妨’으로, 『宏智廣錄』 권3 大48 p.28b2를 비롯한 모든 문헌에는 ‘防’으로 되어 있다.

23) ‘見’은 ‘致’와 통한다.

[설화]

호두상좌의 입장을 부각시켰다.

天童：扶虎頭上座也.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염

“향염은 무엇 때문에 웃었을까?”라 하고, 이어서 설두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말해 보라! 설두의 말은 나무 위에서 한 말인가, 나무 아래에서 한 말인가?²⁴⁾ 시험 삼아 말해 보라.”

法眞一拈, “祇如香嚴, 笑箇什麼?” 乃舉雪竇拈, 師云, “且道! 雪竇是樹上語, 樹下語? 試請道看.”

[설화]

향염이 웃은 까닭을 마음껏 드러내었다.

法眞：弄現香嚴笑處.

죽암사규(竹庵士珪)의 거

이 공안을 제기하고 ‘목숨을 잃는다’라고 한 부분에 이르러 말했다. “향염은 마치 소하²⁵⁾가 법륜을 제정하는 것과 같았다.”²⁶⁾

24) 설두는 자신이 나무 위에 (입으로 가지를 물고) 있다고 하고 나무 아래보다 나무 위가 쉽다고 했다. 그렇다면 설두가 그렇게 말하고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무사했겠느냐는 뜻이다.

25) 본서 110則 주석(64) 참조.

26) 본서 110則 주석(65) 참조.

竹庵珪, 舉此話, 至喪身失命, 師云, “香嚴, 大似蕭何置律.”

[설화]

다만 나무 위에서 몸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竹庵：只向樹上著倒故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상당

어떤 학인이 물었다. “옛사람이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만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뿐, 더위잡을 가지도 없고 밟고 디딜 나무도 없다고 하자’라고 제시한 상황에서도 대답할 여지가 있습니까?” “이미 대답을 마쳤다.” “저는 나무 위의 이야기를 물었는데, 화상께서는 어쩌서 나무 아래에서 대답하십니까?” “바로 그대가 나무 아래에서 물었기 때문이다.” “대중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까?” “분명히 드러나 있어 속이지 못하겠군.”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았고 어떤 소식도 없다고 한다면, 향엄은 어디서 이 화두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대가 말한 그 칠통²⁷⁾ 안에서 얻는다.” “화상께서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사실과 어긋난다’²⁸⁾라고 한 말에도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다.” “그렇다면 헛된 시설이군요.” “헛된 시설²⁹⁾이다.” 이어서 대혜선사가 “‘가령 어떤 사람

27) 柒桶, 칠통(漆桶)과 같다. 어떤 소식도 없고 알아챌 실마리가 전혀 없는 상황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시커멓기만 한 ‘칠통 안’에 비유했다.

28) 원래 수산성님(首山省念)이 제기한 화두이지만(본서 1331則「首山竹篋」참조), 대혜종고(大慧宗杲)가 법문 때 이 화두를 즐겨 활용했다.

29) 허설(虛設). 보통은 실효성이 없는 시설 또는 진실하지 못한 시설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위에서 말한 죽비 화두가 상대를 시험하기 위한 임시 설정의 함정으로서 ‘장치’라는 뜻이다.

이 나무에 올라가 ~ 대답하지 않으면 그 질문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때 향엄이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 말을 수궁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던 호두상좌라는 이가 대중 속에서 나와 ‘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있는 상황은 그만 두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어떤지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문답을 제기하고 “험(險)!”³⁰⁾이라 하였고, 향엄이 꺾꺾대고 크게 웃은 것에 대해서도 “험!”이라 하였다. “내가 이렇게 말한 두 가지 ‘험’ 중 하나의 험은 하늘이 만물을 두루 덮는 것과 같고 땅이 만물을 두루 떠받치는 것과 같으며, 다른 하나의 험은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다. 이 차이를 가려낼 사람 있는가? 만약 가려낸다면, 향엄의 의중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호두상좌로 하여금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의탁할 곳이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럴 사람이 없다면 내가 실현된 공안³¹⁾을 가지고 그대들에게 하나의 해설을 달아주겠다.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

徑山杲，上堂，僧問，“古人道，‘如人上樹，口噙樹枝，手不攀枝，腳不踏樹。’未審還有答話分也無？”師云，“答話了也。”進云，“學人問樹上話，和尚爲什麼，向樹下答？”師云，“只爲你在樹下問。”進云，“謾得大衆眼麼？”師云，“灼然，謾不得。”進云，“只如樹子未生，消息未動，香嚴向甚麼處，得這個話頭來？”師云，“向你柴桶裏得來。”進云，“只如和尚道，‘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還有爲人處也無？”師云，“無。”進

30) 위험하다 또는 험난하다는 뜻이지만, 한 글자로 선의 중지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바로 이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수월하게 알 수 없으니 조심하라는 의미도 된다. 향엄의 웃음에 붙인 바로 다음의 ‘험’도 마찬가지이다.

31) 현성공안(現成公案). 가감할 여지가 조금도 없이 그 본질을 온전히 실현하고 있는 공안. 곧 진퇴양난의 판문으로서 그 본질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는 공안을 가리킨다.

云,“恁麼則却成虛設.”師云,“虛設.”乃云,“‘如人上樹,至違他所問.’是時香嚴,才恁麼道,便有个傍不肯底,喚作虎頭上座,出衆云,‘樹上卽不問,樹下道將一句來.’”師云,“險!”香嚴呵呵大笑,師云,“險!”“徑山這兩險,有一險,如天普盖,似地普擎;有一險,料掉沒交涉.還有揀得出者麼?若揀得出,非唯親見香嚴,亦使虎頭上座,無安身立命處.如無,徑山將現成公案,爲你諸人,下个注脚.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

[설화]

이미 대답을 마쳤다 : 나무 위에서도 대답한 뜻이 있다.

대중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까 : 대중의 눈은 나무 위나 나무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대해도 ‘분명히 드러나 있어 속이지 못하겠군’이라 말한 것이다.

나무가 아직 자라지 않았고 ~ 이 화두를 얻을 수 있을까요 : 나무 위나 나무 아래 그 어느 편과도 상관이 없는 경계를 집어내었다.

칠통 안에서 얻는다 : 나무 위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경계가 바로 칠통이다.

화상께서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 어긋난다’라고 한 말에 대해 질문한 것 : 이 또한 나무 아래의 경계에서 그에게 던진 질문이다.

지시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지시한 내용이 없다는 뜻이다. 곧 나무 위의 소식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헛된 시설이군요 : 점점한다는 뜻이다. 헛된 시설이란 ‘과연 어디서 모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진실로 헛된 시설이라는 뜻이다.

호두상좌가 던진 질문에 대한 착어(著語)로 ‘힘’이라 하고, 향엄이 꺾꺾대고 크게 웃은 것에 대하여 ‘힘’이라고 한 착어 : ‘향엄의 말은 험난한 장치이지만, 호두상좌의 말이야 어찌 험난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뜻이다.

내가 이렇게 말한 두 가지 ‘힘’ 중 ~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다 : 힘을 가리키니, 향엄의 웃음이 그것이다.

하늘이 만물을 두루 덮는 것과 같고 ~ 떠받치는 것과 같으며 : ‘어찌 호두상좌가 이렇단 말인가!’라는 뜻이다.

다른 하나의 힘은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다 : 이전에 호두상좌가 물었던 ‘나무 아래’의 ‘힘’을 가리킨다. 이것이 어떤 것과도 상관이 없는 이상 어찌 힘이 겠느냐는 뜻이다.

향엄의 의중을 속속들이 ~ 없도록 만들 것이다 : 향엄의 의중을 속속들이 안다면 호두상좌는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의탁할 곳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죽비라 부르면 ~ 등지게 된다 : 그렇다면 호두상좌 또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의탁할 곳이 있다는 뜻이다.

徑山：答話了也者，樹上亦有答話意也。謾得大衆眼麼者，大衆眼則不在樹上樹下也。故灼然謾不得也。只如樹子至話頭來者，樹上樹下不干處拈出也。漆桶裏得來者，樹上道不得，是漆桶也。和尚道，喚作竹篋子云云者，又向樹下問他。爲人不爲人也無者，無爲人處也。卽是樹上也。却成虛設者，勘驗也。虛設者，果然甚處摸捺，真是虛設也。虎頭上座問處著語，險，香嚴呵呵大笑處，險，香嚴語，是險也，虎頭語，豈是險也。有一險如天云云者，指險也，呵呵大笑是。如天普蓋云云者，豈是虎頭如是也。有一險料掉云云者，指前虎頭上座樹下險也。既是了沒交涉，豈是險也。非唯親見云云者，親得香嚴意，則虎頭上座，却是無安身立命處。喚作竹篋云云者，然則虎頭，亦有安身

대혜종고의 보설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산승은 예전에 어떤 존숙에게 한 번 더 가르침을 청하며 ‘향엄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 존숙이 마침내 불자 자루를 입에 가로로 물고 눈을 꼭 감고서 나뭇가지를 물고 있는 자세를 취한 채 손을 흐느적거리고 발을 뺀어 산승의 질문에 응답했다.” 대혜가 이어서 손가락을 통기고 말했다. “이와 같이 당시에 명성을 드날리던 존숙조차도 이런 식의 응답을 했으니, 그 나머지 사람들이 괴이하게 대답한 것은 입에 담지도 않겠다. 그대들은 알고자 하는가? 다만 한 구절을 지어낸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말해 주겠다. 아무에게서도 한 구절을 지어내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들려준 말에서 알아차리되 들려주자마자 곧바로 알아차려야 한다. 이러한 도리가 아니라면 어떤 도리일까? ‘가령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는 나뭇가지를 물고 ~ 대답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이런 상황에서는 머리카락 한 올도 들어갈 틈이 없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향엄의 회중에서 오로지 호두상좌가 향엄의 뜻을 깨우쳤기에 앞으로 나와서 향엄의 막힌 숨통을 터주며 ‘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있는 상황은 그만두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어떤지 화상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대혜가 이에 대해 착어했다. “비록 한 번의 영광을 누리기는 했으나 한 쌍의 발꿈치를 모두 잘려버린 꼴이다.”³²⁾ 향엄이 꺾꺾대고 크게 웃었다는 구절

32) 전국시대 초나라 때 변화(卞和)의 고사에 따른다. 변화가 형산(荊山)에서 박옥(璞玉)을 주워 여왕(厲王)과 무왕(武王)에게 연이어 바쳤으나 두 번 모두 왕을 속였다고 하여 두 발의 뒤꿈치를 잘리는 형벌[刖刑]을 받았다. 후에 문왕(文王)

에 대해서는 “철판을 얼굴에 깔았구나”³³⁾라고 착어하고 또한 “천륜을 돌리고 지축을 움직인다”라고 착어했다. “후대에 설두는 이 공안의 핵심을 집어내어 ‘나무 위에서 말하기는 쉽지만 ~ 질문 하나를 던져보라’고 하였다. 이렇듯 설두가 비록 호두상좌의 숨통을 터주기는 했지만, 향엄의 뜻을 모르고 지나쳤던 것은 어찌랴! 요즈음 잘못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설두가 이렇게 한 말을 듣고는 ‘단지 현재의 금계만 범하지 않는다면 이전 시대의 뛰어난 말재주꾼³⁴⁾보다 나으리’³⁵⁾라는 동산양개(洞山良价)의 말을 끌어들이며, ‘향엄이 내세운 이 화두는 마치 한 덩어리의 불과 흡사하니 범해서는 안 된다’³⁶⁾라고 한다. 비록 그렇더라도 언구를 그런 의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부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동산수초(洞山守初)는 ‘삼 세 근’이라 대답했고,³⁷⁾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조주(趙州)는 ‘뜰 앞의 잣나무’³⁸⁾라고 했으니, 이렇게 대답한들 무슨 잘못이 있

이 이 옥의 가치를 알아보고 장인(匠人)을 시켜 다듬게 하여 마침내 최고의 옥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서의 뜻은 〈설화〉 참조.

33) 웃기는 했지만 사사로운 정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호두상좌의 말도 인정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한 웃음이라는 뜻이다.

34) 단설재(斷舌才). 혀를 끊어 놓은 듯이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도록 만드는 뛰어난 말재주 또는 그런 사람.

35) 동산의 오위군신설(五位君臣說) 중에서 정중래(正中來)에 대한 계송의 일부. 『洞山語錄』 大47 p.525c4 참조.

36) 향엄의 말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마치 타오르는 한 덩어리의 불에 손끝이라도 닿으면 피해를 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말재주라도 침묵보다 못하다는 뜻. 대회는 다른 곳에서 화두를 불덩어리에 비유했다. “마치 한 덩어리의 불과 흡사하여 건드리기만 하면 곧 타버릴 것이니, 어떻게 다가설 여지가 있겠는가!”(『書狀』「答曾侍郎」第二書 大47 p.917b29. 如一團火相似, 觸著便燒, 有甚麼向傍處!)

37) 『禪門拈頌說話』 1230則 참조.

38) 『禪門拈頌說話』 421則 참조.

으랴! 그대들은 틀림없이 이해할 수 있다. 분양화상의 다음 계송을 모르는가?(이하에서 계송의 각 구절에 착어를 붙인다) ‘향엄이 이 화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준 이유는, 벗들을 이끌어 본래 진실에 통달케 하도록 함이었네’라고 하였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진실에 따라 그대로 통하도록 힘쓴다”라 착어했고, ‘하지만 분별하면서 도리어 걸말에서 찾아 헤매다가, 목숨을 잃은 자들이 티끌과 같이 무수히 많노라’라는 구절에는 “고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착어했으며, ‘분양이 그대들에게 하늘로 통하는 길을 열어 주리니, 구름 흩어져 끝없이 펼쳐진 허공에 달빛 신선하구나’라는 구절에는 “쓸데없는 말이다”라고 착어했다.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이들 구절 안에서 그 뜻을 들고 궁구하다 보면 한평생 공부할 일을 마치게 될 것이다.”

又普說，舉此話云，“山僧昔年，曾請益一个尊宿，‘未審香嚴意旨，如何？’遂以拂子柄，銜在口中，緊閉却眼，便作銜樹枝勢，搖手擺脚，祇對山僧。”師乃彈指云，“如此者，亦是當年馳聲走譽底，尚作這般去就，其餘作怪，不在言也。你要會麼？但只作一句看，我先爲你說。莫見道作一句看，便向舉起處會，舉了便會了。且不是這個道理，是什麼道理？‘如人上樹，口銜樹枝，至喪身失命。’如何這裏間不容髮？當時香嚴會中，只有个虎頭上座，領得香嚴意，便出來，爲香嚴出氣云，‘上樹卽不問，未上樹，請和尚道。’”師云，“雖得一場榮，則却一雙足。”香嚴呵呵大笑，師云，“鐵作面皮。”又云，“回天輪轉地軸。”後來雪竇拈云，‘樹上道則易，至致將一問來。’雪竇雖爲虎頭上座出氣，爭奈蹉過香嚴！今時有般謬漢，聞雪竇怎麼道，便引洞山語云，‘但能莫觸當今諱，也勝前朝斷舌才。’謂香嚴立此个問頭，喻如一團火相似，不可觸。雖然如此，不可斷却言句。有問，

‘如何是佛?’ ‘麻三斤.’ ‘如何是祖師西來意?’ ‘庭前栢樹子.’
 又且何妨! 你不妨會得好. 不見汾陽和尚頌曰, ‘香嚴銜樹示多人,
 要引同袍達本真.’” 師云, “依實供通.” ‘擬議却從言下覓,
 喪身失命數如塵.’ 師云, “不是苦心人不知.” ‘汾陽爲你開天
 路, 雲散長空月色新.’ 師云, “閑言語. 雖然如是, 若向這裏提
 得去, 一生叅學事畢.”

[설화]

불자 자루를 입에 가로로 물고 ~ 응답했다 : 향엄의 말만 인정한 것이니, 이 어찌 ‘명성을 드날리던 존숙조차도 이런 식의 괴이한 응답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뜻이다.

다만 한 구절을 지어낸다면 : 나무 위와 나무 아래에서 한 구절 지어내 보라는 뜻이다.

들려준 말에서 알아차리되 : 향엄이 들려준 말을 가리킨다.

아무에게서도 한 구절을 ~ 이러한 도리가 아니라면 : 이렇게 이해해도 옳지 않으니 이 또한 말에 얽매어 생각을 마구 치달리는 짓이기 때문이다.

비록 한 번의 영광을 ~ 모두 잘려 버린 꼴이다 : 향엄의 나무 위 소식은 ‘비록 한 번의 영광을 누리기는 했다’라는 말과 상응하고, 나무 아래 소식을 알지 못한 것은 ‘한 쌍의 발꿈치를 모두 잘려버렸다’라는 말과 상응한다.

철판을 얼굴에 깔았구나 : 입장이 견고하므로 분별로 파고들어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천륜을 돌리고 지축을 움직인다 : 나무 아래서 대답하는 데 장애가 될 것이 없다.

향엄의 뜻을 모르고 지나쳤던 것은 어째랴 : 향엄의 뜻이 어떤 한계도 없다는 점을 몰랐다.

요즈음 잘못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 라고 한다 : 다만 향엄이 단정한 연구만 알고 있다.

비록 그렇더라도 ~ 무슨 잘못이 있으랴 : 나무 아래에도 이와 같은 뜻이 있다.

분양화상의 다음 계송을 ~ 쓸데없는 말이다 : 무슨 나무 아래 소식을 찾는다는 뜻이다.

비록 이렇다 하더라도 ~ 마치게 될 것이다 : 나무 아래 소식을 떠나서 또 무엇을 찾는다는 뜻이다.³⁹⁾

又普說：拂子柄銜在口中云云者，只認得香嚴地，豈不是馳聲走譽地作怪也。只作一句看者，樹上樹下作一句看也。舉起處會者，香嚴舉起處也。莫見道至不是這箇道理者，伊麼會又却不是，此亦隨言走殺也。雖得一場榮云云者，香嚴樹上，雖得一場榮云云也，不會樹下，則雙足也。鐵作面皮者，立處堅固，穿鑿不得也。迴天輪云云者，不妨向樹下答話也。蹉過香嚴者，不知香嚴意無限也。便引至不可觸者，只知香嚴斷却言句也。雖然至何妨者，樹下有此等意也。汾陽云云閑言語者，討甚樹下。雖然如是云云者，離樹下便討甚麼。

개암봉의 상당

‘가령 어떤 사람이 천 길의 낭떠러지에서 입으로만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뿐, 손으로는 잡을 것이 없고 다리도 밟은 곳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물었다고 하자. 바로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향엄이 대중에게 한 말을 제기하고 “도둑놈!” 하고 착어했다. ‘그

39) 나무 아래 소식 그대로 알거나 반대로 그것에서 벗어나거나 모두 안 된다고 판단한 해설이다. 화두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따른다.

때 호두상좌가 대중 속에서 나와 「나무에 올라가 매달려 있는 상황은 그만두고, 아직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어떤지 화상께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는 구절에 다시 “도둑놈!” 하고 착어했고, 향엄이 꺾꺾 대고 크게 웃었다는 구절에는 “물렁한 진흙 속에 가시가 숨어 있다”⁴⁰⁾라고 착어했다. 설두가 ‘나무 위에서 말하기는 쉽지만, 나무 아래서 말하기는 어렵다. 노승이 나무 위에 매달렸으니, 질문 하나를 던져보라’고 한 구절에 또 다시 “도둑놈!” 하고 착어한 다음 말했다. “이 세 도둑 중에서 한 놈은 주범이고 다른 한 놈은 도둑에게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게 해 주었고 또 한 놈은 앉은자리에서 훔친 물건을 나누었다. 말해 보라! 누가 주범일까? 여러분이 여기서 가려낸다면 향엄의 의중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절로 이 곤경을 벗어나는 길도 열릴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계송 한 수를 들어 보라. ‘난세의 간교한 무리들 대부분이 패도를 행하니, 처자식과 부자가 각자 서로를 지켜주지 못하네. 그물에 걸렸다가 목숨 건졌으니, 그 옛날 이광과 다르지 않구나.’⁴¹⁾”

介庵朋, 上堂, 舉香嚴示衆云, ‘如人在千尺懸崖, 口含樹枝, 手無所攀, 腳無所蹋, 忽有人問西來意, 至正恁麼時, 如何?’ 師着語云, “賊!” 時有虎頭上座出衆云, ‘上樹卽不問, 未上樹時, 請和尚道.’ 師着語云, “賊!” 香嚴呵呵大笑, 師云, “爛泥裏有刺.” 雪竇云, ‘樹上道卽易, 樹下道卽難. 老僧上樹也, 致將一問來.’ 師着語云, “賊!” 師云, “這三箇賊數中, 一人正賊,

40) 진흙이 물렁할 것으로 생각하고 밟다가 그 속에 숨은 가시에 찢리는 것처럼 향엄의 웃음을 단지 긍정하는 웃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가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숨은 의도를 알지 못한다는 뜻. 웃음 속에 칼이 숨어 있다는[笑中有刀] 말과 통한다.

41) 적진에 사로잡혔다가 탈출한 이광(李廣)장군의 고사.

一人與賊過梯，一人坐地分贓。且道！那箇是正賊？諸人若向這裏，揀辨得出，非唯會得香嚴意，抑亦自有出身之路。脫或未然，更聽一頌。‘亂世奸雄多行霸道，妻兒父子各不相保。罕中拾得性命，無異當年李廣。’”

[설화]

향엄·호두·설두가 모두 도둑인데, 그중 누가 주범일까? 하나하나가 모두 주범이다.

‘난세의 간교한 무리들’이라 한 게송: 향엄·호두·설두의 의중을 이해하더라도 말에 얽매여 이해하는 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箇庵：香嚴虎頭雪竇，皆是賊，那箇是正賊？一一是正賊也。
亂世奸雄云云者，會香嚴虎頭雪竇意，隨語生解者也。



607칙 臨濟佛法 임제불법



607칙 임제불법 臨濟佛法

[본칙]

진주 임제의현선사가 황벽의 회상(會上)에 있을 때, 제일좌¹⁾의 권유로 황벽에게 “무엇이 불법(佛法)의 분명한 대의(大意)입니까?”라고 물었는데, 황벽은 곧바로 때렸다. 이렇게 묻고 맞기를 세 차례 반복하고 나서, 임제가 황벽에게 작별을 고하자 황벽은 대우(大愚)를 찾아보도록 했다. 대우가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황벽의 회상에서 왔습니다.” “황벽이 무슨 말을 하던가?” “제가 세 차례 불법의 분명한 대의를 물었다가 세 번 모두 몽둥이맛을 보았는데, 제게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황벽이 그렇게 노파²⁾처럼 그대를 사무치도록 가르쳤는데, 여기까지 와서 다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느냐?” 임제가 이 말에 크게 깨닫고 말했다. “원래 황벽스님의 불법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군요.”³⁾ 대우가 임제의 먹살을 움켜잡고 말했다. “이 오줌싸개야! 방금 전에는 허물

-
- 1) 第一座. 수좌(首座)와 같은 말. 승당(僧堂)에 배치된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인 제일위(第一位)에 있기 때문에 제일좌라 한다.
 - 2) 老婆. 간절하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나 그 마음. 노파가 손자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세하게 일러주는 것처럼, 종사가 학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 3) 무다자(無多子). ‘다(多)’는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뜻한다. 불필요한 방편이나 조작이 없어 간단명료하게 진실에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이 있느니 없느니 해놓고 지금은 불법에 군더더기가 없다고 말하는구나. 도대체 무슨 도리를 보았느냐? 빨리 말해라, 빨리 말해!” 임제가 대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차례 쥐어박자 대우가 먹살을 풀고서 밀치며 말했다. “너의 스승은 황벽이니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다.” <이때 진존숙(陳尊宿)⁴⁾이 수좌로 있었다.>

鎮州，臨濟義玄禪師，在黃蘗會，因第一座勉令，問黃蘗，
“如何是佛法的的大意？”蘗便打。如是三度，乃辭，蘗令見
大愚。愚問，“什麼處來？”師云，“黃蘗來。”愚云，“黃蘗有何
言句？”師云，“某甲三問佛法的的大意，三度喫棒，不知有
過無過。”愚云，“黃蘗怎麼老婆，爲你得徹困，更來問有過
無過？”師於言下大悟云，“元來黃蘗佛法，無多子。”愚扭住
云，“者尿床鬼子！適來道有過無過，如今却道佛法無多子。
你見个什麼道理？速道，速道！”師便向大愚肋下，築三拳。
愚托開云，“汝師黃蘗，非干我事。”<時陳尊宿爲首座.>

[설화]

임제의 기봉⁵⁾이 남달랐기 때문에 진존숙이 ‘불법의 분명한 대의’를 묻도록 한 것이다.

4) 목주도명(睦州道明 780~877). 황벽의 제자로서 속성은 진(陳)씨. 도종(道蹤)·진포혜(陳蒲鞋) 등이라고도 한다. 학인들이 법을 물으러 오면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하였으며, 말이 준엄하고 날카로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방에서 귀의하였으므로 진존숙이라 불렸다. 본서 639則 주석1) 참조.

5) 機鋒.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태도나 수단이 민첩하고 날카로운 점을 칼끝[鋒]에 비유한 말이다. ‘기(機)’는 수행에 의하여 얻은 마음의 기틀[心機] 또는 그것이 활용되어 진리에 합일하는 것을, ‘봉(鋒)’은 그러한 기(機)의 작용이 날카로운 모양을 뜻한다. 선기(禪機)라고도 한다.

곧바로 때렸다 : 세 차례 20방씩 때린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분명한 대의이다.

제가 세 차례 불법의 분명한 대의를 ~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 임제 스스로 허물이 있어서 맞았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원래 황벽스님의 불법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군요 : 물을 만한 불법이 없으며 말로 표현할 여지도 없다⁶⁾는 뜻이다.

대우가 임제의 먹살을 움켜잡고 말했다 : 임제가 또 황벽의 뜻을 착각하지 않을까 염려한 것이다.

임제가 대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차례 쥐어박았다 : 황벽의 수단을 쓴 것이니, 이것이 ‘분명한 대의’이다.

臨濟機鋒，不同常流故，令問的的大義也。便打者，三度每二十棒，是的的大義也。某甲三問佛法的的大意云云者，作過棒會也。元來黃蘗佛法無多子者，無佛法可問，無插觜處也。扭住云云者，又恐他錯會黃蘗意也。築三拳者，用得黃蘗手段，是的的大意也。

6) 무삽자처(無插觜處). 부리를 꽂을 여지가 없다는 말로서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황벽의 몽둥이질은 그 자체로 간명하게 완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니저러니 어떤 말을 붙여도 군더더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자(觜)’는 ‘취(嘴)’와 통하며 본래 새의 부리를 가리키지만, 사람이나 동물의 입 또는 입으로 표현하는 말을 가리키기도 한다.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아홉 가지 고루 갖춘 봉황⁷⁾이요,
하루 천 리를 달리는 말⁸⁾이로다.
온전한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요,⁹⁾
신령한 기를 움직이는 축이로다.
정면에서 달려들 때는 번개처럼 재빠르고,
어두운 구름 걷힌 그곳에 태양처럼 홀로 밝구나.
호랑이 수염 뽑는 기상 보았는가?
이것이 바로 웅장한 대장부의 모습일세.

天童覺頌, “九包之雛, 千里之駒. 眞風度籥, 靈機發樞. 劈面

-
- 7) 구포지추(九包之雛). ‘包’는 보통 ‘苞’로 쓰며 봉황의 특징을 말한다. 천동정각은 『從容錄』 86則 「頌 評唱」 大48 p.283a18에서 아홉 가지 특징을 지닌 봉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용도를 보면, 봉황에게는 아홉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순하게 따르는 것[歸命]이다. 둘째는 법도 곧 하늘의 법도에 합하는 마음이다. 셋째는 듣는 작용에 통달한 귀이다. 넷째는 굽혔다 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혀이다. 다섯째는 화려하게 빛나는 색이다. 여섯째는 짧고 주황색을 띤 벼이다. 일곱째 날카로운 부리이다. 여덟째 격동하며 널리 퍼지는 울음 소리이다. 아홉째는 배에 새겨진 문양이다.”(瑞應圖云, 鳳有九包. 一曰, 歸命. 二曰, 心合度, 謂天度也. 三曰, 耳聽達. 四曰, 舌曲申. 五曰, 彩光色. 六曰, 冠短州, 當朱色也. 七曰, 銳鉤. 八曰, 音激揚. 九曰, 腹戶.)
- 8) 위의 책 86則 「頌 評唱」 大48 p.283a21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구방인이 진나라 목공을 위해 말을 골랐는데 과연 천 리를 달리는 말이었다.”(九方堯爲秦穆公相馬, 果千里駒.)
- 9) 탁약(度籥)은 ‘풀무’라는 뜻의 탁약(囊籥)이 바른 말이다. 풀무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물건을 주물하는 불을 피우듯이 만물을 조화롭게 하는 근원을 상징한다. 『老子』 5장에 “천지 사이의 조화는 마치 풀무와 같지 않은가! 안이 텅 비었지만 끝없이 일어나고, 움직일수록 더욱 많은 바람이 나온다.”(天地之間, 其猶囊籥乎! 虛而不屈, 動而愈出.)

來時飛電急，迷雲破處大陽孤。捋虎鬚見也無？箇是雄雄大丈夫。”

[설화]

아홉 가지 고루 갖춘 봉황 : 봉황에게도 무늬가 있다는 말이다. 아홉 가지를 고루 갖추었다는 말은 1구(一句)에 3현(三玄)이 갖추어져 있고, 1현(一玄)에 3요(三要)가 갖추어져 있으니¹⁰⁾ 곱해서 아홉이 된다.

하루 천 리를 달리는 말 : 초탈의 의미이다.

앞의 두 구절은 임제에 대한 찬탄이다.

온전한 바람을 ~ 움직이는 축이로다 : 구슬이 걸림 없이 구르는 것과 같은 조화를 나타낸다. 황벽에 대한 찬탄이다.

정면에서 달려들 때는 번개처럼 재빠르고 : 대우를 묘사한 말이다.

어두운 구름 걷힌 그곳에 태양처럼 홀로 밝구나 : 임제가 깨달은 경계를 상징한다.

호랑이 수염 뽑는 ~ 대장부의 모습일세 : 대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차례

10) 임제의 설에 따른다. “법좌에 올라앉자 어떤 학인이 물었다. ‘제1구는 어떤 것입니까?’ ‘3요의 도장을 찍고 떼니 붉은 무늬점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분별하기도 전에 주·객이 갈라지리라.’ ‘제2구는 어떤 것입니까?’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어찌 무착(無著)선사의 물음을 용납할 것인가? 그러나 방편이 어찌 번뇌를 끊은 근기(문수)와 상충되겠는가!’ ‘제3구는 어떤 것입니까?’ ‘무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꼭두각시를 보라. 밀거나 당기거나 모두 그 뒤에서 조작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다.’ 임제는 다시 ‘1구의 말에는 반드시 3현문을 갖추고 1현문에는 3요를 갖추어야 방편도 있고 작용도 있게 된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 말한 뒤 법좌에서 내려왔다.”(『臨濟語錄』 大47 p.497a15. 上堂. 僧問, ‘如何是第一句?’ 師云, ‘三要印開朱點側, 未容擬議主賓分.’ 問, ‘如何是第二句?’ 師云, ‘妙解豈容無著問? 漚和爭負截流機!’ 問, ‘如何是第三句?’ 師云, ‘看取棚頭弄傀儡. 抽牽都來裏有人.’ 師又云, ‘一句語須具三玄門, 一玄門須具三要, 有權有用. 汝等諸人, 作麼生會?’ 下座.)

쥐어박은 것을 말한다.

天童：九包云云者，鳳也有文彩也。九包者，一句中具三玄，一玄中具三要，三三是九也。千里之駒者，超脫之意。二句，贊臨濟也。眞風度籥云云者，玲瓏宛轉也。贊黃蘗也。劈面來時云云者，大愚也。迷雲破處云云者，臨濟悟處也。捋虎鬚云云者，大愚肋下築三拳也。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송¹¹⁾

여행 짐 꾸릴 때 사소한 것은 필요 없으니,
갈림길에서 주저하면 길은 점점 멀어지리.
그 자리에서 호되게 삼돈방¹²⁾을 내리치고,
밤이 되자 예전대로 갈대꽃밭에 잠드는구나.¹³⁾

眞淨文頌，“資糧更不着些些，歧路年深恐轉除。直下痛施三頓棒，夜來依舊宿蘆花。”

진정극문의 송²

황벽의 불법에 잡다한 법 없다 했으니,
대장부로서 어찌 자신의 말을 어기리.

11) 무다자의 뜻을 읊은 계송.

12) 三頓棒. 형법상 죄인을 다스리는 매질인 일돈방(一頓棒)은 20방이다. 따라서 삼돈방은 60방이 된다.

13) 특별한 일 없이 항상 쉬던 그 자리로 돌아온 담백한 상황으로 ‘무다자(無多子)’의 소식과 상응하는 구절이다.

옆구리 찢른 두 주먹에 분명 소식 있었으니,

황벽에게서 전해 받은 것이 아니라네.¹⁴⁾

又頌, “便言黃蘗無多法, 大丈夫兒豈自乖. 肋下兩拳明有信,
不從黃蘗付將來.”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송

단제¹⁵⁾의 가풍이 본래 잡다한 구석 없는데,

세 번이나 맞고서도 가리키는 뜻 몰랐다네.¹⁶⁾

대우는 어느 날 가볍게 말을 늘어놓았으니,

황벽의 지시는 원래 매우 친절하였다 하네.

法眞一頌, “斷際家風本沒多, 雖蒙三頓不仙陀. 大愚一日輕饒
舌, 黃蘗元來是老婆.”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송

천둥 치고 바람 불면 쉬어야 하거늘,

거대한 자라는 쉽 없이 여울에 올라타네.¹⁷⁾

몸 뒤집어 한 번 들이켜자 바닷물 마르고,

14) 누구에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주먹에 본래 있었던 소식이라는 뜻.

15) 斷際. 황벽의 시호.

16) 불선타(不仙陀). ‘선타와 같지 못했다’라는 뜻. 본서 411則 주석8) 참조. 『大般涅槃經』 권9 大12 p.421a29 참조.

17) 세 번에 걸쳐 벼락같이 맞으면서도 연이어 물었던 임제를 거오(巨鼈)에 비유한 것이다. 거오에 대해서는 본서 184則 주석30) 참조.

4백 주¹⁸⁾의 산하 전체가 고동치네.

東林總頌, “雷震風行便合休, 巨鼇無便上灘頭. 翻身一吸滄溟
竭, 鼓動山河四百州.”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천둥번개 요란하게 치고 온 세상¹⁹⁾ 어두우니,
어느 집인가 걱정스레 비 들치는 문을 닫네.
갑자기 거센 바람 휘몰아쳐 먹구름 흩어지니,
대낮인데 하늘 가득히 총총하게 별이 빛나네.²⁰⁾

保寧勇頌, “雷電喧轟海岳昏, 一家愁閉雨中門. 狂風忽起烏雲
散, 白日滿天星斗分.”

백운수단(白雲守端)의 송

한 방의 주먹으로 황학루를 쓰러뜨리고

18) 四百州. 중국 전국토를 말한다. 중국은 송대(宋代)에 약 3백여 주였는데, 이후에
성수(成數)하여 중국 전체 강역을 4백주라고 불렀다.

19) 해악(海岳), 사해(四海)와 오악(五嶽)으로 전 국토 또는 세상 전체를 가리킨다.

20) 별을 보았다는 것은 깨달음의 징표이다. 부처님이 샛별[明星]을 보고 도를 깨
우쳤다는 고사에서 확장된 말이다. 목암안영(木菴案永)의 계송에도 동일한 취
지의 계송이 전한다. “요란스레 천둥 치자마자 맑은 바람 일어나니, 대낮 하늘
가득 총총하게 별이 빛나네.”(『頌古聯珠通集』 권10 卍115 p.109a3. 迅雷纔震清
起, 白日一天星斗分.) ; “대낮에 별을 본다는 것은 어둠 속의 나무 그림자나 물속
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자취와 같아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從容錄』 77則「頌 評唱」 大48 p.277a27. 白日見星, 此如暗中樹影, 水底魚蹤, 非肉眼
能見.)

한 번의 발길질로 앵무주를 뒤집는다.²¹⁾

기세가 등등한 때에 기세를 더하고

풍류가 없는 곳에 풍류 일으키노라.²²⁾

白雲端頌, “一拳拳倒黃鶴樓, 一別別²³⁾ 鸛鵲洲. 有意氣時添
意氣, 不風流處也風流.”

삼계일익(霄溪日益)의 송

이마 세 번 부딪치고²⁴⁾ 우문²⁵⁾에서 떨어지니,

-
- 21) 황학루와 앵무주는 양자강과 한수(漢水)가 만나는 무한(武漢)의 명소이며 한시의 소재로도 많이 쓰인다. 당나라 최호(崔顥 704~754)의 「黃鶴樓」가 대표적이다. “옛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떠났으니, 이곳은 텅 비고 황학루만 남았구나. 황학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테니, 흰 구름만 영원토록 허공을 떠돌겠구나. 맑게 갠 시냇가에 한양의 나무들은 뚜렷이 드러나고, 향기로운 풀은 앵무주에 무성하다.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메이고? 물안개가 강물에 번져 나의 시름 더하네.”(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鸛鵲洲.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
- 22) 황학루와 앵무주를 무너뜨리듯이 격(格)을 쳐부수는 일탈(逸脫)의 풍류를 비유로 삼아 임제의 주먹이 지니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
- 23) ‘別別’은 ‘踢踢’(『白雲守端語錄』·『如淨語錄』·『頌古聯珠通集』 등)의 잘못으로 보인다. ‘趨趨’(『五祖法演語錄』 등)으로 된 곳도 있다.
- 24) 점액(點額). 이마를 부딪친 것. 잉어가 용이 되기 위해 용문(龍門)으로 오르려다가 오르지 못하고 석벽에 이마를 부딪쳐 생긴 상처를 말한다. 역도원(酈道元)의 지리서 『水經注』에 “드렁허리(뱀장어의 종류)가 굴에서 나와 3월이면 용문을 올라간다. 올라 건너가면 용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이마에 상처만 남기고 되돌아간다”라고 하였다. 이후로 점액은 관료가 좌천되거나 과거생이 낙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이백(李白)의 「贈崔侍御」에서는 “이마에 상처만 남기고 용이 되지 못하면 돌아가 평범한 물고기와 짝이 된다”라고 읊었다. 여기서는 임제가 황벽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하고 세 차례 얻어맞은 것을 말한다.
- 25) 禹門. 용문(龍門)이다. 전설에 따르면 우임금이 용문산에 물길을 확장하여 황하

두 뺨이 햇볕에 쪼여²⁶⁾ 불타는 듯 붉었도다.

하루아침에 문득 복사꽃 물결²⁷⁾ 뚫고 오르면,

무성하게 난 머리의 뺨에 바람과 구름 인다네.

바람과 구름 이는 하늘에 머물 수 없으니,

수염 울울이 휘날리며 영주²⁸⁾로 되돌아가네.

용을 만나서 다시 묻고 답하였는데,

밝은 여의주²⁹⁾ 토해내니 부끄러움 없도다.

雲溪益頌, “點額三迴下禹門, 雙腮曝日赤如焚. 一朝忽透桃花浪, 騰騰頭角生風雲. 風雲生兮不可留, 揚鬚獵獵歸瀛洲. 老龍相見還相問, 吐出明珠更不羞.”

승승원공(崇勝院珙)의 송

자유롭게 되는 순간 자유 잃었고,

지혜가 도리어 어리석음이 되었네.

가 범람하지 않고 흐르게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용문을 우문이라고도 한다.

26) 점액의 상처를 입고 바위에 떨어진 물고기가 또다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27) 도화랑(桃花浪). 음력 2월 복사꽃 필 때 봄비로 산골짜기 얼음이 녹으면 복숭아꽃이 물결처럼 무성하게 피는 현상을 말한다. 전설에 따르면 강나루에 도화의 물결이 일어날 즈음 물고기들이 용문 아래 운집하여 용문을 뚫으려고 뛰어오른다고 한다.

28) 瀛洲.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상의 동해의 신산(神山).

29) 여의주는 본분의 핵심을 뜻한다. 황벽이 오로지 삼돈방만으로 지시한 본분의 핵심은 용이 여의주를 토해낸 것과 같고, 그것을 깨우쳐 임제가 대우에게 전한 주먹 세 방 또한 여의주를 토해낸 것과 같으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불법의 대의는 말하지 않고서
 쭉대³⁰⁾로 세 차례 예순 대를 때렸네.
 황벽은 노파심에 사무치도록 애썼으니,
 대우는 우리 스승과는 관계가 없도다.
 요즘 몸을 편안히 하는 법을 배웠으니,
 물어오면 오로지 모른다고 대답할 뿐.

崇勝珙頌, “得便宜失便宜, 智慧翻成愚癡. 佛法大意不語, 三
 回六十蒿枝. 黃蘗老婆徹困, 大愚非干我師. 近來學得安身法,
 問着無過慙不知.”

불안청원(佛眼清遠)의 송

하늘에 맞닿은 푸른 화악산을 쪼개어 열고,
 바다까지 소리 내어 흐르는 황하를 방출하네.³¹⁾
 눈먼 나귀³²⁾ 죽은 뒤에 쭉대도 꺾여지니,³³⁾

30) 호지(蒿枝). 임제의 말에 근거한다. 도교에서는 이것으로 두들기면 아이의 성장을 촉진한다고 한다. 바르게 인도하는 가르침의 수단을 나타낸다. “내가 황벽화상의 회화에 있을 때 세 차례 몽둥이맛을 보았는데, 마치 쭉대로 만든 불자(拂子)와 같았다. 오늘 다시 한 방 맛을 보고 싶는데 누가 나를 위해 때려 줄 사람 없느냐?”(『景德傳燈錄』 권12 「臨濟義玄傳」 大51 p.291a6. 我於黃蘗和尚處, 三度喫棒, 如蒿枝拂相似. 如今更思一頓喫, 誰爲我下得手?)

31) ‘하늘에 맞닿은 ~ 방출하네’라는 구절은 『宏智廣錄』 권4 大48 p.35c18에 나오는 말이다. 거령신(巨靈神)이 화악산을 쪼개고, 하신(河神)이 황하를 방출하는 것과 맞먹는 기력 곧 뛰어난 선기(禪機)를 나타낸다.

32) 할려(瞎驢). 눈먼 나귀. 맹려(盲驢)와 같다. 임제가 임종할 때 인가를 받고 종지를 계승한 삼성혜연(三聖慧然)을 가리킨다. 본래는 눈이 멀어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지만 역설적인 뜻이다. “임제가 입적할 즈음에 제자리를 잡고 앉

지금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남았는가?

佛眼遠頌, “擘開華岳連天色, 放出黃河到海聲. 瞎驢死後蒿枝折, 大地如今有幾人?”

개암봉의 송

비 내리기 전 천둥소리 사람을 몹시 놀라게 하고,

흑풍³⁴⁾에 먼지 휩쓸린 게 몇 번이던가?

해오라기가 안개와 구름을 뚫고 올라간 다음,

우두커니 푸른 하늘의 둥근 태양 바라보네.

介庵朋頌, “未雨先雷驚殺人, 黑風幾度卷埃塵? 鷺鷥衝斷煙雲後, 佇看青天大日輪.”

밀암함걸(密庵咸傑)의 송

일돈방³⁵⁾에 한 집안 모조리 사라졌거늘,

아 말했다. ‘내가 입적한 다음 나의 정법안장을 소멸시켜서는 안 된다.’ 삼성혜 연이 나와서 말했다. ‘스님의 정법안장을 어찌 소멸시키겠습니까?’ ‘이후에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물으면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겠는가?’ 삼성이 할을 하자 임제가 ‘나의 정법안장이 이 눈먼 나귀 편에서 소멸할지 누가 알겠는가?’라는 말을 마친 뒤 단정한 자세로 입적하였다.”(『臨濟語錄』 大47 p.506c3. 師臨遷化時, 據坐云, ‘吾滅後, 不得滅却吾正法眼藏.’ 三聖出云, ‘爭敢滅却和尚正法眼藏?’ 師云, ‘已後有人問爾, 向他道什麼?’ 三聖便喝. 師云, ‘誰知吾正法眼藏, 向這瞎驢邊滅却?’ 言訖, 端然示寂.)

33) 진실한 가르침의 수단이 사라졌다는 말.

34) 黑風. 바람에 모래나 먼지가 섞여서 햇빛을 가린 채 맹렬히 부는 회오리바람.

35) 一頓棒. 임제가 황벽에게 불법의 대의를 물었다가 세 차례 맞은 것이 삼돈방인

양돈방에 다시 자손까지 연루시켰도다.

은산과 철벽³⁶⁾을 모두 뚫어버리니,

만 리 하늘에 구름 없어 우주가 분명하다.

密庵傑頌, “一頓渾家盡滅門, 更加兩頓累兒孫. 銀山鐵壁俱穿透, 萬里无雲宇宙分.”

무진거사의 송

임제가 삼하³⁷⁾를 보내는 동안에,

황벽의 선을 참구하지 않았는데,

찾아가 묻고서 예순 대를 맞자,

손발 둘 곳 몰라 까마득했다네.

노파심 간절했음을 문득 깨닫자,

바꾸어 옆구리를 쥐어박았으니,

아무도 이 뜻을 모르고,

임제 문하는 삼현을 설한다고 하네.³⁸⁾

無盡居士頌, “林際度三夏, 不叅黃蘗禪, 上來六十棒, 手脚遂

데, 그것을 둘로 나누어 읊었다. 주석12) 참조.

36) 은산철벽(銀山鐵壁).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산과 무쇠로 가로막힌 벽을 말한다. 이 은산을 마주하고 어떤 장비도 없이 올라가야 하고, 철벽 앞에서 맨몸으로 뚫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언어와 사고 등 모든 수단이 박탈되어 해결할 길이 전혀 없는 극한의 경계를 비유한다.

37) 三夏. 삼 년 또는 세 번의 하안거(夏安居).

38) 보통 임제선의 핵심을 삼현·삼요 등이라 말하지만, 황벽으로부터 60방을 맞고 까마득해졌다가 그 뒤에 대우의 옆구리에 고스란히 전한 소식이야말로 임제선의 본령이라는 뜻이다.

茫然. 忽悟婆心切, 翻行肋下拳, 無人知此意, 林下說三玄.”

열재거사의 송³⁹⁾

눈 속에 핀 한 송이 매화가,
봄이 왔다고 곧바로 알리네.
술 한 잔 마심이 어떠한?
숲 가득 매화 피길 기다려야 하리.

悅齋居士頌, “一枝雪中梅, 便知春到來. 如何一盃酒? 須待滿林開.”

위산영우(滙山靈祐)와 양산혜적(仰山慧寂)의 문답

위산이 이 공안을 제기하고 양산에게 물었다. “임제는 대우의 힘을 입었는가, 황벽의 힘을 입었는가?” 양산이 말했다. “호랑이의 수염을 뽑았을 뿐만 아니라 호랑이의 머리에 앓을 줄도 알았습니다.”

滙山舉問仰山, “臨濟得大愚力黃蘗力?” 仰山云, “非但捋虎鬚, 亦解坐虎頭.”

[설화]

대우의 힘은 호랑이의 머리고, 황벽의 힘은 호랑이의 수염이다.

39) 세상 가득 눈이 내려도 봄의 진령은 땅 속에서 미동을 시작한다. 매화 한 송이가 그 조짐을 눈 속에서 알린다. 임제가 황벽에게 삼돈방을 맞고 어리둥절했을 때의 소식이 그것이다. 깨달음의 씨앗은 그때의 은산철벽에 이미 뿌려진 것이며, 대우를 만났을 때 맞이한 봄에 우연히 매화가 만발한 것은 아니다.

滂仰問答：大愚力是虎頭；黃蘗力是虎鬚也。

향산온량(香山蘊良)의 수대⁴⁰⁾

방장실에서 수대하며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황벽이 임제를 세 차례 때렸을 때 임제는 곧장 깨달았는데, 여기 와 있는 지주(知州), 지현(知縣)⁴¹⁾들은 매일 밤마다 오면서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가?” 학인이 아무 대꾸도 없자 대신 말했다. “이런 천한 놈⁴²⁾에게 조금도 배워서 안 된다.” 다시 말했다.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香山良，室中垂代，問僧，“黃蘗打林際三頓棒，林際便悟去，而今知州知縣，每日打到夜，因什麼不悟？”無對，代云，“不可惣學這廝兒。”又云，“莫道不悟。”

[설화]

여기 와 있는 지주, 지현들은 매일 밤마다 오면서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는가 : 눈앞에서 60대를 때린 것과 같다.

이런 천한 놈에게 조금도 배워서 안 된다 : 임제가 어떤 점에서 깨달은 것인가를 묻은 것이다.

깨닫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 어떤 점에서 깨닫지 못한 것인가를 묻은 것

40) 垂代. 일정한 공안을 일러주어[垂語] 그 관건에 대하여 묻고서 대신 대답하는[代語] 설법 형식이다.

41) 지주와 지현은 각각 주와 현을 다스리는 지방관직이다.

42) 시아(廝兒). 임제를 가리킨다. 보화(善化)가 임제를 역설적으로 칭찬한 말이다. “하양은 신부같이 남의 말만 잘 듣는 선이요, 목답은 친절하게 말로 풀어놓는 노파선인데, 천한 임제에게 도리어 바른 눈 하나[一隻眼]가 달렸구나.”(『臨濟語錄』大47 p.503b14. 河陽新婦子，木塔老婆禪，臨濟小廝兒，卻具一隻眼.)

이다.

香山：而今知州知縣云云者，現成六十棒也。不可惣學云云者，什麼處是悟處。又云莫道不悟者，什麼是不悟。

오조법연(五祖法演)의 상당

백운수단(白雲守端)의 ‘한 방의 주먹으로 ~ 풍류 일으키노라’라는 송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만약 나의 문하로 왔다면 여러 사람들에게 주먹을 빌려야 했을 것이다.”

白雲演，上堂，舉白雲端頌，‘一拳，至也風流’ 師曰，“大衆！若到白雲門下，須要衆人助拳。”

[설화]

대우가 그렇게 말한 것이 주먹으로 쓰러뜨리고 발로 뒤집는 것이라는 말이다.

기세가 등등한 때에 기세를 더하고 : 60대를 때린 것에 해당한다.

만약 나의 문하로 ~ 빌려야 했을 것이다 : 대우의 의중이 드러나도록 도와준 말이다.

白雲：大愚伊麼道，是拳倒踢翻也。有意氣時云云者，還是六十棒也。若到白雲門下云云者，助大愚之意。



633칙 臨濟便喝 임제편할



633칙 임제편 할 臨濟便喝¹⁾

[본칙]

임제는 학인이 방장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할(喝)을 내질렀다.

臨濟, 凡見僧入門, 便喝.

[설화]

할에는 네 종류가 있다. 금강왕의 보검과 같은 할, 바닥에 웅크린 사자와 같은 할, 물고기를 유인하는 도구와 같은 할, 할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 할이 그것이다.²⁾ ‘학인이 방장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마다 내지른 할’도 이 네 종류의 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때는 금강왕의 보검과 같이 활용하고,³⁾ 어떤 때는 바닥에 웅크린 사자와 같이 활용하며,⁴⁾ 어떤 때

1) 본서 672則「德山便棒」과 짝을 이룬다.

2) 『臨濟語錄』大47 p.504a26에 나오며, 임제사할(臨濟四喝)이라 한다.

3) 모든 의미의 집착을 절단하는 수단으로서의 할. “금강보검이란 그 예리한 칼날과 대적하기 어려움을 말한다. 만일 발을 묶고 손을 동여맨 넝쿨이 길게 늘어져 분별에 얽매인 견해를 버리지 못하는 학인을 만날 경우 바로 그 자리에서 절단하여 더 이상 달라붙을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사유분별에 젖어 들면 이 칼에 목숨을 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五家宗旨纂要』권상 卍114 p.513a13. 金剛寶劍者, 言其快利難當. 若遇學人, 纏脚縛手, 葛藤延蔓, 情見不忘, 便與當頭截斷, 不容粘搭. 若稍涉思惟, 未免喪身失命也.)

는 물고기를 유인하는 도구와 같이 활용한다.⁵⁾ 비록 이렇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할이 할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 할⁶⁾이다. 또한 세 가지 할

4) 사자의 포효에 모든 동물들이 달아나듯이 작은 근기와 하찮은 견해를 없애는 할. “바닥에 웅크린 사자는 동굴에 살지도 않고, 보금자리에 머물지도 않는다. 위엄 있고 웅장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을 뿐 조금도 의지하는 것이 없다. 으르렁거리며 한번 포효하면 못 짐승들의 머리가 갈가리 찢어진다. 밀치고 들어갈 빈틈이 없고, 달아날 여지도 없다. 조금이라도 그 앞을 침범하면 이빨과 발톱에 걸려들 것이니 마치 꼬끼리가 물결을 가르면서 달리면 대적할 상대가 없는 것과 같다.”(위의 책 p.513b2. 踞地獅子者, 不居窟穴, 不立窠臼. 威雄踞蹠, 毫無依倚. 一聲哮吼, 羣獸腦裂. 無你挨拶處, 無你迴避處. 稍犯當頭, 便落牙爪, 如香象奔波, 無有當者.)

5) 종사가 학인을 점검하며 살피는 수단으로 쓰는 할. “물고기를 유인하는 수단(탐간과 영초)이란 하나의 할 중에 두 가지 작용을 갖춘 것이다. 살핀다는 것은 학인의 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서 마치 막대기로 물의 깊이를 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재는 막대기인 탐간이 손안에 있다’고 한다. 곧 이 하나의 할은 헤아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본뜬 만한 것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별도로 갈 수 있는 길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미 자취를 숨기고 종적을 감추어 거짓으로 도둑 행세를 하므로 ‘영초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한다.”(위의 책 p.513b10. 探竿影草者, 就一喝之中, 具有二用. 探則勘驗學人見地若何, 如以竿探水之深淺. 故曰, 探竿在手. 即此一喝, 不容窺測, 無可摹擬, 不待別行一路. 已自隱跡迷踪, 欺瞞做賊. 故曰, 影草隨身.)

6) 일정한 형식의 할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형식의 할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는 할. “할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 할이라는 말은 천 가지만 가지로 변화하지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금강왕의 보검이라 해도 되고, 바닥에 웅크린 사자라 해도 되며, 물고기를 유인하는 수단이라 해도 된다. 마치 신령한 용이 출몰하며 자신의 모습을 펼치고 거두는 것이 범상한 현상과 달라서 앞에서 맞이하려 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를 따르려 해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부처와 조사일지라도 보기 어렵고, 귀신도 엿보지 못한다. 생각은 비록 하나의 할 속에 있지만 사실은 하나의 할을 벗어난 것이다. 이 네 가지 할 중에서 가장 깊고 미묘한 뜻을 가진 것이다. ‘어떤 때’라고 한 말을 잘 살피야 한다. 이것은 매우 활발한 뜻이 있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같다’고 한 말도 잘 살피야 한다. 비슷하여 이와 같다고 한 것에 불과하지만 진실로 이와 같은 명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외에 별도로 할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 하나의 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할은 모두 근기에 따라 차별되게 시설되지만, 위음왕불⁷⁾ 저편에 하나의 할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것이 할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는 하나의 할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허황되고 실제와 먼 이치를 추구한 결과 본래의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는 “덕산은 방장에 들어오자마자 방을 휘둘렀고 임제는 방장에 들어오자마자 할을 내질렀는데, 제방의 선사들은 이를 두고 ‘정면에서 들어 보이고, 가장 빠른 길로 전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무엇보다 진흙탕으로 달려 들어가 물까지 뒤집어쓰는 방법이다’⁸⁾라고 말한다. 설령 하나의 방과 하나의 할에서 온몸으로 본분을 짚어졌다 하더라도 장부답지 못한 사람이다”⁹⁾라고 하였다. 대혜의 이 말은 중근기를 위한 발언이며 대혜의 근본적인 뜻은 아니다.

喝有四種, 金剛王寶劍, 踞地獅子, 探竿影草, 一喝不作一喝用

이다. 이 뜻 속에서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임제가 제시한 할의 작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위의 책 p.513b18. 一喝不作一喝用者, 千變萬化, 無有端倪. 喚作金剛寶劍亦得, 喚作踞地獅子亦得, 喚作探竿影草亦得. 如神龍出沒, 舒卷異常, 迎之不見其首, 隨之不見其尾. 佛祖難窺, 鬼神莫覷. 意雖在一喝之中, 而實出一喝之外. 此四喝中之最玄最妙者. 須看有時二字, 甚是活潑, 非一向如此用也. 又看如之一字, 不過彷彿如此, 非真有如此名目也. 向者裏轉得身來, 方見臨濟老人用處.)

- 7) 威音王佛. ㉔Bhīṣma-garjitavarā-rāja. 과거 장엄겁(莊嚴劫) 이전 공겁 때의 ‘최초의’ 부처님. 『法華經』 권6 「常不輕菩薩品」 참조. 선종에서는 위음왕불보다 이전의 시기[威音王佛已前] 또는 여기서와 같이 위음왕불 저편[威音那邊]이라는 말로써 어떤 조짐도 나타나기 이전의 경계를 나타낸다. 본래면목(本來面目) 또는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 8) 타니대수(拖泥帶水). 임제의 할은 무엇보다 자세하게 베푸는 방편이었다는 뜻이다. 위에서 가장 빠른 길[直截]로 전했다는 뜻은 방편의 매개 없이 곧바로 본질을 보여주었다는 말이므로 대칭된다.
- 9) 『大慧語錄』 권20 「示無相居士」 大47 p.894b11의 인용이다.

也. 見僧入門便喝者, 不過此四種. 有時, 用得金剛王寶劔; 有時, 用得踞地師子; 有時, 用得探竿影草. 雖然如是, 一一是一喝不作一喝用也. 又非三喝外, 別有一箇喝不作一喝用也. 或有道, “四喝, 皆是隨機施設, 須知有直在威音那畔地一喝. 此爲一喝不作一喝用.” 這般說話, 驚於虛遠, 非得意者也. 大慧云, “德山入門便棒, 臨濟入門便喝, 諸方喚作, 劈面提持, 直截分付. 妙喜喚作, 第一等拖泥滯¹⁰⁾水. 直饒向一棒一喝下, 全身荷擔已,¹¹⁾ 是不丈夫漢也.” 大慧此言, 爲中根發, 非大慧本意也.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방장으로 들어오자마자 내지르는 할도,
이미 애절하게 많은 말을 해버린 것인데,
제멋대로 꾸며대는 무수한 선사들이,
또다시 남김없이 끌어 모아 말하는구나.¹²⁾

〈돌!〉¹³⁾

大洪恩頌, “入門來便喝, 已是大忒怛, 無限杜禪和, 更復論該

10) ‘滯’는 ‘帶’의 오식이다.

11) 『大慧語錄』에 따르면, ‘已’ 앞에 ‘得’이 탈락되었고 ‘荷擔’은 ‘擔荷’의 도치이다.

12) 이런저런 논리와 이치를 빌려와 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어리석음.

13) 똌. 이것은 염송의 편집자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삽입한 한마디의 할과 같은 소리이다. 아래 정자본(淨慈本)의 계송 끝에 달린 ‘돌’도 같은 기능이다.

括.”〈咄!〉

[설화]

잘못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大洪意, 漏逗不少.

정엄수수(淨嚴守遂)의 송

칼 한 번 휘둘러 전쟁을 평정했으나,

무엇에 의지해 주인과 손님 가려낼까?¹⁴⁾

높은 산 올라 일제히 공물 바쳤으나,

누가 성스럽고 현명한 임금 알아볼까?

淨嚴遂頌, “一劔定煙塵, 憑何辨主賓? 梯山齊入貢, 誰識聖明君?”

[설화]

다만 엿볼 수 없을 뿐이라는 뜻이다.

淨嚴: 直是窺覷不得.

14) 할을 하는 주체의 역할과 그 할로 질책받거나 점검받는 등의 역할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말. “하나의 할에 손님과 주인이 나누어진다는 말은 하나의 할에 저절로 손님도 있고 주인도 있다는 뜻이다.”(『人天眼目』 권2 大48 p.311b24. 一喝分賓主者, 一喝中, 自有賓有主也.)

정자본의 송

홀룡하구나, 임제의 할이여!
봄날 올리는 천둥¹⁵⁾과 같도다.
초목이 모두 자라나 번성하니,
교룡¹⁶⁾조차 이를 막지 못하네.
어긋나면 깨달음에서 미혹되고,
들어맞으면 죽음에서 살아나리.
자벌레와 못에 사는 개구리가,
어찌 바다 드넓은 줄 알리오!

〈돌!〉

淨慈本頌, “偉哉臨濟喝! 狀似春雷發. 草木盡滋榮, 蛟龍難止遏. 差之悟裏迷, 的也死中活. 尺蠖與池蛙, 豈知滄海闊!”

〈뚝!〉

[설화]

앞의 두 계송의 뜻을 아울렀다.

淨慈：兼前二意也.

-
- 15) 봄의 천둥은 땅을 흔들어 겨울잠 자는 생물을 깨우고 만물을 생동시킨다고 한다. 임제의 할이 어리석음에 떨어진 자들을 흔들어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한다는 비유로 쓰였다. 장령수탁(長靈守卓)의 계송에 이와 일치하는 구절이 있다. “어떤 때의 할은 봄의 천둥이 올리듯 내지르니, 살아 있는 뱀이 활발한 용으로 변화하도록 몰아붙일 줄 아노라.”(『禪宗雜毒海』 권1 卍114 p.118b15. 有時一喝春雷動, 解逼生蛇化活龍.)
- 16) 蛟龍. 깊은 물에 살며 물과 비를 관장하는 전설상의 두 동물. ‘교’는 홍수를 일으키고, ‘용’은 구름과 비를 일으킨다고 한다.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문 들어서자마자 내지른 할,
포착할 실마리 전혀 없거늘,
후손들을 끌어들여,
죽반기나 희롱하게 만드네.¹⁷⁾

徑山杲頌, “入門便喝, 全無巴鼻, 引得兒孫, 弄粥飯氣.”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한 번 내지른 할로 사선천¹⁸⁾에 올랐으나,
임제는 원래 선의 세계 이해하지 못했다네.
아침 햇살 창 밖에서 들어오는 줄 다들 알면서,
밤의 달빛 섬돌 앞에 쏟아지는 줄은 모르네.

竹庵珪頌, “一喝喝上四禪天, 臨濟元來不會禪. 盡道朝陽生戶外, 不知夜月落堦前.”

개암봉의 송

한 번의 할에 산 무너지고 바닷물 마르니,¹⁹⁾

17) 죽반기(粥飯氣)는 죽과 밥을 먹고 얻은 기운을 말하는데, 이는 진실을 깨우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임제의 할에는 분별로 포착할 단서가 전혀 없음에도 이를 오해한 후손들이 육신의 남은 기운으로 허망하게 헤아린다는 뜻이다.

18) 四禪天. ⑤Caturdhyānabhūmi. 사선정(四禪定)을 닦아서 그 과보로 얻는 색계천(色界天).

속박 벗은 온전한 기틀에 본받을 법도 사라졌네.
진흙 소가 하늘 밖으로 높이 솟구쳐 벗어나더니,
아름다운 명성 온 거리에 가득 퍼지게 되었도다.

介庵朋頌, “一喝山崩海水枯, 全機脫略沒規模. 泥牛迸出煙霄外, 直得嘉聲滿道途.”

무진거사의 송

단단히 단혀버린 동굴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데,
허공에서 문득 외마디 천둥소리 크게 치자,
날날의 교룡은 구름과 안개를 끌고 가고,
지렁이는 제각각 흙과 티끌 파먹고 있네.

無盡居士頌, “蟄戶幽扃凍不開, 虛空忽震一聲雷. 蛟龍一一拏雲霧, 蚯蚓頭頭食土塵.”

19) 건고하고 타성적인 관념의 세계를 제거한 것.



639책 睦州擔板 목주담판



639칙 목주담판 睦州擔板

[본칙]

목주¹⁾가 어떤 학인을 향해 “대덕²⁾이여!”라고 부르자 그 학인이 고개를 돌렸다. 목주가 말했다. “담판한³⁾이로군.”

睦州喚僧云, “大德!” 僧迴首. 師云, “擔板漢.”

[설화]

‘담판한’이라고 한 것은 그 학인이 부르는 소리에 이끌려 고개를 돌린

-
- 1) 목주도명(睦州道明 780~877). 당나라 때 스님. 황벽희운(黃檗希運)의 제자. 도종(道蹤), 진포혜(陳蒲鞋), 진존숙(陳尊宿) 등으로도 불린다. 본서 607則 주석4) 참조.
 - 2) 大德. 원래는 부처님·보살 혹은 고승을 높여 부르던 말로서 지혜와 덕망이 높은 스님을 가리키나, 일반적으로 상하를 막론하고 상대를 높여 부르는 2인칭대명사 정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 3) 擔板漢. 어깨에 멘 널빤지가 한쪽을 가려 양쪽을 모두 보지 못하는 사람에 빗대어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쪽에 사로잡힌 편견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선종에서는 견해가 한쪽으로 치우쳐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는 말로 쓰인다. “목주는 평상시에 남승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바로 문을 닫았고, 강승(講僧)을 보면 ‘좌주!’ 하고 불러 그 남승이 ‘예!’ 하고 응답하면 ‘담판한이로군’이라고 말했다.”(『景德傳燈錄』 권12 「睦州傳」 大51 p.291b3. 師尋常或見衲僧來, 卽閉門, 或見講僧, 乃召云, ‘座主!’ 其僧應諾, 師云, ‘擔板漢.’)

것이 널빤지를 굽어지고 있어 한쪽밖에 볼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령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담관한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擔板漢者，這僧隨聲回首，是擔板也。直饒不回首，亦未免擔板
漢也。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송

뒤통수를 한 방 찌를 때마다,
번번이 구덩이로 떨어지네.
설령 돌아보지 않았다고 해도,
이 또한 한갓 담관한일 뿐이라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그치고,
목주의 관문을 뚫으면,
온 누리 꿰뚫어 보는 눈⁴⁾ 갖추리라.

長靈卓頌，“腦後與一錐，頭頭墮坑坎。直饒喚不回，也是虛擔
板。休擔板，透過睦州關，乾坤一隻眼。”

4) 일척안(一隻眼). 원래 하나의 눈 곧 외눈박이를 가리키지만, 진리를 꿰뚫어 보는
탁월한 안목 또는 뛰어난 식견(識見)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두 개
의 육안(肉眼)과 다르다 하여 제3의 눈이라 하고, 정문안(頂門眼)·정안(正眼)·
활안(活眼)·명안(明眼) 등이라고도 한다.

[설화]

뒤통수를 한 방 찌를 때마다 : 고개를 돌린 것을 가리키니, 담판한이라는 뜻이다.

‘번번이’라고 한 것은 다음 구절의 ‘돌아보지 않았다 해도 ~ 담판한일 뿐’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개를 돌려도[觸] 옳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背] 또한 옳지 않다는 뜻이다.⁵⁾

長靈：腦後云云者，回首也，擔板漢也。頭頭者，後云不迴頭也，擔板也。謂觸亦不是，背亦不是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목주가 담판한이라 한 말이여,
어찌 눈 깜박일 거리나 있겠는가!⁶⁾
넓거나 좁거나 짧거나 길거나,
더하거나 덜어내서는 안 된다네.

徑山杲頌, “睦州擔板, 那容眨眼! 闊狹短長, 不須增減.”

5) ‘배(背)’는 등지고 전혀 관계하지 않는 부정적 지향을 가리키며, ‘촉(觸)’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수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에 집착하고 물드는 오촉(汚觸)의 방식을 나타낸다. 배(背)도 촉(觸)도 모두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방법으로도 열리지 않도록 제시된 관문을 배촉관(背觸關)이라 하며, 화두를 설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본서 1331則 주석1) 참조.

6) 눈을 깜빡인다는 말은 눈을 깜박이며 헤아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곧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하며 분별하는 모습을 형용한다. 목주의 ‘담판한’은 분별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설화]

목주가 ~ 있겠는가 : 등지거나[背] 물들거나[觸] 모두 벗어나서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넓거나 좁거나 짧거나 길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더하거나 덜어낸다면 이것이 바로 등지거나 물드는 것이다.

徑山：睦州云云者，直須離却背觸會也。闊狹短長增減，則是背觸也。

죽암사규(竹菴士珪)의 송

번갯불 속에서 허둥지둥 서두르지 말고,
휘두르는 칼날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심코 놓아버리고 온몸으로 들어가면,
처음부터 한 티끌도 결코 다치지 않으리.

竹庵珪頌, “電火光中休草草, 劒⁷⁾輪鋒上莫忪忪. 等閑却放全身入, 終不當頭犯一毫.”

[설화]

위의 설화와 같다.

竹庵頌, 上同.

7) ‘劒’과 통한다.

무위자의 송

목주가 부르는 소리,
수괘⁸⁾로 판단한다네.
돌아보건 돌아보지 않건,
모두 담판한일 뿐이라네.

無爲子頌, “睦州喚, 隨卦斷. 回不回, 擔板漢.”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염

“목주는 단지 하나의 눈⁹⁾만 갖추고 있었을 뿐이다. 왜 그런가? 그 학인은 부르는 소리에 고개 돌려 보았을 뿐인데, 어째서 도리어 담판한이라 한 것인가!”

雪竇顯拈, “睦州只具一隻眼. 何故? 這僧喚既回頭, 因甚却成擔板!”

[설화]

목주가 그렇게 담판한이라고 한 말이 도리어 쓸데없는 일¹⁰⁾을 만들었을 뿐이니, 돌아본 그 학인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8) 隨卦, 64괘 중 하나. 진하태상(震下兌上). “수는 크게 형통하니 곧으면 이롭다. 허물이 없으리라.”(『周易』「隨卦」, 隨, 元亨, 利貞. 無咎.) 못 아래 우레가 있는 형상[澤雷隨]이다. 못이 우레의 진동에 따라[隨] 움직인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부르는 소리에 그대로 따라[隨] 고개 돌리고 돌아보는 미혹된 반응을 가리킨다.

9) 일척안(一隻眼), 주석4)의 뜻과 달리 여기서는 외눈박이라는 말이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뜻이다.

10) 다사(多事). 쓸데없는 일에 손을 대어 일을 번다하게 만든다는 말.

雪竇：睦州伊麼道，却成多事，這僧有什麼過！

회당조심(晦堂祖心)의 염

“설두 또한 단지 하나의 눈만을 갖추었을 뿐이다. 그 학인이 한 번 부르는 소리에 곧바로 고개를 돌렸으니, 어찌 담판한이 아니겠는가!”

晦堂心拈，“雪竇亦祇具一隻眼。這僧一喚便迴，爲甚麼不成擔板!”

취암종의 염

“그 학인은 고개를 돌렸지만 참과 거짓을 가려내지 못했다. 목주가 자신의 기세에 의지하여 아무 일 없는 사람을 속여 굴복시켰던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만일 설두가 증명하지 않았다면 그 학인은 다시금 굴욕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목주는 오히려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니, 설두가 그렇게 한 말¹¹⁾에 따르더라도 부르는 소리에 돌아본 것과 담판한 이라 한 말 모두 좋다.”

翠峯宗拈，“這僧迴首，眞虛莫辨。爭奈睦州用勢，欺壓平人！若無雪竇證明，這僧還同受屈。雖然如是，睦州却是好心，若據雪竇怎麼道，也好喚迴與箇擔板漢。”

11) 목주를 가리켜 하나의 눈만 갖추고 있었을 뿐이라고 폄하한 말.

영원유청(靈源惟淸)의 상당

이 공안과 설두·회당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담판한이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며, 뛰어난 식견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깊은 산속 오밤중에 달빛 밝은데, 울부짖는 돌사람 심장에 화살이 꽂혔구나.”

靈源淸，上堂，舉此話，連舉雪竇晦堂拈。師云，“擔板漢落誰家，一隻眼如何辨？深山午夜月明中，叫哭石人心中箭。”

[설화]

담판한이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며 :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담판한이라는 뜻이다.

뛰어난 식견을 갖춘 사람은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 모두 일척안을 아직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깊은 산속 오밤중에 ~ 화살이 꽂혔구나 : 돌사람이 화살을 맞고 울부짖는다고 했으니, 설두와 회당의 말이 모두 돌사람을 해쳤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다만 목주의 뜻만 알아차렸음을 가리킨다. 깊은 산이란 돌사람이 사는 곳이다. 오밤중은 어둠이며 밝은 달은 밝음이니, 밝음과 어둠을 모두 갖추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靈源：擔板漢落誰家者，皆是擔板也。一隻眼云云者，皆未具一隻眼也。深山午夜云云者，石人中箭而叫哭，則雪竇晦堂地，皆是害石人也。然則但會取睦州意也。深山則石人在處。午夜則暗，月明則明，明暗具足。

대혜종고의 보설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예전에 한 수좌(首座)가 이 화두를 들고 학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학인이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여는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생각했던 그대로 담판한이로구나. 우습구나,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마침내 설두와 회당의 엄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 두 늙은이들이야말로 목주와 손을 잡고 함께 갈 만한 자격이 있다. 만일 영리한 사람이라면 그들이 하는 말을 듣자마자 눈을 방울과 같이 동그랗게 뜨고 알아차릴 것이며, 결코 여기서 갈지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雲門杲, 普說, 舉此話云, “曾有个禪頭, 舉這話問僧. ‘你作麼生會?’ 才見僧開口, 便道, ‘果然擔板. 且喜, 沒交涉!’” 遂舉雪竇晦堂拈, 師云, “者兩個老漢, 可與睦州, 把手共行. 若是个靈利漢, 才聞舉着, 眼似銅鈴, 終不向者裏, 打之遶.”

[설화]

그 학인이 대답을 하려고 입을 여는 것을 보자마자 ~ 전혀 관계가 없다 : 잘못된 이해를 지어냈기 때문이다.

이 두 늙은이들이야말로 ~ 자격이 있다 : 그들 모두 목주의 본래 뜻에 일치했음을 나타낸다.

만일 영리한 사람이라면 ~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겉으로 드러난 말을 따라 마구 내달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雲門：才見僧開口云云者，作得失會故也。兩箇老漢云云者，皆契睦州意也。若是箇靈利云云者，不以隨言走殺也。

죽암사규의 염

“목주는 그 학인에게 감파당했다.”

竹庵珪拈, “睦州被這僧勘破.”

[설화]

그 학인이 오히려 안목을 갖추었거늘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竹庵：這僧却具眼，有什麼過！

백운지병(白雲知晷)의 염

“진짜 낯쇠는 금과 바꾸지 않는 법이니, 세상에 이 사실을 아는 이 적구나.”¹²⁾

白雲晷拈, “真鑰不博金，舉世小人信.”

[설화]

학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말이다.

白雲：扶這僧也.

12) 목주는 금과 같이 귀한 말을 했고, 학인은 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낯쇠와 같이 하열하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배척한 말이다. 이처럼 스승은 항상 옳고 학인은 하열하다는 식으로 미리 결정지어 놓은 상하의 차별을 해체하는 것이 화두를 수용하는 근본적인 입장이다.



655책 睦州大事 목주대사



655칙 목주대사 睦州大事

[본칙]

목주가 대중에게 말했다. “일대사¹⁾를 아직 밝히지 못했다면 마치 부모를 잃은 듯이 하고, 일대사를 이미 밝혔더라도 역시 부모를 잃은 듯이 하라.”²⁾

睦州, 示衆云, “大事未辦, 如喪考妣, 大事已辦, 如喪考妣.”

- 1) 대사(大事). ‘대사(ᄇmahākṛtya)’란 가장 중요한 일 또는 근본적인 일이란 뜻으로서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또는 줄여서 일대사(一大事)를 뜻한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설법하신 목적을 가리키기도 한다.
- 2) 일대사를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다음이나 부모를 잃은 듯이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궁구하라는 뜻을 강조한 말이다. “(佛燈珣禪師가 비탄한 심정으로 말했다.) ‘이번 생에 철저히 깨닫지 못한다면 맹세코 이부자리를 펴고 자지 않으리라.’ 이와 같이 각오하고서 49일 동안 오로지 노주에 기대어 선 채로 수행하는 모습이 마치 부모상을 당한 상주와 같았는데, 마침내 크게 깨달았다.”(『禪關策進』「誓不展被」大48 p.1105c8. 此生若不徹證, 誓不展被. 於是四十九日, 只靠露柱立地, 如喪考妣, 乃得大悟.); “옛사람은 마치 부모상을 치르듯이 애절하게 사유하였으나 요즘 학인들은 아무래도 좋은 듯이 소홀해 보인다. 어디에 그대들을 대신하여 깨달아 줄 특별한 사람이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있구나. 면밀하게 스스로 궁구하고 자세하게 관찰하며 찾다가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경계에 이르면 저절로 모든 인연을 쉬게 되는 데 이를 것이니 방해가 될 것이 무엇인가?”(『景德傳燈錄』 권28 「臨濟義玄語」大51 p.447b11. 古人思惟, 如喪考妣, 如今兄弟, 見似等閑. 何處別有人, 爲汝了得! 可惜時光虛度. 何妨密密地自究子細觀尋, 至無著力處, 自息諸緣去?)

[설화]

일대사를 아직 밝히지 못했다면 마치 부모를 잃은 듯이 하고 : 음악을 들어도 즐거운 줄 모르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른다³⁾고 했으니, 소리와 색에 부림을 당해 죽지 않고 일대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일대사를 이미 밝혔더라도 역시 부모를 잃은 듯이 하라 : 아직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서지 못했다면 반드시 깨달음의 경계로 들어서야 하며, 이미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섰더라도 모름지기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곳에서 ‘봄바람 불지 않아 꽃이 피지 않더니, 꽃이 피고 나니 또한 그 바람에 불려 떨어진다’⁴⁾라고 한 말과 통하는 뜻이다.

돌아가신 부모를 뜻하는 고비(考妣)란 말에서 고(考)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비(妣)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뜻한다. 혹 선고선비(先考先妣)라고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상(喪)은 평성으로 발음할 때는 상을 치른다는 뜻으로서 그 음을 따르면 상실(喪失)한다는 뜻이 되니,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을 어찌 다시 잃을 수 있겠는가!⁵⁾

3) 공자(孔子)의 말. “군자는 부모상을 당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음악을 들어도 즐거운 줄 모르니 일상생활이 언제나 불안하다.”(『論語』『陽貨』, 夫君子之居喪, 食旨不甘, 聞樂不樂, 居處不安.)

4) 여러 선사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였는데, 청봉전초(靑峰傳楚)의 말이 대표적이다. “어떤 학인이 청봉전초선사에게 물었다. ‘대사를 이미 밝혔는데, 어찌서 또 한 부모를 잃은 듯이 간절해야 합니까?’〈비록 분별의 티끌이 사라졌더라도 여전히 법에 대한 애착이 남아 있다.〉 ‘봄바람 불지 않아 꽃이 피지 않더니, 꽃이 피고 나니 또한 그 바람에 불려 떨어진다.’〈법물을 만든 것도 소하(蕭何)이고, 법물을 망친 것도 소하이다.〉”(『虛堂集』 57則「靑峰大事」, 124 p.576a16. 舉, 僧問靑峰楚禪師, ‘大事已明, 爲甚麼亦如喪考妣?’〈雖盡情塵, 猶存法愛.〉 峰云, ‘不得春風花不開, 及至花開又吹落.’〈成也蕭何, 敗也蕭何.〉) 소하에 대해서는 본서 44則 주석8) 참조.

5) ‘선고선비’에서 선(先)은 앞서다 또는 잃다는 뜻이 되어 ‘고비’라는 말에 이미 들어 있는 뜻과 중복된다는 해설이다.

大事未辦如喪考妣者，聞樂不樂，食旨不甘，不被聲色使殺，能辦大事也。大事已辦云云者，未得箇入頭處，須得箇入頭處；既得箇入頭處，須得箇出路也。他處云，‘不得春風花不開，花開又被風吹落也。’考妣者，父死曰考，母死曰妣。或云，先考先妣者，誤矣。喪平音，行喪也，則音則喪失義，已爲考妣，則更何言喪乎！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이 고금의 이치이니,
서로 만나본 뒤 오랜 세월 흘렀다고 말하지 마라.
주리면 먹고 목마르면 마실 뿐 다른 일은 없으니,
머리 가득 눈서리 맞는 듯해도 그저 받아들인다네.

保寧勇頌，“春去秋來古與今，相逢休論歲時深。饑飧渴飲無他事，盡聽滿頭霜雪侵。”

[설화]

흘러가는 세월의 변천을 읊은 계송이다. 이 계송 마지막 구절의 진(盡)자는 ‘일임하다’, ‘허용하다’는 뜻이다.

保寧：古往今來時節遷變也。此出頭處盡字，任也許也。



672책 德山便棒 덕산편방



672칙 덕산편방 德山便棒¹⁾

[본칙]

덕산은 학인이 방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방(棒)을 내리쳐 때렸다.

德山, 見僧入門, 便棒.

[설화]

방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방을 내리쳐 때렸다: 어디에도 물들지 않은 한 자루 생짜의 몽둥이²⁾로 부처가 와도 때리고 조사가 와도 때리는³⁾ 수단을

- 1) 임제할(臨濟喝)과 대칭되는 덕산방(德山棒)의 선풍을 소재로 한 공안. 방은 아프다거나 아프지 않다거나 하는 등의 어떤 맛도 없는 물자미(沒滋味)한 것으로 화두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사유분별과 언어문자의 개념으로 모색할 길을 차단하고 바로 이 상태에서 본분을 궁구하도록 만드는 방편이다. 때로는 상대의 반응을 통하여 그 경지를 점검해 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본서 633則「臨濟便喝」참조.
- 2) 일조백방(一條白棒). 백방이란 어떤 칠도 하지 않고 장식도 없는 순수한 몽둥이를 말한다. 곧 주장자나 불자와 같이 어떤 형식이나 의례와도 상관이 없고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생짜(raw, unripe)의 몽둥이 자체를 가리킨다. 선종에서는 어떤 권위와 형식도 물리치기 위하여 부처를 만나건 조사를 만나건 휘둘러서 물리치는 덕산의 방(棒)이 지니는 특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부른다. 어떤 뜻과 도리로도 파악할 수 없는 순수한 방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물리치는 수단이다. “주금강(周金剛: 德山)의 순수한 방은 부처가 와도 때리니, 마치 큰 비바람

말한다. 옛사람은 “빗방울처럼 무수히 몽둥이를 내리쳐도 몽둥이질한 곳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천둥처럼 할을 내질러도 할을 내지른 곳에 소리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또한 상황에 적절하게 상대의 안목을 바꾸어주는 수단이 있으므로 학인들이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곧바로 방을 내리쳐 때렸던 것이다.

入門便棒者，一條白棒，佛來也打，祖來也打也。古人云，“棒如雨滴，棒處無痕；喝似雷奔，喝處無聲。”雖然如是，亦有隨機換却眼睛地手段故，凡見僧來便棒也。

이 울리며 휩쓸고 갈 때 눈앞에 남은 것들이 없는 것과 같다.”(『東山慧空和尚語』 續古尊宿語要6 卍119 p.161a5. 周金剛白棒，佛來也打，一似大風雨，鼓蕩直無前.)

- 3) 『金剛經』에 조예가 깊어 주금강(周金剛)이라 불렸던 덕산이 용담숭신(龍潭崇信)의 가르침에서 전기를 맞이한 이후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독행하는 수단으로서 방을 시행했다. “이때부터(龍潭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다음) 덕산은 한 자루 생짜의 방에 의지하여 부처가 와도 때리고 조사가 와도 때렸다. 이것에 다른 뜻은 없고 후인들이 관념과 형상에 막히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학인들의 질문이 지리멸렬하게 늘어질 때마다 곧바로 한 방을 휘둘렀으니, 이것이 바로 방이 생겨난 유래이다. 그래서 ‘덕산은 학인이 방장에 들어오자마자 방을 휘둘렀고, 임제는 누구든 방장에 들어오자마자 할을 내질렀다’라고 한 것이다. 방과 할을 어찌 까닭도 없이 행하였겠는가!”(『佛祖歷代通載』 권22 大49 p.720c22. 自是，據條白棒，佛來也打，祖來也打。此無他，恐後人滯於名相。凡有所問，至支離處，便與一棒，此棒之所由生也。所謂德山入門便棒，臨濟入門便喝。夫棒喝者，豈徒施也哉!); “초종도인이 청하여 지은 찬시(讚詩): 한 자루 생짜의 방으로 부처나 조사나 모두 때리노라. 초종선인은 대답하여 겁이 없구나. 나의 초상을 그리고 찬시를 청하여, 죽음으로 통하는 문에 이를 붙여서 걸어두었네. 삼십 년 뒤 이 이야기가 크게 알려질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껏 분별하는 대로 맡겨 두리라.”(『大慧語錄』 권12 大47 p.861b8. 超宗道人請讚：一條白棒，佛祖俱打。超宗禪人，大膽不怕。畫我來乞讚，鬼門上貼卦。三十年後，此話大行，任一切人，讚龜打瓦.)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송

한 방에 한 줄기의 흔적이 남으니,
그 매운 맛 말로 표현할 수 없구나.
장부라면 기개가 있는 것 보통이나,
그 은혜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

〈돌!〉⁴⁾

大洪恩頌, “一棒一條痕, 辛酸不可論. 丈夫多意氣, 幾箇是知恩?” 〈咄!〉

[설화]

방의 아픔⁵⁾을 알아야 비로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⁶⁾

大洪：須知痛痒, 方始報恩.

정엄수수(淨嚴守遂)의 송

소나기 내리치니 천둥 요란하게 치고,
구름 일어나니 번갯불 뒤따라 번득인다.
장군이 생사의 범령 쥐고 있다 하지만,
어찌 요순이 교화하던 시절만 하리오!

淨嚴遂頌, “驟雨迅雷擊, 雲興電影隨. 將軍雖有令, 何似舜堯時!”

4) 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내지르는 소리. 할(喝)과 같다.

5) 언어를 넘어선 방으로 통렬하게 지시하는 내용.

6) 방(棒)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바르게 응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설화]

앞의 두 구절은 수단이 신속하고 묘하며 세밀하다는 뜻이다. 요순이 다스리던 때는 (별달리 교화의 수단을 펼칠 것도 없이) 본래부터 태평한 시대였다는 뜻이다.

淨嚴：二句，手段迅速妙密也。舜堯時，本自太平時也。

정자본의 송

종장(宗匠)은 무엇에 의지하여 바름과 샅됨을 드러내는가?

한 자루 주장자로 용과 뱀을 가려내노라.

다리가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30방으로 답하니,

석가모니도 그 몽둥이에 묻혀버릴까 염려되누나.

淨慈本頌，“宗匠憑何顯正邪？一條拄杖辨龍蛇。脚纔跨戶答三十，猶恐沈埋老釋迦。”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송

덕산의 방과 임제의 할이여!

동금강이요 철보살이로다.⁷⁾

요란한 천둥 울리는 곳에 어떤 귀이건 모두 먹어버리고,

별들이 번쩍번쩍 흩어져 내릴 때 멀지 않는 눈은 없노라.⁸⁾

7) 동금강(銅金剛)은 동으로 만든 금강신장(金剛神將)을 가리키는 말로서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 몽둥이를 들고 있으므로 방과 상응한다. 철보살(鐵菩薩)은 철로 주조된 보살상이며,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할과 상응한다.

8) 눈이 멀고 귀가 상한 상태가 바로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아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눈은 멀게 했지만 모두에게 조계의 달⁹⁾ 거둬 가리켰다네.

長靈卓頌, “德山棒臨濟喝! 銅金剛鐵菩薩. 轟雷發處有耳皆
聾, 撒星來時無眼不瞎. 瞎與公重指曹溪月.”

[설화]

‘동금강’은 위엄과 용맹이 있는 모습으로 덕산의 방을 비유하며, ‘철보살’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것으로 임제의 할을 나타낸다. 철과 동이라 형용한 까닭은 그 뜻으로 알 수 있다.

‘요란한 천둥 ~ 먹어버리고’라는 구절은 할을 나타내고, ‘별들이 번쩍번쩍 흩어져 ~ 눈은 없노라’라는 구절은 방을 말한다.

‘조계의 달을 거둬 가리켰다’라는 말은 눈만 멀게 한 것이 아니라 지시하여 주는 내용도 있다는 뜻이다. ‘공(公)’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長靈: 銅金剛, 有威猛之相, 喻德山棒也. 鐵菩薩, 有慈悲之心, 臨濟喝也. 所以鐵銅, 其意可知. 轟雷云云者, 喝也, 撒星云云者, 棒也. 重指云云者, 亦有指示處也. 公謂諸人也.

개암봉의 송

평소의 속뜻을 남에게 모두 쏟아 부었으니,
한 방 분명했지만 그 실물 그려내지 못하네.
만일 몸 뒤집어¹⁰⁾ 그 귀결처를 알아차린다면,

없는 은산철벽(銀山鐵壁)의 궁지(窮地)이다. 절망의 경계가 아니라 본분의 소식이 올 조짐을 나타낸다.

9) 조계월(曹溪月), 조사(祖師)의 종지(宗旨).

10) 번신(翻身), 전신(轉身)과 같은 말로 엇매인 몸을 반전시켜 안목을 바꾸는 것.

물과 하늘 맞닿은 곳 드넓고 달은 맑디맑으리.

介庵朋頌, “平生心膽向人傾, 一棒分明畫不成. 若也翻身知落處, 水天空闊月澄清.”

무진거사의 송

한 자루 주장자 하늘에 기대 놓고,
삼승의 교설 밖에서 별도로 전하네.
눈 깜박이기도 전에 8백 방 맞으리니,
입을 열려고 하면 3천 방을 맞으리라.¹¹⁾

無盡居士頌, “一條柳栗倚青天, 別向三乘教外傳. 未眨眼時遭八百, 擬開口處著三千.”

대우수지(大愚守芝)의 상당

“덕산은 누군가 방장에 들어서면 곧바로 방을 휘둘렀고, 임제는 누군가 방장에 들어서면 할을 내질렀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삼문¹²⁾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30방을 때려 주어야 한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가? 방과 할을 동시에 시행해도 이미 핵심에서 멀리 떨어진 것인데, 예나 지금이나 모두들 칭찬하며 떠들썩하게 말이 많았다.¹³⁾ 이 두 가지 길과 상

11) 덕산의 방은 어떤 조짐도 발생하기 이전의 소식이라는 뜻.

12) 三門. 절 가장 앞에 세운 정문. 산문(山門)이라고도 한다. 공(空)·무상(無相)·무원(無願)의 삼해탈문(三解脫門)에 빗대어 해탈에 이르기 위해 들어서는 문이라는 뜻을 상징한다.

13) 주차(周遮). 조차(啞嚙)와 같은 말.

관없이 무엇에 의지하여 말해야 할까? 남해의 시키먼 페르시아인이 하얀 상아를 진상한다.”

大愚芝, 上堂云, “德山, 入門便棒; 臨濟, 入門便喝. 翠嶠卽不然. 三門前好與三十棒. 何謂如此? 棒喝齊施早已賒, 古今皆贊絕周遮. 二途不涉憑何說? 南海波斯進象牙.”

[설화]

삼문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30방을 때려 주어야 한다: 방장까지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뜻이다.

예나 지금이나 ~ 말이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방과 할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떠들썩하게 말이 많다는 뜻이다. 절(絶)은 지극하다는 의미의 극(極)과 같은 말이다.

두 가지 길과 상관 없이 ~ 말할까: 두 가지 길이란 방과 할이라는 두 가지 길을 말한다.

남해의 ~ 진상한다: 어두움 속에 밝음이 있다는 뜻이다. ‘상아를 진상한다’는 말은 태평성대가 되면 나라 밖에서도 공물을 보내온다는 말이다.

大愚: 三門前云云者, 何用入門來也. 古今皆讚云云者, 古今讚揚棒喝, 是周遮也. 絕極也. 二途不涉云云者, 二途謂棒喝二途也. 南海云云者, 暗中有明也. 進象牙者, 言致得大平, 海外輸貢也.



677칙 德山啊哪 덕산아야



677칙 덕산아야 德山啊哪¹⁾

[본칙]

덕산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야! 아야!”

德山不安，有僧問，“還有不病者也無？”師云，“有。”曰，“如何是不病者？”師云，“啊哪！啊哪！”

[설화]

아야! 아야: 병든 자임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병든 자를 벗어나서 따로 병들지 않은 자가 없다는 뜻이다.

啊哪啊哪者，是病者也。病者外無不病者也。

-
- 1) 병들지 않는 자가 어떤지에 대하여 물었는데, ‘아야!’라는 고통의 소리를 내어 관문으로 제시한 공안이다. 이 ‘아야!’라는 소리는 병이 들었다는 관점으로도 파악할 수 없고, 병들지 않았다는 관점으로도 분별할 수 없는 ‘의미없는’ 소리 자체이다. 유사한 내용의 공안으로는 본서 351則「天皇快活」과 707則「洞山不病」이 있다.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병든 눈으로 보니 허공에서 꽃이 피지만,
맑고 맑아지면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을손가!
‘아야’ 하는 벼락 같은 소리의 뜻 아는가?
깨어나고 보면 원래 병든 몸은 없다네.

大覺璉頌, “翳目觀花起大虛, 澄澄何有復何無! 啊哪一震還知否? 見覺元來不病軀.”

[설화]

병든 눈으로 ~ 꽃이 피지만 : 미혹되면 이와 같이 된다는 뜻이다. 그 아래의 구절들은 덕산이 말한 내용을 가리킨다.

大覺云云, 大虛者, 迷則如是也. 下言, 德山道得處也.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상당

천복본일이 병에서 회복한 뒤 법좌에 올라앉아 이 공안을 제기하고 대중에게 말했다. “작가종장²⁾은 말을 함부로 늘어놓지 않으니, 마치 활쏘기에 통달한 사람이 백 번 쏘아서 백 번 모두 적중시키듯이³⁾ 그 말에 진실하고 딱 들어맞는 점이 있는 것이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지만 내가 본 경

2) 작가종장(作家宗匠). 본서 165則 주석8), 411則 주석11) 참조.

3) 백발백중(百發百中). 말이나 행동이 어느 것이나 모두 본분에 들어맞아 어긋남이 없다는 뜻을 비유하는 말. “초나라에 양유기(養由基)라는 사람은 활쏘기를 잘했다. 버드나무 잎으로부터 백 보 거리에서 쏘아도 백 번 쏘아서 백 번 모두 적중했다.”(『戰國策』「西周策」. 楚有養由基者, 善射. 去柳葉者百步而射之, 百發百中.)

계를 여러분이 함께 알기 바란다. 참으로 병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스스로 “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금 “병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가?”라 묻고는 또 스스로 “감기가 들어 콧물이 흐른다”라고 대답하고, “편히들 쉬게!”⁴⁾라 인사하였다.

薦福逸, 因病起, 上堂, 舉此話, 召大衆云, “作家宗匠, 語不浪陳. 如人解射, 百發百中, 信而有之. 然雖如是, 薦福見處, 也要諸人共知. 還有不病者也無?” 自云, “有.” “如何是不病者?” 自云, “傷寒鼻涕流.” “珍重!”

[설화]

감기가 들어 콧물이 흐른다 : 온몸에 병이 들었다는 뜻이다.

薦福 : 傷寒鼻涕流者, 全是病也.

설봉료의 거

“덕산이 입적할 즈음에 병의 조짐을 보이고 ~ ‘아야! 아야!’라고 했을 때⁵⁾ 학인들이 아무 말이 없자 덕산이 말했다. ‘허공을 더듬고 메아리를 따

4) 진중(珍重). 헤어지면서 나누는 일상적인 인사. 자신을 보배처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인 ‘불심(不審)’과 대칭되는 말. 『大宋僧史略』 권상 「禮儀沿革」 大54 p.239a9에도 같은 뜻이 보인다. “떠나면서 ‘진중’이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이 말은 상견을 마치고 생각을 주고받은 다음 ‘진중’이라 당부하는 말로서 ‘더욱 자신을 잘 지키고 소중히 하라’, ‘더욱 스스로 아끼기를 바란다’, ‘편히 쉬어라’, ‘자신을 지키고 아끼라’는 등의 말과 같다.”(臨去辭云珍重者何? 此則相見既畢, 情意已通, 囑云珍重, 猶言善加保重, 請加自愛, 好將息, 宜保惜, 同也.) 『釋氏要覽』 권중 大54 p.278c5에 따르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떠날 때는 ‘진중’이라고 하지 않고 단지 합장하고 머리를 숙여 경의를 나타내면 된다고 한다.

라다니며 그대들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다가 꿈에서 깨면 그러한 노력이 틀렸다는 것을 알 것이니, 결국은 어떤 할 일이 남아 있겠는가!’ 이 말을 마친 뒤 편안히 좌선한 채로 입적하였다.” 설봉료가 무릎을 치면서 말했다. “안타깝구나! 덕산은 평상시에 학인들이 방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빗방울 치듯이 무수하게 방(棒)을 휘둘렀는데, 임종 무렵에 이르러 학인들에게 대답을 강요받고는 할 말조차 잃어버렸다. 비록 이렇다고는 하지만 소리 높여 ‘아야! 아야!’ 하고 내지른 소리는 도대체 어떤 병의 고통 때문에 나온 것일까?”

雪峰了, 舉, “德山臨遷化示疾, 〈至〉啊哪啊哪, 僧無語, 山云, ‘捫空追響, 勞汝身心, 夢覺覺非, 竟有何事!’ 言訖安坐而逝.” 師拍膝云, “可惜許! 老漢, 平生見僧入門, 棒如雨點, 及乎臨行, 被人撈著, 忘了話頭. 雖然怎麼, 祇如高聲叫, ‘啊哪! 啊哪!’ 是是麼病痛?”

[설화]

덕산의 병을 밑바닥까지 밝혔다.

雪峰: 明得德山病到底也.

보림본의 상당

보림본이 병에서 회복한 뒤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수일 동안 하찮은 병에 사로잡혀 대중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니 몸 자체가 괴로움의 근본이

5) 여기까지는 본서에서 거론된 것이며, 이하는 『景德傳燈錄』 권15 「德山宣鑒傳」 大51 p.318a24 등에 연속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며 모든 병이 의지하는 소굴이어서 어떤 병이건 일단 발생하면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 기억하건대⁶⁾ ‘덕산 ~ 아야! 아야!’라 했다.” 이 공안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참으로 우습구나! 여러분들, 이 노장님이 평소에는 등줄기가 무쇠와 같이 단단하였는데, 이 지경에 이르러서는 앞뒤도 구분하지 못했다. 천고 이래로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뜻을 이제 남들에게 주어 무너진 기강을 바로잡고 다시 광채를 빛나게 함으로써 서로들 명청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니 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문득 주장자를 잡고 “어디로 가느냐?”라 말한 뒤, 선상(禪床)을 쳤다.

寶林本, 因病起, 上堂云, “數日劣疾所拘, 不得與大衆相見. 然卽身爲苦本, 衆病攸依, 凡厥有生, 無能免者. 記得, ‘德山, 至啊哪啊哪’” 師云, “好笑! 諸仁者, 這老漢, 尋常一條脊梁硬似鐵, 洎乎到此, 便乃忘前失後, 千古之下, 令人不甘. 如今欲與佗, 扭正頹綱, 令重生光彩, 免見遞相鈍置, 豈不快哉!” 乃薦拈拄杖云, “甚處去也?” 擊禪床.

[설화]

주장자를 잡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은 말 : ‘어디서 더듬으며 찾느냐’라는 뜻이다.

寶林：拈拄杖云甚處去者，向甚麼處摸捺。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다시 다음의 공안을 제기했다. 하루는 수곽시자(守

6) 기득(記得). 공안을 제기할 때, 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제기하여 말할 경우는 ‘기득’이라 하고, 제3자가 그 말을 받아 적을 경우는 ‘거(擧)’라 한다.

廊侍者)가 덕산에게 물었다. ‘선대로부터 있었던 모든 성인들은 어느 곳으로 갔습니까?’ ‘무슨 말이나, 무슨 말이야?’ ‘용과 같이 비상하는 날랜 말을 오라고 불렀는데, 절름발이 자라가 나오는군요.’ 죽암사규가 이 두 공안을 아울러 평가했다. “‘아야, 아야’와 ‘무슨 말이나, 무슨 말이야’라고 한 말은 유사한 점이 전혀 없지만, 서로 차이점도 많지 않다.⁷⁾ 남이 한 말이나 따라다니며 분별한다면⁸⁾ 그대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는가? 백로가 눈 위에 있지만 눈과 같은 색이 아니며, 밝은 달과 달빛 아래 갈대꽃은 남남인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⁹⁾” 마침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대단하신 덕산이시여! 서로 유사한 구절만 말하셨구려. 그렇다면 유사하지 않은 구절은 어떤 것일까?¹⁰⁾ ‘연꽃잎은 둥글둥글하여 거울과 같고, 마름잎

7) 말의 형식으로 보면 전혀 공통점이 없지만, 두 가지 모두 몰자미(沒滋味)한 화두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뜻.

8) 마후여전(馬後驢前). 말의 뒤와 나귀 앞을 줄줄 따라다니는 말. 말과 나귀의 고삐를 잡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끌고 다니며 시중을 든다는 뜻으로, 남의 말과 견해를 추종하며 그것에 좌우되어 자신의 주견을 잃고 진실도 모른다는 말이다. “동산이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법명이 무엇인가?’ ‘아무개입니다.’ ‘어떤 것이 아사리의 주인공인가?’ ‘보십시오! 지금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괴롭다, 괴로워! 오늘날의 사람들은 다들 이와 같이 단지 남들의 말만 따라 하는 것을 참된 자기라고 잘못 알고 있다. 불법이 평지에서 가라앉았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손님 중의 주인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 중의 주인을 알 수 있겠는가?’”(『洞山語錄』 大47 p.511c22. 師問僧, ‘名什麼?’ 僧云, ‘某甲.’ 師曰, ‘阿那箇是闍黎主人公?’ 僧云, ‘見! 祇對次.’ 師曰, ‘苦哉, 苦哉! 今時人, 例皆如此, 只是認得驢前馬後底, 將爲自己. 佛法平沈, 此之是也. 賓中主, 尚未分, 如何辨得主中主?’)

9) 『大慧語錄』 권15 大47 p.876a21에 따르면, 앞의 구절은 ‘동일한 것 중에 다른 것(同中有異)’이고, 뒤의 구절은 ‘다른 것 중에 동일한 것(異中有同)’이다.

10) 서로 유사한 구절과 유사하지 않은 구절이라고 설정한 대립 자체가 하나의 화두이다. 죽암은 덕산의 ‘아야’와 ‘무슨 말이나’라고 하는 두 종류의 말을 ‘서로 유사한 구절’에 배치했지만, 그것을 유사하지 않은 구절로 다시 환기시켜 화두로 만든 것이며 반드시 유사한 구절에 귀착된다는 뜻은 아니다. ‘유사하지 않은 구

은 뽀죽뽀죽하여 송곳과 다르지 않다. 버들개지에 바람이 부니 솜털씨앗 [毛毬] 날리고 배꽃에 비가 내리니 나비가 날아간다.’¹¹⁾ 이것이 바로 유사하지 않은 구절이 아니겠는가!” 불자(拂子)를 내던지고 말했다. “칠통같은 사람들아, 승당에 들어가 참구하라!”

竹庵珪, 上堂, 舉此話, 又舉, 一日廓侍者問德山, ‘從上諸聖, 向什麼處去?’ 山云, ‘作麼? 作麼?’ 廓云, ‘敕點飛龍馬, 跛鼈出頭來.’ 師云, “阿耶阿耶, 作麼作麼, 絕相似, 不爭多. 馬後驢前奈你何? 鶯鶯立雪非同色, 明月蘆花不似佗.” 遂大笑云, “大小老禪! 也只道得箇相似句, 如何是不相似句? 荷葉團團團似鏡, 菱角尖尖尖似錐. 風吹柳絮毛毬走, 雨打梨花蛺蝶飛. 莫便是不相似句麼!” 擲下拂子云, “漆桶, 參堂去!”

[설화]

‘아야, 아야’와 ‘무슨 말이나, 무슨 말이야’라 한 말은 서로 유사한 구절이라는 뜻이다.

대단하신 덕산이시여 ~ 나비가 날아간다 : 유사하지 않은 구절 그대로가 유사한 구절이라는 뜻이다.

불자를 내던지고 한 말 : 서로 유사한 구절을 듣고도 유사한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나 서로 유사한 점이 전혀 없는 구절을 듣고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칠통이라는 말이다.

竹庵 : 啊哪啊哪, 作麼作麼者, 相似句也. 大小老禪至蝶飛者,

절’을 끌어들여 ‘유사한 구절’이라는 관념을 해체하고, 더 나아가 ‘유사하지 않은 구절’ 자체도 해체하는 방식이다. 어떤 경우도 주석7)에 제시된 몰자미(沒滋味)의 취지에 따른다.

11) 『書狀』「答林判院」大47 p.936b22.

不相似句，卽相似句也。擲下拂子云云者，聞相似句，而便謂絕相似也，絕相似，而便謂相似，是染桶也。



685책 洞山三身 동산삼신



685칙 동산삼신 洞山三身

[본칙]

동산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삼신 중 어떤 몸이 차별 현상에 떨어지지 않습니까?”¹⁾ “나는 항상 이 문제를 간절하게 생각해왔다.” 그 학인이 뒤에 조산에게 물었다. “동산이 ‘나는 항상 이 문제를 간절하게 생각해왔다’라고 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머리가 필요하다면 베어 가져라.” 그 학인이 이번에는 설봉에게 묻자 설봉이 주장자로 입을 찌르며 말했다. “나도 동산에 다녀온 적이 있느니라.”

洞山因僧問, “三身中那身不墮諸數?” 師云, “吾常於此切.”

僧後問曹山, “洞山道, ‘吾常於此切.’ 意旨如何?” 曹云, “要頭斫將去.”²⁾ 僧又問雪峯, 峯以拄杖劈口打云, “我也曾

1) 불타제수(不墮諸數), 『維摩經』에 나오는 구절이다. 상대적인 현상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로서 불신(佛身)은 유·무, 범·성 등 대립적 권역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數’란 법수(法數)라는 뜻으로 현상이나 일정한 존재를 몇 가지 수로 분류하는 일종의 범주이다. 무위(無爲)·무상(無相)의 경계에 속하는 불신은 유위의 어떤 현상에도 제한되지 않는다. <경> 부처님의 몸은 무위이니 유위의 모든 현상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 승조(僧肇)가 말했다. ‘법신은 억지로 하는 일이 없지만 하지 못하는 것도 없다. 하지 못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나타내고, 억지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도 떨어지지 않는다.’(『注維摩詰經』 권3 大38 p.360a13. 佛身無爲, 不墮諸數. 肇曰, ‘法身無爲, 而無不爲. 無不爲故, 現身有病; 無爲故, 不墮有數.’)

到洞山來。”

[설화]

삼신 중 ~ 떨어지지 않습니까 : 법신은 고요하여 과거·미래·현재의 차별이 없으니 법신이야말로 어떤 차별 현상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삼신은 원만하게 융합하고 십신³⁾도 서로 걸림이 없으니 그 하나하나의 몸이 모두 어떤 차별 현상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나는 항상 이 문제를 간절하게 생각해왔다 : 어느 한편에 치우쳐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내 머리가 필요하면 베어 가거라’고 한 말과 통한다.

나도 동산에 다녀온 적이 있느니라 : 이렇게 한 말들이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세 선사의 뜻이 같은가? 아니면 제각기 다른가? 같은 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속의 소금 맛이 보이지는 않지만 물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고, 오색단청 속의 아교 성분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 단청색 전체에 스며 있듯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어서 없다고 말할 수 없다.⁴⁾ 그러므로 승천전종(承天傳宗)의 염에서 그렇게 말했고, 대혜종고(大慧宗杲)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까 염려하여 그 취지를 말했던 것이다.

三身中云云者，法身凝寂，非去來今，則法身不墮諸數也。三身

2) 『洞山語錄』大47 p.510b26에는 “要頭便斫去”로 되어 있다.

3) 十身. 화엄학에서 삼세간의 모든 법을 포섭하는 개념. 십지(十地) 중 제8 부동지(不動地)의 보살은 중생심을 잘 알아 이 십신으로 자신의 몸을 삼는다. 곧 중생신(衆生身)·국토신(國土身)·업보신(業報身)·성문신(聲聞身)·독각신(獨覺身)·보살신(菩薩身)·여래신(如來身)·지신(智身)·법신(法身)·허공신(虛空身) 등을 말한다. 『華嚴經疏』권1 大35 p.505c27, 『華嚴經隨疏演義鈔』권1 大36 p.9b26 참조.

4) 『景德傳燈錄』권30 「傳大士心王銘」大51 p.456c28 등에 나오는 구절.

圓融, 十身無礙, 則一一不墮諸數也. 吾常於此切者, 一隅分辨不得也, 則要頭斫將去也. 我也曾到云云者, 皆是道不是也. 三師意一般耶, 各別耶? 一般是道不得也. 然水中鹽味, 色裏膠精, 決定是有, 不可道無也. 故承天宗拈云云, 雲門杲, 又恐人伊麼會故云云.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세상에 들어가지 않아 아직 인연을 따르지 않으니,⁵⁾
 겁호⁶⁾의 빈곳에 대대로 전한 가문의 비밀⁷⁾ 있다.
 부평초에 잔잔한 바람 불어오는 가을 강 저녁 무렵,
 옛 언덕으로 온통 안개 두른 배 한 척 돌아오누나.

天童覺頌, “不入世未循緣, 劫壺空處有家傳. 白蘋風細秋江暮, 古岸船歸一帶煙.”

[설화]

앞의 두 구절은 ‘모든 차별 현상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리키

5) 『直註天童頌古』 권하 卍117 p.808b16에는 “범부와 성인 그 어느 편에도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凡聖)라는 착어가 붙어 있다. 어떤 차별도 없는 경계라는 해설이다.

6) 劫壺. 어떤 차별도 나타나기 이전의 별세계(別世界). ‘겁’은 영겁(永劫) 또는 공겁이전(空劫以前), ‘호’는 호리병 속의 별천지[壺中天地]라는 뜻이다. 원래 도가(道家)에서 말하는仙境(仙境)을 가리킨다. 본서 312則 주석14) 참조.

7) 말로 전할 수 없는 무차별의 중지.

고, 그 아래 두 구절은 이 순간에 법 그대로 실현된 풍경을 나타낸다. ‘법 그대로 실현된 풍경’이라는 말은 ‘물속의 소금 맛’이라 운운한 뜻(본칙 설화)을 가리킨다.

겁호: 공겁(空劫) 때의 본분사로서 ‘호리병 속의 별천지’라 말하는 뜻과 같다.

天童: 二句, 不墮諸數意也, 下言今日如法就向也. 如法就向者, 水中鹽味云云也. 劫壺者, 空劫時事, 如壺中天地云云也.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이 간절함을 슬프게도 밖으로 내달리며 구하니,
가장 친한 사람이 어째서 원수와 같이 보일까?
시종일관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 전혀 없으니,
다시 조산이 그대 머리 찾을 일이 있으리라.

保寧勇頌, “此切堪傷走外求, 至親何故似怨讎? 始終滿面無慙色, 更有曹山乞你頭.”

설두법령(雪竇法寧)의 송

항상 이를 절실히 여겨 묘하게 빼어난 경지 되니,
차별 현상에 떨어지지 않는 몸은 바로 이 몸일세.
다시 조산에게 물어도 필요하면 머리 준다 하겠지만,
진실이 있는 듯한 말로 남을 속이는 짓은 그만두라.

雪竇寧頌, “常於此切妙超倫, 不墮之身是此身. 更問曹山要頭與, 休將實語作謾人.”

열재거사의 송

나는 항상 이를 절실히 여겨왔다고 말할 줄 아니,
한 번 물 마실 때마다 한 번 목 메이는 격이구나.
우습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몰라보고,
타고난 그의 코를 제멋대로 비튼다네.

悅齋居士頌, “解道吾常於此切, 一廻飲水一廻噓. 堪笑世人不
識渠, 孃生鼻孔恣扭捏.”

승천전종(承天傳宗)의 염

“여러 상좌들이여! 세 가지 중 하나의 일전어(一轉語)는 ‘바다의 파도는 잠잠하고 황하는 맑아졌다’⁸⁾는 뜻과 상응하고, 다른 하나의 일전어는 ‘바람은 거세고 달은 밝다’는 뜻과 상응하며, 나머지 하나의 일전어는 ‘도적의 말을 빼앗아 타고 도적을 쫓아간다’⁹⁾는 뜻과 상응한다. 한번 그 차이를 가려내보기 바란다. 만일 어떤 납승이 나와서 ‘전혀 그러한 뜻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진리를 보는 하나의 눈이 갖추어져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承天宗拈, “諸上座! 一轉語, 海晏河清; 一轉語, 風高月冷;
一轉語, 騎賊馬趁賊. 試請辨看. 忽有箇衲僧出來道, ‘惣不與

8) 해안하청(海晏河清). 어떤 문제도 없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 태평한 세상을 나타낸다. 언어 등의 조짐이 전혀 나타나기 이전의 경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법신을 깨닫는 구절은 어떤 것인가?’ 바다의 파도는 잠잠하고 황하는 맑아졌다.”(『雲門廣錄』 卍118 p.351a17. 問, ‘如何是透法身句?’ 師云, ‘海晏河清.’)

9) 상대의 수단을 그대로 활용하여 역으로 상대를 점검하거나 공격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말.

麼.’也許伊具一隻眼.”

[설화]

‘바다의 파도는 잠잠하고 황하는 맑아졌다’는 구절은 정위(正位), ‘바람은 거세고 달은 밝다’는 구절은 편위(偏位), ‘도적의 말을 빼앗아 타고 도적을 쫓아간다’는 구절은 겸대(兼帶)이다.¹⁰⁾ 그러므로 세 선사의 뜻은 모두 단적인 소식이 아니다.

만일 어떤 남승이 ~ 말한다면 : 앞에서 제기한 세 구절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리를 보는 하나의 눈이 갖추어져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 한편으로는 칭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하는 말이다.

承天：海晏河清則正位，風高月冷則偏位，騎賊馬趁賊，則兼帶也。然則三師意，皆不端便也。忽有个衲僧云云者，不落前三句也。許伊具一隻眼者，一則賞，一則罰。

대혜종고(大慧宗杲)의 거

승천전종의 엄을 제기하고 “이러한 말로는 세 선사의 뜻을 꿈에도 알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뒤, 다시 말했다. “어째서 고향(膏肓)¹¹⁾의 혈(穴)에 침을 놓지 못하는가!”

10) 동산과 조산의 문답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조동종(曹洞宗)의 오위설(五位說)로 해석한 것. 정위는 모든 차별을 벗어난 무차별의 지위, 편위는 갖가지 차별 세계에서 전개하는 지위, 겸대는 정위와 편위를 모두 지니면서 어느 편에도 집착하는 않는 지위를 각각 말한다.

11) 고치기 어려운 부위. 심장 하부의 작은 비계를 ‘고’, 가슴 위의 얇은 막을 ‘황’이라 한다. 이곳에 병이 들면 고치기 어렵다고 한다. 여기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

雲門杲, 舉承天宗拈云, “恁麼葛藤, 也未夢見三箇老漢在.” 復云, “何不向膏肓穴上下一針!”

[설화]

이러한 말로는 ~ 못할 것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니 곧 세 선사의 의중을 모른다는 뜻이다.

어째서 고향의 ~ 놓지 못하는가 : 세 구절에 적합하게 그 병통을 치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雲門：伊麼至老漢者，摠不伊麼，則不會三師意也。膏肓云云者，當三句治其病也。

되는 요소 곧 관건(關鍵)을 나타낸다.



688칙 洞山體得 동산체득



688칙 동산체득 洞山體得

[본칙]

동산이 대중에게 “부처 이상으로 넘어서는 경지를 체득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이야기를 나눌 자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때 어떤 학인이 “부처의 경지 이상으로 넘어선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라고 묻자 동산이 “부처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洞山，垂語云，“體得佛向上人，方有說話分。”時有僧問，
“如何是佛向上人。”師云，“非佛。”

[설화]

부처의 경지 이상으로 넘어선 사람 : 주인 중의 주인이며,¹⁾ 모든 위계 차별을 벗어난 참 사람[無位真人]²⁾이 바로 그이다.

1) 주중주(主中主). 부처가 되었건 조사가 되었건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므로 부처의 경지조차 넘어선 사람이다. 동산양개(洞山良价)가 손님과 주인의 관계를 네 구절로 제시하여 중지를 나타낸 사빈주(四賓主) 중 하나이다. 주인 중의 주인·주인 중의 손님[主中賓]·손님 중의 주인[賓中主]·손님 중의 손님[賓中賓] 등을 말한다. 『洞上古轍』 권상 「洞山賓主句」 卍125 p.718a8 참조. “‘주인 중의 주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홀로 앉아(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세계에 군림한다.’”(『續傳燈錄』 권3 「瑯琊慧覺傳」 大51 p.484b29. 曰, ‘如何是主中主?’ 師曰, ‘獨坐鎮寶字.’)

부처 이상으로 ~ 자격이 있다 : 어떤 문답을 나누건 결함이 없고 그 맥락을 모두 안다는 뜻이다. 다만 (사람들이 빠져 있는) 어삼루³⁾를 꿰뚫을 목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뿐이다.

부처가 아니다 :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없으니, 딱

2) 무위진인(無位真人). 임제의현(臨濟義玄)의 말. 『臨濟語錄』 大47 p.496c10 참조. '무위'란 자리 잡은 지위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하의 어떤 지위에도 속박되지 않고 응하는 자유자재한 기틀을 형용하는 말이다.

3) 語滲漏. 동산양개가 세운 동산 3삼루 중 하나. 나머지 두 가지는 견삼루(見滲漏)·정삼루(情滲漏)이다. 수행자들이 빠지기 쉬운 번뇌[滲漏]의 속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확인들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어삼루란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이 진리를 깨닫는 수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문자로 표현된 구절을 해명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가리킨다. "말법시대에는 메마른 지혜[乾慧]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지혜가 참인지 거짓인지 점검하고자 하는가? 세 종류의 삼루가 있다. 첫째는 견삼루이다. 마음의 기틀이 확정된 자리[位]를 벗어나지 못하여 독해(毒海)에 떨어진 상태를 말한다. 둘째는 정삼루이다. 앞으로 가거나 뒤로 돌아서거나 어느 한쪽에 막혀서 보는 안목이 치우친 것을 말한다. 셋째는 어삼루이다. 말에서 묘한 이치를 궁구하다가 종지(宗旨)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틀이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도를 배우는 자들이 탁한 지혜에 휩쓸리면 이 세 부류의 번뇌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洞山語錄』 大47 p.513c9. 末法時代, 人多乾慧, 若要辨驗眞僞? 有三種滲漏. 一曰, 見滲漏, 機不離位, 墮在毒海. 二曰, 情滲漏, 滯在向背, 見處偏枯. 三曰, 語滲漏, 究妙失宗, 機昧終始. 學者, 濁智流轉, 不出此三種, 子宜知之.); "세 번째 어삼루는 말에서 묘한 이치를 궁구하다가 종지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기틀이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말과 구절에 막혀서 종지를 잃어버리고, 언전삼매(言詮三昧)에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까닭에 눈앞의 상황에 어둡고 종지를 원만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반드시 말이 있는 중에 말이 없는 도리와 말이 없는 중에 말이 있는 도리에 통달하여야 진리를 드러내는 미묘한 소리의 은밀하고 원만한 내용을 터득할 수 있다."(『五家宗旨纂要』 권중 卍114 p.540a16. 三, 語滲漏. 究妙失宗, 機昧終始. 謂滯在語言句失宗旨, 不能於言詮三昧下轉身. 所以, 當機暗昧, 宗旨不圓. 須是通有語中無語, 無語中有語, 乃得妙音密圓.)

들어맞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이다.

佛向上人者，主中主，無位真人，是也。體得至說話分者，但有問答不虧欠，揔識伊來處。只爲透得語滲漏，不疑天下人舌頭故也。非佛者，名不得狀不得，不可的言也。

운문문언(雲門文偃)의 염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형상으로 나타낼 수도 없다. 그런 까닭에 부처가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雲門偃拈云，“名不得，狀不得。所以言非。”

[설화]

만일 부처 이상의 경지로 넘어선 사람이라면 어떤 속성이라고 딱 들어맞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雲門：若是佛向上人，則不可的言某物故也。

법안의 염

“방편상 부처라고 부를 뿐이다.”

法眼拈云，“方便呼爲佛。”

[설화]

부처라는 말이 방편인 줄 안다면 실제로 집착할 여지가 없으며, 실제로 집착할 여지가 없다면 더 이상 향상하고자 해서 무엇 하겠느냐는 뜻이다.

法眼：知佛是方便，則無實執處。無實執處，則更要向上作麼？

천동정각(天童正覺)의 거 1

어떤 학인이 동산에게 ‘부처 이상의 경지로 넘어선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라고 물음에 동산이 ‘부처가 아니다’라고 대답한 문답을 제기하고 말했다. “동산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지 가품을 확고하게 움켜잡아 물 한 방울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보고 듣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니, 마음과 그 마음을 드러내는 자취까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이르면 모든 변화에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싫증나지 않도록 하여야 청룡이 허물을 벗고 속뿔을 드러내며 봉황이 새끼를 낳는 경지가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에 통하는 도리를 말해야 할까? 알겠는가? 밝은 바람은 노를 저음에 따라 더욱 충만해지고, 밝은 달은 배를 쫓아온다.”

天童覺，舉僧問洞山，‘如何是佛向上人？’山云，‘非佛。’師云，“洞山怎麼道，直是把斷家風，不通水泄，見聞匪及，心迹俱消。到這裏，却須通其變，使人不倦，直得蒼龍蛻骨，玉鳳生雛。且作麼生說个通變底道理？還會麼？清風隨棹滿，明月逐舟來。”

천동정각의 거 2

이 공안과 더불어 법안의 엄을 제기하고 말했다. “두 노숙⁴⁾들이 한 말

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조(刁)와 도(刀)라는 두 글자는 같은 글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魚)와 노(魯)라는 두 글자는 겉모양으로도 차이가 매우 심한 것을 어찌하랴! 이 경계에 이르면 반드시 겹(劫)을 벗어난 기틀을 움직이고, 바람 앞에서 화살을 쏘며, 온몸을 던져 짊어지고, 손에 든 모든 것을 놓고 알아차리며, 이런 종류의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이 말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눈 속에 섞인 밀가루는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검은 먹 속에 묻은 그을음은 가려내기 어렵다.”

又舉此話，連舉法眼拈云，“二老宿，相去多小？直是刁刀相似，奈何魚魯參差！到者裏，須是轉劫外機，放風前箭，橫身擔荷，撒手承當，具者般眼目，始得。還辨得麼？易分雪裏粉，難辨墨中煤。”

[설화]

두 노숙들 : 운문과 법안이다.

조(刁)와 도(刀)라는 두 글자는 ~ 어찌하랴 :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지 않는 뜻이다.

겹을 벗어난 기틀을 움직이고, 온몸을 던져 짊어진다 : 운문의 뜻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바람 앞에서 화살을 쏘고, 손에 든 모든 것을 놓고 알아차린다 : 법안의 뜻을 이해했다는 뜻이다.

눈 속에 섞인 밀가루는 ~ 가려내기 어렵다 : 결국은 두 가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말이다.

4) 老宿, 노년숙덕(老年宿德)의 줄임말로 장로(長老)·존숙(尊宿) 등과 같은 뜻이다.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스님을 말한다. “체비리(ᱟsthavira, ᱠthera)는 노숙이라 한역한다.”(『翻譯名義集』 권1 大54 p.1074c14, 體毘履, 此云, 老宿.)

天童又舉：二老宿者，雲門法眼也。刁刀相似云云者，似而不似也。轉劫外機，橫身荷擔者，會雲門意也。放風前箭，撒手承當者，會法眼意也。易分雪裏云云者，畢竟分辨不得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시중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문언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두 존숙이 이렇게 제기한 부처의 경지 이상으로 넘어서는 일은 느슨하기 짝이 없다. 나의 문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부처의 경지 이상으로 향상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주장자를 끌어다가 등골을 곧바로 때려서 질문한 자가 부처의 경지 이상으로 넘어선다는 관념에 뿌리를 내리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雲門杲，示衆，舉此話，連舉雲門拈，師云，“二尊宿，恁麼提持佛向上事，且緩緩。這裏卽不然。如何是佛向上事？拽拄杖，劈脊便打，免教伊在佛向上塚根。”

[설화]

송원의 뜻과 같다.

雲門：松源意同也.

송원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대혜종고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운문의 말은 훌륭하지만 뜻을 박고 아교까지 붙여 놓은 것과 같았다.”

松源，上堂，舉此話，連舉雲門拈，師云，“雲門好語，未免釘釘膠粘。”



704칙 洞山救火 동산구화



704칙 동산구화 洞山救火¹⁾

[본칙]

동산이 삼봉(三峰)²⁾을 부르며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치자 삼봉이 말했다. “불이 멀리서 났군요.” 동산이 “응사리!” 하고 부르자 삼봉이 “예!” 하고 응답했을 때 동산이 말했다. “멀리서 난 것이 아니로군.”

洞山, 喚三峰云, “救火! 救火!” 峰云, “火遠在.” 師召云, “膺闍梨!” 峰應喏. 師云, “也不遠.”

[설화]

“불이야! 불이야!” 하고 소리친 것 : 삼계에서 윤회하며 오랜 세월 머무는 것이 마치 불난 집에 사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억류된 속박을 참고 지나간 고통을 받아온 것을 가리킨다.

불이 멀리서 났군요 : 상대가 한 말에 이끌려 마구 내달렸음을 드러낸다.

“응사리!” 하고 부른 말 : 불러서 끌어낸 것이다.

-
- 1) 상대가 하는 말마다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며 미혹되는 학인을 일깨워주는 수단을 보여준다.
 - 2) 도옹(道膺 835~902)을 말한다. 도옹이 삼봉산(三峰山)에 주석했기 때문에 불은 호이다.

“예!” 하고 응답한 것 : 이 또한 상대의 말에 이끌려 응답한 것이다. 이러면 치열하게 모든 것을 태워버리므로 ‘멀리서 난 것이 아니로군’이라 말했던 것이다.

救火救火者, 三界久居, 猶如火宅, 其忍淹留, 堪受長苦. 火遠在者, 隨言走殺也. 召云膺闍梨者, 喚出也. 應喏者, 亦隨言應喏也. 然則熾然焚燒, 故云, 也不遠.

지해본일(智海本逸)의 송

작가 종장이 입이 쓰도록 말이 많지만,
자식을 기르는 부모 처지인 걸 어찌하랴!
오직 앞으로 나아가 불을 끄고자 하니,
눈썹이 빠지더라도 그를 쫓아가노라.³⁾

智海逸頌, “作家宗匠苦怱怱, 養子之緣不奈何! 一向進前貪救火, 眉毛失却也從他.”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송

활활 타는 맹렬한 불꽃이 산악을 태우는데,
잠에 빠진 스님은 도무지 깨어나지 않누나.

3) 불법을 잘못 전하여 눈썹이 모두 빠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자식을 가르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친절하게 ‘불이야!’ 하고 일러주었다는 뜻.

불러 일으켰으나 허둥대며 여전히 알지 못하니,
 눈썹과 콧구멍을 모두 태워버렸다네.
 태워버렸어도 놀랄 필요 없는 일이니,
 봄바람 맞자마자 또 다시 생겨나리라.

蔣山泉頌, “炎炎烈火焚山岳, 貪睡阿師渾不覺. 喚起倉忙尚未
 知, 眉毛鼻孔都燒却. 燒却也不須驚, 才得春風又却生.”

[설화]

눈썹과 콧구멍을 모두 태워버렸다 : ‘눈썹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
 해 주겠다’⁴⁾는 뜻이다.

蔣山：眉毛鼻孔都燒却者，謂諸人云云。

4) 일러주어도 상대가 알지 못하여 눈썹이 모두 빠져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말한다는 뜻. 선문헌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구절이다. “산승은 눈썹을 아까워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핵심을 집어내어 주겠다.”(『五祖法演語錄』 권1 大47 p.649c11, 山僧不惜眉毛, 與汝諸人拈出.) 『圓悟語錄』 권5 大47 p.734a13 등 참조.



707칙 洞山不病 동산불병



707칙 동산불병 洞山不病¹⁾

[본칙]

동산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떤 학인이 물었다. “화상께서 병이 들었는데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이 화상을 간호해 줍니까?” “오히려 나에게 그를 간호해 줄 힘이 있다.” “화상께서 그를 간호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²⁾ “내가 간호할 때는 병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洞山不安，僧問，“和尚病，還有不病者麼？”師云，“有。”僧云，“不病者，還看和尚否？”師云，“老僧看他有分。”僧云，“和尚看他時，如何？”師云，“老僧看時，即不見有病。”

[설화]

병든 자와 병이 들지 않는 자는 각각 금일인(今日人)과 본래인(本來人)을 가리킨다.

-
- 1) 비슷한 소재의 공안으로 본서 351則 「天皇快活」과 덕산(德山)이 병들었을 때의 문답에서 연유한 677則 「德山啊哪」가 있다. 이 공안은 굉지정각(宏智正覺)의 송·상당·소참 등 세 편만 실었다.
 - 2) 『景德傳燈錄』 권15 「洞山良价傳」 大51 p.323b10에는 “(병든) 화상께서 어떻게 (병들지 않은) 그를 간호할 수 있습니까?”(和尚爭得看他)라고 되어 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이 화상을 간호해 줘니까 : 바로 저편의 본래인만이 이편의 금 일인을 간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히려 나에게 그를 간호해 줄 힘이 있다 : 금일인이 저편의 사람과 만나고자 한다.

내가 간호할 때는 ~상관하지 않는다 : 금일인이 곧 본래인이어서 병이 들었거나 들지 않았거나 그 일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다.

病不病者，今日人，本來人也。不病者還看和尚否者，但那人看這邊人之義也。老僧看他云云者，今日人，要與那人相見也。老僧看時云云者，今日人，卽是本來人，病與不病，揔不干他事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냄새나는 가죽 포대를 풀어서,
별거숭이 몸뚱이 끄집어내면,
눈앞에 반듯한 콧구멍 보이고,³⁾
그 자리에서 해골이 마르리라.⁴⁾
능숙한 의사도 오래된 고질병 알지 못하고,
어린애가 간호하려 해도 가까이하기 어렵네.

3) 본분[鼻孔]이 드러난다는 말.

4) 쓸모없는 분별의식(해골)이 사라진 경계를 맞이한다는 뜻.

들판의 물 마르는 시절 가을장마 물러가고,
구름 사라진 곳에 옛 산의 푸름⁵⁾ 드러나네.
다 끊어 없앤 다음 쓸데없이 덧붙이지 마라!
점차로 사라져 공조차 남지 않으면 그가 자리를 잡으리니,
그 높이 솟은 산꼭대기에서는 그대와 교감하지⁶⁾ 못하노라.

天童覺頌, “卸却臭皮袋, 拈轉赤肉團, 當頭鼻孔正, 直下髑髏
乾. 老醫不見從來癖, 少子相看向近難. 野水瘦時秋潦退, 白
雲斷處舊山寒. 須剽絕莫顛預! 轉盡無功伊就位, 孤標不與汝
同盤.”

[설화]

냄새나는 가죽 포대를 ~ 꼬집어내면 : 병든 그대로 병들지 않은 것이다.
눈앞에 반듯한 콧구멍 ~ 마르리라 : 사람마다 갖추고 있다.
능숙한 의사도 오래된 고질병 알지 못하고 : 병의 증세가 없다.
어린애가 간호하려 해도 가까이하기 어렵네 : 분별하려 하면 곧바로 어긋난다.
들판의 물 ~ 푸름 드러나네 : 본래의 자리를 밝힌 것이다.
점차로 사라져 공조차 남지 않으면 ~ 교감하지 못하노라 : 공이 없다는 생각도 보
존하지 않는다.

天童：卸却至肉團者，當病不是病也。當頭鼻孔云云者，人人
具足也。老醫云云者，病狀不可得也。少子云云者，擬向卽乖
也。野水云云至白雲云云者，明本位也。轉盡無功云云者，無功

-
- 5) ‘寒’은 한색(寒色), 곧 청록색(靑綠色)의 산빛을 나타낸다.
6) 동반(同盤). 동반이식(同盤而食)의 줄임말. 같은 상에 음식을 차려서 먹는다는
말로 형제간의 정이 깊어지는 것을 형용한다. 동등한 수준의 인물이 함께 교감
할 수 있는 경지를 비유하기도 한다.

亦不存也.

천동정각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갔다가 다시 오고, 왔다가 또 가는구나. 내가 그를 간호할 힘은 있지만 그가 나를 간호할 여지는 없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당해서 어떻게 해야 온전히 알 수 있을까?”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묵은 안개가 더욱 짙으니 산봉우리는 드러나지 않고, 봄바람이 항상 부는데도 가지에 싹이 트지 않는구나.”

又上堂, 舉此話云, “得往得來, 得來得往. 我看他有分, 他看我不然. 正伊麼時, 如何體悉?” 良久云, “宿霧尚深無見頂, 春風常在不萌枝.”

[설화]

갔다가 다시 오고 ~ 가는구나 : 저편의 사람(본래인)이 오고 이편의 사람(금일인)은 간다.

내가 그를 간호할 힘은 있지만 : 금일인이 본래인을 간호한다.

그가 나를 간호할 여지는 없다 : 저편의 사람은 이편의 사람을 간호하지 않는다.

묵은 안개가 ~ 드러나지 않고 : 저편 사람의 존귀한 자리를 가리킨다.

봄바람이 ~ 트지 않는구나 : 이편 사람을 간호하기도 한다.

又上堂 : 得往云云者, 那邊人來, 這邊人往也. 我看云云者, 今日人看本來人也. 他看云云者, 那邊人不看這邊人也. 宿霧云云者, 那邊人尊貴位也. 春風云云者, 亦看那邊人也.

천동정각의 소참

“훌륭한 형제들이여! 없는 듯하지만 신령한 기운이 있고, 텅 빈 듯하지만 미묘하게 움직인다. 작용하면서도 분주하지 않고 고요할 때는 다시 밝아진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본원에 근거하여 천차만별의 핵심적인 뜻을 알아맞힌다. 이 경지 속에 들어간 사람은 바르거나 뒤집어짐이 없고, 병들지도 죽지도 않으며, 태어나지도 늙지도 않는다. 오로지 스스로 증득함으로써 그것과 하나가 될 뿐, 사유분별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래된 나루터에 맑은 바람이 부니 한 장면의 가을이요, 달빛과 강물 빛이 서늘하게 서로를 비추는구나.” 마침내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병이 있는 줄 모른다면, 죽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태어남이 있는 줄도 모르며 또한 늙음이 있는 줄도 모른다. 생·로·병·사라는 네 가지 상(相)으로도 그것을 옳기지 못하고, 과거·현재·미래 3세의 시간으로도 바꾸지 못한다. 바로 이러할 때 어떻게 그를 간호할 수 있을까?”⁷⁾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자세히 알겠는가? 묘하고 청정하며 원만하고 밝은 눈을 활짝 뜨고서 상서롭고 안락한 사람을 알아보라.”

又小參云, “好兄弟! 虛而靈, 空而妙. 用處不勤勤, 寂時還皎皎. 據一如之本源, 當千差之會要. 个中人, 無正倒, 不病不死, 不生不老, 唯自證以相應, 非思惟而能到. 古渡風清一片秋, 月色江光冷相照.” 遂舉此話云, “既不見有病, 則不見有死, 亦不見有生, 亦不見有老. 四相不能遷, 三世不能轉. 正伊麼時, 且作麼生看他?” 良久云, “還相委悉麼? 撥開妙淨圓明眼, 識取

7) 병든 동산이 병들지 않는 사람을 간호한다는 말에 근거하여, 어떻게 그를 간호할 것인지를 새삼 문제로 제기했다.

吉祥安樂人.”

[설화]

없는 듯하지만 신령한 기운이 있고 ~ 핵심적인 뜻을 알아맞힌다 : 현재 이 안의 차별된 경계와 저편의 무차별한 경계가 뒤섞여 의지하고 있다.

이 경지 속에 들어간 사람은 ~ 서늘하게 서로를 비추는구나 : 앞의 뜻에 준하여 글을 따라 읽다보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又小參：虛而靈云云者，這裏那邊交互也。箇中人云云，至古渡云云者，亦前意，隨文得意好也。



726칙 投子大死 투자대사



726칙 투자대사 投子大死

[본칙]

투자에게 조주가 물었다. “완전히 죽은 사람¹⁾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밤길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날이 밝으면 틀림없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²⁾ “달마의 수염이 붉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바로 여기에 붉은 수염을 가진 달마가 또 있구나.” <『전등록』에는 “나는 일찌감치 날 밝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한 발 더 나아가 어둠기를 기다리는구나”³⁾라고 되어

1) 완전히 죽었다[大死]는 것은 망상에 얽매인 자신을 죽이는 것, 곧 안팎의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도리어 자유와 무애(無礙)의 대활(大活)을 얻은 것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대들이 다만 위로는 부처가 있다는 견해도 갖지 않고 아래로는 중생이 있다는 견해도 갖지 않으며, 밖으로는 산하대지가 있다는 견해도 갖지 않고 안으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작용이 있다는 견해도 갖지 않는다면, 마치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이다.”(『碧巖錄』6則「頌評唱」大48 p.146c8. 爾但上不見有諸佛, 下不見有衆生, 外不見有山河大地, 內不見有見聞覺知, 如大死底人却活相似.)

2) 야간통행을 금지하는 법을 지키려면 목적지를 향해 미리 떠날 수 없지만 날이 새기만 하면 그 순간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는 말. 통음을 어기고 밤길을 부지런히 가면 누구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밤의 어둠 속에서 아무리 애써 가도 망상의 뿌리를 뽑지 못한 채 분별의 깊이를 더하게 되어 망상만 확장하는 결과가 된다. 밝아지는 그 자리가 곧 목적지라는 뜻과 통한다. 또는 “밤길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날이 밝으면 반드시 도착해 있어야 한다”라는 당위적 해석도 가능하다.

있다.)

投子因趙州問，“大死底人，却活時，如何？”師云，“不許夜行，投明須到。”州云，“將謂胡須赤，更有赤須胡。”〈傳燈云，“我早候白，伊更候黑。”〉

[설화]

『벽암록』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 “구멍 없는 피리가 천으로 만든 박판(拍板)을 만난 것과 같다.⁴⁾ 이런 경우를 가리켜 ‘주인을 시험하는 물음[驗主問]’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물음[心行問]’이라고도 한다. 투자와 조주로 말할 거 같으면, 제방에서 모두들 한결같이 출중한 변재를 갖추었다고 찬미해 마지않는 분들이다. 두 분의 스승은 같지 않지만 그 기봉을 보면 서로 딱 들어맞아 똑같다.”⁵⁾

조주가 ‘완전히 죽은 사람’에 대해 묻고 투자가 ‘밤길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지만 ~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살펴보면, 마치 부시돌을 쳐서 불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번갯불이 번쩍 이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재빠르게 호응했으니, 저들처럼 본분으로 향상한 사람들이라야 가능한 일이다.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는 불법(佛法)의 도리가 현묘하다는

3) 『傳燈錄』 권15 大51 p.319a14에는 ‘候’가 ‘候’로 되어 있으나, 『五燈會元』 권5 「投子大同章」 卍138 p.189a15 등의 전등사서와 이 문답이 수록된 공안집에는 ‘候’로 되어 있고, 이것이 의미상 적절하다. ‘달마의 수염’이라는 조주의 말은 본서 이외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다.

4) 무공적(無孔笛)과 전박판(檀拍板), 두 가지 모두 소리가 나지 않는다. 투자가 소리 나지 않는 피리를 불자 조주도 소리 나지 않는 박자판을 두드려 응했다. 의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본분의 입장을 견지하며 조금도 언어의 방편을 허용하지 않는 기봉(機鋒)으로 마주쳤던 것이다.

5) 『碧巖錄』 41則 「評唱」 大48 p.178c21.

생각도, 득실·시비·장단의 어떤 분별도 없으니, 이 경지에서는 단지 이렇게 분별을 그치면 될 뿐이다. 옛사람이 “아무 일 없는 평지에서 죽은 사람은 무수히 많지만, 가시덤불을 지날 수 있어야 뛰어난 솜씨이다”⁶⁾라고 하였으니, 모름지기 저편으로 뚫고 나아가야 한다.

『벽암록』에 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다.⁷⁾ 투자가 하루는 조주를 청하여 다연(茶筵)의 자리를 베풀고 마주하였다. 투자가 찢 호떡을 조주에게 손수 건넸으나 조주는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이번엔 시자를 시켜 조주에게 호떡을 주었더니 조주가 시자에게 예를 갖추고 삼배를 올렸다. 말해 보라! 그의 본의는 무엇일까? 조주의 평상시 언행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다 근본에 따라서 문제를 들어 보였으니, 이것이 바로 본분사로 학인을 대한다는 그것이다.

碧巖云, “無孔笛撞着甌拍板. 此謂之驗主問, 亦謂之心行問. 投子趙州, 諸方皆美之得逸羣之辯. 二者, 雖承嗣不同, 看他機鋒, 相投一般云云.” 看趙州問大死地人云云, 他便道不許夜行云云, 直下如擊石火, 似閃電光, 還他向上人, 始得. 大死地人, 都無佛法道理玄妙, 得失是非長短, 到這裏, 只恁麼休去. 古人謂之平地上死人無數, 過得荊棘林, 是好手也. 須透得那邊, 始得. 投子, 一日爲趙州, 置茶筵相待. 自過饑作與州, 州不管. 投子令侍者, 過餠餅與州, 州禮行者三拜. 且道! 他意卽是如何? 看他, 盡是向根本上提持, 此是本分事爲人也.

6) 운문문언(雲門文偃)의 말이다. 『雲門廣錄』 권중 大47 p.554b22.

7) 위의 『碧巖錄』 인용에 이어지는 단락이다.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살아 있으면서 안목을 갖추고 있는데 죽은 것과 같으니,
약 복용할 때 피할 음식⁸⁾으로 어찌 작가를 감별하는가?
옛 부처도 도달한 적이 없다 말하였거늘,
누가 모래를 뿌릴 줄 아는지 모르겠노라!⁹⁾

雪竇顯頌, “活中有眼還同死, 藥忌何須鑒作家? 古佛尚言曾未到, 不知誰解撒塵沙!”

[설화]

『벽암록』에 실려 있다.

雪竇：見碧巖集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개성집석 세월 동안 공겁의 시초를 묘하게 궁구하면,
살아 있는 눈의 중심 기틀이 드넓은 허공을 비추리라.
밤길 가는 것 허용치 않으나 날 밝으면 도착하리라고 하니,¹⁰⁾

8) 약기(藥忌). 본서 65則 주석14) 참조.

9) ‘모래를 뿌린다’는 말은 모든 언행을 가리킨다. 그것이 아무리 본분에 부합한다고 해도 상대의 눈을 멀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원오극근(圓悟克勤)은 『碧巖錄』 41則 「頌 評唱」 大48 p.179b8에서 이에 대하여 “천하의 노화상들이 선상을 차지하고 앉아 방(棒)을 휘두르거나 할(喝)을 내지르고, 불자를 곳곳이 세우거나 선상을 치면서 신통을 나타내고 범문의 중심 역할을 하려는 것이 모두 모래를 뿌리는 것이다.”(天下老和尚, 據曲桑木床上, 行棒行喝, 豎拂敲床, 現神通作主宰, 盡是撒沙.)라고 평가했다.

집안 소식을 물고기 배 속¹¹⁾에 넣어 붙이지 않으려 하누나.¹²⁾

天童覺頌, “芥城劫石妙窮初, 活眼環中炤廓虛. 不許夜行投曉到, 家音未肯付鴻魚.”

[설화]

개성겁석(芥城劫石)이란 어떤 뜻인가? 그 겁의 시간이 1유순¹³⁾ 되는 성에 개자씨를 가득 채우고 백 년마다 한 알씩 꺼내어 그 성을 텅 비워도 겁이 끝나지 않는 것이 ‘개성’이고, 또한 사방 40리 되는 돌을 천인이 6수(銖)밖에 되지 않는 가볍고 얇은 천의를 입고서 백 년마다 한 번씩 내려와 그 돌을 스쳐 돌이 닳아 없어져도 겁이 끝나지 않는 것이 ‘겁석’이다. 한편, 대겁이라 하면 1120유순의 성에 개자씨를 채우고 비우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1120리 크기의 돌을 닳게 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기도 한다.

10) 이 구절에 대해 『直註天童頌古』 권2 「著語」 卍117 p.799b9에 “고위(孤危)가 되었건 평실(平實)이 되었건 모두 밤길을 가는 것이니, 이 두 측면을 벗어나야 비로소 온전히 밝은 낮이다.”(孤危平實, 總是夜行, 出過二邊, 始是大明.)라 평한 글이 있다.

11) 서신(書信)을 어신(魚信) 또는 어서(魚書)라 한다. “먼 곳에서 온 나그네가 나에게 잉어 한 쌍을 남기고 갔다. 종을 시켜 잉어를 삶는데 그 안에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樂府詩集』 「相和歌辭十三」·「飲馬長城窟行之一」. 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

12) 이 구절에 대해 『直註天童頌古』 권2 「著語」 卍117 p.779b10에 “투자에게는 집안 소식을 전할 방법이 다행히 있었으니 마치 문희와 소무가 (기러기를 수단으로) 편지를 전한 것과 같았다. 조주가 투자의 현묘한 작용을 터득한 것은 마치 기러기와 물고기를 얻어서 비로소 분명하고 상세한 소식을 알게 된 것과 같다.”(投子家音幸有分付, 如文姬蘇武之書傳; 趙州得見投子玄用, 如得鴻魚方知的細.)라 평한 글이 있다.

13) 由旬. ㉔yojana의 음사어. 거리의 단위. 소가 명예를 걸치고 하루 갈 수 있는 거리. 또는 제왕이 하루 행군하는 거리를 말한다.

芥城劫石者? 若論劫量, 一由旬城滿芥子, 百年取一芥, 而盡劫未盡, 又四十里石, 諸天人以六銖衣, 百年一來拂石, 而盡劫未盡也. 又大劫, 一千一百二十由旬之城芥爲量, 一千一百二十里之廣石爲量也.

장령수탁(長靈守卓)의 송¹⁴⁾

허공에서 태어난 무쇠소여!
분명히 솟은 뿔 대단하구나.
맑은 연못 깊은 곳에 잠긴 달 밟고서,
밤 끝자락에 눈 속으로 끌고 돌아가네.

長靈卓頌, “虛空産出鐵牛兒! 頭角分明也大奇. 踏破澄潭深處月, 夜闌牽向雪中歸.”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¹⁵⁾

벼와 기장에는 아름다운 멧 없다고,
다투어 복숭아와 자두 심는 봄이라.
애써 밭 갈던 이들의 마음 뒤집어,
반이나 꽃 파는 사람이 되어버렸네.

14) 허공에서 태어난 무쇠소와 연못의 달그림자를 밟고 눈 속으로 무쇠소를 끌고 돌아가는 것, 이 두 풍경이 모두 조짐 이전의 소식을 나타내기 위한 허설(虛設)이다. 동틀 무렵의 밤 끝자락에 밟고 흰 눈이 내린 장소는 날이 밝아서 도달해야 할 바로 그 목적지이다.

15) 두 선사의 문답에 숨은 실(實)을 보지 못하고 화려하게 드러난 말[花]에 현혹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읊은 송이다.

雲門杲頌, “禾黍不陽艷, 競栽桃李春. 翻令力耕者, 半作賣花人.”

죽암사규(竹菴士珪)의 송¹⁶⁾

완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소식을 물었는데,
밤길은 허용치 않으나 날 밝으면 도착하리라 하네.
진주 사람이 허주의 관문에서 나오고,¹⁷⁾
팔십 노인이 다시 어린아이가 되었네.¹⁸⁾

竹庵珪頌, “大死底人還却活, 不許夜行投明到. 陳州人出許州門, 翁翁八十重年少.”

육왕개심(育王介諶)의 송¹⁹⁾

한나라 제후는 변장하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오랑캐 수장은 진영 안으로 잠입해 들어왔네.
한밤중에 서로 만났으니 다만 웃어넘길 뿐,
깃발 뽑아내고 북 빼앗아도 모두 허튼 일이라네.

育王諶頌, “漢侯微服行營外, 虜主潛蹤入帳中. 夜半相逢唯一

16) 1구와 4구, 2구와 3구가 각각 호응한다.

17) 진주 사람이 날이 밝자마자 허주라는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말이다.

18) 죽음의 극치에서 다시 태어나는 소식을 나타낸다.

19) 투자와 조주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적절히 대응한 수단을 각자의 진영에 침투하여 한편에서는 적의 깃발을 뽑아내고 다른 한편에서는 북을 빼앗는 것에 비유했다.

笑, 褔旗褔鼓揔無功.”

[설화]

건기(褔旗)에서의 건은 구와 런을 반절한 음이다. 두 손으로 뽑는다는 뜻이다.

育王：褔旗者，九輦切，兩手拔取也.

심문담분(心聞曇賁)의 송

강남으로 새북²⁰⁾으로 삼천 리 길을,
까닭도 없이 발바닥 닳도록 달리네.
오로지 동쪽에서만 소식을 물을 줄 알 뿐,
그가 벌써부터 서쪽에 있는 줄은 모르는구나.

心聞賁頌, “江南塞北路三千, 脚底無端走得穿. 只向東邊問消息, 不知人己²¹⁾在西邊.”

열재거사의 송

나는 낮을 기다리고 그대는 밤을 기다리지만,
여뀌꽃은 붉고 갈대꽃은 희다네.
저녁놀과 한 마리 기러기는 나란히 날아가고,
가을 강물은 높고 푸른 하늘과 한 빛깔이로다.²²⁾

20) 塞北. 만리장성 이북. 또는 중국의 북쪽 지방을 널리 이르는 말. 이 경우 강남(江南)과 대칭되는 북쪽 지방 일대를 가리킨다.

21) ‘己’는 ‘已’로 바로잡는다.

悅齋居士頌, “我候白伊候黑, 蓼花紅蘆花白. 落霞孤鶩齊飛,
秋水長天一色.”

천동정각의 소참 1

“생멸이라는 분별이 사라진 마음이 적멸이니 노주(露柱)²³⁾가 아이를 잉태한 시절이요, 적멸이라는 분별을 일으킨 마음이 바로 생멸이니 석녀가 아기를 낳고 말을 할 줄 안다. 움직일 때에도 온갖 종류의 형상이 넘치거나 남아돌지 않으며, 쉬는 순간에도 하나의 진실조차 비거나 모자라지 않는다. 나무가 쓰러지면 따라서 말라비틀어져버리는 등나무²⁴⁾에 대해 묻자 꺾꺾대고 웃으니, 예전 그 모습 그대로의 맑은 바람과 맑은 달이로다.” ‘조주가 투자에게 묻자 ~ 날이 밝으면 틀림없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한 공안을 제기하고²⁵⁾ 말하였다. “훌륭한 법형제들이여! 문으로 들어오지

22) 왕발(王勃)의 「滕王閣序」에 나오는 구절. 조주와 투자가 달리 말했지만, 저녁놀과 기러기 그리고 강물과 하늘이 하나의 풍경으로 어울리듯이 어긋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23) 본서 250則 주석14) 참조.

24) 등고수도(藤枯樹倒). 나무가 쓰러지면 그에 의지하여 붙어살던 등나무도 말라 죽는다는 말. 수도등고(樹倒藤枯)라고도 쓴다. “나무가 쓰러지면 따라서 말라비틀어져버리는 등나무에 대해 위산에게 묻자〈겉다가 물길에 끝나는 곳에 이르면, 바로 그때 앉아서 구름이 이는 모습을 보리라〉, 꺾꺾대고 크게 웃으니 어찌 태평하기만 한 웃음이겠는가〈위험하다, 희롱한다고 여기는구나〉! 웃음 속에 칼을 숨기고 있음을 간파하고 나니〈특별한 것이 있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아니군〉, 말로 표현하고 생각으로 헤아릴 길도 없고 시험의 기틀도 전혀 없도다〈4천 리 밖에서부터 나를 속였구나〉.”(『從容錄』 87則 大48 p.284a9. 藤枯樹倒問滄山〈行到水窮處, 坐看雲起時〉, 大笑呵呵豈等閑〈險, 作相弄會〉! 笑裏有刀窺得破〈將謂別有〉, 言思無路絕機關〈四千里地賺我來〉.)

25) 기득(記得). 일정한 공안을 제기할 때 기록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 공안 앞에

도 나가지도 않으며, 높디높은 산꼭대기에 서서 저와 같이 몸을 드러내고, 깊디깊은 바다 밑을 걸어가도 자취를 숨기지 않는다. 장승이 도장을 쥐고 있으나 당장에 도장에 새긴 무늬는 나타나지 않았고, 옥으로 만든 여자가 북을 넣으나 곧바로 베틀의 실은 걸리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때에는 어떻게 변화에 응하며 움직여야 할까? 알겠는가? 어두컴컴한 곳에서 한 발자국 떼면 여섯 개의 문²⁶⁾이 밝아지고 끝없이 펼쳐진 풍경에 세상은 온통 봄이리라.”

天童覺，小叅云，“生滅心盡是寂滅，露柱懷胎底時節，寂滅心起是生滅，石女生兒解言說。用時萬像不盈餘，休處一真無空缺。藤枯樹倒笑呵呵，依舊清風與明月。”記得‘趙州問投子，至投明須到’，師云，“好兄弟！不入門不出戶，高高山頂立那現身，深深海底行不匿景。木人握印，當風文彩未形，玉女攬梭，直下機絲不掛。正當伊麼時，又合如何變弄？還會麼？密移一步六門曉，無限風光大地春。”

[설화]

‘저와 같이 몸을 드러내고’에서의 몸은 곧 본신을 가리키며, ‘걸어가도 자취를 숨기지 않는다’고 한 데서의 자취는 곧 발자취이다.

天童：立那現身，身則本身也，行不匿迹，迹則蹤跡字也。

천동정각의 소참 2

‘조주가 투자에게 묻자 ~ 날이 밝으면 틀림없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擧’라 붙이고, 제기하는 자가 직접 언급할 경우는 기득이라 한다.

26) 육문(六門). 안(眼)·이(耳)·비(鼻)·설(舌)·신(身)·의(意) 등의 6근(根).

라는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만약 바로 그때 알아챘다면 곧 ‘밝은 그 자리에 어둠이 있는 것이니 어둠을 기다려 어둠을 만나려 하지 말고, 어두운 그 자리에 밝음이 있는 것이니 밝음을 기다려 밝음을 만나려 하지 마라’²⁷⁾고 한 뜻을 알 수 있으리라. 일체의 법이 소진된 바로 그때 분명하게 항상 있고 일체의 법이 생성되는 바로 그때 텅 빈 채 항상 고요하니,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이치를 알아야 할 것이다.”

又小叅，舉趙州問投子，至投明須到，師云，“若个時識得，便知道當明中有暗，勿以暗相遇，當暗中有明，勿以明相觀。一切法盡處，个時了了常在，一切法生時，个時空空常寂，須知道死中活活中死。”

[설화]

죽음 가운데 삶이 있고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고 한 까닭은 밝음 속에 어둠이 있고 어둠 속에 밝음이 있기 때문이다.

又小叅：死中活活中死，明中暗暗中明故也.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염

“초나라인가 했더니, 양주(楊州)인 듯도 하네.”

竹庵珪拈，“依稀楚國，髣髴楊州.”

27) 「南嶽石頭和尚參同契」에 나오는 구절을 활용한 말. 『景德傳燈錄』 권30 大51 p.459b15.



776칙 覆盆作舞 복분작무



776칙 복분작무 覆盆作舞¹⁾

[본칙]

복분암주²⁾가 어느 날 암자 앞에 서 있는데, 어떤 학인이 찾아와 춤을 추다가³⁾ 돌아서 갔다. 복분이 주장자를 잡고서 곧 쫓아가 붙드니, 그 학인은 창 겨누는 자세를 취하였고, 복분도 창을 들고 대결하는 흉내를 냈다.⁴⁾ 학인이 본래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니 복분은 주장자를 내던지

-
- 1)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며 상대를 점검하는 선기(禪機)를 보여주는 공안.
 - 2) 覆盆庵主. 임제의현(臨濟義玄)의 법을 이은 선사.
 - 3) 작무(作舞). 몸을 움직여 춤을 춤으로써 감정이나 상황 등을 표현하는 선적(禪的) 행위.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재한 경지 또는 선기(禪機) 등을 나타낼 때 격(格)을 넘어서 행위로써 춤을 추는 동작을 보인 선사들의 예가 적지 않게 있다. 공양 때마다 밥통을 들고 승당으로 가 춤을 추며 ‘공양하시오’라고 하였던 금우화상(金牛和尚)의 일화(『景德傳燈錄』 권8 大51 p.261b17), 또 역시 공양 때마다 밥통을 들고 승당 앞에서 춤을 추었던 대광거회(大光居誨 837~903)의 일화(『禪門拈頌說話』 281則 韓5, p.255c4)가 그 대표적 예이다. “대광이 춤을 춘 것은 펼치고 거두는 작용을 자유자재로 한 것이다.”(『禪門拈頌說話』 281則 〈설화〉 韓5 p.256c1, 光作舞者, 舒卷自在也.)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금우와 대광의 춤은 모두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본분을 펼쳐 보인 격외(格外)의 행위에 속한다.
 - 4) 이와 같이 주장자나 몽둥이를 창으로 삼아 들고 대결하는 자세를 취하고서 서로의 기를 내보인 예는 동봉암주(桐峯庵主)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인이 동봉암주를 보자마자 할을 하니, 동봉이 ‘사람을 몹시도 놀라게 하는구나’라

고 “나를 몹시 속이는구나!”라고 말한 다음 암자 안으로 돌아갔다.

覆盆庵主，一日，在庵前立，有僧上來，便作舞而去。師拈棒
便趲捉，其僧作亞槍勢，師亦作亞槍立。僧便歸本位，師擲
下棒云，“賺殺人!”便歸庵內。

[설화]

‘어떤 학인이 찾아와 춤을 추다가’라고 운운한 말은 한편에서는 거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펼치는 선기를 발휘하며 서로 마주한 모습을 나타낸다.
‘암자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모든 성인의 경지를 넘어서 어떤 조짐도 드
러나기 이전의 경계에 우뚝 홀로 서 있는 것을 묘사한다. ‘복분이 주장자
를 잡고서 곧 쫓아가 붙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만났으니 한번 대적해 보
겠느냐?’는 뜻이다. ‘그 학인이 창 겨누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각자 자
신의 근본 입장을 확고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마지막 두 구절은 본래 실
(實)한 뜻이 아니었음⁵⁾을 나타낸다.

有僧上來云云者，左卷右舒相見也。庵前立者，卓居千聖外，特
立萬機前也。師拈棒趲捉者，伊麼相見還當也無。僧作亞至槍
立者，各固其宗。下二節，本非實意也。

고 하였다. 학인이 ‘호랑이라도 된단 말입니까?’라고 하자 동봉이 곧장 활을 하
였고 학인은 달아났다. 동봉이 주장자를 들고서 쫓아가니 학인이 창을 겨누는
자세를 취했고 동봉은 주장자를 잡고서 곧추세웠다. 학인이 ‘제가 졌습니다’라
고 하니, ‘스무 방을 맞을 잘못을 하였으나 용서해 주리라’라고 하였다.”(『天聖廣
燈錄』 권13 卍135 p.719a6. 僧見庵主便喝，師云，‘驚殺人。’僧云，‘大蟲耶?’師便喝，僧便
走。師將棒趲，僧作亞槍勢，師拈棒而立。僧云，‘敗也。’師云，‘放爾二十。’)

- 5) ‘나를 몹시 속이는구나!’라고 말한 다음 암자 안으로 돌아간 것을 말한다. 서로
점검하기 위한 시험의 기틀을 간파하고 양측 모두 속지 않은 사실을 말한다.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악한 마음으로 찾아오니 악하게 맞이했고,
창끝을 들이대니 번득이는 눈빛이 시퍼렇구나.⁶⁾
초나라 노랫소리 들려오자 진영을 칠수했고,⁷⁾
동이 뒤집어쓰고 돌아가는 길이 온통 캄캄하구나.

大覺璉頌, “惡來相訪惡相看, 亞却鋒鋦爍眼寒. 唱起楚歌休陣了, 覆盆歸去黑漫漫.”

[설화]

앞의 두 구절은 손님과 주인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뜻이다. 세 번째 구절은 학인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선 것을 나타낸다. 네 번째 구절은 ‘주장자를 내던지고’ 이하의 내용에 대하여 읊은 것이다.

大覺：上二句，賓主皆無優劣也. 三句，僧歸本位立也. 四句，擲下棒云云也.

-
- 6) 상대의 수단을 그대로 사용해서 대응하는 선사들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선가에 서는 이를 가리켜 ‘도둑의 말을 타고서 도둑을 쫓는다(騎賊馬趁賊)’, ‘모두 놓아 주기도 하고 모두 거두어들이기도 한다(雙放雙收)’, ‘상대의 착각을 가지고 착각으로써 대한다(將錯就錯)’고 표현한다.
- 7) 사면초가(四面楚歌). 적으로 둘러싸인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상태. 즉,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초(楚)나라 항우(項羽)가 한(漢)나라의 유방(劉邦)에게 패하여 해하(垓下)에서 포위되었을 때 사방을 둘러싼 한나라 군사 쪽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랫소리를 듣고 초나라 군사들이 이미 패한 줄 알고서 놀라고 슬퍼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史記』「項羽本記」 참조.



780칙 雪峰宗乘 설봉종승



780칙 설봉종승 雪峰宗乘

[본칙]

북주 설봉산의 의존선사가 덕산에게 물었다.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근본적인 가르침¹⁾을 추구하는 일²⁾에 대한 능력이 저에게도 있습니까?” 덕산이 한 대 때리면서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설봉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다음 날 다시 가르침을 청하자 덕산이 말했다. “우리 선종에는 어떤 언어의 구절도 없고, 진실로 남에게 전해 줄 법이라곤 하나도 없다.” 설봉이 이 말을 듣고 깨우친 것이 있었다. 훗날 어떤 학인이 설봉에게 물었다. “화상께서는 덕산을 만나고 무엇을 터득하여 번뇌망상을 쉬었습니까?” “나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福州，雪峯山，義存禪師，問德山，“從上宗乘中事，學人還有分也無？”山打一棒云，“道什麼？”師不會，至明日請益，山云，“我宗無語句，實無一法與人。”師因此有省。後有僧問師，“和尚見德山，得个什麼，便休去？”師云，“我空手去空手歸。”

1) 종승(宗乘). 달마 이래로 이어져 온 선종의 근본 취지. 선(禪)의 궁극적 경지로 실어 나르는[乘] 종지를 가리킨다.

2) 본분사(本分事)와 같은 뜻.

[설화]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근본적인 가르침 : 앞서 풀이한 뜻과 같다.

한 대 때리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한 말 : 한 자루 생짜의 몽둥이³⁾를 말한다.

우리 선종에는 어떤 언어의 구절도 없고 ~ 하나도 없다 : 스승이 전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 나 또한 얻은 것이 없었다.

從上宗乘, 已如前釋. 打一棒云道什麼者, 一條白棒也. 我宗無語句云云者, 非師相授與也. 我空手去云云者, 我亦無所得也.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이 병⁴⁾ 불러들인 뒤 수많은 시간 동안,
의사 찾아 까닭 묻고 많은 스승 만났네.
질게 달여 한 번 먹고 온몸에 퍼지니,⁵⁾
사지 전체에 피와 땀 비 오듯 흐른다.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구절부터 ‘이 말을 듣고 깨우친 것이

3) 일조백방(一條白棒). 본서 672則 주석2)·3) 참조.

4) 설봉이 깨우치기 이전에 미혹된 상황을 비유한다. 스승을 찾아다니며 도를 물었던 꼴이 마치 병이 들어 의사와 약을 찾는 격이었기 때문이다.

5) 온몸에 사무치게 느껴졌던 덕산의 말이 치료의 묘약과 같았다는 뜻.

있었다'라는 구절까지에 대해 읊은 송)

保寧勇頌, “此疾懷來⁶⁾沒量時, 尋醫求卜過多師. 濃煎一服通
身散, 血汗零流徹四肢.” 〈頌從上宗乘下, 至因此有省.〉

심문답분(心聞曇賁)의 송

분명히 보노니 낱낱의 현상 어느 것도 없지만,⁷⁾
없다는 이 말만은 공허하지 않구나.
고개 돌려 없음도 없는 길조차 짓밟아버려야,
비로소 되돌아와 중간쯤 이르렀다 인정하리라.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구절에 대하여 읊은 계송이다.〉

心聞賁頌, “見了分明事事無, 此無且不是空虛. 廻頭踏斷無無
路, 方許歸來到半途.” 〈頌空手去空手歸.〉

[설화]

없음도 없는 길 : (전해 줄 하나의 법도) 없다는 것 또한 없다.
짓밟아버려야 : 없음까지 짓밟아버려야 한다는 뜻이다.
앞에서 ‘공허하지 않구나’라고 한 말은 없음도 없는 길을 나타낸다. 여
기서 깨우침이 있었으므로 길 중간에 이른 것과 같다.

心聞: 無無路者, 無亦無也. 踏斷者, 無亦踏斷也. 前虛空卽無
無路也. 於此有省故, 猶在半途.

6) 회래(懷來), ‘懷徠’라고도 하고 초래(招來)와 같은 말.

7) 덕산이 두 번에 걸쳐서 ‘없다’고 한 말을 나타낸 구절.

암두의 평

암두가 ‘설봉이 덕산에게 물었다’라는 구절부터 ‘이 말을 듣고 깨우친 것이 있었다’라는 구절까지 듣고 말했다. “당두노인⁸⁾의 쪽 뺨은 등골뼈는 무쇠와 같이 단단하지만 가르침을 펼치는 문 중에서 보면 여전히 조금 모자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보복이 이 말을 집어내어 초경(招慶)에게 물었다. “암두의 경우 평상시에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기에 덕산을 넘어선 듯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대는 암두가 ‘마치 활쏘기를 배운 지 오래되면 과녁을 맞히는 것과 같다’라고 한 말을 모르는가?” “맞힌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전사리!⁹⁾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화상이시여, 오늘 단지 화두를 들려주신 것만이 아니시로군요.” “사리여, 그 말의 속뜻¹⁰⁾은 무엇인가?” 그 뒤 명초가 이 문답을 전해 듣고 말했다. “대단한 초경이여! 이름과 말에서 착각을 일으켰도다.”

崑頭聞，雪峯問德山，至因此有省，師云，“堂頭老人，一條脊梁骨，硬似鐵，於唱教門中，猶較些子。”尋後，保福拈問招慶，“祇如崑頭，平生有什麼言教，過於德山，便與麼道？”慶云，“汝不見，崑頭道，‘如人學射久久中的。’”福便問，“中後如何？”慶云，“展闌梨！莫不識痛痒？”福云，“和尚，今日非唯舉

8) 堂頭老人. 한 절에서 대중을 이끄는 우두머리인 주지(住持), 당상(堂上) 또는 당두화상(堂頭和尚)이라고도 한다. ‘당두’ 자체가 그러한 뜻으로 쓰이며, 동시에 주지의 거실 곧 방장실(方丈室)을 가리키기도 한다.

9) 展闌梨. ‘전’은 보복(保福)의 범명인 종전(從展)을 가리키며, ‘사리’는 아사리(阿闍梨)의 줄임말이다. 이곳과 같이 선문헌에서 ‘사리’는 제자에 대한 경칭(敬稱)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아사리(Śācārya, Ācāriya)는 학인들의 모범이 되어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궤범사(軌範師)·도사(導師) 등이라 한역한다.

10) 심행(心行). 마음의 기미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그 속뜻은 드러나지 않은 것.

話。”慶云，“閨梨，是什麼心行？”後明招聞舉云，“大小招慶！錯下名言。”

[설화]

초경의 생각은 암두의 의중을 복돋아 드러냈고, 명초는 덕산의 의중을 복돋아 드러낸 것이라는 뜻이다. 덕산이 이렇게 한 말은 하나는 얻었지만 다른 하나는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巖頭：招慶意，扶現巖頭，明招則扶現德山．德山伊麼道，一則得，一則不得也．

단하지순(丹霞子淳)의 거

‘우리 선종에는 어떤 언어의 구절도 없고, 진실로 남에게 전해 줄 법이 라곤 하나도 없다’라고 한 덕산의 말을 제기하고 말했다. “덕산이 이렇게 한 말은 ‘단지 우거진 풀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할 줄만 알았지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은 몰랐다’고 할 만하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하나의 눈만 갖춘 것에 불과했다.¹¹⁾ 만일 나였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선종에는 언어의 구절이 있는데, 칼로 자르려 해도 쪼개지지 않는다.¹²⁾ 대단히 깊고 아득하고 미묘한 뜻이 있으니, 아리따운 여인이 밤중에 아기를 배었노라.¹³⁾”

11) 덕산은 언어의 구절이 ‘없다’는 측면만 말하여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는 눈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12) 날카로운 분별의 수단을 사용해도 그 뜻이 드러나지 않는 칠벽과 같은 화두를 나타낸다. 선종에서 제기되는 모든 언어의 본질을 나타낸다.

13) 분별할 수 없는 언어의 구절을 비유적으로 제시했다. 깊고 아득하고 미묘한 뜻

丹霞淳, 舉德山云, ‘我宗無語句, 亦無一法與人.’ 師云, “德山恁麼說話, 可謂只知入草求人, 不覺通身泥水. 子細觀來, 只具一隻眼. 若是丹霞, 則不然. 我宗有語句, 金刀剪不開. 深深玄妙旨, 玉女夜懷胎.”

[설화]

우리의 선종에는 언어의 구절이 있는데 ~ 아리따운 여인이 밤중에 아기를 배었노라 : 말이 없는 그 자리에 말이 있다는 뜻이며, 또한 ‘언어의 구절이 없다’는 말에 이치가 들어 있음을 나타낸다.

丹霞：我宗有語句，至夜懷胎者，無語中有語也，亦有無語句之義也.

오조법연(五祖法演)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나는 오늘 아직 이 공안을 뚫지 못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동경(東京 : 洛陽)에서 온 두 사람에게 ‘어디서 왔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이 ‘소주(蘇州)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그들에게 ‘소주의 일은 어떠합니까?’라고 묻자 ‘모든 것이 보통 그대로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비록 이렇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나를 속이지는 못 했다. 왜 그런가? 단지 동경과 소주의 말소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¹⁴⁾

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형상을 알 수 없는 배 속의 아기와 같다는 뜻에서 비유적으로 한 말이다.

- 14) 소주에서 왔다고 대답은 했지만 동경의 말투였기 때문에 동경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다. 겉으로 한 말과 진실이 다른 경우처럼 덕산과 설봉의 말에 속아서는 안 되고 그 말에 숨은 뜻을 읽어야 한다는 비유이다.

궁극적인 뜻은 어떤 것일까? 소주의 마름꽃이요, 소백의 연뿌리로다.”

白雲演，上堂，舉此話云，“白雲今日，說向透未過者。有兩個人，從東京來，問，‘伊什麼處來？’他却道，‘蘇州來。’便問伊，‘蘇州事，如何？’伊道，‘一切尋常。’雖然如是，謾白雲不過。何故？只爲語音各別。畢竟如何？蘇州菱，邵伯藕。”

[설화]

백운이 ‘두 사람’이라 한 것은 덕산과 설봉을 비유한 말이다. 그 아래에서 한 말들은 덕산이 그렇게 말했고 설봉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하지만, 득과 실을 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¹⁵⁾ 두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렇게 (드러난 이야기대로) 받아들이고 마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여 백운이 그렇게 말한 것이다.

소주의 마름꽃이요, 소백의 연뿌리로다 :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없다. 아마도 ‘비록 소주에서 왔다고 말은 하지만 소주의 일을 모른다’¹⁶⁾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소’는 ‘시’와 ‘조’를 반절한 음이며, 사람의 성씨¹⁷⁾이다. 소백우는 연못 이름이다.

白雲：有兩箇人者，喻德山雪峯也。下云云，德山伊麼道，雪峯伊麼悟去，得失難定也。恐有人不會兩家意，只伊麼去故，伊麼道。蘇州菱邵伯藕者，未詳。意謂雖道蘇州來，不知蘇州事也。邵，市照切，人姓也。邵伯藕，池名也。

15) 덕산과 설봉이 말한 것과 깨달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표면적인 이야기 그대로를 수용하여 뜻을 확정할 수 없다는 말.

16) 소주는 마름꽃이 피기로 유명하고 그곳에 있는 소백이라는 연못은 연뿌리로 잘 알려져 있는데, 소주에서 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는 뜻으로 해설했다.

17) 주(周)나라 문왕(文王)의 아들인 소공석(邵公奭)의 후손들 성씨이다.



782칙 雪峯解脫 설봉해탈



782칙 설봉해탈 雪峯解脫

[본칙]

설봉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시방세계 전체가 곧 해탈문인데 손을 잡고 끌어도 들어오려 하지 않는구나.” 그때 한 학인이 나아와 말했다. “화상께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의심하시는군요.” 또 다른 학인 하나가 “들어간들 무엇 하겠습니까!”라고 하자 설봉이 바로 때렸다.

雪峯, 示衆云, “盡十方世界, 是解脫門, 把手拽伊, 不肯入.”
時, 一僧出云, “和尚, 怪某甲不得.” 一僧云, “用入作什麼!” 師便打.

[설화]

시방세계 전체가 ~ 들어오려 하지 않는구나 : ‘시방세계 전체가 한 알의 밝은 구슬¹⁾이다’라는 말과 같다.

‘화상께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의심하시는군요’라고 한 것은 이미

1) 명주(明珠). 마니(摩尼 𑖀𑖃maṇi)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한 것 중 하나. 특히 밝은 달과 같은 빛을 가진 마니를 가리킨다. 명월주(明月珠), 명월마니(明月摩尼) 등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둥글고 원만하여 어떤 결함도 없으며, 겉과 속의 구별이 없이 영롱하기 때문에, 불성·정법·진여·청정한 계율·대승경전 등에 비유된다.

들어와 있다는 말이고, ‘들어간들 무엇 하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니, 이 두 학인 사이에는 금시와 본분²⁾의 차이가 있다.

설봉이 바로 때렸다: 엄정한 법령을 반드시 시행한다는 뜻이다. 나중에 말한 학인뿐만 아니라 먼저 말했던 학인도 마땅히 맞았어야 한다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화상께서는 제가 들어갈 수 없다고 의심하시는군요’라고 한 학인은 설봉의 뜻과 같았기 때문에 때리지 않은 것이고, ‘들어간들 무엇 하겠습니까’라고 한 학인은 설봉을 수궁하지도 않았고 설봉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때린 것이다. 설봉이 만일 (두 번째로 말한) 학인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한평생 굴욕을 당했을 것이다. 말해 보라, 설봉의 뜻은 무엇인가?

盡十方世界云云者，如云盡十方世界，是一顆明珠也。和尚怪某甲不得者，早已入也；用入作什麼者，不入也。此兩僧，是今時本分也。便打者，正令當行。非但此僧，前頭僧，也須被打耶？不然。怪某甲不得者，與和尚意一般故，不打也；用入作什麼者，不肯雪峯，却不會雪峯意故，便打。雪峯，若不得這僧，一生受屈。且道，雪峯意作麼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엄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구제받았다. 만약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평지에 몇 사람이나 남아 있을 것인가.”

2) 금시와 본분에 대해서는 본서 165則 주석2) 참조.

雪竇顯拈, “三箇中, 有一人受救在. 忽若摠不辨明, 平地上有甚數.”

[설화]

한 사람만 구제받았다 : 설봉에게 맞은 학인을 가리킨다.

만약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 남아 있을 것인가 : 만약 분명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설봉도 아주 잘못이 없지는 않다는 말이다.

雪竇 : 一人受救者, 後頭被打僧也. 忽若云云者, 若不辨明, 雪峯, 亦不得無過也.

운거요원(雲居了元)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대단하신 설봉이여, 알고도 고의로 범하였구나. 이 일을 점검해 낼 자가 있다면 두 학인을 구제하여 밥통 옆에서 굶어 죽는 꼴³⁾은 면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
- 3) 설봉의 말을 활용하여 해설한 것이다. ‘설봉이 ‘밥 짓는 통 옆에 앉아서 굶어죽은 사람이요, 강가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과 같구나’라 한 말과 현사가 ‘밥통 속에 앉아 굶어죽은 사람이요, 물속에 머리를 담그고 목이 말라 죽은 사람이다’라 한 말을 제기하고 운문이 말하였다. ‘온몸이 밥이요, 온몸이 물이다.’”(『雲門廣錄』 권 중 大47 p.556c29. 學雪峯云, ‘飯籬邊坐餓死人, 臨河渴死漢.’ 玄沙云, ‘飯籬裏坐餓死漢, 水裏沒頭浸渴死漢.’ 師云, ‘通身是飯, 通身是水.’); “근세에는 모두 ‘도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비유하자면 밥 짓는 통 주변에 앉아 아무리 밥에 대하여 말을 하여도 끝내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직접 밥을 먹지 않기 때문이니, 진실로 증득한 자에게는 먹는 주체와 먹는 대상으로서의 밥 사이에 전혀 차 별이 없다. 별도로 깊은 도리가 있는 것은 아니며, 평상시에 매일 씹먹는 그 자체 일 뿐이다.”(『佛眼語錄』 고존숙어록34 卍118 p.603a11. 近世皆曰, ‘無不是道.’ 譬如飯籬邊坐說食, 終不能飽, 爲不親下口也, 證者絕能所也. 非別有玄理在, 尋常日用處.)

雲居元，上堂，舉此話云，“大小雪峯，知而故犯。有人檢點得出，救取兩僧，免見飯籬裏飽⁴⁾死。”

[설화]

알고도 고의로 범하였구나 :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이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나 빠져나갈 길은 있었다는 뜻이다.

이 일을 점검해 낼 자가 있다면 ~ 면하게 해 주었을 것이다 : 설봉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해탈문 안에서 조금도 운신할 수 없었으리라는 뜻이다.

雲居：知而故犯者，傍若無人也，有出身之路也。救取云云者，若不會雪峯意，解脫門裏，動誕不得也。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엄

“남의 쌀 한 말을 탐내다가 반년 먹을 식량을 잃어버렸다.”⁵⁾

海印信拈，“貪他一斗米，損却半年糧。”

[설화]

두 번째 학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海印：謂後頭僧也。

4) ‘飽’는 ‘餓’의 오식.

5) ‘남의 좁쌀 한 톨을 탐내다가 반년 먹을 식량을 잃어버렸다’(貪他一粒粟，失卻半年糧.)，‘남의 술 한 잔을 탐내다가 물고기 가득한 배를 잃어버렸다’(貪他一盞酒，失却滿船魚.)라는 등으로도 표현된 예도 있다.

천령허조(天寧虛照)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저 늙은이가 쓸데없이 허다한 기운을 써서 무엇 하려는 것인가?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니, ‘뻑뻑하게 우뚝 솟은 뜰 앞의 잣나무 사이로 때마침 조각구름 떠다니네’라고 말하리라.”

天寧照, 上堂, 舉此話云, “這老漢, 費許多氣力, 作什麼? 崇寧則不然, 森森聳翠庭前栢, 時見斷雲飛去來.”

[설화]

뻑뻑하게 우뚝 솟은 ~ 조각구름 떠다니네 : 가거나 오거나 무방하다는 뜻이다.

天寧 : 森森云云者, 不妨有去有來也.

삼계일익(雪溪日益)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그 학인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한 것은 그만두고, 설봉이 한 말이 문 밖의 말인지 문 안의 말인지 말해 보라. 두루 참구하는 안목을 갖춘 자가 있다면 한번 살펴볼 일이다. 간파해낸다면 오석령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겠지만⁶⁾ 만일 그렇지 못하다

6) 설봉의 다음 말에 기초한다. “설봉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망주정에서 그대들을 만나보았고, 오석령에서 그대들을 만나보았으며, 승당 앞에서 그대들을 만나보았다.’〈보복이 아호에게 물었다. ‘승당 앞에서 만나보았다는 것은 그만두고 망주정과 오석령에서 어떻게 서로 만나보았다는 말입니까?’ 아호는 재빠른 걸음으로 방장으로 돌아가버렸고 보복은 바로 승당으로 들어가버렸다.〉”(『雪峰語錄』 권하 卍119 p.968b12. 師示衆云, ‘望州亭與爾相見了也, 烏石嶺與爾相見了也, 僧堂前與汝相見了也.’〈保福問鶯湖, ‘僧堂前且置, 望州亭烏石嶺什麼處相見?’ 鶯湖驟步歸方丈, 保福便入僧堂.〉) 망주정이나 오석령이나 승당이나 모두 설봉산에 있는 장소일 뿐 특별한

면 3천 리 밖에서 고향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나 바라보아야 하리라.”

雪溪益, 上堂, 舉此話云, “諸仁者, 這僧不入卽且置, 你道, 雪峯, 是門外語, 門內語. 具遍叅眼底, 試定當看. 若定當得, 許你向烏石嶺相見; 苟或未明, 且向三千里外望鄉關.”

[설화]

문 밖의 말인지 문 안의 말인지 말해 보라 : 안과 밖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오석령에서 만났다 : 여기서 오석령이란 해탈문과 같은 뜻이다.

雪溪 : 是門外語云云者, 無內外也. 烏石嶺相見者, 烏石嶺, 是解脫門意同也.

승천회의 상당

“지금 당장에 알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지혜의 빛을 돌이켜 자신의 본분사를 알 일이며 남들 말에 속지 마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하루 어느 시각에나 갖가지로 행하는 행위 가운데 해탈 아닌 것이 없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하나마다 얽매이고 곳곳에서 물들지 않을 수 없어서 만물에 휘달릴 뿐 만물을 마음대로 부리지 못할 것이다. 만물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곧 여래와 같아질 것이다. 만물을 마음대로 부리고자 하는가? 어떤 곳에서나 무심하기만 하다면 이것이 곧 해탈한 상태이다. 설봉과 두 학인과의 문답을 제기해 본다. 여러분에게 묻겠으니 말해보

어떤 곳이 아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 만나볼 수 있는 데에 있다는 말이다. 이 세 곳에서 만나보았다는 것은 특정한 누가 특정한 누구를 만나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만난 것도 만나게 된 것도 없는 모든 대대(待對)가 끊어진 만남을 말한다.

라. 설봉이 그때 건곤 안에서 그들을 끌었는가, 건곤 밖에서 끌었는가? 건곤 밖에서 끌었다고 한다면 힘을 낭비했다고 할 수 있고, 건곤 안에서 끌었다면 단지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었을 뿐⁷⁾이라 하겠다. 말해 보라! 어떤 점이 이득이고 손해인가? 아무 일 없이, 와서 살핀 소식을 말해 보라.”

承天懷，上堂云，“如今莫要直下會麼？須是迴光認取自家本分事，莫受人瞞。若也認得，十二時中，種種施爲，無不解脫，若也認未得，不免頭頭繫絆，處處染着，被物所轉，不能轉物。若能轉物，卽同如來。莫要轉物麼？但於一切處無心，是爲解脫。記得，雪峯道，〈至〉不肯入。敢問諸人，且道，雪峯當時，在乾坤內拽伊，在乾坤外拽伊？若在乾坤外拽伊，也不妨費力；若在内拽伊，只是泥裏洗土塊。且道！利害在甚麼處？無事，看取上來，道箇消息。”

[설화]

설봉이 그때 건곤 안에서 그들을 끌었는가 : 문 밖에 나가서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엄청나게 힘만 낭비했다고 말한 것이다.

건곤 밖에서 끌었는가 : 비록 안에 함께 있기는 하나 그와는 다르기 때문에 ‘진흙 속에서 흙덩이를 씻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니, 안팎의 차이가 없다는 도리를 안 것이다.⁸⁾

7) 니리세토괴(泥裏洗土塊). 씻으면 씻을수록 더욱 더러워진다는 뜻에서 무익한 일, 쓸데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뜻을 알 수 없는 일 또는 수치스러움을 뜻하기도 한다. “함께 죽고 함께 살 생각으로 그대에게 비결을 알려주네.〈흙탕물 속에서 흙덩어리를 씻는다. 어떤 까닭인가? 미혹한 상태로 그대도 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碧巖錄』15則 大48 p.155b22. 同死同生爲君訣.〈泥裏洗土塊. 著甚來由? 放你不得.〉)

8) 안과 밖이 모두 불가능하다 또는 모두 옳지 않다는 도리를 알았다는 말이다.

承天云云，在乾坤外拽伊者，出門外拽入也，故費力太多。在乾坤內拽伊者，雖在內，與伊別故，如泥裏洗土塊，大意見無內外也。

육왕개심(育王介謚)의 염

“설봉이 기력을 다하여 백천만 명을 끌었다고 한들 무슨 이익이 있었겠는가! 왜 그러한가? 근심할 만한 곳에 이르러 건너지 못할 때는 어떠한가? 나는 그대들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대지 전체가 해탈문인데 손을 잡고 끌어도 나오려 하지 않는구나.’ 말해 보라, 설봉과 나와의 차이점이 얼마나 되는가?”

育王謚拈，“雪峯，用盡氣力，拽得百千萬个，有什麼益！何故？及到堪憂處，何如未濟時？廬山向你道，盡大地，是个解脫門，把手拽不肯出。且道，與雪峯相去多少？”

[설화]

설봉을 긍정하지 않은 것이니, 해탈문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해탈문 밖으로 끌어내는 것과 비교하여 어떤지에 대해 물은 말이다.

育王：不肯雪峯，拽入解脫門內，爭如拽出也。



792칙 雪峯覆船 설봉복선



792칙 설봉복선 雪峯覆船

[본칙]

설봉(雪峯)이 학인에게 물었다. “최근에 어디를 떠나왔는가?” “복선(覆船)에서 왔습니다.” “생사(生死)의 바다를 아직 건너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배를 뒤집어[覆船] 버렸는가?” 그 학인은 아무 대답을 못하고 돌아가 복선에게 설봉의 말을 들려주었다. 복선이 말했다. “왜 그에게 생사가 없다고 말하지 못했는가?” 학인이 다시 설봉에게 가서 이 말을 하자 설봉이 말했다. “이것은 그대의 말이 아닌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 복선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20방이 있으니 복선에게 전해 줄 것이고, 다른 20방은 내가 스스로 맞을 것이니, 아사리¹⁾ 그대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雪峯問僧, “近離甚處?” 云, “覆船.” 師云, “生死海未渡, 爲甚覆却船?” 其僧無語, 歸舉似覆船, 船云, “何不道渠無生死?” 僧再去, 進此語, 師云, “此不是汝語.” 僧云, “是. 覆船恁麼道.” 師云, “我有二十棒, 寄與覆船. 二十棒, 老僧自喫, 不干闍梨事.”

1) 본서 890則 주석2) 참조.

[설화]

생사의 바다를 ~ 배를 뒤집어 버렸는가 : 그의 반응을 살피려는 질문이다.

왜 그에게 생사가 없다고 말하지 못했는가 : 건널 생사의 바다가 없다는 뜻이다.

나에게 20방이 있으니 ~ 내가 스스로 맞을 것이다 : 금시(今時)는 본분(本分)을 갖추고 있고, 본분은 금시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²⁾

아사리 그대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 설봉과 복선 그 어느 입장과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다.

生死海未渡云云者, 看他支對也. 何不道渠無云云者, 無生死海可渡也. 我有二十棒云云者, 今時具本分, 本分具今時也. 闍梨事者, 兩處不干也.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

생사의 바다 건너지 못했으니,
배 뒤집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에게는 본래 생사가 없으니,
홀쩍 이번 모두 떠났다 하네.

2) 금시는 차별된 현상, 본분은 무차별의 본질을 각각 뜻한다. 금시는 금일(今日), 본분은 본래(本來)라고 하기도 한다. 본서 1則 주석31), 165則 주석2), 181則 주석10) 참조.

중천에 뜬 밝은 태양처럼 장구하니,
그 빛 비추어 설봉 앞에 이르렀네.

圓悟勤頌, “未渡生死海, 不應覆却船; 渠本無生死, 超然離二
邊. 長如杲日麗中天, 舒光照到雪峯前.”

[설화]

‘홀쩍 이번 모두 떠났다’라고 한 말에서 생사와 열반이 그 이번이다.

圓悟: 超然云云, 生死涅槃, 二邊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거

‘어찌하여 배를 뒤집어 버렸는가’라고 한 구절에 이르러 그 학인을 대신
하여 말했다. “설봉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한 다음 설봉이
무엇인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소매를 털고 가버려야 했다.” 다시 제기하고
‘아사리 그대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한 구절에 이르러 말했다. “각자
에게 나누어 주며,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만약 이 뜻을 가려낸다면
세상 어디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이다.”

雪竇顯, 舉此話, 至爲甚覆船, 師代云, “‘久嚮雪峯.’ 待者老
漢擬議. 拂袖便行.” 又舉, 至不干闍梨事, 師云, “能區能別,
能殺能活. 若也辨得, 天下橫行.”

[설화]

설봉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설봉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말이다. 의도는 소매를 털고 가버리는 데 있다.

가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한다: 설봉을 찬탄한 것이다.³⁾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20방을 갈라서 각자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뜻이니, 아사리의 일과는 관계가 없다.

雪竇: 久嚮雪峯, 歇後語也. 意則拂袖便行. 能區云云, 讚嘆雪峯. 能殺能活者, 二十棒能區能別, 不干關梨事也.

원오극근의 거

설봉이 학인에게 한 질문부터 설두가 ‘설봉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라고 대신 대답한 부분까지 제기하고, 학인을 대신하여 “선상을 뒤집어 엎어 주리라”고 한 다음 이어서 말했다. “설봉에게는 학인을 시험하는 구절이 있었고,⁴⁾ 복선에게는 관문을 뚫는 눈이 있었으며,⁵⁾ 설두에게는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기틀이 있었다.⁶⁾ 말해 보라! 나[崇寧]⁷⁾는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園悟勤, 舉雪峯問僧, 至雪竇代云, ‘久嚮雪峯.’ 師代云, “便與掀倒禪床.” 乃云, “雪峯有驗人句; 覆船有透關眼; 雪竇有陷虎之機. 且道! 崇寧, 成得个什麼邊事?”

-
- 3) 생사와 열반을 분명하게 갈라서 관문으로 제시한 것을 찬탄했다는 뜻.
 - 4) 설봉이 생사와 열반을 차별하여 말한 것은 진실한 구절로 던진 말이 아니라 상대를 점검하기 위한 관문이었다는 취지이다.
 - 5) 설봉이 관문을 제시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차별한 의중을 간파하는 안목이 있었다는 뜻이다.
 - 6) 설봉이라는 종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점검하는 기틀을 설정할 줄 알았다는 말. 설두 자신이 이러한 수단을 강조했다.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기틀을 밝히고자 한다면 본분을 깨달은 남자라야 한다.”(『雪竇語錄』 권1 大47 p.672a25. 要明陷虎之機, 也須是本分衲子.)
 - 7) 승녕. 원오극근의 출신 지명이다. 사천성 성도(成都) 북서쪽에 있다.

[설화]

선상을 뒤집어엮어 주리라 : 소매를 털고 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생사라고 부르는가!’라는 말과 같은데, 이것도 여전히 의중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점검할 단서를 남긴다는 뜻이다.⁸⁾

설봉에게는 학인을 ~ 빠뜨리는 기쁨이 있었다 : 세 선사가 드러내 보인 말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말해 보라 ~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 선상을 뒤집어엮는 것 또한 세 선사가 가지고 있었던 의중을 벗어나지 않는 행위라는 뜻이다.

圓悟：便與云云者，拂袖便行，似是喚什麼作生死，猶是露頭角故，有點檢分。雪峯有驗人句至陷虎之機者，據款結案也。且道云云者，掀倒禪床，亦不離前三師云云意而爲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병불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작가종사는 천연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 비록 그렇더라도 또한 도둑질하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한 법이다. 그렇다면 ‘아사리 그대로는 관계없는 일이다’라 말하고 어째서 20방을 스스로 맞을 필요가 있었겠는가!¹⁰⁾ 다만 다시 20방을 더해 복선을 때리면 그

8) 원오는 학인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설두가 대신 응한 것에도 미진한 구석이 있다고 보고, 선상을 뒤집어엮어야 완전하다고 여긴 것이다.

9) 秉拂, 주지나 방장이 불자(拂子)를 잡고 법상에 올라앉아 대중에게 설법하는 것.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그 설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후자의 뜻으로 많이 쓴다. 주지를 대신하여 병불 법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당수좌(前堂首座)·후당수좌(後堂首座)·동장주(東藏主)·서장주(西藏主)·서기(書記) 등에게 주어진다. 이들을 가리켜 병불오두수(秉拂五頭首)라 한다.

10) 도둑질한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지은 죄를 스스로 벌하는 것과 같다. 그

만일 뿐이다. 말해 보라! 그의 허물은 어디에 있는가? 노련하고 대단하신 분이 남에게 대어(代語)도 제대로 못해 주었던 것이다.”

雲門杲, 秉拂, 舉此話云, “作家宗師, 天然猶在! 雖然如是, 也是作賊人心虛. 是則不干闍梨事, 二十棒, 何須自喫! 但更添二十棒, 只打覆船便了. 且道! 渠過在什麼處? 老老大大, 不合與人代語.”

[설화]

작가종사는 ~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 : 설봉을 두고 한 말이니 20방이라고 한 말 때문에 ‘천연 그대로’라고 한 것이다.

도둑질하는 ~ 불안한 법이다 : 설봉의 의중은 복선에게 20방을 전해 주고 자신도 20방을 맞겠다고 말한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복선을 때리면 그만일 뿐이다 : 복선이 할 일을 모두 바친 무사(無事)의 경지를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雪門：作家云云者，雪峯也，二十棒是天然也。作賊云云，其意不在二十棒也云云。只打云云者，覆船未得無事故。

렇지 않다면 스스로 20방을 맞겠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



802칙 雪峯佛日 설봉불일



802칙 설봉불일 雪峯佛日

[본칙]

설봉이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불일(佛日)에서 왔습니다?” “올 때 해는 떴던가?”¹⁾ “해가 떴다면 설봉을 녹여버렸을 것입니다.”²⁾ 설봉이 문답을 마쳤다가 다시 그 학인에게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현기(玄機)라고 합니다.” “하루에 베를 얼마나 짜는가?”³⁾ “베틀에 한 올의 실도 걸어 놓지 않습니다.” “승당에 들어가거라.”⁴⁾ 그 학인이 곧바로 나가서 몇 걸음 걸어가는데, 설봉이 다시 “상좌여, 가사의 끝자락이 바닥에 쓸리는구나”라고 하자 학인이 고개를 돌렸고 설봉

-
- 1) 불일(佛日)이 부처님의 해라는 뜻도 되므로 바로 그 말에 입각해서 점검한 말이다.
 - 2) 눈으로 덮인 산봉우리라는 ‘설봉’의 말뜻에 따라 대응한 것. 온통 눈으로 덮인 설봉은 본래 아무도 오르지 못하는 험한 산으로 험준한 본분의 관문을 나타낸다. 그 관문을 뚫는다면 지혜의 해가 떠서 설봉에 내린 눈을 녹였을 것이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다. 달리 해설하면, 설봉의 눈을 녹이지 않고 눈 내린 상태 그대로 두고 본분을 고수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앞의 것은 본칙에 대한 〈설화〉의 관점이고, 뒤의 것은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염에 대한 〈설화〉의 관점이다.
 - 3) 현기(玄機)의 ‘기’자에 옷감을 짜는 베틀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다시 점검한 것이다.
 - 4) 참당(參堂). 승당(僧堂)의 일원으로 처음 들어가 대중과 함께 생활하는 것.

은 곧바로 때렸다.

雪峯問僧, “什麼處來?” 僧云, “佛日來.” 師云, “來時日出也未?” 僧云, “日若出, 卽鎔却雪峯.” 師休去, 復問僧, “你名什麼?” 僧云, “玄機.” 師云, “日織多少?” 僧云, “寸絲不掛.” 師云, “叅堂去.” 僧便出行三五步, 師復召云, “上座, 袈裟角落地.” 僧迴首, 師便打.

[설화]

그 학인은 본분을 깨달은 자인 듯 가장했으니 그 점이 기특하기는 했다. 그러나 작가중사였던 설봉이 설정한 갈고리에 걸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어찌겠느냐는 뜻이다.⁵⁾

올 때 해는 떴던가 : 이 말을 빌려 그의 수준을 점검한 것이다.

해가 떴다면 설봉을 녹여버렸을 것입니다 : 관문을 뚫고 나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가사의 끝자락이 바닥에 쓸리는구나 : 격외의 연구를 감파했다.

마지막에 말에 따라 고개를 돌렸으므로 곧바로 때린 것이니,⁶⁾ 어떻게 해야 이 방(棒)을 면할 수 있을까?

這僧也, 似个本分漢, 不妨奇特. 爭柰雪峯是作家宗師, 未免上他鉤頭也. 來時日出也未者, 借此語勘驗也. 日出鎔却雪峯者, 透關支對也. 袈裟角落地者, 格外言句勘破也. 下隨言回首故,

5) 설봉이 설정해 놓은 점검의 틀에 걸려들어 학인의 거짓이 드러났다는 뜻.

6) 설봉의 말에 미혹되어 고개를 돌린 잘못에 대한 질책의 매라는 해설이다.

便打, 作麼生免得此棒?

대홍보은(大洪報恩)의 염

“설봉이 비록 병에 적절하게 약을 주기는 했지만, 그 학인의 병이 고향(膏肓)에 들었다면 무슨 구할 방법이 있었겠는가?”⁷⁾ 반대로 만일 병이 낮고 약도 사라져 코가 비틀렸다면⁸⁾ 설봉은 열반당⁹⁾에 들어가야만 했을 것

7) 병이 고향에 들었다는 말은 불치병이라는 뜻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과 같이 학인이 본분을 고수하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떤 약이라도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8) 설봉의 핵심을 파악하여 장악했다는 말.

9) 涅槃堂. 늙거나 병든 이들이 거처하는 절 안의 요사. 옛날 총림에서는 늙은 스님들은 안락당(安樂堂)으로 보내고, 병든 스님들은 연수당(延壽堂)에 보냈다. 연수원(延壽院)·연수료(延壽寮)·중병각(重病閣)·성행당(省行堂)·무상원(無常院)·장식료(將息寮) 등이라고도 한다. 『中天竺舍衛國祇洹寺圖經』 권하 大45 p.893c8에 따르면, 탐욕의 무상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천동원(天童院) 안에 무상원을 지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명칭의 유래가 보인다. “무상원: 서역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기원정사 서북쪽 해 지는 방향에 무상원을 지어두고 병든 사람을 그 안에서 쉬게 했다. 무상원이라 한 뜻은 보통 사람들이 집이나 옷이나 발우 등의 도구를 탐내어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집을 지어 그 이름을 듣거나 건물 제목을 보고 모든 존재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늘날 연수당이나 열반당이라 부르는 까닭은 후세인들이 좋아하는 느낌에 따라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釋氏要覽』 권3 大54 p.306b24. 無常院: 西域傳云, 祇桓西北角日光沒處, 爲無常院. 若有病者, 當安其中. 意爲凡人內心貪著房舍, 衣鉢道具, 生戀著心, 無厭背故, 制此堂令聞名見題, 悟一切法, 無復常故.<今稱延壽堂, 涅槃堂者, 皆後人隨情愛名之也.>); “연수당: 늙거나 병든 스님들을 위안하는 곳이다. 옛날에는 총림의 노승들은 안락당으로 보내고, 병든 스님들은 연수당으로 보냈다. 오늘날의 열반당이 그것이다.”(『禪林寶訓音義』 卍113

이다.¹⁰⁾”

大洪恩拈, “雪峯, 雖善能應病與藥, 然這僧病在膏肓, 有什麼救處? 忽若病瘥藥亡, 捩轉鼻孔, 却須雪峯入涅槃堂, 始得.”

[설화]

그 학인은 오로지 본분을 고수하는 입장이었다.

설봉은 열반당에 들어가야만 했을 것이다: 더욱 높이 착안했더라도 오히려 죽은 자와 같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大洪: 這僧只守本分也. 雪峯入涅槃堂者, 更高一着, 猶是死漢也.

보령수의 거

‘설봉이 문답을 마쳤다’라는 구절까지 제기하고 말했다. “설봉은 무엇 때문에 문답을 마쳤을까? 연못이 넓으면 산을 숨길 수 있고,¹¹⁾ 살팽이도

p.275b10. 延壽堂: 撫安老病之所也. 古者, 叢林老僧送安樂堂, 病者送延壽堂也. 又今涅槃堂是.)

10) 두 가지 경우 모두 설봉이 실패한 것으로 보아 이 공안에 대한 모든 분별의 통로를 봉쇄했다.

11) 택광장산(澤廣藏山). 『莊子』에 나오는 ‘藏山於澤’이라는 구절을 활용했다. “계곡에 배를 감추고 연못에 그 계곡의 산을 숨긴다면 배는 안전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한밤에 힘센 사람이 등에 지고 달아난다면 어두운 곳에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크거나 작은 것을 숨길 경우 그에 가장 적절한 장소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세상 전체를 세상 전체에 감춘다면 그것은 어디로도 달아날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변함없는 것의 근본적 진실이다.”(『莊子』「大宗師」, 夫藏舟於壑, 藏山於澤, 謂之固矣. 然而夜半有力者, 負之而走, 昧者不知也. 藏大小有宜, 猶有所遷. 若夫藏天下於天下, 而不得所遷, 是恆物之

능력만 있다면 표범을 굴복시킬 수 있다.” 다시 ‘설봉은 곧바로 떼렸다’라는 구절까지 제기하고 말했다. “그 학인은 불법은 말할 것도 없고 인사도 할 줄 몰랐고, 설봉은 천오백 학인을 이끄는 선지식으로서 약간의 자비심도 없었다. 말해 보라! 효와¹²⁾는 어디에 있을까? 시험 삼아 분간해 보라.”

保寧秀，舉此話，至峯休去，師云，“雪峯因什麼休去？澤廣藏山，理¹³⁾能伏豹。”又舉，至峯便打，師云，“這僧，莫道是佛法，人事尚未了在；雪峯，是千五百人善知識，略無些子慈悲。且道！般訛在什麼處？試爲辨看。”

[설화]

연못이 넓으면 ~ 굴복시킬 수 있다 :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모든 한계를 벗어났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그 학인은 ~ 몰랐고 : 그가 물러가면서 인사도 하지 않은 것을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말이다.

설봉은 ~ 자비심도 없었다 : 그에게 자비심이 없었던 것을 싫어했다는 말이다.

효와는 ~ 분간해 보라 : 절실한 자비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 반드시 그것을 분간해 보라는 뜻이다.¹⁴⁾

保寧：澤廣藏山云云者，未詳，意謂直得無限也。這僧莫道云

大情也.)

12) 般訛. 효와(誨)와 같은 말. 하나의 공안에서 핵심이 되는 점 또는 난제가 걸려 있는 관건(關鍵)을 가리킨다.

13) ‘理’는 ‘狸’ 또는 ‘狸’와 통한다.

14) 선사로서 가장 크고 절실한 자비심은 학인을 본분으로 이끌기 위하여 관문을 설정해 주는 것이다. 바로 이 문답에서 설봉은 그것을 제시했으므로 ‘효와’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云者, 嫌他無人事也. 雪峯是千五百云云者, 嫌他無慈悲也. 請訛至辨看者, 不無慈悲之切切, 須是辨看.

장로종색(長蘆宗蹟)의 엄

“그 학인은 풀 속에서 뒹구는 자에 불과했고, 게다가 처음에는 좋은 듯했다가 마지막에는 초라한 꼴이 되었으니,¹⁵⁾ 때리지 않았다면 또 어느 때를 기다려 가르칠 수 있었겠는가? 만약 작가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에 설봉이 ‘올 때 해가 떴던가?’라는 물음에 다만 ‘사자는 사람을 묻니다’¹⁶⁾라 대답하고, 또한 ‘하루에 베를 얼마나 짜는가?’라는 물음에는 ‘두 겹의 공안이로군요’¹⁷⁾라 대답하고, 또한 ‘가사의 끝자락이 바닥에 쓸리는구나’라는 말에는 ‘천오백 학인을 이끄는 선지식께서 자비심이라곤 조금도 없군요’¹⁸⁾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설령 이렇게 답했더라도 나의 아픈 마음을 피할 수는 없다. 말해 보라! 어떤 잘못이 있는가? 밝은 눈을 가진 자는 가려내 보라.”

長蘆蹟拈, “這僧只是草裏漢, 又更龍頭蛇尾, 不打更待何時?”

15) 마지막에 고개를 돌려 설봉의 시험에 걸려든 것.

16) ‘사자는 흙덩이 던진 사람을 물지만 어리석은 개는 흙덩어리를 쫓아간다’라는 상용구를 줄인 말이다. 본서 184則 주석19) 참조. ‘올 때 해가 떴던가?’라고 점점하는 말에 미혹되지 않고 그 의중을 포착했다는 뜻.

17) 양중공안(兩重公案). 반드시 두 겹이라는 뜻이 아니라 던지는 말마다 겹겹이 모두 몰자미(沒滋味)를 본질로 하는 공안이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분별로 벗기려 해도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관문의 연속일 뿐이라는 뜻이다.

18) 친절한 방편을 주어 들어가도록 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본분의 화두만을 던지는 의중을 알고 있다는 소리이다. 곧 가사의 끝자락이 실제로 바닥에 쓸렸건 쓸리지 않았건 상관없이 이 역시 한 겹 또 두른 관문일 뿐이다.

若是作家卽不然。當時待雪峯道, ‘來時日出也未?’ 但云, ‘師子咬人.’ 又問, ‘日織多少?’ 但云, ‘兩重公案.’ 又召云, ‘袈裟角落地也.’ 但云, ‘一千五百人善知識, 略無些子慈悲.’ 直饒如此, 亦未免山僧痛棒. 且道! 有什麼罪過? 明眼底辨取.”

[설화]

그 학인은 다만 본분을 고수할 뿐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풀 속에서 뒹구는 자라는 뜻이다.

사자는 사람을 묻니다 : 자신의 입장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두 겹의 공안이로군요 : 주체와 대상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두 겹이다.

천오백 ~ 자비심이라곤 조금도 없군요 : 저 설봉에게 인정이 없는 것이 싫다는 뜻이다.

나의 아픈 매를 피할 수는 없다 : 여전히 무사(無事)의 경지를 얻지 못했다.

어떤 잘못이 있는가 : 그 학인의 입장이 아주 좋다는 뜻이다.

長蘆 : 這僧只守本分, 是落草漢也. 獅子咬人者, 立處到底也. 兩重公案者, 有能所故兩重也. 一千至慈悲者, 嫌他雪峯勿人情也. 亦未免云云者, 猶未得無事也. 有什麼罪過者, 這僧立處恰好也.



857칙 雲居雨從 운거우종



857칙 운거우종 雲居雨從

[본칙]

운거에게 유우단공(劉禹端公)이 물었다. “비는 어디서 옵니까?” “단공께서 질문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단공이 마침내 삼배를 올리고 기뻐하며 물러나 몇 걸음 가고 있을 때 운거가 “단공!” 하고 불렀다. 단공이 고개를 돌리자 운거가 “질문은 어디로부터 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단공은 아무 말도 없었다. <어떤 노스님이 단공을 대신하여 대답했다. “조금 전에는 무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종의유(歸宗義柔)는 이와 다르게 대답했다. “스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단공은 집으로 돌아와 3일 만에 죽었다.

雲居，因劉禹端公問，“雨從何來？”師云，“從端公問處來。”端公遂禮三拜，歡喜而退，行數步，師召云，“端公！”公迴首，師云，“問從何來？”端公無語。〈有老宿代云，“適來道什麼？”歸宗柔別云，“謝和尚再三。”〉歸家三日而死。

[설화]

비는 어디서 옵니까 : 기우제를 지내고 비가 내린 다음에 물은 것이다.

단공께서 질문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 방울방울 떨어지는 빗물은 별다른 곳에 귀착되는 것이 아니다.

마침내 삼배를 ~ 몇 걸음 가고 있을 때 : 처음으로 법공(法空)¹⁾의 도리를 깨우친 사람은 희열에 차 있음을 나타낸다.

질문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 질문이 발생한 근거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아무 말도 없었다 : 오직 식(識)일 뿐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자는 자연히 말이 없다.

집으로 돌아와 3일 만에 죽었다 : 모든 시끄러운 언쟁에서 벗어나 고요함이 눈앞에 실현된 경지에서는 허황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지만, 그렇게 고요한 저편으로 갈 줄만 알았지 이렇게 이편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음을 나타낸다.²⁾

어떤 노스님의 말은 ‘어디서 모색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뜻이다. ‘조금 전’이라 한 말은 앞서 단공이 질문한 말이 유래한 곳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질문은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물음 역시 쓸데없이 남아도는 말이라는 뜻이다. 귀종의 말은 처음 해준 대답에서 분명한 뜻을 알았음을 나타낸다.

兩³⁾從何來者, 祈雨得雨後問也. 從端公問云云者, 滴滴不落別處也. 遂禮三拜至數步者, 初得法空者, 多喜悅也. 問從何來者, 又須知有問所從來也. 無語者, 住唯識者, 自然無語也. 歸家云云者, 離諸喧諍, 寂滅現前處, 動誕不得也. 只解伊麼去, 不解伊麼來也. 有老宿, 向甚處摸捺也. 適來, 謂前端公問處

1) 비가 오는 현상과 같이 모든 법은 오로지 마음에 귀착될 뿐, 그 자체는 공(空)이라는 뜻.

2) 오거나[來] 가는 것[去]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는 한편에 치우쳐 있다는 말.

3) ‘兩’은 ‘雨’자의 오식.

來也. 然則今云問從何來, 亦是剩語也. 歸宗, 從前答處, 知其端的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비는 어디로부터 오며,
바람은 어디서 부는가?
만 길로 솟은 용문⁴⁾에,
일찍이 묵었던 길손들,⁵⁾
진퇴를 함께 나누는데,
누가 점액⁶⁾을 당할까?

雪竇顯頌, “雨從何來, 風作何色? 龍門萬仞, 曾留宿客, 進退相將, 誰遭點額?”

[설화]

옛사람은 “만 길의 용문에 일찍이 묵었던 길손들 없었네”⁷⁾라고 말했다.

-
- 4) 龍門. 과거시험장의 정문(正門). 잉어가 용이 되기 위해 뛰어오르는 목표가 되는 문. 화두의 관문을 상징하는 말이다.
 - 5) 운거가 제시한 화두의 관문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 궁구하던 사람들.
 - 6) 點額. 용문에 오르는 데 실패한 잉어의 이마에 남은 상처. 본서 607則 주석24) 참조.
 - 7) 화두를 험하고 높아 오르기 어려운 만 길의 용문에 비유한 말이다. ‘용문에는 머무는 나그네가 없다’(龍門無宿客)는 말과 같다. 설두가 그의 어록에서 제기한 보자(報慈)선사의 문답에 이 말이 나온다. “보자가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어디서

데, 여기서 설두는 “일찍이 묵었던 길손들”이라 하였으니, 곧 허황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단공의 입장을 나타낸다.

雪竇：古云，“龍門萬仞，曾不宿客。”今云，“曾留宿客。”則端公動誕不得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1

단공의 질문이 유래한 곳이어!

곧게 뻗은 길을 돌아가지 마라.⁸⁾

선재동자는 가는 곳마다 미륵 만났으며,

손가락 통기는 소리마다 누각 열렸다네.⁹⁾

오는가?’ ‘와룡에서 옵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있었는가?’ ‘동안거와 하안거를 지냈습니다.’ ‘용문에는 머무는 나그네가 없거늘 어째서 그곳에 그토록 오래 있었는가?’ ‘사자의 굴에는 다른 짐승이 없습니다.’ ‘그대가 한번 사자후를 내질러 보라.’ ‘만약 사자후를 내지른다면 화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처음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감안하여 30방 맛을 잘못을 용서해 준다.’”(『雪竇語錄』 권3 大47 p.691c29. 先報慈問僧, ‘近離甚處?’ 云, ‘臥龍.’ 慈云, ‘在彼多少時?’ 云, ‘經冬過夏.’ 慈云, ‘龍門無宿客, 爲什麼在彼許多時?’ 云, ‘師子窟中無異獸.’ 慈云, ‘爾試作師子吼看.’ 云, ‘若作師子吼, 卽無和尚.’ 慈云, ‘念汝新到, 且放三十棒.’) ‘우뚱 솟은 봉우리에는 머무는 나그네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취지이다. “옛사람들이 건추를 잡거나 불자를 곳곳이 세우는 뜻은 어떤 것입니까?’ ‘우뚱 솟은 봉우리에는 머무는 나그네가 없다.’”(『景德傳燈錄』 권13 「首山省念傳」 大51 p.304a24. 問, ‘古人拈槌豎拂, 意旨如何?’ 師曰, ‘孤峯無宿客.’)

8) 눈앞에서 주고받은 대화에 이미 실현되어 있다는 뜻. 아래 3구와 4구의 취지와 같다.

9)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통기는 짧은 순간에 누각의 문이 곧바로 열려 선재동자(善財童子)가 그 안으로 들어갔던 『華嚴經』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때 선재동자가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미륵보살의 오른쪽으로 돌고 난 다음에 아뢰었다. ‘원하건대 위대하신 성인이시여, 누각의 문을 여시어 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

天童覺頌, “端公問處來! 徑直勿迂迴. 善財處處逢彌勒, 彈指作聲樓閣開.”

천동정각의 송 2

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질문에서 벗어나지 않노라.

삼라만상과 대천세계여!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네.

비추는 작용 속의 텅 빈 곳ियो,

고요함 속에 있는 움직임이니,

납승의 본분에서 항상 함께하노라.

찬 이슬이 소나무 적시니 밤공기 맑아지고,

학은 달에 등지 틀고 사는 꿈에서 깨었다네.

又頌, “雨從何來? 不離所問. 森羅大千! 出乎方寸. 照中之虛, 靜中之動, 衲僧分上常相共. 寒露濡松夜氣清, 皐禽驚起月巢夢.”

십시오.’ 그때 미륵보살이 앞서서 누각에 이르러 손가락을 통겨 소리를 내자 그 문이 곧바로 열렸고, 선재에게 들어가라고 하였다. 선재가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자 그 문은 다시 닫혔다. 그 누각을 보니 헤아릴 수 없이 드넓은 것이 허공과 같았다.”(80권본 『華嚴經』 권79 「入法界品」 大10 p.434c26. 爾時, 善財童子, 恭敬右遶彌勒菩薩摩訶薩已, 而白之言, ‘唯願大聖, 開樓閣門, 令我得入.’ 時, 彌勒菩薩, 前詣樓閣, 彈指出聲, 其門即開, 命善財入. 善財心喜, 入已還閉. 見其樓閣, 廣博無量, 同於虛空.) 한편, 설두는 이 부분에 대하여 “손가락을 통길 필요도 없이 누각의 문은 열려 있다네.”(『雪竇語錄』 권5 大47 p.700c24. 不用彈指樓閣門開.)라고 읊었다.

[설화]

두 계송 중 앞의 계송은 천 방울 만 방울이 단지 하나의 물방울일 뿐이라는 뜻이며, 뒤의 계송은 하나의 빗방울 안에서 끝없는 물결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天童：二頌，前千滴萬滴，只是一滴也，後一滴之內，興無盡波瀾也。

천의의회(天衣義懷)의 거

“지금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 말을 해볼 사람 있는가? 만일 바르게 말한다면 유우단공을 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운거화상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하늘과 땅과 대지 전체가 단지 관을 짜는 재목에 불과할 것이다.”

天衣懷，舉此話云，“而今，還有人道得一轉語麼？若道得，非唯救得劉禹端公，亦乃救得雲居和尚。若道不得，盡乾坤大地，只是个棺材。”

[설화]

운거가 비록 ‘질문은 어디로부터 옵니까?’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죽은 자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어떻게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 말을 할까?’라고 물은 것이다. 나아가거나 물러나는 움직임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天衣：雲居雖道得，問從何來，亦未免死漢，然則作麼生道得一轉語。進退相將，始得。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유우단공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3일 만에 죽었다. 이것은 홍각(洪覺)의 가려운 부위를 바로 긁어준 격이었지만, 엽매인 몸을 돌려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은 몰랐다. 당초에 운거가 ‘질문은 어디로부터 옵니까?’라고 묻기를 기다렸다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삼배를 올리고 기쁜 마음으로 물러났다면 홍각으로 하여금 30년 동안 의심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雲門杲，上堂，舉此話云，“劉禹端公，無語歸家，三日而死。正爬着洪覺痒處，只是不知轉身一路。當初待伊道，‘問從何來？’依前禮三拜，歡喜而退，且教洪覺疑三十年。”

[설화]

집으로 돌아와 3일 만에 죽었다 : 세 가지 뜻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엽매인 몸을 돌려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은 몰랐다 : ‘단공이 몰랐던 것을 어찌하겠느냐’는 뜻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삼배를 올리고 기쁜 마음으로 물러났다면 : 앞의 뜻과 같다.

홍각으로 하여금 ~ 만들었을 것이다 : 운거가 말한 내용은 마치 30년 수행한 흔적이 없는 듯이 보인다는 뜻이다. 홍각은 운거의 시호이다.

雲門：歸家三日而死者，三義不無也。只是不知云云者，爭乃端公不知也。依前禮三拜云云者，前意同也。且教洪覺云云者，覺範道處，似乎無三十年故。洪覺，雲居諡號也。



859칙 雲居僧家 운거승가



859칙 운거승가 雲居僧家

[본칙]

운거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승가(僧家)의 궁극적인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산에 사니 좋구나.” 그 학인이 절을 올렸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출가한 사람은 선·악과 역·순 그리고 생·사 등의 경계에서 마치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해야 합니다.” 운거가 한 대 때리고 말했다. “앞서 간 성인들의 가르침을 등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망치는 견해이다.” 운거가 다시 옆에 있던 학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에는 하늘이나 땅의 빛깔이 보이지 않고, 귀에는 거문고나 피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운거가 또 때리고 말했다. “앞서 간 성인들의 가르침을 등질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망치는 견해이다.”

雲居因僧問, “僧家畢竟如何?” 師云, “居山好.” 僧便作禮. 師云, “汝作麼生會?” 僧云, “出家人, 於善惡逆順生死境界, 如山之不動.” 師便打云, “辜負先聖, 喪我兒孫.” 師復問傍僧, “你作麼生會?” 僧云, “眼不見玄黃之色, 耳不聞絲竹之聲.” 師又打云, “辜負先聖, 喪我兒孫.”

[설화]

승가: 산에 있는 집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유가(儒家)나 도가(道家)와 같은 말이다.¹⁾

궁극적인 경지: 근본 법도를 나타내는 본분사.

산에 사니 좋구나: 아무 맛도 없는 말²⁾인가? 마치 ‘산을 좋아한다’거나 ‘물을 좋아한다’거나 ‘등롱을 좋아한다’라는 말과 같다. 이것은 영양이 뿔을 나뭇가지에 걸고 숨는 것과 같은 구절³⁾이니, 이 말이 아무 맛도 없는 말이

1) 여기서 ‘家’는 학파나 종파 또는 사상과 뜻을 공유하는 무리를 나타낸다.

2) 무미지담(無味之談). 어떤 의미(맛)가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어떤 개념으로도 포착할 수 없는 이야기. 보통 화두를 수식하는 말로 쓰인다. 동산수초(洞山守初)의 계송에 나오는 말이다. “무미지담: 동산수초의 지통기송(指通機頌)에서 읊었다. ‘동산은 쓸쓸하게 텅 비어 어떤 것 하나도 붙어 살 수 없다네. 맛없는 이야기로 남들의 입을 틀어막을 뿐이노라.’”(『祖庭事苑』 권2 卍113 p.52a11. 無味之談: 洞山初, 指通機頌云, ‘洞山寥索, 一無可有. 無味之談, 塞斷人口.’) 설두중현(雪竇重玄)의 계송(『碧巖錄』 58則 大48 p.191c5)에도 나온다.

3) 영양괘각(羚羊掛角). 자취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구절을 나타낸다. ‘무미지담’과 마찬가지로 선어(禪語)의 본질적 속성을 보여주는 비유이다. 『景德傳燈錄』 권17 大51 p.335b7에 따르면, 이 공안의 주인공 운거는 마치 사냥개가 발자취나 냄새의 흔적이 남아 있으면 영양을 추적할 수 있지만 영양이 뿔을 걸고 나무 위에 숨으면 더 이상 찾을 수 없듯이 모색할 자취를 남기지 않은 언어에 대해서는 분별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제시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답으로 연결된다. “학인이 물었다. ‘영양이 뿔을 걸고 숨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6 곱하기 6은 36 이니라.’ 운거가 다시 말했다.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자취가 없다는 말도 모르는가!’”(『僧問, ‘羚羊掛角時, 如何?’ 師曰, ‘六六三十六.’ 又曰, ‘會麼?’ 僧曰, ‘不會.’ 師曰, ‘不見道, 無蹤迹!’); 그보다 앞서 설봉의존(雪峰義存)이 이 비유를 사용했다. “내가 만약 이런 말 저런 말로 표현한다면 그대들은 그 말에서 찾고 그 구절을 좇으며 뜻을 찾겠지만, 내가 영양이 뿔을 나무 위에 걸어 놓고 몸을 숨기듯이 한다면 그대들은 어디서 더듬고 찾겠는가?”(『景德傳燈錄』 권16 『雪峰義存傳』 大51 p.328b6. 我若東道西道, 汝則尋言逐句; 我若羚羊掛角, 汝向什麼處捫摸?)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⁴⁾ 그런 다음에야 영양이 뿔을 나무 가지에 걸고 숨는 말이 될 것이다.

출가한 사람은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고 한 말: 모든 차별 속에 있으면서도 마치 산과 같이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학인은 별도로 본분의 소식에 통하여 알면 운거의 의중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눈에는 ~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거북이 여섯 부분⁵⁾을 껍질에 감추어 보거나 듣는 감각을 모두 끊는 것과 같다.⁶⁾ 그 학인은 앞의 학인이 잘못 대담하여 매를 맞았으므로 만약 이렇게 말하면 운거의 의중과 일치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운거가 그들을 일일이 모두 때린 이유는 모두 자신의 의중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거의 의중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
- 4) 사실은 두 가지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맛이 없는 이야기’라는 구절을 경직된 관념으로 굳혀 또 하나의 보금자리로 만들까 우려한 끝에 ‘영양괘각’의 비유로 다시 한 번 그 자취를 없애려는 의도에서 한 말이다.
 - 5) 머리와 꼬리와 네 발. 여섯 가지 인식 기관[六根]을 비유한다.
 - 6) 감각기관을 통제하여 밖의 대상 경계로 인해 시달리지 않는 것. 『長阿含經』 권8 『散陀那經』 大1 p.47b17, 『雜阿含經』 권22 大2 p.160c7 등에 나오는 비유. 『出曜經』 권23 大4 p.730c8에는 거북이 적으로부터 사지와 머리와 꼬리를 보호하듯이 비구가 생각[意想]을 거두어야[攝] 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거북이 여섯 부분을 감추는 것과 같다. <거북에게는 머리와 꼬리 그리고 네 다리가 있는데, 그것을 여섯 부분이라 한다. 만약 밖에서 적이 침범하여 괴롭히면 그것들을 껍데기 속으로 숨긴다. 중생의 6근이 밖의 대상 경계를 따라다니면 6진(塵)이라는 도적이 침범해 들어오므로 스스로 6근의 문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치 거북이 여섯 부분을 감추는 것과 같다.”(『一切經音義』 권26 大54 p.465c3. 如龜藏六<龜有頭尾四足, 名爲六處. 若侵惱則藏入殼中. 衆生六根, 馳流外境, 塵賊來侵, 自守根門, 如龜藏六也. >); 『維摩經略疏』 권4 大38 p.611a1 등에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의 뜻으로 풀고 있다.

僧家者, 非謂山家也. 如儒家道家也. 畢竟者, 極則事也. 居山好者, 無味之談耶? 如好山, 好水, 好燈籠也. 此是羚羊掛角地言句, 不可強判此語爲無味之談. 然後, 爲羚羊掛角也. 出家人至不動者, 於一切差別中, 如山不動. 這僧謂別通消息會, 契得和尚意也. 眼不見至之聲者, 如龜藏六, 杜絕見聞也. 這僧謂彼僧旣被打, 若也如此道得, 契得和上意也. 一一打者, 皆不契和上意故也. 和尚意作麼生會?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송

힘하게 솟구치고 만 길 너비로 가로막으니,
사망 천지에 길이 없어 오고 가지 못하네.
옛날부터 해와 달의 빛도 이르지 못했던 곳,
깊은 밤 왕노인이 서쪽 봉우리로 들어간다.⁷⁾

投子青頌, “磳砢嵯峨萬仞橫, 四邊無路不通行. 自古兩輪光不到, 夜深王老入西岑.”

[설화]

힘하게 솟구치고 ~ 오고 가지 못하네 : 청산 너머 저편의 소식⁸⁾이다. 주인 중의 주인의 지위⁹⁾이기 때문이다.

7) 인식의 빛으로 밝히지 못하는 경계가 왕노인(운거)의 거처라는 뜻.

8) 청산나반(靑山那畔). 위음나반(威音那畔) 등과 같은 맥락으로 그곳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존의 수단이 모두 폐기된 상황을 나타낸다.

옛날부터 ~ 이르지 못했던 곳 : 편위(偏位)나 정위(正位)로 도달하지 못하는 경지이다.

깊은 밤 ~ 들어간다 : ‘산에 사니 좋구나’라는 한 구절에 해당한다.

投子云云, 不通行者, 青山那畔. 主中主位故也. 自古云云者, 偏正不到處也. 夜深云云者, 居山好之一句也.

백운지병(白雲知晷)의 송

승가의 궁극적 경지 묻자 산에 살아 좋다 하니,
나뭇가지에 뿔 걸고 숨은 영양은 어디서 찾을까?
나그네여, 갈림길에서 길 찾기 어렵다 하지 마라.
눈앞에 장안으로 곧바로 통하는 길이 있느니라.¹⁰⁾
만 리까지 펼쳐진 평평한 밭에 한 치 풀도 없는데,¹¹⁾
소리 찾고 자취 쫓는 사람들 삼실과 같이 많으니,
결국 그들 모두가 운거스님의 속뜻 등져버렸도다.

白雲晷頌, “僧家畢竟居山好, 掛角羚羊何處討? 行人休說路
岐難. 目前便是長安道. 萬里平田無寸草, 尋聲逐迹數如麻, 到
頭辜負雲居老.”

-
- 9) 임제(臨濟) 사빈주(四賓主) 중 하나. 손님과 교섭이 완전히 끊어진 경계로서 손님에게 전할 모든 방편을 끊고 오로지 주인 자신이 체득한 경지에 머무르는 방식을 나타낸다.
- 10) ‘산에 사니 좋다’라는 말에 분별할 자취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바로 그 말에 해법이 있기도 하다는 뜻이다.
- 11) 만리무촌초(萬里無寸草). 운거가 제기한 자취 없는 말. 동산양개(洞山良价)의 화두를 활용했다. 『禪門拈頌說話』 687則 본칙 참조.

황룡혜남(黃龍慧南)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어떻게 한 구절을 말해야 앞서 간 성인들의 가르침을 등지지 않고, 우리 후손들을 망치지 않을 수 있을까? 만일 누군가가 제대로 말한다면 곳곳에 솟은 모든 청산이 그에게 도량(道場) 아닌 곳이 없겠지만, 만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흐르는 세월이 그대의 수명을 재촉할 것이며, 못된 귀신이 그대의 행복을 시기할 것이다.” 불자로 선상을 쳤다.

黃龍南，上堂，舉此話云，“且作麼生道得一句，不辜負先聖，不喪兒孫？若人道得，到處青山，無非道場；若道不得，有寒暑兮促君壽，有鬼神兮妬君福。”以拂子，擊禪床。

[설화]

곳곳에 솟은 모든 청산이 그에게 도량 아닌 곳이 없겠지만 : 앞에서 백운병이 ‘만리까지 펼쳐진 평평한 밭에 한 치 풀도 없다’라고 한 말과 그 뜻이 같다.

흐르는 세월이 ~ 시기할 것이다 : 만일 한 치의 풀이라도 남아 있다면 세월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黃龍：到處青山云云者，前頭萬里平田無寸草，意同也。有寒暑兮云云者，若也有寸草，則亦不免寒暑也。

고목법성(枯木法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 옛사람은 이와 같이 간단하고 쉽게 보여주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다지도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구나. 홍각¹²⁾이 학인들에게 가르쳐 준 경계를 알겠는가? 만일 모르겠다면 나의 게

송을 들어보라. ‘보고 듣는 사물마다 번뇌의 티끌과 먼지인데, 몸과 마음이 재갈이 식은 것 부끄러워하노라. 문 닫고 굳이 세간 사람 막을 필요 없지만, 이곳에 과연 몇 사람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 <참!>

枯木成，上堂，舉此話云，“諸仁者！古人得與麼簡易，今人得與麼艱難。還知弘覺爲人處麼？若不知，香山有頌，‘見聞物盡塵埃，慚愧身心冷似灰。閉戶不須防俗客，此中能有幾人來？’” <參!>

[설화]

간단하고 쉽게 보여주었다 : 골수에까지 사무친다는 뜻이다.

어려움을 겪는다 : 무(無)에 집착하거나 유(有)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보고 듣는 ~ 먼지인데 : ‘산에 사니 좋다’라는 뜻이다.

재갈이 식었다 : 모든 시끄러운 말다툼에서 벗어났다.

문 닫고 ~ 막을 필요 없지만 : 오고 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枯木：簡易者，徹骨徹髓也。艱難者，著無著有也。見聞云云者，居山好之義也。冷似灰者，離諸喧諍也。閉戶不須云云者，不礙往來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소참¹³⁾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어떤 사람은 ‘산은 변하지 않는 본체이니 검푸른 저곳으로 가리라’고 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또 어떤 사람은 ‘구름이 한 겹 또 한 겹 덮여 있으니 바로 지금 여기가 깨닫기에 결정적

12) 弘覺, 운거도옹의 시호(諡號).

13) 운거가 ‘산에 사니 좋다’라고 한 말에 대한 평석이 중심이 된다.

인 시기이다'라고 하지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만일 '산에 사니 좋다'라는 바로 이 말뜻을 이해한다면 안 될 곳이 어디 있겠는가? 상황에 적절히 응하여 마주치고 질문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응답한 것이니, 이 어찌 딱 들어맞게 본분과 상응하는 경지가 아니겠는가! 그대가 만약 모조리 이해했다고 생각하거나 모두 떠맡았다고 여기거나 부처의 경지라고 생각하거나 법이라고 여긴다면, 그 본래의 의중과 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평상시 그렇게 마음을 썼기 때문이니 만일 진실한 답승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말을 인정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또한 천리만리의 거리로 멀어질 것이다.”

天童覺, 小參, 舉此話云, “有底道, ‘山是不變之體, 青青黯黯處去.’ 有什麼交涉? 有底道, ‘白雲一重又一重, 个是裏許時節.’ 有什麼交涉? 若會得者居山好, 有什麼不得處? 應機而對, 隨問而酬, 豈不是恰恰相應底! 你若作承當, 作擔荷, 作佛作法, 便見不相應. 是他平常伊麼用, 若是真實衲僧, 點頭相許, 若不伊麼, 又成千里萬里去也.”

[설화]

산은 변하지 않는 본체이니 검푸른 저곳으로 가리라 : 단지 그 본체만 알았을 뿐이다. 그러므로 글의 뜻을 착각하여 본체만을 안 것에 그치지 않는다.¹⁴⁾

구름이 한 겹 ~ 깨달기에 결정적인 시기이다 : 다시 한 번 높은 차원에서 한마디 한 것이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 이는 천동이 그 견해를 꺾어서 부정한 말이다.

상황에 적절히 응하여 마주치고 ~ 멀어질 것이다 : 평상시에 이렇게 마음을 쓴

14) 본체만 얻었다는 말은 핵심에서 멀어졌다는 뜻이다.

다. 그러나 운거의 의중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天童：山是不變云云者，只得其體也。然則非唯錯認文義，只得其體也。白雲一重云云者，更高一著也。有什麼交涉者，此師折撈也。應機而對云云者，是尋常伊麼用也。雲居意不在此限也。

자수회심(慈受懷深)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도인이 지나간 곳은 마치 불이 얼음을 녹인 것처럼 어떤 자취도 없지만, 새도 날아서 넘긴 어려울 만큼 깊고 험한 길에서도 몸을 돌려 빠져나갈 길이 있다.¹⁵⁾ 그 학인이 만약 본분을 깨달은 자¹⁶⁾라면 운거로부터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자마자 다만 ‘화상께서 칼로 초목을 베고 난 뒤 밭을 일구면 저는 불을 지른 다음 씨를 뿌리고,¹⁷⁾ 화상께서 차를 끓이면 저는 마당을 쓸겠습니다’라고 응답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결정적인 전기가 되는 한마디를 했다면, 설령

15) 운거는 마치 새가 날아간 허공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처럼 부정만 하여 어떤 자취도 없애고 따라갈 길도 사라지게 만들었지만, 그곳에서도 살아나갈 방도가 있다는 말.

16) 개한(个漢). 바로 그 사람 또는 바로 이 사람이라는 말로서, 대단한 인물로 지목할 만한 사람을 가리킨다. 개한(箇漢)이라고도 쓴다.

17) 도경화중(刀耕火種), 화전(火田)과 같은 경작법. “깊은 산이나 으스스한 계곡에서는 도경화중의 경작법으로 농사를 지었다. 먼저 초목을 베어 산속의 밭 터를 확보하였으니, 비록 깎아지른 낭떠러지나 험한 봉우리라 할지라도 나무를 남김없이 쓰러뜨린 다음 그것들이 마르고 건조해질 때를 기다려 불을 놓는다. 불이 치열하게 타고 나면 그곳에 씨를 뿌린다.”(宋 王禹偁의 『畚田詞』「序文」. 皆深山窮谷, 其民刀耕火種. 大抵先斫山田, 雖懸崖絕嶺, 樹木盡仆, 俟其乾且燥, 乃行火焉. 火尚熾, 卽以種播之.)

홍각노자의 문턱이 바다와 같이 깊고 그 도가 산과 같이 무거워 어떤 소리와 색이나 어떤 형용조차 침범할 수 없다¹⁸⁾고 해도 틀림없이 얼굴 가득 미소 짓게 했을 것이다.”

慈受, 上堂, 舉此話云, “道人行處, 如火消冰, 鳥道玄途, 轉身有路. 者僧若是個漢, 才見他道, ‘你作麼生會?’ 但云, ‘和尚刀耕, 學人火種; 和尚煎茶, 學人掃地.’ 若下者一轉語, 直饒弘覺老子, 門深似海, 道重如山, 聲色形容, 不可干犯, 也須教滿面是笑.”

[설화]

마치 불이 얼음을 녹인 것처럼 : 장애가 되는 한 점의 지견(知見)도 없다. 이처럼 새가 날아간 까마득한 길을 마주하더라도 몸을 돌려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뜻이다.

한 사람은 칼로 초목을 베고 난 뒤 발을 일구면 다른 한 사람은 불을 지른 다음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이 차를 끓이면 다른 한 사람은 마당을 쓴다 : 북을 치고 노래하는 것을 함께 행한다.¹⁹⁾ 이처럼 홍각의 의중을 잘 알고 대응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지는 것이다.

慈受 : 如火消冰者, 無一點知見爲礙. 然則當鳥道玄路, 有轉身處也. 一人刀耕, 一人火種, 一煎茶一掃地云云者, 敲唱俱行也. 然則通對洪²⁰⁾覺意也. 故滿面是笑也.

18) 이 또한 소리·빛·형용 등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을 나타낸다.

19) 북의 박자와 노래의 가락이 어울리듯이 서로 상대의 생각을 알아차려 조화롭게 반응한다는 뜻이다.

20) ‘洪’은 ‘弘’자의 오식.



864칙 雲居持袴 운거지고



864칙 운거지고 雲居持袴¹⁾

[본칙]

운거도옹(雲居道膺) 문하에 있던 어떤 학인이 산 아래에 암자를 짓고 수행한 지 몇 년이 지났다. 운거가 하루는 제자를 시켜 고쟁이 한 벌을 가지고 암자에 가서 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그 암주(庵主)가 말했다. “저에게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입던 고쟁이가 있습니다.” 제자가 돌아와서 운거에게 그 말을 전하자 운거가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에게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는 무엇을 입고 있었는가?’라고 물어보지 않았는가?” 그 제자가 다시 가서 묻자 암주는 아무 대꾸도 없었다. 그 뒤에 암주가 입적하였는데, 오색찬란한 사리를 남겼다. 운거가 말했다. “설령 8곡(斛) 4두(斗)²⁾의 사리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내 질문

- 1) 본분만 고수하는 암자의 주인[庵主]과 현상의 금시(今時)를 제기하여 그것을 비판한 운거도옹(雲居道膺 ?~902)의 입장을 대비시켜 설정한 공안이다. 각자의 자리가 뚜렷이 나누어지지만 둘 사이에 시비(是非)와 득실(得失)이 있었다고 보면 이 관문의 핵심을 벗어난다.
- 2) 팔곡사두(八斛四斗). 불보살이 열반에 들고 남긴 사리의 수를 나타내는 일반적 인 말이다. “부처님 또한 이와 같으셨으니, 열반에 드실 때 중생을 구제할 목적으로 몸을 잘게 부수어 생긴 ‘8곡 4두의 사리’로 중생에게 이익을 주셨다. 비록 그 크기는 개자와 같이 미소하였지만 그것을 모신 곳에서 사람들에게 부처님과 닮은 공양을 받아 중생들로 하여금 열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大莊嚴論經』 권15 大4 p.347c17. 佛亦如是, 入涅槃時, 爲濟衆生故, 碎身舍利, 八斛四斗, 利

을 받았던 당시에 앞뒤로 견줄 상대가 없는 한 구절을 제대로 말한 것과 비교하겠는가!”

雲居會裏，有一僧，在山下卓庵，經于數載。師一日，令僧持袴一腰，往庵中與他。庵主云，“某甲自有孃生袴在。”僧廻舉似師。師云，“你何不問伊，‘祇如孃未生時，着箇什麼?’”其僧再去問，庵主無語。後來庵主遷化，却有五色舍利。師云，“縱有八斛四斗，爭如當時，道得一句，光前絕後!”

[설화]

고쟁이 한 벌을 건네주도록 한 것 : 옛날부터 전해진 것을 주어 봄으로써 그가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저에게는 ~ 고쟁이가 있습니다 : 단지 본분만 지킬 뿐이라는 뜻이다.

어머니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는 무엇을 입고 있었는가 : 아무렇게나 따져본 말이다.

아무 대꾸도 없었다 : 단지 천 길의 겨울 소나무³⁾만 있을 뿐 새 가지를 틔울 식순은 없었다.⁴⁾

내 질문을 받았던 당시에 ~ 비교하겠는가 : 단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다는

益衆生。所碎舍利，雖復微小，如芥子等，所至之處，人所供養，與佛無異，能使衆生，得於涅槃。)

3) 한송(寒松). 추운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 보통 굳은 절개를 나타내는 비유로 쓰인다. 여기서는 암주가 오로지 본분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은 입장을 나타낸다.

4) 확고하게 본분만 지킬 뿐 현상에 응하여 활발하게 드러내는 작용이 없다는 뜻. 『景德傳燈錄』 권10 「長沙景岑傳」大51 p.275b9 등에 나오는 구절.

뜻이다.

持袴云云者, 從上來相傳相授地, 看他受不受也. 某甲自有云云者, 只守本分也. 孃未生云云者, 亂徵也. 無語者, 只有千尺寒松, 且無抽條石笋也. 爭如云云者, 只知其一, 不知其二也.

개원자기(開元子琦)의 거

“말해 보라! 암주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만일 알았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한 구절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며, 만일 몰랐더라도 또한 오색 사리를 남긴 것에는 중생과 다른 점이 있다. 여러분은 그 뜻을 알고 싶은가? 암주는 당시에 한 손바닥만으로는 소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격이었으며,⁵⁾ 운거도 가난한 사람이 오래 묵은 빛에 시달려 걱정하는 꼴이었다.⁶⁾ 그 제자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닳아버린 짚신이 적지 않았다.” 말을 마치고 선상을 쳤다.

5) 양손이 모두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본분만 고수하고 활용이 결여되면 바른 면모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6)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관념에 매달려 벗어나지 못한다는 뜻. 운거가 본분에 매여 있는 암주가 눈앞의 현실인 금시(今時)에 어둡다고 생각한 것은 선가에서 대대로 이어져 온 하나의 관념에 따른다고 비판한 말이다. “문수와 보현 두 보살이 부처에 대한 견해와 법에 대한 견해를 일으키자<가난한 사람이 오래 묵은 빛에 시달려 걱정하는구나. 집안이 쇠락하면 빈궁한 조짐들이 나타나는 법이다>, 부처님께 서 신통력으로 그들을 거두어 두 철위산 중간으로 던졌다.”(『希叟廣錄』 권5 卍122 p.264b9. 文殊普賢, 起佛見法見<貧兒思舊債, 家衰窮相現>, 世尊, 以神力, 攝向二鐵圍山.)

開元琦，舉此話云，“且道！庵主會不會？若會去，又不能道得未後一句；若不會，又有五色舍利，與衆有殊。諸人要知麼？庵主當時，獨掌不浪鳴，雲居也是貧兒思舊債。這箇師僧，來來去去，踏破草鞋也不少。”擊繩床。

[설화]

암주는 알았을까 ~ 닳아버린 짚신이 적지 않았다 : 만일 몰랐다면 비단 암주뿐만 아니라 운거 또한 몰랐을 것이며, 알았다면 비단 운거뿐만 아니라 암주 또한 알았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 제자는 한편이 이기고 다른 한편은 진 것으로만 알았을 뿐 득실이 없는 경지는 몰랐다.⁷⁾

開元：庵主會不會云云者，若也不會，非但庵主，雲居亦不會；若也會，非但雲居，庵主亦會去。這僧只知有得失，不知無得失也。

정자본의 대어

암주를 대신하여 말했다. “내가 한 말을 되돌려주소.”⁸⁾

淨慈本，代云，“還我話頭來。”

7) 암주가 지고[失] 운거가 이겼다[得]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이긴 편도 진 편도 없는 경계에서 운거와 암주가 선기(禪機)를 주고받았고 그 제자는 운거가 비판하는 듯이 한 말에 현혹당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연히 짚신만 여러 켤레 닳아버렸을 뿐이라는 말이다.

8)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입던 고쟁이가 있다’라고 한 말을 오해하여 이리저리니 잘못 말하지 말고 자신이 본래 가지고 있던 취지 그대로 놓아두라는 뜻이다.

[설화]

정자의 대어 :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던 암주를 대신하여 한 말이니, 오로지 본분을 지키는 일에만 철저할 뿐이라는 뜻이다.

淨慈 : 代無語處也, 則只守本分徹底也.



883책 曹山變異 조산변이



883칙 조산변이 曹山變異

[본칙]

조산이 동산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동산이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변함이 없는 곳으로 가려 합니다.” “변함이 없는 곳에 어찌 가는 것이 있겠는가?” 이에 조산이 “가더라도 변함이 없습니다”라 말하고 마침내 인사하고 떠났다.

曹山辭洞山，山云，“子向什麼處去？”師云，“不變異處去。”洞山云，“不變異處，豈有去耶？”師云，“去亦無變異。”遂辭去。

[설화]

변함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변함이 없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첫째는 사람마다 모두 본분사를 가지고 있다는 진실이고, 둘째는 본분사가 있는 줄 아는 사람(본분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소리와 색(일체의 현상) 그리고 시비를 버리지 않으면서 사물 하나하나에 막히지도 않는다. 그들을 가리켜 모든 곳에서 변함이 없다고 하며, 털옷을 입고 뿔을 달았다고도 하고,¹⁾ 정처 없이 여행하는 사람이라고도 한다. 가

1) 피모대각(披毛戴角). 여섯 가지 윤회의 길[六途輪廻] 중 축생(畜生)을 나타낸다. 인간에서 축생에 떨어져서도 중생제도의 뜻을 버리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나타낸다. 조산본적의 삼종타(三種墮) 중 하나이다. “고덕(조산)의 삼종타

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말은 모든 사물 경계에서 막힘없이 움직이며 변화한다는 뜻이다.

不變異者，不變異處有二種，一者，人人盡有本分事也，二者，知有地人，不捨一切聲色是非，於物物上不滯。呼爲一切處不變異，亦喚作披毛戴角，亦喚作行李地漢也。去亦無變異者，於一切物物上轉無滯也。

단하자순(丹霞子淳)의 송

집집마다 밤 깊어 문을 닫았는데 달빛은 가득 비치고,
곳곳마다 피꼬리 울고 버드나무는 바람에 하늘거리네.
만일 중흥 그 어디로 가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칼을 내던져 허공에 상처를 내고자 하는 것과 같으리.²⁾

丹霞淳頌，“家家門掩蟾蜍月，處處鶯啼楊柳風。若謂縱橫無變異，猶如擲劍擬揮空。”

에 붙이는 계승. 첫째 털옷을 입고 뿔을 달고 축생으로 태어나 해골을 따라 자유 자재하다: 뿔은 진흙과 먼지로 얼룩이 졌으나, 분명하게 이 몸(본래면목)을 드러냈도다. 초록빛 수양버들과 향기로운 풀이 우거진 언덕, 그 어디에선들 존귀하다는 칭송을 받지 않으리요!”(『人天眼目』 권3 大48 p.318c14. 古德三種墮頌. 一, 披毛戴角, 隨體自在: 頭角混泥塵, 分明露此身. 綠楊芳草岸, 何處不稱尊!)

2) 반산보적(盤山寶積)의 말. 『禪門拈頌說話』 251則 참조.

[설화]

소리와 색을 벗어나서 별도로 자취가 없는 경계를 찾는다면 자취가 없는 경계에 걸려 뒤집힐 뿐이기 때문에 이처럼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소리와 색 그 안에 앉거나 눕고, 소리와 색 그 안에서 잠을 잘 수도 있어야 한다. 중횡이란 중횡 그 어느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간다는 뜻이다.

丹霞：聲色外，別討無蹤迹處，則只向無蹤迹處著倒，故云云也。然則聲色裏坐臥，聲色裏睡眠，始得也。縱橫者，縱橫而去也。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엄

“모름지기 납승이라면 팔꿈치 아래에는 호신부³⁾를 차고 정수리에는 진리를 꿰뚫어 보는 눈을 갖추고서 마주치는 모든 경계와 인연을 정면에서 짓눌러 버릴 것이니, 이것이 어찌 변함이 없는 경지가 아니겠는가!⁴⁾ 왜 그

3) 주부(肘符). 팔꿈치 아래 곧 옆구리에 차는 호신부(護身符). ‘부’는 샅된 기운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목적으로 몸에 지니는 부적 곧 호신부를 말한다. 주후부(肘後符)라고도 한다. 납승으로서 확고한 증거가 되는 심인(心印)이며, 누구의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납승으로서의 근거를 이것에 비유한다. 또는 부역(賦役)을 면제 받는 승도(僧徒)로서의 증명서가 되는 도첩(度牒)을 가리키기도 한다.

4) 원오가 ‘호신부’와 ‘정수리의 눈’을 납승의 조건으로 내세운 예는 그 어록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대체로 중지를 떠받치고 가르침의 방편을 세우려면 반드시 정수리에 진리를 보는 눈을 붙이고 팔꿈치 아래 호신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저 두 노숙(老宿)의 기틀을 살펴보면 중횡으로 걸림 없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나타났다 사라지고 거두었다 펼치며 자유자재하니 이 얼마나 기특한 솜씨인가! 그러나 자세히 점검해 보면 여전히 마디 밖에서 가지가 자라난 것처럼 본래의 일 밖에서 사단을 일으킨 격이다.”(『圓悟語錄』 권3 大47 p.725c24. 大凡扶宗立教，須是頂門上具眼，肘臂下有符。看他二老宿，縱橫殺活，出沒卷舒，甚生奇特！子細點檢將來，猶是節外生枝.)；“원오의 엄(拈). 현상을 빌려서 본래의 기틀을 밝

런가? 금강의 정체는 고요하고 편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산은 비록 뜻을 터득하기는 했지만, 자식을 가엾게 여겨 친절하게 가르치다가 자신이 초라하게 되는 것⁵⁾을 몰랐던 동산의 처지는 어찌랴! 만약 나였다면 그가 ‘변함이 없는 곳으로 가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이놈아! 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벌써 변해버렸다’⁶⁾라고 말해 주었으리라.”

將山勤拈, “大凡衲僧, 佩肘臂下符, 具頂門上眼, 向一切萬境萬緣, 當頭坐斷, 豈不是箇無變異! 何故? 金剛正體, 湛寂凝然. 曹山雖得此意, 爭奈洞山憐兒不覺醜! 若是山僧, 待他道, ‘向不變異處去.’ 只向他道, ‘者漢! 未出門早變了也.’”

[설화]

‘문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벌써 변해버렸다’라고 한 말은 고요하고 편안한 경계도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히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무엇인가를 불러낸다. 이는 대체로 남승의 팔꿈치 아래에는 호신부를 달고 정수리에는 진리를 보는 눈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拈八方珠玉集』 卍119 p.279b6. 佛果拈云, 借事明機, 無中唱出. 蓋是衲僧, 肘臂下有符, 頂門上具眼.)

- 5) 연아불각추(憐兒不覺醜). 학인을 가르치기 위해 본분을 고수하지 않고 방편을 펼치기 위해 낮은 단계로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초라하게 또는 추하게 된다는 말은 본래의 모습을 잃을 정도로 상대의 말을 그대로 허용하는 방식을 비유한다. 물과 진흙을 묻히며 온몸을 더럽힌다는 타니대수(拖泥帶水)와 같은 뜻이다. 여기서는 동산이 조산의 말을 본분의 입장에서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하는 형식으로 응한 것을 가리킨다. “자식을 가엾이 여기다가 자신이 추하게 되는 것을 모른다.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법대로만 시행하면 살아 남을 백성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雲峰語錄』 古尊宿語錄40 卍118 p.686a7. 憐兒不覺醜. 然雖如是, 盡法無民.)
- 6) 원오는 동산과 달리 조산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허용하지 않는 파주(把住)의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蔣山云云, 未出門早變了也者, 湛寂凝然, 亦不立也.

원오극근의 거

“몸소 궁극적 경지를 밟아보지⁷⁾ 않고서야 어떻게 이와 같이 깊숙이 꿰뚫을 수 있었겠으며, 이 어찌 언어나 기지(機智)에 찬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대상이겠는가! 체험이 깊고 지극하여 번뇌가 없는 지위에 도달한 다음에는 어떤 속박의 틀로도 묶어두지 못한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뜻을 확고히 세우고 나서 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생사를 하나로 여기고, 옛날과 오늘날을 하나로 뒤섞으며, 가고 오는 작용을 모두 끊은 뒤에 반드시 뛰어난 종사에 의지하여 진제(眞諦)의 알차고 깊은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자기 자신을 잘 가려서 분별의 뿌리를 뽑아내어 이슬처럼 깨끗하게 하고, 번뇌의 인연에 떨어질 실오라기 하나만큼의 생각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그 자리에서 마음이 고목이나 썩은 그루터기처럼 되고, 마치 약간의 호흡도 붙어 있지 않은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아야 한다. 마음마다 알음알이가 없고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도 머무르지 않으며, 무수한 성인이 나타나더라도 바꾸지 못하는 확고한 경지가 되어야 비로소 고목에서 꽃이 피듯이 온전한 기틀[大機]을 발휘하고 근본적인 작용[大用]을 일으키며⁸⁾ 자비심을 일깨워 운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애써 공을 들이지 않고

7) 답착실지(踏着實地). 본서 553則 주석21) 참조.

8) 대기대용(大機大用). 속박을 벗어나 활발하게 드러나는 ‘근본적인 작용’을 말한다. 사유분별에 의지하여 대상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낱낱의 언행이 상황에 따라 빈틈없이 본분과 일치되어 발휘되는 작용을 말한다. 대체로 마조(馬祖)로부터 시작되어 임제(臨濟)에서 완성된 선풍(禪風)이라고 본다. 대기와 대용을 구별하는 경우 대기는 본래 기틀로서의 본심·법체(法體) 또는 근본을 깨달은 경지, 대용은 그것을 밖으로 활발하게 응용하는 다양한 작용을 말한다.

도 이루어지는 공이고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행위이니, 어찌 득실과 시비의 차별에 떨어지겠는가! 털끝만큼의 생각이라도 남기는 순간 생사의 세계와 부딪치게 되어 자기 자신도 제도할 수 없거늘 어떻게 남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 유마대사⁹⁾는 금속여래(金粟如來)¹⁰⁾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술집과 기방을 드나들면서도 대해탈의 불사(佛事)를 이루었고, 방노자(龐老子)는 보처보살(補處菩薩)¹¹⁾의 응신(應身)이면서도 도술천에 머물지 않고 진기한 보배를 버리고 한강¹²⁾에서 조리를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¹³⁾ 대중사들과 함께 주거니 빼앗거니 대결하며 종지를 드날렸다. 본분사¹⁴⁾에 대한 대대로 이어지는 체제는 모두 이와 같지 않은 예가 없었으니, 반드시 물방울이 떨어지자마자 방울 그대로 얼어붙듯이¹⁵⁾ 한다

9) 大士, 보살(菩薩)의 다른 명칭. ㉔mahāsattva는 마하살타(摩訶薩埵) 또는 마하살(摩訶薩)로 음사하는데, 이는 보살과 같은 뜻이며 보통은 두 가지를 엮어서 보살마하살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마하살타가 ‘대사’로 한역될 경우 보살은 개사(開士)로 한역하여 구별하기도 하지만 보살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10) 유마거사의 전신(前身). 유마거사는 과거세에 성불하여 금속여래가 되었다. 과거세에 이미 성불하였지만 중생 제도를 위하여 보살의 몸을 나타내었다는 일반적인 설에 따른다. 『維摩經玄疏』 권4 大38 p.546c12, 『維摩經略疏』 권3 大38 p.597c26, 『淨名玄論』 권2 大38 p.866b6 참조.

11) 앞의 부처가 입멸한 다음 성불하여 그 자리를 잇는 보살. 미륵(彌勒)이 석가여래(釋迦如來)의 보처보살인 것과 같다.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성불한다는 뜻에서 일생보처(一生補處)라 한다. 그 지위는 등각(等覺)이다.

12) 漢江, 장강(長江) 중 가장 긴 지류(支流).

13) 방거사와 그 딸인 영조(靈照)의 일화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영조가 조리를 팔아 아버지를 봉양했다고 한다. 『禪門拈頌說話』 316則 참조.

14) 차단(此段), 본분사(本分事) 또는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과 같은 말이다. 원오가 즐겨 쓰는 말이다. 대혜종고(大慧宗杲)가 차단대사인연(此段大事因緣)이라 한 말과 같다.

15) 적수적동(滴水滴凍), 간발의 틈도 없는 것을 비유한다. 빈틈없이 궁구하거나 마

면, 귀천¹⁶⁾에 구애되지 않고 어느 신분에서나 도야하고 단련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산과 유마힐과 방거사의 경지가 되어야 비원¹⁷⁾을 버리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어찌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 나머지 인간세상에 어지럽게 널린 흙먼지와 같은 사례들이야 어찌 가슴에 품을 가치가 있겠는가!”

又舉此話云, “自非踏着實地, 安能透徹如此, 豈以語言機思所可測量哉! 盖履踐深極, 到無滲漏之地, 然後, 羅籠不住. 學道之士立志, 外形骸一死生, 混古今絕去來, 要須攀上流, 造詣至真諦, 實淵奧閭域, 打辦自己, 拔白露淨, 無絲毫意想, 墮在塵然.¹⁸⁾ 直下心如枯木朽株, 如大死人, 無些氣息. 心心無知, 念念無住, 千聖出來, 移換不得, 乃可以向枯木上生花, 發大機起大用, 興慈運悲, 乃無功之功, 無作之作, 豈落得失是非哉! 纔留一毫毛, 則抵牾於生死界, 自己未能度, 安可度人! 維摩大士, 不住金粟位, 入酒肆姪坊, 作大解脫佛事. 龐老子, 補處應

음을 쓰는 것을 나타낸다. 이 법문의 주인공 원오가 그 어록에서 쓴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하물며 본분사가 선지식 편에 있으면 계속 남아 있고 평범한 사람 편에 있으면 결국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잠시만 없어도 죽은 사람과 같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본을 세워 그 모양에 따라 그려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비록 평상대로 생활하면서도 물방울이 떨어지자마자 방울 그대로 얼어붙는 것처럼 빈틈없이 분별심[識]을 단번에 끊어버린다면, 무위·무사·무심의 사업을 성취하여 결과 속이 분명하게 한계가 없어져서 어떤 존재와도 짝이 되지 않고 어떤 성인과도 같은 길을 가지 않게 될 것이다.”(『圓悟語錄』 권15 大47 p.782c14. 況此段事不道, 在善知識邊便有, 居鄉井時便無也! 所謂暫時不在, 如同死人, 正當在時, 亦不起模畫樣. 雖則平常, 而滴水滴凍, 卓然絕識, 或箇無爲無事無心事業, 表裏洞然無際, 不與萬法爲侶, 不與千聖同途.)

16) 조야(朝野). 원래는 조정과 민간을 가리킨다.

17) 비願.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큰 자비심에서 일으키는 서원(誓願)을 말한다. 대비원력(大悲願力)과 같다.

18) 『圓悟語錄』 권16 大47 p.787b21 등에 따라 ‘然’은 ‘緣’자로 교정한다.

身，不住兜率陀，棄却珍寶，漢江織苧¹⁹⁾籬，與大宗師，擊揚與奪。此段從上體裁，莫不皆爾。要須滴水滴凍，不拘朝野，陶冶煅煉。如曹山摩詰老龐，乃可以不癡悲願，不亦宜乎！自餘人間世，紛紜塵塗，何足致胸次哉！”

[설화]

증득(證得)과 교화(教化)를 밝힌 것이다.

귀천에 구애되지 않고 : 안의 마음이나 밖의 법에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又：明證化也。不拘朝野云云者，不被内外心法使殺也。

자항요박(慈航了朴)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훌륭한 형제들이여! 변함이 없는 도리를 안다면 사는 모습도 한결같이 그러한 법이다. 모름지기 이쪽과 저쪽 그 어디서 응용해도 모자람이 없고, (이쪽과 저쪽이) 서로 의지하며 자유롭게 자리를 바꿀 수 있어야 조사의 혈맥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慈航朴，上堂，舉此話云，“好兄弟！知不變異，住亦如然。須信者邊那邊，應用不缺，回互傍來，血脈不斷。”

[설화]

이 또한 증득과 교화를 밝힌 것이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증득이고, 모든

19) ‘苧’는 ‘策’가 맞다.

곳으로 가는 것은 교화를 행하는 것이다. 또한 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주·좌·외에 이르기까지 어떤 위에도 빈틈과 끊어짐이 없다는 뜻이다.

모름지기 ~ 알아야 한다 : 편위(偏位)와 정위(正位)가 서로 의지하며 자리를 바꾼다²⁰⁾는 뜻이다.

慈航：此亦明證化也。不變異故證，一切處去行化也。又非但去，行住坐臥，無有間斷也。須信云云者，偏正回互也。

20) 편정호회(偏正互回). 차별의 편위[無變異]와 무차별의 정위[一切處去]가 서로 걸림 없이 자리를 바꾸며 본질을 드러내는 것. 편위와 정위는 조동종(曹洞宗) 오위설(五位說)의 두 축이다.



890칙 曹山泉州 조산천주



890칙 조산천주 曹山泉州

[본칙]

어떤 학인(청예)이 조산에게 물었다. “청예¹⁾는 외롭고 가난하니 스님께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산이 “예사리,²⁾ 가까이 오라!”고 하자 청예가 가까이 다가섰다. 조산이 말했다. “천주³⁾ 지방 백(白)씨 집의 술 석 잔을 마셔 놓고 입술도 축이지 않았다고 말하는구나.”

曹山因僧問, “清銳孤貧, 乞師拯濟.” 師云, “銳闍梨, 近前來!” 僧近前. 師云, “泉州白家酒三盞, 猶道未沾唇.”

[설화]

외롭고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부친이 없는 것을 외롭다[孤]고 하며,⁴⁾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貧]고 한다. 곧 자기 집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⁵⁾ 타향에서 떠도는 것을

1) 清銳. 청세(淸稅)라고도 한다.

2) 闍梨. 아사리(阿闍梨 ācārya)의 줄임말. 제자를 가르칠 수 있고, 행실이 단정하여 자기 자신이 제자의 모범이 될 자격이 있는 스승을 말한다. 선문헌에서는 일반적인 승(僧)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와 같이 주로 스승이 제자나 손아래 스님을 존칭하는 말로 쓰인다.

3) 泉州. 일설에는 청원(淸原)이라고도 한다.

4)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은 자를 ‘고’라 한다.”(『禮記』「王制」, 少而無父者, 謂之孤.)

비유한다. ‘예사리, 가까이 오라’고 하고, 다시 ‘천주 지방 백씨 집’이라 운운한 것은 청예가 느릿하고 여유롭게 많은 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백씨 집의 독한 술을 마셔 놓고도 취중에 여전히 아직 입술도 축이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⁶⁾ 곧 그렇게 (청예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와 같이 (조산의) 말에 따라 가까이 다가온 것인데, 그것은 바로 ‘입술도 축이지 않았다’라고 한 말과 같다는 뜻이다.⁷⁾ 그러나 누구든 조산의 본래 뜻을 모른다면 흑산⁸⁾ 아래서 살림살이를 도모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孤貧者，無父曰孤，無財曰貧，則自家寶藏不顧，拋家散走，流落他鄉也。銳闍梨近前來，又泉州白家云云者，略略綽綽思大口，醇醇醺醺白家酒，醉中猶道未沾唇也。則伊麼近前來時，如是隨言近前，是猶道未沾唇也。雖然，未知曹山意，則未免黑山下作活計也。

-
- 5) 마조(馬祖)가 대주혜해(大珠慧海)에게 들려준 말이다. “마조가 대주에게 말했다. ‘어디서 오는가?’ ‘월주의 대운사에서 옵니다.’ ‘여기에 온 것은 무엇을 하고 자 해서인가?’ ‘불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집의 보물 창고는 돌아보지 않고, 집을 버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무엇 하겠는가? 내가 있는 이곳에는 아무 것도 없는데,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이냐!’”(『景德傳燈錄』 권5 大51 p.246c10. 祖問曰, ‘從何處來?’ 曰, ‘越州大雲寺來.’ 祖曰, ‘來此擬須何事?’ 曰, ‘來求佛法.’ 祖曰, ‘自家寶藏不顧, 拋家散走, 作什麼? 我遮裏一物也無, 求什麼佛法!’)
- 6) 대화를 하려고 했지만 무엇에 취한 줄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하여 말할 상대가 못 된다는 평가이다.
- 7) 평지정각(宏智正覺)의 말이다. 『宏智廣錄』 권4 大48 p.43a10.
- 8) 黑山. 분별에 사로잡혀 활발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흑산의 시커먼 굴에 떨어져 사는 것에 비유한 말. 『俱舍論』 권11 「分別世品」 大29 p.58a18에 따르면 남섬부주(南瞻部洲) 북쪽 세 곳에 각각 세 겹의 흑산, 즉 모두 합쳐 아홉 개의 흑산이 있는데, 이곳은 매우 어두우며 악귀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백운지병(白雲知晷)의 송

집 가득 채운 황금은 가까이하려 들지 않고,
아! 스스로 외롭고 가난함을 한탄하며 감수하네.
까닭도 없이 석 잔의 술을 마셔 놓고는,
취한 뒤 흐트러져 몹시도 남들의 비웃음을 사네.

白雲晷頌, “滿屋黃金不肯親, 吁嗟甘自怨孤貧. 無端更飲三盃酒, 醉後郎當笑殺人.”

[설화]

앞의 두 구절은 청예가 미혹된 상태를 나타내고, 뒤의 두 구절은 그가 조산이 한 말에 대하여 오인했음을 말한다.

白雲：前二句，言這僧迷時也。後二句，言又向曹山言句裏認着也。

육왕개심(育王介謚)의 송

가없다, 청예는 대단히 외롭고 가난하여라!
백씨네 술 석 잔이 입술에 닿지도 않았네.
고향의 풍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홀로 깨어 있는 사람⁹⁾을 등져서는 안 되노라.

9) 독성인(獨醒人), 모두가 취했지만 홀로 깨어 있는 사람. 본래 굴원(屈原)이 스스로를 가리켰던 말로서, 유속(流俗)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다. “세상 사람 모두 흐린데 나 홀로 맑고, 못 사람이 모두 취했지만 나 홀로 깨어 있노라.”(『楚辭』「漁父」, 世人皆濁, 我獨清; 衆人皆醉, 我獨

育王謹頌, “可憐清銳大孤貧! 白酒三杯未入唇. 趁取故園風物在, 不須辜負獨醒人.”

[설화]

고향의 풍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 본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홀로 깨어 있는 사람을 등져서는 안 되노라 : 술 마시지 않고 홀로 깨어 있는 것이 등지는 것이라는 뜻이다.

育王: 趁取云云者, 返本還源也. 不須云云者, 不飲獨醒, 是辜負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별어¹⁰⁾

예사리가 ‘예!’ 하고 응답한 것에 대하여, “그 말의 속뜻¹¹⁾은 무엇입니까?”라고 별도로 응답했다.

雪竇顯別, 銳闍梨應喏, “是什麼心行?”

[설화]

“예!” 하고 응답했을 때, 소의 머리를 눌러 억지로 여물을 먹이는 격이

醒.); “스스로 말하기를 한 척의 배 맑은 물가에 매어두고 기다렸건만, 홀로 깨어 있는 사람은 만난 적 없다고 하네.”(杜牧「贈漁父」, 自說孤舟寒水畔, 不曾逢著獨醒人.)

- 10) 別語, 다른 선사들이 나눈 문답 중에서 이미 대답한 내용과는 별도로 자신의 견해로 대답하는 것. 그 질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대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해진 문답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선기(禪機)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精選 선어록』 백운어록 주석¹³⁷⁾ 참조.

- 11) 심행(心行), 본서 780則 주석¹⁰⁾ 참조.

었다는 뜻이다.

雪竇：當應諾時，按牛頭喫草也.

현각의 징¹²⁾

“도대체 학인에게 술을 먹도록 한 것은 어떤 부분일까?”

玄覺徵，“什麼處是與他酒喫?”

[설화]

조산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¹³⁾

玄覺：先師無此語也.

송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예사리는 벽돌을 버리고 옥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굵지 않은 젖은 벽돌과 바꾸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조산은 비록 법을 물어온 학인(청예)의 뜻을 잘 가려냈지만 애석하게도 그에게 한결같은 본분의 식량을 주어 지금까지 흑산에서 살림살이를 하

12) 徵. 공안의 문답에 대하여 그 본래의 취지를 따지며 묻는 형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

13) 조산이 그렇게 한 말도 참구해야 할 관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불감선사가 야참(夜參) 때 조주의 백수자(柏樹子) 화두를 들면서 각철자가 ‘조주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니 조주를 비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한 대목에 이르러 근본적 의심을 일으켜 이 화두를 들고 공부하다가 어느 날 활연히 타파했다.”(『五燈會元』 권19 「文殊心道章」 卍138 p.770b18. 聞佛鑑禪師夜參，舉趙州柏樹子話，至覺鐵嘴云，‘先師無此語，莫謗先師好.’ 因大疑，提撕既久，一夕豁然.)

지 않도록은 못했다.

松源, 上堂, 舉此話云, “銳闍梨拋埽引玉, 不知換得个整子.
曹山雖來風深辨, 可惜不一等與他本分草料, 免致今時向黑山
下作活計.”

[설화]

벽돌을 버리고 ~ 모르고 있었다 : 조산이 청예를 잘못 지도하여 그가 귀신의
굴속에서 살림살이를 하게 되었다¹⁴⁾는 말이다. 곧 만일 그에게 본분의 식
량을 주었다라면 송원에게 점검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松源：拋埽云云者，曹山誤他，這僧鬼窟裏作活計。若與他本
分草料，免被松源點檢也。

14) ‘귀신의 굴’이란 뜻의 귀굴리(鬼窟裏)는 흑산과 유사한 말이며, 그 속에서 살림
살이를 한다는 말은 분별로 헤아려 알아맞히려는 시도를 뜻한다.



892칙 曹山兎角 조산토각



892칙 조산토각 曹山兎角¹⁾

[본칙]

조산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구절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구절은 무슨 뜻입니까?” “토끼의 뿔이 굳이 없다고 할 필요도 없고, 소의 뿔이 굳이 있다고 할 필요도 없다.”²⁾

曹山因僧問, “卽心卽佛, 卽不問, 如何是非心非佛?” 師云, “兎角不用無, 牛角不用有.”

[설화]

토끼의 뿔은 본래 없으니 없다고 할 필요도 없고, 소의 뿔은 본래 있으니 있다고 할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있다거나 없다거나 모두 내세우지 않

- 1) 토끼의 뿔이 있거나[有], 소의 뿔이 없거나[無] 어느 편도 옳지 않고 어느 편도 옳다는 안목을 마조도일(馬祖道一) 이래로 제기되어 온 즉심즉불(卽心卽佛)과 비심비불(非心非佛)의 화두에 적용하여 두 가지 모두 굳게 닫힌 관문으로 전환시켰다.
- 2) 즉심즉불과 비심비불을 처음으로 제기한 마조도일(馬祖道一)의 공안에 대한 초당선청(草堂善淸)의 계승에도 이 비유를 역으로 활용한 예가 보인다. “토끼의 뿔이 애써 있다고 할 필요도 없고, 소의 뿔이 애써 없다고 할 필요도 없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모두 옳지 않으니, 아득히 퍼지는 향기가 길에 가득하구나.”(『頌古聯珠通集』 권9 卍115 p.99a4. 兎角不用有, 牛角不用無. 有無不是處, 馨香滿道途.)

는다는 뜻일까? 토끼의 뿔은 없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없다고 말하고, 소의 뿔은 있다고 할 필요가 없는데 다시 있다고 말한다는 뜻이다. 마음이 곧 부처라는 말은 다만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일 뿐이고,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말은 다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뜻일 뿐이다.

兔角是無，不用無；牛角是有，不用有。則有無俱不立耶？兔角無不用，更言無；牛角有不用，更言有。則卽心卽佛，但卽心卽佛；非心非佛，但非心非佛也。

심문답분(心聞曇分)의 염

“조산은 넘치도록 하지도 않았고 모자라도록 하지도 않았으니 양편에 모두 공평했다고 할 만하다. 그러나 격을 벗어난 구절이 되지는 못했다. 격을 벗어난 구절을 알고자 하는가? 홀로 서서 모든 것을 벗어나니 함께 할 짝이 없고, 온몸에 오고간 자취를 드러내지 않는다.”

心聞曇拈云，“曹山，不教剩不教欠，可謂兩平。然則未是出格句。要識出格句麼？獨立超然無伴侶，通身不顯去來蹤。”

[설화]

조산의 견해는 비록 모자라거나 넘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자취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心聞：曹山地，雖然不教欠剩，猶有蹤迹在。



911칙 白水聲前 백수성전



911칙 백수성전 白水聲前

[본칙]

고안의 백수본인선사가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노승은 평소에 소리가 나기 이전의 경지이건 말로 드러낸 다음의 경계이건 그 어디에서나 선량한 보통 사람들을 우롱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까닭인가? 소리는 소리가 아니요 색은 색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소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소리를 색이라 불러도 될까?”¹⁾ “색은 색이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색을 소리라 불러도 될까?” 이에 그 학인이 절을 올리자 백수가 말했다. “말해 보라! 내가 그대에게 설명해 주었는가? 그대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는가? 누구든 이 질문을 바르게 가려낸다면 그에게 깨달은 점이 있다고 인정해 주리라.”

高安, 白水本仁禪師, 上堂云, “老僧尋常, 不欲向聲前句後, 鼓弄人家男女. 何故? 且聲不是聲, 色不是色.” 時, 有僧問, “如何是聲不是聲?” 師云, “喚作色得麼?” 僧云, “如何是色不是色?” 師云, “喚作聲得麼?” 僧作禮, 師云, “且道! 爲汝說? 答汝話? 若人辨得, 許你有箇入處.”

1) 부정적 의문이다. 곧 소리는 소리라고만 불러야 한다는 뜻이다.

[설화]

이 문답에서 소리와 색[聲色]이란, 말이라는 소리와 글자라는 색을 가리킨다.

소리가 나기 이전의 경지이건 말로 드러낸 다음의 경계이건 그 어디에서나 : 소리나 색으로 드러나기 전도 아니고, 소리나 색으로 드러난 후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²⁾ 마치 꽃 앞에서 달빛을 즐기는 것과 같다.

우롱하고 싶지 않았다 : 언어의 상을 벗어나고 문자의 상도 벗어나³⁾ 소리나 색으로 드러나기 전의 경계에서 학인들을 가르친다⁴⁾는 뜻이다.

‘소리를 색이라 불러도 될까’, ‘색을 소리라 불러도 될까’라고 한 말 : 소리는 소리고 색은 색이라는 말이니, 이전부터 대중에게 설법한 내용이 소리와 색을 벗어나서 별도로 소리와 색이 아닌 경계를 취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보거나 듣는 것 그대로가 바로 보거나 듣는 것이 아니며, 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소리와 색은 없다는 뜻이다.

2) 이것은 어떤 말을 붙여도 해설할 수 없는 화두로 제시된 것이다. 위산영우(滄山靈祐)에게 이와 유사한 화두가 있다. “우뚝하게 분명히 드러나 있고, 휘황찬란하게 빛나는구나. 소리가 나기 이전에는 소리가 아니고 색이 나타난 다음에는 색이 아니다. 모기가 무쇠소에 올라탄 것과 같아서 누구건 부리를 콧을 콧이 전혀 없다.”(『滄山語錄』大47 p.578a2, 巍巍堂堂, 煒煒煌煌. 聲前非聲, 色後非色, 蚊子上鐵牛, 無汝下嘴處.)

3) 대혜종고(大慧宗杲)가 즐겨 쓰는 말이다. “불법의 미묘한 요체는 언설의 상을 벗어나고 문자의 상을 벗어나며 마음으로 헤아리는 상[心緣相]도 벗어나 있기에 유심(有心)으로도 구할 수 없고 무심(無心)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언어로도 이르지 못하고 침묵으로도 통할 수 없다.”(『大慧語錄』권5 大47 p.829b26. 佛法要妙, 離言說相, 離文字相, 離心緣相, 不可以有心求, 不可以無心得, 不可以語言造, 不可以寂默通.)

4) 접기(接機). ‘접’은 접견(接見) 또는 접득(接得)이라는 말로 학인을 만나서 가르치는 것, ‘기’는 학인들의 기틀 또는 근기를 나타낸다.

그대에게 설명해 주었는가 ~ 대답해 주었는가 : 설명으로 보면 이(理)도 설명했고 사(事)도 설명했으며, 대답으로 보면 분명하게 대답했다는 뜻이다. 소리는 단지 소리일 뿐이고 색은 단지 색일 뿐이라고 했으니 그대에게 설명해준 것이며, 소리와 색 그대로 소리와 색이 아니라고 했으니 그대에게 대답한 말이라는 뜻이다. 만일 소리와 색 그대로 소리와 색이 아니라는 도리를 안다면 깨달은 점이 있는 것이다.

此話聲色者，言聲字色也。聲前句後者，非聲色前頭，非聲色前後也。如花前月下也。不欲云云者，離言語相，離文字相，向聲色前頭接機也。喚作色得麼，喚作聲得麼者，聲是聲，色是色也，則從前示衆，非離聲色，別取非聲色也。卽此見聞非見聞，無餘聲色可呈君也。爲汝說云云者，說則說理說事，答則答斷也。聲但聲色但色，則爲汝說也，卽聲色而非聲色，則答汝話也。若也知得，卽聲色非聲色，有箇入處也。

단하자순(丹霞子淳)의 송

색은 색일 뿐이요 소리는 소리일 뿐이니,
 찌꼬리 우는 곳 무성한 버드나무 나부끼네.
 집집마다 대문 앞에 서울로 통하는 길 있고,
 삼도⁵⁾는 바다 위에 뜬 밝은 달 아래 비껴 있네.⁶⁾

5) 三島. 말 자체는 세 개의 섬이지만 신선(神仙)들이 산다는 봉래산(蓬萊山)·방장산(方丈山)·영주산(瀛洲山) 등 세 개의 산을 가리킨다. 이 산들이 바다에 위치하

丹霞淳頌, “色自色兮聲自聲, 新鶯啼處柳煙輕. 門門有路通京國, 三島斜橫海月明.”

[설화]

삼도는 바다 위에 뜬 밝은 달 아래 비껴 있네 : 지금 당면한 소리와 색에 몸을 숨길 곳이 있다는 뜻이다.⁷⁾

丹霞云云, 三島斜橫云云者, 當聲色有隱身處也.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

소리는 허에서 나오고 색은 무에서 발생하지만,
소리 이전과 말 생긴 다음의 경계 갈수록 모호하네.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 없거늘,
어떻게 이름 짓고 모양 본뜨리오!
분명하고 원만하게 응하지만 헤아릴 도리 없으니,
교묘하게 수단⁸⁾을 펼쳐도 말만 허비할 뿐이리라.
방에서 발휘되는 무생법인(無生法忍)⁹⁾이,

고 있으므로 섬이라 한다. 봉래산을 봉도(蓬島) 또는 봉래도(蓬萊島)라 하는 것과 같다. 신선의 경계[仙境]를 나타낸다.

6) 『虛堂集』 권4 卍124 p.570b16 참조.

7) 세상을 떠나 자신을 숨기고 사는 신선의 경계는 눈앞의 소리와 색을 벗어나 별도로 있지 않다는 말. 곧 신선이 은거하는 세계는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눈앞에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색 바로 그 속에 있다는 해설.

8) 노비(爐竈). 본서 1122則 주석5) 참조.

9) 방하무생인(棒下無生忍). 휘두르는 방에서 근본 진리[無生法忍]를 펼쳐 보인다는 말. ‘임기불양사(臨機不讓師)’와 짝을 이룬다. 본분의 기틀을 발휘할 상황에

길에 가득한 향기를 맡는 것과 견주어 어떠한가!¹⁰⁾

圓悟勤頌, “聲出虛色生無, 聲前句後轉塗糊. 聞不容髮, 安可名摸! 堂堂圓應沒鎚銖, 巧張爐鞴費分疎. 爭如棒下無生忍, 聞見馨香滿道塗!”

자항요박(慈航了朴)의 송

소리는 본래 색 아니고 색도 소리 아니니,
귀를 잡고 보고 눈을 붙이고 들으리라.
까닭도 없이 우롱하는 것이 아니요,
새 울고 꽃 떨어져 정감 절로 풍부해진 탓이라네.

慈航朴頌, “聲本非色色非聲, 把耳來看著眼聽. 不是等閑相弄, 鳥啼花落自多情.”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염

“백수의 말은 대단히 기이하구나! 요는 천상의 세계를 과분하게 관찰하

서는 상대가 스승이라고 해도 양보하지 않고 방을 휘두른다는 뜻이다. 스승과 제자를 차별하지 않는 준엄한 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남원이 풍혈에게 ‘남방의 한 방(棒)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풍혈이 ‘기특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한 다음 되물었다. ‘화상이 주석하시는 이곳의 한 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이 주장자를 집어 들고 말하였다. ‘방에 무생 법인이 있으니, 기틀에 임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않는다.’”(『南院語要』古尊宿語錄7 卍118 p.239b6. 問風穴, ‘南方一棒, 作麼商量?’ 穴云, ‘作奇特商量?’ 穴却問, ‘和尚此間一棒, 作麼商量?’ 師拈拄杖云, ‘棒下無生忍, 臨機不讓師.’)

- 10) 언어 이전의 지시 방편인 방(棒)과 어디에나 퍼져 있는 향기와 같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현상을 대비시켜 양자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긴장을 설정했다.

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미 소리가 나기 이전도 아니고 말로 드러낸 다음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雪竇顯拈, “本仁也甚奇怪! 要且, 貪觀天上. 旣非聲前句後, 且作麼生入?”

[설화]

소리와 색에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여기서는 (학인과의 문답은 제외하고) 다만 대중에게 전한 처음의 말만 제기하여 평가한 것이다.

雪竇: 聲色有什麼過. 此本, 但舉示衆也.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염

“본인화상은 선량한 보통 사람들을 우롱하기를 그칠 날이 없었구나. 이 미 ‘소리는 소리가 아니다’라 하고서는 어찌하여 ‘색이라 부르지도 못한다’고 하고, ‘색이 색이 아니다’라고 하고서는 어찌하여 ‘소리라 부르지도 못한다’고 한 것일까? 말해 보라! 나와 본인의 생각에 차이점이 있는가? 만일 이에 대하여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여지가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蔣山泉拈, “本仁和尚, 鼓弄人家男女, 未有了日在. 旣然聲不是聲, 如何不喚作色, 旣然色不是色, 如何不喚作聲? 你道! 蔣山與本仁同別? 若向遮裏會得, 亦許你有个入路.”

[설화]

본인화상은 ~ 그칠 날이 없었구나 : 소리와 색의 엮매임을 모두 뚫고 벗어났기 때문에 한 말이다. 소리가 소리가 아니라면 소리의 상(相)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며, 소리와 색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해도 무방하니, 또한 소리를 색이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그 다음의 말(색에 관한 것)도 이 뜻에 따른다. 본인은 소리와 색을 각각 긍정하는 입장이고, 장산은 소리와 색을 긍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에게 깨달음의 길에 들어설 여지가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이다 : 소리와 색으로 들어가지 않는 입장을 철저하게 견지해야 함을 나타낸 말이다.

蔣山：本仁至了日者，透出聲色故也。聲不是聲，則聲相不可得，聲色無二不妨，亦喚作色。下倣此。此師立聲色，蔣山不立聲色。亦許你有箇入路者，不入聲色處到底也。

대위회수(大滙懷秀)의 염

“본인은 단지 땅이 한없이 넓다는 것만 알았지 하늘이 헤아릴 수 없이 높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¹¹⁾ ‘소리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일까? 소리의 울림을 쫓아다니지 마라. ‘색은 색이 아니다’라고 한 말은 어떤 뜻일까? 푸르거나 노란 색깔을 쫓아다니지 마라. 다만 소리가 나기 이전의 경지와 말로 표현된 다음의 경계에서 모두 몸을 편안히 하는 도리를 찾기만 한다면 자연히 자신만의 독자적인 살림살이¹²⁾를 누리게 되리라.”

11) 소리와 색 이전의 경지만 알고, 그것이 다 드러난 경계는 몰랐다는 말. 천(千)과 백(百)은 만수(滿數)로 지극히 넓고 높다는 뜻을 형용하는 말이다.

12) 별유생애(別有生涯). 자신만의 고유한 살림살이. 별은 각자 또는 ‘격외(格外)의’·‘특별한’이란 뜻이고, 생애는 생활·생계·살림살이라는 뜻이다. 일생 동안 자신이 붙들고 살아야 하는, 자신만의 고유한 본분의 양식을 말한다. 즉, 스승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에 예속되지 않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기틀이나 수단을 뜻한다.

大瀉秀拈, “本仁, 祇知橫千, 不會堅百. 如何是聲不是聲? 莫逐音響. 如何是色不是色? 莫逐青黃. 且從但向聲前句後, 覓箇安身, 自然別有生涯.”

[설화]

‘소리는 소리가 아니다’라고 한 말은 ~ 푸르거나 노란 색깔을 쫓아다니지 마라 : 소리와 색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다만 소리가 나기 이전의 ~ 살림살이를 누리게 되리라 : 본인의 가르침에 따라 소리와 색에서 몸을 편안히 하는 도리를 찾으라는 뜻이다. ‘자연(自然)’ 이 두 글자는 연문인 듯하다.

大瀉: 莫逐至青黃者, 不落聲色也. 且從但向云云者, 從他本仁, 向聲色安身也. 自然二字, 疑衍文也.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엄

“본인은 아주 대단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만약 뒤에 이어지는 말이 없었다면 어찌할 뻔하였겠는가? 하지만 뒤의 말 역시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法眞一拈, “本仁大殺葛藤. 若無後語, 堪作甚麼? 然雖如是, 放過卽不可.”

[설화]

아주 대단한 말을 하였다 : 대중에게 설법하고 문답한 것이 바로 그 말[葛藤]이다.

뒤에 이어지는 말 : ‘그대에게 설명해 주었는가? 그대의 질문에 대답해 주

었는가?’라고 물은 말을 가리킨다.

그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 여전히 모든 일을 마친 무사의 경지는 아니라는 뜻이다.

法眞：大殺云云者，示衆問答，是葛藤也。後語者，爲汝說答汝話，是也。放過卽不可者，猶未得無事也。

고목법성(枯木法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색을 소리라 불러도 될까?’라 한 부분에 이르러 말했다. “여러분, 옛사람의 자비심은 매우 컸으나 향내와 누린내를 가려내지 못하고, 경수(涇水)와 위수(渭水)를 구분하지 못한 것을 어찌하랴! 나 또한 평소에 소리가 나기 이전의 경지나 말이 있는 다음의 경계에서 선량한 보통 사람들을 우롱하려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차라리 내 몸을 미세한 티끌처럼 부수어버릴지언정, 결코 중생의 눈을 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枯木成，上堂，舉此話，至‘喚作聲得麼?’師云，“諸仁者，古人慈悲大甚，爭奈薰蕕不辨，涇渭不分！香山尋常，亦不欲向聲前句後，鼓弄人家男女。何故？乍可碎身若微塵，終不瞎箇衆生眼。”

[설화]

소리와 색을 철저하게 긍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枯木：不立聲色到底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병불¹³⁾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본인은 한 께미의 염주 알로 세상 사람들의 눈동자를 바꾸려 하다가 도리어 그 학인의 끊어진 새끼줄¹⁴⁾에 무기조차 휘둘러보지 못하고 코를 뚫리고 말았다.¹⁵⁾ 후대에 순노부(舜老夫 : 雲居曉舜)는 이 공안에 대하여 ‘본인은 이미 무성한 풀숲으로 들어갔고, 그 학인 또한 깊숙한 촌마을에 떨어졌다. 그런즉 고상한 양춘백설곡(陽春白雪曲)¹⁶⁾에 당시 사람들이 화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박한 노래와 춤으로 어디서나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이다’¹⁷⁾라고 평가했다. 순노부의 말이 옳기는 옳지만 사람들을 끌어서 취하게 만드는 잘못을 모면하지 못했다. 병불 상좌인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¹⁸⁾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해 보리라. ‘소리는 소리가 아니며 색은 색이 아니라고 하는구나! 쫓대 없이 남의 말만 따라다니니,¹⁹⁾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리라. 고상한 양춘설곡에 대

13) 秉拂. 주지나 방장이 불자(拂子)를 잡고 법상에 올라앉아 대중에게 설법하는 것.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그 설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후자의 뜻으로 많이 쓴다. 본서 792則 주석9) 참조.

14) 단관삭(斷貫索). 단은 단절(斷絶)의 뜻이고, 관삭은 엽전을 꿰는 끈 또는 찌어서 끊어진 노끈을 가리킨다. 쓸데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15) 천각비공(穿却鼻孔), 천인비공(穿人鼻孔)이라고도 한다. 소의 코에 코뚜레를 꿰어 소를 부리듯이 마음대로 이끄는 것을 뜻한다. 보통은 스승이 학인을 지도할 때 쓰는 파주(把住)의 한 방편을 뜻하나, 여기서는 상대에게서 모든 수단을 빼앗아 제압하였다는 뜻으로 쓰였다.

16) 양춘설곡(陽春雪曲), 양춘백설(陽春白雪)이라고도 쓴다. 전국시대 초나라의 고상하고 전아한 가곡(歌曲) 이름이다.

17) 『宗門拈古彙集』 권31 卍115 p.868a11.

18) 불석미모(不惜眉毛). 본서 181則 주석66) 참조.

19) 마후여전(馬後驢前). 본서 677則 주석8) 참조.

한 화답은 일정하지 않고, 소박한 노래와 춤도 어지럽게 만들었을 뿐이로
다.²⁰⁾ 불자로 선상을 치고서 “바로 이것은 결정코 소리가 아니다”라 하고,
다시 불자를 들고서 “이것은 결정코 색이 아니다. 그렇다면 필경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물은 다음 한 소리 크게 내지르고 말했다. “바로 이때, 근
원을 궁구하지 못한다면 아득한 미래까지 기다렸다가 미륵에게나 물어보
아야 하리라.”²¹⁾

雲門杲, 秉拂, 舉此話云, “本仁將一穿雲居子, 換却天下人眼
睛, 却被這僧將一條斷貫索, 不動干戈, 穿却鼻孔. 後來, 舜老
夫拈云, ‘本仁, 旣已入草, 遮僧, 又落深村. 然則陽春雪曲, 時
人難和, 村歌社舞, 到處與人合得着.’” 師云, “舜老夫, 是則
也是, 未免隨撻掇. 秉拂上座, 不惜眉毛, 爲諸人說破. ‘聲不
是聲, 色不是色! 馬後驢前, 神出鬼沒. 雪曲陽春和不齊, 村歌
社舞且湑湑.’” 以拂子, 擊禪床云, “遮箇決定不是聲.” 復舉起
云, “者个決定不是色. 且畢竟是个什麼?” 喝一喝云, “此時,
若不究根源, 直待當來問彌勒.”

[설화]

한 궤미의 염주알[雲居子] : 예를 들면 이 지방의 목환자²²⁾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이다.

20) 백수본인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방편을 전개했지만 그것마저 혼란을 초래했
다는 말이다.

21) 현장에서 불자를 쳐서 낸 소리와 들어 보인 색에서 근원을 알아차려야 하며 분
별로 궁구하여 알리고 한다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22) 木槌子, 환자(槌子)·목환자(木槌子)·무환자(無患子) 등이라고도 한다. 무환자
(無患子)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그 나무의 씨앗은 염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

도리어 ~ 코를 뚫리고 말았다 : 도리어 그 학인에 의해 눈동자가 바뀌어 다시 소리와 색 속으로 거꾸러져 버렸다는 뜻이다.

본인은 이미 풀숲으로 들어갔고, 그 학인 또한 깊은 촌마을에 떨어졌다 : 소리와 색이라느니 소리와 색이 아니라느니 하는 것이 곧 거친 풀숲이며 깊은 촌마을이다.

양춘백설곡 : 소리와 색이라느니 또는 소리와 색이 아니라느니 하는 어느 편에도 떨어지지 않은 경계이다.

소박한 노래와 춤으로 어디서나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이다 : 소리와 색이라느니 소리와 색이 아니라느니 한 것이 그 학인이 사람들과 어울려 합일한 경계라는 말이다.

소리는 소리가 아니며 ~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리라 : 소리는 소리가 아니고, 색은 색이 아니라는 말이다. 쫓대 없이 남의 말만 따라다니며 얻어듣는 소리와 색이 바로 귀신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허상이라는 뜻이다.

양춘설곡에 대한 화답은 일정하지 않고 : 순노부의 말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박한 노래와 춤은 어지럽게 만들었을 뿐이로다 : 본인화상의 말을 긍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결정코 색이 아니다. 그렇다면 필경 이것은 무엇일까’라고 한 말 이하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소리와 색 그대로가 철저하게 할 일을 마친 무사(無事)의 경계라는 뜻이다.

雲門：雲居子者，如此方木漈子，似而不似者也。却被至鼻孔者，被他喚，²³⁾ 又向聲色裏著倒也。既已入草云云者，聲色非聲

23) 대혜의 법문에 따르면 ‘喚’은 ‘換’자의 오식이 분명하며, 이 경우 ‘換却眼睛’을 줄인 말이다.

色，是荒草深村也。陽春雪曲者，不落聲色非聲色處也。村歌社舞云云者，聲色非聲色，是這僧合著處也。聲不是聲至鬼沒者，聲不是聲，色不是色。馬後驢前聲色，是神出鬼沒也。雪曲陽春云云者，不肯舜老夫也。村家社舞云云者，不肯本仁也。決定不是聲云云已下，當聲色徹底無事也。



926칙 南塔百舌 남탑백설



926칙 남탑백설 南塔百舌¹⁾

[본칙]

남탑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법신(法身)의 보배란 어떤 것입니까?”²⁾ “백설조³⁾가 가지 위에서 쉬지 않고 지저귀니, 봉황이 어찌 그 가지에 함께 깃들어 살겠는가?”⁴⁾

- 1) 봉황을 법신(法身)에, 백설조를 응신(應身)·화신(化身)에 각각 비유하여 여기서 일어나는 일반적 관념을 활용한 공간이다. 그러나 모든 소재와 상징에 대하여 일어나는 우열 등의 차별된 분별은 처음부터 차단되어 있다.
- 2) 『空谷集』 45則 卍117 p.581b3에 이 구절에 대하여 “오안(五眼: 肉眼·天眼·慧眼·法眼·佛眼) 중 그 어느 눈으로도 볼 수 없다.”(五眼難窺)라고 착어(著語)를 달았다.
- 3) 百舌鳥. ㉮Jihva-śata, Kokila, 조동(鳥鵲)·익조(益鳥), 지빠귀과에 속하는 새이다. 백설자(百舌子)라고도 한다. 울음소리가 좋고 갖가지 새소리를 모두 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말만 많고 실속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사람 중에 말이 많은 자는 마치 백설조가 우는 소리와 같이 말한다.”(『淮南子』「說山訓」, 人有多言者, 猶百舌之聲.) 이에 대한 고투(高透)의 주석에 “백설이란 새 이름이다. 그 혀를 바꾸어 온갖 새들의 소리를 흉내 낼 수 있으므로 백설이라 한다. 이것으로 말이 비록 많지만 실정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한다.”(百舌, 鳥名. 能易其舌, 效百鳥之聲, 故曰百舌也. 以喻人雖多言, 無益於事也.)
- 4) 『空谷集』 45則에 이 구절에 대하여 “남해의 페르시아 상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南海波斯笑點頭)라고 착어(著語)를 달았고, 같은 칙「評唱」 卍117 p.582a2에서는 “남해의 페르시아 상인은 물건의 가치를 잘 아니, 시금석에 올려 놓고 순도를 헤아릴 필요가 없다.”(南海波斯知價例, 不須更上試金石.)라고 평가했

南塔因僧問, “如何是法身寶?” 師云, “百舌未休枝上語, 鳳凰那肯共同棲?”

[설화]

법신의 보배 : 모든 보배 중에 법이라는 보배 곧 법보(法寶)가 가장 좋으며, 모든 법보 중에 법신이 최고라는 뜻이다.

백설조가 가지 위에서 ~ 함께 깃들어 살겠는가 :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은 ‘백설조가 가지 위에서 쉬지 않고 지저귄다’라는 구절과 상응하고, 법신은 바로 봉황을 가리킨다.

法身寶者, 於諸寶中, 法寶爲上, 於諸法寶中, 法身爲最也. 百舌云云, 至同棲者, 報化二身, 是百舌未休枝上語, 法身是鳳凰也.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송

소나무가 바윗가에 자라니 학이 편안히 머물고,⁵⁾

봉황이 단산⁶⁾에서 나니 난새가 떼 지어 모이네.⁷⁾

다. 분별의 틀에 의지하여 아는 것과 상관없다는 뜻이다.

5) 『空谷集』의 착어(著語). “눌러앉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坐著卽不堪)

6) 丹山. 봉황이 산다는 산. 단산조(丹山鳥)라는 봉황의 별칭도 여기서 유래한다.
“사막의 서쪽이자 단산의 남쪽에 봉황의 알이 있는데 옥민(沃民)의 먹이다.”
(『呂氏春秋』「本味」. 流沙之西, 丹山之南, 有鳳之丸, 沃民所食.)

7) 『空谷集』의 착어. “같은 종류끼리 한곳에 모인다.”(方以類聚) 난새도 봉황의 일

면벽한 달마는 암자 밖의 일 까맣게 잊었거늘,⁸⁾

유마거사가 어찌 애써 크게 말로 떠벌였겠는가!⁹⁾

投子青頌, “松生崑畔鶴停穩, 鳳出丹山鸞並群. 面壁尚虧庵外事, 淨名何苦大言論!”

[설화]

제1구는 법신의 향상을 나타내고, 제2구는 법신·보신·화신을 가리킨다. 제3구는 달마의 면벽이 한편에 치우쳐 있다는 뜻이고, 제4구는 유마거사가 침묵한 경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반드시 법신으로 향상할 필요는 없으며 보신·화신의 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다.

投子: 松生云云者, 法身向上也. 鳳出云云者, 法身報身化身也. 面壁云云者, 達摩面壁, 只靠一邊也. 淨名云云者, 維摩指出良久處也. 然則何必法身向上, 報化邊事恰好.

종으로 간주된다.

8) 『空谷集』의 착어. “하나만 알았을 뿐이다.”(只知其一)

9) 『空谷集』의 착어. “둘은 몰랐다.”(不知其二)



931칙 大光達磨 대광달마



931칙 대광달마 大光達磨

[본칙]

담주의 대광거회(大光居誨)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달마대사는 조사(祖師)가 맞습니까?” “조사가 아니다.” “조사가 아니라면 중국에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대가 조사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 “올라간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비로소 ‘조사가 아니다’라고 한 뜻을 알게 될 것이다.”

潭州，大光居誨禪師，因僧問，“只如達磨，還是祖否？”師曰，“不是祖。”僧曰，“既不是祖，又來什麼？”師曰，“爲汝不薦祖。”僧曰，“薦後，如何？”師曰，“方知不是祖。”

[설화]

달마대사는 조사가 맞습니까: 다른 문헌에서 “모든 성인이 드물게 세상에 출현하지만, 말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¹⁾라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뜻

-
- 1) 구봉도건(九峯道虔)의 말. “어떤 학인이 물었다. ‘듣자하니 스님께서는 「모든 성인이 드물게 세상에 출현하지만, 말을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렇다.’ ‘세존께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오로지 나만이 존귀하다」라고 하셨거늘 어찌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라 부릅니까?’ ‘바로 그가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켰던 그 이유 때문에 말을 전달하

에 입각하여 물은 것이다.

조사가 아니다 : 석가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고, 달마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²⁾

그대가 조사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왔다 : 본래 타고난 조사[祖翁]³⁾의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비로소 ‘조사가 아니다’라고 한 뜻을 알게 될 것이다 : 비로소 앞에서 대광이 ‘조사가 아니다’라고 한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只如達摩云云者，他處云，“諸聖間出，只是傳語人。”故以此意爲問也。不是祖者，釋迦把門漢，達摩傳語人也。爲汝不薦祖者，不薦本來祖翁也。方知不是祖者，方知前來不是祖之意也。

단하자순(丹霞子淳)의 송

소림으로부터 불꽃이 이어진 일⁴⁾ 기특하기도 하니,

는 사람이라 부른다.”(『聯燈會要』 권22 「九峯道度章」 叀136 p.791a14. 僧問, ‘承師有言, 「諸聖間出, 只是傳語底人,」 是否?’ 師云, ‘是.’ 云, ‘世尊一手指天, 一手指地云, 「天上天下, 唯我獨尊,」 爲甚麼, 喚作傳語底人?’ 師云, ‘只爲他一手指天, 一手指地, 所以喚作傳語人.’) 『五燈會元』 권6 「九峯道度章」 叀138 p.194b6.

2) 주석1)에서 보듯이, 본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석가세존에 붙여진 것이지만, ‘문을 지키는 사람’도 똑같이 천한 신분을 나타낸다. 교와 선을 대표하는 존귀한 인물을 아래로 끌어내림으로써 귀천의 차별로 모색할 수 없는 화두로 재구성했다.

3) 밖에 있는 조사가 아니라 조사로 타고난 자기 자신을 말한다.

선달 밤 매화 피고 눈 내린 뒤 돌아난 가지 같구나.

황벽이 옛날에 남긴 말 있노라,

중국 땅 안에 선사는 없노라고.⁵⁾

丹霞淳頌, “小林續燄事堪奇, 臘夜梅開雪後枝. 黃蘗昔年曾有語, 大唐國裏沒禪師.”

[설화]

앞의 두 구절은 전수할 수 없는 경계를 전수하였다는 뜻이며, 뒤의 두 구절은 법을 전수한 일이 없음을 말한 것이니, ‘달마는 동토에 오지 않았고, 2조는 서천으로 가지 않았다’⁶⁾는 뜻과 같다.

-
- 4) 등불 하나의 불꽃이 수많은 등불에 불을 붙이듯이 달마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맥(禪脈)을 가리킨다. 소림(小林)은 달마대사가 거쳐하던 소림사로서 달마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5) 황벽희운(黃蘗希運)의 말. “중국 땅 안에 선사가 없다는 것을 아는가? 그때 어떤 학인이 나와서 물었다. ‘여러 선문의 존속들이 모두 대중을 모아 교화를 펼치고 있거늘 어찌서 선사가 없다고 하십니까?’ ‘선(禪)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았고 다만 선사[師]가 없다고 했을 뿐이다.’”(『景德傳燈錄』 권9 「黃蘗希運傳」 大51 p.266b26. 還知道, 大唐國內無禪師麼? 時有一僧出, 問云, ‘諸方尊宿盡聚衆開化, 爲什麼道無禪師?’ 師云, ‘不道無禪, 只道無師.’)
- 6) 현사사비(玄沙師備)가 쓴 이래로 선종에서 회자되는 구절이다. 달마가 법을 전하러 중국에 온 것이 아니듯이 2조 혜가(慧可)도 법을 구하러 인도에 간 일이 없다는 뜻이다. 전할 법도 전수받을 법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각자 깨달음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도리를 나타낸다. “어느 날 설봉이 물었다. ‘어떤 것이 비두타(현사)의 진면목인가?’ ‘결코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훗날 설봉이 불러서 ‘비두타! 어찌서 제방의 선지식에게 법을 물으러 다니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현사가 ‘달마는 동토에 오지 않았으며, 2조도 서천으로 가지 않았습시다’라고 대답하자 설봉이 그 말을 인정했다.”(『景德傳燈錄』 권18 「玄沙師備傳」 大51 p.344a4. 一日, 雪峯問曰, ‘阿那箇是備頭陀?’ 對曰, ‘終不敢誑於人.’ 異日雪峯召曰, ‘備頭陀! 何不遍參去?’ 師曰, ‘達磨不來東土, 二祖不往西天.’ 雪峯然之.)

丹霞：上二句，無傳受處傳受。下二句，言無傳受也，達摩不來東土云云。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어떤 것이 조사인가? 지위는 높고 가문도 전통이 있으니, 이의⁷⁾의 뿌리요 만상의 어미이다. 건화문(建化門)⁸⁾에서 기틀을 바꾸고자 하지 않는다면, 실제지(實際地)⁹⁾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는가? 청산의 가느다란 길들은 서로 통하는데, 달은 지고 외로운 원숭이의 울음소리 들리지 않는 곳이로다.”

天童覺，上堂，舉此話云，“阿那箇是祖？位崇家譜，二儀之根，萬象之母。建化門，未要轉機，實際地，如何進步？青山線路相通，月落寒猿啼斷處。”

[설화]

본래부터 타고난 조사의 의미만을 밝혔다.

天童：但明得本來祖翁也。

7) 二儀. 하늘과 땅, 해와 달, 음과 양 등을 나타낸다. 만물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두 가지 요소 또는 원리이다.

8) 본서 2則 주석137) 참조.

9) 실제이지(實際理地)와 같은 말. 방편이 전혀 통하지 않고 본분 자체만 허용하는 경계.



949칙 洛浦歸鄉 낙포귀향



949칙 낙포귀향 洛浦歸鄉¹⁾

[본칙]

낙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은 허물어지고 가족도 흩어졌거늘 그대는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로군요.” “뜰 앞에 남아 있는 눈은 햇볕이 녹이지만, 방 안에 날리는 먼지는 누구를 시켜 쓸어 없앨까?”²⁾

洛浦因僧問, “學人擬歸鄉時, 如何?” 師曰, “家破人亡, 子歸何處?” 僧云, “恁麼則不歸去也.” 師云, “庭前殘雪日輪

- 1) 낙포원안(洛浦元安 834~898)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歸鄉]을 두고 본분사에 대하여 문답한 공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돌아가지 않는다는 양편에 대하여 어느 쪽으로든 일방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낙포의 안목을 보여주는 공안이다. 돌아가지 않는 것은 향상(向上)의 길이며, 돌아가는 것은 향하(向下)의 길로서 향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향하의 작용을 걸림 없이 전개하는 선기(禪機)가 나타난다.
- 2) 방 안의 먼지를 쓸어 없앨 사람을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상징이다. 이 문답에 이어서 낙포는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은 것으로 전한다. “뜻을 굳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배를 타고 오호를 건너노라. 샷대를 잡으니 별과 달이 숨고, 노를 멈추니 해가 밝도다. 닻줄을 풀고 샷된 언덕을 떠나서, 돛대를 달고 바른 길 향해 떠나네. 도달하고 보니 집은 깨끗이 쓸려 사라졌고, 집안에서 어리석음 저지를 일도 면했도다.”(『五燈會元』 권6 卍138 p.203a17. 決志歸鄉去, 乘船渡五湖. 舉篙星月隱, 停棹日輪孤. 解纜離邪岸, 張帆出正途. 到來家蕩盡, 免作屋中愚.)

消, 室內游塵遣誰掃?”

[설화]

고향으로 돌아가다 : 본원으로 돌아간다³⁾는 뜻이다.

집은 허물어지고 가족도 흩어졌거늘 ~ 돌아가겠다는 말인가 : ‘나는 이미 형제와 자매를 찾을 집도 없는데, 그대는 이제 어디서 부모님 계시는 집을 방문하겠다는 것인가?’⁴⁾라고 묻는 말과 같다.

뜰 앞에 남아 있는 눈은 ~ 쓸어 없앨까 : 그럼에도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마치 ‘인정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⁵⁾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3) 반본환원(返本還源). 본원으로 되돌아간다는 말. ‘본원’이란 본래 유래한 뿌리 또는 본래 있던 자리라는 뜻으로 고향과 같다. 화엄학(華嚴學)이나 선종의 문헌에서 널리 쓰이는 말이다. 동산범언(洞山梵言)이 이 공안의 주인공 낙포의 말을 답습하여 이 뜻을 전한다. “범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이제 12월 20일이 되니 한 해가 모두 끝나려 하는구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만 리 사방에 퍼져 있으니, 대중들은 모두 타향에서 떠도는 나그네 신세일 뿐이다. 고향으로 돌아간 자가 있는가?’ 불자를 치면서 말했다. ‘문 앞에 남아 있는 눈은 햇빛이 녹이지만, 방 안에 날리는 먼지는 누구를 시켜 쓸어 없앨까?’”(『續傳燈錄』 권22 「洞山梵言傳」 大51 p.619a6. 上堂, ‘臘月二十日, 一年將欲盡, 萬里未歸人, 大眾總是他鄉之客. 還有返本還源者麼?’ 擊拂子曰, ‘門前殘雪日輪消, 室內紅塵遣誰掃?’); “항상 이와 같이 끝이 없는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본원으로 되돌아가도록 하였다.”(『華嚴經疏』 권1 大35 p.503c20. 常轉如是無盡法輪, 令諸衆生, 反本還源.)

4) 두보(杜甫)의 시 「送韓十四江東省觀」에 나오는 구절.

5) 동산양개(洞山良价)의 말이다. “원주가 석실에 갔다가 돌아오자 운암이 물었다. ‘그대는 석실에 도달했다가 어째서 곧바로 돌아왔느냐?’ 원주가 아무 대꾸가 없자 동산이 그를 대신하여 말했다. ‘그 안에는 벌써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다시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나?’ ‘인정을 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洞山語錄』 大47 p.508a15. 院主遊石室回, 雲巖問曰, ‘汝去到石室裏許, 爲甚麼便回?’ 主無語, 師代曰, ‘彼中已有人占了也.’ 巖曰, ‘汝更去作麼?’ 師曰, ‘不可人情斷絕去也.’)

歸鄉者，返本還源也。家破人亡云云者，我已無家尋弟妹，君今何處訪庭闈？庭前殘雪云云者，又須歸去。如云，‘不可人情斷絕去也。’

석문원이(石門元易)의 송

가족도 집도 사라져 돌아갈 생각도 잊었으니,
방 가득 찬 먼지 쓸어버릴 사람조차 없구나.
붉은 태양에 얼음 녹아 강물 따라 흐르는데,
사립문은 누가 닫아 놓았는지 모르겠도다.

石門易頌，“人亡家破亦忘歸，滿室紅塵掃者稀。紅日消冰逐流水，不知誰爲掩柴扉？”

[설화]

사무치도록 일러준다는 뜻이다.

石門云云，徹困爲人也.

단하지순(丹霞子淳)의 송

태평스러운 고향 길은 텅 비고 아득히 먼데,
돌아가는 정감 복잡하고 생각 끝이 없구나.
다 버리고 집에 오니 무엇이 남아 있던가?
유리로 지은 보배궁전에 달 가두어 놓았네.

丹霞淳頌, “大平鄉國路空賒, 歸興悠悠思莫涯. 撒手到家何所有? 琉璃寶殿鎖蟾華.”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말해 보라! 낙포가 이렇게 그를 대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 학인에게 고향 가는 길을 지시한 것인가? 만일 이것을 알아차리면 손에 쥔 것을 다 털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겠지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발걸음마다 다시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投子青, 上堂, 舉此話云, “且道! 洛浦恁麼對他, 甚麼處是指這僧歸路? 若於這裏會得, 可謂撒手歸家; 若也不會, 舉步更須子細.”

취암사종(翠巖嗣宗)의 염

“그 학인은 앞으로 나아가도 마을을 만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도 쉬어갈 여관을 찾지 못하여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격이었으니,⁶⁾ 다름 아니라 낙

6) 앞뒤로 갈 길이 모두 사라진 경계를 나타내어 낙포가 한 말의 진실을 드러내었다. 낙포가 처음에는 모든 것이 사라진 고향에 돌아가지 말라고 했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돌아갈 일이 있음을 은근히 지시하여 학인으로 하여금 진퇴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가리킨다. “저 옛사람을 살펴보면 이십 년 동안 참구하고 서도 여전히 미숙하여, 살가죽과 뼈에 바짝 달라붙어 자유롭게 튀어나오지 못했다. 옳기는 옳으나, 다만 앞으로 나아가도 마을을 만나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도 쉬어갈 여관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도 하지 못하는 신세일 뿐이다. 다음과 같은 말을 모르는가? ‘언어가 관념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찌 번뇌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흰 구름이 골짜기를 가로지르고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 길을 잃었던가?’”(『碧巖錄』 72則 大48 p.200b20. 看他古人,

포가 그에게 곧바로 가는 길을 지시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만일 그 학인에게 그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그에게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되묻고 그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등골이 쪼개지도록 주장자를 휘둘렀을 것이다. 만일 가죽 속에 피가 끓는 사람이라면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져야 그 은혜에 보답할 여지가 있으리라.”

翠崑宗拈, “這僧, 前不搆村, 後不搆店, 只爲洛浦, 未曾指他直路. 我若見這僧怎麼問, 只向他道, ‘你只今在什麼處?’ 待他擬議, 劈脊便打. 若是箇皮下有血底人, 粉骨碎身, 報恩有分.”

二十年參究, 猶自半青半黃, 粘皮著骨, 不能顛脫. 是則也是, 只是前不搆村, 後不迭店. 不見道, ‘語不離窠臼, 焉能出蓋纏! 白雲橫谷口, 迷却幾人源?’)



988칙 玄沙主人 현사주인



988칙 현사주인 玄沙主人

[본칙]

현사가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서암에서 옵니다.” “서암선사에게는 어떤 말이 있느냐?” “늘 ‘주인공!’ 하고 부르고 나서 스스로 ‘예!’라고 대답하며, ‘뚜렷하게 깨어 있어라! 훗날 남들의 말에 속지 말거라!’라고 하십니다.” 현사가 “허깨비와 놀아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보통 사람과는 매우 다르구나”¹⁾라 하고, “어째서 그곳에 남아 있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서암선사께서 입적하셨습니다.” “지금 부르면 응답하실까?” 학인이 아무 대꾸도 못했다.

玄沙問僧，“近離甚處？”僧云，“瑞巖。”師云，“瑞巖有何言句？”僧云，“長喚，‘主人公！’自云，‘喏！’惺惺着！他後莫受人謾！”師云，“一等是弄精魂，也甚奇怪。”却云，“何不且在彼中？”僧云，“瑞巖遷化也。”師云，“如今，還喚得應麼？”僧無對。

1) 『東林雲門頌古』 卍118 p.808a4에는 “현사가 말했다. ‘허깨비와 놀아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낫다.’”(沙云, ‘一等弄精魂, 猶較些子.’)라고 되어 있다.

[설화]

늘 '주인공!' 하고 부른다 : 중읍홍은(中邑洪恩)이 “비유하자면 여섯 개의 창이 달린 한 방에 원숭이 한 마리를 넣어두고~”라고 한 말과 같다.²⁾

주인공 : 『능엄경』에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여관에 기숙하다가 자고 먹는 일을 마치면 짐 꾸러미를 정리하여 갈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머무는 자를 주인이라 하고 머물지 않는 자는 손님이라 한다”³⁾라고 하였다. 옛 사람이 말했다. “오온산 꼭대기에 펼쳐진 하나의 허공이여! 같은 문으로 늘 출입하면서도 마주치지 못하네. 헤아릴 수 없는 겁의 세월 동안 집을 빌려 살았으면서도, 처음부터 그 집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⁴⁾

늘 '주인공!' 하고 부른다 : 무의자가 계승으로 읊었다. “아인산⁵⁾ 아래서 삼독⁶⁾을 마주치고, 길을 오가는 중에는 팔풍⁷⁾을 만나네. 미혹과 괴로움이 어지럽게 일어나 제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때마다 자주 주인공을 불러야 하리라.”

뚜렷하게 깨어 있어라 : 이렇게 ‘예!’ 하고 응답하면 아주 뚜렷해지고, 훗날

2) 양산혜적(仰山慧寂)이 불성(佛性)에 대하여 물었을 때 중읍이 대답한 말이다. 『禪門拈頌說話』 279則, 『景德傳燈錄』 권6 大51 p.249b16, 『從容錄』 72則 大48 p.272b21 등에 수록되어 있다.

3) 『楞嚴經』 권2 大19 p.111a15에 나오는 이야기를 축약한 것.

4) 이 계승은 『五燈會元』 권6 「本嵩律師章」 卍138 p.223b9를 비롯한 여러 선문헌에 인용되고 있지만, 작자는 불확실하다. 다만 『或庵師體禪師語』 續古尊宿語要 6 卍119 p.184a12에는 신정홍인(神鼎洪謹)의 「示衆」으로 제시되어 있다.

5) 我人山. 자아가 있다는 견해인 아견(我見)과 남이 있다는 견해인 인견(人見)의 장애를 산에 비유한 말.

6) 三毒. 탐(貪)·진(瞋)·치(癡)라는 세 가지 번뇌. 모든 번뇌의 근본이 된다.

7) 八風. 마음을 동요시키는 여덟 가지 요인을 바람에 비유한 것. 이(利)·쇠(衰)·훼(毀)·예(譽)·칭(稱)·기(譏)·고(苦)·락(樂) 등을 말한다.

뚜렷하게 깨어 있으면 소리와 색에 의해 부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남들의 말에 속다 : 예전에는 유(有)에 얽혀 있다가 항상 유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했고, 이제는 무(無)에 얽혀 있다가 또 다시 무에 집착하는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다.

허깨비와 놀아난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 현사가 눈앞에 비추어져 감각되는 것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보통 사람과는 매우 다르구나 : 스스로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대답할 뿐 그 이상 제2의 것은 없으므로⁸⁾ 또한 그(서암)를 허용한다는 뜻이다.

어째서 그곳에 남아 있지 않았는가 : 비록 그렇더라도 또한 이곳에 뿌리를 내리면 옳지 않으므로 그 학인이 뿌리를 내리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핀 것이다.

지금 부르면 응답하실까 : 입적한 뒤에도 분명하다는 뜻이다.

長喚主人公者，中邑云，“比如一室外有六窓中，安一獼猴”云云，一般耶。主人公者，楞嚴云，“比如有人，寄宿旅亭，宿食

8) 다만 부르고 대답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실체를 상정하지 않는다는 뜻. 장사경 잠(長沙景岑)이 말하는 분별하는 주체로서의 식신(識神)이 그 실체이다. 서암의 주인공은 이러한 일반적 오해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화두일 뿐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까닭은, 이전 그대로 분별하는 주체[識神]가 실재한다고 오인하기 때문이로다. 이는 한량없는 겁의 세월 이래로 생사 윤회의 근본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본래의 사람이라 부른다네.”(『景德傳燈錄』 권10 「長沙景岑傳」 大51 p.274b17. 學道之人不識眞，只爲從來認識神，無始劫來生死本，癡人喚作本來身.)

事畢，假裝前途。住名爲主，不住名客也。”古云，“五蘊山前⁹⁾一般¹⁰⁾空！同門出入不相逢。無量劫來賃屋住，到頭不識主人公”也。長喚主人公者，無衣子頌曰，“我人山下逢三毒，逆順途中遇八風。惑苦紛然難制止，也宜頻喚主人公”也。惺惺著云者，伊麼應諾，大殺惺惺耶，他後惺惺著，不被聲色使殺也。人謾者，昔向有中坐，常被有人欺也；今向無中坐，又被無人欺也。一等是云云者，玄沙目前鑑覺排斥故也。甚奇怪者，名自喚自應，更無第二也，故亦許他也。何不且在彼中者，雖然又向這裏垛根，又却不是，看這僧垛根不垛根也。如今還喚云云者，遷化後更是分明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서암의 가풍은,

‘주인공!’ 하고 부르는 것이라네.

어젯밤 남산에서,

호랑이가 대충(大蟲)을 물었노라.¹¹⁾

雲門杲頌, “瑞峯家風, 喚主人公. 昨夜南山, 虎咬大蟲.”

9) ‘前’보다 ‘頭’자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10) ‘般’은 ‘段’자의 오식.

11) 대충은 호랑이의 다른 이름이다. 곧 ‘호랑이가 호랑이를 물었다’라는 말이 된다. 호(虎)와 대충(大蟲)이 말은 다르지만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주인공을 부르는 자와 대답하는 자가 동일함을 나타낸다.

[설화]

부른 자가 응답한 자일 뿐 제2의 존재는 또 없으니, 호랑이가 대충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雲門：喚底應底，更無第二，則虎非大蟲而何！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주인공 하나는 죽었고,
다른 주인공은 살았네.
허깨비를 희롱할 줄 안다면,
두 편에서 모두 벗어나리라.

竹庵珪頌，“一主人公死，一主人公活。若解弄精魂，兩頭皆透脫。”

[설화]

하나의 주인공이 부르기도 하고 응답하기도 하니, 부르는 주인공은 죽었고 응답하는 주인공은 살았다. 죽은 주인공은 허깨비이고, 희롱할 줄 아는 주인공은 산 것이다. 궁극적으로 죽은 것과 산 것의 실체가 없으므로 두 편에서 모두 벗어난 것이다.

竹庵：一主人公，或喚或應，喚底是死，應底是活也。死主人公則精魂，解弄則活也。畢竟死活不可得故，兩頭俱透脫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거

학인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는 대목에 이르러 말했다. “아이고, 아

이고!”

雪竇顯, 舉此話, 至僧無對, 師云, “蒼天, 蒼天!”

법진수일(法眞守一)의 거

이어서 보령인용(保寧仁勇)이 그 학인을 대신하여 ‘화상께서는 어째서 대면하고도 듣지 못하십니까?’라고 한 말을 제기한 다음, 그것과 별도로 대답했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法眞一, 舉此話, 連舉保寧代, ‘和尚爲甚對面不聞?’ 師別云,
“且低聲!”

[설화]

어째서 대면하고도 듣지 못하십니까 : 입적한 다음에도 분명하다는 뜻이다.

목소리를 낮추십시오 : 매우 분명하다는 뜻이니,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法眞 : 爲甚對面不聞者, 遷化後更分明也. 低聲者, 大殺分明, 過猶不及故也.

원오극근(圓悟克勤)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설두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만 길의 차가운 못 깊은 바닥, 그 한가운데 달이 잠겨 있고, 천 척 높이 솟은 소나무는 하늘을 찌르는데, 바람이 깊은 계곡에서 일어난다. 늠름하고 우뚝하게 맑디맑은 풍채 드러내었네. 하지만 달이 푸른 산을 떠나고 그 그림자가 구름에 떨어 지자 마침내 마주하고도 보지 못하고 지나쳤구나. 당시에 그 학인이 만약

본분을 깨우친 사람이었다면, 현사가 ‘지금 부르면 응답하실까?’라고 물었을 때 그 자리에서 한 소리 크게 내질렀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사의 핵심을 단단히 붙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암노자의 숨통까지 트이게 해 주었을 것이다.”

圓悟勤, 舉此話, 連舉雪竇拈, 師云, “萬丈寒潭徹底, 月在當心, 千尺崑松倚天, 風生幽谷. 直得凜凜孤標, 澄澄風彩. 及至月離碧嶂, 影落雲衢, 遂乃當面蹉却. 當時者僧, 若是个漢, 待伊道, ‘卽今還喚得應麼?’ 當下便喝, 非唯把斷玄沙要津, 亦與瑞崑老子出氣.”

[설화]

만 길의 차가운 못 ~ 계곡에서 일어난다 : 금시와 본분을 나타냈다.¹²⁾

늠름하고 우뚝하게 맑디맑은 풍채 드러내었네 : 앞의 두 구절에 분배한 말이다.

달이 푸른 산을 떠나고 ~ 떨어지자 : 입적한 다음의 일을 가리킨다.

마주하고도 지나쳤구나 : 그 학인이 대면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 자리에서 한 소리 크게 내질렀을 것이다 : 이것은 위음왕불¹³⁾의 저편에 있는 소리라는 뜻이다.

圓悟 : 萬丈寒云云者, 今時本分也. 凜凜孤標澄澄風彩者, 分配前二句也. 月離云云者, 遷化後也. 當面云云者, 這僧無對也. 當下便喝者, 這喝直在威音那畔也.

12) 만 길의 못과 천 척의 소나무는 본분, 물에 비친 달그림자와 계곡에 부는 바람은 금시에 상응한다.

13) 위음왕불(威音王佛 𑖀Bhīṣma-garjitasvara-rāja), 과거 장엄劫(莊嚴劫) 이전 공겁 때의 최초의 부처님. 『法華經』 권6 「常不輕菩薩品」 참조. 어떤 소리나 색의 조짐도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를 나타낸다.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이라는 말과도 통한다.

죽암사규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이 4대와 5온이 귀착되는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주인공을 알아야 한다.” 이어서 주장자를 세우고 말했다. “주인공은 접촉하는 대상마다 막힘없이 통한다. 거울과 같이 밝고 허공과 같이 드넓어 모든 것을 비추고 잘 포용하기 때문이다. 낱알의 존재가 모두 그것이고 대상 하나하나에서 그것과 마주치며, 일어서거나 앉거나 웃거나 말할 때이거나 언제나 함께 있다. 늘 뚜렷하게 깨어 있어 어둡지 않으니, 부르고 응답할 줄 알며 가슴을 톡톡 치며 스스로 수궁하기를 즐기고, 눈은 번쩍 뜨고 있으며 머리는 더부룩하다. 바람은 호랑이를 따라 오고 구름은 용을 따르며, 용은 하늘로 올라가고 학은 새장을 벗어나 푸른 하늘의 천만 겹 구름을 뚫고 나간다. 대중이여, 뚫고 나간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다시 주장자를 올렸다가 한 번 내리치면서 말했다. “화표¹⁴⁾의 기둥에 말을 남겨둔 뒤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竹庵珪，上堂，舉此話云，“你諸人，要識四大五蘊下落，識取主人公，始得。”乃卓拄杖云，“主人公，觸處通。明如鏡寬如空，能鑑照善包容。頭頭是處處逢，起坐隨笑語同。長惺惺不昏蒙，會唱喏愛點胸，眼卓朔頭鬚鬆。風從虎雲從龍，龍上天鶴出籠，透青霄千萬重。大眾，透出後，向什麼處去？”又卓拄杖一下云，“華表柱頭留語後，不聞消息至如今。”

14) 華表. 고대에 길을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나무 기둥. 또는 교량·궁전·성원(城垣)·묘지 등의 앞에 세우고 화려하게 장식을 한 거대한 돌기둥.

[설화]

주인공을 알면 4대와 5온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는 뜻이다.

주인공은 접촉하는 대상마다 ~ 가슴을 툭툭 치며 스스로 수궁한다 : 지금 5온과 4대의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이 주인공이라는 뜻이다.

눈은 번쩍 뜨고 있으며 머리는 더부룩하다 : 이러한 모습이 주인공이라는 말이다.

용은 하늘로 올라가고 ~ 천만 겹 구름을 뚫고 나간다 : 여기에는 주인공이 없다는 뜻이다.

화표의 기둥에 ~ 지금에 이르렀다 : 어디서 더듬으며 찾느냐는 뜻이다.

竹庵：識取主人公，則便識得四大五蘊，卽是主人公也。主人公觸處至點胸者，卽今五蘊四大緣處，是主人公也。眼卓朔云云者，此則主人公也。龍上天至萬重者，亦無主人公也。華表云云者，向什麼處摸搦。

조공의 거

“말해 보라! 여기서 부르는 것은 주인이 부르는 것일까, 손님이 부르는 것일까? 훗날 언젠가 속이는 것은 타인이 속이는 것일까, 자신이 속이는 것일까? 판단해 보라”고 한 다음, 스스로 대신하여 대답했다. “돌, 이 여우 귀신아!”

趙公，舉此話云，“且道！如今喚底，是主喚客喚？他後瞞底，是他瞞自瞞？試與判看。”公自代云，“咄，這野狐精！”

[설화]

금일의 사람이 본래의 사람이며, 그 이상 제2의 사람은 없다는 뜻이다. ‘여우귀신’이라 한 것은 반드시 주인공을 알아야 하며, 오인해서는 안 된다¹⁵⁾는 뜻에서 한 말이다.

趙公：今日人本來人，更無第二也。野狐精者，須識主人公，認著則不是也。

15) 금일의 사람을 떠나서 어딘가에 본래의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 눈앞에서 놓치고 잘못된 생각으로 알아맞히려 하기 때문에 여우귀신[野狐精]이라 한 것이다.



1000칙 玄沙親傳 현사친전



1000칙 현사친전 玄沙親傳

[본칙]

현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화상께서 몸소 전하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나는 사씨 집의 자손이다.”¹⁾

玄沙因僧問, “如何是和尚親傳底事?” 師云, “我是謝家兒.”

[설화]

몸소 전하신 일 : 별도로 전한 정통 선맥(禪脉)을 뜻한다.²⁾

나는 사씨 집의 자손이다 : 마치 20년 동안 시봉하며 쌓아왔는데, 눈은 가로로 붙어 있고 코는 세로로 나 있다³⁾는 진실을 배웠을 뿐이라는 말과 같다.

-
- 1) 현사사비(玄沙師備)의 속성은 사씨(謝氏)이다. 어려서부터 낚시질하길 좋아하여 남대(南臺)의 강에 작은 배를 띄우고 여러 어부들과 친하게 지냈다. 『景德傳燈錄』 권18 「玄沙師備傳」 大51 p.343c28 참조. 그 뒤로 선가에서 어부를 사씨, 또는 사씨 가문의 셋째 아들이라는 뜻에서 사삼랑(謝三郎), 사가(謝家) 등으로 부르게 되었다.
 - 2) 별전(別傳). 본래 교외별전(敎外別傳)을 말한다. 문자나 교설에 의지하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전한 선종의 정통 계보를 나타낸다.
 - 3) 안횡비직(眼橫鼻直). 분명하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더 이상 분별로 파헤치고 들어갈 수 없는 것. “존재 하나하나마다 참된 소식 누설하니, 누가 분별 그치고 분명한 진실 가려낼까? 눈은 가로로 코는 세로로 붙은 것과 똑같으니, 지금

곧 몸소 전한 일은 본래 없었다는 뜻이다. 비구니는 원래 여인이 비구니가 된 것이고, 주장자는 본래 나무로 만든다는 뜻인가? 강서의 마조대사와 남악의 회양화상 사이에 있었던 일화⁴⁾와 같다.

親傳底事者, 別傳正脉也. 我是謝家兒者, 如二十年侍立積取, 只學得个眼橫鼻直, 本無親傳地事也. 師姑元是女人造, 拄杖元是木頭造耶? 江西馬大師, 南嶽讓和尚之例也.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송

분명한 뜻을 몸소 펼쳐 그대에게 말하노니,
사막 건너 소실에서 전한 것과 비교 마라.⁵⁾
어젯밤 기러기가 쌍령 밖으로 돌아갔는데,
사씨는 여전히 밝은 달빛 받으며 님시하네.

投子青頌, “親伸端的向君言, 莫比流沙少室傳. 昨夜鴈迴雙嶺

이 자리 떠나지 말고 찾는 일 그만두라.”(『嘉泰普燈錄』 권30 「治父川禪師 參玄歌」 卍137 p.432b11. 頭頭漏世眞消息, 那箇休心辨端的? 眼橫鼻直一般般, 不離當處休尋覓.) 본서 2則 주석42) 참조.

4) 마조가 좌선 수행을 할 때 회양이 벽돌을 갈아서 종지를 일러준 인연을 말한다.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 수 없듯이 좌선을 하여 부처가 되지 못한다고 일러주었다. 이는 앉거나 서거나 모두 부처이므로 어느 한곳에 집착하면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걸림이 없는 본래의 부처를 일정한 틀에 제한하는 병통에 빠진다는 뜻이다. 『馬祖語錄』 卍119 p.810a5 참조.

5) 달마대사가 서쪽 인도에서 사막을 거쳐 소림사에서 혜가에게 심인(心印)을 전한 것.

外, 謝家人立月明⁶⁾前.”

[설화]

전수할 것이 없는 경계에 전수할 것이 있다는 뜻이다.

投子：無傳受處, 有傳受也.

6) 『玄沙語錄』 권중 卍126 p.419b1, 『投子語錄』 권하 卍124 p.468b7 등에 근거하여
‘明’은 ‘明’으로 바로잡음.



1034칙 雲門東山 운문동산



1034칙 운문동산 雲門東山

[본칙]

운문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모든 부처님이 속박을 벗어난 경지는 어떤 것입니까?” “동산이 물 위로 흐른다.”

雲門因僧問, “如何是諸佛出身處?” 師云, “東山水上行.”

[설화]

모든 부처님이 속박을 벗어난 경지 : 삼세(三世) 모든 부처님의 본원을 가리킨다.¹⁾

동산이 물 위로 흐른다 : 무생²⁾의 도리를 나타내지만, 동산과 물에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운문에게는 3구가 있다.³⁾ 하늘과 땅 전체를 감싸서 덮는

-
- 1) 출신(出身)이라는 말은 과거시험에 합격한 신분이나 관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세간의 이러한 뜻을 빌려와 수행자로서 모든 속박과 얽매임을 벗어나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本源]을 비유한다.
 - 2) 無生, 생성도 소멸도 없는 무생멸(無生滅)의 이치. 교설상 근본 도리를 나타낸다.
 - 3) 운문삼구(雲門三句). 운문문언(雲門文偃 864~949)이 함개건곤(函蓋乾坤)·목기수량(目機鉅兩)·불섭만연(不涉萬緣) 등으로 제시한 3구에 대하여 그 제자인 덕산연밀(德山緣密)이 함개건곤·절단중류(截斷衆流)·수파축랑(隨波逐浪) 등의 3구로 바꾸어 정리한 것이다. 『雲門廣錄』 권하 大47 p.576b19, 『人天眼目』 권2 「三句」 大48 p.312a7, 『五家宗旨纂要』 권하 「雲門三句」 叢114 p.555a9 등에 수록

구절, 모든 번뇌망상의 흐름을 끊는 구절, 물결을 따르고 흐름을 쫓아가는 구절이 그것이다. 때와 기틀에 따라 한 구절을 적절하게 말하면 그 한 구절의 말에 세 구절의 요지를 모두 갖추게 된다. 한 구절이란 어떤 구절이며, 어떻게 세 구절을 분별할 수 있을까? 만약 분별하지 못한다면 운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분별한다면 또한 어떻게 분별한다는 것일까?

諸佛出身處者，三世諸佛本源也。東山水上者，無生也，東山水義不無也。雲門有三句，函蓋乾坤，截斷衆流，隨波逐浪。隨時隨機，下得一句，一句語，皆具三句言。一句是何句？又作麼生辨得三句？若辨不得，不會雲門意；若也辨得，又作麼生辨得？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송

동산이 물 위로 흐른다 하느구나!
 속박 벗은 경지 매우 분명하도다.
 무수히 많은 부처님 잘 살펴보라!
 파도가 사망에서 일어나리라.

蔣山泉頌，“東山水上行！出處甚分明。好看塵沙佛！波濤四面生。”

되어 있다.

[설화]

‘그는 머무는 국토가 따로 없는데, 어디서 그를 만나려 하는가?’⁴⁾라는 뜻이다.

蔣山：渠無國土，何處逢渠也.

진정극문(眞淨克文)의 송 1

눈앞에 길이 있으나,
누가 모든 곳으로 통하는 줄 알까?
동산이 물 위로 흐른다고 하니,
그 뜻 구하는 자 아득히 멀어지리.⁵⁾

眞淨文頌, “目前有路, 誰解通方? 東山水上, 求者茫茫.”

[설화]

이 공간에 대해 분별하며 뜻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다.

4) 석상경저(石霜慶諸 807~888)의 말. “어떤 학인이 협산(夾山)에게 물었다. ‘티끌을 파헤쳐 부처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본분사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칼을 휘둘러야 한다. 만약 칼을 휘둘러 모두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부가 나무 위의 새둥지에 사는 격이다.’ 그 학인이 나중에 석상에게 묻자 석상이 말했다. ‘그는 머무는 국토가 따로 없는데, 어디서 그를 만나려 하는가?’”(『聯燈會要』 권 21 「夾山善會章」 卍136 p.774a18. 僧問, ‘撥塵見佛時, 如何?’ 師云, ‘欲知此事, 直須揮劍. 若不揮劍, 漁父棲巢.’ 僧後問石霜, 霜云, ‘渠無國土, 甚處逢渠?’) 『宏智廣錄』 권 2 大48 p.24c9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5) 이 뜻으로도 저 뜻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혜종고(大慧宗杲)가 운문의 이 화두를 참구하다가 스승인 원오극근(圓悟克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경계와 같다. “이 도리는 마치 개가 뜨거운 기름 솥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활으려 하여도 활을 수 없고, 버리려 해도 버릴 수 없습니다.”(『大慧語錄』 권 17 大47 p.883b2. 這箇道理, 恰如狗看著熱油鑊相似. 要舐又舐, 不得; 要捨又捨, 不得.)

眞淨：莫向這裏尋討.

진정극문의 송 2

모든 부처님이 속박 벗어난 경지여!
동산이 물 위로 흐른다고 하네.
눈앞에서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찰나에,
그 어디에나 드러나 대단히 분명하도다.
해와 달이 지나가고,
부처님 손과 나귀 다리를 드러내는 것도,⁶⁾
모두 이 힘을 입은 덕택이니,
말을 벗어나 미혹된 중생을 제도하노라.

又頌, “諸佛出身處! 東山水上行. 目前一彈指, 徧現煞分明.
日日月月過, 佛手驢脚呈, 皆承此箇力, 言外度迷情.”

-
- 6) 황룡혜남(黃龍慧南)이 평생 학인들에게 제기한 세 가지 관문[黃龍三關] 중 두 가지. “황룡은 방에서 항상 학인들에게 출가한 이유와 속가의 내력을 물었다. 그들에게 ‘사람마다 모두 태어난 인연[生緣]이 있는데, 상좌의 인연은 어떤 것인가?’라고 묻고, 다시 그 기틀에 부합하는 문답을 나누며 칼날과 같이 예리한 변설을 내돌렸다. 손을 펼쳐 보이면서 ‘나의 손이 부처님 손과 비교하여 어떤가?’라고 묻는가 하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종사들에게 법을 듣고 얻은 내용에 대하여 묻기도 하였다. 또한 다리를 내려뜨리며 ‘나의 다리는 나귀 다리와 비교하여 어떤가?’라고 묻기도 하였다. 30여 년 동안 이 세 가지 질문을 펼쳐 보였으나, 보통 학인들 중 대부분이 그 기틀과 부합하지 못했으니, 총림에서는 다들 이것을 가리켜 세 개의 관문[三關]이라 했다.”(『黃龍語錄』大47 p.636c16. 師室中常問僧, 出家所以, 鄉關來歷. 復扣云, ‘人人盡有生緣處, 那箇是上座生緣處?’ 又復當機問答, 正馳鋒辯. 却復伸手云, ‘我手何似佛手?’ 又問諸方參請宗師所得. 却復垂脚云, ‘我脚何似驢脚?’ 三十餘年, 示此三問, 往往學者多不湊機, 叢林共目爲三關.)

[설화]

눈앞에서 ~ 분명하도다 : 손가락을 한 번 튕기는 짧은 찰나에 분명하게 속박을 벗어난 경지가 드러난다는 뜻이다.

해와 달이 ~ 드러내는 것도 : 이 경지에 이르면 해와 달, 부처님 손과 나귀의 다리 등 모든 것이 갖추어진다는 뜻이다.

모두 이 힘을 입은 덕택 : ‘모두가 그의 힘을 입은 덕택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

말을 벗어나 미혹된 중생을 제도하노라 : 이 말 밖으로 벗어나서 별도로 도리를 만들어내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미혹된 중생이다.

又頌：目前至分明者，一彈指頃，分明現露也。日面云云至呈者，到此，日面月面，佛手驢腳，一切具足也。皆承此个力者，如云皆承渠力也。言外度迷情者，離此言外，別作道理，是迷情也。

진정극문의 송 3

또, 어떤 학인이 “대중들 중에는 무사(無事)라는 관념으로 이 화두를 헤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하자 다시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었다. “보통 무사라는 관념을 가지고 이해하지만, 무사는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든다네. 유사라고도 무사라고도 생각하지 말아야, 신령한 소리⁷⁾가 쪼개어져 속을 드러내리. 고요한 그것이 비록 다른 소리로 응해도, 그 적막한 본질은 분별하여 알 수 없다네. 당연히 그러하다, 모든 변화의 근원

7) 영음(靈音). 신선의 음악. 또는 경전을 읽는 청정한 소리[梵音] 등을 말한다. 경전이나 어록이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을 나타낸다.

이여! 그 모든 것이 단지 현재에 속할 뿐이라네.”

又因僧曰, “衆中多以無事商量.” 師復成頌曰, “多將無事會, 無事困人心. 有無俱勿念, 自可剖靈音. 落落雖殊應, 寥寥不在尋. 宜哉萬化首! 都只屬於今.”

[설화]

고요한 그것이 ~ 분별하여 알 수 없다네 : 비록 대상에 응하여 변화하면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언어의 구절을 가지고 분별하며 찾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당연히 그러하다 ~ 현재에 속할 뿐이라네 : 헤아릴 수 없는 겉의 시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일이 단지 지금의 현상에 있을 뿐이니, 현재의 모든 일이 바로 모든 변화의 근원이라는 뜻이다.

落落云云至尋者, 雖然應化差殊, 不可以言句尋討也. 宜哉云云者, 塵劫來事, 只在如今, 則如今之事, 便是萬化之首也.

개암봉의 송

신부가 신랑이 추하여 싫다 말하지만,

그러한 예는 있는 적이 없었다네.

짝지은 암탉은 수탉을 쫓아 날고,

짝지은 암개는 수개를 따라 뛰네.⁸⁾

介庵朋頌, “婦嫌新婿醜, 條貫未曾有. 嫁雞逐雞飛, 嫁狗屬

8) 여자는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좋거나 싫거나 따라야 한다는 옛날의 속담이다. 여기서는 상대의 수준에 맞게 말을 전한다는 뜻으로 쓰였다.

狗走.”

[설화]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알맞은 말을 하고, 아라한을 만나면 아라한에 적절한 말을 하며, 아귀를 만나면 아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한다는 뜻이다.

个庵：逢佛說佛，逢阿羅漢說阿羅漢，逢餓鬼說餓鬼也.

진정극문의 거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속박을 벗어난 경지는 어떤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다만 그에게 ‘큰 우물로부터 멀리 떠나서 보배가 묻힌 산으로 깊숙이 들어가라’고 말해 줄 것이다. 대중들이여, 말해 보라! 이 말이 운문의 뜻과 같은가, 다른가? 만일 어떤 납승이 나와서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말하는가!’라고 한다면, 이 또한 만나기 어려운 대단한 자이다. 그러나 반드시 이 경지에 실제로 도달해야만 하며, 만약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성급하게 도달하려 해서는 안 된다.”

眞淨文，舉此語云，“潞潭卽不然。若有人問，‘如何是諸佛出身處?’但向伊道，‘遠離洪井，深入寶山.’大衆，且道！是同是別？忽有个衲僧出來云，‘這裏，是什麼所在，說同說別!’也難得。須是實到這田地，始得，若未到，且不得草草。”

[설화]

큰 우물로부터 멀리 떠나서 ~ 깊숙이 들어가라 : 눈앞에 드러난 현상을 가리킨

다. 운문의 대답도 소심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대담한 마음을 보이려는 뜻이다. 그러면 예상대로 ‘이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다고 같다느니 다르다느니 말하는가!’라고 하는 자를 만나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이 말하더라도 그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다.

眞淨：遠離云云者，現前事也。雲門猶是小膽故，於此放大膽也。果然這裏有什麼所在，說同說別。雖然伊麼道，須會其意，始得。



1069책 雲門一言 운문일언



1069칙 운문일언 雲門一言

[본칙]¹⁾

어떤 학인이 운문에게 물었다. “한마디 말로 남김없이 말한 경우²⁾라면 어떻습니까?” “갈가리 찢어버려라!”³⁾ “화상께서는 어떻게 집어 담으시겠습니까?”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오너라.”⁴⁾

- 1) 학인이 모조리 거두어들이는 ‘한마디 말’로 운문을 실험하자 운문은 찢어서 다 양하게 펼치고, 학인이 다시 무수하게 찢어져 펼쳐진 그것을 어떻게 들어 보이는지에 대하여 묻자 남김없이 쓸어서 쓰레받기에 담는다고 응답했다. 운문이 처음에는 펼쳤지만 마지막에는 다시 모두 거두는 ‘한마디 말’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결정적인 뜻을 가진 말들이 아니라 무미(無味)하게 설정된 관문(關門)일 뿐이다.
- 2) 일언도진(一言道盡). 몰자미(沒滋味)의 화두가 지니는 속성과 같다. 다른 모든 언어와 관념을 부수어 버리고 무미(無味)하게 만들어 낱알의 것들을 모조리 화두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전환시키는 기능이 바로 ‘일언도진’ 그것이다.
- 3) 열파(裂破). “썩 펼쳐져 있구나!”라는 번역도 가능하다. 갈가리 찢어서[裂] 환히 보이도록 열려 있는[破] 풍경을 가리킨다. 이 경우 파(破)는 <설화>의 해설과 같이 열려 있다는 뜻[開]으로 본 것이다. 이러면 운문이 그 다음에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받기에 모조리 담는다는 뜻과 호응하여 앞에서 열었다가 뒤에서 닫는 선기(禪機)가 나타난다. 다양한 맛을 가진 세계로 열었다가 다시 닫음으로써 몰자미(沒滋味)의 경계로 돌아가는 수법이다.
- 4) 펼쳐진 것을 하나로 쓸어 담겠다는 말. 운문이 앞에서는 썩 펼쳐져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경계를 제기했다가 다시 남김없이 쓸어 없애는 ‘한마디’로 돌아가고 있다.

雲門因僧問。“一言道盡時，如何？”師云，“裂破！”僧云，“和尚如何拈掇？”師云，“拈取糞箕掃帚來。”

[설화]

한마디로 남김없이 말하다 : 한 구절로 모조리 말해버린다는 뜻이다.

갈가리 찢어버려라 : 그렇게 던진 질문 자체가 ‘한마디로 남김없이 말하는’ 경지가 아니라는 뜻이다. 찢어버린다는 말 곧 열파(裂破)는 이 뜻으로 완결된 것인가? 열파가 활짝 열어젖힌다는 뜻의 열개(裂開)와 같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남김없이 말하여 무엇 하겠느냐는 뜻이 된다.⁵⁾

어떻게 집어 담으시겠습니까 : 한마디로 남김없이 말한다는 것에 착안한 견해이지만 운문의 말을 잘못 이해했다.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가져오너라 : 분별이 붙지 않는 말[無味之語]로 그 학인을 속인 것이다.⁶⁾

一言道盡者，一句道盡也。裂破者，伊麼問來，不是一言道盡也。裂破，了也耶？裂破，猶言裂開也，則一言道盡作什麼。如何拈掇者，一言道盡處著眼，誤認雲門語也。拈取云云者，無味之語謾他也。

5) 열파를 ‘열개’와 같은 뜻으로 본다면,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현상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므로 ‘한마디’로 통일시켜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된다.

6) 모두 거두어들일겠다고 했지만 언제든지 갈가리 찢어서 펼친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동시에 이 두 가지 말이 모두 특별한 의미와 분별이 붙을 수 없음에도 실제로 쓸어 담을 듯이 말하는 방식은 일종의 ‘속임수’와 같다.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거

‘어떤 학인이 운문에게 물었다 ~ 찢어버려라’라고 한 부분을 제기하고서 손가락을 세 번 통겼다. 다시 ‘어떤 학인이 목주에게 한마디로 남김없이 말한 경우라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목주선사가 내가 그대의 바랑 속에 있는 격이로구나⁷⁾’라고 답한 문답을 제기하고 꺾꺾 웃었다.

雪竇顯, 舉 ‘僧問雲門(至)裂破.’ 師彈指三下. 又舉 ‘僧問睦州, 一言道盡時如何? 州云, 老僧在你鉢囊裏.’ 師呵呵大笑.

[설화]

손가락을 세 번 통겼다: 운문의 입장뿐만 아니라 목주의 입장 역시 남겨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비록 목주의 입장을 거론하기 이전이지만 그 뜻은 서로 따르며 통한다.

꺾꺾 웃었다: 비단 목주의 입장뿐만 아니라 운문의 입장 역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다.

7) 원오극근(圓悟克勤)은 두 선사의 화두를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목주가 평상시에 발휘하는 기틀은 번개가 치듯이 재빨랐고 남승의 본문도 가지고 있었기에 그 학인이 이와 같이 물었을 때 목주가 이와 같이 응답했던 것이다. 말해 보라! 운문의 응답과 같은가, 다른가? 만약 다르다고 한다면 불법에 두 종류가 있게 되고, 같다고 한다면 어째서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내린 응답이 두 종류이겠는가? 반드시 조금도 의심이 남아 있지 않은 경계에 도달해야 비로소 진실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닦아도 무심의 경지에 도달하기 이전에는 무수히 많은 양상으로 망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법이다. 설두가 꺾꺾하고 크게 웃었는데, 이는 무슨 도리일까? 한번 가려내어 보라!”(『佛果擊節錄』 54則「評唱」 卍117 p.484b15. 師云, ‘睦州, 尋常機如掣電, 有衲僧巴鼻, 這僧如此問, 睦州如此答. 且道! 與雲門答處, 是同是別? 若道是別, 佛法有兩般; 若道是同, 爲什麼, 問處則一, 答處兩般? 須是透到無疑處方見徹. 修心未到無心地, 萬種千般逐水流. 雪竇呵呵大笑, 是什麼道理? 試辨看!’)

운문의 입장은 방행(放行)이고 목주의 입장은 파정(把定)이라는 해설이다.⁸⁾

雪竇：彈指三下者，非但雲門地，睦州地亦不存也。雖不舉睦州地，其意相隨來也。呵呵大笑者，非但睦州地，雲門地，好个消息也。雲門地則放行，睦州地則把定也。

육왕개심(育王介謚)의 염

“말한다면 크게 지나치고 침묵한다면 미치지 못하니, 언어와 침묵 그 사이에 눌러앉았구나.”⁹⁾ 말해 보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뜻인가? 영리한 자라면 여기서 결정적인 한 구절을 나와 다르게 말해 보라.”

育王謚拈，“開口大過，閉口不及，開與不開，坐在中間。且道！畢竟如何？靈利漢，向者裏，別下一轉語看。”

[설화]

말한다면 ~ 그 사이에 눌러앉았구나 : 입을 열어 말하는 것에 입을 닫고 침묵하는 뜻이 들어 있으니 입을 연다는 뜻이나 열지 않는다는 뜻이나 모두 옳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뜻인가 : 이 상황을 떠나서 말하라는 뜻인가? 이 상황 안에서 말하라는 뜻인가?¹⁰⁾

8) 방행(放行)과 파주(把住). 방행은 일체를 긍정하기만 하는 입장에서 학인을 가르치는 방식이고, 반대로 파주 또는 파정(把定)은 일체를 부정하는 입장에서 학인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본서 1則 주석37) 참조.

9) 언어와 침묵 그리고 그 중간 등 세 가지를 모두 부정한 말이다.

10) 말을 해도 안 되고 침묵해도 안 되며 그 중간에 머물러도 안 되는 곤경(困境) 자

育王：開口至中間者，開口則又有閉口義，又開與不開義，皆不可也。畢竟如何云云者，離此而道得耶？卽此而道得耶？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시중

‘어떤 학인이 목주에게 물었다 ~ 그대의 바랑 속에 있는 격이로구나’ 그리고 ‘학인이 운문에게 물었다 ~ 찢어버려라’라는 두 문답을 제기하고 말했다. “누군가 나에게 ‘한마디 말로 남김없이 말한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칠통!’¹¹⁾이라고 답하리라.”

雲門杲，示衆，舉‘僧問睦州〈至〉在你鉢囊裏，’又，‘問雲門〈至〉裂破.’師云.“或有人問山僧，一言道盡時，如何？遮漆桶！”

[설화]

이 칠통 : 양쪽 모두를 범하지 않은 것이다.¹²⁾

雲門：這染桶者，兩頭不干也.

체를 또 다른 곤경의 상황을 설정하여 처리했다. 곧 떠나거나[離] 그 안에 있거나[卽] 그 어느 편이 옳은지 물음으로써 새로운 화두를 제기한 것이다. 하나의 화두에 또 하나의 화두로 반응하는 이중공안(二重公案)의 형식이다.

- 11) 이중의 뜻이다. 하나는 킁킁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통 속처럼 무지한 자라고 상대를 비판하는 말이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말의 뜻일 뿐이다. 다른 하나는 바로 그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칠통 속과 같이 언어나 침묵을 비롯한 어떤 수단과 분별도 통하지 않는 ‘한마디’의 화두를 상징한다.
- 12) 목주와 운문 그 어느 편으로도 귀착시키지 않고 또 하나의 화두를 제시하는 방식이라는 해설이다. 이 말들은 모두 결론을 내린 말, 곧 마친 말이 아닌[不了] 활구(活句)로서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송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다시 ‘어떤 학인이 선사에게 물었다 ~ 그대의 바랑 속에 있는 격이로구나’라고 한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두 노인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안주하는 틀에 떨어졌구나. 어떤 이가 나에게 ‘한마디 말로 남김없이 말한 경우라면 어떻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단지 그에게 ‘소가 없으면 말을 부린다’라고 할 것이다.”

松源, 上堂, 舉此話, 又舉‘僧問睦州, 〈至〉在你鉢囊裏.’ 師云.

“二老漢猶墮時人窠臼, 或有問虎丘, ‘一言道盡時, 如何?’ 只向他道, ‘無牛使馬.’”

[설화]

두 노인도 ~ 떨어졌구나 : 아직 규범을 떠나지 않은 입장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소가 없으면 말을 부린다 : 운문의 입장도 가능하고 목주의 입장도 가능하니 어떤 것도 안 될 것이 없다는 뜻이다.

松源 : 二老漢云云者, 未離規矩故也. 無牛使馬者, 雲門地亦得, 睦州地亦得, 意則無不可也.



1074칙 雲門踏破 운문답과



1074칙 운문답파 雲門踏破

[본칙]

운문이 하루는 학인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왔는가?” “강서(江西)에서 왔습니다.” “짚신을 몇 켤레나 갈아치웠느냐?” 그 학인은 아무 대꾸도 없었다.

雲門，一日問僧，“從甚處來？”僧曰，“江西來。”師曰，“踏破多小草鞋。”其僧無對。

[설화]

어디에서 왔는가 : 종사는 까닭 없이 말을 내뱉지 않는 법이다.

강서에서 왔습니다 : 사실에 근거해서 대답한 말이다.

짚신을 몇 켤레나 갈아치웠느냐 : 부질없이 짚신만 갈아치웠다는 뜻인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거듭 그에게 일러준 것인가?

甚處來者，宗師語不虛發也。江西來者，據實支對也。踏破云云者，虛踏草鞋而已耶？赤心片片重爲他耶？

황룡조심(黃龍祖心)의 염

“운문대사는 이미 호랑이와 표범의 무늬¹⁾를 펼쳐 보였으나 저 학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줄은 알아채지 못했다. 지금 운문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있는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말해 나와 겨루어 보자. 문겠다.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黃龍心拈, “雲門大師, 已是張虎豹之紋, 又不覺落在者僧陷窞. 而今還有扶起雲門底漢? 道取一轉語, 却與黃龍相見. 敢問, 此語作麼生道?”

[설화]²⁾

호랑이와 표범의 무늬 : 자비심 때문에 번뇌의 숲에 떨어지는 것을 무릅쓰고서 하는 이야기³⁾를 뜻한다.

저 학인이 파놓은 함정 : 그 학인의 의도는 드러난 말이나 침묵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운문을 일으켜 세우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어떻게 말해야 할까? 운문의 입장을 떠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黃龍：虎豹之紋者，慈悲之故，有落草之談也。者僧陷窞者，這僧意，直得無限也。扶起雲門一轉語，作麼生道？離雲門底，又却不是也。

1) 호표지문(虎豹之紋). 종사가 그의 면모와 방편을 다 드러냄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다.

2) 이 <설화>는 학인의 입장과 운문의 입장 중 어느 한편을 다른 편보다 긍정해서도 안 되지만, 모두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배촉관(背觸關)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3) 낙초지담(落草之談). 자세하게 풀어서 들려주는 말. 본서 250則 주석10) 참조.

지해지청(智海智淸)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 운문대사는 당시에 온 천하를 자유롭게 거닐었으니⁴⁾ 그 기개가 마치 왕과 같아 호랑이와 표범의 발톱과 이빨을 펼쳐 보일 줄만 알았지 그 학인의 함정에 빠진 줄은 알아채지 못하였다 천 년이 지나도록 마주치는 사람마다 손을 쓰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으니,⁵⁾ 지금 운문을 구해줄 자 없는가? 대중 속에서 나와 본분의 법도를 한번 간략하게 드러내 보아라. 그렇더라도 나를 만나 점검받아야만 한다.”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咦)⁶⁾! 홍문⁷⁾으로 가는 나그네가 없으니 돌아올 계책은 장량⁸⁾만이 안다.”

智海淸，上堂，舉此話云，“諸仁者！雲門大師，當時寰海獨步，直是氣宇如王，祇知張虎豹爪牙，不覺落這僧陷穽。致令千載，

-
- 4) 독보(獨步). 어느 누구의 견해도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운신하는 것.
- 5) 운문이 일방적으로 학인을 이끌어가는 우월한 입장이라고만 생각하여 함정에 빠진 운문을 구제할 줄 몰랐다는 뜻이다. 이 공안에서 호랑이가 먹잇감을 잡을 때 쓰는 이빨과 발톱(학인을 지도하는 종사의 수단)뿐만 아니라 호랑이를 잡는 함정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두 가지 중 하나는 운문을 치켜세우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깎아내리는 말이라고 이해한다면, 지해지청의 의중을 빗나간다.
- 6) 본서 2則 주석(60) 참조.
- 7) 鴻門. 중국 섬서성 임동현(臨潼縣) 동쪽에 있는 지역. 항우와 유방이 만난 홍문회(鴻門會)로 유명하다. 항우가 유방을 살해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유방은 장량의 계책으로 홍문을 탈출할 수 있었다.
- 8) 張良(?~B.C.168). 한나라의 개국 공신. 소하(蕭何)와 함께 책략에 뛰어났다. 홍문회에서 유방을 살려낸 일화로 대의를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영웅적 인물의 전형이 되었다. 선문헌에서는 목숨을 던질 각오로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수행자를 뜻한다. 여기서는 운문을 구하기 위해 결정적인 한마디[一轉語]를 제시할 수 있는 학인에 해당한다.

遭人傍觀，而今莫有救得雲門底麼？試出衆來，略露風規。也要與智海相見。”良久乃云，“噉！鴻門無去客，歸計是張良。”

[설화]

호랑이와 표범의 발톱과 이빨을 ~ 지켜보고만 있으니 : 운문에게 비록 발톱과 이빨은 있었지만 저 학인의 입각처 또한 깊은지 얕은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를 만나 점검받아야만 한다 : 지해의 입각처가 운문의 편에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噉) : 운문의 의중이 어떤 한계로도 규정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소리이다.

홍문으로 가는 ~ 장량만이 안다 : 오직 장량만이 안다는 말이니, 산승의 뜻을 아는 자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장량은 지해가 뛰어나 막사에 들어앉아 작전을 짜면서도 천 리 밖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니, 지혜롭지 않고서야 어찌 이룰 수 있었겠는가?

智海：只知張虎豹云云者，雖有爪牙，這僧立處，又深淺難知故。也要與智海云云者，智海立在雲門邊，伊麼道也。噉者，雲門意無限也。鴻門無去云云者，唯有張良知，知山僧意者少也。張良多智，坐籌帷幄，決勝千里之外，非智而何也？



1076칙 雲門妙喜 운문묘희



1076칙 운문묘희 雲門妙喜

[본칙]

운문이 백추¹⁾가 올리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묘희세계²⁾를 가루가

- 1) 白槌. 어떤 일이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건추(健椎)를 올리는 것. 명추백사(鳴椎白事)라 한다. ‘白’은 고백(告白), ‘椎’는 율원(律院)에서 대중에게 정숙을 알리기 위하여 치던 건추에서 비롯한 것이다. 본래 추를 올려서 일을 알리는 것은 모두 백추라 하였지만, 후대에는 특히 개당(開堂)이나 축국(祝國)을 할 때 또는 상당법문 등에서 올리는 건추를 두고 백추라 한다. “백추: 세존의 율의(律儀)이다. 어떤 불사(佛事)를 드러내고자 하면 먼저 반드시 백추를 잡고 올리는데, 이것으로 대중을 정숙하게 하는 법으로 삼는다. 현재 중문에서 건추를 쳐서 알리는 역할은 반드시 법을 아는 스님에게 명하여 그 소임을 맡도록 한다. 장로가 자리를 잡고 앉은 다음에 백추를 잡고 ‘법석에 앉은 훌륭한 대중들[龍象衆]이여, 마땅히 제일의를 관찰하시오!’라고 말한다. 장로가 기틀에 적절한 설법을 하고 법회에 참석한 대중의 화답까지 마치면 다시 백추를 잡고 ‘법왕의 법을 자세히 관찰하시오! 법왕의 법은 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대체로 선덕들의 진실한 법도였으니 그 어느 것도 부처님의 본의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총림에서 부처님께서 사자좌에 오르시고 문수가 건추를 올렸던 기연을 들어 보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祖庭事苑』 권8 卍113 p.253b13. 白椎: 世尊律儀. 欲辨佛事, 必先秉白, 爲穆衆之法也. 今宗門白椎, 必命知法尊宿, 以當其任. 長老才據座已, 而秉白云, ‘法筵龍象衆, 當觀第一義!’ 長老觀機, 法會酬唱既終, 復秉白曰, ‘諦觀法王法! 法王法如是.’ 此蓋先德之眞規, 皆不失佛意. 且見叢林多舉世尊升座, 文殊白椎.)
- 2) 妙喜世界. 시방정토(十方淨土)의 하나. 아촉불(阿閼佛 𑖀Akṣobhya-buddha)이 머무는 세계이다. 아촉불은 부동불(不動佛) 또는 부동여래(不動如來) 등으로 한역하기도 한다. 아촉불은 과거의 인지(因地)에 있을 때 대목여래회(大目如來會)에

되도록 부수어 버려라! 여러분, 발우를 들고 호남성에 들어가 밥을 드시오.”

雲門聞白槌聲，乃云，“妙喜世界，百雜碎！汝等諸人，擎鉢向湖南城裏，喫飯去。”

[설화]

묘희세계 : 청정하고 미묘한 세계를 가리킨다.

가루가 되도록 부수어 버려라 : 청정하고 미묘하다는 견해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이다.

발우를 들고 ~ 밥을 드시오 : 호남성은 백성을 먹여 살리기 알맞다. 쌀값은 싸고 쌀감도 풍부하여 사방의 백성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 그러한 구체적 현상[聲色] 속에서 몸을 보전하라는 뜻이다.³⁾

妙喜世界者，淨妙世界也。百雜碎者，淨妙之見不立也。擎鉢向云云者，湖南城下好養民，米賤柴多足四隣，則聲色裏全身也。

서 육도무극(六度無極：六波羅蜜)의 법을 듣고 진에(瞋恚)·각의(覺意)·음욕(淫欲) 등을 모두 없애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여 마침내 7보수(寶樹) 아래서 성도하고, 현재 묘희국에 머물고 계신다고 한다. 밀교에서는 5불(佛) 중 동방에 머무는 부처님이다. 과거 유마거사(維摩居士)가 살았던 나라이기도 하다. 묘희는 환희(歡喜)·묘락(妙樂) 등이라고도 한역한다. 『勝天王般若波羅蜜經』 권6 大8 p.719a10, 『維摩經』 권하 大14 p.555b5, 『觀佛三昧海經』 권9 大15 p.689a7 참조.

- 3) 묘희세계가 이상적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눈앞의 호남성에 충족되어 있는 생활 조건에서 그 이상을 실현하라는 뜻으로 해설했다.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염

“대단한 운문도 그럴듯한 현상에서 착각을 일으켰구나!⁴⁾ 나의 이곳에서는 다만 유나가 백추를 올리고⁵⁾ 수좌가 음식을 베풀며, 나는 발우를 펼치고 행자들은 음식을 분배⁶⁾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여러 선문에서 판단하는 그대로 맡겨 두리라.”

大覺璉拈, “大小雲門, 也似事顛倒! 山僧者裏, 只是維那白撻, 首座施食, 山僧展鉢, 行者行益. 伊麼說話, 一任諸方裁斷.”

[설화]

이 법은 법의 위치에 머물기 때문에⁷⁾ 옛사람이 이러한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순간⁸⁾이 되어 ‘앉아서 차나 마시게!’⁹⁾라고 한 것이니, 이것이 바로

-
- 4) 사사(似事)는 본질과 흡사한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현상[事]을 나타내며, 전도(顛倒)는 그러한 현상을 본질이라고 뒤집어 생각하는 착각을 말한다. 호남성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운문의 견해에 대한 평이다.
 - 5) 백추는 보통 유나가 올린다.
 - 6) 행익(行益). 대중공양을 하면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음식을 분배할 때 당돌하게 정해진 순서를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誠初心學人文』韓4 p.738a14. 行益次, 不得擻揆越序.)
 - 7) 『法華經』「方便品」大9 p.9b10에 나오는 말로 <설화>에서 해설의 수단으로 자주 인용한다.
 - 8) 시절(時節). 본분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는 순간. 또는 그러한 소식 자체를 가리킨다. 마치 어떤 계절의 절기에 그에 가장 알맞은 소식이 갖가지 현상에 의지하여 전해지는 것과 같다.
 - 9) 하나하나의 모든 법이 근본의 법을 드러내는 차별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앉아서 차를 마시는 일상의 평범한 행위 또한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임제가 삼봉에 이르자 평화상이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황벽에서 옵니다.’ ‘황벽 선사는 요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황금소(황벽선사)가 어젯밤에 도탄(용광

그 뜻이다.

大覺：是法住法位故，古人到伊麼時節云，‘且坐喫茶!’ 此之義也.

로)에 빠졌는데, 지금껏 자취를 볼 수 없습니다.’ ‘가을바람이 옥피리를 부는데, 어느 누가 그 소리를 알아듣는가?’ ‘곧바로 만 겹의 관문을 뚫고, 맑은 하늘 밑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대가 던진 이 하나의 문제는 대단히 어렵구나.’ ‘용이 황금 봉황 새끼를 낳은 뒤, 푸른 하늘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앉아서 차나 마시게.’”(『臨濟語錄』大47 p.506a14. 到三峰, 平和尙問曰, ‘什麼處來?’ 師云, ‘黃蘗來.’ 平云, ‘黃蘗有何言句?’ 師云, ‘金牛昨夜遭塗炭, 直至如今不見蹤.’ 平云, ‘金風吹玉管, 那箇是知音?’ 師云, ‘直透萬重關, 不住清霄內.’ 平云, ‘子這一問, 太高生.’ 師云, ‘龍生金鳳子, 衝破碧琉璃.’ 平云, ‘且坐喫茶.’); 『楊岐語錄』「勘辨」大47 p.648b15 이하 네 곳에서 연이어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



1078칙 雲門屎橛 운문시꺄



1078칙 운문시궐 雲門屎橛¹⁾

[본칙]

운문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부처란 어떤 것입니까?” “마른 똥막대기이니라.”

雲門因僧問, “如何是佛?” 師云, “乾屎橛.”

[설화]

본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것이다.

本分答話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운문의 마른 똥막대기여!

법신(法身)·보신(報身)·화신(化身)을 완전히 넘어섰구나.

-
- 1) 부처와 마른 똥막대기에 대하여 ‘하나는 귀하고 하나는 천하다’는 일반적 관념을 역이용하여 두 가지 모두 귀와 천을 넘어선 몰자미(沒滋味)의 화두로 제시한 것에 이 공안의 요점이 있다.

일 없이 산에서 나와 노니는데,
백전이 지팡이 끝에 걸려 있네.²⁾

雲門杲頌, “雲門乾屎橛! 全超法報化. 無事出山遊, 百錢杖頭掛.”

[설화]

법신·보신·화신을 완전히 넘어섰구나 : (마른 똥막대기는) 지극히 천하기 때
문에 지극히 귀하다.

일 없이 ~ 걸려 있네 : 인연을 따라 자유자재하게 노니는 까닭에 이렇게 말
한다.

雲門: 全超法報化者, 極賤故極貴也. 無事云云者, 隨緣自在
故也.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중국말로 바꾸지도 말고,
인도말로 전달하지도 마라.
마혜수라³⁾의 눈일지라도,

2) 지팡이 끝에 걸어 놓은 백전은 ‘술을 살 돈’이다. 이것을 장두전(杖頭錢)이라 한다. “늘 걸어가면서 백전을 지팡이 끝에 걸어 놓고 주점에 이르러 한껏 즐겨 마셨다.”(『晉書』「阮脩傳」. 常步行, 以百錢掛杖頭, 至酒店, 便獨酣暢.) 여기서의 할 일을 모두 마친 다음 귀·천을 넘어선 여유로운 운신을 나타낸다.

3) 摩醯首羅. ㉠Maheśvara, ㉡Mahissara의 음사어. 막헤이습벌라(莫醯伊濕伐羅)라고도 하며, 한역어는 대자재천(大自在天)이다. 원래는 힌두교의 주신(主神) 쉬바(Śiva)의 다른 이름으로 세계의 창조와 파괴를 주관하는 춤의 신이다. 불교에 흡수되어 불교를 외호하는 신으로서 제4선천(禪天)의 색구경천(色究竟天)에 머

마주하고도 서천 거리로다.⁴⁾

竹庵珪頌, “不用唐言譯, 休將梵語傳. 摩醯首羅眼, 對面隔
西天.”

[설화]

공안의 근본 요지를 나타냈다. 앞의 두 구절은 제3구로 거둘 수 없다.

마혜수라의 ~ 서천 거리로다 : 제1구로 남김없이 거둘 수 없다는 뜻이다. 서천이란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곳을 말한다.

竹庵：大體也. 上二句，三句收攝不得也. 摩醯云云者，一句收
攝不得也. 西天者，佛出世處也.

송원의 송

보잘것없고 천한⁵⁾ 운문이,

무는 것으로 본다. 마혜수라의 정수리에 진리를 보는 제3의 눈이 박혀 있다고 묘사된다.

- 4)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지만, 유래를 알 수 없어 아주 먼 서천(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 ‘간시quel’이라는 말이 분명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언어의 형식에도 담을 수 없는 몰자미(沒滋味)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대면천리(對面千里)와 같은 뜻이다.
- 5) 소시아(小厮兒). ‘보잘것없고 천한 놈’이라고 경멸하는 말. 험뜯는 말이지만 보화(普化)는 임제(臨濟)를 인정하는 역설적 의미로 썼다. “임제가 하루는 하양·목탑 두 장로와 함께 승당의 화로 주변에 앉아 있다가 말했다. ‘보화가 매일같이 거리에서 상식을 벗어난 짓을 하는데 도대체 그는 범부인가요, 성인인가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화가 들어오자 임제가 물었다. ‘당신은 범부인가, 성인인가?’ ‘당신이 말해 보시오. 내가 범부인가, 성인인가?’ 임제가 한 소리 내지르자 보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하양은 신부같이 남의 말만 잘 듣는 선이요, 목탑은 말을 많이 늘어놓는 노파선인데, 보잘것없고 천한 임제는 그래도

사자후⁶⁾를 크게 내지르는구나.

코는 반 토막을 얻었으나,

입을 잃은 줄은 모르는구나.⁷⁾

松源頌, “雲門小廝兒, 作大師子吼. 鼻孔得半邊, 不知失却口.”

[설화]

1~2구에서는 운문을 긍정했고, 3~4구에서는 운문을 긍정하지 않았다. ‘사자후’는 두려움이 없는 설법을 나타낸다.

코는 ~ 모르는구나 : 모든 사람의 병통을 말한다. ‘반 토막을 얻었다’는 것은 완전히 얻지 못했다는 뜻이니, 하물며 입이 어찌 완전하겠는가! ‘입’이란 재잘재잘 떠드는 말을 비유한 것이다.

松源：前頭則肯雲門，後頭則不肯雲門也。又師子吼，無畏說也。鼻孔云云者，諸人之病。得半邊，則未全得也，何況口乎！口者，喃喃說話地也。

진리를 보는 눈 하나를 갖추었구나.’ 임제가 ‘이 도둑놈아!’라고 하자 보화도 ‘도둑놈아, 도둑놈아!’라 소리치고 바로 나가버렸다.”(『臨濟語錄』 大47 p.503b10. 師一日，與河陽木塔長老，同在僧堂地爐內坐。因說，‘善化每日在街市，掣風掣顛，知他是凡是聖?’ 言猶未了，善化入來。師便問，‘汝是凡是聖?’ 善化云，‘汝且道! 我是凡是聖?’ 師便喝。善化以手指云，‘河陽新婦子，木塔老婆禪，臨濟小廝兒，却具一隻眼.’ 師云，‘這賊!’ 善化云，‘賊，賊!’ 便出去.)

- 6) 師子吼. ⑧simphanāda. 백수(百獸)의 왕인 사자의 포효. 사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없지만 사자가 포효하면 다른 모든 동물은 두려워한다. 사람 중에서 왕의 지위에 이른 부처님의 설법을 이 사자의 포효에 비유한다.
- 7) 본문의 핵심(코: 鼻孔)은 어느 정도 터득했지만, 그것을 표현한 ‘간시켈’은 빗나간 말이라는 뜻.

대혜종고의 보설(普說)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예를 들면 단월⁸⁾ 강급사(江給事)의 경우와 같다. 그가 도리에 근거한 말을 즐기는 것을 알고, 마침내 도리가 전혀 없는 인연을 그에게 주고 공부해 보도록 하였다. 어떤 학인이 운문에게 ‘무엇이 부처입니까?’라고 묻자 운문이 ‘마른 똥막대기’라고 대답한 문답이 그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그가 도리에 근거하여 분별할까 염려하여 이에 앞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도는 똥오줌에도 있고, 도는 돌피와 쪽정이에에도 있으며, 도는 돌조각에도 있다’⁹⁾라고 한 말에 따라 「색(色)을 벗어나지 않은 채 마음을 밝히고 사물에 의탁하여 이치를 드러내라는 뜻이다」¹⁰⁾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날날의 대상마다 참되고, 티끌 하나하나까지 모두 본래인¹¹⁾이다」¹²⁾라는 방식으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雲門杲, 普說(云云), “如檀越給事, 見其愛說道理, 遂將箇沒道理底因緣與渠看. 僧問雲門, 至乾屎橛. 又恐渠作道理會, 先與渠說, ‘不得云, 「道在尿溺, 道在稊稗, 道在瓦礫.」」「卽色明心, 附物顯理.」不得道, 「處處眞, 塵塵盡是本來人」之類.”(云云).

-
- 8) 檀越, ⑤dāna-pati의 음사어. 재물을 보시하는 신도. 시주(施主)라 한역하고, 다나발저(陀那鉢底)·다나파(陀那婆) 등으로 음사한다.
 - 9) 『莊子』 「知北遊」 참조. 장자(莊子)와 동곽자(東郭子)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
 - 10) 『滄山語錄』 大47 p.579c12, 『圓悟語錄』 권15 大47 p.784c18 등에 나오는 말.
 - 11) 本來人.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 본인(本人)·본래면목(本來面目) 등과 같은 뜻이다.
 - 12) 『圓悟語錄』 권9 大47 p.753b28 등에 옛사람의 말로 나오지만, 누구의 말인지는 알 수 없다.

[설화]

무수하게 많은 도리 중 그 어느 것도 운문의 뜻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雲門：許多義理，皆契雲門意不得也.

백운지병(白雲知鼻)의 상당

“나는 운문스님께서 한계도 없이 미묘하게 펼쳐는 활용을 이전부터 좋아했다. 이 스님은 손 가는 대로 집어들 뿐 조금도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라 말한 다음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말을 할 때는 소리에 의지하지 않고, 색이 드러나기 전에는 대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다.¹³⁾ 만약 이해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원인으로 불러들여 결과에 속박당할 것이다. 알고 싶은가? 진흙 속의 거북이 머리는 자라와 비슷한 듯이 보이고, 저울추를 직접 밟아보면 무쇠와 같이 단단하리라.¹⁴⁾ 거듭 참선하는 그 대들에게 알리노니, 결코 저 마른 똥막대기를 씹으며 맛보지 마라.”

白雲曷，上堂云，“嘗愛雲門老，妙用曾無極。信手拈將來，不費絲毫力。”乃舉此話云，“言發非聲，色前不物。若是領解不真，便見招因帶果。要會麼？泥裏烏龜頭似鼈，秤鎚踏著硬如鐵。叮嚀報汝叅禪人，切忌咬他乾屎厥。”

13) 불물(不物). 『莊子』에 나오는 말.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뜻의 ‘불인(不人)’과 같다. “지극한 예(禮)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고, 지극한 의(義)는 대상과 나를 구분하지 않는다.”(『莊子』「庚桑楚」. 至禮有無人, 至義不物.)

14) 거북이 머리와 자라 머리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르고, 저울추와 무쇠는 보기에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무쇠로 만들어진 저울추의 단단한 속성은 무쇠와 다르지 않다. 본서 600則 주석15)참조.

[설화]

나는 운문스님께서 ~ 낭비하지 않았다 : 운문은 근본적인 작용[大用]을 눈앞에 드러내었다는 뜻이다.

말을 할 때는 ~ 구분하지 않는다 : 소리나 색을 마주할 때 일정한 인식 범주에 얽매이지 말고, 또한 말소리와 사물의 형색으로 찾아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원인으로 불러들여 결과에 ~ 속박당할 것이다 : 운문이 부처를 비방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도리어 재앙을 불러들일 것이라는 뜻이다.¹⁵⁾

진흙 속의 거북이 머리는 자라와 비슷한 듯이 보이고 : 본래의 것과 다른 물건은 진짜인 듯이 보이지만 가짜라는 뜻이니, 표면적인 말에 따라 뜻을 추정한다는 말이다.¹⁶⁾

저울추 ~ 씹으며 맛보지 마라 : 본래의 것은 가짜인 듯이 보이지만 진짜이니, 뜻을 얻었으면 언어의 자취는 잊으라는 말이다.

白雲：嘗愛云云者，大用現前也。言發非聲云云者，當聲色不存軌則也，又不可以言聲物色尋討也。招因云云者，將謂雲門謗佛者，反招其殃。泥裏烏云云者，他物似是而非者，言隨言定旨也。秤鎚云云者，本物似非而是者，言得意忘詮也。

15) 부처를 마른 똥막대기라고 한 말이 부처에 대한 비방이라 오해하는 자들에 대한 비판이다. 똥막대기는 천하고 부처는 귀하다는 분별을 고의적으로 촉발시켜 그 귀천의 관념을 무너뜨리고 귀와 천 어느 편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간화선의 전략이다.

16) 간시궐이라는 말을 전하는 개념에 따라 헤아리면 비슷한 듯이 보일 뿐 이 화두의 진실은 아니라는 말.

송원의 상당

‘마른 똥막대기’라 답한 운문의 말에 대해 어떤 학인이 “그 뜻은 어떤 것 입니까?”라고 물었다. 송원이 대답했다. “자고새 우는 곳에 온갖 꽃이 향기롭다.”¹⁷⁾

松源, 上堂, 因僧問, 〈至〉乾屎橛. “意旨如何?” 答云, “鷓鴣啼處百花香.”

[설화]

미묘한 작용은 언제나 끝이 없었으니, 갖가지 현상을 소재로 한 구절 말해 보라는 뜻이다.¹⁸⁾

松源: 妙用曾無極, 百草頭上, 道將一句來也.

17) 풍혈연소(風穴延沼) 등이 사용했던 말로 선가에서 상용한다. 자고새 우는 봄과 만발한 꽃을 소재로 제시하는 선지(禪旨)이다. 그러나 송원이 그려낸 이 봄 경치에 도(道)가 구현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그의 의중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치를 만들어내어 이해하면 똥막대기도 개념화되어 화두로서의 효용을 상실한다. “늘 강남의 3월 풍경을 기억하고 있노라.”(常憶江南三月裏)라는 구절과 짝을 이룬다. 『景德傳燈錄』 권13 「風穴延沼傳」 大51 p.303b23 참조.

18) 이 〈설화〉는 주석16)의 취지와 다르다.



1109책 長慶妙峯 장경묘봉



1109칙 장경 묘봉 長慶妙峯¹⁾

[본칙]

장경과 보복이 산행을 하던 중에 보복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가 바로 묘봉의 꼭대기라네.” 장경이 말했다. “옳다면 옳지만, 안타깝다!”²⁾ 그 뒤에 경청이 이 문답을 듣고서 말했다. “손공³⁾이 아니었다면, 해골이 들판에 널렸으리라.”⁴⁾ <설두중현(雪竇重顯)이 착어(著語)하기를 “오늘 이

-
- 1) 설봉의존(雪峯義存)의 제자인 장경혜릉(長慶慧稜)이 보복종전(保福從展), 경청도부(鏡淸道怵)와 주고받은 문답에 기초한 공안. ‘묘봉’이란 세계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높은 산, 곧 수미산(須彌山)이다. 보복은 매일같이 산행하던 곳을 ‘묘봉’이라 하여 평지풍파(平地風波)를 일으킴으로써 관문을 설정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장경이 간파하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안목을 발휘했다. 바로 이 두 측면이 제가의 염송에 나타나는 평가의 요점이다. 수미산 꼭대기는 언어와 사유분별이 통하지 않는 경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한다.
 - 2) 보복의 말을 관문으로 알아차리고 허용하는 듯하다가 그래도 아직 모자라다는 느낌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정상에 앉아 본분을 지키기만 하고 그곳에서 내려오는 방편이 없다는 뜻도 된다. <설화>의 해설이 그것이다.
 - 3) 孫公. 장경혜릉을 말한다. ‘孫’은 속성, ‘公’은 존칭이다.
 - 4) 보복의 말은 아무 일도 없는 일상의 상황에서 뚫고 나가기 어려운 관문으로 설정된 것인데, 이것을 장경이 간파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하여 분별의 수단으로 접근하여 본분의 목숨을 잃어 버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원오극근(圓悟克勤)이 『碧巖錄』 23則 大48 p.164b1에서 “평지에 해골이 높이 쌓였구나.”(平地上起骨堆)라고 한 「착어」와 같은 취지이다.

사람(보복)과 함께 산행을 해서 도대체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였고, 다시 “백천 년이 지난 후대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다만 그런 사람이 드물 뿐이리라”고 하였다.)

長慶與保福遊山次，福以手指云，“只者裏，便是妙峯頂。”
師云，“是則是，可惜許！”後舉似鏡清，清云，“若不是孫公，
便見髑髏徧野。”〈雪竇顯着語，“今日共這漢遊山，圖箇什麼？”復云，“百千年後不道無，只是小。”〉

[설화]

묘봉의 꼭대기 : 덕운비구⁵⁾가 머무는 장소로 상(相)이 모두 사라지고 명(名)이 남아 있지 않은 곳이다.⁶⁾

옳다면 옳지만, 안타깝다 : 묘봉의 꼭대기에는 풀이 무성하고 길게 늘어져

5) 德雲比丘. ⑤Meghaśrī-bhikṣu, 공덕운비구(功德雲比丘)·길상운비구(吉祥雲比丘)라고도 한다. 선재동자(善財童子)가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지시를 받고 친견한 53명의 선지식 중 최초로 찾아가 가르침을 받았던 스승이다. “선남자여! 이곳에서 남쪽에 승락(勝樂)이라는 나라가 있다. 그 나라에 묘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덕운이라는 비구가 살고 있다. 그대는 그에게 가서 법을 물어라.”(80권 본 『華嚴經』 권62 「入法界品」 大10 p.334a9, 善男子! 於此南方, 有一國土, 名爲勝樂. 其國有山, 名曰妙峰. 於彼山中, 有一比丘, 名曰德雲. 汝可往問.); “(『화엄경』을 설한) 제3의 법회는 수미산 정상에 올라가 법혜(法慧) 등 십혜(十慧)보살이 각각 하나의 법문을 설하여 모두 십주(十住)를 이룬 것이다. 가령 선재동자가 남쪽으로 향해 가다가 묘봉산 꼭대기에 이르러 덕운비구를 만난 다음 이하의 10선지식에 게까지 이룬 것은 『화엄경』 중에서 수미산 꼭대기에 올라가 법혜 등 십혜보살이 십주법문을 설한 것과 같다.”(『華嚴論節要』 권2 韓4 p.801b16. 第三會, 昇須彌山頂, 法慧等十慧菩薩, 各說一法門, 共成十住. 如善財童子, 南行至妙峰山頂, 見德雲比丘, 及已下十善知識, 還如前經中, 昇須彌山頂, 法慧等十慧菩薩, 說十住法門.)

6) 만물의 차별된 특징[相]과 각각에 상응하는 의미와 개념[名]이 전혀 없으므로 분별할 틈이 없고 말로 드러낼 대상이 아니다.

있다는 뜻이다.⁷⁾

손공이 아니었다면, 해골이 들판에 널렸으리라 : 죽은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설두의 착어 중 첫 번째는 보복의 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며, 두 번째는 인정한 것이다.

妙峰頂者，德雲比丘住處，相盡名忘處也。是則是，可惜許者，妙峰高頂草離離也。若不是云云者，如同死漢故也。雪竇今日云云者，不肯也。復云云者，却肯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묘봉의 우뚝한 꼭대기에 길게 늘어진 풀을,
분명하게 집어 들었으나 누구에게 전해줄까?
손공이 그 단적인 뜻 가려내지 않았더라면,
해골이 땅 가득 했으리니 몇 사람이나 알까!

雪竇顯頌，“妙峯孤頂草離離，拈得分明付與誰？不是孫公辨端的，觸髅著地幾人知！”

7) 가장 높은 곳에 사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지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말. 산이 너무 높고 험하여 사람의 발길이 닿지 못하기에 풀만 무성하게 자랐다는 뜻이다.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첫 구절과 같다.

[설화]

분명하게 ~ 전해줄까 : 묘봉의 높은 꼭대기에 풀이 무성하고 길게 늘어져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몸과 마음을 편안히 의탁할 경계라는 뜻이다.

손공이 ~ 몇 사람이나 알까 : 또한 죽은 사람⁸⁾ 앞에서 해설의 말을 붙이는 뜻이다.

雪竇：拈得云云者，妙峰高頂草離離，便是安身立命處也。不是云云者，又是死漢前著語義也。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염

“보복은 마치 오이가 풍성한 과주(瓜洲)⁹⁾에서 오이를 파는 사람과 같았다.¹⁰⁾ 만일 장경이 그 뜻을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언제나 성급하게 그 말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어째서 이와 같은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¹¹⁾라는 말을 모르는가?”

法眞一拈，“保福，大似瓜洲賣瓜漢。若不是長慶識破，往往造次承當。爲什麼如此？不見道，美食不中飽人食。”

8) 사한(死漢). 화두의 뜻을 잘못 알아 본분의 핵심을 잃은 사람.

9) 중국 강소성(江蘇省) 한강현(邗江縣) 남부. 장강(長江)으로 흐르는 대운하(大運河)의 지류에 위치하여 운수와 교통의 요충지이다.

10) 과주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집에 오이가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오이를 밖에서 살 필요가 없는데도 뛰어난 상술과 연변에 속아 남의 오이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본분에 입각하지 못하고 남의 견해와 말에 지배되는 사람은 보복의 걸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그것에 물들게 된다는 뜻이다.

11) 배부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듯이, 본질을 간파한 사람은 상대가 설정한 수단과 기틀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설화]

두 선사의 본의가 비록 어느 한 부분에 제한되지 않지만¹²⁾ 사람들이 잘못 이해할까 염려하여 장경이 이처럼 말했다는 뜻이다.

法眞：兩箇意則雖無限，恐人錯會故，長慶伊麼道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사람을 살리는 수단을 지니고 유유자적하게 도(道)와 노니는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은 소식과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보복은 한 걸음도 잘못 내디디지 않았고, 장경은 한 구절도 헛되게 말하지 않았다. 당시에 만약 손공이 아니었다면 해골이 들판에 널렸을 것이라고 하니, 무슨 헤아릴 일이 있겠는가? 경청스님이여, 경청스님이여! 태평하게 만물을 다스리며 전혀 동요하지 않았도다. 터럭만큼의 싹도 돋지 않아 평온하게 쉬니, 바로 이렇게 변함없이 여여(如如)한 것이 원래 도인 것이다.”

天童覺，上堂，舉此話云，“活人手段，游道工夫，須到恁麼時節，恁麼田地，始得。保福，不錯行一步；長慶，不妄說一句。當時，若不是孫公，觸髅遍野，有甚麼數？鏡清老，鏡清老！太平治象，渾無擾。毛髮不萌，平穩休，只箇如如是道。”

[설화]

‘사람을 살리는 수단’은 장경의 입장을 가리키고, ‘도와 노니는 공부’는

12) 무한(無限). <설화>에서 상용하는 용어이다. 선어(禪語)로서의 모든 화두는 말에 담긴 개념이나 뜻에 한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무수한 활용의 가능성을 지니므로 ‘한계가 없다’고 한다.

보복의 입장을 나타낸다.¹³⁾ 이하 ‘한 걸음도 내디디지 않고’라고 한 등의 네 구절은 드러낸 말 자체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다.

天童：活人手段者，長慶地也。遊道功夫者，保福地也。云云不
錯行一步等四句，據款結案也。

천동정각의 시중

이 공안을 제기하고 ‘해골이 들판에 널렸으리라’고 한 구절에 이르러 말했다. “‘대지를 바꾸어 모두 황금으로 만들고 강물을 휘저어 소락으로 만든다’¹⁴⁾라는 말이 있으니, 보복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킬 이유가 무엇이며 평지에 어찌 구태여 언덕을 쌓으려 하는가’라는 말이 있으니, 장경이 바로 그렇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¹⁵⁾ 설두의 생각은 종과 술에 문양을 새기려는 것이었고,¹⁶⁾ 경청의 말은 태평성대에 특별히 형상이 없다는 것이다.¹⁷⁾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뜻을 알까?

13) 보복이 자유롭게 시험의 기틀을 설정한 것과 장경이 그것을 바르게 포착하여 읽매이지 않도록 한 것에 각각 대응한다.

14) 『五祖法演語錄』 권2 大47 p.658a23 등에 나오는 구절.

15) 보복의 기특한 화두의 장치와 그것을 장치 그대로 포착하여 평상무사(平常無事)로 나타낸 장경의 경계를 말한다.

16) 종과 술[鍾鼎]은 명기(名器) 또는 보기(寶器)로서 귀중한 기물을 대표한다. 이것에 공업(功業)을 기리기 위한 사적(事蹟)이나 문양을 새기는데, 이것을 명정(銘鼎)·금전(金篆)·전서(篆書)·전각(篆刻) 등이라 한다. 곧 설두의 계송에는 장경이 간파한 뜻을 분명히 드러내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다는 취지이다.

17) 보복의 장치를 간파하고 더 이상 그것에 교란당하지 않고 평정한 장경의 안목을 가리킨다. 또한 보복의 입장에서 보면 장경은 자신의 의중을 알아준 사람이다. “금을 팔려면 금을 사려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賣金須遇買金人)”라는 말과 같은 소식이다.

촌노인은 요순(堯舜)의 치세는 알지도 못하고, 둥둥 북을 치면서 강신(江神)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

又示衆，舉此話，〈至〉髑髏遍野，師云，“變大地作黃金，攪長河爲酥酪，保福要恁麼；無風何須起浪，平地豈肯生堆！長慶要恁麼。雪竇意，鍾鼎刻銘；鏡清道，太平無像。且作麼生體悉？野老不知堯舜力，蓼蓼打鼓祭江神。”

[설화]

대지를 바꾸어 ~ 언덕을 쌓으려 하는가 : 두 선사가 드러낸 말에 근거하여 판단을 내린 것이다.

촌노인은 ~ 감사의 제사를 올린다 : 네 선사들¹⁸⁾은 저 요순이 펼친 것과 같은 무위(無爲)의 교화를 잊지 않음이 없었으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又示衆：變大地作黃金，云云四着語，亦據款結案也。野老不知云云者，四箇無不承，他無爲化，而自不知也。

18) 보복·장경·설두·경청을 말한다.



1122칙 鏡淸啐啄 경청줄탁



1122칙 경청줄탁 鏡淸啐啄¹⁾

[본칙]

경청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제가 안에서 쪼 터이니 스님께서는 밖에서 쪼아 깨뜨려주십시오.”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살아나오지 못한 다면 남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번뇌의 풀숲에 떨어져 있는 형편없는 놈이로구나.”

鏡淸因僧問, “學人啐, 請師啄.” 師云, “還得活也無?” 僧云, “若不活, 遭人怪笑.” 師云, “也是草裏漢.”

[설화]

‘줄탁’이란 옛말에 ‘새끼는 껍질 안에서 쪼고 어미는 밖에서 쪼다’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그 학인은 스스로 ‘경청과 인연에 응하여도 아무 잘못

1) 경청도부(鏡淸道怱 864~937)와 한 학인이 선(禪)의 개오(開悟)를 알 속에서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모양에 비유하며 나눈 문답.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줄(啐),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 깨뜨리는 것을 탁(啄)이라 한다. 알을 깰 때에 이 두 가지가 안과 밖에서 동시에 호응해야 하듯이 수행자의 개오(開悟)와 스승의 지도 관계도 그러해야 함을 이에 비유한 말이다. 학인은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경청에게 초리한(草裏漢)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풀숲에서 헤매는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제자의 ‘줄’과 스승의 ‘탁’이 계합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로서 학인에게 더욱더 분발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없이 맞닥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 경청이 쪼기를 마쳤기 때문에 한 말이다.

살아나오지 못한다면 남들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 학인 자신도 쪼기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한 말이다.

번뇌의 풀숲에 떨어져 있는 형편없는 놈이로구나 : 안과 밖에서 동시에 쪼는 눈만 갖추었을 뿐, 안과 밖에서 동시에 쪼는 작용이 없다는 말이니,²⁾ 이것이 바로 풀숲으로 마구 내달렸다는 뜻이다.

啐啄者, 古云, 子啐母啄云云. 這僧自謂, 與鏡清應緣, 不錯相見也. 還得活也無者, 所以啄了也. 若不活云云者, 自謂已啐也. 也是草裏漢者, 只知³⁾啐啄同時眼, 而無啐啄同時用也, 是草裏走殺也.

2) 『圓悟語錄』 권7 大47 p.743c16에 경청과 남원혜옹(南院慧顒 860~930)의 말로 제기되어 있다. 남원의 다음 상당 법문에도 보인다. “남원이 법좌에 올라앉아 말했다. ‘제방에서는 단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쪼는 안목만 갖추고 있을 뿐 안과 밖에서 동시에 쪼는 작용은 갖추지 못했다.’ 한 학인이 물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쪼는 작용이란 어떤 것입니까?’ ‘작가는 안과 밖에서 쪼지 않으니, 안에서 쪼는 작용과 밖에서 쪼는 작용을 동시에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가 여쭙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대가 묻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학인이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자 남원이 때렸다. 그 학인이 이에 수긍하지 않고 뒤에 운문 회하에 가 이전의 남원과의 인연을 제기하고 수긍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때 옆에 있던 학인이 ‘당시에 남원의 주장자가 부러졌습니까?’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크게 깨쳤다.”(『南院語要』古尊宿語錄7 卅118 p.236a7. 上堂云, ‘諸方只具啐啄同時眼, 不具啐啄同時用.’ 僧問, ‘如何是啐啄同時用?’ 師云, ‘作家不啐啄, 啐啄同時失.’ 僧云, ‘猶是末學人問處.’ 師云, ‘你問處作麼生?’ 僧云, ‘失.’ 師便打. 其僧不肯. 後到雲門會裏, 舉前因緣, 說不肯. 其時有傍僧云, ‘當時南院棒折那?’ 僧聞此語, 言下大悟.)

3) ‘知’는 ‘具’자의 오식.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송

옛 부처에게 가풍이 있었으나,
들어보였다가 반박만 당했다네.
새끼와 어미 서로 알지 못하니,
누가 안팎에서 동시에 쪼리오?
쪼아서 깨어났으나 여전히 껍질 안에 있어,
거듭 부서짐을 받아야 할 것인데,
천하 납승들 헛되이 이름 붙이고 겉모양만 본뜨네.

雪竇顯頌, “古佛有家風, 對揚遭貶剝. 子母不相知, 是誰同啐啄? 啄覺猶在殼, 重遭撲, 天下衲僧徒名邈.”

[설화]

옛 부처 : 경청을 가리킨다.

들어보였다가 반박만 당했네 : 모든 사람이 이 경계에 이르러서는 반박을 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새끼와 어미 서로 알지 못하니 : 본래부터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이다.

쪼아서[啄] : 어미가 쪼는 것이다.

깨어났으나[覺] : 새끼가 스스로 깨어났다는 것이다.

(쪼아서 깨어났다는 말은) 새끼와 어미가 만났다는 뜻이다.

여전히 껍질 안에 있다면, 단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쪼는 눈만 갖추었을 뿐이라는 말이다.

거듭 부서짐을 받아야 할 것인데 : 동시에 쪼는 작용을 가리킨다.

천하 납승들 헛되이 이름 붙이고 겉모양만 본뜨네 : 이리저리 더듬어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이다.

雪竇：古佛者，鏡清也。對揚遭貶剝者，諸人到此，未免遭貶剝也。子母不相云云者，本不曾相見也。啄者，母啄也。覺者，自覺也，子母相見也。猶在殼則，只有啐啄同時眼也，重遭撲者，同時用也。天下云云者，摸捺不著也。

설두중현의 염

“납승이 이처럼 기특한 솜씨를 가지고 특출나게 드문 인물⁴⁾과 함께 남김없이 펼쳐보였다면, 옛 성인도 부질없이 나타날 일이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又拈，“衲僧有此奇特事，若一人半个互相平展，古聖也不虛出來一回。”

[설화]

납승이 이처럼 기특한 솜씨를 가지고 : 모름지기 이러한 수단이 있어야 비로소 납승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특출나게 드문 인물 ~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 : 학인이 대종사와 같은 수단을 쓸 수 있다면 종사가 부질없이 나타나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又拈：衲僧有此云云者，大抵有此手段，方名衲僧也。若一人云云者，學人如大宗師手段，則宗師不虛出來也。

4) 일인반개(一人半个). 한 사람의 반. 곧 반쪽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사람은 없으므로 특출나고 보기 드문 인물을 나타낸다. 교학에서 만인(半人)이라 하면 인간으로서 악행을 저지르는 등 온전하지 못한 자를 가리키고, 상대적으로 선행을 하는 자는 만인(滿人)이라 한다. 『大般涅槃經』 권8 大12 p.655a20 참조.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염

“그 학인이 살아났다면 경청이 어째서 번뇌의 풀숲에 떨어진 놈이라 하였겠는가? 사방을 고루 아는 안목으로 살피지 않았다면 그 학인도 함께 굴욕을 당했을 것이다. 알겠는가? 큰 그릇을 원만히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뛰어난 대장장이[作家]의 풀무질이라야 한다.⁵⁾”

法眞一拈, “者僧, 既是得活, 鏡清, 因什麼道也是草裏漢? 若無知方眼鑑, 者僧還同受屈. 要會麼? 欲令大器圓成, 須是作家爐鞴.”

[설화]

법진수일의 염은 드러난 말에 뜻이 나타난다.

法眞拈云云也.

5) 노비(爐鞴)에서 ‘노’는 대장간의 화로, ‘비’는 풀무질하는 통을 가리킨다. 구리나 쇠 등을 단련하기 위한 화로 또는 풀무질을 말한다. 종사(宗師)가 학인을 도야(陶冶)하는 수단을 비유한다. 뛰어난 대장장이[匠人]의 풀무질로 완성도 높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학인을 단련시켜 깨닫게 만드는 종사를 종장(宗匠) 또는 작가(作家)라 한다.



1125책 鏡淸鐘子 경청종자



1125칙 경청종자 鏡淸鐘子

[본칙]

경청도부(鏡淸道怱)가 승당 앞에서 직접 종을 치며 말했다. “현사선사가 말한 것이다! 현사선사가 말한 것이다!” 이때 어떤 학인이 나와서 물었다. “현사선사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경청이 일원상을 그리자 학인이 말했다. “만약 참구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줄 알겠습니까?” “나에게 짚신 값을 돌려다오.”

鏡淸於僧堂前，自擊鐘子云，“玄沙道底！玄沙道底！”時有僧出來云，“玄沙道什麼？”師乃作一圓相，僧云，“若不久叅，爭知伊麼？”師云，“還我草鞋錢來。”

[설화]

직접 종을 치며 ~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 『광등록』¹⁾에 “현사선사가 공양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신음소리를 내고 뛰어오르며 말했다. ‘이 종이 내 배 속에서 울린다.’”라는 일화가 전한다.²⁾

-
- 1) 『광등록』은 『天聖廣燈錄』을 말하지만, 이 책에 일치하는 구절은 없고 『玄沙廣錄』에 나온다.
 - 2) 전문은 다음과 같다. “종소리가 울리자 선사가 신음하는 소리를 내고 뛰어오르며 말했다. ‘이 종소리가 내 배 속에서 울린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원상을 그렸다 : 현사선사가 한 말은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만일 참구가 무르익지 ~ 알겠습니까 : 스스로 알았다고 여겼다는 뜻이다.

나에게 짚신 값을 돌려다오 : 그러한 견해라면 헛되이 짚신만 떨어뜨리며 돌아다닌 것이라는 뜻이다.

自擊鐘子云云者, 廣燈錄云, “玄沙因齋鐘鳴, 作忍痛聲, 騰身云, ‘這箇鐘子在我肚裏鳴.’” 作一圓相者, 玄沙底畫出也. 若不久叅云云者, 自謂得知也. 還我云云者, 伊麼見解, 虛踏草鞋也.

열재거사의 송

현사가 한 말 아무도 이해 못하니,
허공을 집어내어 산산이 부수었네.
신발 신은 석녀 맑은 물에 노닐고,
두건 두른 원숭이 대열 따라가네.

悅齋居士頌, “玄沙道底無人會, 拈出虛空百雜碎. 着靴石女弄

전상좌가 대답했다. ‘화상의 몸은 괜찮으십니까?’ ‘그대는 또다시 분별하여 말 해서 무엇 하려는가?’ ‘화상께서도 스스로 물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저인들 어찌 이와 같이 했겠습니까?’ ‘그렇다, 그래!’ ‘네, 네!’”(『玄沙廣錄』 권상 卍126 p.366a8. 因鍾鳴次, 師作忍痛聲, 騰身云, ‘者箇鍾在我肚裏鳴, 你諸人, 且作麼生?’ 展上座對云, ‘和尚尊體如何?’ 師云, ‘你又分疎作麼?’ 云, ‘和尚又自問作麼?’ 師云, ‘我要不如此.’ 展云, ‘某何曾如此?’ 師云, ‘是, 是!’ 展云, ‘喏, 喏!’)

清波，裘帽胡孫趨大隊。”

[설화]

허공을 집어내어 산산이 부수었네 : 경청의 의도는 일원상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는 뜻이다.

신발 신은 ~ 따라가네 : 비록 작용이 있을지라도 그 형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悅齋：拈出虛空百雜碎云云者，意不執圓相也。著靴云云者，
雖有其用，亦不可得其形狀也。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염

“채주³⁾처럼 거의 함락될 뻔했구나.”⁴⁾

-
- 3) 蔡州. 당나라 때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나자 토벌군의 대장 이소(李愬)가 밤에 주위의 소란을 틈타 기습한 끝에 대적(大賊)을 붙잡아 서울로 호송한 고사에 기초한다. 토벌군은 채주 성벽 부근의 연못에서 오리 떼를 날려 주위를 소란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 병력이 성벽 아래까지 발각되지 않고 진군하여 쉽게 성을 함락시켰다. 이 고사에서 기습공격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는 것을 일컫는 ‘지아야격(池鵝夜擊)’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 4) 채주가 점령당하듯이 핵심을 간파당하는 위태로운 지경에 빠질 뻔했다는 뜻. 채주는 반란군 또는 도둑이 있는 소굴을 상징한다. 선사들이 감추고 있는 선기(禪機)의 요소를 도둑의 거점에 비유하는데, 경청이 그 학인의 점검에 자신의 선기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었다는 뜻으로 쓰였다. 곧 경청의 마지막 한마디가 없었다면 학인의 한마디에 자신의 거점을 함락당할 뻔하였다는 평가이다. 고남통문(古南通門)은 학인 자신의 채주성이 경청에 의해 그 이전에 이미 함락되었다고 평가했다. “그 학인이 비록 경청의 속뜻을 잘 빼앗긴 했어도 채주성으로 말하자면 함락된 지 오래되었다.”(『宗門拈古彙集』 권34 卍115 p.913a9. 古南門云, ‘者僧雖善成瓶鏡清, 若論蔡州城, 打破多時了也.’) 설두는 다른 곳에서도 이 비

雪竇顯拈, “泊被打破蔡州.”

[설화]

경청은 빠져나갈 길이 있었다는 뜻이다.

雪竇：鏡清也有出身之路也.

유를 쓰고 있다. “어떤 학인이 설두에게 물었다. ‘눈앞에 마주치는 깨달음의 경계란 어떤 것입니까?’ ‘바람이 부니 먼지가 일고, 새가 날아가니 깃털이 떨어진다.’ ‘다시 한 번 가르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나의 속뜻을 간파당할 뻔했구나.’”(『雪竇語錄』 권1 大47 p.676a16. 僧問, ‘如何是觸目菩提?’ 師云, ‘風動塵起, 鳥飛落毛.’ 進云, ‘乞師再垂方便.’ 師云, ‘泊被打破蔡州.’) 여기서의 자칫 잘못했으면 학인의 질문에 다시 한마디 더하여 선기를 망칠 뻔했다는 말로 쓰였으며, 앞서 한 대답에 덧붙일 것이 없다는 뜻이 숨어 있다.



1173책 道丕金鷄 도비금계



1173칙 도비금계 道丕金鷄

[본칙]

홍주 봉서산의 동안도비(同安道丕)¹⁾선사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화상의 가풍은 어떤 것입니까?” “금닭은 알을 품고 은하수²⁾로 돌아가고, 옥토끼는 새끼를 배고 자미궁³⁾으로 들어갔다.” “느닷없이 손님이 찾아온다면 무엇으로 대접합니까?” “금과일은 이른 아침에 원숭이가 따갔고, 옥꽃은 저녁 늦게 봉황이 물어온다.”

洪州鳳棲山，同安丕禪師，因僧問，“如何是和尙家風？”師曰，“金雞抱子歸霄漢，玉兔懷胎入紫微。”僧云，“忽遇客來，將何祇對？”師曰，“金菓早朝猿摘去，玉花晚後鳳銜來。”

[설화]

금닭은 알을 품고 ~ 자미궁으로 들어가다 : 『동방삭십주기(東方朔十州記)』에

- 1) 생물연대 미상. 당말 오대(五代) 때 조동종(曹洞宗) 선사. 운거도옹(雲居道膺 ?~902)의 제자로서 건창부(建昌府) 동안원(同安院)에 주석하였다.
- 2) 소한(霄漢), 은하수[天河] 또는 하늘[天空].
- 3) 紫微宮. 자미원(紫微垣)이라고도 한다. 성관(星官)의 명칭으로 삼원(三垣: 紫微垣, 太微垣, 天市垣)의 하나이다. 삼원은 28수(宿)와 함께 주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는 성관이다. 자미원에는 15과(顆)의 별이 양쪽으로 나뉘어 배열되어 있으며, 북극성을 중추로 하여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형상이다.

“금닭이 알을 품고 푸른 하늘 위로 돌아갔다”라고 하였으며, 『영림집(影林集)』에 “옥토끼가 새끼를 배고 자미궁으로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금은 서쪽에 속하고 닭을 나타내는 유(酉) 또한 서쪽 방위에 속한다.⁴⁾ 알[子]은 이미 나타난 존재를 가리킨다.⁵⁾ 금닭이 알을 품었다는 것은 정위(正位) 중에 편위(偏位)가 있다는 뜻이다.⁶⁾ 옥에는 따뜻하고 윤택한 덕이 있는데, (12지지 중) 토끼를 나타내는 묘(卯)는 동쪽 방위에 속하며, 태아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존재를 가리킨다. 옥토끼가 새끼를 뱉다는 것은 편위 중에 정위가 있다는 뜻이다. ‘은하수로 돌아가고’, ‘자미궁으로 들어갔다’고 한 말은 편위와 정위가 자기 본래의 지위를 벗어난 적이 없다는 뜻이다.

느닷없이 손님이 찾아온다면 무엇으로 대접합니까 : 접대를 하여야 온다는 뜻이다. ‘금과일’이란 말에서 ‘금’의 뜻은 앞의 풀이와 같고, 과일은 결실을 나타낸다. ‘이른 아침’이란 밝음을 나타내고, ‘원숭이’란 문채가 전혀 없음을 말한다. ‘따갔다’는 말은 무차별의 저편[正位]을 향해 갔다는 뜻이다.⁷⁾ ‘옥꽃’이라는 말에서 ‘옥’의 뜻은 앞의 풀이와 같고, ‘꽃’은 결실을 이루기 위한 원인이다. ‘저녁 늦게’란 어두움을 나타내고, ‘봉황’이란 문채가 있음을

4) 금은 오행(五行)의 하나로 삼라만상과 인간사를 결정하는 수·화·목·금·토 등 다섯 가지 근본 요소에 속한다. 12지지(地支) 중 닭에 해당하는 유(酉)는 금이면 서 동시에 서쪽 방위를 나타낸다.

5) 알을 뜻하는 자(子)는 수(水)에 해당되므로 ‘금닭이 알을 품었다’라는 말은 오행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금이 어미로서 자식인 수를 생하는 ‘금생수(金生水)’가 된다.

6) 동안도비는 조동종(曹洞宗)의 선사이므로 조동종의 편정오위설(偏正五位說)에 따라 내린 해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풀이는 본칙에 대한 염송가(拈頌家)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7) 향거(向去). 조동종의 공훈오위(功勳五位) 중 공공시(共功時)를 나타낸다. 본서 1175則 「同安向去」 본칙 <설화> 참조.

말한다. ‘몰어온다’는 말은 차별의 이편[偏位]으로 돌아왔다⁸⁾는 뜻이다. 그러므로 ‘금과일은 ~ 따갔다’는 구절은 편위로부터 정위에 이른 것을 나타내며, ‘옥꽃은 ~ 몰어온다’는 구절은 정위로부터 편위로 돌아온 것을 나타낸다.

金鷄抱子云云者，東方朔十洲記云，“金鷄抱子，歸於碧天之上。”影林集云，“玉兔懷胎，入於紫微之宮。”金屬西，鷄酉亦屬西，子已現之物也。金鷄抱子，則正中有偏也。玉有溫潤之德，兔卯屬東，胎未現之物也。玉兔懷胎，則偏中有正也。歸霄漢入紫微，則偏正不曾離本位也。忽遇客來云云者，接待方來也。金義如前，果則結實也。早朝者，明也。猿者，沒文彩也。摘去者，向去也。玉義如前，花則因花也。晚後者，暗也。鳳者，有文彩也。銜來者，却來也。然則金果至摘去者，從偏至正也；玉花至銜來者，從正來偏也。

단하자순(丹霞子淳)의 송

대낮에는 안개에 싸인 산 높이 솟았더니,
한밤중에는 맑은 하늘에 뜬 달이 곱더라.
하나로 고요히 비추니 부신 하늘 아득하고,
밝음과 어둠 어울려 만물의 조짐 이전일세.

8) 각래(却來). 조동종의 공훈오위(功勳五位) 중 공공시(功功時)를 나타낸다. 본서 1175則「同安向去」본칙〈설화〉참조.

丹霞淳頌, “日午煙凝山峽岨, 夜央天淡月嬋娟. 混然寂照寒霄永, 明暗圓融未兆前.”

[설화]

첫 번째 구절은 정위이고, 두 번째 구절은 편위이다. 이 두 구절은 ‘금과 일은 이른 아침에 ~ 봉황이 물어온다’라는 뜻에 상응한다. 나머지 두 구절은 편위와 정위가 각각 본래의 지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것은 ‘금닭은 알을 품고 ~ 자미궁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에 상응한다.

丹霞：初句，正位也；二句，偏位也。此，金葉早朝云云舍來之義也。下二句，言偏正不曾離本位。此，金鷄抱子至紫微之義也。

금산요원(金山了元)의 상당

화주⁹⁾가 돌아온 것을 기념하여 법좌에 올라앉아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동안의 가풍은 단지 이와 같을 뿐이지만, 귀종¹⁰⁾의 가풍은 그렇지 않다. 귀종의 가풍은 어떤 것인가? 왕희지의 고택(古宅)¹¹⁾ 주변에 맑은 바

9) 化主, 거리에 나가 세상 사람들을 불법(佛法)으로 인도하고, 시주(施主)를 받아 사찰의 재정을 마련하는 소임이다. “가방화주(街坊化主): ‘화주’라고만 하기도 하고, ‘가방’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도충(道忠)이 말한다. ‘사람들에게 선을 권장하여 교화하며[勸化] 저잣거리에서 신도의 시주를 구하여 대중에게 공양할 물품으로 삼는 소임이다.’”(『禪林象器箋』 권7 「職位類」 禪藏 p.516. 街坊化主：或單言化主，或單言街坊。忠曰，‘勸化市鄣街坊，索得檀施，以爲大眾供料者。’)

10) 歸宗, 금산요원 자신. 주석하던 귀종사(歸宗寺) 이름을 따라 붙여진 호이다.

11) 현재의 설법 장소인 귀종사를 말한다. 서법(書法)으로 유명한 왕희지(王羲之 321~379)가 자신이 살던 집을 바꾸어 절로 만들었다. “함강(咸康) 6년(340) 우장군 왕희지가 서천의 달마다라(나련야사존자)를 위하여 여산(廬山)에 귀종사를

람이 일고, 야사봉(耶舍峯)¹²⁾ 앞의 보배로운 달은 휘황찬란하구나. 만일 손님이 온다면 무엇으로 대접할까? 매일같이 먹는 차와 밥에 온갖 종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온 세상의 선 수행자들 교화 받고 돌아가리라.¹³⁾”

金山元, 因化主廻, 上堂, 舉此話云, “同安家風只如此, 歸宗家風不恁麼. 如何是歸宗家風? 義之宅畔清風起, 耶舍峯前寶月輝. 忽遇客來, 將何祇對? 家常茶飯千般足, 四海禪人教化歸.”

[설화]

‘왕희지의 고택 주변’이란 속제(俗諦)를 나타내고, ‘맑은 바람이 인다’는 말은 주인공을 나타내는 것이니 속제가 곧 진제(眞諦)라는 뜻이다. 그 아래 구절은 이 뜻에 따른다. 이것은 두 번째 구절에 한정된 것이니, ‘금과일은 이른 아침에 ~ 물어온다’라고 한 뜻과 마찬가지로이다. ‘매일같이 먹는 차와 ~ 교화 받고 돌아가리라’고 한 말은 대단히 많은 일이 있다는 뜻으로 세 번째 구절이다. 지위를 낮게 할수록 법은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다.

金山：義之宅畔者，俗諦也，清風起者，主也，俗諦卽眞諦也。下句例此。此約第二句也，金果早朝云云之義一般也。家常云云者，有許多事，第三句也。位彌下而法彌高也。

세웠다.”(『佛祖統紀』 권36 大49 p.339c24. 六年, 右將軍王羲之, 爲西天達摩多羅, 於廬山, 建歸宗寺.)

- 12) 귀종사 주변에 있던 봉우리로 추정된다. 『廬山記』 권2 大51 p.1032b5에 따르면, 왕희지가 일명 달마다라(達摩多羅)라고 하는 나련야사존자(那連耶舍尊者)를 귀종선원(歸宗禪院) 곧 귀종사에 머물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 나련야사를 추념하여 붙인 이름으로 보인다.
- 13) 화주가 시주를 받아와서 일용할 물품들이 충분하도록 만든 노고를 기리면서 동시에 화주의 본분인 권화(勸化)의 취지도 나타내고 있다.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동안의 가풍은 참으로 남다르구나. 나, 경산의 가풍은 그렇지 않다. 만일 어떤 사람이 ‘화상의 가풍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그에게 ‘공양을 할 때 하나의 발우를 나물과 함께 먹어 치울 뿐, 선도(禪道)와 시비(是非)는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이며, ‘만약 손님이 온다면 무엇으로 대접합니까?’라 물으면 ‘찐 떡과 수제비[不托]로 한다’라고 대답하리라.”

雲門杲，上堂，舉此話云，“同安家風，不妨奇怪。徑山家風，又且不然。或有人問，‘如何是和尚家風?’’即向他道，‘齋時一鉢和蘿飯，禪道是非揔不知。’‘忽遇客來，將何祇對?’’‘蒸餅不托。’”

[설화]

공양을 할 때 하나의 발우를 ~ 전혀 모른다 : 자유로운 본분의 작용이 눈앞에 실현되면, 일정한 법도에 얽매이지 않는다¹⁴⁾는 뜻이다.

찐 떡과 수제비 : 근본적 작용에 갖춘 본체와 작용을 나타낸다. 불탁(不托)은 수제비를 뜻하는 박탁(鉢託)과 같다.

雲門：齋時一鉢云云者，大用現前，不存軌則也。蒸餅不托者，大用所具地體用也。不托者，猶云鉢託也。

14) 본서 1則 주석38) 및 5則 주석32) 참조.



1175책 同安向去 동안향거



1175칙 동안향거 同安向去

[본칙]

홍주 봉서산의 동안상찰선사(어떤 판본에는 구봉도건(九峯道虔)선사라 한다)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저편을 향하여 떠난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 “가을 매미¹⁾가 고목나무에 붙어 소리를 다하여 울면서도 돌아보지 않는다.” “이편으로 되돌아온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 “갈대꽃이 불 속에서 피어나니 봄을 맞이했으나 가을과 같구나.” “되돌아오지도 떠나지도 않는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 “돌양이 돌호랑이와 마주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 일 없이 쉰다.”

洪州鳳棲山，同安常察禪師(一本嗣九峯虔禪師)，因僧問，“如何是向去底人?” 師云，“寒蟬抱枯木，泣盡不迴頭。” “如何是却來底人?” 師云，“蘆花火裏秀，逢春恰似秋。” “如何是不來不去底人?” 師云，“石羊逢石虎，相逢早晚休。”

-
- 1) 한선(寒蟬). 매미의 일종으로 보통 매미보다 작고 청적(靑赤) 빛깔이다. “초가을,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면 한선이 운다.”(『禮記』「月令」, 孟秋之月 涼風至, 白露降, 寒蟬鳴.); 채옹(蔡邕)의 『月令章句』에 따르면, “한선은 음기에 반응하여 우니, 그것이 울면 날씨가 서늘해지므로 한선이라 부른다.”(寒蟬應陰而鳴, 鳴則天涼, 故謂之寒蟬也.)라고 한다.

[설화]

‘저편을 향하여 떠난 사람’은 공공시(共功時)²⁾에 해당한다. ‘이편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공공시(功功時)³⁾에 해당한다. 또한 ‘저편을 향하여 떠난 사람’이란 사문이 깨달은 결과[果]와 상응하며, ‘이편으로 되돌아온 사람’이란 사문이 자신의 결과를 현상 세계에 펼치는 실천[行]과 상응한다. ‘되 돌아오지도 떠나지도 않는다’는 것은 과(果)와 행(行)으로 하나의 수행자[沙門]를 완성하는 것이니 이류(異類)를 가리킨다.

2) 조동종(曹洞宗)의 공훈오위(功勳五位) 중 네 번째 지위. 본래면목을 철저히 깨친 다음 그 공을 함께 공유한다는 뜻이다. 곧 색(色)을 벗어난 경계에서 다시 색의 차별된 경계로 내려와 깨달은 공(功)을 펼치는 지위를 말한다. 무차별과 동시에 차별의 세계를 긍정하는 것이다. “공공이란 무엇인가? ‘색(色)을 얻을 수 없다.’ 또 말한다. ‘흰 가루로 얼굴에 분칠을 해도 종적을 숨기기 어려우니 장안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다.’”(『洞山語錄』 大47 p.510b10. 云, ‘如何是共功?’ 師曰, ‘不得色.’ 又曰, ‘素粉難沈跡, 長安不久居.’) 공(共)이란 모든 차별된 색이 함께 전개되는 것을 말하고, 색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공위의 무차별로는 제법의 실상이 감추어진다는 것을 암시한다. 장안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도 무차별에 머물러 집착하지 않고 차별의 세계로 벗어남을 가리킨다. “중생과 부처는 서로 침범하지 않으니, 산은 높을 뿐이고 물은 깊을 뿐이라네. 천차만별의 분명한 현상들이여! 자고새 우는 곳에 온갖 꽃들이 신선하구나.<공공(共功)에 대한 계송>”(『洞山語錄』 「功勳五位頌」 大47 p.516a15. 衆生諸佛不相侵, 山自高兮水自深, 萬別千差明底事! 鷓鴣啼處百花新.<共功>)

3) 조동종(曹洞宗)의 공훈오위(功勳五位) 중 다섯 번째 지위. 모든 차별이 혼연일체가 되어 있으므로 차별된 색이 개별적 모습을 가지지 않는다. 더 이상의 수행이 필요 없는 무공용(無功用)의 경지로서 해탈과 다르지 않다. “공공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누지 않는다.’ 또 말한다. ‘하나로 섞이어 숨길 곳이 없으니,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洞山語錄』 大47 p.510b11. 云, ‘如何是功功?’ 師曰, ‘不共.’ 又曰, ‘混然無諱處, 此外更何求!’); “머리에 뿔이 생기자마자 벌써 아무도 대적하지 못하는데, 분별하며 부처를 구하려 하니 대단히 부끄럽구나. 아득하고 아득한 공겁의 경계 아무도 모르니, 남쪽으로 53선지식을 찾아 돌아다니려 하는구나.<공공(功功)에 대한 계송>”(『洞山語錄』 「功勳五位頌」 大47 p.516a17. 頭角纔生已不堪, 擬心求佛好羞慚. 迢迢空劫無人識, 肯向南詢五十三.<功功>)

가을 매미가 고목나무에 붙어 ~ 돌아보지 않는다 : 담담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일이며 허망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갈대꽃이 불 속에서 피어나다 : 무차별로부터 차별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봄을 맞이했으나 가을과 같다 : 생(生)하는 것 그대로 생함이 없는 것[無生]이라는 뜻이다.

돌양이 돌호랑이와 마주치고 ~ 할 일 없이 쉰다 : 되돌아오는 것이나 향하여 떠나는 것이나 하나하나가 모두 생함이 없는 것이라는 뜻이다.

向去底人者，共功時也。却來底人者，功功時也。又向去底人，沙門果也。却來底人，沙門行也。不來不去者，果行成一沙門異類也。寒蟬抱枯木云云者，枯淡寂滅，動誕不得也。蘆花火裏秀者，從無差別起差別也。逢春恰似秋者，生則無生也。石羊逢石虎云云者，却來向去，一一是無生也。

낭야혜각(瑯琊慧覺)의 엄

“옛사람은 비록 활을 쏘아 큰 기러기를 맞힐 줄은 알았지만, 나무 주위를 빙빙 도는 원숭이를 쏘아 맞힐 줄은 몰랐다.”⁴⁾

4) 전설적인 활쏘기의 달인 감승(甘蠅)의 설화 또는 백발백중의 명사수 양유기(養由基)의 고사에 따른다. 『太平廣記』 권350에 『列子』의 대의를 인용하여 이렇게 전한다. “비위(飛衛)는 감승에게서 활쏘기를 배웠는데 모든 방법을 다 잘 터득했지만 날아오는 화살을 무는 비법은 배우지 못했다. 비위가 몰래 화살을 장전

瑯琊覺拈, “古人, 雖解箭穿鴻雁, 要且, 不解遶樹射猿.”

[설화]

활을 쏘아 큰 기러기를 맞히다 : 무수하게 많은 단계도 하나의 근본으로 꿰다⁵⁾는 뜻이다.

나무 주위를 빙빙 도는 원숭이를 쏘아 맞히다 : 구절 하나하나에서 모두 신령한 경지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瑯琊: 箭穿鴻雁者, 許多階級, 一以貫之也. 遶樹射猿者, 句句入神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소참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모름지기 이와 같이 무심하게 상응하고 근

하여 감승을 쏘았으나 감승은 그 화살을 입에 물어 잡고 비위를 향해 쏘았다. 비위가 나무를 빙글빙글 돌면서 달아났지만 화살도 나무를 돌면서 날아갔다.”(飛衛學射於甘蠅, 諸法并善, 唯嚙法不教. 衛密將矢以射蠅, 蠅嚙得鏃矢射衛. 衛遶樹而走, 矢亦遶樹而射.): “양유기가 활시위를 당기자마자 원숭이는 나무를 끌어안고 울었고, 화살이 발사되었을 때 원숭이가 나무를 빙글빙글 돌면서 피했지만 그 화살 또한 나무를 돌면서 따라가 원숭이를 맞춰 죽였다.”(『碧巖錄』 69則「頌評唱」 大48 p.199a20. 由基方彎弓, 猿乃抱樹悲號, 至箭發時, 猿遶樹避之, 其箭亦遶樹中殺.) 『韓非子』 등에도 나오는 이야기이다.

- 5) 일이관지(一以貫之). 『論語』에 나오는 말. “공자는 ‘증삼(曾參)아! 나의 도는 하나로 모두 꿰뚫었다’라 하였고, 또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도란 만법을 관통하여 꿰어집도 소멸함도 없는 것이다. 꿰어집도 소멸함도 없음을 알았으므로 그것에 맡겨 두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말한 것이다.”(『眞覺語錄』「答崔參政狀」 韓6 p.47b1. 孔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又曰, ‘朝聞道, 夕死可矣.’ 所言道者, 乃貫通萬法, 無斷無滅者也. 既知無斷無滅故, 任之曰, ‘夕死可矣.’)

본적인 도리[理]와 구체적인 현상[事]이 통하여 서로 오고 가는 데 걸림이 없어야 하며, 언어로 이르지 못하는 경지와 시비 분별로 미치지 못하는 경지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진리를 나타내는 모든 법수(法數)와 구절도 진리를 나타내는 법수와 구절이 아니니, 그것이 나의 신령한 깨달음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⁶⁾라고 한 것이다. 말해 보라!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진리와 하나로 상응할 수 있겠는가? 말에 현묘한 도리를 두르고 있더라도 진리로 통하는 길은 없으며, 입으로 말하더라도 진리 그대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안녕히.”

天童覺, 小參, 舉此話云, “是須恁麼恰恰相應, 理事貫通, 往來無碍, 始得, 更須知有言語不到處, 是非不及處. 所以道, ‘一切數句非數句, 與吾靈覺何交涉?’ 且道! 作麼生得如此相應去? 語帶玄而無路, 舌頭談而不談. 珍重.”

[설화]

모든 법수와 구절도 ~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 종전의 무수하게 많은 단계를 밟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에 현묘한 도리를 두르고 ~ 말하는 것은 아니다 : 무수하게 많은 단계를 마주쳐도 그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다⁷⁾는 뜻이다.

6) 『證道歌』大48 p.396b11.

7) 불락계급(不落階級). 계급은 수행의 점차적 단계를 말한다. 이러한 단계를 한 발 한 발 밟고 올라가서 목적지에 이르지 않고 곧바로 궁극의 경지를 깨우치는 방법을 두고 ‘계급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말과 분별로 구성된 논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본분을 직접 체득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 말은 6조 혜능(慧能)과 청원행사(靑原行思) 사이의 다음 문답에서 비롯하였다. “행사가 6조 혜능에게 물었다. ‘어떻게 힘을 써야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수행을 해왔는가?’ ‘성제(聖諦)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급에 떨어졌는가?’ ‘성제도 행하

天童：一切數句云云者，不涉從前許多階級也。語帶玄云云者，當許多階級，不落階級也。

육왕개심(育王介謚)의 엄

“이러한 이야기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 써먹는 데만 맞을 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부처의 경계로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허용되어도 마구니의 소굴로 들어가는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누군가 나에게 ‘저편을 향하여 떠난 사람이란 어떤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붉은 노을이 푸른 바다를 꿰뚫었다’라고 대답할 것이며, ‘이편으로 되돌아온 사람이란 어떤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밝은 해가 수미산을 돈다’⁸⁾라고 대답할 것이고, ‘되돌아오지도 떠나지도 않는 사람이란 어떤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급하게 흐르는 여울을 타니 만인이 본다’라고 할 것이다. 영리한 사람이라면 시험 삼아 분별해 보라.”

育王謚拈，“恁麼說話，只可爲己，未可爲人；只可入佛，未可

지 않았거늘 떨어질 계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6조가 그를 큰 그릇으로 여겼다.”(『景德傳燈錄』 권5 「青原行思傳」 大51 p.240a19. 問曰, ‘當何所務, 卽不落階級?’ 祖曰, ‘汝曾作什麼?’ 師曰, ‘聖諦亦不爲,’ 祖曰, ‘落何階級?’ 曰, ‘聖諦尙不爲, 何階級之有?’ 祖深器之.); “어떻게 운신하면 계급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남극성은 일곱이요, 북극성은 여덟이다.”(『雲門廣錄』 권상 古尊宿語錄15 卮118 p.337a15. 問, ‘如何轉動, 卽得不落階級?’ 師云, ‘南斗七北斗八.’)

- 8) 이 구절은 ‘붉은 노을이 푸른 바다를 꿰뚫었다’라는 앞의 구절과 함께 운문문언(雲門文偃)이 쓴 말이다. “대천상량(중사가 본분을 들어주고 학인은 언어에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호관계): 만나도 눈썹 한 번 찡긋하지도 않고서, 그대는 동쪽을 보고 나는 서쪽을 보노라. 붉은 노을이 푸른 바다를 꿰뚫었고, 밝은 해가 수미산을 도는구나.”(『雲門廣錄』 권하 大47 p.576c16. 擡薦商量: 相見不揚眉, 君東我亦西. 紅霞穿碧海, 白日繞須彌.)

入魔. 或問廬山, 如何是向去底人? 紅霞穿碧海, 如何是却來底人? 白日遶須彌, 如何是不來不去底人? 急流灘上萬人看. 靈利底, 試請辨看.”

[설화]

단지 자기 자신에게 ~ 마구니의 소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단지 자기의 일을 밝힐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수단은 없다는 뜻이다.

붉은 노을이 ~ 수미산을 돈다 : 돌아가면서 하나씩 대답한 것이다.

급하게 흐르는 여울 : 저편으로 떠난다는 뜻이다.

만인이 본다 : 만인이 와서 본다는 뜻이므로 떠나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 그대로가 떠나고 오는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育王 : 只可爲己至入魔者, 只是明得自己邊事, 無爲底人⁹⁾手段也. 紅霞云云須彌者, 回互答得也. 急流灘, 則去也. 萬人看, 則萬人來看, 卽不去不來卽去來也.

자향요박(慈航了朴)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자세히 알겠는가? 공(功)을 돌려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니 미묘함이 본체 앞에 있고, 본래의 자리를 돌려서 공을 발휘하러 나가니 돌아오는 길이 또한 미묘하다. 텅 비고 깊은 근본을 해치지 않으면서 되돌아오고 떠나는 것이 자유로우니 이것이 바로 동안의 경지가 아님이 없다. 문제는 여전히 그가 파놓은 함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저편을 향하여 떠난 사람이란 어

9) ‘底人’은 ‘人底’의 잘못.

면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옥말[玉馬]이 관문을 지나서 발굽에서 가시를 뽑아낸다’라고 대답할 것이며, ‘이편으로 되돌아온 사람이란 어떤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금털의 사자가 땅에 웅크리고 꼬리를 급하게 흔든다’라고 할 것이고, ‘되돌아오지도 떠나지도 않는 사람이란 어떤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찰간 꼭대기에 앉아 있는 쇠로 만든 용이다’라고 말해 줄 것이다. 수행하는 사람은 나의 안목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라.”

慈航朴, 上堂, 舉此話云, “還相委悉麼? 轉功就位, 妙在體前, 轉位就功, 廻途復妙. 虛玄不犯, 來去自由, 卽不無同安. 要且, 脫他窠臼未得. 或有人問天童, ‘如何是向去底人?’ 卽道, ‘玉馬度關蹄撥刺.’ ‘如何是却來底人?’ ‘金毛踞地尾吒沙.’ ‘如何是不來不去底人?’ 却向道, ‘刹竿頭上鐵龍兒.’ 行脚人試驗, 山僧眼目在什麼處.”

[설화]

옥말, 금털의 사자, 찰간 등이라 운운한 말은 모든 지위에서 그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다.

慈航云云, 玉馬云云, 金毛云云, 刹竿云云者, 當一切位, 脫他窠臼也.

송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근본적 이치로 들어가는 심오한 말로써 기틀에 따라 중생에 응한 것이 저 동안스님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남송 문화의 관점에 따르면 그도 잘못을 벗어나지 못했다. 왜 그런가? 단지 바람의 방향에 따라 돛을 달 줄만 알았지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며 키를 잡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야보¹⁰⁾에게 ‘저편을 향하여 떠난 사람이란 어떤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눈동자가 튀어나왔다’라고 대답할 것이고, ‘되돌아온 사람이란 어떤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하늘과 땅이 모두 드넓다’라고 대답할 것이며, ‘되돌아오지도 떠나지도 않는 사람이란 어떤 뜻인가?’라고 묻는다면 ‘밝은 달이 깊은 계곡을 비추고, 차가운 물결은 한밤의 다듬잇돌과 함께 울린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말은 그대들이 씹어서 맛볼 수 없으니¹¹⁾ 모름지기 깨달아야 한다.”¹²⁾

松源, 上堂, 舉此話云, “入理深談, 隨機應物, 還他同安老人. 若據衲僧門下, 未免漏逗. 何故? 只解順風張帆, 不能逆風把柁. 或有人問冶父, ‘如何是向去底人?’ 對云, ‘眼睛突出.’ ‘如何是却來底人?’ 對云, ‘天闊地闊.’ ‘如何是不來不去底人?’ 對云, ‘明月照幽谷, 寒濤響夜砧.’ 此語無你咬嚼處, 直

10) 冶父. 송원의 산호(山號). 야보산(冶父山)에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호이다.

11) 각 구절에 대한 모든 대답이 곰곰이 생각하여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모두 분별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뚫을 수 있는 관문이라는 말이다.

12) 이 송원의 상당에 대한 고림청무의 다음과 같은 평석도 전한다. “존경하는 동안은 밥상채 먹을 것을 밀어내어 주었으나, 옷소매가 팔에 비하여 짧은 격이어서 조동종의 종풍을 적지 않게 매몰시킨 것을 어찌하라! 송원화상은 비록 못을 베어버리고 쇠를 자른 경계에서 칼날을 슬쩍 드러내었지만, 잠깐해 보면 말에 이끌려 이해를 일으키는 잘못을 벗어나지 못했다. 누군가 나에게 ‘저편을 향하여 떠난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빈틈없이 쌓고 어김없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할 것이고, ‘이편으로 되돌아온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입가가 축 늘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한다’라고 할 것이며, ‘되돌아오지도 떠나지도 않는 사람이란 어떤 뜻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관세음보살이 호떡을 사니 금강신장이 웃다가 뒤집어졌다’라고 대답할 것이다.”(『古林清茂語錄』 권 2 1213 p.437a17. 老同安, 和盤托出, 爭奈袖短臂長, 埋沒它洞上宗風不少! 松源和尚, 雖則向斬釘截鐵處, 略露鋒鋦, 檢點將來, 未免隨語生解. 有問澹湖, ‘如何是向去底人?’ ‘築著磕著.’ ‘如何是却來底人?’ ‘口似匾擔.’ ‘如何是不來不去底人?’ ‘觀音買胡餅, 笑倒金剛神.’)

須是悟,始得.”

[설화]

근본적 이치로 들어가는 심오한 말 : ‘돌양이 돌호랑이와 마주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할 일 없이 켜다’라는 구절에 해당한다.

기쁨에 따라 중생에 응한 것 : 앞의 두 가지 답변을 가리킨다.

눈동자가 튀어나왔다’, ‘하늘과 땅이 모두 드넓다’, ‘밝은 달이 깊은 계곡을 비추고~’라고 한 등등의 말은 상대가 실토한 말에 따라 판단해 주는 방식이다. 세 가지 문제를 마주하여 하나하나 핵심에 어김없이 맞아 떨어지지만, 씹어서 맛볼 수 없으니 이 어찌 바람의 방향을 거스르며 키를 잡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뜻이다.

밝은 달이 깊은 계곡을 비춘다 : 편위(偏位)에서 정위(正位)에 이르는 것이다.

차가운 물결은 한밤의 다듬잇돌과 함께 울린다 : 정위로부터 편위로 돌아오는 것이다. 침(砧)이라는 글자는 석(石)과 같다.

松源 : 入理深談者, 石羊逢石虎云云也. 隨機應物者, 前之二答也. 眼睛突出, 天闊地闊, 明月照幽谷云云者, 據款結案也. 當三處一一的的, 無咬嚼處, 豈不是逆風把舵也. 明月照幽谷, 則從偏至正也. 寒濤響夜砧, 則從正來偏也. 砧者, 石也.



1176책 同安依經 동안의경



1176칙 동안의경 同安依經

[본칙]

동안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경전의 말에 그대로 의지하여 뜻을 풀면 삼세 부처님의 원수가 되고, 경전의 한 글자라도 떠나면 마구니의 말과 같다고 하는데,¹⁾ 이 이치는 무엇입니까?” “우뚝한 봉우리가 까마득히 솟아 있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걸려 있지 않구나. 조각달은 하늘을 가로질러 가고, 흰 구름은 스스로 빼어나게 움직이노라.”

同安因僧問, “依經解義, 三世佛冤; 離經一字, 卽同魔說, 此理如何?” 師云, “孤峯迢秀, 不掛煙蘿. 片月橫空, 白雲自異.”

[설화]

경전의 말에 그대로 의지하여 ~ 마구니의 말과 같다 : 배측관²⁾이다.

- 1) 백장회해(百丈懷海)의 다음 문답에서 나온 말이다. “어떤 학인이 물었다. ‘경전의 말을 그대로 의지하여 뜻을 풀면 삼세 부처님의 원수가 되고, 경전의 한 글자라도 떠나면 마구니의 말과 같다고 하신 뜻은 어떤 것입니까?’ ‘움직임이나 고요함을 고수하면 삼세 부처님의 원수요, 이것을 벗어나서 별도로 구한다면 마구니의 설과 같다.’”(『景德傳燈錄』 권6 「百丈懷海傳」 大51 p.250a8, 問, ‘依經解義, 三世佛冤; 離經一字, 如同魔說, 如何? 師云, ‘固守動靜, 三世佛冤; 此外別求, 如同魔說.’)
- 2) 背觸關. ‘배(背)’는 등지고 전혀 관계하지 않는 부정적 지향을 가리키며, ‘촉(觸)’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수긍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에 집착하고 몰드는 오

우뚝 솟은 봉우리와 조각달은 배와 촉을 모두 떠난 경계이고, 풀과 나무
그리고 흰 구름은 배와 촉이다.

依經解義云云者，背觸關也。孤峰片月者，背觸俱離處也。烟蘿
白雲，背觸也。

단하자순(丹霞子淳)의 송

구름은 본디 높이 떠돌고 물은 본래 흐를 뿐,
바다에 비친 하늘 확 트이고 외딴 배 출렁이네.
밤 깊어도 갈대 편 만에 배 대고 쉬지 않으니,
중간과 양단 그 어디서도 아득히 벗어났다네.

丹霞淳頌，“雲自高飛水自流，海天空闊漾孤舟。夜深不向蘆灣
宿，迺出中間與兩頭。”

[설화]

배와 촉을 양단으로 여기고, 오른쪽과 왼쪽 그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중간을 높이 솟은 봉우리와 조각달로 보기도 하지만, 틀린 해석이다. 그렇
다면 ‘구름은 본디 높이 ~ 배 출렁이네’라는 구절에서 구름과 파도는 손
님이고 산과 물은 주인이며, 외딴 배는 나그네의 탈것이고 갈대가 편 만은
멈추고 쉬는 곳이다. 또한 우뚝한 봉우리는 한 권의 경전을 일컫는다. 중

촉(汚觸)의 방식이다. 본서 639則 주석5), 1331則 주석1), 108則 주석2), 165則 주
석3), 429則 주석60) 참조.

간과 양단 그 어디서도 아득히 벗어난다면, 달과 더불어 하늘을 가로질러 갈 것이니, 한 권의 경전 또한 버리는 경계이다.

丹霞：或有以背觸爲兩頭，不落左右中間，爲高峰與片月者，非也。然則雲自高飛云云者，雲波則賓，山水則主，孤舟則行李底，蘆灣則止宿處。亦謂孤峰，所謂一卷經也。迥出中間及兩頭，則與月橫空，一卷經，亦舍却處也。

낭야혜각(瑯琊慧覺)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생각해 보라! 어떻게 해야 만물의 이치를 해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나의 계승 한 수를 들어보라. ‘땅이 열면 풀이 마르고, 물이 차면 얼음이 언다. 선인(禪人)들에게 묻노니, 이것은 어떤 시절의 인연인가? 임제는 신라를 지나 멀리 달아나버리고, 덕산은 눈썹 찌푸리며 싫어하는구나.³⁾’”

瑯琊覺，上堂，舉此話云，“且道！作麼生得不傷物義去？汝等諸人，聽取山僧一頌。地凍草枯，水寒氷結。且問禪人，是何時節？林際走過新羅，德山愁眉不悅。”

[설화]

만물의 이치를 해치지 않는다 : 이 법은 법의 위치에 머문다⁴⁾는 뜻이며, 또한 대용(大用)을 일컫는다.

-
- 3) 만물의 자연스러운 이치를 고스란히 드러낸 말에 선기(禪機)가 충천한 덕산과 임제의 방(棒)과 할(喝)도 힘을 잃고 쓸모없이 된다는 뜻이다.
- 4) 모든 법의 실상을 나타내는 구절. 『法華經』 권1 「方便品」大9 p.9b10. 본서 2則 주석39) 참조.

‘땅이 얼면 풀이 마른다’라는 구절은 본칙의 ‘우뚝한 봉우리가 까마득히 솟아 있는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걸려 있지 않구나’라는 구절에 상응하고, ‘물이 차면 얼음이 언다’라는 구절은 본칙의 ‘조각달은 허공을 가로 질러 가고, 흰 구름은 스스로 빼어나게 움직이노라’고 한 구절에 상응한다. 곧 한 수[一著] 둘 때마다 더욱 고상한 한 수[高一著]⁵⁾를 두는 방식이다.

임제는 신라를 지나 멀리 달아나버리고 : 신라는 임제가 뿌리내린 자리를 말한다. 앞에서 말한 ‘만물의 이치를 해치치 않는다’는 뜻이다.⁶⁾

덕산은 눈썹 찌푸리며 싫어하는구나 : 활발하게 작용할 도리가 없는 경계에서 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다.

瑯琊：不傷物義者，是法住法位也，亦謂之大用也。地凍草枯者，孤峰迥云云也。水寒氷結者，片月橫空云云也。謂一著高一著也。臨濟走過新羅者，新羅是臨濟位也。前所言，不傷物義也。德山云云者，無活用處，動誕不得也。

5) 본칙의 말은 일착(一著)에, 낭야혜각의 계송은 고일착(高一著)에 해당한다.

6) 임제 자신이 뿌리내린 본분의 자리를 아득히 먼 신라에 비유했지만, 만물의 자연스러운 이치가 제시되면 그 자리를 고수하지 못한다는 해설이다.



1202칙 羅山石牛 나산석우



1202칙 나산석우 羅山石牛

[본칙]

나산이 화산에 있을 때 도반인 구(矩)장로를 전송하러 산문을 나서다가 주장자를 집어 그의 면전에 던졌다. 구장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나산이 말했다. “돌소가 옛길을 가로막으니 한 마리 말에 두 망아지가 없다.” 그 뒤에 어떤 학인이 소산(疎山)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소산이 말했다. “돌소가 옛길을 가로막으니 한 마리 말이 세 마리 호랑이[寅]를 낳는다.”

羅山，在禾山，送同行矩長老出門次，師把拄杖，向伊面前一擲。矩無對，師云，“石牛攔古路，一馬勿雙駒。”後有僧，舉似疎山，山云，“石牛攔古路，一馬生三寅。”

[설화]

주장자를 집어 그의 면전에 던졌다 : 떠나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한 구절이다.

돌소란 무생(無生)의 도리를 가리킨다. 옛길이란 깊고 오래되고 아득하고 멀다는 뜻이다. 난(攔)은 가로막는다는 말이다.

옛길은 본분을 드러내는 한 구절이며, 한 마리 말에 두 망아지가 없다는 말에서 두 망아지란 두 구절을 가리킨다. 한 마리 말은 중간이며, 두 망아

지가 없다는 것은 오로지 중간만 있다는 뜻인가? 그것이 아니고 한 마리 말조차도 없다는 뜻이다.

한 마리 말이 세 마리 호랑이를 낳는다는 말은 세 구절로 분열되었다는 뜻이다. 호랑이는 하나하나 모두 물어 죽인다는 뜻이다. 중간에는 두 구절을 모두 부정(雙遮)하거나 두 구절을 모두 긍정(雙照)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모두 부정하므로 한 마리 말이며, 모두 긍정하므로 다시 세 마리 호랑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달리 풀면 다음과 같다. 소는 한곳에서 머뭇거리니, 이는 본체(體)를 나타낸다. 옛길은 깊고 오래되고 아득하고 멀다는 뜻이다. 한 마리 말에 두 망아지가 없다는 말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어떤 학인이 고덕에게 ‘조사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고덕이 ‘돌소가 옛길을 가로막으니, 목마가 높은 누각에서 달린다’라고 대답했다.¹⁾ 말은 재빠르게 움직이니, 이는 작용(用)을 나타낸다. 두 마리 망아지라는 구절에서 망아지란 작용의 문을 기준으로 본체와 작용을 온전히 갖춘다는 뜻인데, 여기서 ‘두 망아지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작용 또한 있을 수 없다.

한 마리 말이 세 마리 호랑이를 낳았다는 것은 활발한 작용이 있고, 그 작용에는 매우 다양한 뜻이 있다는 말이다. 인(寅)이란 호랑이를 가리킨다. 호랑이는 하나하나 모두 물어 죽인다는 뜻이니, 일정한 범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상징이다.

把拄杖云云者，驢行一句也。石牛者，無生也。古路者，深古幽遠也。攔，橫也。古路者，一句也。一馬勿雙駒者，雙駒者兩句

1) 석문소원(石門紹遠)의 말이다. 『嘉泰普燈錄』 권1 卍137 p.46b6, 『五燈全書』 권29 卍140 p.689a6 등 참조.

也. 一馬則中間也, 勿雙駒, 則唯有中間耶? 一馬亦無也. 一馬三寅者, 分裂三句也. 所以寅者, 一一咬殺之義也. 中間有雙遮雙照二義, 雙遮故一馬, 雙照故又有三也. 又牛者, 遲疑是體也. 古路者, 深古幽遠也. 一馬勿雙云云者, 僧問古德, ‘如何是祖師意?’ 答云, ‘石牛攔古路, 木馬驟高樓.’ 馬輕疾是用也. 雙駒者, 駒約用門, 體用俱全義也. 今云勿雙駒, 則用亦不可得也. 一馬生三寅者, 有活用, 用有許多義. 所以寅, 則虎也. 則一一咬殺, 是不存軌則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문 나와 손잡고 이별의 감회 나누는데,
옛길은 까마득히 멀어 따라가지 못하네.

우습도다, 강물 속에 칼 잃어버린 자여!

구차하게 뱃전의 표시 부질없이 기억하네.²⁾

雲門杲頌, “出門握手話分携, 古路迢迢去莫追. 却笑波心遺劍者! 區區空記刻舟時.”

2) 각주구검(刻舟求劍) 고사를 말함. 전거는 본서 98則 주석77) 참조. 구장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아 속뜻을 추적할 수 없는데, 나산은 ‘돌소가 옛길을 막는다’라는 방식으로 풀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기억에 각인해 두었던 하나의 관념일 뿐이라는 뜻이다.

[설화]

나산의 입장이다.

雲門：羅山底也.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문 앞의 길 밟아보지도 못했거늘,
봄 돌아오고 또 한 해 흘러갔도다.
떨어진 붉은 꽃잎 온 누리 가득하고,
향기롭고 푸른 풀 하늘 높이 닿겠네.

竹庵珪頌, “不踏門前路, 春歸又一年. 落花紅滿地, 芳草碧連天.”

[설화]

나산의 입장에는 소산의 입장도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다만 이전에 맺은 인연에 대하여 읊은 것이다.

竹庵：羅山底, 亦有疎山底. 此但頌前因緣也.

명초덕겸(明招德謙)의 거

“구장로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했을까?”라 묻고 스스로 대답했다. “단지 손바닥을 한 번 비비면서 ‘앗! 대단히 예리한 칼날과 마주쳤구나’라고 말하리라.”

明招, 舉此話云, “矩長老, 當伊麼時, 作何祇對?” 代云, “但撫掌一下云, ‘噫! 可殺當鋒.’”

[설화]

마치 한 자루 칼이 몸 가까이 다가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것과 같지만, 이처럼 말한다면 나산의 의중을 간파한 것이라는 뜻이다.

明招：如一口劒近前，喪身失命，然則觀破師意。

죽암사규의 상당

신승성장로를 전승하기 위해 법좌에 올라앉아 이 공안을 제기하고 걸 걸대고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달마대사의 수염이 붉은 줄 알고 있었는데, 붉은 수염을 기른 달마대사가 또 있었구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두 사람이지만, 본을 보고 표주박을 그리는 잘못³⁾을 면하지 못했다. 내가 오늘 손님을 전승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계곡과 산 그리고 구름과 달을 집으로 삼아 동서남북을 오고 가노라.⁴⁾ 특별히 서로 전승할 일

3) 주어진 모범적 사례를 답습하여 본뜬 뿐, 자신들의 창의적 안목이 없었다는 비판.

4) 어느 곳이나 안주할 집이고 도가 실현된 곳이라는 탈속한 선풍(禪風)을 나타낸다. “오래된 불당(佛堂)에서는 지금껏 다른 이야기가 없었건만, 세상에 유통되는 구절에는 진실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 그것을 얻은 자는 근본 작용에 흠이 없지만, 잃은 자는 가는 곳마다 막히게 된다. 그래서 계곡과 산 그리고 구름과 달 등 곳곳에 같은 바람이 불고, 물새와 숲 등 낱알의 존재가 도를 드러내는 것이다.”(『禪林僧寶傳』 권18 「大覺懷璉傳」 卍137 p.514a15. 古佛堂中，曾無異說，流通句內，誠有多談。得之者，妙用無虧；失之者，觸途成滯。所以谿山雲月，處處同風；水鳥樹林，頭頭顯道。)；“형기(形器)로 구속되지 않고, 색진(色塵)으로 막히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모든 성인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광대한 경계 밖으로 벗어나면 시내와 산 그리고 구름과 달이 곳곳에서 한곳으로 돌아오고, 물새와 수림이 서로 어울려 드러낸다. 그러나 비록 이렇다고는 하지만 나 자봉 늪은이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으리라.”(『虛堂語錄』 권3 大47 p.1004c13. 不以形器拘，不以色塵礙，自然超諸聖塵，出大方表，溪山雲月，處處同歸，水鳥樹林，互相顯發。然雖如是，爭奈我慈峰老子，未肯橫點頭在。)；“과거시험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유하

도 없으니, 저울추는 톱으로 잘라버리리라.⁵⁾” 주장자를 올렸다가 선상(禪床)을 내리쳤다.

竹庵珪，送新崇聖長老，上堂，舉此話，師乃呵阿大笑云，“將謂胡鬚赤，更有赤鬚胡。兩個沒量大漢，不免依樣畫葫蘆。鼓山今日送客，則不然。溪山雲月，南北東西。別無相送，鋸解秤鎚。”以拄杖，卓禪床。

[설화]

계곡과 산 ~ 오고 가노라 : 모두 차별된 현상을 가리킨다.

저울추는 톱으로 잘라버리리라 : 한 조각 두 조각 내지 천만 조각을 내어 씹어도 으스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竹庵：溪山云云者，俱差別也。鋸解秤鎚者，一片二片，千片萬片，咬嚼不破也。

던 집이 가난한 지경에 이르러 본업이 쇠퇴해졌을 때도 끝내 동요하지 않고 오로지 계곡과 산과 구름과 달을 집으로 삼고 글과 책을 성정(性情)으로 삼았다.” (宋葉適『東溪先生集』「序」. 不得志於科舉，至轉富入貧，本業微析，終不動，一以溪山雲月爲家宅，筆墨簡策爲性情.)

- 5) 물건의 무게를 재는 저울추와 같이 분별의 근거가 되는 고착된 인식 틀을 부순다는 말.



1221칙 巴陵鷄寒 파릉계한



1221칙 파릉계한 巴陵鷄寒

[본칙]

파릉호감(巴陵顯鑑)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조사의 뜻[祖意]과 경전의 뜻[教意]¹⁾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닭은 추우면 나무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 밑으로 내려간다.”

巴陵因僧問, “祖意教意, 是同是別?” 師云, “雞寒上樹, 鴨寒下水.”

[설화]

닭은 추우면 나무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 밑으로 내려간다: 똑같이 날씨가 추워도 나무로 올라가거나 물 밑으로 내려가는 양태는 같지 않다. 『벽암록』에 따르면, 어떤 학인이 ‘도(道)는 어떤 것입니까?’라고 묻자 파릉은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진다’라고 대답했다. 이 한 칙은 (스승인 雲門文偃에게 올린 三轉語 중) 첫 번째 전어이다.²⁾

鷄寒上樹, 鴨寒下水者, 一般天寒, 上樹下水不同也. 碧巖云, ‘如何是道?’ 云, ‘明眼人落井.’ 一則爲第一轉.

-
- 1) 각각 선종의 종지[祖意]와 교학의 근본 교설[教意]을 나타낸다. 조사의 방식과 부처님의 뜻으로 대칭되기도 한다.
 - 2) 『碧巖錄』 13則 「評唱」 大48 p.154a29 참조. 이것은 다음 공안 1222則의 본칙이다.

투자의청(投子義青)의 송

조와 교의가 같은지 다른지 연유를 묻자,
값을 매길 수 없는 말로 그에게 응답했다네.³⁾
고요한 밤 낚싯줄 드리우고 고기 잡던 사람,
새벽에 금까마귀⁴⁾ 낚자 달빛 두르고 거두었네.⁵⁾

投子青頌, “同別祖意問端由, 便將無價與他酬. 絲綸夜靜人垂釣, 曉得金烏帶月收.”

[설화]

마지막 구절에 ‘새벽에 금까마귀 낚자 달빛 두르고 거두었네’라고 한 말은 해와 달이 아울러 허공을 도는 형상이 조와 교의의 관계와 같다는 뜻이다.

投子云云, 曉得金烏帶月收者, 日月並輪空, 祖意教意也.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어젯밤 삼경에 손가락 꼽아 헤아렸으니,

3) 파룡의 화두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 값을 매길 수 없다. 분별로 계량할 수 없는 그 화두의 속성을 나타낸다. 본래 무가(無價)는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을 나타낸다.

4) 금오(金烏), 태양.

5) 새벽에 낚시꾼이 낚은 것은 태양이요, 채 지지 않은 달빛을 온몸에 두르고 낚싯대를 거둔다는 말. 물고기가 걸리지 않는 낚은 낚싯바늘[直釣]을 드리운 강태공(姜太公)의 이미지이다. 파룡의 화두에 한 치의 관념도 걸려 있지 않은 뜻을 전한다.

세간에서 특출난 인물⁶⁾이라 생각지 마라.

몇 가락 피리소리 따라 정자⁷⁾는 저무는데,

임은 소상⁸⁾으로 나는 진⁹⁾으로 떠나노라.

保寧勇頌, “昨夜三更屈指輪, 世閒休說兩三人. 數聲長笛離亭晚, 君向瀟湘我向秦.”

승승원공(崇勝院珙)의 송¹⁰⁾

닭은 추우면 나무로 올라가고,

오리는 추우면 물 밑으로 내려가네.

이렇게 차별된 만물의 양태를

사람의 마음으로 어찌 알리오?

조사의 뜻과 경전의 뜻 중에서

무엇을 칭찬하고 무엇을 헐뜯겠는가?

-
- 6) 양삼인(兩三人). 두세 사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안 되는 인물.
- 7) 이정(離亭). 성(城)과 멀리 떨어진 길가의 정자. 쉬어 가는 곳이기도 하고, 헤어질 때 송별하는 장소이기도 하므로 ‘이정’이라 한다.
- 8) 瀟湘. 상강(湘江)과 소수(瀟水)를 아울러 부르는 말. 현재의 중국 호남(湖南) 지역을 가리킨다.
- 9) 秦. 섬서성(陝西省).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진(秦)나라 국토가 섬서성 일대였으므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불렀다. 서로 반대 방향에 위치한 소상과 진을 빌려와 추운 날씨에 달리 대처하는 닭과 오리의 작용을 표현한 것이다.
- 10) 닭과 오리가 추위를 피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피하는 장소는 타고난 행태의 차별성에 따라 다르다. 이와 같이 조의와 교의 사이에도 동일한 점과 차별된 점이 있다는 유비추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연결시켜 분별하는 것은 화두에 대해 일반적으로 일으키는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화두의 이 유도장치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사자’의 기상이며, 그 말의 함정에 그대로 유혹당하는 것은 ‘개’의 어리석음이다.

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무니,¹¹⁾

왕도가 평탄하게 펼쳐지고,

어리석은 개는 흙덩이를 쫓아가니,

평원에 겹겹이 장애물이로다.

崇勝珙頌, “雞寒上樹, 鴨寒下水. 物態之差, 人心爭委? 乃祖
乃教, 孰譽孰毀? 師子咬人兮, 王道平平. 狂狗趁塊兮, 平原
壘壘.”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어떤 학인이 목주에게 ‘조의와 교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라고 묻자 목주가 ‘청산은 청산일 뿐이요, 백운은 백운일 뿐이다’라고 대답한 문답을 제기하고 말했다. “질문이 똑같은 이상 대답 또한 비슷했다. 그 안에는 타인을 이롭게 하면서 스스로도 이롭게 하는 점도 있고, 남을 속이고 스스로 속는 점도 있다. 만약 점검하여 뚜렷이 차별을 밝힌다면 틀림없이 공(空)을 가장 탁월하게 이해하는 자¹²⁾이리라.”

雪竇顯, 舉此話, 連舉僧問睦州, ‘祖意教意, 是同是別?’ 州云, ‘青山自青山, 白雲自白雲.’ 師云, “問旣一般, 答亦相似. 其中有利他自利, 謾人自謾. 若點檢分明, 管取解空第一.”

[설화]

타인을 이롭게 하면서 스스로도 이롭게 한다: 파릉의 말에 상응하니, 두 번째

11) 본서 184則 주석19) 참조.

12) 해공제일(解空第一). 본래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수보리(須菩提 ㉔㉕Subhūti: 空生)에게 붙여진 별명이다.

근기¹³⁾이다.

남을 속이고 스스로도 속는다 : 목주의 말에 상응하니, 세 번째 근기이다. (목주의) 청산과 백운은 같은 색이 아니기 때문이며, 파룡의 닭과 오리는 그 차별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점검하여 뚜렷이 차별을 밝힌다 : 양편의 뜻을 다 아는 것이니, 첫 번째 근기이다. 이것이 공을 가장 탁월하게 이해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타인을 이롭게 하면서 스스로도 이롭게 하는 점도 있고 ~ 스스로 속는 점도 있다’라고 한 말은 근기를 가려내어 차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세 단계의 근기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雪竇：利他自利者，巴陵底，第二機也。謾人自謾者，睦州地，第三機也。青山白雲非同色故，巴陵底鷄鴨同時也。點檢分明者，知兩箇意，是第一機也。此解空第一，故云其中有利他自利云云者，非揀別也，每人具三等機也。

오조법연(五祖法演)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단한 파룡이여! 겨우 반쪽만 말했을 뿐이지구려.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을 두 손에 담으면 달은 손안에 있고, 꽃을 만지작거리면 향기가 옷에 가득 배다.”¹⁴⁾

13) 제이기(第二機). 근본에서 한 단계 떨어지는 근기. 이하에서 제삼기(第三機)는 그것보다 또 한 단계 떨어지는 근기이며, 근본을 알아차리는 근기는 제일기(第一機)이다.

14) 간량사(干良史)의 시 「春山夜月」에 나오는 구절. 『全唐詩』 권275 참조. 하늘 저편의 달이 물을 담은 손마다에 모두 비추는 상경을 가지고 교의와 조의의 관계를 나타낸다.

白雲演，上堂，舉此話云，“大小大巴陵！只道得一半。白雲卽不然。掬水月在手，弄花香滿衣。”

[설화]

물을 두 손에 담으면 ~ 가득 뱀다 : 교의는 교의를 벗어나서 조의가 따로 없고, 조의는 조의를 벗어나서 교의가 따로 없다는 취지이다.¹⁵⁾

白雲：掬水月云云者，教意則教意外無祖意，祖意則祖意外無教意也。

송원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오조법연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오조법연은 있는 힘을 다해 말했지만 그 말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¹⁶⁾이 있다. 누군가 나에게 똑같이 묻는다면, 그에게 ‘인아¹⁷⁾의 무명을 한 꿰미에 꿰었다’라고 말해 주리라.”

松源，上堂，舉此話，連舉白雲演拈，師云，“白雲盡力道，只道

15) 교의와 조의가 같은가, 다른가? 어느 편이라고 해도 맞지 않고, 이 <설화>의 해설과 같이 교의와 조의가 서로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을 하나의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화두로서의 활력은 죽는다. 처음에 학인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묻은 말이나 파룡의 대답 그리고 이곳 법연의 말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뿌리를 내리려 해도 안착하지 못하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미끌미끌한 활어(滑語)이다.

16) 도득팔성(道得八成). 전체의 8할을 말했다는 말.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거의 접근했다는 긍정적인 취지도 있고, 말을 하기는 했지만 조금 모자라다는 취지도 있다.

17) 人我. 인식 주관[人]이 실제로 존재한다[我]고 집착하는 견해. 인식 객관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집착하는 법아(法我)와 짝이 되어 두 가지 집착[二執]이라 한다.

得八成. 有問靈隱, 只向他道, ‘人我無明一串穿’”

[설화]

인아의 무명을 한 꿰미에 꿰었다 : 어찌 두 구절이 필요하겠는가? 한 구절을 제기함에 따라 이것과 저것의 차별이 없어져 그 하나하나가 궁극의 경지라는 뜻이다.

松源 : 人我無明一串穿者, 何用兩句? 隨舉一句無彼此, 一一到底.



1222칙 巴陵落井 파릉낙정



1222칙 파릉낙정 巴陵落井

[본칙]

파릉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어떤 것이 도(道)입니까?”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진다.”

巴陵因僧問, “如何是道?” 師云, “明眼人落井.”

[설화]

눈 밝은 사람이 우물에 빠진다 : 눈 밝은 사람이 어찌 우물에 빠지겠는가? 그러나 분명하게 ‘우물에 빠진다’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빠진다는 것인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인가?¹⁾

明眼人落井者, 明眼人何曾落井? 然, 灼然落井, 則落耶不落耶?

-
- 1) 빠진다고 말은 했지만 그 속셈은 ‘눈 밝은 사람이 어떻게 우물에 빠진단 말인가?’라는 의문을 촉발시키는 데 있다는 해설이다. ‘빠진다’는 말이 화두인 이상 빠지거나 빠지지 않거나 양단의 어느 편도 아니고, 동시에 어느 편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빠진다’라는 것과 맞닿아 있는 모든 관념이 의문으로 변화할 때 이 말은 비로소 활구(活句)가 된다.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눈 밝은 바로 그 사람 우물에 빠진다 하니,
총림에서 분별하는 말들 언제나 그칠까?
마음을 닦아 무심의 경지에 이르지 않으면,
갓가지 모양새로 번뇌의 물결 따라가리라.

〈과룡의 어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어떤 학인이 과룡에게 물었다’라는 구절에서 시작하여 ‘우물에 빠진다’라는 구절에 이르고, 이어서 그 학인이 절을 하고 물러났다. 수좌가 그 학인을 대신하여 ‘눈 밝은 사람은 우물에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과룡이 ‘그대가 알았구나, 그대가 알았어’²⁾라고 말했다.〉

薦福逸頌, “好个明眼人落井, 叢林話會幾時休? 修心未到無心地, 萬種千般逐水流.” 〈此師錄, 僧問巴陵至落井, 僧禮拜退, 首座代僧, 進語云, ‘明眼人不落井.’ 陵云, ‘你會也, 你會也.’〉

[설화]

앞의 두 구절은 두 가지 견해³⁾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뒤의 두 구절은 눈 밝은 사람은 우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2) 이것이 수좌의 대답을 인정한 말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며, 수좌가 그 말을 듣고 기뻐했다면 지옥에 떨어질 일이다. 반대로 ‘그대도 틀렸다’라고 했더라도 일방적으로 수좌의 대답을 부정하는 말은 아니다. 수좌가 ‘눈 밝은 사람은 우물에 빠지지 않습니다’라고 한 말 자체가 하나의 단정이 아니라 스승을 화두의 기틀로 유인하는 말이었고, ‘그대가 알았구나’라고 한 말도 그 의중을 간파하고 칼날을 거꾸로 겨누는 것이다. 수좌가 보인 것과 같은 수단을 호랑이를 함정에 빠뜨리는 기틀[陷虎之機]이라 할 만하다.

3) 빠진다거나 빠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대립된 견해. 이것을 놓고 분별하며 설명하려는 시도에 속박되어 있다.

내용과 다른 뜻은 더 이상 없음을 나타낸다.

薦福：上二句，二見未離故也. 下二句，明眼人不落井也. 然則更無第二也.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

눈 밝은 사람 우물에 빠지니,
서쪽에 동쪽 마루가 있노라.
만두로 알고 손에 잡았는데,
손바닥 펴 보니 호떡이었네.⁴⁾

海印信頌, “明眼人落井, 西方正東嶺. 捉得个饅頭, 開拳是餠餅.”

보령인용(保寧仁勇)의 송

가을밤 맑은 하늘⁵⁾에 달이 매우 밝은데,
별 모양 올려보니 삼경가랑 되었구나.
한 길로 뻗은 대로 손바닥처럼 평탄하니,
돌아가는 길, 밤새워 간들 방해될 것이 무엇이랴!

保寧勇頌, “秋夜霜天月正明, 仰觀星像約三更. 一條大路平如

4) ‘빠진다’는 기쁨에 현혹되면, ‘빠지지 않는다’는 말로 변하여 그 착각을 일깨운다. 이 경우 ‘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이 아닌 또 하나의 기쁨이 된다. 어떤 구절이 되었건 단정하고 포착하는 순간 이미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 화두라는 언어가 가지는 효와(誨誦)의 속성이다.

5) 상천(霜天). 깊은 가을 하늘. ‘霜’은 ‘서리’ 자체가 아니라 마치 순백색의 서리와 같이 높고 깨끗한 가을 하늘을 형용하는 말이다.

掌, 歸去何妨徹曉行!”

취암가진(翠嵒可眞)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다음의 두 문답을 제기했다. 어떤 학인이 보응(寶應)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도입니까?’ ‘오봉루⁶⁾ 앞에 있다.’ 이번에는 수산(首山)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라고 묻자 수산은 ‘다리 아래 석 자 깊이의 구덩이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취암이 말했다. “도를 드러내는 이 세 가지 말⁷⁾ 중 한 구절은 천 길의 절벽이 우뚝 솟은 듯하고,⁸⁾ 다른 한 구절은 배로 육지를 가는 격이며, 마지막 한 구절은 손님과 주인이 뒤섞인 것과 같다. 대중 가운데 가려내어 짚을 지어볼 사람 있는가? 나와 보라. 없다면 아라한(아라한)의 자비를 행하여 번뇌의 도적을 물리치고, 보살의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안락하게 하며, 여래의 자비를 행하여 진여의 실상을 얻게 할 것이다.”

翠嵒眞, 舉此話, 連舉僧問寶應, ‘如何是道?’ 師云, ‘五鳳樓前.’ 又問首山, ‘如何是道?’ 云, ‘脚下深三尺.’ 師云, “此三轉語, 一句壁立千仞, 一句陸地行船, 一句賓主交參. 衆中莫有揀得者麼? 出來看! 如無, 且行羅漢慈, 破結賊故, 行菩薩慈. 安衆生故, 行如來慈, 得如相故.”

6) 五鳳樓. 당나라 때 낙양(洛陽)에 건축한 누각.

7) 전어(轉語).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전환하는[轉] 말. 또는 상황과 조건에 적절하게 본분의 기틀을 ‘자유자재로 드러내는’[轉] 말을 가리킨다.

8) 벽립천인(壁立千仞). 험준하여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 언어와 사유의 수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경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낸다. 은산절벽(銀山鐵壁)과 같은 뜻이다.

[설화]

다리 아래 석 자 깊이의 구덩이 : 구덩이의 깊이가 석 자라는 뜻이다.

‘천 길의 절벽이 우뚝 솟았다’ 이하의 세 구절은 차례대로 배합한 것은 아니다.

‘아라한의 자비를 행하여’라 운운한 말은 ‘천 길의 절벽이 우뚝 솟은 것’에 상응하고, ‘보살의 자비를 행하여’라 운운한 말은 ‘배로 육지를 간다’는 구절에 상응하며, ‘여래의 자비를 행하여’라 운운한 말은 ‘손님과 주인이 뒤섞인 것’이라는 구절에 상응한다.

翠巖：脚下深三尺者，坑深三尺也。壁立千仞等三句，非次第配合也。行羅漢慈云云者，壁立千仞也。行菩薩慈云云者，陸地行艱也。行如來慈云云者，賓主交參也。

원오극근(圓悟克勤)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다음의 두 가지 문답을 제기했다. 어떤 학인이 석두(石頭)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라고 묻자 석두가 ‘목두(木頭)⁹⁾이다’라고 대답했다. 학인이 이번에는 덕소(德韶)국사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라고 묻자 국사가 ‘사생(四生)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대답했다. 장산이 이 세 문답을 평가했다. “종사들이 학인에게 준 가르침에는 각각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어느 곳으로나 막힘없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들려주자마자 곧바로 알아차리겠지만, 만일 모르겠다면 자세히 해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세 종사가 그렇게 다른 대답을 내놓은 것을 보자. 말해 보라! 그중 어떤 한 구절

9) ‘나무’라는 말. 자신의 호인 석두와 호응하여 대답했다.

이 도에 빈틈없이 딱 들어맞을까? 잘 알겠는가? 한 발의 화살로 세 관문을 무너뜨리니, 화살 날아간 자취가 분명하도다.¹⁰⁾”

蔣山勤, 舉此話, 連舉僧問石頭, ‘如何是道?’ 云, ‘木頭.’ 僧又問韶國師, ‘如何是道?’ 國師云, ‘四生浩浩.’ 師云, “宗師家爲人, 各有出身處. 若是通方之士, 一舉便知, 苟未相諳, 不免指注. 祇如一个問頭, 三人恁麼答. 且道! 是那一句親切? 還委悉麼? 一鍼破三關, 分明箭後路.”

[설화]

‘목두’라는 말은 ‘사생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구절과 좌우로 대칭을 이룬다.

蔣山：木頭者, 四生浩浩, 爲對左右也.

10) 본서 1則 주석59) 참조.



1272책 明招風頭 명초풍두



1272칙 명초풍두 明招風頭

[본칙]

무주의 명초덕겸선사가 추운 어느 날 법좌에 올랐는데, 대중이 모이자마자 “바람이 점점 세차지니 그대들이 몸과 마음을 편안히 둘 곳이 못 된다.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서 문답을 주고받아 보기로 하자”라 말하고, 곧 바로 방장으로 돌아갔다. 대중이 뒤따라 도착하여 꼼짝하지 않고 서 있는데, 명초가 “따뜻한 방에 이르기가 무섭게 졸음이 쏟아지는구나”라 말한 뒤 주장자를 휘둘러 한꺼번에 모두 내쫓았다.

婺州, 明招德謙禪師, 一日天寒, 上堂, 大眾才集, 師云, “風頭稍硬, 不是你安身立命. 且歸暖室商量.” 便歸方丈. 大眾隨至立定, 師云, “才到暖室, 便見瞌睡.” 以拄杖一時趁下.

[설화]

바람이 점점 세차지니 ~ 문답을 주고받아 보기로 하자 : 물 한 방울 셀 틈이 없이 틀어막고 있어¹⁾ 문답을 주고받을 여지도 없다는 뜻이다.

-
- 1) 그 무엇도 허용하지 않는 파주(把住)의 입장을 나타낸다.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행(放行)의 입장과 대칭으로 짝이 된다. 두 가지를 자유자재로 번갈아 활용하는 것이 뛰어난 선사의 기량이다. “방행을 시행하면 바람결 따라 풀잎이 눕고 돌조각마다 빛을 낼 것이니, (걸림 없이 자유롭게 살던) 습득과 한산도 고개를 끄

따뜻한 방으로 돌아가서 ~ 주고받아 보기로 하자 : 오늘 주고받을 문답은 따뜻한 방에서 할 일이라는 뜻이다.

곧바로 방장으로 돌아갔다 : 걸림 없이 자유로운 경지를 나타낸다.

따뜻한 방에 이르기가 무섭게 ~ 모두 내쫓았다 : 범령을 남김없이 시행한 것이다.²⁾

風頭稍硬云云者, 水洩不通, 商量無分也。且歸暖室云云者, 今日商量, 暖室裏事也。便歸方丈者, 直得無限也。才到暖室云云者, 令盡行也。

대각회련(大覺懷璉)의 송

바람 점점 세차지니 문답을 주고받지 못하고,

덕여 긍정하며 박수를 칠 것이다. 파주를 시행하면 물 한 방울 셀 틈이 없고 순금도 빛깔을 잃을 것이니, (방과 할을 시행하며 모든 것을 틀어막던) 덕산과 임제 일지라도 숨을 멈추고 말을 삼킬 것이다. 바로 이럴 때, 방행이 옳은가 파주가 옳은가?”(『續傳燈錄』 권21 「南臺允恭傳」 大51 p.610a16. 放行也, 風行草偃, 瓦礫生光, 拾得寒山, 點頭拊掌; 把住也, 水洩不通, 精金失色, 德山臨濟, 飲氣吞聲. 正當恁麼時, 放行卽是, 把住卽是?); “사대선사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나의 한입에 남김없이 삼켰으니 어디에 또 다시 제도할 중생이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는 물 한 방울 셀 틈도 없이 틀어막는 수법이니, 범부의 길도 성인의 길도 모두 끊어진 경계를 나타낸다.”(『從容錄』 73則 「頌評唱」 大48 p.256c5. 思大云, ‘三世諸佛, 被我一口吞盡, 何處更有衆生可度!’ 此水洩不通, 凡聖路絕也.)

- 2) 범령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가리킨다. 이 법문에서는 시종일관 이 입장을 범령으로 삼아 어떤 방편도 통하지 않도록 파주를 고수했다는 해설이다.

따뜻한 곳에선 여전히 자고픈 생각만 생기네.
 주장자 집어 들고 일제히 내쫓아 해산시키니,
 알고 보면 눈 위에 서리를 더한 것이라네.

大覺璉頌, “風頭稍硬不商量, 暖處依前睡思長. 拄杖拈來齊趕散, 元因雪上更加霜.”

장산법천(蔣山法泉)의 송

법당 안은 대단히 으스스하니,
 대중 가운데 버터널 자 누구인가?
 서쪽 바람³⁾ 땅 깎으며 매섭게 부는 줄 알 뿐,
 낙엽 하나가 일깨우는 가을 소식 어찌 알리오?⁴⁾
 따뜻한 곳 가자는 말로 꿈쩍 없이 가두었으나,

3) 가을바람. 금풍(金風)이라고도 한다. 봄바람은 동풍(東風)이라 한다.

4) 법당이 추위 방장으로 가자고 했을 때 이미 ‘언어 이전의 소식’을 전한 것이다. 이것이 ‘낙엽 하나를 보고 가을 소식을 안다’라는 뜻이다. 방장에서 주장자를 휘둘러 내쫓았을 때는 이미 서풍이 세차게 몰아치며 겨울을 앞둔 깊은 가을과 같아서 누구나 그 시절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 소식을 알았더라도 앞서 전한 뜻과 비교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는 취지이다. “거문고 통기는 한 소리에 그 곡조를 가려내고, 떨어지는 잎사귀 한 잎에 가을이 깃든 소식을 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빈틈없이 척척 맞아 떨어지니, 새가 날아다니는 자취 없는 까마득한 길과 같다.”(『鴻山語錄』 卍119 p.854b12. 動絃別曲, 葉落知秋. 自古自今, 築著磕著, 鳥道玄路.); “하나의 티끌이 일어나면 세상 전체가 그것에 거두어지고,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면 천하에 가을이 깃든다. 가을바람[金風]이 불면 섬돌 가의 귀뚜라미가 놀라서 울고, 맑은 이슬이 떨어지면 숲속의 매미가 운다.”(『五祖法演語錄』 권상 大47 p.654c6. 一塵起大地收, 一葉落天下秋. 金風動處, 警砌畔之蛩吟; 玉露零時, 引林間之蟬噪.) 귀뚜라미와 매미는 계절의 전령(傳令)으로서 작은 단서에서 소식을 알아차리는 자를 상징한다.

어느 누구도 그의 목구멍 틀어막지 못했다네.

고황⁵⁾이 이룬 위대한 공적 알아야 할 것이니,

홍구⁶⁾의 두 언덕 한꺼번에 점령하였다네.⁷⁾

蔣山泉頌, “堂上非常凜冽, 衆人誰敢當頭? 祇見西風刮地, 豈知一葉驚秋? 暖處去極停囚, 無人爲與塞咽喉. 須信高皇功業大, 鴻溝兩岸一時收.”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한밤의 샛별이 정오에 나타난 것인데,

어리석은 자 여전히 새벽닭 울 때 기다린다.⁸⁾

5) 高皇. 천하를 통일한 고조황제(高祖皇帝). 곧 한(漢)나라 고조(高祖)인 유방(劉邦).

6) 鴻溝. 운하(運河) 이름. 한(漢)나라 유방(劉邦)과 초(楚)나라 항우(項羽)가 격전을 벌일 때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양분했다. 홍구의 서쪽은 한나라 영토, 동쪽은 초나라 영토이므로 두 언덕이라 한 것이다. 분명히 갈라지는 경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는 법당과 방장을 나타낸다.

7) 유방이 승리하여 분명히 갈라졌던 홍구의 두 언덕을 차지하고 천하를 통일했듯이, 추운 법당과 따뜻한 방장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였으나 본래부터 어디서나 하나의 소식만 전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8) 법당에서 전하지 않은 소식이 방장으로 가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 그러나 방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법당에서 전했기 때문에 착각이다. 선어(禪語) 또는 화두는 그 말에 담긴 일반적 뜻에 따라 분별하도록 착각을 유도한다. 샛별은 새벽에 뜨고 닭이 그 시각에 따라서 운다는 관념을 이용하여 정오에 샛별을 띄워 놓고 곧 새벽닭이 울 것이라는 착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대중에게 말했다. ‘모든 봉우리 온갖 산에 내린 눈과 오호와 사해의 얼음을 맑은 광명으로 한 덩어리 만들어 사물 하나하나를 모두 밝힌다. 말해 보라. 조주의 뜰 앞의 잣나무와 운문의 마른 뚝배기와 동산의 마삼근 등의 화두가 궁극적으로 어떤 뜻일까?’라 말한 뒤 한 소리 크게 내지르고 말했다. ‘샛별이 정오에 나타났는데 여전히 새벽을 알리는 닭이 울기를 기다리는구나.’”(『高峰語錄』 권상 卍122 p.653b15. 示

안타깝다, 자기 똥은 냄새 나는 줄도 모르고,
게다가 남에게 거둬 새롭게 집어주려고 하네.⁹⁾

雲門杲頌, “夜半明星當午現, 愚夫猶待曉雞鳴. 可憐自屎不知
臭, 又欲重新拈似人.”

죽암사규(竹菴士珪)의 송

바람 점점 세차지니 편히 몸 두기 어렵고,
따뜻한 기운 통하자마자 졸음이 밀려오네.
우습다 명초여, 쓸데없이 기력 낭비했구나!
까닭 없이 두 곳을 억지로 갈라놓았도다.

竹庵珪頌, “風頭稍硬難安立, 暖氣才通瞌睡來. 却笑明招閑費
力! 無端兩處強差排.”

개선선심(開先善暹)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감옥에 갇혀서 지혜를 기르는구나.¹⁰⁾ 당시에 그가 ‘오늘은 바람이 점점 세차지니 따뜻한 곳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말하기를 기다렸다가 손뼉을 한 번 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갔

衆云, ‘千嶺萬山雪, 五湖四海冰, 清光成一片, 物物盡皆明. 且道, 趙州柏樹子, 雲門乾屎
橛, 洞山麻三斤, 畢竟是箇甚麼?’ 喝一喝云, ‘明星當午現, 猶待曉雞鳴.’)

- 9) 처음에 방장으로 가자고 한 말이 언어 이전의 소식을 빗나간 것으로 똥 냄새와 같은 악취를 풍긴 격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방장에서 또 다시 주장자를 휘둘러 자신의 의중을 전하려 했다는 비판이다.

- 10) 명초의 말에 따라 방장으로 가서 또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것을 비유한다.

다면 그 노스님을 한바탕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명초는 본분을 깨우친 종사였으니 만일 본분에 들어맞는 숨씨가 없다면 호랑이 수염을 뽑아서서는 안 된다. 쓸데없이 오래 서 있었다.¹¹⁾”

開先遲，上堂，舉此話云，“停囚長智。當時待伊道，‘今日風頭稍硬，歸暖處說話去來。’但撫一掌，各自歸堂，教者老漢一場懡㦬。雖然如是，且明招是本分宗師，若無者个手脚，且莫拚虎鬚好。不用久立。”

[설화]

손뼉을 한 번 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간다 : 명초의 의중을 감파했음을 나타낸다.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명초를 따라간 것이 바로 ‘감옥에 갇혀서 지혜를 기른 것’과 같은 꼴이다.

開先：撫掌歸堂者，覷破他意也。既不能，明招趲下，是停囚長智云云也。

11) 구립(久立). 법문 마지막에 학인들에게 전하는 인사말. 본서 1365則 주석5) 참조.



1283칙 智門赤脚 지문적각



1283칙 지문적각 智門赤脚

[본칙]

어떤 학인이 지문광조(智門光祿)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짚신이 해지면 맨발로 된다.” “부처의 경지 이상으로 넘어서는 일이란 어떤 것입니까?” “주장자 끝에서 해와 달이 솟아오른다.”

智門因僧問, “如何是佛?” 師云, “踏破草鞋赤脚走.” 僧云, “如何是佛向上事?” 師云, “拄杖頭上挑日月.”

[설화]

짚신이 해지면 맨발로 된다: 어떤 맛도 없는 대답이지만, 또한 분명하게 드러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¹⁾

-
- 1) 근본적으로 숨었다거나 드러났다거나 하는 등의 의미로 음미할 수 있는 어떤 맛도 들어 있지 않은 대답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신발을 벗으니 맨발이 숨김없이 드러났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는 취지. 선어(禪語)에는 이와 같이 일정한 상황을 묘사하는 구체적인 맛과 의미가 담겨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분별의 맛이 박탈된 경계를 지향한다. 몰자미(沒滋味)와 같은 뜻이며, ‘無味答得’ 또는 ‘無味答話’라는 표현 자체는 〈설화〉에만 보인다. 원오극근(圓悟克勤)이 맛이 없는 이야기[無味之談]이라 한 말의 영향으로 보인다. “어떤 학인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향림(香林)은 ‘오래 앉아 있었다니 피로하구나’라고 대답했는데, 말에도 맛이 없고 구절에도 맛이 없다고 할 만하다. 이렇게 아무 맛도 없는 이야기로 입을 틀어막아 누구도 숨을 쉴 틈조차 없게 만

주장자 끝에서 해와 달이 솟아오른다: 이 또한 어떤 맛도 없는 대답이지만, 해와 달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踏破草鞋赤脚走云云者, 無味答得, 亦披露分明也. 拄杖頭上云云者, 亦是無味答得, 日月意不無也.

문변의 송²⁾

짚신이 해지면 맨발로 뛰라 하니,
타국의 성곽에서 찾으며 언제 설꼬?
오랜 세월 기꺼이 풍진객³⁾ 되더니,
고국으로 돌아와 노닐려 하질 않네.

들었던 것이다. 보고자 한다면 곧바로 보면 되지만, 만약 보지 못하더라도 결코 억지로 이해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碧巖錄』 17則「評唱」大48 p.157b16. 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林云, ‘坐久成勞.’ 可謂言無味句無味, 無味之談, 塞斷人口, 無爾出氣處. 要見便見, 若不見, 切忌作解會.)

- 2) ‘맨발로 뛴다’는 말을 오인하여 밖으로 뛰어다니며 구하는 어리석음을 풍자한 계승. 맛이 없는 그 말을 진실한 맛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비판의 핵심어는 ‘풍진객’이다.
- 3) 風塵客. 어지러운 세상을 떠도는 나그네. 본래의 근거를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방황하며 도를 추구하는 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證道歌』 大48 p.396c8에 “여러 해 동안 헛되이 풍진객이 되었다”(多年枉作風塵客)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구절에 대해 묘공불해(妙空佛海)는 “깨달음을 등지고 대상 경계[塵]와 어울린다.”(『證道歌註』 卍114 p.900a17. 背覺合塵.)라고 풀었고, 법혜굉덕(法慧宏德)은 “날리는 쭉처럼 떠돌이 나그네가 되어 고향에서 더욱 멀어진다.”(『證道歌註』 卍114 p.922a17. 譬如飄蓬爲客, 家鄉轉遠.)라고 해설했다.

文辨頌, “踏破草鞋赤脚走, 尋他城郭幾時休? 長年愛作風塵客, 不肯歸來故國遊.”

유악의 송

지난해도 올해도 가난한 적이 없었으니,⁴⁾
전광석화와 같이 재빨라도 여전히 느리다네.⁵⁾
왕정⁶⁾에 정해진 기한 있으니 머뭇대지 말고,
짚신이 해졌으면 맨발로 뛰어야 한다네.

惟岳頌, “去年今年未是貧, 電光石火猶遲久. 王程有限莫躊躇, 踏破草鞋赤脚走.”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짚신이 해졌으면 맨발로 뛰다 하고,
주장자 끝에 해와 달이 솟는다 하네.

4) 여전히 버릴 집착이 남아 있다는 뜻. 해진 짚신을 버릴 일이 남아 있다는 것과 연결된다. 향엄지한(香嚴智閑)의 계송을 활용한 말이다. “지난해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요, 올해의 가난이 진실로 가난이라네. 지난해에는 송곳 꽃을 땅이라도 있었건만, 올해는 송곳조차 없구나.”(『景德傳燈錄』 권11 「仰山慧寂傳」 大51 p.283b3. 去年貧未是貧, 今年貧始是貧. 去年無卓錫之地, 今年錫也無.) 이 계송에 대해 양산은 “여래선(如來禪)은 사형이 이해했다고 인정하겠다. 그러나 조사선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라고 평가했다. 본서 598則 「香嚴去年」 참조.

5) 낡은 짚신을 무엇보다 재빠르게 벗어버리고 맨발로 뛰라는 취지.

6) 王程. 임금의 명령을 받고 떠나는 길. 정해진 기한 내에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관리로서의 여정(旅程)을 말한다. 여기서는 수행자로서 마땅히 본분사를 완수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를 나타낸다.

지문에게는 조사의 가풍이 있었기에,
 운문의 광장설을 마음껏 내어놓았네.⁷⁾
 위대한 지혜는 어리석은 듯하고,
 탁월한 솜씨는 서투른 듯하다.⁸⁾
 갖은 노력⁹⁾ 다하여 참구해도 뚫지 못하니,
 평지에 더 높은 언덕 쌓아 올리지 말고,
 허공에 말뚝 박는 짓일랑은 그만두어라.¹⁰⁾

天童覺頌, “踏破草鞋赤脚走, 拄杖頭上挑日月. 智門直得祖家風, 放出雲門廣長舌. 大智如愚, 大巧若拙. 用盡工夫參不徹, 莫於平地上增堆, 休向虛空裏釘橛.”

-
- 7) 지문광조(智門光祚)는 운문문언(雲門文偃)의 법통을 이은 2세이다. 운문의 가풍을 계승한 걸림 없는 설법[廣長說]을 전개했다는 뜻이다.
- 8) 대교약拙(大巧若拙). 『老子』 45장에 나오는 말. “오직 자신만이 스스로 알 수 있을 뿐이니, 뛰어난 말재주는 말더듬이처럼 보이고 탁월한 솜씨는 서투른 듯이 보인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일을 다 알고 나서 다만 하루 모든 시각의 행위 반경 전체에서 보거나 듣거나 하며 대상과 마주치는 경계 속에서 가볍게 정신의 번잡함을 다 털어 없애고 ‘이것은 무엇인가?’ 하고 궁구하십시오. 단지 이렇게 참구하여 시기가 성숙되면 반드시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수궁하게 될 것입니다.”(『眞覺語錄』, 『示寶城魏通判』 韓6 p.38c18. 唯己自知, 大辯若訥分, 大巧若拙, 是也. 知是般事了, 但向十二時中, 四威儀內, 見聞應緣處, 略抖擻精神, 看是个什麼? 只伊麼參取, 久久, 必默默點頭矣.)
- 9) 공부(工夫). 어떤 일에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말한다.
- 10) 두 가지 모두 일이 없는 곳에다 쓸데없이 일을 만드는 잘못을 가리킨다. 맛이 없는 화두를 인식하기 위해 분별의 수단을 설정하는 것은 평탄한 길에 높은 언덕을 쌓아 장애를 만들고 허공에 말뚝을 박으려는 부질없는 행위와 같다.

목암법충(牧庵法忠)의 송

깊신이 해져 맨발로 뛰고 나서야,
저울추가 무쇠처럼 단단한 줄 알았다네.
주장자 끝에서 해와 달이 솟아나니,
하늘과 땅 비추어 밝고 깨끗하도다.
옛사람의 분명한 의중 알고자 하면,
불타는 화로에 떨어진 한 점의 눈을 보라!
이해했건 못했건 뚫었건 뚫지 못했건,
결코 지금 당장 가볍게 누설하지 마라.
호인은 우유 먹고 나왔으면서 양의를 의심하니,¹¹⁾
끓는 가마가 밑바닥까지 뜨거운 줄은 모른다.

〈참!〉

牧庵忠頌, “踏破草鞋赤脚走, 方知秤鎚硬似鐵. 拄杖頭上挑日月, 照破乾坤明皎潔. 要會古人端的意, 看取烘爐一點雪! 會不會, 徹不徹, 切忌當頭輕漏洩. 胡人飲乳怪良醫, 不信鑊湯通底熱.” 〈參!〉

-
- 11) 호인(인도의 국왕)은 유약(乳藥)을 먹고 병이 나왔으면서, 도리어 처방해 준 훌륭한 의사를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말. 『大般涅槃經』 권2 大12 p.617c20에 나오는 비유. 어떤 국왕이 병이 걸릴 때마다 의사가 어떤 시기에는 유약(乳藥)을 먹여서 병을 다 치료했으나 다른 시기에는 먹지 말라고 금지하여 병이 나왔다. 이 까닭을 몰랐던 왕은 처음 치료법을 바꾸었을 때 노하였다고 한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하나의 방향으로 결정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한다.

설두중현(雪竇重顯)의 엄

“천 명의 병사를 얻기는 쉽지만, 장군 하나를 얻기는 어렵다.”

雪竇顯拈, “千兵易得, 一將難求.”

[설화]

지문의 의중을 아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뜻이다.

雪竇：知智門意者，難得也.

취암문열(翠嵒文悅)의 거

이 공안을 제기하고 어떤 학인에게 “알겠는가?”라고 질문하자, 그 학인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여, 계송 한 수로 그 뜻을 보여주었다. “쥔신이 떨어지면 맨발로 뛴다 하니, 남승들 그에 대해 크게 떠벌린다네. 해와 달이 주장자에서 솟는다 하니, 남쪽을 향하고서 북두칠성을 보네.” 그 학인이 절을 올리고 나가는데, 취암이 “이리 오라!” 하고 불렀다. 학인이 고개를 돌리자 취암이 말했다. “노주(露柱)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라.”

翠嵒悅，舉此話，問僧，“會麼？”僧云，“不會。”師乃以頌示之，“鞋穿赤脚走，衲僧開大口。日月挑杖頭，面南看北斗。”僧便禮拜出，師召云，“來來！”僧迴首，師云，“莫教撞著露柱。”

[설화]

쥔신이 떨어지면 ~ 북두칠성을 보네 : 죄인의 자백에 따라 판결문을 작성하는 방식이다.¹²⁾

12) 지문이 한 말에 따라 똑같은 취지로 착어를 달았다는 말이다.

노주에 부딪치지 않도록 하라 : 학인이 절을 올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꼴이라는 뜻이다.

翠巖：鞋穿赤脚走等，據款結案。莫教撞著露柱者，僧禮拜決定如此。

장로종색(長蘆宗蹟)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취암의 송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여, 이 송이 좋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한 수가 부족하다. 여러분에게 그 핵심을 한번 짚어내어[拈] 보리라. ‘짚신이 떨어지면 맨발로 뛴다 하니, 콧구멍 아래 입이 있구나. 해와 달이 주장자에서 솟는다 하니, 남쪽을 향하고서 북두칠성을 보네.’”

長蘆蹟，舉此話，連舉翠巖頌，師云，“諸仁者，此頌雖好，猶欠一着在。試爲諸人拈破。‘鞋穿赤脚走，鼻孔下是口。杖頭挑日月，面南看北斗。’”

[설화]

취암의 말에는 여전히 불법에 얽매인 몸과 마음이 남아 있지만, 여기에는 불법의 도리¹³⁾라고는 전혀 없다는 뜻이다.

長蘆：翠巖底，猶有佛法身心，此則都無佛法道理也。

13) 불법의 실마리가 되는 모든 것.



1294칙 法眼指廉 법안지럼



1294칙 법안지렴 法眼指廉¹⁾

[본칙]

법안이 어떤 학인이 밖에서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손가락으로 발 [簾]을 가리키자 방안의 두 학인이 함께 가서 발을 말아 올렸다. 법안이 말했다. “한 사람은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잃었다.”

法眼，因見僧來參，以手指簾。時有二僧，同去捲簾。師云，
“一得一失。”

[설화]

한 사람은 얻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잃었다 : 얻었다면 모두 얻었고, 잃었다면 모두 잃었다는 뜻이다.

一得一失者，得則摠得，失則摠失也。

1) 득과 실을 나누면서도 득은 득 그대로, 실은 실 그대로 허용하여 두 가지의 차별과 무차별을 단정할 수 없도록 만든 설정에 이 공안의 관문이 있다.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소나무는 곧고 가시나무는 굽으며,²⁾
학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으니,
북희 황제건 평민들이건 그 누구도
치세와 난세라는 차별 모두 잊었네.
한가하기는 연못 속 깊이 잠겨 오가는 잉어요,
자유롭기는 새장 벗어나 날개 펴고 나는 새라네.
어떤 조사도 인도에서 온 일 없었으나,³⁾
이 안에서 득실이 반씩 나누어졌다네.
쭉대는 바람 부는 대로 허공에서 날리고,
배는 물줄기 가로질러 언덕에 이른다네.
이 중에 영리한 납승이라면,
나의 수단을 간파했으리라.

天童覺頌, “松直棘曲, 鶴長鳬短, 義皇世人, 俱忘治亂. 其安也潛鱗在淵, 其逸也翔鳥脫絆. 無何祖禰西來, 許裏⁴⁾得失相半. 蓬隨風而轉空, 船截流而到岸. 个中靈利衲僧, 看取清涼手段.”

[설화]

소나무는 곧고 ~ 날개 펴고 나는 새라네 : 득과 실이 없는 경계이다.
어떤 조사도 ~ 언덕에 이른다네 : 득과 실이 뚜렷이 나누어진 경계이다.

2) 『楞嚴經』 권5 大19 p.125b18.

3) 현사사비(玄沙師備)의 말을 활용한 구절. 본서 931則 주석6) 참조.

4) 『宏智廣錄』 권2 大48 p.21a4 등에 ‘裏許’로 된 것이 옳다.

이 중에 영리한 ~ 간파했으리라 : 득과 실이 나누어진 그곳에서 뚜렷하게 득과 실이 없는 도리를 이해한다는 뜻이다.

아래 나오는 천동의 상당법문의 뜻도 이 해설에 따라 추정하면 된다.

天童：松直云云至脫絆者，無得失處也。無何云云至到岸者，得失宛然也。箇中靈利云云者，當得失，宛然會得無得失也。次上堂義，以此推之也。

묘지곽의 송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잃었다 하니,
누구에 의지하면 그 뜻을 다 알 수 있을까?
부싯돌 번득이듯 재빠른 솜씨로도 통할 수 없고,
번갯불과 같이 민첩한 분별로도 미치지 못한다네.

妙智廓頌，“一得一失，憑誰委悉？石火罔通，電光不及。”

열재거사의 송

달이 지자 발을 말아 고리에 걸었고,
나그네는 짐 꾸러 떠날 채비 마쳤다.
호각소리에 실려 온 바람이 발길 붙들어,
남루⁵⁾를 지나가려 하지 않는구나.
〈또한 ‘둘 다 얻기도 했고 둘 다 잃기도 했다’라고 한다〉.

5) 南樓. 중국 호북성(湖北省) 악성현(鄂城縣) 남쪽에 위치한 누대. 달맞이를 하기 좋은 누대라고 하여 완월루(玩月樓)라고도 한다.

悅齋居士頌, “月落上簾鉤, 行人已裹頭. 角聲風約住, 不肯過南樓.”〈又云, ‘全得亦全失.’〉

천동정각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렇게 간 사람은 빗나갔고, 이렇게 간 사람은 들어맞았다. 빗나갈 때는 철저히 빗나가고, 들어맞을 때는 딱 들어맞게 진실을 본다.⁶⁾ 알고 지내는 사람은 세상에 가득 찼지만, 속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天童覺, 上堂, 舉此話云, “恁麼去底錯, 恁麼去底親. 錯時錯到底, 親時親見真. 相識滿天下, 知心能幾人?”

불안청원(佛眼清遠)의 보설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그대들은 마땅히 ‘무슨 득과 실의 차별이 있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한 사람은 알아차리고 발을 말아 올렸으니 얻은 것이며, 다른 한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발을 말아 올렸으니 잃은 것이다’라고 말해서도 안 된다. 만약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어떻게 의사의 마음을 이해하겠는가? 지금껏 이 공안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까닭은 그 마음을 자세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의사라 자칭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모르는 것과 같다. 견해가 있거나 없거나 전

6) 법안은 득실을 나누었지만 득은 득으로서 자리를 지니고 실은 실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빗나가거나 들어맞거나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법안이 처음부터 득실이 없는 경계에서 득실을 나누어 점점의 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혀 변별하지 못하니, 어떻게 남들을 가르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는가? 모름지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진실을 궁구해야 한다. 만약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진실을 궁구하기로 받아들인다면 이해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옛사람이 ‘그대들이 다만 도리를 궁구하며 이 삼십 년 동안 좌선하였음에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의 머리를 잘라 오줌 통으로 만들라’⁷⁾라고 한 말을 모르는가?”

佛眼遠, 普說, 舉此話云, “你等事須不得道, ‘有什麼得失!’ 又道, ‘一人會來去捲, 是得; 一人不會來去捲, 是失.’ 若伊麼, 作生會醫? 如今明未得, 蓋爲悟心未諦. 如不識病稱醫者, 他人會也不識, 不會也不識. 有無見處, 總辨別不得, 却如何爲人, 如何說向人? 須是剋骨究實, 始得. 若肯去剋骨究實, 無有不識者. 不見古人道, ‘你但究理而坐二三十年, 若不會, 截取老僧頭去, 作尿鉢子.’”

[설화]

그대들은 마땅히 ‘무슨 득과 실의 차별이 있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되며 : 득과 실이 없는 경계에 착안한 견해이다. 천동의 개송에 ‘소나무는 곧고 ~ 치세와 난세라는 차별 모두 잊었네’라고 한 말이 그것이다.

한 사람은 알아차리고 ~ 잃은 것이다 : 천동이 ‘이 안에서 득실이 반씩 나누어 졌다네’라고 한 말이 그것이다.

佛眼：你等事須不得云云者，無得失處著眼也。天童所言，松直至俱亡治亂者，是也。一人會來云云者，許裏得失相半云云，是也。

7) 조주종심(趙州從諗)의 말. 『景德傳燈錄』 권28 「趙州從諗和尚語」 大51 p.446b22.



1299책 法眼丙丁 법안병정



1299칙 법안병정 法眼丙丁¹⁾

[본칙]

법안이 감원(監院)²⁾ 소임을 맡고 있는 현칙에게 물었다. “이곳에 머문지 얼마나 되는가?” “3년 되었습니다.” “그대는 후생(後生)으로서 평상시에 어째서 본분사에 대하여 묻지 않는가?” “제가 스님을 더 이상 속이지는 못하겠군요. 이전에 청봉(靑峯) 문하에 있을 때 이미 안락한 경지를 얻었습니다.” “그대는 어떤 말로 인하여 깨달았는가?” “언젠가 ‘저의 자기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었는데, 청봉이 ‘병정동자³⁾가 불을 구하

- 1) 법안문익(法眼文益)이 보은현칙(報恩玄則)의 착각을 깨우쳐주고 더욱 향상하는 길을 터준 인연에 기초한 공안. 현칙이 청봉(靑峯)에게 듣고 깨달았다는 ‘병정동자’ 화두를 법안이 똑같이 제기하여 이전의 잘못된 확신을 고치고 그 참뜻을 알도록 했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다’라는 말에 대하여 ‘불을 가진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온 것은 마치 부처인 자신이 다시 부처를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한 생각이 처음에 청봉의 말을 듣고 현칙이 일으킨 착각이다. 그러한 착각이 이 공안의 결정적인 함정이지만 본령으로 이끌어가는 일차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병정동자의 화두는 ‘자기가 곧 부처’라는 식의 관념이 아니라 어떤 분별도 통하지 않는 철벽의 화두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이다.
- 2) 절의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소임. 이전에는 감사(監寺)라 하였다. “감원이라는 직책은 절의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간다.”(『禪苑清規 권3 「監院」 叢111 p.890b11. 監院一職，總領院門諸事.)
- 3) 丙丁童子. ‘병정’은 불이다. 오행(五行)을 음양(陰陽)으로 나눌 때,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다. 따라서 각각 양화(陽火)와 음화(陰火)에 속한다. 병정동자는 원래

러 왔구나'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좋은 말이지는 하나 그대가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걱정될 뿐이다.” “병·정은 불에 속하니, 불을 가지고 불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찾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대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겠구나. 불법이 이와 같은 것이 라면 오늘날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⁴⁾ 이에 현칙은 마음이 조금하고 답답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으나 길을 가던 도중에 ‘법안은 5백 명의 대중을 가르치는 선지식으로서 나에게 틀렸다고 말했을 때는 틀림없이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 ‘저의 자기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법안이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라고 대답하는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크게 깨달았다.

法眼問則監院，“你在此多少時？”則云，“三年。”師云，“你是後生，尋常何不問事？”則云，“某甲不敢謾和尚。曾在青峯處，得个安樂。”師云，“你因甚語得入？”則云，“曾問，‘如何是學人自己？’峯云，‘丙丁童子來求火。’”師云，“好語，只恐你不會。”則云，“丙丁屬火，將火求火，將自己覓自己。”師云，“情知你不會。佛法若如此，不到今日。”則躁悶便起，至中路，却云，‘他是五百人善知識，道我不是，必有長處。’却迴懺謝，便問，“如何是學人自己？”師云，“丙丁童子來求火。”則於言下大悟。

질에서 등화(燈火)를 관리하는 소임이다.

- 4) 『禪門拈頌說話』 1290則의 법안과 혜초(慧超)의 문답에도 이 취와 비슷한 관문이 제시된다. ‘부처가 무엇입니까?’라는 혜초의 질문에 ‘그대는 혜초다’라고 한 대답이다. 두 공안 모두 ‘자신이 곧 부처’라고 하는 착각을 유도하여 어떤 관념도 자리잡을 수 없는 경계로 이끄는 수단일 뿐이다.

[설화]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청봉의 말] : 병·정은 불에 속하니, 불을 가지고 불을 구하는 것은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찾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현칙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완전한 뜻은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어찌 오늘날까지 전해졌겠는가’라고 말한 것이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구나[법안의 말] : 이렇게 이해해야 옳다는 뜻이다.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크게 깨달았다 : 청봉의 힘을 입어서 깨달았다는 것일까? 아니면 법안의 힘을 입었다는 것일까?

丙丁童子來求火者, 丙丁屬火, 將火求火, 如將自己覓自己. 不道不是, 伊麼會便不是了也. 故云, ‘佛法若如此, 爭到今日.’ 又道, 丙丁童子云云者. 伊麼會方始是也. 言下大悟者, 得青峯力, 得法眼力?

정엄수수(淨嚴守遂)의 송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고자 청봉에게 물으니,
한나라 개⁵⁾ 흙덩이 쫓는 건 어쩔 수 없구나.
다행히도 법안이 거둬 밝혀 준 기회를 만나,
천둥소리와 같은 가르침 듣고 용으로 변했네.⁶⁾

5) 본서 184則 주석18) 참조.

淨嚴遂頌, “丙丁求火問青峯, 叵耐韓獺逐塊蹤. 賴得金陵重點
破, 一聲雷震化爲龍.”

동림상총(東林常總)의 송

병정동자는 불을 구하여 자기 자신을 밝혔으나,
법안과 청봉은 옛날 그대로의 길로 걸어갔다네.
물줄기 끊기고 분별 다한 곳에 발걸음 멈추고,⁷⁾
구름 이는 모습 앉아 보다 평생의 소식 알았네.

東林總頌, “丙丁求火己躬明, 法眼青峯古路行. 行到水窮知盡
處, 坐看雲起見平生.”

무위자의 송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다고 하니,
오랫동안⁸⁾ 오인하여 두 겹의 허물 생겼네.
이제 선달 되서야 산에 큰 불 지르니,⁹⁾

6) 화두를 깨우쳤다는 말. 잉어가 용문(龍門)으로 뛰어올라 통과하면 용이 된다는
고사에 따르는 비유이다.

7) 산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모든 물줄기의 발원지가 되는 곳에서 물줄기가
끊어진다. 이와 같이 분별의 흐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서 현칙은 이
화두를 다시 맞이한 것이다.

8) 십년(十年). 10은 만수(滿數)로서 장구한 시간을 나타낸다.

9) 일 년의 마지막 달인 선달에 불을 놓아 산을 온통 태우는 것. 수행의 공이 쌓여
온 세상을 밝힐 만한 깨달음의 불을 태운다는 상징이다. 선문헌에서 선달 곧 납
월(臘月)은 일생의 마지막 순간인 임종을 나타내기도 하고 깨달음의 마지막 기
회를 가리키기도 한다. “납의를 입고 성취해야 할 일[本分事]은 어떤 것입니

일찍 파조타¹⁰⁾ 만나지 못하여 한스럽네.¹¹⁾

無爲子頌, “丙丁童子來求火, 十年誤認兩重過. 至今臘月猛燒山, 苦恨不逢破竈墮.”

법진수일(法眞守一)의 염

“당시에 법안은 다만 그 말 그대로 들려주었을 뿐 더 이상 일언반구도 첨가하여 현칙에게 별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는 깨달았을까? 말만 배우는 어떤 무리들은 이와 같이 제기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귀착되는 뜻도 모르면서 비웃어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요즘 공부하는 자들은 다만 그 상황에 들어맞는 소식¹²⁾을 지어내고자 전혀 관계가 없는 한 구절의 말을 해놓고서 ‘나는 알았다’라고 하기도 한다. 안타깝고, 안타깝구나! 이러다가는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점차로 소멸해버릴 것이다. 형제들

까?’ ‘선달에 불을 놓아 산을 온통 태우듯이 한다.’”(『景德傳燈錄』 권22 「香林澄遠傳」 大51 p.387a20. 問, ‘如何是衲衣下事?’ 師曰, ‘臘月火燒山.’)

- 10) 破竈墮. 생물연대와 전기는 미상. 승악혜안(崇嶽慧安 642~709)의 제자. 부역에 조성된 조왕신(竈王神: 부역의 수호신)을 주장자로 깨뜨려[破] 바닥에 떨어뜨리고[墮], ‘진흙과 기와로 합성된 물건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무생(無生)의 도리를 설했다. 그 뒤 조왕신은 업보를 벗고 천계(天界)에 태어났다고 한다. 『景德傳燈錄』 권4 「破竈墮傳」 大51 p.232c22, 『宋高僧傳』 권19 「破竈墮傳」 大50 p.828b9 등 참조.
- 11) 파조타가 조왕신을 천계로 올려 보내듯이 단번에 근원을 지시받지 못하여 뒤늦게 깨우쳤다는 취지. “시봉하던 학인들이 파조타에게 물었다. ‘저희들은 스님 근처에서 오랫동안 시봉했음에도 방편의 지시를 받지 못했는데, 조왕신은 어떤 지름길과 같은 뜻을 얻어서 천계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까?’”(『正法眼藏』 권3 卍 118 p.70a17. 侍僧等問曰, ‘某等, 久侍左右, 未蒙方便指示, 竈神, 得何徑旨, 便得生天?’)
- 12) 시절(時節). 깨달음의 결정적인 순간. 또는 깨달음의 순간에 밀려오는 소식이나 어떤 상황에 딱 들어맞는 소식을 나타낸다.

이여,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본분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진실만 말하고 허황된 도리는 말하지 마라. 모름지기 곧고 진실하게 깨달아야만 된다.”

法眞一拈, “當時法眼, 只恁麼舉, 又不曾一言半句, 別爲他說破, 因什麼得悟去? 有般底, 祇是學語之流, 聞恁麼舉, 不知落處, 往往非笑. 今時學者, 祇要作个時節, 或下一句無交涉語, 便道, ‘我會.’ 苦哉, 苦哉! 正法眼藏, 看看滅矣. 兄弟, 生死事大, 論實不論虛. 須是直實悟去, 始得.”

[설화]

말만 배우는 어떤 무리들은 ~ 보통이다 : 오늘날 학인들의 세태를 말한다.

그 상황에 들어맞는 소식을 지어내고자 : 학인들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가리킨다.

이와 같이 제기하는 말을 듣고 ~ ‘나는 알았다’라고 하기도 한다 : 법안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익히 들어왔던 학인들이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여 저 법안의 뜻을 억눌러버리는 결과가 되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法眞：只是學語云云者，今時學者也。只要作箇時節云云者，師家也。聞伊麼舉云云者，謂法眼漏逗不少，故學者習聞其說，下無交涉底語，抑他法眼，豈非苦哉！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이전에도 그렇게 말했으나 이해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똑같이 말했는데 오히려 깨달았다. 말해 보라! 이

공안의 관건¹³⁾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각상좌¹⁴⁾에게 이에 관한 계승이 한 수 있다. ‘병정동자가 불을 구하러 왔다 하니, 남해 페르시아 사람의 코는 크구나.’¹⁵⁾ 길료¹⁶⁾의 말을 알아듣는 자 없더니,¹⁷⁾ 지금 당장에 비추어 보고 알았다네.¹⁸⁾ 그렇게 알았으나 공덕도 허물도 없노라. 그대 이불 밑에 난 구멍 아는 까닭은, 같은 평상에서 자본 적 있었기 때문이네.¹⁹⁾ 이전에 걸쳤던 미혹²⁰⁾ 남김없이 벗어버리니, 잔에 비친 뱀은 활 그림자라 하며 만류하여 다시 앉혔네.’”²¹⁾

-
- 13) 관려자(關捩子). 관문의 빗장 또는 열쇠. 관건(關鍵)과 같은 말로 공안의 핵심이 되는 요소를 가리킨다. 궁구해야 할 화두를 말한다.
- 14) 覺上座. 정각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
- 15) 페르시아 사람의 코가 큰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특별한 분별에 의지할 것도 없이 드러난 모습을 보고 곧바로 알 수 있다. 제4구의 뜻과 상응한다.
- 16) 結獫. 중국 서남쪽 벽지 계곡에 살았던 소수 민족의 하나.
- 17) 외국말은 배우지 않으면 소리에 불과하고 그것이 가리키는 뜻을 알 수 없다. 일정한 뜻에 예측되어 있지 않은 화두는 바로 이러한 ‘소리’와 같다.
- 18) ‘破’는 ‘開’와 통한다. 쪼개어 열어서 그 정체가 드러났다는 뜻이므로 ‘알았다’로 번역한다.
- 19)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지금 그 참뜻을 알게 되어 비로소 이전의 확신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말.
- 20) 의(疑). 여기서는 의심이 아니라 ‘미혹’의 뜻이다. 현칙이 스스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각 또는 미혹이다. 〈설화〉의 의심덩어리[疑團]라는 표현은 바르지 않다.
- 21) 출전은 『風俗通』이다. 두선(杜宣)이 하룻날 술을 먹으러 왔는데 술잔에 뱀 같은 것을 보았으나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술을 마신 다음 가슴과 배에 통증이 심하여 여러 가지 처방으로 치료해 보았지만 낫지 않았다. 그 뒤 벽의 붉은 활(쇠뇌)이 잔 속에 비쳐 뱀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나자 병은 바로 나타났다. 『風俗通』「怪神·世間多有見怪驚怖以自傷者」참조. “잔에 비친 뱀 모양의 활 그림자라면 마구니라도 현혹되고, 휘장에 싸인 등불과 칼집에 감추어둔 칼이라면 귀신이라도 의심을 일으킨다.”(『花月痕』第45回. 杯影蛇弓魔入幻, 帷燈匣劍鬼生疑.)

天童覺，上堂，舉此話云，“前來恁麼道，却不會；後來恁麼道，却悟去。且道！關捩子，在什麼處？覺上座有頌，‘丙丁童子來求火，南海波斯鼻孔大。狻猊舌頭會者難，直下而今照是破，照得破沒功過。知你被底穿，曾與同床臥。廉纖脫盡舊時疑，杯影蛇絃留再坐。’”

[설화]

남해 페르시아 사람의 코는 크구나 : 달리 특별한 것은 없으니 청봉이 한 말과 같다는 뜻이다.

길로의 말을 알아듣는 자 없더니 : 청봉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나타낸다.

지금 당장에 비추어 보고 알았다네 : 법안의 처소에 와서 이해했다는 뜻이다.
공덕도 허물도 없노라 :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이 각각 공덕과 허물에 상응하는데, 이제 이해한 경계에는 득과 실의 차별이 없다는 뜻이다.

그대 이불 밑에 난 구멍 아는 까닭 : 몸소 깨달아야 비로소 안다.

이전에 걸쳤던 미혹 남김없이 벗어버리니 : 법안의 처소에 이르러 옛날의 의심 덩어리²²⁾가 떨어져나갔다.

잔에 비친 뱀은 활 그림자라 하며 만류하여 다시 앉혔네 : 청봉의 대답을 들었을 때는 앉아 있는 자리에서 벽에 걸린 활이 술잔에 비친 모습을 대면하고 뱀이라 착각한 것이었으며, 지금 법안의 처소에서는 다시 앉아 있는 자리에서 벽에 걸린 활이 술잔에 비친 모습이라고 바르게 알았다는 뜻이다.

天童云云，鼻孔大者，別無特地，青峯底一般也。狻猊舌頭會者

22) 현칙은 자신의 착각을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의심덩어리라는 해석은 맞지 않다. 마치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랬다면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확신하며 법안에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다. 주석20) 참조.

難者，青峯底難會也。直下而今云云者，到法眼處會得也。沒功過者，會不會是功過也，今日會得處無得失也。知你被底穿者，證者方知也。廉纖脫盡舊時疑者，到法眼處，昔時疑團撲落也。盃影蛇絃留再坐者，青峯時，對坐般中弓落盞，今日法眼處，再坐般中弓落盞也。



1314칙 洪進明知 홍진명지



1314칙 홍진명지 洪進明知

[본칙]

양주(襄州) 청계홍진(淸溪洪進)선사가 수산주(修山主)에게 물었다. “생성은 본래 생성과 소멸이 없는 법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째서 생사의 유전 속에 윤회할까?” “죽순이 언젠가는 결국 대나무가 되겠지만, 지금 어찌 대 껍질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이다음에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저의 소견은 이 정도일 뿐인데, 상좌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곳은 감원(監院)의 방이다. 어느 곳이 전좌(典座)의 방인가?” 수산주가 감사의 절을 올렸다. <『암바제녀경』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암바제녀가 문수에게 물었다. ‘생성은 본래 생성과 소멸이 없는 법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째서 생사의 유전 속에 윤회할까?’ ‘자신의 힘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¹⁾

襄州, 淸溪洪進禪師, 問修山主, “明知生是不生之法, 爲什

-
- 1) 『암바제녀경』이라는 제목과 일치하는 경전은 없지만, 『長者女菴提遮師子吼了義經』 大14 p.964a24의 다음 내용과 대체로 통한다. “그때 문수사리가 다시 암바제(菴提遮)에게 물었다. ‘생성하지만 생성하지 않는 법의 특징을 분명히 알면서도 생성에 붙들려 속박된 자들이 제법 있지 않은가?’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분명히 알더라도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 생성에 붙들려 속박된 자들이 그들입니다.’”(爾時, 文殊師利, 又問曰, ‘頗有明知生而不生相, 爲生所留者不?’ 答曰, ‘有. 雖自明見, 其力未充, 而爲生所留者, 是也.’) 경의 ‘留’(붙들려 속박됨)가 본서와 마찬가지로 ‘流’로 바뀌어 쓰이는 선문헌이 많다. 이 경을 비교적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 『祖庭事苑』 권4 卍113 p.124a5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麼，被生死之所流？”修云，“筍畢竟成竹去，如今作篋使得麼？”師云，“汝向後自悟去在。”修云，“某甲所見祇如此，上座意旨，如何？”師云，“這箇是監院房，那箇是典座房。”修乃禮謝。〈菴婆提女經云，“菴婆提女，問文殊云，‘明知生是不生之法，爲什麼，卻被生死之所流？’文殊云，‘其力未充。’”〉

[설화]

생성은 본래 ~ 윤회할까 : ‘돈오하면 비록 부처의 경지와 같다고 하지만, 윤회하던 여러 생 동안 쌓인 습기(習氣)는 뿌리가 깊다’라고 운운한 말²⁾과 같다.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며 수산주를 점검한 질문이다.

죽순이 언젠가는 ~ 어떠십니까 : 갓난아기가 비록 6식(識)을 갖추고 있더라도 세월이 제법 많이 흘러야 비로소 성인이 된다³⁾는 뜻과 같다.

‘이곳은’ 이하의 말은 생멸이 없는 그대로 생멸이라는 뜻이다.

明知生是不生云云者，頓悟雖同佛，多生習氣深云云也。惜此驗他也。筍畢竟成竹去云云者，初生孩子，雖具六識，頗經歲月，方始成人也。這箇是下，無生卽生也。

2) 『修心訣』大48 p.1007c3 등에 인용으로 나오지만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다. 생략된 부분은 “마치 바람이 멎어도 물결은 일렁이듯이 이치가 분명히 나타나도 여전히 망념은 침입한다.”(風停波尚湧，理現念猶侵)라는 두 구절이다.

3) “갓난아기에게도 6식이 있습니까?’ ‘급히 흐르는 물 위에서 공을 친다”(『趙州語錄』古尊宿語錄14 卍118 p.319b17. 問, ‘初生孩子，還具六識也無?’ 師云, ‘急流水上打毬子.’); “돈오(頓圓)는 마치 갓난아기가 하루 만에 지체가 이미 다 갖추어지는 것과 같고, 점수(漸修)는 양육하여 성인이 되고 많은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 지기(志氣)가 확립되는 것과 같다.”(『景德傳燈錄』권13 「圭峯宗密傳」大51 p.307b12. 頓圓, 如初生孩子，一日而肢體已全; 漸修, 如長養成人，多年而志氣方立.)

천복본일(薦福本逸)의 송

홍진은 분명히 오대산에 이르렀고,⁴⁾
수산주는 참으로 민(閩) 땅에 들어갔네.
유나와 원주의 방 마주보고 있어,
말 붙이면 두 눈을 뜨도록 하리라.

薦福逸頌, “進老分明到五臺, 修師真箇入閩來. 維那院主房相對, 說著令人雙眼開.”

[설화]

첫째 구절은 암바제녀가 문수를 친견한 경지를 나타내고, 둘째 구절은 수산주가 설봉을 친견한 경지를 나타낸다. 수산주만 그렇다고 말하지 마라. 홍진에게도 엄매인 몸을 벗어날 길이 있었다. 셋째 구절은 수산주의 경지이다. ‘두 눈’이란 차별과 무차별을 가리킨다.

薦福：初句，菴婆提女，親見文殊也。二句，親見雪峯也。莫道修山主，清溪亦有出身之路也。三句，修山主底也。雙眼者，差別無差別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막힘없이 트이고 의지할 것 없으며,
드높고 할 일 없어 속박도 없노라.
고향은 태평하나 찾는 사람 드무니,
아주 작은 역량으로도 계급 나누고,

4) 문수보살이 있다는 오대산에 들어가 그 가르침을 받은 경지와 같다는 말.

거침없는 몸과 마음 시비 끊어졌네.

시비가 들어설 틈이 전혀 없어,

우주에는 따라갈 법칙은 없도다.

天童覺頌, “豁落亡依, 高閑不羈. 家邦平貼到人稀, 些些力量
分階級. 蕩蕩身心絕是非, 是非絕介立, 大方無軌轍.”

열재거사의 송

무정의 설법은 법 중의 왕이니,⁵⁾

한 번 쥐었다 풀면 시방에 가득하구나.

노주과 등롱⁶⁾이 일제히 북치고 춤추니,

한산과 습득은 더욱 미치광이 되었네.⁷⁾

悅齋居士頌, “無情說法法中王, 一捏攤開滿十方. 露柱燈籠齊
鼓舞, 寒山拾得轉風狂.”

5) 사람이 아닌 돌·바람·구름 등 무정(無情)의 차별된 모습과 그들이 내는 소리와 향기 등이 모두 진리를 전하는 설법이며, 그것이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라는 뜻이다. “온몸 어디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 영상이라곤 없고, 전체가 남김없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소리와 빛같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으나, 어찌 길고 짧은 차별이 있었겠는가! 무수한 존재들이 항상 모든 곳에 나타나 있으므로 법 중에서 가장 뛰어난 법이라 한다. 우담발화(優曇鉢花)가 활짝 피었으나 냄새를 맡으려 해도 향기를 느낄 수 없다.”(『佛眼語錄』古尊宿語錄30 卍118 p.544a8. 通身無影像, 脫體露堂堂. 不話非聲色, 何曾有短長! 河沙恒遍現, 故號法中王. 優曇花正開, 嗅著不聞香.)

6) 이 두 가지는 무정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많이 쓰인다. 181則 주석29), 204則 주석15) 참조.

7) 어떤 규범에도 속박되지 않는 한산과 습득의 언행이 범상한 눈에는 미치광이처럼 보인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 세계의 살아 있는 움직임과 어울려 한산과 습득도 더욱 궤범을 벗어나 격외(格外)의 선기(禪機)를 펼칠 것이라는 뜻.



1331책 首山竹篋 수산죽비



1331칙 수산죽비 首山竹篋¹⁾

[본칙]

수산성념(首山省念)이 죽비를 집어 들고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 말해 보라!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首山, 拈起竹篋子, 問僧云, “喚作竹篋卽觸, 不喚作竹篋卽背. 且道! 喚作什麼?”

[설화]

죽비란 죽비 한 자루를 말한다. 죽비라 부르거나 그렇게 부르지 않거나 모두 옳지 않으니, 등지는 것이나 물드는 것이나 모두 벗어나야만 한다.

竹篋者, 一條竹篋子也. 喚作不喚作俱不是, 背觸俱離, 始得.

1) 물들거나[觸] 등지는[背] 두 가지를 모두 부정함으로써 설정한 화두의 관문이다. 이를 배촉관(背觸關)이라 하며, 수산의 이 말이 선구적 역할을 한다. ‘배’는 일정한 언어의 관념에서 등을 돌리고 완전히 벗어나 사실과 어긋나게 되는 잘못이며, ‘촉’은 그 말에 속박되어 물드는 잘못이다. 즉(卽)과 리(離)를 모두 차단하여 관문을 설정하는 방식과 같다. 즉은 촉, 리는 배에 각각 상응한다. 본서 5則 주석39), 108則 주석2), 165則 주석3), 181則 주석5), 399則 주석2), 429則 주석60) 참조.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등지거나 물든다는 말에 가린 것 없으니,
분명하게 곧바로 다 들어 보인 것이로다.²⁾
비록 취모검을 휘두르지는 않았으나,
곳곳에 칼과 창이 없는 곳이 없구나.³⁾

雲門杲頌, “背觸非遮護, 明明直舉揚. 吹毛雖不動, 遍地是
刀鎗.”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죽비를 들어 제기하니,
어떻게 근본에 이를까?
비마암도 이해하지 못했으니,
뒤쫓아 가 집게로 집었을 뿐.⁴⁾

竹庵珪頌, “舉起竹篋子, 如何便到家? 秘魔崑不會, 隨後便
擎叉.”

2) 배(背)·촉(觸) 자체에 화두가 모두 실현되어 있으므로 더 이상 덧붙일 뜻이 없다는 말이다.

3) 취모검과 같은 특별한 방편을 쓰지 않더라도, 배·촉의 방법을 적용하기만 한다면 모든 대상이 본분을 깨우치기 위한 무기(수단)가 된다는 뜻이다.

4) 비마암이 항상 나무집게 하나를 들고 있다가 학인들의 목을 집고서 그 반응을 살피면서 집짐한 인연을 말한다. 본서 508則「秘魔杈却」참조.

[설화]

분명하게 핵심을 드러내어 보였으니, 그 자리에서 근본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비마암이 집게로 학인들의 목덜미를 집었다는 것은 덧붙인 말이다.

竹菴：明明直舉揚，卽時便到家也。秘魔擎叉，乃是剩法也。

무용정전(無用淨全)의 송

검게 옷칠한 죽비를 잡아 제기하나,

우렁찬 천둥소리도 가린 귀에는 들리지 않노라.⁵⁾

덕산과 임제도 어찌할 도리를 모를 것이니,

어리석은 자가 무슨 방도로 말할 수 있으랴?

無用全頌，“黑漆竹筴握起，迅雷不及掩耳。德山臨際茫然，懣底如何插觜？”

[설화]

덕산과 임제도 어찌할 도리를 모른다 : 덕산의 엄정한 법령과 임제의 근본적 작용은 향상하기 위한 본분사이다. 그것이 참으로 향상이라면 무슨 이유로 어찌할 도리를 모른다는 말일까?⁶⁾

無用：德山臨濟茫然者，德山正令，臨濟大用，是向上事。既是向上，爲什麼茫然？

5) 분명한 본분의 울림도 제대로 알아듣는 밝은 귀가 없으면 전할 수 없다는 뜻.

6) 이 배촉관은 본분의 화두가 남김없이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덕산의 방(棒)과 임제의 할(喝)과 같은 향상을 위한 수단도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이다.

대혜종고의 보설 1⁷⁾

“나는 방에서 항상 선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안 되며, 생각해서도 안 되고 헤아려서도 안 되며, 옷소매를 털고 떠나서도 안 되니, 그중 어떤 것도 안 된다. 그대들이 죽비를 빼앗아 부정하려 한다면 내가 빼앗도록 허용하겠지만, 내가 주먹이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주먹이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고 할 경우, 그대들은 다시 어떻게 빼앗아 부정할 것인가? 또한 설령 그대들이 ‘화상께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려놓겠지만, 내가 노주(露柱)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노주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고 할 경우, 그대들은 다시 어떻게 빼앗아 부정하겠는가? 내가 산하대지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산하대지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되니, 그대들은 다시 어떻게 그것을 빼앗아 부정하겠는가? 주봉장로(舟峯長老)가 ‘제가 화상의 죽비 화두를 살펴보니, 마치 세금으로 한 가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놓고서 또 다시 물건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⁸⁾라고 하기에 내가 말했다. ‘장로의 비유는 지극히 묘한 뜻을 가지고 있군요. 나는 진실로 당신이 물건을 바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디서도 물건을 내놓지 못한다면 반드시 죽을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든가 불속에 뛰어들든가 하여 목숨을 버려야 비로소 죽을 것입니다. 죽고 나면 도리어 천천히 다시 살아날 것이지만, 그때 당신을 보살이라 부를 경우 기빠하고 도둑놈이라 부를 경우 화를 낸다면 여전히 죽기 전의 바로 그 사람에 불

7) 모든 대상을 배척의 논리로 수용하여 남김없이 화두로 만드는 요령을 보여주는 법문이다.

8) 모두 빼앗겨 더 이상 씹먹을 수단이 사라진 경계를 나타낸다.

과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옛사람은 ‘아득한 절벽에서 손을 뿌리쳐 놓아야 스스로 수궁하며 알아차리며, 목숨이 끊어진 다음 다시 살아난다면 누구도 그대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⁹⁾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비로소 죽비자 화두를 깨달을 것이다.”

雲門杲, 普說云, “室中常問禪和子, 喚作竹篋則觸, 不喚作竹篋即背. 不得下語, 不得無語, 不得思量, 不得卜度, 不得拂袖便行, 一切惣不得. 你便奪却竹篋, 我且許你奪却, 我喚作拳頭則觸, 不喚作拳頭即背, 你又如何奪? 更饒你道, ‘个請和尚, 放下着.’ 我且放下着, 我喚作露柱則觸, 不喚作露柱則背, 你又如何奪? 我喚作山河大地則觸, 不喚作山河大地則背, 你又如何奪? 有个舟峯長老云, ‘某看和尚竹篋子話, 如籍沒却人家財產了, 更要人納物事.’ 妙喜曰, ‘你譬喻得極妙, 我真箇要你納物事. 你無從所出, 便須討死路去也. 或投河, 或赴火, 拚得命, 方始死得. 死了却緩緩地, 再活起來. 喚你作菩薩便歡喜, 喚你作賊漢便惡發, 依前只是舊時人.’ 所以, 古人道, ‘縣崖撒手, 自肯承當, 絕後再蘇, 欺君不得.’ 到這裏, 始契得竹篋子話.”

[설화]

주봉장로가 한 말까지의 내용은 화두를 알아차렸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물에 몸을 던지든가 ~ 그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 예전 그대로 기쁨과 노여움이 남아 있다면 이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라는 뜻이다.

9) 영광원진(永光院眞)의 말, 『景德傳燈錄』 권20 大51 p.362a21 참조.

아득한 절벽에서 손을 뿌리쳐 놓아야 ~ 그대를 속이지 못할 것이다 : ‘달 속의 계수 나무를 베어 없애면, 밝은 달빛이 더욱 많이 쏟아지리라’¹⁰⁾라는 말과 같다.

雲門云云, 舟峯長老云云者, 會也, 伊麼道也. 投河赴火拌得命云云者, 是則依前有喜有怒也, 然則是不會也. 懸崖撒手云云者, 斫却月中桂云云也.

대혜종고의 보설 2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죽비라 부르지 않으면 등지게 된다.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말이 없어도 안 되며, 생각으로 헤아려도 안 되고 머뭇거리며 분별해도 안 된다. 바로 이런 순간에 당면해서는 비록 석가노자와 달마대사에게 콧구멍이 있더라도 숨을 쉴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¹¹⁾ 말해 보라! 이 한 척의 공안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잘 알겠는가? 신분이 귀한 자를 만나면 천하게 굴고 천한 자를 만나면 귀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만약 귀하다거나 천하다거나 하는 차별에 뿌리를 내리고 분별한다면 다시 쥔신을 사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수행해야 할 것이다.¹²⁾ 그러므로 ‘유심(有

10) 두보(杜甫)의 시에 나오는 구절. 본서 181則 주석18) 참조.

11) 교(敎: 석가노자)의 이론과 선(禪: 달마대사)의 도리에 각각 본분을 파악하는 본질적인 수단[鼻孔]이 있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도록 설정된 죽비 화두 앞에서는 두 가지 모두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12) 귀하다는 생각에 뿌리를 두려고 하면 천한 것을 제시하여 부정하고, 천하다는 생각에 근거하려 하면 거꾸로 귀한 것을 제시하여 부정하는 방식이다. 결국 귀와 천을 각각 활용할 뿐 그 어느 편에도 안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것이 배(背)와 촉(觸) 그 어느 편도 허용하지 않는 죽비 화두의 근본적 수단이다. 따라서 귀와 천의 대립을 하나의 인식 범주로 삼아 분별하게 되면 이 또한 잘못이므로 수행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한 것이다. 이 말은 대혜종고(大慧宗杲) 이외에도 평지정각(宏智正覺)이 공안을 해설할 때 활용했다. 다만 평지는 물건의 값이 비싸다

心)으로도 구할 수 없고 무심(無心)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언어로 꾸며낼 수도 없고 침묵으로 통할 수도 없다'라고 한다. 비록 이렇기는 하지만 하늘이 모든 것을 두루 덮어주고 땅이 만물을 받쳐주는 것과 같이, 모두 놓아주고 모조리 거두어들이며 모두 죽이고 남김없이 살려준다.¹³⁾ 내가 이렇게 한 말도 이런 본분의 소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又普說云, “喚作竹篋則觸, 不喚作竹篋則背. 不得下語, 不得無語; 不得思量, 不得擬議. 正當伊麼時, 釋迦老子, 達磨大師, 雖有鼻孔, 直是無出氣處. 且道! 遮一則公案, 有甚長處? 還委悉麼? 遇貴則賤, 遇賤則貴. 若向貴賤處著到, 更須買草鞋行脚, 始得. 所以道, ‘不可以有心求, 不可以無心得; 不可以語言做, 不可以寂默通.’ 雖然如是, 如天普蓋, 似地普擎, 全放全收, 全殺全活. 妙喜伊麼道, 也不離者箇消息.”(云云)

[貴] 또는 싸다[賤]는 뜻으로 썼다. “다음의 공안을 제기했다. 어떤 학인이 조산에게 물었다. ‘세상에서 어떤 물건이 가장 비쌉니까?’ ‘죽은 고양이 가장 비싸다.’ ‘어째서 죽은 고양이가 가장 비쌉니까?’ ‘아무도 그 값을 매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평지정각이 평가한다. ‘조산은 물건을 시장에 들여놓지도 않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1전의 가치도 없다. 조산은 싼 물건을 마주하고 비싼 값으로 불렀지만, 나의 이곳에서는 비싼 물건을 마주하고 싼 값으로 부른다. 말해보라! 나와 조산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가?’”(『宏智廣錄』 권3 大48 p.32c4. 舉. 僧問曹山, ‘世間什麼物最貴?’ 山云, ‘死貓兒最貴.’ 僧云, ‘爲什麼死貓兒最貴?’ 山云, ‘無人著價.’ 師云, ‘曹山, 物貨不入行市, 子細看來, 直是一錢不直. 曹山, 遇賤則貴; 我這裏, 遇貴則賤. 且道! 還有相違處麼?’)

- 13) 부정할 때는 철저하게 모두 부정하고 긍정할 때는 모든 것을 허용하지만, 양자에 똑같이 화두가 실현되어 있다는 뜻이다. 마치 하늘과 땅이 일체의 존재를 덮거나 받쳐주면서 생성과 소멸 등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관장하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측의 관문이 어떤 수단도 가능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지만, 동시에 긍정과 부정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뜻을 제기하고 있다.

[설화]

죽비라 부르면 그 말에 물들고 ~ 숨을 쉴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 조사의 뜻과 경전의 뜻도 붙어 있을 곳이 없다는 뜻이다.

귀한 자를 만나면 천하게 굴고 천한 자를 만나면 귀하게 행동한다 : 천한 듯하지만 귀하고 귀한 듯하지만 천하다는 뜻이다.

하늘이 모든 것을 두루 덮어주고 ~ 모두 죽이고 남김없이 살려준다 : 거두거나 놓아주고 죽이거나 살리는 등 긍정과 부정이 함께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렇게 한 말도 이런 본분의 소식을 벗어나지 않는다 : 비록 죽이거나 살리는 도리가 있지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려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앞부분에서는 한 수를 높이 제기하였지만¹⁴⁾ 이 본분의 소식을 벗어나지 않고, 뒷부분에서는 넓게 한 발 내디딘 것이지만¹⁵⁾ 이 또한 본분의 소식을 벗어난 것이 아니다.

又普說云云，釋迦達摩云云，無出氣處者，祖意教意湊泊不得也。遇貴則賤云云者，似賤而貴也。如天普蓋云云者，亦有收放殺活也。妙喜伊麼道云云者，雖有殺活，分辨不得也。前則高一著也，不離這箇消息；此則廣一步也，不離這箇消息也。

14) 불가(不可)와 부득(不得)이라는 말로 이 화두에 대한 접근의 통로를 모조리 부정하여 높고 아득하게[高遠] 만든 것.

15) 전살전활(全殺全活) 등으로 긍정과 부정을 모두 허용한 말.



1355책 雪竇諸人 설두제인



1355칙 설 두제인 雪竇諸人¹⁾

[본칙]

설두가 대중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진실로 근본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가? 다만 위로는 우러러볼 대상도 없고 아래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전혀 없도록 한다면, 자연히 변함없는 빛이 눈앞에 나타나 누구나 천 길 높이로 우뚝 솟은 절벽²⁾과 같이 될 것이다.”

雪竇, 示衆云, “諸人, 要知眞實相爲麼? 但以上無攀仰, 下絕已³⁾躬, 自然常光現前, 个个壁立千仞.”

[설화]

여러분은 ~ 알고자 하는가 : 아래서 말한 진실로 근본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리킨다.

위로는 우러러볼 대상도 ~ 전혀 없도록 한다면 : 위로는 우러러볼 어떤 성인도

-
- 1) 위나 아래, 좌나 우나 어디에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공지에 처하도록 설정된 상황이 남들을 가르치는 근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제시한 공안이다. 바로 이 공지에서 지혜의 빛이 나타난다고 한다. 이 또한 은산철벽(銀山鐵壁)으로 유도하는 간화선(看話禪)의 전략에 기초해 있다.
 - 2) 본서 1則 주석21) 참조.
 - 3) ‘已’는 ‘己’의 오식.

없고, 아래로는 중시할 만한 자신의 혼령도 없다는 뜻이다.

자연히 ~ 나타나 : 한 줄기 신령한 광명은 어두운 적이 없었다.

누구나 ~ 절벽과 같이 될 것이다 : 사람마다 온전히 갖추고 있고 누구나 원만히 이루고 있는 모습은 법이 본래 그렇기 때문이며 지금에서야 이와 같이 된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설두는 마치 부러진 젓가락 하나로 바닷물을 휘저어 물고기를 일깨우는 것과 같았으니,⁴⁾ 이것이 진실로 근본을 가르친다는 뜻이다.

諸人要知云云者，下所言是眞實相爲也。上無攀仰云云者，上無諸聖可仰，下無己靈可重也。自然云云者，一段⁵⁾靈光，未曾昏昧也。个个云云者，人人具足，个个圓成，法爾如然，非今如是也。然則雪竇如將一隻折筯，攪大海水云云，此爲眞實相爲也。

4) 안국혜구(安國惠球)가 사용한 비유로 그 전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치 부러진 젓가락 하나로 저 바다를 휘저어 물고기와 용들로 하여금 물이 그들의 생명을 알도록 하는 것과 같다. 알겠는가? 만일 지혜로운 눈이 없다면 살피고 또 자세히 조사하며 갖가지 교묘한 수단을 마음껏 부리더라도 궁극적인 경계가 되지는 못한다.”(『聯燈會要』 권26 「安國惠球章」 卍136 p.862a14. 如將一隻折筯，攪彼大海，令彼魚龍，知水爲命。會麼？若無智眼，審而諦之，任汝百般巧妙，不爲究竟。) 이 〈설화〉에서는 본분의 생명이 지니는 근본을 일깨워 주는 화두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이다.

5) ‘段’는 ‘段’의 오식.

운봉문열(雲峯文悅)의 엽

“설두가 이렇게 남들을 가르친 것과 같이 한다면 쏜살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雲峯悅拈, “雪竇與麼爲人, 入地獄如箭射.”

심문담분(心聞曇賁)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설두가 이렇게 한 말은 어린아이가 글자판에 글씨를 따라 쓰도록 하는 방법⁶⁾으로는 괜찮다. 그러나 만일 장전⁷⁾이 나타나서 상투를 잡고 먹물을 적서 별(ノ)자와 불(ㄴ)자를 쓴다면 아무리 찾아도 그 정신에 숨은 의도를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라면 또한 어떻게 할까? ‘연지분 가져다 얼굴에 질게 바르고, 진주를 있는 대로 한껏 머리장식 하였더니, 아름다운 여인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방에서 부르는 노래⁸⁾나 부르라 하네.’”

心聞賁, 上堂, 舉此話云, “雪竇與麼道, 教小兒順朱, 卽得. 忽遇張顛出來, 把頭髻蘸墨, 打个ノ人, 定是討精魂不見. 萬年又

6) 순주(順朱). 글자를 연습하는 종이에 따라 쓰는 것.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가 붉은색으로 새겨진 글자판의 글자를 그대로 모방하여 연습하는 것을 말한다. 사순주(寫順朱)·묘홍(描紅)·묘주(描朱) 등이라고도 한다.

7) 張顛, 당(唐)나라의 초서가(草書家) 장욱(張旭)을 말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풀어 먹물에 적셔서 글을 쓰는 등 미치광이와 같은 여러 행태를 벌이곤 하여 ‘전(顛)’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모범적 범도가 아니라 모든 격식을 벗어나 발휘하는 파격(破格)의 선기(禪機)를 표현하기 위하여 끌어들었다.

8) 소양주(小梁州). 당나라 때 기방에서 부르던 곡명(曲名).

且如何? 濃將紅粉傳了面, 滿把眞珠蓋却頭. 不識佳人眞面目,
空教人唱小梁州.”

[설화]

어린이가 글자판에 글씨를 따라 쓰도록 하는 방법 : 어린이가 글씨를 배우는
법이니, (설두의 말이) 아직 따라하는 본보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다.

장전이 나타나서 ~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 위에는 모든 부처님이 계시고,
아래에는 중생들이 있거늘 무슨 변함없는 빛을 찾느냐는 뜻이다.

연지분 가져다 ~ 노래나 부르라 하네 : 반드시 뒤에 숨어 조정하는 사람이 있
음을 알아야 하니, 임제가 말하는 제3구⁹⁾로 남들을 가르친다는 뜻이다.

초묵(蘸墨)이란 먹물을 적신다는 뜻이며, 소양주란 곡조 이름이다.

心聞：小兒順朱者，小兒學書法，未離規模也。張顥云云者，
上有諸佛，下有衆生，討甚常光。濃將紅粉云云者，須知有裏
頭人，臨濟所謂第三句爲人也。蘸墨者，和墨也。小梁州者，曲
名也。

9) 제3구란 다른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조정당하는 구절로서 자신의 진실이 없는
말을 가리킨다. “제3구란 어떤 것입니까?” ‘무대에서 희롱당하는 꼭두각시를 보
라. 당기고 끄는 모든 동작은 그 뒤에 조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臨濟語
錄』大47 p.497a18. 問, ‘如何是第三句?’ 師云, ‘看取棚頭弄傀儡. 抽牽都來裏有人.’)



1365책 道常三訣 도상삼결



1365칙 도상삼결 道常三訣

[본칙]

홍주의 백장도상(百丈道常)선사는 어떤 때는 법좌에 올라앉아 대중이 모이자마자 “차 마셔라!”고 한 뒤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고, 어떤 때는 법좌에 올라앉아 대중이 모이자마자 “안녕히!”¹⁾라 하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으며, 어떤 때는 법좌에 올라앉아 대중이 모이자마자 “쉬어라!” 하고 곧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나중에 스스로 계송 한 수를 지어 세 차례에 걸쳐 보여준 이 인연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백장에게 세 가지 비결이 있으니, 차 마셔라, 안녕히, 그리고 쉬어라! 지금 당장 그 뜻 알아차리더라도, 그대 아직 깨치지 못했다 하리라.”

洪州，百丈道常禪師，有時上堂，衆纔集云，“喫茶！”便下座；有時上堂，衆纔集云，“珍重！”便下座；有時上堂，衆纔集云，“歇！”便下座。後來自作一頌，頌此三轉因緣云，“百丈有三訣，喫茶珍重歇！直下便承當，敢保君未徹。”

1) 진중(珍重).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은 ‘불심(不審)’이다. 본서 677則 주석4) 참조.

[설화]

‘차 마셔라’, ‘안녕히’, ‘쉬어라’ : 어떤 맛도 없는 말²⁾이라는 점에서 모두 같다. 또한 세 가지가 각각 가지는 차이점³⁾도 있다. 차를 마시는 것은 남승의 일상적인 일 중 하나이며, ‘안녕히’라는 말은 만날 때 인사인 불심(不審)과 헤어질 때 인사인 진중을 가리키니 곧 손님과 주인 사이에 나누는 인사⁴⁾를 말한다. ‘쉬어라’는 말은 여기서 오랫동안 서 있었으니 이제 그만 쉬라는 뜻이다.⁵⁾ 무엇으로 좌·우·중간의 구절을 정할 것인가? ‘차 마시라’는 것은 중간 구절이며, ‘안녕히’라는 말은 작용의 구절이고, ‘쉬어라’는 말은 본체의 구절이다.

2) 무자미언구(無滋味言句). 이 세 마디의 말에는 사실로써 가리키는 어떤 지시 사항이나 관념상의 뜻도 없다. 이 말에서 어떤 의미나 지시를 발견한다면 벌써 그 말에 속은 것에 불과하다.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에서 모든 맛을 빼앗아 어떤 총명한 분별이나 기발한 착상으로든 소화할 수 없는 화두로 재구성했다. “나의 문하에서는 말할 선(禪)도 없고 전할 도(道)도 없다. 비록 5백 명의 남자가 모였더라도 오로지 금강으로 두른 울타리와 밤송이·가시나무·생쑥 바로 그것들을 쓸 뿐이다. 뛰어서 (금강의 울타리를) 벗어나려는 자는 있는 힘껏 뛰고, (밤송이 등을) 삼키려는 자는 마음먹고 삼키겠지만, 아무 맛도 없고 대단히 험준하다는 점을 이상타 여기지 마라! 만일 불현듯 체득하게 되면 대낮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리라.”(『圓悟語錄』 권15 「示成修造」 大47 p.782c25. 蔣山門下, 無禪可說, 無道可傳. 雖聚半千衲子, 唯以箇金剛圈栗棘蓬. 跳者, 著力跳; 吞者, 用意吞, 莫怪無滋味太嶮峻! 或若藕地體得, 如畫錦還鄉.)

3) 세 마디 말의 일반적 맥락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이 맥락이 일종의 함정이 된다. 일반적 의미 그대로라면 백장이 말한 ‘비결’이 아니다.

4) 한暄(寒暄). 춥거나 더운 날씨를 소재로 인사하는 것.

5) 구립진중(久立珍重). 상당(上堂) 법문을 마치고 설법한 당사자가 대중에게 건네는 인사말이다. 구립 또는 진중이라고만 하기도 한다. 대중은 서서 설법을 들므로 설법이 끝날 때 법문을 한 종사가 오랫동안 서서 들어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구립’이며, 대중이 앉아서 설법을 들었다면 오랫동안 앉아서 듣느라 애썼다는 뜻에서 좌구성로(坐久成勞)라 인사한다.

백장에게 세 가지 비결이 있으니 ~ 깨치지 못했다 하리라 : 드러난 말에 얽매어 이해하려 하면 백장의 뜻을 알 수 없다.

喫茶珍重歌者，一般無滋味地言句也。又有三般。喫茶者，衲僧家日用事也。珍重者，不審珍重也，則賓主寒暄也。歌者，久立此間，休去歇去也。以何定左右中間？喫茶則中間句，珍重則用句，歇則體句也。百丈有三訣云云者，隨言生解，則不會百丈意也。

천복승고(遷福承古)의 거

“도상화상은 빈번하게 이 시절인연을 써먹었지만, 대중들은 헤아릴 도리가 없어 망막해하였기에 나중에 다시금 스스로 계송 한 수를 지어 읊었던 것이다. 대중들이여! 그렇다면 도상화상이 지은 이 계송 한 수에 대하여 말해 보라. 그 견해가 어떠한가? 장점과 단점을 알겠는가? 알고 싶은가? 그가 세 차례의 상당법문에서 전했던 시절인연에 근거해 보면 그는 단정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나중에 이 계송 한 수를 지은 것은 마치 얼굴에 두 줄의 글자를 새긴 것과 흡사했다. 진리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들어 보이는 순간 곧바로 알 것이지만, 늦게 공부했거나 초심자들은 그 뜻을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다. 내가 그대들에게 처음부터 주석을 내려주겠다.⁶⁾ ‘백장에게 세 가지 비결이 있으니 「도적의 몸이 벌써 드러났다.」⁷⁾ 차 마셔라, 안녕히, 그리고 쉬어라. 「흠친 물건을 꺼내었다.」⁸⁾ 지금

6) 이하는 계송 네 구절에 대한 착어(著語) 형식의 해설이다.

당장 그 뜻 알아차리더라도, 그대 아직 깨치지 못했다 하리라. 「흠친 물건을 품에 안고 재판에 나선 것과 같다.」⁷⁾ 비록 이렇게 풀기는 했지만 여러분이 법을 간택하는 안목을 갖추어야 비로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불성을 흐리멍덩하게 만들었다고 할 만하니, 다시 현명한 자에게 애타게 물어야 하리라. 애처롭다, 부질없는 일생이여!”

薦福古, 舉此話云, “常和尚, 往往多用此時節因緣, 衆人罔測津涯, 後來又自作一頌云云. 大衆! 只如常和尚, 作此一頌, 且道. 見處如何? 還知得失否? 要會麼? 據他三度上堂時節, 恰似箇好人. 後來作此一頌, 恰如面上雕兩行字. 若是通人達士, 舉起便知; 後學初機, 難爲揀辨. 老僧與汝, 從頭註出. 百丈有三訣, 賊身已露. 喫茶珍重歌, 贓物出來. 直下便當敢, 敢保君未徹, 大似抱贓判事. 然雖如此, 諸仁者, 若具擇法眼, 方能證明. 如或邪正不分, 可謂顛預佛性, 更須博問賢良. 可惜, 虛生浪死!”

[설화]

세 차례의 상당법문을 들었을 때는 헤아릴 도리가 없어 망막하기만 했다. 백장이 세 가지 비결이라 한 말에 그의 입장이 이미 다 드러났다. 그러

-
- 7) ‘비결’이라는 말에 도상의 의중이 다 드러났다. 세 종류의 말에 담긴 일상적인 맛을 모두 박탈한 화두라는 ‘비결’이 있다는 뜻이다.
 - 8) 모든 사람이 보통 쓰는 말을 흠쳐서 자기 것으로 새롭게 조작했으므로 ‘흠친 물건’이 된다.
 - 9) 도독질한 증거를 눈앞에 다 드러내어 놓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하는 꼴이라 이미 늦었다는 말. 일반적으로 ‘흠친 물건을 품에 안고 억울하다고 외친다(抱贓叫屈)’는 말이 더 많이 쓰이는 착어이다.

나 비록 백장의 이 뜻을 알았더라도 증득하기는 어렵다.

薦福：三度上堂時，罔測津涯也。百丈三訣，則立處已露。雖然
知百丈意者，難得也。



1368칙 北禪歲盡 북선세진



1368칙 북선세진 北禪歲盡

[본칙]

담주(潭州)의 북선지현(北禪智賢)¹⁾ 화상이 제야²⁾에 대중에게 말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러분에게 분세³⁾의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 없어 노승은 한 마리 노지백우⁴⁾를 삶고 기장밥을 짓고 야채국을 끓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화룻가를 둘러싸고 땔나무 불을 쪼이며 농부가를 부르리라. 어찌서 이와 같이 하는가? 남의 문에 의지하거나 남의 담장에 기대는 잘못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⁵⁾ 나아가 남들로부터 주인이라 불리기 위해서이다.” 법좌에서 내려와 방장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어떤 학인이 방장의

1) 생물연대 미상. 송나라 때 선사. 형주(衡州) 북선사(北禪寺)에 주석하였다. 운문종(雲門宗) 담주(潭州) 북엄양아(福嚴良雅)의 제자이다.

2) 除夜. 한 해의 마지막 날 맞이하는 밤.

3) 分歲. 설날그믐에 한 해의 마지막 날을 기념하여 치르는 향연의 일종.

4) 露地白牛. 각자의 본래면목을 상징한다. 원래 『法華經』 「譬喻品」 大9 p.12c13에서 일승(一乘)의 묘법(妙法)을 백우에 비유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노지는 사방이 막히지 않고 훤히 드러난 안온한 곳을 이르는 말로서 장애가 사라진 불지(佛地)를 비유한다.

5) 타인의 견해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말이다. 남의 집 문에 의지한다는 방인문호(傍人門戶)와 통한다. 이는 남들이 세워 놓은 문을 통하여 출입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체득 없이 남들의 견해를 맹종하여 엇매이는 잘못을 가리킨다.

발을 걷어 올리고 “화상이시여! 현의 관리가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소리쳤다. “무슨 일로 왔다더냐?” “화상으로부터 소의 가죽과 뿔을 받아가겠습니다.” 이에 복선이 모자를 집어서 바닥에 던져 놓자 그 학인이 가까이 다가와 바로 주웠다. 복선이 그를 짝 붙들고 말했다. “도둑을 잡았다! 도둑을 잡았어!” 학인이 모자를 복선의 머리에 씌우며 “날씨가 추우니 화상의 모자를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하자 복선이 껄껄대고 크게 웃었다. <당시에 법창의우(法昌倚遇)화상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복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요즘 성 안에 종이가 부족하니, 한 통의 판결문에 모두 처리하십시오”라고 대답했다.>⁶⁾

潭州，北禪智賢和尚，除夜，示衆云，“年窮歲盡，無可諸人分歲，老僧烹一頭露地白牛，炊黍米飯，煮野菜羹，大家與諸人，圍爐向榑桮火，唱村田樂。何謂如此？免見倚他門戶，傍他牆，更被他人喚作郎。”下座，歸方丈。次有一僧，揭簾叫，“和尚！縣中有公人到此。”師云，“作什麼？”僧云，“勾和尚納皮角。”師拈頭帽，擲放地下。其僧近前便拾。師搗住云，“捉賊！捉賊！”僧以頭帽裹放師頭上云，“天寒，還和尚頭帽。”師呵呵大笑。〈時，法昌遇和尚在彼，師問，“如何？”遇曰，“近日城中紙貴，一狀領過。”〉

- 6) 이 공안을 소재로 한 법창의우의 다음과 같은 문답도 있다. “제야에 탕을 먹다가 감수좌가 물었다. ‘옛날 복선이 분세를 베풀 때는 노지백우를 삶았는데, 스님은 오늘밤 분세에 무엇을 베풀어 주시렵니까?’ ‘선달에 내린 눈이 하늘까지 하얗게 물들이고, 봄바람은 방문을 뚫고 차갑게 들어오는구나.’ ‘대중은 무엇을 먹습니까?’ ‘차고 답답하여 아무 맛이 없는 것을 싫다 하지 마라! 한 번 배를 채우면 만점의 굶주림도 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지는 어떤 사람이 갖추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이로구나! 그 까닭도 모르느냐?’”(『法昌倚遇語錄』 卍126 p.480b6. 歲夜喫湯次，感首座云，‘昔日，北禪分歲，曾烹露地白牛，和尚今夜分歲，有何施設?’ 師云，‘臘雪連天白，春風逼戶寒。’ 感云，‘大衆喫箇什麼?’ 師云，‘莫嫌冷淡無滋味！一飽能消萬劫飢。’ 感云，‘未審是什麼人置辦?’ 師云，‘無慚愧漢！來處也不知?’)

[설화]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 노지백우를 삶고 : 마음에 있는 한 마리 소를 말한다.

기장밥을 짓고 ~ 농부가를 부르리라 : 억지로 하지 않고 할 일도 모두 마친[無爲無事] 촌노인의 종풍(宗風)이다.

남의 문에 의지하거나 ~ 주인이라 불리기 위해서이다 : 끝내 밖으로 치달리며 구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어떤 학인이 방장의 발을 걸어 올리고 ~ 화상으로부터 소의 가죽과 뿔을 받아가겠답니다 : 노지백우는 가죽과 뿔이 없는 듯이 보이므로 그렇게 헤아려 따진 것이다.

북선이 모자를 집어서 ~ 가까이 다가와 바로 주웠다 :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니, 그 학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핀 것이다.

그 이하의 구절들은 각각 사실에 근거한 뜻은 아니다.

썰썰대고 크게 웃었다 : 문답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年窮歲盡至白牛者，一頭心牛也。炊黎米至村田樂者，無爲無事野老宗風也。免見倚他門戶云云者，終不向外馳求也。有一僧揭簾叫和尚云云，又勾和尚納皮角者，露地白牛，似乎無皮角，故推徵也。拈頭帽云云者，不道無也，則看他支對也。下節節各各，本非實意也。呵呵大笑者，決折也。

심문답분(心聞曇分)의 송

상도 있고 별도 있지만,
어느 편에도 치우침 없네.
정성껏 노지백우를 삶아,
저무는 한 해⁷⁾ 보내노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다시 침을 흘리니,
천고 세월 동안 복선을 원망하게 하누나.
기미 이전 경계로 발걸음 옮겨 살활을 따지다가,
하늘까지 치솟은 콧구멍⁸⁾ 한순간에 뚫려버렸네.

心聞賞頌, “有賞有罰, 無黨無偏. 殷勤烹露地, 相與送殘年.
喫不飽再垂涎, 千古令人怨北禪. 轉步機前論殺活, 遼天鼻孔
一時穿.”

[설화]

‘상도 있고 별도 있다’는 말은 그 학인의 의중이고, ‘어느 편에도 치우침
이 없다’는 말은 복선의 의중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 원망하게 하누나 : 모든 사람이 복선의 의중을 몰랐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복선의 의중은 무엇일까?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기미 이전 경계로 발걸음 옮겨 ~ 뚫려버렸네 : 다시 살활을 따져도 옳지 않다는 뜻이다.

7) 잔년(殘年), 세모(歲暮)와 같은 말.

8) 요천비공(遼天鼻孔), 자존심이 높고 오만한 태도를 말한다.

心聞：有賞有罰者，這僧意也。無黨無偏者，此師意也。喫不飽云云者，諸人不會北禪意也。北禪意如何？無黨無偏也。轉步云云者，又論殺活，亦不是也。

죽암사규(竹菴士珪)의 거

“대중들이여, 그대들은 저 밝은 눈을 가진 종사들이 상황에 따라 핵심만 간략하게 드러내는 뛰어난 솜씨를 보라. 그대들과 얼마나 다른가! 요즘 사람들은 단지 문자에 의한 분별과 말에 근거한 이해를 과시하고 자랑하며, 허튼 말을 마구 늘어놓으며, 타인과 자신의 견해를 갈라서 승부를 다투며, 본분에 딱 들어맞는 듯한 말들을 가지고 큰스님에게 인가를 받아 박복한 업을 짓기에 관심을 둘 뿐이니, 어디서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산승의 이곳에서는 노지백우를 삶아 그대들에게 먹여 주지도 않을 것이며, 기장밥을 짓거나 야채국을 끓여서 그대들에게 공양할 시간도 없고, 그대들에게 화룻가에서 타는 땔나무불도 베풀지 않겠다. 다만 그대들과 짝하여 한가롭게 앉아 그대들이 남의 문에 의지하여 기대고 사는 그대로 두고서 임종하는 날⁹⁾ 눈빛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바로 그 순간의 선(禪)에 대해 말해 주겠다. 요는 그대들 각자가 삶을 걱정하고 죽음을 염려하여 출가한 본분사를 바르게 가려낸다면, 임종하는 순간에 아직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손발을 머뭇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주장자를 한 번 들었다 내리치며 말하였다. “알겠는가? 천당과 지옥의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수없이 철퇴를 휘둘러 쳐도 열리지 않는구나.”¹⁰⁾

9) 납월삼십일(臘月三十日).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0일이다. 한 해를 일생과 대응시켜 이것으로써 생의 마지막 날인 임종하는 순간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10) 설두중현(雪竇重顯)의 계송에도 같은 구절이 보인다. “구절 속에 선기를 드러내

竹庵珪, 舉此話云, “大衆, 你看佗明眼宗師, 隨分露些子. 自是不同你! 今時人, 只管逞知逞解, 逞驢唇馬嘴, 爭人負我, 以合頭相似語句, 印可老宿, 作薄福業, 那裏到得恁麼田地! 山僧這裏, 也不烹露地白牛與你喫, 也無工夫, 炊黍米飯, 煮野菜羹, 供養你, 也不共你, 向爐邊燒榾柮火. 伴你閑坐, 從教你諸人, 倚他人門, 傍他人戶, 却與你說些子臘月三十日, 眼光落地底禪. 且要, 諸人各自憂生念死, 辦出家事, 免見臘月三十日, 未有去處, 手脚忙亂.” 以拄杖, 卓一下云, “還會麼? 天堂地獄門相對, 無限輪槌擊不開.”

[설화]

삶을 걱정하고 죽음을 염려해도 현재의 상황[今時]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竹菴：優生念死，不礙今時也.

개암봉의 거

“북선은 법이 생기면서 간교한 계략도 아울러 일으킨 것과 같았고,¹¹⁾ 그

어 정면으로 드러내니, 삭가라안[金剛眼]에는 한 점 티끌도 없구나. 동서남북의 문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수없이 철퇴를 휘둘러 쳐도 열리지 않네.”(『頌古聯珠通集』 권20 卍115 p.245a10. 句裏呈機劈面來, 爍迦羅眼絕纖埃. 東西南北門相對, 無限輪槌擊不開.)

- 11) 법출간생(法出姦生), 전한(前漢)의 동중서(董仲舒)가 한 말. 법률은 악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악한 일을 하거나 법망을 빠져나가는 간교한 사태가 나온다는 뜻이다. 북선이 본분을 터득한 다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 쓴 방편을 빚댄 말이다. 아래의 ‘많은 말을 야기시켰다’라는 구절에

학인은 감옥에 갇혀서 분별을 키우는 것과 같았다.¹²⁾ 점검해 보면 양편에 모두 잘못이 있다. 복선은 노지백우를 삶았다고 하여 많은 말을 야기한 잘못을 벗어나지 못했다. 만약 나였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지백우를 삶지도 않고 다만 쇠로 만든 만두¹³⁾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분세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것이다. 만약 씹어서 부순다면 온갖 맛을 모두 갖추어 입에는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¹⁴⁾ 그러나 만일 씹어서 부수지 못한다면 치아를 조심해야 할 것이다.” 마침내 주먹을 세우고 말했다. “여러분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제대로 말해 볼 사람 있는가? 한번 나와서 말해 보라. 있는가? 있는가? 그럴 사람이 없는 이상 내가 스스로 팔고 스스로 사지 않을 수 없구나. 궁극적으로 무슨 뜻일까? 한평생 마음껏 씹먹어도 다하지 않는 것이다.¹⁵⁾ 알겠는가? 모르겠다면 다시 계송 한 수를

상응한다.

- 12) 정수장지(停囚長智). 죄인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오히려 그 속에서 죄의 근원이 되는 잘못된 지혜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는 말. 학인이 복선의 기틀에 갇혀서 분별하고 있다는 뜻이다.
- 13) 철산함(鐵酸賺). 아무 맛도 없고 씹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몰자미(沒滋味)의 화두 또는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오조법연(五祖法演) 노스님은 평생 높이 치솟은 산과 같이 본분을 고수하며 허용하는 방편이 거의 없었다. 무미건조하게 절벽처럼 지키고 서서 오로지 이 한 수(本分)에만 의지했던 것이다. 항상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수미산에 한자리 틀고 앉아 있는 것처럼 공부하라. 어찌 남의 헛된 말만 흠쳐 가지고 교묘한 말솜씨를 늘어놓으며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라고 하며, 아무 맛도 없는 쇠로 만든 만두를 손에 들고 쪼개어 학인들에게 보여주고는 씹어 먹게 했다.”(『圓悟克勤禪師語』續古尊宿語要3 冊118 p.988a12, 五祖老師, 平生孤峻, 少許可. 乾曝曝地, 壁立只靠此一著. 常自云, ‘如倚一座須彌山, 豈可掠虛, 弄滑頭謾人!’ 把箇沒滋味鐵酸餡, 劈頭拈似學者, 令咬嚼.)
- 14) 아무 맛도 없는 화두를 타파하면 비로소 갖가지 차별 현상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지게 된다는 비유.
- 15) 구지(俱胝)는 평생토록 무엇에 대해 묻든지 오로지 손가락 하나만 들어보였다.

들어 보라. ‘뽕 달고 털옷 입은 채로 불쑥 나타나니, 쟁기와 갈퀴 끝 때는 마음 그치지 않네. 가죽 뚫고 뼈 드러나야 쉬게 될 것이니, 종승¹⁶⁾ 가지고 수수께끼 만들지 않으리.’”

介庵朋, 舉此話云, “北禪, 法出姦生; 這僧, 停囚長智. 檢點將來, 二俱有過. 北禪, 烹露地白牛, 未免惹辭. 若是能仁, 又且不然. 也不烹露地白牛, 只將箇鐵酸齏, 與諸人分歲. 若也咬嚼得破, 百味具足, 滿口馨香. 其或咬嚼不破, 也須照顧牙齒.” 遂豎起拳云, “諸人喚這箇作什麼? 還有人道得麼? 試出來道看. 有麼有麼? 既無, 能仁不免自賣自買去也. 畢竟如何? 一生受用不盡底. 會麼? 若也不會, 更聽一頌. ‘戴角披毛撞出來, 牽犁拽把未心灰. 皮穿骨露方休歇, 不把宗乘作謎猜.’”

[설화]

다만 쇠로 만든 만두 하나를 가지고 : 이하에서 주먹을 세운 행위가 바로 쇠로 만든 만두에 상응한다.

뽕 달고 털옷 입은 채로 불쑥 나타나니 ~ 쉬게 될 것이니 : 사람과 다른 존재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¹⁷⁾이 아니다. 복선이 노지백우를 삶은 것은 죽이는 수단

이를 일지두선(一指頭禪)이라 하는데, 스승인 천룡(天龍)으로부터 터득한 것이다. 구지는 임종할 당시에 이러한 자신의 선에 대하여 ‘일생동안 마음껏 씹먹었지만 다하지 않았대’라고 자평했다. 개암이 주먹을 들어 보이고 던진 이 말은 구지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圓悟語錄』 권14 大47 p.780b22, 『大慧語錄』 권5 大47 p.832c2 등 참조.

16) 宗乘, 근본적인 가르침. 종지(宗旨)와 같은 뜻.

17) 이류중행(異類中行), 비록 번뇌가 모두 사라져 윤회를 벗어났어도 반드시 모든 중생들의 삶 속에서 깨달은 경지를 펼치며 살아가는 보살행(菩薩行)을 가리킨다. ‘이류’란 아직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의 무리를 가리킨다. 남전보원(南泉普願)의 이류중행을 시작으로 조동종(曹洞宗)에서 체계화한 선종의

이며, 이것은 다시 살리는 수단이다. 바로 그 주먹이 노지백우이며 또한 쇠로 만든 만두인 것이다. 온갖 맛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는 말은 가죽과 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중승이란 복선의 근본적 가르침을 말한다.

个菴：只將箇鐵酸賺云云者，下豎起拳頭，是鐵酸頭也。戴角披毛云云者，非異類中行。北禪烹則殺却，此則還活。只這拳頭，是路地白牛也，亦鐵酸賺。百味具足，則皮角本自具足也。所謂宗乘，北禪底也。

사상이다. “두 번째, 보살은 이류와 함께한다는 뜻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생사윤회하는 이류의 세계로 들어가 저들을 거두는 것이다. 이미 열반의 불과(佛果)를 증득하고서도 생사윤회하는 무리들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이롭게 한 뒤에 남들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모든 중생이 빠짐없이 성불하도록 하고 자신은 마지막에 성불하리라’고 발원한 까닭에 대권(大權)보살은 먼저 중생을 교화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일도 완성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남전은 ‘먼저 저편으로 건너가 본분사를 깨닫고, 다시 이편으로 돌아와 그 깨달음을 활용한다’라고 하거나 ‘보살이 육도만행을 갖추었다’라고 한 것이다. 교학에서는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되지 않은 자가 있다면 나는 결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서원이 끝이 없으니 중생도 끝이 없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서원하므로 ‘보살은 이류와 함께한다’고 한다.”(『重編曹洞五位』 권하 「四種異類」 卍111 p.263b18. 二者，菩薩同異類者。先明自己，然後却入生死異類中攝他。已證涅槃之果，不捨生死類，自利利他。願一切衆生皆成佛，從末後成佛，所以大權菩薩，若不先化衆生，已事無由得成辦。故南泉云，‘先過那邊知有，却來遮邊行李。’菩薩具六度萬行。教云，‘若有一衆生未度者，吾終不成正覺。誓願無邊，衆生無邊。’如是誓願，故名菩薩同異類。); “낚고 더러운 옷이 아니라면 값진 옷을 알아 볼 방법이 없고, 살쥬가 같이 하천한 존재가 아니라면 경이로운 존재를 알아 볼 방법이 없다. 부처님과 조사가 사람과 다른 존재들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중생계로 들어간다는 말이다. 번뇌의 진흙 밭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최상의 깨달음(아누다라삼막삼보리)을 성취하리라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曹洞五位顯訣』 「寶鏡三昧玄義」 卍111 p.260a11. 非弊垢衣，無以見珍御；非狸奴，無以見驚異。佛祖向異類中行，所謂入衆生界，煩惱泥中，乃能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본서 321則 주석29) 참조.



1378칙 慧覺浙中 혜각절중



1378칙 혜각절중 慧覺浙中

[본칙]

저주 낭야산의 혜각광조(慧覺廣照)화상이 법화전거(法華全舉)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습니까?” “절중(浙中)에서 왔습니다.” “배를 타고 왔습니까? 육지로 왔습니까?”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는 발걸음 아래 있습니다.” “배나 육지 그 어느 길과도 상관없는 한 구절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에 전거가 “제멋대로 지껄이는 엉터리[杜撰] 장로가 삼썩나 줍쌀처럼 많군요”라 말한 뒤 소매를 털고 곧바로 떠났다. 혜각이 시자에게 “그 스님은 누구냐?”라고 묻자 시자가 “거도자¹⁾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낭야가 바로 뒤편다가 과당²⁾에서 보고는 “전거 사숙³⁾이 아니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불경스러웠던 점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전거가 할(喝)을 하고 다시 물었다. “장로는 언제 분양문하⁴⁾에 갔습니까?” “이러한 때였습니다.” “내가

1) 舉道者. ‘거’는 전거(全舉)를 가리킨다. ‘도자’는 불도(佛道)를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도인(道人)과 같은 말이며 범명 등의 뒤에 붙여 쓴다.

2) 過堂. 단과료(旦過寮) 또는 객당(客堂)이라고도 한다. 손님[客僧]으로 들러 잠시 머무는 요사.

3) 師叔. 법계(法系)상의 숙부(叔父).

4) 두 선사에게 모두 스승이 되는 분양선소(汾陽善昭)의 처소를 가리킨다.

절중에 있을 때부터 그 명성을 들었는데, 원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견해를 가지고서, 어떻게 명성을 얻어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까?” 낭야가 절을 울리며 말했다. “저의 잘못입니다.”

滁州瑯琊山, 慧覺廣照和尚, 問舉和尚, “近離甚處?” 舉云, “浙中.” 師云, “船來? 陸來?” 舉云, “船來.” 師云, “船在甚處?” 舉云, “船在步下.” 師云, “不涉程途一句, 作麼生道?” 舉云, “杜撰長老, 如麻似粟.” 拂袖便行. 師卻問侍者, “這僧是何人?” 侍者云, “舉道者.” 師遂去, 旦過堂見問, “莫便是舉師叔麼? 莫怪某甲適來相觸忤.” 舉便喝, 復問, “長老何時到汾陽?” 師云, “恁時.” 舉云, “我在浙中, 早聞你名, 元來見解祇如此, 何得名喧宇宙?” 師乃作禮曰, “慧覺罪過.”

[설화]

낭야는 손님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 노릇만 하였고, 거화상은 주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 노릇만 하였다.⁵⁾

두찬(杜撰): 『한람』⁶⁾에 이렇게 전한다. “한나라 사람 두묵⁷⁾은 명성이 자자하여 황우연간⁸⁾에 세상에서 가호⁹⁾라 일컬어졌다. 그가 시에 가락을 붙여

5) 아래 대혜종고(大慧宗杲)의 거에 나오는 첫 구절이다. 손님과 주인의 입장이 각각 뚜렷하게 구분된 상태에서 서로의 선기(禪機)를 드러내는 선법이다.

6) 閑覽. 범정민(范正敏)이 지은 『遜齋閑覽』의 줄임말.

7) 杜嘿, ‘嘿’은 ‘默’의 오식.

8) 북송(北宋) 4대 황제 인종(仁宗)의 연호로 1049~1054년간이다.

9) 歌豪, 송(宋)나라 때 구양수(歐陽修)·석연년(石延年) 그리고 두묵 등 세 사람의 각각 뛰어난 점을 높이 사서 시대를 대표하는 세 명의 호걸(豪傑)이라는 뜻에서 삼호(三豪)라 불렀다. 구양수는 문호(文豪), 석연년은 시호(詩豪), 두묵은 가호(歌豪)라 했던 호칭이 그것이다.

노래하면 본래의 시를 허탄하게 바꾸어 괴이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근거도 없이 말을 지어내는 사람을 가리켜 두찬¹⁰⁾이라 했다.” 홀(謠)은 ‘고’와 ‘혈’을 반절한 음으로 속인다는 뜻의 사(詐)와 같다.

瑯琊，賓則始終賓；舉和尚，主則始終主也。杜撰者，閑覽云，“漢人杜嘿有名，皇祐間世號歌豪。其爲歌詩，多謠誕險怪之，故俗謂造語無準者，爲杜撰。”謠，古穴切，詐也。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송

고기 잡는 늙은이 걸림 없이 동서로 오가는데,
갈대 피리와 단소는 조화롭게 어울리지 않도다.
밤은 고요하고 달은 밝아 고기 물리지 않으니,
배 한 척에 몸 누이고 무릉계곡¹¹⁾에 들어가네.

海印信頌，“漁翁蕭灑任東西，蘆管橫吹和不齊。夜靜月明魚不食，扁舟臥入武陵溪。”

[설화]

고기 잡는 늙은이는 거도자를 나타낸다.

-
- 10) 두목[杜]과 같이 멋대로 짓는다[撰]는 뜻. “두목이 지은 시에는 형식적인 음률에 맞지 않는 예가 많았다. 그래서 일이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을 두찬이라 한다.”(『野客叢書』, 杜默爲詩, 多不合律, 故言, 事不合格者, 爲杜撰.)
- 11) 무릉계(武陵溪), 무릉원(武陵源)과 같은 말. 도연명(陶淵明 365~427)의 「桃花源記」 참조.

海印：漁翁舉道者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검은 용의 구슬¹²⁾을 빼앗아 돌아왔으나,
자잘한 마구니들 모두 의심하는구나.
집어 들어 큰 파도 속에 던져버리고,
손 모두 털어버린 대중사가 돌아왔노라.

雲門杲頌, “奪得驪珠即便回, 小根魔子盡疑猜. 拈來拋向洪波裏, 撒手大家歸去來.”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¹³⁾

큰길에 아무도 없어 홀로 당당히 가노라니,¹⁴⁾
두 편 모두 관청에서 증명하여 아주 분명하네.
길가에서 소금¹⁵⁾을 몰래 매매하는 사람들은,
몸을 웅크리고 풀 속에 숨어 일생을 보낸다네.

12) 驪珠, 여룡(驪龍) 곧 흑룡(黑龍)의 턱 밑에 있는 구슬. ‘변벽’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귀중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가리킨다. 본서 5則 주석85) 참조

13) 1~2구는 두 선사가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에서 거래한 소식을 나타내고, 3~4구는 두 선사에 대하여 번뇌망상의 풀 속에서 이리저리 궁리하지만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암증(暗證)을 드러낼 뿐인 사이비 선사를 풍자한다.

14) 두 선사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 충실한 모습을 나타낸 구절.

15) 옛날 중국에서 소금은 정부에서 전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민간의 거래는 금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고파는 사람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밀매 형태로 이루어졌으므로 두 사람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다는 뜻을 비유한다.

竹庵珪頌, “官路無人獨自行, 兩家公驗甚分明. 路傍偷販私鹽客, 草裏蹲身過一生.”

대혜종고의 거

“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이며,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이다. 두 대사¹⁶⁾가 뜻밖에 만나 주인과 손님의 입장을 서로 바꾸며 그 자리에서 임제(臨濟)의 핵심을 뚜렷하게 드러냈다.¹⁷⁾ 진실로 철저하게 깨달은 향상의 수단이 없고 범상한 생각을 벗어난 바른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한편이 이겼고[得] 한편은 졌다[失]고 분별하는 잘못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¹⁸⁾ 어떤 사람은 ‘거공¹⁹⁾이 앞서 말한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에 따른 대답이었을 뿐이다. 낭야가 마지막에 한 말²⁰⁾은 불법의 도리를 드러내는 데 적합하

16) 大士, 본서 98則 주석3), 883則 주석9) 참조.

17) 임제에게 손님과 주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종지를 드러낸 사빈주(四賓主)의 선법이 있는데, 두 선사가 이것을 적절하게 시현해 보였다는 뜻이다. 또한 임제는 주인과 손님이 각자의 입장에 충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보여주는 선법뿐만 아니라 손님이 주인의 자리로, 주인이 손님의 자리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선법도 제시하고 있다. “이때 마곡보철이 나와서 물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이 지닌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 중 어떤 것이 바른 눈[正眼]입니까?’ 임제가 ‘대비관음의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 중 어떤 것이 바른 눈인가? 속히 말해 보라!’라고 되묻자, 마곡이 임제를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올라앉았다. 임제가 가까이 가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하였는데, 마곡이 머뭇거리자 이번에는 임제가 마곡을 법좌에서 끌어내리고 앉았다. 이에 마곡은 곧바로 나가버리고 임제도 법좌에서 내려왔다.”(『臨濟語錄』 大47 p.496c5. 時, 麻谷出問, ‘大悲千手眼, 那箇是正眼?’ 師云, ‘大悲千手眼, 那箇是正眼? 速道速道!’ 麻谷拽師下座, 麻谷卻坐. 師近前云, ‘不審?’ 麻谷擬議, 師亦拽麻谷下座, 師卻坐, 麻谷便出去, 師便下座.)

18) 이어서 혜각이 졌고 전거가 이겼다고 잘못 분별하는 예를 들고 있다.

19) 擧公, 전거(全舉)를 말한다. ‘公’은 경칭(敬稱).

지 않은 것이었으니, 이것이 바로 말을 제멋대로 지어낸 부분[杜撰]이다’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는 ‘냥아는 말을 제멋대로 지어낸다는 거공의 질책을 듣고 마음속에 의혹이 생겨 곧바로 무기를 버리고 갑옷도 벗어 항복하고는 마침내 거공을 만류하여 (떠나지 않도록 하고) 본분사에 대한 의문을 풀고자 했던 것이니, 이것을 가리켜 좌참²¹⁾이라 한다’라고 생각한다. 개 한 마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대고 짖으니 천 마리 삼살개가 으르렁대며 먹이가 있는 듯이 다투는 꼴이다.²²⁾ 대체로 법을 주관하는 자가 지혜로운 안목을 밝히지 못한 채로 근본적인 가르침을 처음으로 여는 역할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후인들을 미혹시켜 오도하게 된다. 두 대사가 본분을 크게 떨친 것은 마치 해와 달이 하늘에서 빛나고 용과 코끼리가 서로

20) ‘배나 육지 그 어느 길과도 상관없는 한 구절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라고 던진 질문.

21) 坐參. 『禪林象器箋』에 따르면, 주지를 만나 법어를 듣고 문답을 나누는 만참(晩參)을 하기 전에 대중들이 승당에 모여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기 위해 행하는 좌선이라고 정의한다. 이어서 대혜의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한곳에서 머물며 참선한다’는 뜻도 있지만 대혜도 이 말을 ‘안목이 없는 자들의 속설’을 인용한 것이므로 충분한 근거를 가진 말은 아니라고 밝힌다. “또한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참선하는 것을 좌참이라 한다. (대혜의 말 중략) 도충(道忠)이 말한다. ‘이 말은 자신이 주석하는 근거지를 떠나지는 않은 채 다른 곳에서 잠시 머물며 참선한다는 뜻이다. 대혜는 속설을 제기한 것일 뿐이므로 그 뜻을 모두 받아들이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禪林象器箋』 권9 「坐參條」 禪藏 p.624. 又不遊方而參禪, 曰坐參. …… 忠曰, ‘此不離己住處, 居參禪於他之義. 蓋大慧舉俗說, 故其義不足取焉.’)

22) 남의 착각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뜻. 본서 110則 주석83) 참조. 원문의 ‘猻’은 원숭이라는 뜻이지만, 삼살개를 뜻하는 ‘獠’의 잘못으로 보인다. “천 마리 원숭이가 으르렁거리며 다툰다.<猻는 獠라고 해야 한다. 노(獠)라는 글자는 ‘노’와 ‘도’를 반절한 음이고, 털이 길게 난 사나운 개이다.猻는 원숭이를 가리키니 이치에 맞지 않다. 喺의 음은 애이고, 개가 다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景德傳燈錄』 권13 大51 p.303a29. 千猻啞實<猻當作獠, 奴刀切, 惡犬長毛也. 猻, 猻也, 非義. 喺音崖, 犬鬪也.>)

발길질하는 것과 같으며, 결코 절름발이 나귀나 맹인이 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나 초파리가 어찌 우주의 드넓음을 알겠는가? 내가 일찍이 조실에서 이 공안을 제기하고 어떤 학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낭야의 이 말²³⁾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인정하지 않느냐?’ ‘불법의 도리를 조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운문문언(雲門文偈)이 동산수초(洞山守初)에게 물은 다음의 문답을 제기했다. ‘어디서 오는가?’ ‘강서의 사도(查渡)에서 옵니다.’ ‘하안거는 어디서 지냈는가?’ ‘호남의 보자사에서 지냈습니다.’ ‘언제 그곳을 떠났는가?’ ‘8월 25일입니다.’ ‘그대에게 3돈방(頓棒)²⁴⁾을 시행하겠다.’²⁵⁾ 내가 다시 그 학인에게 물었다. ‘그대는 운문의 이 말을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운문에게는 불법의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종사가 물은 내용도 같고 학인이 대답한 취지도 다른 점이 없는데, 그대는 어째서 한편은 인정하고 다른 한편은 인정하지 않는가?’ 그 학인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기에 내가 연이어 때려서 내쫓았다가 다시 ‘그만 이리 와 보라. 이리 와 보라’고 하자 그 학인이 고개를 돌렸고, 내가 말했다. ‘그대가 만약 매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나까지 그 착각에 연루시켜 눈먼 놈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 학인이 절을 올리며 ‘이제야 비로소 낭야와 거공의 뜻을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내가 ‘그대는 그 눈먼

23) 마지막에 던진 질문.

24) 1회에 20방씩 3회에 걸친 60방의 벌방(罰棒). 본서 553則 주석12), 607則 주석12) 참조.

25) 또는 ‘그대가 삼돈방을 맞을 잘못을 했지만 용서해 준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放’에 대하여 ‘시행하다’ 또는 ‘용서하다’라는 두 가지 뜻이 모두 가능하다.

자들이 어지럽혀 놓은 작태를 잘 살펴야 한다'라 말하고 또 다시 때리고 소리 질러 내쫓았다.”

雲門杲, 舉此話云, “賓則始終賓, 主則始終主. 二大士薦筭相逢, 主賓互換, 直下發明臨際心髓. 苟非徹證向上巴鼻, 具出常情正眼, 未免作得失論量. 或者道, ‘舉公前來一一據實祇對. 瑯琊末後, 不合作佛法道理, 是杜撰處.’ 或者道, ‘瑯琊, 被舉公道个杜撰, 心中疑惑, 即時倒戈卸甲, 遂挽留舉公, 咨決此事, 謂之坐參.’ 一犬吠虛, 千獠唯實. 蓋由主法者智眼不明, 濫觴宗教, 疑誤後人. 殊不知, 二大士激揚, 若日月麗天, 龍象蹴踏, 決非跛驢盲者之事. 井蛙醯雞, 又焉知宇宙之寬廣耶? 余嘗室中, 舉此話, 問學者, ‘你還肯瑯琊此語否?’ 曰, ‘不肯.’ ‘何故不肯?’ 曰, ‘不合作佛法道理.’ 余復舉, 雲門問洞山, ‘近離甚處?’ 曰, ‘查渡.’ ‘夏在甚處?’ 曰, ‘湖南報慈.’ ‘幾時離彼?’ 曰, ‘八月二十五.’ 門云, ‘放你三頓棒.’ ‘你還肯雲門此語否?’ 曰, ‘肯.’ ‘肯者云何?’ 曰, ‘雲門, 無佛法道理.’ 余曰, ‘師家, 問處一般; 學者, 答處無異, 你爲什麼, 肯一不肯一?’ 學者佇思, 余連棒打出, 復召其僧, ‘且來, 且來!’ 其僧回首, 余曰, ‘你若作棒會, 帶累我, 也是箇瞎漢.’ 其僧便禮拜曰, ‘今日方知瑯琊與舉公, 非常情可測.’ 予曰, ‘你看者瞎漢亂統.’ 又打喝出.”〈云云〉

[설화]

‘손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손님이다’라는 말은 남야의 입장을 가리키고,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이다’라는 말은 거도자의 입장을 나타낸다. 그 이하의 글이 길지만 이 뜻을 밝힌 것이다.

雲門：賓則始終賓者，瑯琊者也；主則始終主者，舉道者也。
向下文長，明此義也。



1379책 瑯琊淸淨 낭야청정



1379칙 낭야청정 瑯琊清淨

[본칙]

낭야에게 장수 좌주가 물었다. “청정한 본래의 모습에서 어떻게 문득 산하대지가 생겨났습니까?”¹⁾ 낭야가 소리 높여 “청정한 본래의 모습에서 어찌 홀연히 산하대지가 생겨났는가?”²⁾라고 반문했고, 좌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琅瑯，因長水座主問，“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師抗聲云，“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主於言下大悟。

[설화]

『능엄경』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³⁾ “부루나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

-
- 1) 『楞嚴經』 권4에 나오는 구절. 『楞嚴經』에 대한 10권의 주석을 쓴 장수자선(長水子璿)이 어디에도 묻들지 않고 불변하는 무위(無爲)의 청정한 본연에서 어떻게 생멸 변화하는 유위(有爲)의 차별상이 발생했느냐는 취지의 문제를 던진 것이다. <설화>에 제시된다.
 - 2) 『從容錄』 100則 「著語」 大48 p.291c10에 따르면, 동일한 두 선사의 말에 대하여 자선의 질문에는 “미혹되었을 때는 삼계(三界)가 있다”(迷時三界有)라는 착어를 달았고, 낭야의 말에는 “깨달은 다음에는十方세계가 모두 공이다”(悟後十方空)라고 착어를 달았다.
 - 3) 이하는 『楞嚴經』 권4 大19 pp.119c15~120a3의 내용이다.

이시여, 만약 온갖 세간의 6근·6진·5음·12처·18계 등이 모두 여래장의 청정한 본래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문득 산하대지가 생기고, 모든 유위의 상은 순서대로 변천하면서 마쳤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루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말한 것과 같이 청정한 본래의 모습에서 어떻게 문득 산하대지가 생길까?’”

냐아는 바람의 방향을 살펴서 불을 붙였고 남의 손을 빌려서 주먹질을 했다고 할 만하다.⁴⁾

그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달았다 :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금가루가 비록 귀하기는 하지만 눈에 떨어지면 눈을 가리는 티가 될 뿐이라는 뜻일까?⁵⁾ 그 는 깨달음의 자취가 없이 깨달은 것이다.

4) 당시의 조건과 어울려 힘들이지 않고 일을 처리했다는 뜻. 별도로 방편을 만들 어내지 않고 상대가 한 질문을 빌려서 그대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응했던 것을 말한다. 불감혜근의 계송에서 빌려온 해설이다.

5) 깨달음 자체 또는 그것으로 이끄는 귀중한 말들도 집착하면 도리어 진실을 보 는 데 장애가 된다는 뜻. “왕상시(王常侍)가 하루는 임제를 방문하여 임제와 함께 승당 앞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이 승당에 사는 스님들은 경전을 봅니까?’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禪)을 배우니까?’ ‘선도 배우지 않습니다.’ ‘경전도 보지 않고 선도 배우지 않는다면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부 처가 되고 조사가 되라고만 가르칩니다.’ ‘금가루가 비록 귀하기는 하지만 눈에 떨어져 눈을 가리는 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속물이라 생 각했었는데 아니로군요.’”(『臨濟語錄』 大47 p.503c26. 王常侍, 一日訪師, 同師於僧堂前看, 乃問, ‘這一堂僧, 還看經麼?’ 師云, ‘不看經.’ 侍云, ‘還學禪麼?’ 師云, ‘不學禪.’ 侍云, ‘經又不看, 禪又不學, 畢竟作箇什麼?’ 師云, ‘總教伊成佛作祖去.’ 侍云, ‘金屑雖貴, 落眼成翳, 又作麼生?’ 師云, ‘將謂爾是箇俗漢.’); “더러운 것이라면 생각에 두어서 는 안 되겠지만 청정함도 생각에 두지 않아야 옳습니까?’ ‘마치 눈동자에 작은 이물질이라도 머물면 안 되는 것과 같다. 금가루가 비록 진귀한 보배이지만 눈 속에 있으면 병이 된다.’”(『景德傳燈錄』 권7「惟寬禪師傳」 大51 p.255b2. 又問, ‘垢即不可念, 淨無念可乎?’ 師曰, ‘如人眼睛上, 一物不可住. 金屑雖珍寶, 在眼亦爲病.’)

楞嚴, “富樓那白佛言, ‘世尊, 若諸世間, 一切根塵陰處界等, 皆如來藏清淨本然, 云何忽生云云? 諸有爲相, 次第遷流, 終而復始.’ 佛言富樓那, ‘如汝所說, 清淨云云.’ 瑯琊, 可謂因風吹火, 借手行拳. 言下大悟者, 作麼生會? 莫是金屑雖貴, 落眼成翳麼? 悟無所悟也.

정엄수수(淨嚴守遂)의 송

분명한 그대로 놔두면 온몸 남김없이 드러나거늘,
한 발 다가서서 억지로 따지며 헤아리려 하는구나.
곱거나 추한 구별 옛 거울 마주했기 때문일 뿐이니,
되돌아보면 얼굴 가득 부끄러운 빛이 퍼지는구나.

淨嚴遂頌, “當明不犯體全彰, 進步剛然要論量. 妍醜只因逢古鏡, 迴頭滿面負慚惶.”

[설화]

분명한 것은 산하대지요, 몸은 본래의 모습 그대로인 몸이다.

곱거나 추한 ~ 부끄러운 빛이 퍼지는구나 : 좌주는 깨달은 자리에서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알고는 부끄러움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淨嚴：明則山河大地也, 體則本然體也. 妍醜只因云云者, 座主悟處, 方知昔日事, 慚惶不少也.

천동정각(天童正覺)의 송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보니,⁶⁾

뒤집으면 손바닥 앞으면 손등이라.⁷⁾

낭야산에 사는 사람이여!

고타마보다 뒤지지 않는구나.

天童覺頌, “見有不有, 翻手覆手. 琅琊山裏人! 不落瞿曇後.”

불감혜근(佛鑑慧勸)의 송

바람 방향 따라 불 놓으면서 공연히 묘하다 하고,

남의 손 빌려 주먹질하는 것도 대단하지 않다네.⁸⁾

청정한 본래의 모습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니,

문득 대지와 산하가 생겨나는구나.

佛鑑勸頌, “因風吹火徒爲妙, 借手行拳未足多. 清淨本然隨口

6) “있다고도 보고 없다고도 보니 있는 그것은 저절로 문드러지고, 괴이하다고도 보고 괴이하지 않다고도 보니 괴이한 그것은 저절로 무너진다.”(『從容錄』100則「評唱」大48 p.292a10. 見有不有, 其有自朽; 見怪不怪, 其怪自壞.)

7) 『從容錄』100則「評唱」大48 p.292a11에는 이 구절에 대하여 용수(龍樹)의 설을 인용하여 “일체의 법은 모든 인연 때문에 응당 있고, 일체의 법은 모든 인연 때문에 응당 없는 것이다. 이것이 뒤집으면 손바닥 앞으면 손등이라는 뜻이다.”(一切諸法, 一切因緣故應有; 一切諸法, 一切因緣故不應有. 此翻手覆手也.)라 하고, 이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작용이 생사(生死)의 원인이기도 하고 해탈의 근본이기도 하다”라고 풀었다.

8) 이 방식을 『從容錄』100則「評唱」大48 p.292a5에서는 “도적의 말을 타고 도적을 뒤쫓고, 도적의 창을 빼앗아 도적을 죽인다.”(騎賊馬趕賊, 奪賊槍殺賊.)라고 평가했다.

道, 忽生大地與山河.”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송

욕하겠다면 한껏 주둥이 달아 줄 것이며,
침을 뱉겠다면 얼마든지 물 뿌려 주리라.
티끌 하나만 들면 대지 전체 거두어지고,
꽃 한 송이 피어도 세계가 모두 일어난다.
한 모양으로 벗어났지만 공흔 전혀 없고,
한 구절에서 큰 보시의 문 밀어 열었다네.

圓悟勤頌, “相罵饒⁹⁾接觜, 相唾饒潑水. 塵舉大地收, 花開世界起. 一摸脫出絕功勳, 句裏挨開大施門.”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염

“먼저 출발했으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고, 뒤에 떠났으나 목적지를 지나쳤다.”¹⁰⁾

海印信拈, “先行不到, 未後大過.”

[설화]

먼저 출발했으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좌주를 가리키고, 뒤에 떠났으나 목적지를 지나친 것은 낭야를 가리킨다.

9) 『圓悟語錄』 권19 大47 p.801b20에는 ‘饒’ 다음에 두 구절 모두 2인칭 대명사 ‘爾’가 붙어 있다. 글자 수를 맞추기 위하여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10) 한편은 부족했고 다른 한편은 지나쳤다. 본서 1則 주석36) 참조.

海印：先行不到者，座主也。末後太過者，瑯琊也。

오조법연(五祖法演)의 염

“금가루가 비록 귀하기는 하지만 눈에 떨어지면 눈을 가리는 티가 될 뿐이다.”¹¹⁾

白雲演拈，“金屑雖貴，落眼成翳。”

[설화]

청정한 본래의 모습이라는 말이 ‘금가루’이다. 그것이 눈에 붙으면 눈을 가리는 티가 되니, 낭야가 말한 경계는 뒤에 떠났으나 목적지를 지나친 격이기 때문이다.

白雲：清淨本然處，金屑也。著眼則成翳，瑯琊道得處，末後太過故也。

심문담분(心聞曇贍)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존자(부루나)는 그렇게 물었고, 낭야도 그와 똑같이 핵심을 집어냈다[拈]. 산하대지의 의미를 알았는가? 말해 보라! 영원히 남들의 귀감이 되는 안목은 어디에 있을까? 이미 관문을 통과한 자는 한번 분간해 보기 바란다.” <이것은 능엄회상에서 부루나존자가 부처님께 ‘청정한 본래의 모습에서 어떻게 문득 산하대지와 모든 유위의 상이 생겨났습니까?’라고 묻고, 낭야혜각이 그 핵심을 집어내어 ‘청정한 본래의 모습에서 어떻게 문득 산하대지와 모

11) 주석5) 참조.

든 유위의 상이 생겨났는가?’라고 한 말을 수록하여 문제로 제기한 것이다.)

心聞貴，上堂，舉此話云，“尊者恁麼問，瑯琊恁麼拈。還曾識得山河大地也未？且道！萬年爲人眼，在什麼處？已過關者，試請辨看。”〈此錄舉，楞嚴會上，富樓那問佛，‘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諸有爲相？’瑯琊覺拈云，‘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諸有爲相？’〉

[설화]

산하대지의 의미를 알았는가：산하대지를 벗어나서 별도로 청정한 본래의 모습을 가리키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이다.

영원히 남들의 귀감이 되는 안목은 어디에 있을까：또한 가리켜낸 산하대지도 없다는 뜻이다.

心聞：還曾識得云云者，似離却山河大地外，別指清淨本然也。
萬年爲人云云者，亦無指出底山河大地也。

송원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낮은 길고 밤은 짧은 사실을 여러분은 깨우쳤는가? 푸른 하늘에 또 하나의 푸른 하늘이니, 해골 앞의 장애를 타파하라!¹²⁾ 서서히 시간만 또 다시 흘러보낸다고¹³⁾ 어찌 어른이 소년으로 되

12) 타실촉루전(打失觸髅前). ‘타실’은 타파(打破)와 통하며, 어떤 장애를 타파하여 문제의 핵심을 알아차린다는 뜻이며, 잃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촉루’는 쓸데없는 분별의식 등을 비유한다. “제야의 밤에 동촌에서 터지는 한 번의 폭죽 소리에 온 세상 사람들이 해골을 타파한다.”(『石田法薰語錄』 권3 叀122 p.45a14. 東村爆竹一聲，盡大地人，打失觸髅.)

13) 『古林清茂語錄』 권2 叀123 p.432b18에는 “저도 모르게 낮이 또 밤으로 변한다.”(不覺日又夜)라고 되어 있다.

돌아가겠는가?¹⁴⁾”

松源, 上堂, 舉此話云, “日長夜短, 諸人還省麼? 青天復青天,
打失髑髏前! 看看日又過, 爭教人少年?”

[설화]

낮은 길고 밤은 짧다 : 시절에 따라 나타나는 인연이니 모든 유위의 차별상이다.

푸른 하늘은 좌주의 질문이고, 또 하나의 푸른 하늘은 낭야의 답변이다.
해골 앞의 장애를 타파하라 : 분별의식[情識]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서히 시간만 또 다시 ~ 되돌아가겠는가 : 또 다시 허망하게 시간이 흐를 것이다. 모든 유위의 차별상을 마주하고 깨우쳐야 된다는 뜻이다.

松源 : 日長夜短者, 時節因緣, 諸有爲相也. 青天則座主問, 復
青天則瑯琊答也. 打失髑髏前者, 情識未斷也. 看看云云者, 還
是流注也. 當諸有爲相薦取, 始得.

14) 세월만 덧없이 보낸다면 결정적인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



1412칙 白雲他人 백운타인



1412칙 백운타인 白雲他人

[본칙]

백운수단(白雲守端)이 계송으로 읊었다. “다른 사람이 머무는 곳에 나는 머물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는 곳에 나는 가지 않는다네. 남들과 만나는 것을 어렵다 여겨서가 아니라, 승속의 차별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이라네.”

白雲頌曰, “他人住處我不住, 他人行處我不行. 不是與人難共聚, 大都緇素要分明.”

[설화]

이 공안은 자신의 깨달음[證]이나 중생을 교화하는 것[化]이나 그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此話, 證化不落.

죽암사규(竹菴士珪)의 거

이 공안을 제기하고 손으로 깎은 머리를 문지르며 말했다. “출가는 했

는가?”

竹菴珪, 舉此話, 以手摩頭云, “出家也未?”

[설화]

자신의 깨달음이나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나 그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는 경지이지만, 속된 기운은 아직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竹菴: 證化不落處, 俗氣也未除故.

대혜종교(大慧宗杲)의 시중

이 공안을 제기하고 한 소리 크게 내지른 다음 말했다. “아직도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구나! 나라면 그렇게 읊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다른 사람이 가는 곳에 나 또한 간다네. 기뻐하다가 금방 화내어¹⁾ 알 도리 없으니, 신라에는 한밤중에 해가 밝게 비추노라.’²⁾” 말해 보라! 옛사람의 계송과 나의 계송 간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확고히 맞춰 보라.”

雲門杲, 示衆, 舉此話, 喝一喝云, “猶有這個在! 雲門卽不然.

1) 별희별진(警喜警眞). ‘기뻐하는 듯하다가 금방 화를 낸다’라는 뜻으로 기쁨과 성냄이라는 전혀 다른 작용을 대표적으로 내세워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활발한 선풍을 나타낸다. 추일총(鶻一聰)은 남원혜옹(南院慧顚)의 말로 거론하였다. “위계의 차별에 걸리지 않는 참사람[無位眞人]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뻐하다가 금방 화를 낸다.’”(『五燈全書』 권69 「具德弘禮章」 卽141 p.449a15. 問, ‘如何是無位眞人?’ 師曰, ‘警喜警眞.’); “옛날에 어떤 학인이 남원에게 물었다. ‘용이 강호에서 뛰어오를 때는 어떠한가?’ ‘기뻐하다가 금방 화를 낸다.’”(같은 책 권98 「鶻一聰章」 卽141 p.924b18. 昔有僧問南院, ‘龍躍江湖時, 如何?’ 院曰, ‘警喜警眞.’)

2) 이 구절은 『眞淨克文禪師語』續古尊宿語要2 卽118 p.935b13에 나온다.

‘他人住處我亦住，他人行處我亦行。瞥喜瞥嗔無理會。新羅夜半日頭明.’ 且道！與古人相去多少？試定當看。”

[설화]

한 소리 크게 내지르고 한 말 그대로이다.

雲門：喝一喝云云也.



1415칙 五祖五逆 오조오역



1415칙 오조오역 五祖五逆¹⁾

[본칙]

오조법연(五祖法演)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임제 문하의 본분사란 어떤 것입니까?” “오역죄²⁾를 저지른 자가 천둥소리³⁾를 듣는 격이다.”

五祖因僧問, “如何是臨際下事?” 師云, “五逆聞雷.”

[설화]

오역죄를 저지른 자가 천둥소리를 듣는 격이다 : (자신을 벌하려는 천둥소리로 착

-
- 1) 죄인이 천둥소리를 들으면 마치 자신을 벌하려는 소리로 지레짐작하여 겁을 내듯이 임제의 할(喝)에 대해서도 자신이 겁매어 있는 분별에 따라 그 실(實)을 헤아리는 일반적 집착을 소재로 한 공안이다.
 - 2) 오역(五逆), 오역죄, 오역죄를 지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과보를 받게 된다. 크게 소승 오역과 대승 오역으로 나뉜다. 소승의 오역은 다음과 같다. ①부친을 죽이는 것, ②모친을 죽이는 것, ③아라한을 죽이는 것, ④고의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것, ⑤화합승단을 파괴하는 것 등이다. ①, ②는 은전(恩田)을 버리는 것이고 ③, ④, ⑤는 복전(福田)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승의 오역은 ①탑사(塔寺)를 파괴하거나 불경·불상을 불사르거나 삼보를 흠치는 것, ②삼승법(三乘法)을 비방하고 성교(聖敎)를 천하게 여기는 것, ③출가승을 욕하거나 부리는 것, ④소승의 오역죄를 범하는 것, ⑤인과의 이치를 믿지 않고 10가지 불선업을 저지르는 것 등이다.
 - 3) 임제의 할(喝)을 비유한 말이다.

각하고 놀라서) 간이 떨어지고 정신을 잃는다는 뜻이다.⁴⁾

五逆聞雷者，喪膽亡魂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송

오역 죄인이 천둥소리 들으니,

증삼과 안회⁵⁾가 그들이네.

하나의 콩알이

식은 잿더미에서 튀어 나오리라.⁶⁾

雲門杲頌，“五逆聞雷，曾參顏回。一粒豆子，爆出冷灰。”

4) 천둥소리를 할의 비유로 본 해설이다. 동일한 표현이 오조법연의 제자 원오극근(圓悟克勤)에게도 보인다. “(馬祖가 百丈에게 내지른) 이 하나의 할을 아는가? 천둥소리가 크게 울려 듣는 자들이 간이 떨어지고 정신을 잃는 것과 같다.”(『圓悟語錄』 권16 大47 p.789a5. 還知這一喝麼? 直似奮雷霹靂，聽者喪膽亡魂.) ‘도둑질한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다(作賊人心虛)’라는 말과 통한다.

5) 증삼(曾參)과 안회(顏回)는 모두 덕행이 뛰어난 공자(孔子)의 수제자이다. 안회는 ‘一簞食，一瓢飲’으로 청빈(淸貧)하게 살았고 공자가 가장 신임한 제자였으나 공자보다 일찍 죽었으며, 증삼은 공자의 도(道)를 이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유학의 도통설에 따르면 공자의 도는 증삼을 거쳐 자사(子思), 맹자(孟子)로 이어졌다고 한다.

6) 상념(想念)의 불길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깨달음. 대혜종고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이 뜻을 전한다. “그대들은 다만 상념의 불길을 꺼뜨려 보라. 반복하여 꺼뜨리다가 어느 순간 식은 재에서 한 알의 콩이 화로 밖으로 튀어 나오듯이 번득 깨달으면, 그것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사람의 경지이다.”(『宗門武庫』 大47 p.955c10. 爾但灰却心念來看。灰來灰去，驀然冷灰，一粒豆爆在爐外，便是沒事人也。)『景德傳燈錄』 권20 大51 p.361c28 참조.

[설화]

증삼과 안회: 공손한 마음으로 효행과 의리를 받들면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은 대표적인 이들이다.

하나의 콩알이 ~ 튀어 나오리라: 속일 수 없다는 뜻이니, (그럼에도 속인다면) 또한 한바탕의 화를 초래할 일이라는 뜻이다. 아래 죽암사규의 계송도 이와 같은 취지이다.

雲門: 曾參顏回者, 小心奉孝義, 不放逸也. 一粒豆子云云者, 動誕不得也, 又一場禍事也. 竹庵頌, 同此.

죽암사규(竹庵士珪)의 송

본래부터 오역 죄인이 천둥소리를 두려워함은,

호랑이가 물레방아를 본 것과는 같지 않노라.

우뚝 솟은 봉우리에서 함께 가고자 한다면,

복잡한 거리에서도 함께 앉아 있어야 하리라.

竹庵珪頌, “從來五逆怕聞雷, 不似大蟲看水磨. 孤峯頂上要同行, 十字街頭還共坐.”



1418책 五祖切脚 오조절각



1418칙 오조절각 五祖切脚

[본칙]

오조법연(五祖法演)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대장경의 교설은 글자의 음을 풀이한 것[切脚]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는데, 어떤 글자의 음에 대한 풀이입니까?” 오조가 말했다. “발라랑!”¹⁾

五祖因僧問, “古德道, ‘一大藏教是箇切脚.’ 未審切箇什麼字?” 師云, “鉢囉娘!”

[설화]

대장경의 교설은 글자의 음을 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 대장경의 교설이 다만 ‘이것’(본분사)에 대해 설한 것일 뿐이라면, 대장경의 교설은 오로지 ‘이것’에 대한 음풀이[切脚]와 뜻풀이[注脚]일 뿐이다. ‘발라랑’은 일도진언(一道眞言)²⁾이다. 절각(切脚)에 대해서 주해(注解)하자면, 보통 자서³⁾류에는 원자각(元字脚)과 절자각(切字脚)이 있다. 원자각이란 글자의 본래 출처를 밝

1)鉢囉(ṣpra : 𑖦) 娘(jiā : 𑖧), 곧 반야(ṣprajñā)라는 말을 읊은 진언이다. 『大般若經』 권600 「般若佛母親心呪」 大7 p.1110b2 참조. 여기에서는 몰자미(沒慈味)한 화두로써 드러낸 것이다.

2) 본서 250則 주석11) 참조.

3) 字書, 『字典』과 같이 글자를 모아서 풀이해 놓은 책을 말한다.

히는 것이고, 절자각은 반절(半切)하여 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 ‘각(脚)’이라는 것은 주각(注脚)의 각의 뜻과 같으니 보통 책의 주석을 말한다. 모두 갈래갈래 나뉘어 책에 다리를 붙이는 것과 같은 까닭에 주각이라고도 하고 각주라고도 하며 또는 측주(測注)라고도 한다.

一大藏教是箇切脚者, 如一大藏教, 只說這箇, 則一大藏教, 只是這箇事之切脚注脚也. 鉢囉娘者, 一道真言也. 切脚箋曰, 凡字書, 有元字脚切字脚. 元字脚, 謂字元所出也; 切字脚, 謂切音. 爾脚與注脚之脚同, 凡書註云. 皆歧⁴⁾分而作脚書之故, 云注脚, 或云脚注, 又云測注.

공수화상의 송

동산⁵⁾의 늙은이가
어리석은 척했으나,
냄새나는 입 열자마자
고향애기⁶⁾ 드러내는구나.

空叟和尚頌, “東山老漢, 放癡放愁, 纔開臭口, 便見鄉談.”

4) ‘岐’와 동자(同字).

5) 東山. 기주(蔚州) 황매현 동쪽에 있는 빙무산(憑茂山)의 별칭. 법연이 이곳에서 주석했으므로 법연을 가리키기도 한다.

6) 향담(鄉談). 근원에 대하여 언급했다는 말. 법연이 ‘발라랑’이라 한 말에 궁극적인 소식이 담겨 있다는 의미이다.

[설화]

입각처가 드러났다는 뜻이다.

空叟：立處現露也.

원오극근(圓悟克勤)의 엄

“신속하게 울리는 천둥소리는 귀 막을 틈도 주지 않는다.”⁷⁾

圓悟勤拈云, “迅雷不及掩耳.”

[설화]

근본적인 취지는 신속하다.

圓悟：妙旨迅速也.

7) 신뢰불급엄이(迅雷不及掩耳), 질뢰불가엄이(疾雷不暇掩耳)라고도 한다. 대책을 강구하고 생각할 여지가 없다는 말. '발라랑'이라는 소리의 속성을 나타낸다.



1429책 大士空手 대사공수



1429칙 대사공수 大士空手

[본칙]

부대사(傅大士)가 계송으로 읊었다. “빈손인데 호미를 들었고, 걸으며 물소를 타고 있네. 사람이 다리 위 지나는데, 다리 흐르고 물 흐르지 않네.”

傅大士頌, “空手把鋤頭, 步行騎水牛. 人從橋上過, 橋流水不流.”

지공의 송

법신에 정해진 모습 없음이 빈손이라면,
색신이 인연 따라 있음은 호미 든 것이네.
만약에 걸으며 오가는 뜻 알게 된다면,
망상을 따라 변한 진심이 바로 소라 하리.
진심을 물에 빗대니 물은 항상 고요하며,
허망한 신체 다리 삼으니 다리만 흐를 뿐.
진심 움직이지 않고 오직 몸만 움직이니,

다리 흐르고 물 흐르지 않는 뜻 이것일세.

誌公頌, “法身無相爲空手, 色身從有把鋤頭. 若識步行來往意, 眞隨妄轉名爲牛. 眞心喻水水常寂, 妄體爲橋橋自流. 眞心不動唯身動, 正是橋流水不流.”

[설화]

지공의 송은 “지혜의 바다는 정해진 성품이 없는데, 깨달음과 망상을 분별함으로 인하여 범부가 된다”¹⁾라고 한 구절과 같은 뜻이니, 현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문[隨流門]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다.

誌公頌則, 智海無性, 因覺妄而成凡, 以隨流門頌之也.

사대의 송

찰나에 생멸하는 무상이 빈손이요,
번뇌 뿌리 제거하려 호미 들었다네.
정혜 평등하게 닦음이 걷는 뜻이요,
범계 떠나지 않으려고 흰 소 탔다네.
육바라밀 다리 삼아 소 끌고 지나니,
모든 현상 무상함은 다리 흐름이라.
범성은 맑고 깨끗하여 물과 같으니,

1) 황룡혜남(黃龍慧南)의 말. 『嘉泰普燈錄』 권3 「黃龍慧南章」 卍137 p.66b13 참조. 『黃龍語錄』 大47 p.637a16에는 “지혜의 바다에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깨달음과 망상을 분별함으로써 범부가 된다.”(智海無風, 因覺妄以成凡.)라고 되어 있다. 곧 깨달음과 망상의 분별이 고요한 지혜의 바다를 흔들어 동요시키는 바람과 같고 그것이 곧 범부의 허물이라는 취지이다.

본래 고요함이 물 흐르지 않음이라.

思大頌, “刹那無常卽空手, 爲除煩惱把鋤頭. 定慧雙修步行意, 不離法界騎白牛. 六度爲橋牽牛過, 諸行無常是橋流. 法性清淨猶如水, 本來寂靜水不流.”

[설화]

사대의 송은 “깨달음과 망상이 원래 허망하니 범부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고 부처를 본다”²⁾라고 한 구절과 같은 뜻이니, 근원으로 돌아가는 문[返源門]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다.

思大頌則, 覺妄元虛, 卽凡心而見佛, 以返源門頌之也.

운문문언(雲門文偃)의 거

‘물소를 타고 있네’라는 구절까지 제기하고 “그대들은 북쪽을 향해 한 마리 물소를 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주장자를 잡고 말했다. “모르는가? 천 마리건 만 마리건 여기에 이르면 다만 한 마리인 줄 알아야 한다.”

雲門偃, 舉此話, 至騎水牛, 師云, “是你從向北騎一頭水牯牛, 到遮裏.” 乃拈起拄杖云, “不見道, ‘千頭萬頭, 到這裏, 但識取一頭.’”

[설화]

‘이곳에 온 천 마리 만 마리 중에서 어떤 것이 그 한 마리인가?’라고 물

2) 주석1)에서 인용한 구절 뒤에 이어지는 황룡혜남의 말이다.

은 뜻이다.

雲門：千頭萬頭處，那箇是一頭？

지해본일(智海本逸)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각 구절에 착어를 달았다. “빈손인데 호미를 들었다. 「잠꼬대 같은 소리다.」 걸으며 물소를 타고 있네. 「꿈속의 이야기이다.」³⁾ 사람이 다리 위 지난다. 「마구 달리는구나.」 다리 흐르고 물 흐르지 않네. 「눈 안에 핀 꽃이다.」⁴⁾ 나라면 그렇게 짓지 않았을 것이다. ‘빈손에 호미 없고, 걸을 뿐 소를 타지 않노라. 사람은 다리 위 지나가고, 물은 다리 아래로 흐르네.’” <참!>

智海逸，上堂，舉“空手把鋤頭，師着語云，‘睡語.’ 步行騎水

- 3) 잠꼬대나 꿈속의 이야기. 언어 이전의 경계는 아무리 뛰어난 방편을 구사하더라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동시에 이것은 화두의 본질을 나타내기 위하여 간화선사들이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하다. 부대사는 본래 스스로 잠꼬대로 알고 고의적으로 구사한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뒤틀린 선어(禪語)의 역설에서 깊은 맛을 느끼려고 생각을 짜낸다. 이는 전략적으로 제시한 허언(虛言)과 다르지 않다. 본서 2則 주석145) 참조. “제일의에 대하여 말하자면 인도의 28대 조사나 중국의 6대 조사도 모두 그 제일의의 종풍 아래에 선 것에 불과하며, 대장경의 가르침도 그것과는 백운 너머 만 리의 거리로 떨어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마가다국에서 방문을 단아걸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나, 유마거사가 비야리성에서 불이법에 대하여 침묵했던 것도 꿈속에 있었던 이야기와 같으니, 천 분의 부처님께서 계속 이 세상에 나타나 설법하더라도 ‘잠꼬대’를 마치지 못한 꼴이 될 것이며,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도 굵은 것을 휘어서 억지로 곧게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五祖法演語錄』 권상 大47 p.649a21. 若論第一義，西天二十八祖，唐土六祖，立在下風，一大藏教，白雲萬里。摩竭掩室，毘耶杜口，正在夢中，千佛出世，寐語未了，文殊普賢，拗曲作直.)
- 4) 이 잠꼬대에 현혹되면 그 말이 눈동자에 앉은 이물질과 같이 되어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牛, 師云, ‘夢言.’ 人從橋上過, 師云, ‘亂走.’ 橋流水不流, 師云, ‘眼花.’ 山僧卽不然. ‘空手沒鋤頭, 步行不騎牛. 人從橋上過, 水從橋下流.’ ” (參!)

[설화]

네 구절에 대한 각각의 착어는 모두 물리치는 부정의 방식이다. ‘산승은 그렇게 짓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며 제시한 송은 평상의 경계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智海：四句着語, 皆折挫也. 山僧卽不然云云者, 不動平常也.

운거요원(雲居了元)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여러 지방으로부터 한 마리 물소를 타고 왔다. 알겠는가? 만약 아직 모르고 있다면 산승이 소 찾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 오늘 대중에게 보시하지 않을 수 없구나. 소를 찾으려면 반드시 자취를 찾아야 하고, 도를 닦으려면 무심해야만 한다. 자취가 남아 있으면 소도 있고, 무심하면 도를 찾기가 쉽다.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길러야 할까? 산승에게 소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 있으니, 그것도 여러분에게 말해 주겠다. 소를 찾고 나면 마음에서 저절로 잊게 될 것이니, 우리 안의 소가 검은지 누런지 더 이상 묻지 마라. 봄 산 내리 쬐는 봄 햇빛에 봄풀이 저절로 돋을 것이니, 한가로이 높은 구름 쳐다보며 석양에 누워 있어라. 설령 그대가 소를 알거나 찾거나 기르더라도 두 번째 달⁵⁾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5) 본서 161則 주석23) 참조.

雲居元，上堂，舉此話云，“諸人惣從諸方，騎一頭水牯牛來。還識也未？若未識得，山僧有箇尋牛底法，今日不免布施大衆。尋牛須訪跡，學道要無心。跡在牛還在，無心道易尋。既然尋得，作麼生養？山僧有箇養牛底法，更爲諸人說破。尋得牛來，心自忘，欄中休更問青黃。春山春日生春草，閑對深雲臥夕陽。直饒你識得尋得養得，也落第二月。

[설화]

소를 찾는 방법은 무심이요, 소를 기르는 방법은 그 무심 또한 잊는 것이다.

봄 산 ~ 두 번째 달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 곳곳에서 여유롭게 노니는 바로 이 경지도 여전히 두 번째 달과 같으니 반드시 본래의 달(첫 번째 달)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雲居：尋牛法則無心也，養牛法則無心亦忘也。春山云云者，隨處優游，此猶是第二月，須知有第一月。

법진수일(法眞守一)의 거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의 엄을 제기하고 말했다. “한 마리는 어디에 있는가?”

法眞一，舉此話，連舉雲門拈，師云，“一頭在甚麼處？”

[설화]

하나를 찾았다 하더라도 또한 옳지 못하다는 뜻이다.

法眞：尋一箇，又却不是也。

해인초신(海印超信)의 상당

이 공안과 더불어 운문의 염을 제기하고 말했다. “대중들이여! 자신의 물소를 아는가? 조금 전 범문을 알리는 북소리를 듣고 타고 와서 잠깐 쉬고 있지만, 범문을 마친 뒤에 다시 타고 갈 것이다. 비록 이렇기는 하지만 결코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참!〉

海印信, 上堂, 舉此話, 連舉雲門拈, 師云, “大衆! 還識自家水牯牛麼? 適來聞打鼓, 騎上來小閒, 參退騎下去. 然雖如是, 切莫犯人苗稼.”〈參!〉

[설화]

대중들이여 ~ 들어가서는 안 된다 : 밭이란 유무의 모든 법을 가리킨다.

海印云云, 苗稼, 則有無諸法也.

설봉료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사람이 다리 위 지나는데, 다리 흐르고 물 흐르지 않는다 하는구나.” 이어서 주장자를 잡고 “이것이 바로 물이라면 저

6) 소가 길이 들지 않으면 밭에 침범하여 곡식을 상하게 하듯이 수행이 성숙되지 않으면 밖의 경계에 미혹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그대들 비구는 이미 계를 지키고 있으니 마땅히 다섯 감각 기관을 통제하여 방일한 마음으로 오욕에 빠지게 하지 마라. 비유하자면 소를 먹이는 사람이 채찍을 들고 지켜보며 제멋대로 곡식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만일 오근을 제멋대로 방임해 두면 오욕뿐만 아니라 온갖 성향이 끝없이 펼쳐져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遺教經』大12 p.1111a8. 汝等比丘, 已能住戒, 當制五根, 勿令放逸, 入於五欲. 譬如牧牛之人, 執杖視之, 不令縱逸犯人苗稼. 若縱五根, 非唯五欲, 將無崖畔, 不可制也.)

것은 다리이다. 이것이 다리라면 저것은 다리 위를 지나가는 사람이다”라고 한 뒤 마침내 대중에게 말했다. “가는 걸음마다 나의 길을 막지 마라.”

雪峰了, 上堂, 舉云, “人從橋上過, 橋流水不流.” 乃拈拄杖云, “遮箇是水, 那箇是橋; 這箇是橋, 那箇是橋上過底人.” 遂召大衆云, “行行莫攔我路.”

[설화]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도달할 목적지에 이른다는 뜻이다.

雪峯：直須進前, 到其所到也.

황룡유청(黃龍惟淸)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옛사람의 말씀이 아닌 것인 줄 알고자 한다면,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차나 마시는 것이 좋으리라.”

黃龍淸, 上堂, 舉此話云, “作麼生會? 要知不是古人言, 正好歸堂喫茶去.”

[설화]

옛사람의 말씀이 아닌 것인 줄 알고자 한다면 : 부대사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⁷⁾

7) 부대사의 계승에 분명히 이 구절이 있음에도 ‘옛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설화>에서 ‘대사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한 해설은 구절마다 걸려 있는 화두의 묘미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평가를 고스란히 받아들여도 화두를 보는 안목이 아니다. 이 평가에 관한 유명한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차나 마시는 것이 좋으리라 : 본분사를 또 다시 오인할까 염려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黃龍：要知不是古人言者，大士無此語也。歸堂喫茶者，本分事又恐認着也。

대혜종고(大慧宗杲)의 상당

어떤 학인이 물었다. “빈손인데 호미를 들었고, 걸으며 물소를 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뱀장어가 기름 향아리 속으로 뛰어들었다.”⁸⁾ “달마대사의 수염은 붉다고 생각했었는데, 그와 똑같이 붉은 수염을 한 분이

일화와 그에 대한 대혜종고(大慧宗杲)의 평가가 전한다. “시중(示衆) 때 다음의 문답을 제기했다. 법안이 각철취(광효혜각)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가?’ ‘조주에서 옵니다.’ ‘뜰자하니 조주에게는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가?’ ‘그런 화두는 없습니다.’ ‘왕래하던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어떤 학인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으니, 조주가 뜰 앞의 잣나무라고 답했다」라고 하는데, 상좌는 어째서 없다고 말하는가?’ ‘조주는 진실로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으니 화상께서는 조주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이 문답에 대하여 대혜가 평가했다. ‘만약 이 화두가 있다고 말하면 각철취의 뜻을 놓쳐버리며, 이 공안이 없다고 말하면 또한 법안의 뜻을 놓쳐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있다·없다는 양변과 모두 상관없다고 말한다면 조주의 뜻을 놓쳐버릴 것이다. 설령 전혀 이러한 생각과 같지 않고 별도로 벗어날 하나의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쏜살과 같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大慧語錄』 大47 p.843b22. 示衆, 舉, 法眼問覺鐵嘴, ‘近離甚處?’ 覺云, ‘趙州.’ 眼云, ‘承聞, 趙州有柏樹子話, 是不?’ 覺云, ‘無.’ 眼云, ‘往來皆謂, 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州云, 「庭前柏樹子.’ 上座何得道無?’ 覺云, ‘先師實無此語, 和尚莫謗先師好.’ 師云, ‘若道有此語, 蹉過覺鐵嘴; 若道無此語, 又蹉過法眼; 若道兩邊都不涉, 又蹉過趙州. 直饒總不恁麼, 別有透脫一路, 入地獄如箭射.’)

- 8) 뱀장어는 자신의 몸이 미끄러워 기름 향아리와 같이 미끄러운 곳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부대사 송의 앞에 두 구절에서 보인 파격(破格)의 형식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게시군요.”⁹⁾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나는데, 다리는 흐르고 물은 흐르지 않는 구나.” “부대사는 어물전과 주막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화상께서는 어디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까?” “모든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 “몇 사람이나 가르치셨습니까?” “단지 그대 한 사람만 가르쳤는데, 그대가 칠통과 같이 까맣게 모를 뿐이다.” 대혜종고가 이어서 말했다.¹⁰⁾ “빈손인데 호미를 들었다. 「밥 속에 콩이 들어 있다.」 걸으며 물소를 타고 있다. 「밭가락 끝을 찾다.」 사람이 다리 위를 지난다. 「수많은 사람을 몹시도 속이는 구나.」 다리 흐르고 물 흐르지 않는다. 「그래도 모자라지만 조금 낫다.」 만약 이렇게 제기한다면 비로소 ‘미륵이여, 진실한 미륵이여! 천백억 가지로 몸을 나누었구려.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지만, 당시의 사람이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네!’¹¹⁾ 라고 읊은 뜻을 알 것이다.” 선상을 쳤다.

雲門杲，上堂，僧問，“空手把鋤頭，步行騎水牛時，如何？”師云，“鰲魚走入油甕裏。”進云，“將謂胡鬚赤，更有赤鬚胡。”師云，“人從橋上過，橋流水不流。”進云，“只如傅大士，向魚行酒肆裏接人，未審和尚，向甚麼處接人？”師云，“向一切處接人。”進云，“未審接得幾箇？”師云，“只你一箇漆桶不會。”乃云，“空手把鋤頭，飯裏有巴豆。步行騎水牛，蹴着脚指頭。人從橋上過，賺殺多少人。橋流水不流，却較些子。若恁麼捉得

9) 부대사의 말과 대혜의 말이 드러난 형식은 다르지만 결국 내용은 같다는 뜻이다.

10) 이하는 부대사 계송의 각 구절에 착어(著語)를 다는 형식이다.

11) 포대(布袋 ?~916)의 임종계(臨終偈). 포대는 당나라 말기 오대(五代)의 스님으로 법명은 계차(契此)이다. 세속에서 칠복신(七福神)의 하나로 간주되어 지금도 중국의 많은 절에는 포대의 상이 봉안되어 있다. 언제나 막대기와 포대를 가지고 걸식하였으며 미륵보살의 화신으로 믿어지고 있다.

去, 方信道, ‘彌勒眞彌勒! 分身千百億. 時時示時人, 時人自
不識.’” 拍禪床.

[설화]

채소 항아리에 빠져 죽었다¹²⁾는 뜻이다. 또한 대의는 노승도 부대사와
마찬가지로 어물전과 주막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륵이여, 진실한 미륵이여 ~ 알아차리지 못하네’라는 계송을 인용한 것
이다.

雲門意, 蓋瓮裏淹殺也. 又大義, 老僧如傳大士, 魚行酒肆裏接
人也. 故云, 彌勒眞彌勒云云也.

심문담분(心聞曇分)의 상당

이 공안을 제기하고 말했다. “부대사가 옳은 말을 하기는 했지만, 곧은
것을 휘어서 억지로 굽게 만든 것을 어찌하랴! 산승이 그대들에게 말하리
라. 6월은 초복 때가 좋고, 8월은 중추가 절정이다. 사람의 마음이 평온하
면 말이 없고, 물은 평평하면 흐르지 않는 법이다.”¹³⁾

12) 임제(臨濟)의 말이다. “낙포가 그 뒤 임제에게 작별인사를 하자 임제가 물었다.
‘어디로 가려는가?’ ‘남방으로 갑니다.’ 임제가 주장자로 선 하나를 긋고서 말했
다. ‘이 선을 넘어서 가거라.’ 낙포가 할을 내지르자 임제는 주장자로 곧바로 때
렸고, 낙포는 절을 올리고 떠났다. 임제가 다음 날 법좌에 올라 말했다. ‘임제 문
하에 있던 붉은 꼬리 잉어 한 마리가 머리를 흔들고 꼬리를 치면서 남방으로 떠
났는데, 어느 집 채소 항아리에 빠져 죽었는지 모르겠다.’”(『五燈會元』 권6 「洛浦
元安章」 卍138 p.200b10. 師後辭濟, 濟問, ‘甚麼處去?’ 師曰, ‘南方去.’ 濟以拄杖畫一畫
曰, ‘過得這箇便去.’ 師乃喝, 濟便打, 師作禮而去. 濟明日陞堂曰, ‘臨濟門下, 有箇赤梢
鯉魚, 搖頭擺尾, 向南方去, 不知向誰家蓋瓮裏淹殺.’)

13) 달마다 지니는 특징은 매년 반복되는 평온한 현상이기에 절묘한 구절은 물론

心聞貴，上堂，舉此話云，“傳大士是卽是，爭奈拗直爲曲！山僧向你道，六月上伏，八月中秋。人平不語，水平不流。”

[설화]

6월은 초복 때가 ~ 흐르지 않는 법이다 : 각 시절에 적절한 인연을 나타낸다. 부대사의 마음이 평온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평온한 말을 한 것이며, 앞에서 ‘곧은 것을 휘어서 억지로 굽게 만든다’라고 한 말과 통한다.

心聞：六月上伏云云者，時節因緣也。以謂不平傳大士，故有此語，前云拗直爲曲也。

송원의 상당¹⁴⁾

“빈손인데 호미를 들었다. 「모기가 무쇠소에 올라탄 격이다.」¹⁵⁾ 걸으며 물소를 타고 있다. 「황하의 강물이 거꾸로 흐른다.」 사람이 다리 위 지난다. 「사나운 호랑이가 길을 지키며 앉아 있다.」¹⁶⁾ 다리 흐르고 물 흐르지 않네. 「부처와 조사가 모두 원수로다.」¹⁷⁾”

어떤 특별한 설명도 필요하지 않다.

14) 이 공안을 제기하고 각 구절에 대한 착어를 달았다.

15) 모기가 무쇠로 만든 소를 진짜 소로 착각하여 피를 빨아 먹으려고 덤비지만 부리가 들어갈 곳이 어디에도 없듯이 부대사의 그 말은 어떤 인식 수단으로도 뚫을 수 없다는 비유이다. 본서 324則 주석7) 참조.

16) 아무도 그 길로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 무쇠소의 비유와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 호랑이는 관문에 단단히 걸려 있는 빗장과도 같다.

17) 부처와 조사에 의지하고 집착하여 해결하지 말라는 뜻. 송원승악은 『松源語錄』 권하 「惠文伯居士請贊」 卍121 p.624a10에서도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마라. 인천 대중의 스승이 되는 안목으로 보면 부처와 조사가 모두 원수이다.”(不著佛求，不著法求。人天眼目，佛祖冤讎。)라고 하였는데, 이

松源, 上堂云, “空手把鋤頭, 蚊子上鐵牛. 步行騎水牛, 黃河水逆流. 人從橋上過, 猛虎當路坐. 橋流水不流, 佛祖是仇讎.”¹⁸⁾

는 황벽(黃蘗)의 다음 말을 활용한 것이다.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중생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아야 하니, 마땅히 어떤 것도 구하지 말아야 한다.”(『宛陵錄』 大48 p.385b2. 夫求法者, 不著佛求, 不著法求, 不著衆求, 應無所求.)

- 18) 부처와 조사에 의지하고 집착하여 해결하지 말라는 뜻. 송원승악은 『松源語錄』 권하 「惠文伯居士請贊」 卍121 p.624a10에서도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 마라. 인천 대중의 스승이 되는 안목으로 보면 부처와 조사가 모두 원수이다.”(不著佛求, 不著法求. 人天眼目, 佛祖冤讎.)라고 하였는데, 이는 황벽(黃蘗)의 다음 말을 활용한 것이다.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에 집착하여 구하지 말고, 법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며, 중생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말아야 하니, 마땅히 어떤 것도 구하지 말아야 한다.”(『宛陵錄』 大48 p.385b2. 夫求法者, 不著佛求, 不著法求, 不著衆求, 應無所求.)



1463칙 婆子燒菴 파자소암



1463칙 파자소암 婆子燒菴¹⁾

[본칙]

옛날 어느 노파가 한 암주(庵主)를 20년 동안 공양하였는데, 항상 딸을 시켜 밥을 보내어 시중들게 하였다. 하루는 딸에게 그 암주를 꺼안고 ‘젊은 여자에게 안긴 기분이 어떠냐’고 묻게 하였다. 그 암주가 ‘마른 고목²⁾이 차가운 바위에 기대어 있으니, 삼동(三冬)에 따스한 기운이 없는 것³⁾과 같소⁴⁾’라고 하였다. 딸이 돌아와 노파에게 사실대로 전하니, 노파는 ‘내가

- 1) 노파가 암자를 불사른 것은 암주의 잘못된 수행법에 대한 질책인 듯이 그려진 것이 이 공안의 효와(譏訛)이다. 암주의 입장을 긍정하는 평가들은 이 효와를 일깨우려는 친절하고 직접적인 지침이다.
- 2) 枯木. 번뇌망상을 모두 비워버린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비유한 말로, 이 청정심에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빈 마음을 지키기만 하는 선법을 고목선(枯木禪)·고목사회선(枯木死灰禪)·무사선(無事禪) 등이라 하여 폄칭(貶稱)한다. 고목선은 수정(修定)에 경도되어 혜(慧)를 상실한 어리석은 선정[痴禪]이며, 활발한 향하(向下)의 응용이 결여되어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점에서 비판된다. 대표적으로 송나라 임제종의 대혜종고(大慧宗杲)는 간화선(看話禪)의 입장에서 묵조선(默照禪)을 비판하였는데, 그 비판의 주요 쟁점은 바로 활발한 작용이 결여된 고목선이라는 점에 있다.
- 3) 무난기(無暖氣), 따뜻한 기운이 없다는 말. 마음이 고요해져 번뇌 망상의 열기가 식었다는 뜻이다. 또는 활기가 없는 선정(禪定)을 비유한다. 여기서는 활발한 선정과 대칭시켜 ‘고목’을 열등한 선법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양자를 모두 관문의 두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20년 동안 저런 속된 놈을 공양하였을 뿐이구나!’라 하고서는 마침내 분명히 일어나 암자를 불태워버렸다.⁵⁾

昔有婆子，供養一庵主，經二十年，常令女子，送飯給侍。一日，令女子抱定云，‘正伊麼如何?’庵主云，‘枯木倚寒岳，三冬無暖氣.’女子歸舉似婆，婆云，‘我二十年，只供養得箇俗漢!’遂發起燒却庵。

[설화]

마른 고목이 차가운 바위에 ~ 기운이 없는 것과 같소 : ‘가지가지 시끄러운 다툼을 벗어나 고요한 세계가 눈앞에 나타난다.’⁶⁾라고 한 뜻과 같다.

내가 20년 동안 저런 속된 놈을 공양하였을 뿐이구나 : 번뇌[習氣]가 제거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4) 이 구절에 대하여 읍은 계송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맞수가 만나서 각각 뛰어난 점을 보이니, 귀신같은 책략을 어찌 다른 사람들이 알도록 허용하리오! 전략을 바꾸며 서로 궁지에 빠뜨려 원한이 그치지 않으니, 가장 독하게 품은 그 마음이 근기 중에 최상의 근기로다.”(『永覺廣錄』 권7 叀125 p.481a11, 敵手相逢各有奇, 神謀豈許外人知! 轉相陷害冤難了, 最毒心腸機上機.); “20년이 되도록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암자를 불태워 버리니 헛수고만 한 꼴이구나. 봄날 따스한 기운에 특별한 것 없다 하니, 그 진실한 말은 역시 본보기가 될 만하다. <횡천행공(橫川行珙)의 계송>”(『頌古聯珠通集』 권40 叀115 p.512b4, 二十年來不具眼, 茅菴燒却是徒爲, 三春暖氣無多子, 眞實之言亦可師.<橫川珙>) 앞의 계송은 노파와 암주가 각각 입각처를 달리 가진 것으로 묘사했고, 뒤의 계송은 주로 암주의 편에서 읍은 것이다.

5) 『密菴語錄』 大47 p.959a13에도 실려 있다.

6) 80권본 『華嚴經』 권38 大10 p.199a14에 나오는 구절. 보살이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성취한 즉시 제8지인 부동지(不動地)로 들어가지만 성문과 벽지불은 미칠 수 없는 경지로 묘사한 말이다.

枯木倚寒巖云云者，離諸喧諍，寂滅現前云云也。我二十年只
供養云云者，習氣不除也。

개암봉의 계송

3천 조목⁷⁾을 다 꿰뚫어 점검해보아도

단죄할 죄목이 하나도 없구나.

오로지 법 밖에서 능지처참할 일일 뿐,

관리를 시켜 점검하게 할 필요 없네.

介庵朋頌，“撿盡三千條貫，更無情罪可斷。除非法外凌遲，不
用差官定驗。”

[설화]

‘암주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라는 뜻이다.

个菴意，菴主有什麼過。

밀암함걸(密庵咸傑)의 거

“이 공안은 총림에서 제기하는 자가 거의 없다. 내가 낮가죽을 바꾸어
부끄러움을 없애고 한 번 잘못 말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제방의 점검을

7) 삼천조(三千條), 고대에 제정되었던 형벌 조목. 묵벌(墨罰) 1천, 의벌(劓罰) 1천,
비벌(劓罰) 5백, 궁벌(宮罰) 3백, 대벌(大辟) 2백 등 5형(刑), 합계 3천 조목이다.
『尙書』「呂刑」참조.

받아보겠다.” 이윽고 대중에게 말했다. “저 노파는 규방 깊숙한 곳에 물 셀 틈도 없이 틀어박혀 있다가, 곧장 고목에 꽃을 피우고 차디찬 바위에서 불꽃을 일으켰다. 그 스님은 홀몸으로 고고하게 커다란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익숙하여 하늘 끝까지 닿는 물결을 아무렇지 않게 잠재우고도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자세히 점검해 보면, 형틀을 부수고 쇠사슬을 끊어버린 결과에 두 사람의 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佛法)으로 말하자면 꿈속에서조차 보지 못한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들어 보인 뜻이 결국엔 어디로 귀착될까?” 잠시 침묵하다가 말하였다. “버들가지 하나도 꺾어 들이지 못하는, 따듯한 봄바람이 옥난간에 솔솔 불어오네.”

密庵傑，舉此話云，“這箇公案，叢林中少有拈提者。傑上座，裂破面皮，不免納敗一上，也要諸方檢點。”乃召大衆云，“這婆子，洞房深遠，水泄不通，便向枯木上糝花，寒嶺中發焰。箇僧，孤身迢迢，慣入洪波，等閑坐斷潑天潮，到底身無涓滴水。子細點檢將來，敲枷打鎖，卽不無二人，若是佛法，未夢見在。烏巨伊麼提持意歸何處？”良久云，“一把柳條收不得，和風搭在玉欄干。”

[설화]

노파는 ~ 고목에 꽃을 피우고 차디찬 바위에서 불꽃을 일으켰다 : 일찍이 규방 깊은 곳에 틀어박혀 떠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차디찬 바위에서 불꽃을 일으켰다[寒嶺中發焰]’는 말에서 바위 암(巖)은 재 회(灰)자를 써서 ‘다 식어버린 재 속에서 불꽃을 피우려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옳다.

그 스님은 ~ 하늘 끝까지 닿는 물결을 아무렇지 않게 잠재우고도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 평소에 커다란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습관처럼 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이다. 비록 이와 같기는 하나, 두 사람 모두 형틀을 부수

고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에서 벗어나 그 이상을 도모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버들가지 하나도 꺾어 들이지 못하는 ~ 솔솔 불어오네 : 사오백 가지 꽃과 버들
핀 마을⁸⁾의 이삼천 곳곳에서 피리와 거문고 소리가 울리는 누각을 표현
한 말이다.

密菴：婆子枯木上糝花云云者，未嘗離洞房深遠云云也。崑字，
當作灰字。菴主坐斷潑天潮云云，未嘗離慣入洪波處也。雖然
如是，兩箇俱未免敲枷打鎖也。一把柳條云云者，四五百條花
柳巷，二三千處管絃樓也。

8) 창기(娼妓)들이 모여 사는 화류항(花柳巷) 또는 유곽(遊廓)을 말한다.



索引 찾아보기



가(歌) 47
가라안(迦羅眼) 301
가방화주(街坊化主) 1194
가비라위성(迦毘羅衛城) 63, 111
가섭(迦葉) 45, 115, 137, 140, 143, 144,
147, 148, 153, 156, 159, 162,
177~184, 188, 190~193, 197, 198
가섭두타(迦葉頭陀·迦葉頭陀) 151, 159
가섭불(迦葉佛) 417, 438
가섭파(迦葉波) 150
가유(假籙) 303
가주대상(嘉州大像) 489
가지(加持) 232
가주(家醜) 102
가태보등록(嘉泰普燈錄) 660, 1122, 1218,
1364
가풍(家風) 182, 344, 398, 514, 567, 568,
571, 646, 650, 653, 655, 665,
667~670, 684, 940, 1112, 1179,
1191, 1194, 1196, 1254
가호(加護) 232
가호(歌豪) 1324
각근(脚跟) 327
각답실지(腳踏實地) 809
각래(却來) 1193
각범(覺範) 288, 535
각범혜홍(覺範慧洪) 239, 287
각상좌(覺上座) 1275
각운(覺雲) 22, 24, 35~37, 51, 233, 278,
310

각주구검(刻舟求劍) 270, 1219
간경안(看經眼) 815
간량사(干良史) 1229
간세(姦細) 184
간시꺠(乾屎橛) 1159, 1160, 1163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 25
간화선(看話禪) 24, 25, 28, 30, 34, 37, 103,
377, 389, 516, 517, 599, 678, 690,
749, 1163, 1297, 1379
간화십종병(看話十種病) 680
갈달(葛怛) 372
갈대꽃 78, 248, 370, 440, 866, 922
갈등(葛藤) 372, 757~760, 1080
갈등과(葛藤窠) 433
갈등과리(葛藤窠裏) 757
감로화왕(甘露火王) 484, 485
감사(監寺) 538, 579, 1269
감승(甘蠅) 1201, 1202
감원(監院) 538, 579, 1269, 1281
감지(甘贄) 770, 771
감지행자(甘贄行者) 769
갑수한(瞋睡漢) 319
갑한(瞋漢) 319
강사(講師) 273
강서(江西) 1145
강태공(姜太公) 687, 1226
개[狗子·犬] 85, 112, 125, 325, 435, 677,
686~693, 696, 699, 841, 1014
개(開) 130
개로상당(開爐上堂) 586

개로일(開爐日) 586
 개복도령어록(開福道寧語錄) 77
 개선사(開善寺) 249
 개선선점(開先善暹) 784, 1247
 개성겁석(芥城劫石) 964, 965
 개시오입(開示悟入) 87, 130
 개암붕(介庵朋) 307, 346, 662, 855, 872,
 885, 911, 1132, 1316, 1381
 개원자기(開元子琦) 223, 475, 1043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 557
 개한(个漢·箇漢·個漢) 641, 1037
 객당(客堂) 1323
 거(擧) 23, 46, 921, 970
 거도자(擧道者) 1323, 1325, 1330
 거별(巨顚) 217
 거북 152, 153, 263, 686, 1031
 거오(巨鼈) 217, 431, 867
 건주처미(虔州處微) 813
 건중정국속등록(建中靖國續燈錄) 49
 건추(健槌·健椎) 177, 418, 770, 1151
 건화문(建化門) 125, 126, 559, 595, 1098
 검소(儉素)와 사치(奢侈) 37, 233
 겁호(劫壺) 929, 930
 겁화(劫火) 800
 격발몽체(激發蒙滯) 304
 격외(格外) 157, 975, 1010, 1079, 1284
 견고안(堅固眼) 301
 견삼루(見滲漏) 938
 견성성불(見性成佛) 60, 599
 결정적인 한 수 64, 125, 350

결족(結足) 238
 겸대(兼帶) 932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23, 45~47, 49,
 72, 73, 79, 86, 101, 112, 142, 146,
 186, 205, 220, 244, 253, 278, 279,
 302, 325, 334, 352, 371, 381, 407,
 419, 420, 427, 430, 442, 459, 468,
 472, 484, 538, 545, 548, 555, 595,
 601, 614, 628, 651, 654, 662, 679,
 684, 686, 693, 743, 748, 775, 779,
 782, 789, 802, 809, 814, 820, 827,
 832, 871, 889, 901, 920, 928, 953,
 971, 975, 1022, 1030, 1042, 1062,
 1097, 1110, 1111, 1121, 1164, 1204,
 1211, 1253, 1265, 1273, 1282, 1291,
 1328, 1336, 1352
 경두대각(擎頭戴角) 560
 경산도함(徑山道欽) 448
 경산종고(徑山宗杲) 691
 경조현자(京兆蜆子) 419
 경청(鏡淸) 665, 666, 668, 1167, 1171,
 1177~1179
 경청도부(鏡淸道愆) 628, 1167, 1177, 1185
 계봉(雞峰) 149, 154
 계봉노(雞峰老) 181
 계수나무(桂樹-) 383, 680, 1292
 계승(契嵩) 268
 계아(季雅) 187
 계족산(雞足山) 149, 172, 181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1153
 고감이(顧鑑叟) 101
 고덕(古德) 840
 고덕(高德) 826

고림청무어록(古林淸茂語錄) 1207, 1341
 고목(枯木) 1379, 1382
 고목법성(枯木法成) 168, 186, 318, 520,
 1034, 1081
 고목사회선(枯木死灰禪) 1379
 고목선(枯木禪) 1379
 고봉어록(高峰語錄) 1246
 고불(古佛) 570, 589
 고승법현전(高僧法顯傳) 115
 고안대우(高安大愚) 799
 고양이 483~485, 490~493, 495, 496,
 498~507
 고염화발(古拈話跋) 35
 고일착(高一著) 1214
 고쟁이 826, 1041, 1042, 1044
 고제선사(古堤禪師) 678
 고종(孤蹤) 258
 고추(古錐) 148
 고향(高皇) 1246
 고향(膏肓) 394, 932, 1011, 1246
 곡림(鵠林) 74
 곡은온충(谷隱蘊聰) 273
 곤륜노(崑侖奴) 94, 291, 469, 470
 곤륜아(崑崙兒) 94, 95
 곤산(崑山) 65
 곤산찬원(崑山贊元) 68, 152, 431, 581
 공(空) 64, 71, 80, 763~765
 공겁(空劫) 930, 964
 공겁이전(空劫以前) 382, 929
 공곡집(空谷集) 27, 197, 291, 335, 489,
 790, 1089~1091

공공시(功功時) 750, 1193, 1200
 공공시(共功時) 750, 1192, 1200
 공규(孔竅) 74, 324
 공기화(空起花) 139
 공덕(功德) 245
 공부(工夫) 1254
 공생(空生) 271
 공수종인(空叟宗印) 227
 공수화상(空叟和尚) 1358
 공안(公案)·[話] 24, 25, 28, 30, 34, 35, 46,
 120, 159, 211, 318, 360, 417, 426,
 427, 431, 461, 467, 470, 579, 592,
 594, 599, 747, 819, 837, 848, 917,
 1013, 1014
 공안집(公案集) 26~28, 36
 공자(孔子) 306, 435, 585, 902, 1202, 1352
 공훈오위(功勳五位) 750, 1192, 1193, 1200
 과거불분위경(過去佛分衛經) 100
 과거칠불(過去七佛) 417
 과거현재인과경(過去現在因果經) 179
 과굴(窠窟) 522
 과당(過堂) 1323
 과량인(過量人) 192
 과문지기(跨門之機) 362
 과지(果地) 581, 582
 과차(果茶) 649
 괘산(霍山) 775, 777~779, 785
 괘산경통(霍山景通) 775
 괘임종(郭林宗) 255
 관건(關鍵) 933, 1013, 1275
 관계(灌溪) 802, 803, 806, 809

관계지한(灌溪志閑) 799, 801

관려자(關振子) 318, 1275

관무량수불경의소(觀無量壽佛經義疏)
489

관문(關門) 24, 32~34, 78, 124, 129, 161,
177, 191, 278, 281, 291, 294, 297,
298, 318, 319, 330, 343, 354, 360,
362, 370, 379, 389, 417, 425, 426,
428, 430, 431, 436, 438, 443, 451,
461, 470, 473, 474, 489, 492, 493,
508, 579, 599, 616, 621, 622, 636,
640, 661, 666, 690, 692~694, 747,
749, 819, 837, 840, 842, 843, 848,
917, 1004, 1009, 1013, 1014, 1021,
1041, 1069, 1137, 1167, 1207, 1261,
1287, 1293, 1317, 1374, 1379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 1152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243

관음(觀音) 147

관음대사(觀音大士) 243, 263, 265

관음원(觀音院) 651, 654

광겁(曠劫) 342

광등록(廣燈錄) 1185

광령조(廣靈祖) 696

광무(廣武) 204

광무제(光武帝) 187, 188

광장설(廣長說) 1254

광제(廣濟) 280

광홍명집(廣弘明集) 278

괘조(卦兆) 452

굉지광록(宏智廣錄) 70, 95, 132, 147, 161,
308, 384, 660, 677, 680, 803, 845,
871, 1062, 1129, 1262, 1293

굉지송고(宏智頌古) 26

굉지정각(宏智正覺) 70, 147, 384, 432,
680, 697, 729, 953, 1062, 1292

교룡(蛟龍) 884

교망(教網) 74, 814

교상판석(敎相判釋) 763

교승(敎乘) 141, 142

교외별전(敎外別傳) 52, 138, 141, 142,
159, 160, 782, 813, 1121

교의(敎意) 1225, 1226, 1229, 1230

교적(敎迹) 45, 46

교화(敎化) 62, 63, 187, 1056

구가집주두보시(九家集注杜甫詩) 383

구곡각운(龜谷覺雲) 24

구당서(舊唐書) 663, 694

구득(構得) 78

구립(久立) 1248

구립진중(久立珍重) 1304

구멍 없는 쇠망치[無孔鐵鎚] 580, 607,
608, 678

구멍 없는 피리[無孔笛] 497, 962

구봉도건(九峯道虔) 1095, 1199

구사론(俱舍論) 193, 235, 589, 1062

구사론기(俱舍論記) 51

구양수(歐陽修) 1324

구원성불(久遠成佛) 62, 95

구장율(九章律) 206, 310

구전금단(九轉金丹) 222

구지(俱胝) 1317

구포지추(九包之雛) 864

구환단(九還丹) 222

굴원(屈原) 1063
 궁원(窮源) 841
 권(權) 268
 권궤(圈櫃) 777, 781, 785
 권형(權衡) 133
 권화(勸化) 1195
 궤범사(軌範師) 298, 984
 궤지(軌持) 144
 귀굴리(鬼窟裏) 1066
 귀종(歸宗) 502, 503, 529~531, 1020, 1194
 귀종사(歸宗寺) 530, 531, 1194, 1195
 귀종의유(歸宗義柔) 1019
 귀종지상(歸宗智常) 52, 79, 530
 규봉종밀(圭峯宗密) 51
 금강경(金剛經) 31, 37, 52, 122, 908
 금강경보주(金剛經補註) 561
 금강경주해(金剛經註解) 561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 792
 금강안(金剛眼) 301, 603
 금강왕보검(金剛王寶劍) 809, 810
 금강장(金剛杖) 390
 금광명경문구(金光明經文句) 212
 금구(金口) 152, 216
 금구(金軀) 100
 금릉(金陵) 245
 금릉보지(金陵寶誌) 197
 금린(錦鱗) 791
 금문(禁門) 691, 692
 금방(金榜) 559
 금비(金篋) 445

금산(金山) 110
 금산요원(金山了元) 30, 109, 826, 1194
 금색가섭(金色迦葉) 183
 금색두타(金色頭陀·金色頭陀) 154, 157,
 182, 183, 187, 188, 191, 193, 325,
 326
 금색세계(金色世界) 179, 181
 금색신(金色身) 63, 100
 금속여래(金粟如來) 1054
 금시(今時) 65, 66, 359, 360, 723, 795, 992,
 1002, 1041, 1043, 1115, 1316
 금시사(今時事) 404
 금시전(金鏃箭) 454
 금오(金烏) 1226
 금우화상(金牛和尚) 975
 금일(今日) 1002, 1118
 금일사(今日事) 286, 381, 382, 402, 615
 금일인(今日人) 419, 953, 954, 956
 금족(禁足) 177, 194, 238
 금털의 사자 1206
 금풍(金風) 1245
 긍정(肯定) 33, 71, 120, 123, 326, 530, 599,
 602, 610~613, 616, 1101, 1218,
 1293
 기공화(起空花) 140
 기관(機關) 104, 160, 389, 544, 654, 665,
 667
 기관선(機關禪) 389
 기득(記得) 921, 969, 970
 기러기 182, 183
 기륜(機輪) 128
 기린(麒麟) 99

기바(耆婆) 212, 225
기봉(機鋒) 862
기사선화(技死禪和) 544
기신론(起信論) 59
기연(機緣) 114
기적자(欺敵者) 666
기주(蘄州) 280
길료(狢獠) 1275, 1276
길상(吉祥) 214
길장(吉藏) 499
끼꼬리 523
꿀 72
꼭다거(喫茶去) 650, 652, 653, 656, 657,
660~663, 665~668, 672

낙칠낙팔(落七落八) 458
낙편의(落便宜) 150
낙포(洛浦) 1101, 1104
낙포원안(洛浦元安) 1101
남극성[南星] 681
남루(南樓) 1263
남명법천(南明法泉) 146, 664, 707
남방(南方) 599
남섬부주(南瞻部洲) 105, 1062
남악(南岳) 75
남악산(南岳山) 293
남악회양(南嶽懷讓) 340, 395, 827

남양혜충(南陽慧忠) 458
남염부제(南閻浮提) 105
남염부주(南閻浮洲) 58
남원어요(南院語要) 1077, 1178

남원혜옹(南院慧顒) 1178
남전(南泉) 427, 467~475, 483~494,
498~504, 507, 543, 546, 548, 747,
749, 757, 758

남전보원(南泉普願) 166, 323, 371, 594,
684, 769, 1318

남전보원어요(南泉普願語要) 262, 749

남종선(南宗禪) 599

남탑(南塔) 1089

납승(納僧) 105, 119, 125, 163, 180, 363,
393, 520, 521, 614, 678

납월삼십일(臘月三十日) 1315

납자(衲子) 105, 119, 133, 363, 536, 583,
641

낭간(琅玕) 236

나귀 127
나귀 똥 689
나라리(囉囉哩) 345
나련야사존자(那連耶舍尊者) 1195
나문결각(羅紋結角) 287
나산(羅山) 1217
나은(羅隱) 215
나타(那吒) 390
나타태자(那吒太子) 390
낙산대불(樂山大佛) 489
낙양(洛陽) 258, 682, 685
낙초지담(落草之談) 517, 1146

낭야(瑯琊) 1323, 1324, 1327, 1330, 1335, 1336, 1339
 낭야혜각(瑯琊慧覺) 108, 219, 293, 823, 1201, 1213
 낭연(狼煙) 605
 낭주(朗州) 747, 750, 752, 755
 낮도둑[白拈賊] 101, 656
 냉좌(冷坐) 255
 노가(奴家) 572
 노견불평(路見不平) 407
 노고추(老古錐) 154, 840
 노년숙덕(老年宿德) 941
 노노(奴奴) 572
 노덕(老德) 840
 노로(老盧) 293, 297
 노비(爐鞴) 1076, 1181
 노숙(老宿) 46, 320, 940, 941, 1051
 노승(老僧) 743, 814, 843, 856, 1073, 1311, 1373
 노이무공(勞而無功) 585
 노자(老子) 70, 257, 269, 1254
 노주(露柱) 389, 408, 473, 497, 520, 969, 1256, 1284, 1290
 노중련(魯仲連) 496
 노지백우(露地白牛) 1311, 1312, 1314, 1315, 1317~1319
 노파(老婆) 861
 노파선(老婆禪) 547, 1159
 노파심(老婆心) 873
 노행자(盧行者) 262
 노호(老胡) 103, 116

녹야원(鹿野苑) 74
 녹원(鹿園) 74
 논어(論語) 435, 451, 568, 776, 902
 논전(論戰) 753
 낯쇠[眞鎗] 303
 누약법사(婁約法師) 247
 눈동자(-瞳子) 163, 164, 267, 268, 649, 1082
 늑담홍영(渤潭洪英) 119
 능가경(楞伽經) 77, 173
 능가경종통(楞伽經宗通) 459
 능가경주해(楞伽經註解) 548
 능(凌)노파 544, 550, 551
 능엄경(楞嚴經) 90, 149, 154, 270, 271, 286, 304, 1110, 1262, 1335
 능엄경종통(楞嚴經宗通) 423
 능행파(凌行婆) 547
 니리세토괴(泥裏洗土塊) 997
 니총지(尼總持) 79

다경(茶經) 656
 다다파화(多哆嚩囉) 433
 다사(多事) 893
 다자탑(多子塔) 115
 다자탑전반분좌(多子塔前半分座) 115
 단견(斷見) 422, 447, 448, 589
 단경(壇經) 152, 262, 278, 285, 301, 333, 334, 340

단공(但空) 764
 단과료(旦過寮) 1323
 단관삭(斷貫索) 1082
 단구(丹丘) 305
 단금사(鍛金師) 183
 단사주(斷蛇珠) 807
 단산(丹山) 1090
 단산조(丹山鳥) 1090
 단설재(斷舌才) 852
 단월(檀越) 1161
 단적(端的) 157, 652, 726
 단전(單傳) 158
 단제(斷際) 867
 단하(丹霞) 502, 503, 567~569, 571, 574,
 575, 579, 580, 582~584, 586~596
 단하송고(丹霞頌古) 26
 단하자순(丹霞子淳) 335, 489, 985, 1050,
 1075, 1096, 1103, 1193, 1212
 단하천연(丹霞天然) 570
 달관담영(達觀曇穎) 273
 달그림자 62, 132, 525, 526, 686, 966
 달마(達磨) 61, 79, 111, 245~249, 254,
 259~261, 263~265, 267, 273, 333,
 713, 852, 961, 1091, 1096, 1097
 달마대사(達磨大師) 60, 76, 103, 141, 143,
 171, 243, 244, 251, 253, 255, 301,
 418, 451, 572, 672, 696, 813, 827,
 1095, 1122, 1221, 1292, 1371
 닭 1225, 1227
 담가과장(擔枷過狀) 121
 담원(談苑) 685
 담주용산(潭州龍山) 73

담판한(擔板漢) 80, 889~891, 893~896
 답산기(踏山記) 249
 답착실지(踏着實地) 1053
 당나귀해[驢年] 348, 444
 당두노인(堂頭老人) 984
 당두화상(堂頭和尚) 984
 당보(唐步) 665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 139
 당행가(當行家) 660
 대(代) 46
 대가섭(大迦葉) 189
 대각(大覺) 802
 대각회련(大覺懷鍊) 213, 388, 469, 488,
 647, 777, 918, 977, 1153, 1244
 대관본초(大觀本草) 568
 대광거회(大光居誨) 975, 1095
 대교약拙(大巧若拙) 1254
 대기(大機) 259, 382, 384, 399, 400, 404,
 409, 410, 412, 1053
 대기대용(大機大用) 383, 384, 1053
 대덕(大德) 889
 대면천리(對面千里) 1159
 대반야(大般若) 580
 대반야경(大般若經) 77, 449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89, 114, 138,
 153, 198, 203, 214, 379, 433, 446,
 648, 694, 696, 716, 867, 1180, 1255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 446
 대반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 139
 대방등대집경(大方等大集經) 53
 대방지가(大方之家) 568

대법천왕(大梵天王) 139
 대법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經) 115, 139, 140
 대별(代別) 47
 대보적경(大寶積經) 548
 대비바사론(大毘婆沙論) 47
 대사(大士) 257, 1054
 대사(大死) 961
 대사(大事) 379, 380, 901
 대산관(大散關) 432
 대상(大象) 70, 71
 대선불(大禪佛) 779, 780, 785
 대소대(大小大) 262
 대소운문(大小雲門) 112
 대송승사략(大宋僧史略) 919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59
 대승의장(大乘義章) 137, 477
 대승입능가경(大乘入楞伽經) 277
 대승장엄경론(大乘莊嚴經論) 89
 대아(大我) 89
 대야(大冶) 430
 대양경현(大陽警玄) 273
 대양삼구(大陽三句) 78, 546
 대어(代語) 47, 782, 793, 806, 814, 815, 875, 1006, 1044, 1045
 대용(大用) 383, 384, 389, 390, 399, 400, 404, 409, 410, 412, 1053, 1213
 대용현전(大用現前) 146
 대우(大愚) 861~863, 865, 867, 871, 874
 대우수지(大愚守芝) 639, 912
 대웅(大雄) 429

대웅봉(大雄峰) 388, 396, 398, 429, 431, 437
 대웅산(大雄山) 392, 429, 440, 443
 대원경지(大圓鏡智) 87
 대위(大滯) 639
 대위모철(大滯慕喆) 574
 대위회수(大滯懷秀) 1079
 대유령(大庾嶺) 146, 333, 334, 391
 대의(大意) 861~863, 871
 대인경계(大人境界) 179, 183, 193, 194
 대일경소(大日經疏) 89
 대일경의석연밀초(大日經義釋演密鈔) 53
 대자재천(大自在天) 204, 1158
 대자환중(大慈懷中) 638
 대장경(大藏經) 529, 530, 699, 815
 대장부(大丈夫) 436, 560, 561, 691, 713, 864, 866
 대장엄론경(大莊嚴論經) 1041
 대적웅봉(大寂雄峯) 388
 대전보통(大顯寶通) 220
 대전삼배(大展三拜) 197
 대주혜해(大珠慧海) 1062
 대지도론(大智度論) 137, 139, 449, 706
 대천사계(大千沙界) 302
 대천세계(大千世界) 60, 61, 96, 720
 대체대용(大體大用) 801
 대충(大蟲) 1112, 1113
 대통(大通) 244, 249
 대혜(大慧) 63, 65, 71, 88, 132, 555, 853
 대혜어록(大慧語錄) 48, 60, 61, 70, 72, 77, 88, 130, 166, 187, 190, 194, 213,

- 215, 223, 418, 468, 499, 505, 523,
545, 556, 575, 580, 601, 607, 668,
673, 678, 706, 841, 881, 882, 908,
922, 1074, 1129, 1318, 1371
- 대혜종교(大慧宗杲) 36, 72, 102, 119, 130,
157, 190, 197, 308, 309, 329, 345,
395, 411, 441, 451, 455, 457, 523,
524, 547~549, 601, 604, 605, 616,
660, 668, 691, 706, 725~727, 759,
847, 851, 881, 885, 891, 896, 928,
932, 942, 966, 1005, 1025, 1054,
1074, 1082, 1112, 1129, 1141, 1157,
1161, 1196, 1219, 1246, 1288, 1290,
1292, 1326, 1327, 1346, 1352, 1371,
1379
- 대홍보은(大洪報恩) 93, 145, 146, 215,
252, 291, 292, 424, 425, 450, 501,
681, 682~684, 806, 882, 909, 1011
- 대환단(大還丹) 222
- 대활(大活) 961
- 덕산(德山) 29, 65, 502, 503, 881, 907, 908,
910~912, 919, 981, 985, 987, 1213,
1289
- 덕산방(德山棒) 907
- 덕산삼구(德山三句) 78, 546
- 덕산연밀(德山緣密) 1127
- 덕성(德誠) 789, 795
- 덕성선사(德誠禪師) 790
- 덕소(德韶) 1239
- 덕소국사(德昭國師) 537, 538
- 덕운비구(德雲比丘) 1168
- 도경화종(刀耕火種) 1037
- 도독고(塗毒鼓) 203~207, 214, 410
- 도독 101, 162, 483, 486, 508, 524, 525, 856,
857, 977, 1187
- 도독질 309, 310, 525, 785, 1005, 1006,
1352
- 도득팔성(道得八成) 1230
- 도라면(兜羅綿) 149
- 도라면수(兜羅綿手) 149
- 도략(韜略) 611
- 도명선사(道明禪師) 333
- 도부(道副) 79
- 도사천(觀史天) 88
- 도사타(觀史陶) 58
- 도서(都序) 52
- 도솔(兜率) 57
- 도솔천(兜率天) 57~60, 62~65, 68~70,
77~79, 88, 111, 130
- 도솔타(兜率陶) 58
- 도솔홍(兜率鴻) 474
- 도신(道信) 277
- 도연명(陶淵明) 1325
- 도오(道吾) 789
- 도오오진(道吾悟眞) 88
- 도육(道育) 79
- 도옹(道膺) 947
- 도잠(陶潛) 257
- 도적(盜賊) 931, 932, 1338
- 도중수용(途中受用) 368
- 독(毒) 72, 211
- 독사(毒蛇) 672, 673
- 독성인(獨醒人) 1063
- 독좌대웅봉(獨坐大雄峰) 388
- 돌(咄) 121, 151, 345, 356, 395, 882, 884,
909

- 돌호랑이[石虎] 99
 동경(東京) 258
 동계선생집(東溪先生集) 1222
 동곽자(東郭子) 1161
 동금강(銅金剛) 910, 911
 동림상총(東林常總) 151, 216, 349, 391,
 403, 429, 493, 653, 867, 1272
 동림운문송고(東林雲門頌古) 654, 1109
 동반(同盤) 955
 동방삭십주기(東方朔十州記) 1191
 동봉암주(桐峯庵主) 975
 동부(洞府) 397
 동사여회(東寺如會) 748
 동산(東山) 518, 523, 524, 927, 932, 937,
 940, 947, 953, 1049, 1052, 1127,
 1358
 동산삼구(洞山三句) 78, 546
 동산수초(洞山守初) 852, 1030
 동산양개(洞山良价) 511, 628, 750, 852,
 937, 938, 1033, 1102
 동산어록(洞山語錄) 370, 852, 922, 928,
 938, 1102, 1200
 동산혜공화상어(東山慧空和尚語) 908
 동상고철(洞上古轍) 937
 동안(同安) 1211
 동안도비(同安道丕) 1191, 1192
 동안상찰(同安常察) 1199
 동장주(東藏主) 1005
 동정산(洞庭山) 494
 동정호(洞庭湖) 494, 682, 685
 동중서(董仲舒) 1316
 동진주(童眞住) 232
 동토(東土) 115, 1097
 동해(東海) 518, 519
 두견(杜鵑) 97, 318
 두구비야(杜口毘耶) 94
 두꺼비 672, 673
 두둑(杜鵑) 187, 188
 두묵(杜嘿) 1324, 1325
 두보(杜甫) 383, 639, 680, 1102, 1292
 두선(杜宣) 1275
 두선화(杜禪和) 487
 두순학(杜荀鶴) 75
 두우(斗牛) 491
 두찬(杜撰) 1324, 1325
 두찬선화(杜撰禪和) 487
 두타제일(頭陀第一) 151, 183
 두타행(頭陀行) 115
 둔재한람(遯齋閑覽) 1324
 득과 실[得失] 1041, 1261~1263, 1265
 들오리 196, 367~369, 372
 등고수도(藤枯樹倒) 969
 등기자(登機者) 666
 등룡(燈籠) 389, 408, 473, 497, 520, 521,
 1030, 1284
 등왕(燈王) 234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 451, 674,
 852

람비니(藍毘尼) 91
 래기경정(來機徑廷) 255
 룸비니 103
 리(離) 379, 695, 729, 801, 1141, 1287

마가다국 94, 95, 111, 115, 545
 마갈령(摩竭令) 94
 마고(麻姑) 288
 마구(馬駒) 395
 마구니 1211
 마니(摩尼) 991
 마니주(摩尼珠) 547, 548
 마른 똥막대기[乾屎橛] 1157, 1161~1164
 마삼근(麻三斤) 100
 마야(摩耶) 111
 마야부인(摩耶夫人) 88, 103, 111, 113
 마조(馬祖) 278, 339, 340, 343, 344,
 346~349, 353, 359, 361, 363, 367,
 368, 372, 377~382, 383, 384,
 387~392, 394~396, 399~401, 405,
 406, 409~413, 536, 601, 602, 604,
 606, 608, 612, 613, 615, 801, 1053,
 1062
 마조대사(馬祖大師)·[馬大師] 351, 356,
 600, 1122
 마조도일(馬祖道一) 323, 377, 555, 827,
 1069
 마조어록(馬祖語錄) 396, 1122

마하가섭(摩訶迦葉) 138, 144, 183
 마하반야초경(摩訶般若鈔經) 548
 마하살타(摩訶薩埵) 243
 마혜수라(摩醯首羅) 204, 1158, 1159
 마후여전(馬後驢前) 922, 1082
 만년(萬年) 524
 만리무춘초(萬里無寸草) 1033
 만법(萬法) 286, 339, 340, 342, 346,
 349~351, 356, 555, 831
 만송(萬松) 706
 만송행수(萬松行秀) 179, 180, 248, 433,
 705, 748
 만수실리(曼殊室利) 216
 만인(滿人) 1180
 만참(晩參) 1328
 말산(末山) 799, 802, 803, 805~807, 809,
 810
 말해[馬年] 444
 말후구(末後句) 35, 62, 64, 65, 96, 117,
 383, 471, 801
 말후이태과(末後已太過) 70
 말후일구(末後一句) 661
 말후일구자(末後一句子) 63, 130
 망상(妄想) 535~539
 망아지 340, 361, 395
 망주정(望州亭) 995
 매계집(梅溪集) 140
 매미 30, 109, 120
 매화(梅花) 146, 391, 392, 605, 874, 1097
 매화령(梅花嶺) 146
 맥로(驀路) 441

- 맹광(孟光) 770
- 맹귀경(盲龜經) 153
- 맹려(盲驢) 871
- 맹민(孟敏) 255
- 면벽(面壁) 253, 259, 1091
- 면벽좌선(面壁坐禪) 255
- 멸빈(滅摵) 177
- 멸호족(滅胡族) 691
- 명상좌(明上座) 333, 334
- 명수(名數) 270
- 명월주(明月珠) 991
- 명주(明珠) 991
- 명초(明招) 469, 984, 985, 1248
- 명초덕겸(明招德謙) 467, 782, 1220, 1243
- 명추백사(鳴椎白事) 1151
- 모기 473, 599, 600, 602, 1074, 1374
- 목두(木頭) 1239, 1240
- 목마(木馬) 390
- 목불(木佛) 502, 503, 579, 580, 582~586, 588, 590, 592, 593, 595
- 목암법충(牧庵法忠) 158, 660, 713, 1255
- 목주(睦州) 889~891, 893, 894, 896, 901, 1139~1142, 1228
- 목주도명(睦州道明) 862, 889
- 목징구거(目瞪口呿) 192, 671
- 목환자(木樵子) 1083
- 물가파(沒可把) 468
- 물도리처(沒道理處) 668
- 물봉하(沒縫罅) 549
- 물분외(沒分外) 260
- 몰자미(沒滋味) 33, 34, 52, 127, 133, 199, 345, 350, 432, 448, 516, 647, 657, 668, 669, 678, 686, 716, 907, 922, 923, 1014, 1137, 1157, 1159, 1251, 1317, 1357
- 몰蹤적(沒蹤迹) 663, 795
- 몰파비(沒巴鼻) 52
- 묘공불해(妙空佛海) 1252
- 묘관찰지(妙觀察智) 87
- 묘길상(妙吉祥) 214
- 묘봉(妙峯·妙峰) 1167~1169
- 묘족(妙足) 58
- 묘지광(妙智廓) 307, 526, 1263
- 묘희(妙喜) 119, 120
- 묘희세계(妙喜世界) 1151, 1152
- 무(無) 71, 448, 681~684, 686, 688, 690, 695, 696, 1035, 1111
- 무가(無價) 1226
- 무고무필(母固母必) 776
- 무공용(無功用) 232, 1200
- 무공적(無孔笛) 962
- 무공철추(無孔鐵鎚) 191, 607, 678, 680, 689
- 수염 없는 자물쇠[無鬚鎖子] 70
- 무구칭(無垢稱) 271
- 무다자(無多子) 861, 866
- 무량수(無量壽) 489, 490
- 무루지(無漏智) 87
- 무명혜경어록(無明慧經語錄) 709
- 무명혜성(無明慧性) 580
- 무명혜성어록(無明慧性語錄) 580

무문관(無門關) 27, 53, 165, 287, 290, 471, 712
 무문송고(無門頌古) 26
 무문인자(無文印子) 382
 무문혜개(無門慧開) 287, 290, 712
 무미답득(無味答得) 1251
 무미답화(無味答話) 1251
 무미지담(無味之談) 1030, 1251
 무미지어(無味之語) 1138
 무분별(無分別) 754
 무사(無事) 430, 706, 719, 1006, 1015, 1081, 1084, 1131
 무사선(無事禪) 1379
 무삽자처(無挿觜處) 863
 무생(無生) 167, 1127, 1217, 1273
 무생멸(無生滅) 1127
 무생법인(無生法忍) 1076, 1380
 무소식(無消息) 397, 663
 무쇠소[鐵牛] 473, 489, 599, 600, 602, 603, 966, 1074, 1374
 무시개심(無示介諶) 525
 무시개심화상어(無示介諶和尚語) 525
 무심(無心) 433, 627, 628, 1293
 무아(無我) 499
 무왕벌주평화(武王伐紂平話) 687
 무외변(無畏辨) 421
 무용정전(無用淨全) 760, 1289
 무우수(無憂樹) 91, 103, 122
 무위(無爲) 49, 555, 556, 558, 693, 791, 1173, 1335
 무위자(無爲子) 159, 606, 714, 893, 1272

무위진인(無位眞人) 937, 938, 1346
 무의미처(無意味處) 668
 무의자(無衣子) 23, 24, 49, 51, 181, 278, 1110
 무자(無字) 678, 680, 698
 무자미언구(無滋味言句) 1304
 무자인(無字印) 382
 무자화두(無字話頭) 680, 690
 무제(武帝) 244~249, 260, 263~265, 823
 무진거사(無盡居士) 59, 105, 159, 398, 445, 498, 550, 584, 781, 873, 886, 912
 무차별(無差別) 66, 166, 381, 518, 519, 523, 543, 569, 595, 754, 800, 932, 1002, 1057, 1192, 1200, 1201, 1261, 1283
 무착(無著) 350
 무창류(武昌柳) 714
 무파미(無巴鼻) 384, 551
 무한(無限) 1171
 묵지(墨池) 530, 531
 문공가례(文公家禮) 95
 문리출신(門裏出身) 161
 문변(文辨) 1252
 문불가점(文不加點) 170
 문수(文殊) 141, 177~184, 188~193, 195, 197, 198, 212, 214, 217~219, 221~223, 225~227, 271
 문수반야경(文殊般若經) 127
 문수보살(文殊菩薩) 211, 350, 1168
 문수사리(文殊師利) 179, 189, 216
 문암(聞庵) 302

문원(文遠) 371
문자상철우(蚊子上鐵牛) 600
문황(文皇) 280
미두(米頭) 781
미륵(彌勒) 147, 1022
미륵보살(彌勒菩薩) 750, 1022
미소(微笑) 137, 143, 145~148, 153, 155,
156, 158~160, 170, 171, 244
미종(迷蹤) 287
밀계(密契) 141, 158
밀부(密付) 45
밀암어록(密菴語錄) 476, 1380
밀암합결(密庵咸傑) 198, 346, 444, 563,
693, 713, 872, 1381

발라랑(鉢囉娘) 1357, 1359
발란반정(撥亂反正) 90
발몽(發蒙) 304
발무인과(撥無因果) 447, 589
방(放) 529, 568, 570
방(棒) 29, 105, 127, 129, 221, 411, 881,
907, 909~912, 920, 1213
방개(放開) 530
방개일선(放開一線) 612
방거사(龐居士) 339, 340, 345~349, 356,
390, 555~557, 563, 564, 567~569,
571, 573, 574, 1054
방거사어록(龐居士語錄) 339, 340, 555
방(放)과 수(收) 530
방과일착(放過一着) 196
방광반야경(放光般若經) 246, 269
방약무인(傍若無人) 297
방인문호(傍人門戶) 1311
방편(方便) 203, 206, 268, 360, 388, 504,
612, 1052, 1098, 1244
방하무생인(棒下無生忍) 1076
방행(放行) 71, 329, 369, 377, 380, 383,
404, 530, 531, 801, 821, 1140,
1243, 1244
배(背) 592, 891, 892, 1292
배촉(背觸) 1288, 1290, 1293
배촉관(背觸關) 148, 379, 380, 569, 593,
636, 731, 838, 891, 1146, 1211,
1287, 1289
백납산수가사(百衲山水袈裟) 830, 831
백대겁(百大劫) 124
백로(白鷺) 523, 922

바수밀녀(婆須密女) 484
반본환원(返本還源) 1102
반산(盤山) 516~518, 520~525
반산보적(盤山寶積) 32, 511, 1050
반야경(般若經) 269
반야다라(般若多羅) 361
반야다라기(般若多羅記) 827
반야다라삼장(般若多羅三藏) 395
반원문(返源門) 1365
반인(半人) 1180
반전(反轉) 32, 64, 323, 417, 470, 630
반척(返擲) 394
발동연진(撥動煙塵) 487

백록동(白鹿洞) 529, 530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529

백마담조(白馬曇照) 623

백면랑(白面郎) 572

백발백중(百發百中) 918

백봉(白鳳) 99

백설유음(白雪遺音) 562

백설조(百舌鳥) 1089, 1090

백수본인(白水本仁) 1073, 1083

백수자(柏樹子) 100

백안(白眼) 770

백염적(白拈賊) 101, 657

백운경한(白雲景閑) 791

백운법연(白雲法演) 262

백운법연어록(白雲法演語錄) 52

백운수단(白雲守端) 164, 868, 876, 1345

백운수단광록(白雲守端廣錄) 95

백운수단어록(白雲守端語錄) 77, 869

백운수단화상어(白雲守端和尚語) 132,
721

백운어록(白雲語錄) 791

백운지병(白雲知晷·白雲知昴) 103, 133,
159, 226, 326, 397, 413, 458, 497,
579, 580, 594, 729, 672, 897, 1033,
1063, 1162

백장(百丈) 369, 377~384, 387, 388,
394~396, 398~401, 403~405,
407~410, 411~413, 417, 418,
420~423, 425, 426, 429, 431, 435,
437, 439, 442, 444, 446, 447, 454,
455, 457, 462, 628, 713, 801

백장도상(百丈道常) 1303

백장산(百丈山) 388, 429, 438, 443

백장어록(百丈語錄) 381

백장청규(百丈淸規) 197, 671

백장회해(百丈懷海) 367, 377, 1211

백척(百尺) 750, 751

백척간두(百尺竿頭) 401, 747, 749, 750,
753, 754~760, 804, 840, 1147

백추(白槌·白椎) 141, 177, 179, 192, 1151,
1153

백토(白土) 647, 648

백 502, 503, 556, 557, 563, 564, 580, 686

번신(翻身) 323, 911

번신활명(翻身活命) 323

번역명의집(翻譯名義集) 51

벌방(罰棒) 1329

범린(凡鱗) 791

범부(凡夫) 359, 563, 743, 929, 1159

범왕천(梵王天) 821

범천왕(梵天王) 139

법계도기총수록(法界圖記叢隨錄) 512

법계연기(法界緣起) 236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 130

법공(法空) 1020

법구경(法句經) 535

법등(法燈) 783

법령(法令) 94, 182, 183, 187~189, 196,
197, 360, 493, 506, 545, 641, 1244

법륜(法輪) 75

법성사(法性寺) 285, 327

법수(法數) 1203

법신(法身) 1089
 법아(法我) 89
 법안(法眼) 52, 110, 636, 783, 939, 1261,
 1270~1273, 1276
 법안문의(法眼文益) 64, 109, 538, 823,
 1269
 법안어록(法眼語錄) 64, 451
 법안종(法眼宗) 823
 법연(法演) 1358
 법연권화(法緣勸化) 769
 법운족론(法蘊足論) 87
 법운악(法雲岳) 663
 법전(法戰) 753
 법중왕(法中王) 123
 법진수일(法眞守一) 120, 151, 217, 254,
 299, 320, 363, 432, 483, 575, 629,
 654, 689, 712, 771, 779, 846, 867,
 1080, 1114, 1170, 1181, 1273, 1368
 법창의우(法昌倚遇) 298, 321, 322, 1312
 법창의우어록(法昌倚遇語錄) 1312
 법출간생(法出姦生) 1316
 법혜굉덕(法慧宏德) 1252
 법화경(法華經) 23, 62, 95, 114, 130, 137,
 138, 207, 881, 1115, 1153, 1213,
 1311
 법화경대관(法華經大觀) 53
 법화문구기(法華文句記) 214
 법화의기(法華義記) 138
 법화전거(法華全舉) 1323
 법화칠유(法華七喻) 114
 법화현의(法華玄義) 46, 131, 763

법화현의석침(法華玄義釋籤) 433
 베적삼 467, 469, 472, 474, 477, 824~826,
 830
 벽립(壁立) 180
 벽립만인(壁立萬仞) 354
 벽립천인(壁立千仞) 61, 612, 1238
 벽안(碧眼) 258
 벽암록(碧巖錄) 27, 36, 65, 75, 101, 131,
 192, 213, 246~248, 321, 347,
 367, 368, 381, 383, 396, 422, 486,
 487, 580, 646, 722, 743, 801, 813,
 961~964, 997, 1030, 1104, 1167,
 1202, 1225, 1252
 벽지불인연론(辟支佛因緣論) 115
 변벽(卞壁) 169, 1326
 변진법사(辨眞法師) 278
 변화(卞和) 169, 492, 688, 851
 별(別) 46
 별봉보인선사어(別峰寶印禪師語) 171
 별세계(別世界) 929
 별어(別語) 47, 814, 815, 1064
 별유생애(別有生涯) 1079
 별전(別傳) 141, 1121
 별천지(別天地) 562, 929, 930
 별희별진(瞥喜瞥嗔) 1346
 병불(秉拂) 1005, 1082
 병불오두수(秉拂五頭首) 1005
 병정동자(丙丁童子) 1269~1272, 1275
 보검(寶劍) 213
 보광법당(普光法堂) 378
 보령(保寧) 106

보령수(保寧秀) 219, 348, 585, 607, 623,
687, 1012

보령인용(保寧仁勇) 98, 124, 151, 216,
256, 299, 344, 390, 472, 491, 492,
579, 589, 840, 868, 903, 930, 982,
1114, 1227, 1237

보령인용어록(保寧仁勇語錄) 505

보림본(寶林本) 116, 521, 920

보림사(寶林寺) 285

보림전(寶林傳) 49, 115, 255

보복(保福) 984, 1167, 1171, 1172

보복종전(保福從展) 310, 500, 663, 1167

보살대사(菩薩大士) 243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 243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 750

보설(普說) 23, 26, 851, 896, 1161, 1264

보성론(寶性論) 277

보속고승전(補續高僧傳) 46

보신(報身) 1090

보신불(報身佛) 582

보요경(普耀經) 85, 86

보은현칙(報恩玄則) 1269

보응(寶應) 1238

보자선사(報慈禪師) 679

보조지눌(普照知訥) 25

보주(普州) 508

보처보살(補處菩薩) 1054

보현(普賢) 179, 193, 195

보협인다라니경(寶篋印陀羅尼經) 178

보화(普化) 428, 429, 875, 1159

복건성(福建省) 669

복분(覆盆) 975

복분암주(覆盆庵主) 975

복선(覆船) 1001, 1002

복숭아꽃 392

본래(本來) 1002, 1118

본래면목(本來面目) 104, 333, 334, 585,
623, 881, 1161, 1311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278

본래사(本來事) 381

본래인(本來人) 286, 419, 585, 953, 954,
956, 1161

본분(本分) 65, 66, 74, 75, 118, 169, 347,
354, 359, 360, 363, 403, 456, 468,
602, 612, 622, 641, 715, 723, 728,
755, 795, 845, 870, 992, 1002,
1011, 1012, 1041~1043, 1045,
1052, 1098, 1115, 1153, 1157, 1160,
1293, 1294, 1298

본분가풍(本分家風) 665

본분사(本分事) 102, 114, 125, 126, 128,
370, 381, 382, 404, 409, 412, 517,
590, 613, 723, 765, 766, 829, 930,
963, 981, 996, 1030, 1049, 1054,
1129, 1269, 1274, 1289, 1328, 1351,
1357, 1371

본불(本佛) 62

본색(本色) 586

본색납승(本色衲僧) 845

본색인(本色人) 586

본색작가(本色作家) 845

본색종사(本色宗師) 845

본색한(本色漢) 586, 588

본연거사(本然居士) 348, 399, 498

- 본원(本源) 1064, 1102, 1127
 본인화상(本仁和尙) 1078, 1084
 본지풍광(本地風光) 104
 본체[體] 821
 봄바람[春風] 120, 215, 902, 956
 봉규(鋒規) 505
 봉황(鳳凰) 99, 864, 865, 940, 1089, 1090
 봉황대(鳳凰臺) 258
 부단공(不空) 764
 부대사(傅大士) 247, 1363, 1366, 1370, 1373, 1374
 부동지(不動智) 179
 부득(不得) 610, 611, 1294
 부모미생전(父母未生前) 98, 382, 881, 1115
 부배(浮盃) 543, 545~548
 부법장인연전(付法藏因緣傳) 149
 부산법원(浮山法遠) 247
 부상좌(浮上座) 308, 309, 315
 부자합집경(父子合集經) 484
 부정(否定) 33, 71, 120, 123, 326, 530, 599, 602, 610, 612, 613, 616, 1101, 1218, 1293, 1367
 부존궤칙(不存軌則) 72, 146
 부즉(不卽) 666
 부처 180, 184, 186, 189, 224, 225, 635, 852, 907, 937~940, 942, 1157, 1225, 1251, 1374
 북두칠성(北斗七星) 70, 71, 681
 북선(北禪) 219, 1312, 1316~1319
 북선지현(北禪智賢) 1311
 분별(分別) 342, 433, 438, 494, 503, 573, 594, 599, 612, 678, 722, 839, 963, 1014, 1083, 1128, 1163, 1207
 분별심(分別心) 392
 분별의식[情識] 1342
 분세(分歲) 1311, 1312, 1317
 분양(汾陽) 119, 538, 539
 분양삼구(汾陽三句) 78, 546
 분양선소(汾陽善昭) 185, 386, 832, 839, 1323
 분양송고(汾陽頌古) 26
 분양어록(汾陽語錄) 47, 119, 132, 171, 185, 567, 781
 분양화상(汾陽和尙) 853
 분주(汾州) 402~404, 409, 536, 537
 분주무업(汾州無業) 535, 538
 분주선소(汾州善昭) 243, 402
 불가(不可) 1294
 불가설불가설(不可說不可說) 231, 234
 불감혜근(佛鑑慧勲) 154, 258, 263, 303, 372, 729, 1338
 불공(不空) 764
 불과격절록(佛果擊節錄) 639, 1139
 불과극근(佛果克勤) 100
 불락(不落) 417, 418, 422~436, 438, 439, 441~443, 445, 448, 451, 453, 455, 457, 460
 불락계급(不落階級) 1203
 불락궁상(不落宮商) 155
 불리(不離) 666
 불립문자(不立文字) 138, 142, 159

불매(不昧) 417, 418, 422~439, 441, 443,
 445, 448, 451, 453, 455, 457, 460
 불모출생반야경(佛母出生般若經) 272
 불물(不物) 1162
 불방과(不放過) 469
 불법(佛法) 861, 866, 871
 불병(佛病) 635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 72, 88, 179
 불사문(佛事門) 595
 불식미모(不惜眉毛) 409, 1082
 불설일자(不說一字) 77
 불성(佛性) 677~679, 681, 682, 685~693,
 696, 699, 701
 불식(不識) 258, 263, 267
 불심(不審) 919, 1303, 1304
 불심인(佛心印) 244
 불심재화상어(佛心才和尚語) 234
 불심천자(佛心天子) 247
 불안어록(佛眼語錄) 166, 471, 592, 993,
 1284
 불안청원(佛眼淸遠) 154, 170, 195, 235,
 238, 303, 327, 336, 356, 373, 393,
 408, 440, 453, 477, 496, 592, 613,
 660, 721, 723, 871, 1264
 불이마(不伊麼) 807
 불이법(不二法) 94, 222, 271
 불인(不人) 1162
 불인요원(佛印了元) 470
 불인지청(佛印智淸) 301, 369
 불일(佛日) 1009
 불자(拂子) 224, 225, 261, 292, 321, 322,

324, 360, 377, 379, 380, 383, 386,
 387, 391, 393, 394, 397~399, 401,
 404, 410, 456, 457, 526, 631, 718,
 719, 730, 731, 765, 770, 801, 923,
 1083
 불적기(佛跡琪) 156
 불적성흔(佛跡成痕) 144
 불전(佛殿) 408
 불조심인(佛祖心印) 244, 382
 불조역대통재(佛祖歷代通載) 183, 327,
 379, 780, 908
 불조전심계(佛祖傳心偈) 87
 불조통기(佛祖統紀) 183, 1195
 불지(佛地) 239
 불지견(佛知見) 130, 131
 불착(不錯) 437
 불타덕遜(佛陀德遜·佛陀德遜) 123, 431,
 779
 불타제수(不墮諸數) 927
 불해석계심월(佛海石溪心月) 630
 불해할당어록(佛海晴堂語錄) 263
 불회(不會) 263, 267, 437
 붉은 수염의 달마[赤鬚胡] 346
 비공(鼻孔) 75, 954, 1160, 1292
 비공요천(鼻孔撩天) 292, 623
 비마암(秘魔崙) 775~778, 780, 782~785,
 1288, 1289
 비목구사(毘目瞿沙) 232
 비목선인(毗目仙人) 231, 233, 236, 238
 비바시불(毘婆尸佛) 183
 비부불생기자(非父不生其子) 575
 비심비불(非心非佛) 1069

비야리성(毗耶離城) 221, 222
 비원(悲願) 1055
 비위(飛衛) 1201
 비장방(費長房) 562
 비창(埤倉) 303
 빈중빈(賓中賓) 937
 빈중주(賓中主) 937
 빈출(擯出) 177
 빗장 33, 34, 161, 318, 319, 330, 428, 819,
 840, 1374
 빙무산(憑茂山) 1358
 빛과 경계(境界) 511~513, 515, 516,
 518~522, 524, 526

사마광(司馬光) 809
 사마귀 30, 109, 110, 120
 사면초가(四面楚歌) 977
 사바세계주(娑婆世界主) 139
 사병전기(寫瓶傳器) 379
 사분율(四分律) 177
 사비삼구(師備三句) 78, 546
 사빈주(四賓主) 800, 937, 1033, 1327
 사사(似事) 1153
 사사무애(事事無礙) 60, 61
 사삼랑(謝三郎) 710, 392, 1121
 사상(四相) 63, 87
 사생(四生) 47, 539, 1239, 1240
 사생육도(四生六道) 195, 235
 사선천(四禪天) 885
 사성계급(四姓階級) 86
 사성제(四聖諦) 87
 사숙(師叔) 1323
 49년(四十九年) 61, 74, 76, 77, 94, 95, 103,
 144
 사씨(謝氏) 1121, 1122
 사우(四隅) 93
 사유(四維) 93
 사유수(思惟修) 51
 사유수습(思惟修習) 51
 사유정(思惟定) 51
 사자(師子·獅子) 87, 394, 395, 424, 425,
 435, 489, 558, 841, 880, 1014, 1228
 사자좌(獅子座) 234
 사자후(師子吼) 86, 113, 1160

사고(師姑) 727
 사구(死句) 31~33, 403, 686
 사기(史記) 204, 439, 497, 753, 780, 808,
 977
 사대(思大) 1364
 사대주(四大洲) 58, 96
 사덕(四德) 478
 사도봉불(捨道奉佛) 246
 사라쌍수(娑羅雙樹) 74
 사랑(謝郎) 710
 사령운(謝靈運) 397
 사리(舍利) 579
 사립문(- 門) 418, 423, 441, 453
 사마(駟馬) 450

사진사(余田詞) 1037
 사제(四諦) 646
 4조(四祖) 277, 749
 사조(沙鳥) 370
 사지(四智) 87
 사치(奢侈) 233
 사칠(四七) 115
 사한(死漢) 1170
 사할(四喝) 881
 사해오호(四海五湖) 748
 사회외도(事火外道) 179
 삭가라안(爍迦羅眼)·[金剛眼] 301, 1316
 산관(散關) 432
 산당승순선사어(山堂僧洵禪師語) 61
 산문(山門) 912
 산승(山僧) 168, 170, 264, 320, 355, 404,
 539, 593, 721, 765, 784, 815, 828,
 851, 1315, 1367, 1373
 산음야설(山陰夜雪) 714, 715
 산해경주(山海經注) 568
 살(殺) 602
 살인도(殺人刀) 384
 살인수견혈(殺人須見血) 75
 살활(殺活) 483, 1314
 삼각총인(三角總印) 829
 삼경(三更) 370
 삼교지승(三交智嵩) 247
 삼구(三句) 78, 422, 546, 628
 삼국지(三國志) 663
 삼대(三臺) 106, 300
 삼도(三島) 257, 1075
 삼도(三途) 477
 삼도팔난(三途八難) 235
 삼독(三毒) 179, 1110
 삼돈방(三頓棒) 866, 870, 872, 874, 1329
 삼략(三略) 611
 삼문(三門) 912, 913
 삼봉(三峰) 947
 삼봉산(三峰山) 947
 삼사(三事) 177
 삼산(三山) 257
 삼산등래(三山燈來) 753
 삼생육십겁(三生六十劫) 563, 564
 삼성(三聖) 802
 삼성혜연(三聖慧然) 802, 871, 872
 삼 세 근[麻三斤] 852
 삼승(三乘) 142
 삼승십이분교(三乘十二分教) 599, 601,
 813
 삼십년후(三十年後) 124, 476
 30방(三十棒) 315, 912
 삼아승기겁(三阿僧祇劫) 476
 삼악도(三惡途) 88, 477
 3요(三要) 865
 삼자선(三字禪) 101
 삼전어(三轉語) 1225
 3조(三祖) 277
 삼존불(三尊佛) 585
 삼종병인(三種病人) 305
 삼종타(三種墮) 1049

- 삼처전심(三處傳心) 115
- 3천 검객(三千劍客) 497, 845
-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96, 302, 343, 558
- 삼천세계(三千世界) 126, 214
- 삼평(三平) 219, 221
- 삼평의충(三平義忠) 220
- 삼하(三夏) 873
- 삼해탈문(三解脫門) 912
- 삼현(三玄) 865, 873
- 삼호(三豪) 1324
- 삼계일익(雪溪日益) 98, 152, 257, 493, 572, 719, 720, 842, 869, 995
- 상견(常見) 448
- 상나화수(商那和修) 141
- 상당(上堂) 23, 26
- 상락법신(常樂法身) 478
- 상락아정(常樂我淨) 89, 478
- 상령고슬(湘靈鼓瑟) 664
- 상륜(霜輪) 256
- 상방일익(上方日益) 325, 370, 391, 435, 436, 657
- 상비고슬(湘妃鼓瑟) 664
- 상사반야(相似般若) 449
- 상서(尙書) 1381
- 상서영이천화(祥瑞靈異天花) 140
- 상제(象帝) 257
- 상좌(上座) 89
- 상즉(相卽) 763, 764
- 상충(尙聰) 48
- 색(色) 763~765
- 색즉시공(色卽是空) 313
- 생멸(生滅) 969
- 생사(生死) 167, 1001, 1003, 1004
- 생성(生成) 1281, 1293
- 생애(生涯) 491
- 생주이멸(生住異滅) 87
- 서강(西江) 339, 340, 343~347, 351, 352, 390, 555
- 서경(西京) 258
- 서기(書記) 1005
- 서동산어록미(書洞山語錄尾) 710
- 서록본선(瑞鹿本先) 295
- 서산휴정(西山休靜) 35
- 서암(瑞巖) 1109, 1112
- 서암노자(瑞巖老子) 1115
- 서왕(舒王) 139
- 서장(書狀) 52, 852, 923
- 서장주(西藏主) 1005
- 서천(西天) 86, 115, 162, 1097
- 석가(釋迦) 1096
- 석가노자(釋迦老子) 76, 79, 88, 89, 94, 96, 119, 124, 128, 131, 144, 163, 165, 191, 195, 1292
- 석공(石鞏) 219, 221
- 석공혜장(石鞏慧藏) 220
- 석교(石橋) 295, 650
- 석두(石頭) 339, 340, 412, 600, 602, 604~613, 615, 1239
- 석두희천(石頭希遷) 412, 599, 601, 827

- 석문(石門) 403, 404, 409
 석문소원(石門紹遠) 1218
 석문온충(石門蘊聰) 402
 석문원이(石門元易) 342, 840, 1103
 석상경저(石霜慶諸) 781, 813, 1129
 석씨요람(釋氏要覽) 177, 379, 919, 1011
 석연년(石延年) 1324
 석전법훈어록(石田法薰語錄) 1341
 석창법공(石窓法恭) 104
 선(禪) 51, 119, 179, 981, 1177
 선각왕(善覺王) 91
 선거(善去) 153
 선경(仙經) 655, 656
 선경(善卿) 140
 선관책진(禪關策進) 901
 선기(禪機) 101, 117, 133, 148, 442, 502,
 530, 544, 568, 600, 691, 832, 840,
 862, 871, 975, 1044, 1064, 1101,
 1137, 1187, 1213, 1284, 1299
 선나(禪那) 51
 선덕문(宣德門) 691, 692
 선림보훈음의(禪林寶訓音義) 53, 143,
 1011
 선림상기전(禪林象器箋) 47, 95, 198, 579,
 671, 1194, 1328
 선림소어고증(禪林疏語考證) 140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 144, 273, 288,
 1221
 선문수경(禪文手鏡) 680, 689
 선문염송(禪門拈頌) 21, 23~28, 35, 37,
 38, 53, 69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21, 69, 79,
 141, 172, 233, 325, 350, 502, 628,
 646, 723, 824, 852, 975, 1033,
 1050, 1054, 1110, 1270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48, 51, 53
 선문제조사계송(禪門諸祖師偈頌) 36
 선백(禪伯) 689
 선백장(先百丈) 426, 454
 선불장(選佛場) 555
 선서(善逝) 153
 선어(禪語) 28, 52, 72, 117, 120, 155, 308,
 516, 522, 662, 721, 722, 1030,
 1171, 1246, 1251, 1366
 선요(禪要) 678
 선원청규(禪苑淸規) 1269
 선자화상(船子和尚) 789, 790, 793
 선장(禪匠) 363, 409
 선재(善財) 217, 221, 223, 226, 227
 선재동자(善財童子) 211, 231, 234, 236,
 238, 484, 485, 750, 1022, 1168
 선종잡독해(禪宗雜毒海) 884
 선타(仙陀) 570
 선타파(仙陀婆) 648, 653
 선풍(禪風) 383, 388, 406, 907, 1053, 1221,
 1346
 선행부도(先行不到) 70
 선화(禪和) 290, 656
 선화가(禪和家) 678
 선화자(禪和子) 290, 678
 설두(雪竇) 108, 126, 315, 363, 369, 405,
 407~409, 477, 638, 640, 665, 666,
 668, 718, 729, 754, 755, 844~846,

- 852, 856, 894, 896, 1004, 1172,
1297
- 설두법령(雪寶法寧) 184, 435, 831, 841,
930
- 설두사종(雪寶嗣宗) 302
- 설두산(雪寶山) 302
- 설두송고(雪寶頌古) 26
- 설두송고직주(雪寶頌古直註) 27
- 설두어록(雪寶語錄) 90, 101, 128, 187,
299, 354, 387, 451, 497, 575, 580,
722, 1004, 1022, 1023, 1188
- 설두중현(雪寶重顯) 65, 90, 107, 163, 251,
289, 290, 314, 316, 317, 320, 325,
326, 329, 346, 361, 368, 383, 400,
473, 487, 575, 637, 716, 743, 744,
753, 793, 843, 893, 964, 992, 1003,
1021, 1064, 1077, 1113, 1139, 1167,
1169, 1179, 1180, 1187, 1228, 1256,
1315
- 설봉(雪峯) 309, 315, 927, 981, 982,
987, 991~994, 998, 1001~1006,
1009~1012
- 설봉도원(雪峯道圓) 297
- 설봉료(雪峰了) 919, 920, 1369
- 설봉산(雪峯山) 981
- 설봉의존(雪峯義存·雪峰義存) 308, 769,
1030
- 설부(說郛) 685
- 설암조흠어록(雪巖祖欽語錄) 223
- 설암종근선사송고(雪菴從瑾禪師頌古) 27
- 설원(說苑) 120
- 섬부철우(陝府鐵牛) 489
- 섬공자고(葉公子高) 709
- 섬지(攝持) 232
- 섬현귀성(葉縣歸省) 247
- 성소작지(成所作智) 87
- 성유식론술기(成唯識論述記) 144
- 성인(聖人) 359, 563, 743, 929, 1159
- 세모(歲暮) 1314
- 세설신어(世說新語) 715
- 세의(世醫) 224
- 세제유포(世諦流布) 368
- 세존(世尊) 45, 57, 85, 137, 159, 162, 177,
813
- 세한심(歲寒心) 724
- 소강절(邵康節) 809
- 소로(蘇廬) 516, 517
- 소림사(少林寺·小林寺) 61, 255, 258, 259,
1122
- 소멸(消滅) 1281, 1293
- 소명태자(昭明太子) 247
- 소보(巢父) 505
- 소산(疎山) 1217
- 소시아(小廝兒) 1159
- 소실(小室) 1122
- 소실봉(小室峯) 111
- 소양주(小梁州) 1299, 1300
- 소엄상좌(小嚴上座) 203, 204
- 소지(所持) 232
- 소쩍새 346, 347
- 소참(小參) 23, 26, 195
- 소하(蕭何) 206, 207, 310, 846, 902, 1147
- 소한(霄漢) 1191

소화원기(昭化院記) 59
 속박(束縛) 277, 278, 281, 423
 속임수(-數) 102
 속전등록(續傳燈錄) 474, 499, 800, 815,
 937, 1102, 1244
 속제(俗諦) 247, 1195
 손공(孫公) 1167, 1169
 손권(孫權) 695
 손님 260, 353, 384, 586, 595, 743, 883, 977,
 1110, 1117, 1324, 1327, 1330
 손빈(孫臏) 452, 453
 손자병법(孫子兵法) 453
 솔토(率土) 114
 송(頌) 23, 24, 26, 46
 송고승전(宋高僧傳) 255, 1273
 송고연주통집(頌古聯珠通集) 27, 161,
 444, 448, 622, 658, 679, 868, 1069
 송고집(頌古集) 26, 28
 송곳 148, 154, 256, 389, 495
 송사(宋史) 685
 송원(松源) 64, 66, 80, 105, 306, 515, 562,
 606, 661, 832, 942, 1065, 1142,
 1164, 1206, 1207, 1230, 1341, 1374
 송원어록(松源語錄) 1374, 1375
 수(收) 529, 568, 570
 수경(手鏡) 178
 수경주(水經注) 869
 수신후기(搜神後記) 257
 수괘(隨卦) 893
 수대(垂代) 875
 수도등고(樹倒藤枯) 969
 수류문(隨流門) 1364
 수미등왕불(須彌燈王佛) 234
 수미산(須彌山) 58, 60, 61, 105, 166, 167,
 239, 518, 519, 558, 699, 700, 1167
 수미일관(首尾一貫) 486
 수보리(須菩提) 141, 271, 1228
 수산(首山) 1238
 수산삼구(首山三句) 78, 546
 수산성념(首山省念) 219, 847, 1287
 수산주(修山主) 61, 286, 696, 1281
 수선사(修禪社) 26, 35
 수심결(修心訣) 1282
 수어(垂語) 875
 수연응용(隨緣應用) 513
 수좌(首座) 89, 861
 수행본기경(修行本起經) 87
 순금(純金)·[眞金·精金] 127~129, 395,
 401, 405, 407, 412, 440, 491, 602
 순노부(舜老夫) 1082, 1084
 순다(純陞) 658
 순(舜)임금 664
 순주(順朱) 1299
 술이기(述異記) 494, 791
 승각공(崇覺空) 288
 승녕(崇寧) 1004
 승산노안(嵩山老安) 458
 승승원공(崇勝院琜) 156, 217, 304, 371,
 392, 438, 495, 536, 573, 583, 657,
 712, 780, 870, 1227
 승악혜안(崇巖慧安) 1273
 습득(拾得) 1243, 1284

- 습유기(拾遺記) 494
 승가(僧家) 1029
 승당(僧堂) 408
 승부(勝負) 188
 승열바라문(勝熱波羅門) 484, 485
 승조(僧肇) 246
 승찬(僧璨) 277
 승천(昇天) 824
 승천기(承天琦) 610
 승천왕반야바라밀경(勝天王般若波羅蜜經) 1152
 승천전종(承天傳宗) 296, 756, 757, 928, 931, 932
 승천회(承天懷) 77, 126, 132, 153, 223, 257, 301, 434, 655, 758, 780, 996
 승패(勝敗) 470
 시(示) 130
 시경(詩經) 93, 94, 114
 시무애(時無礙) 60
 시비(是非) 1041, 1284
 시아(廝兒) 875
 시자(屍子) 442
 시절(時節) 1153, 1273, 1374
 시중(示衆) 27
 시처무애(時處無礙) 59
 신가사무(神歌社舞) 433
 신개원(新開院) 290, 299
 신농(神農) 225
 신뢰불급엄이(迅雷不及掩耳) 1359
 신리출문(身裏出門) 161
 신서(新序) 709
 신선전(神仙傳) 824
 신수(神秀) 458
 신심명(信心銘) 72, 458, 655
 신이경(神異經) 827
 신정홍인(神鼎洪諲) 1110
 신족통(神足通) 234
 신편임간후록(新編林間後錄) 288
 신화엄경론(新華嚴經論) 60, 232~234
 신훈(新熏) 382, 794
 실(實) 110, 125, 213, 262, 263, 268, 310, 325, 326, 435, 445, 966, 976, 1351
 실상무상(實相無相) 160
 실어(實語) 524
 실제이지(實際理地) 595, 1098
 실제지(實際地) 1098
 심문담분(心聞曇賁) 184, 306, 347, 351, 397, 443, 460, 524, 556, 584, 605, 629, 674, 730, 968, 983, 1070, 1299, 1314, 1340, 1373
 심법(心法) 157
 심요(心要) 353
 심인(心印) 244, 264, 265, 313, 382, 396, 1051, 1122
 심자(諗子) 498
 심진문집(鐔津文集) 46, 268
 심행(心行) 984, 1064
 심행문(心行問) 962
 10무애(十無礙) 59, 60
 십세(十世) 60
 십송율(十誦律) 177
 십신(十身) 928

십이분교(十二分敎) 142
십종미세취(十種微細趣) 57
십주위(十住位) 86
십지(十地) 239
십호(十號) 153
쌍봉(雙峰) 820
쑥대 411, 412, 871

암두전환(巖頭全豁) 205, 769
암바제녀경(菴婆提女經) 1281
암증(暗證) 1326
양산(仰山) 186, 404, 748, 819, 823, 824, 829
양산어록(仰山語錄) 192, 308, 383, 413, 678, 820
양산행위(仰山行偉) 669
양산혜적(仰山慧寂) 382, 399, 412, 446, 775, 820, 874, 1110

앵무주(鸚鵡洲) 869
야객총서(野客叢書) 1325

야고(夜鼓) 623

야보(冶父) 1207

야보산(冶父山) 1207

야호화(野狐話) 446, 453

약기(藥忌) 216, 964

약산(藥山) 599, 600, 602, 604, 607, 608, 612, 613, 790

약산유엄(藥山惟嚴) 789

약석(藥石) 669

약석신화엄경론(略釋新華嚴經論) 232

양구(良久) 380

양기방회(楊岐方會) 610

양기어록(楊岐語錄) 70, 286, 610, 1154

양무제(梁武帝) 243, 254, 255, 270, 273

양미순목(揚眉瞬目) 600

양민(良民) 265

양생고(孃生袴) 547

양유기(養由基) 707, 918, 1201, 1202

양주(楊州) 249

아견(我見) 1110
아교[膠] 219, 928, 942
아난(阿難) 115, 141
아누보리(阿彌菩提) 178
아미타(阿彌陀) 489, 490
아사리(阿闍梨) 298, 1001~1003, 1005, 1061
아야(啊哪) 917, 920, 922
아위무진(阿魏無眞) 722
아인산(我人山) 1110
악부시집(樂府詩集) 965
안국혜구(安國惠球) 1298
안락당(安樂堂) 1011
안사고(顔師古) 321
안씨가훈(顔氏家訓) 648
안탕천(鴈蕩泉) 294, 295
안회(顔回) 1352, 1353
안횡비직(眼橫鼻直) 95, 1121
암두(巖頭) 65, 119, 203, 204, 984, 985

양중공안(兩重公案) 1014
 양춘백설(陽春白雪) 1082
 양춘백설곡(陽春白雪曲) 1082, 1084
 양춘설곡(陽春雪曲) 1082
 양홍(梁鴻) 770
 양홍처(梁鴻妻) 770
 어부사(漁父詞) 791
 어삼루(語滲漏) 938
 어신(魚信) 965
 언어도단(言語道斷) 94
 엄이투령(掩耳偷鈴) 79, 726
 업식(業識) 405, 677, 686, 690, 696
 여동빈(呂洞賓) 682, 685
 여래무상의경(如來無上依經) 591
 여래선(如來禪) 37, 51, 52, 819~824, 829, 830
 여래팔상(如來八相) 58
 여룡(驪龍) 169, 403, 1326
 여산기(廬山記) 1195
 여수전기(如水傳器) 379
 여씨춘추(呂氏春秋) 1090
 여와(女媧) 491
 여우 321, 322, 417, 418, 420~422, 427, 428, 430~432, 434~436, 442, 444~447, 449, 452, 453, 455, 457, 458, 462, 713
 여우귀신[野狐精] 1117, 1118
 여의보주(如意寶珠) 547
 여의주(如意珠) 403, 547, 743, 870
 여정어록(如淨語錄) 869
 여주(驢珠) 169, 403, 1326
 여환해탈(如幻解脫) 485
 여회(如會) 747, 751, 753, 755
 역대명화기(歷代名畫記) 695
 역대법보기(歷代法寶記) 255
 역대편년석씨통감(歷代編年釋氏通鑑) 246
 역조석씨자감(歷朝釋氏資鑑) 398
 연고(研膏) 648
 연꽃 71, 100, 106, 240, 539, 805, 821
 연등회요(聯燈會要) 49, 299, 790
 연목상(蓮目相) 137
 연번로(演繁露) 303
 연생(緣生) 646
 연수당(延壽堂) 1011
 연아불각추(憐兒不覺醺) 1052
 연진(煙塵) 487
 연화(緣化) 769
 연화장세계(蓮華藏世界) 235
 연화지원(演化知遠) 679
 열개(裂開) 1138
 열반(涅槃) 167, 168, 1003, 1004
 열반경(涅槃經) 138, 203, 205, 214, 285, 410, 420, 425, 696
 열반당(涅槃堂) 1011, 1012
 열반묘심(涅槃妙心) 115, 160
 열자(列子) 658, 1201
 열재거사(悅齋居士) 106, 160, 184, 399, 446, 500, 551, 694, 714, 782, 821, 842, 874, 931, 968, 1186, 1263, 1284
 열조제강록(列祖提綱錄) 803

열파(裂破) 1137, 1138
 염(拈) 23, 24, 26, 46
 염관(鹽官) 754, 757, 758
 염라대왕(閻羅大王)·[閻老] 608, 609
 염부제(閻浮提) 58, 105, 106, 111, 390
 염송(拈頌) 48, 53
 염송가(拈頌家) 91, 1192
 염팔방주옥집(拈八方珠玉集) 26, 631,
 659, 729, 1052
 염화(拈花) 137, 145~148, 153, 155~160,
 170, 171, 244
 염화미소(拈花微笑) 115, 138, 154, 168
 염화시중(拈華示衆) 813
 영가현각(永嘉玄覺) 182
 영각광록(永覺廣錄) 1380
 영광원진(永光院眞) 1291
 영림집(影林集) 1192
 영매(領梅) 146, 150
 영명연수(永明延壽) 240
 영묘(靈苗) 213
 영산(靈山) 137, 154, 156
 영산회상(靈山會上) 139, 144, 160
 영서화(靈瑞花) 139
 영수(潁水) 505
 영양(羚羊) 322~324, 1030, 1031, 1033
 영양괘각(羚羊掛角) 1030, 1031
 영오(靈鼈) 217, 431
 영원유청(靈源惟淸) 436, 559, 895
 영은사(靈隱寺) 753~755
 영조(靈照) 567~570, 574~576, 1054

영취산(靈鷲山) 115, 138, 152
 영향(影響) 595
 예기(禮記) 485
 예주(禮州) 747, 750, 752, 755
 오(悟) 130
 오가종지찬요(五家宗旨纂要) 754, 879,
 938, 1127
 오대산(五臺山) 218
 오등엄통(五燈嚴統) 501
 오등전서(五燈全書) 125, 448, 694, 713,
 790, 1218, 1346
 오등회원(五燈會元) 52, 286, 448, 569,
 781, 789~791, 962, 1065, 1096,
 1101, 1110, 1373
 오리 1225, 1227
 오백(五白) 488
 오백생(五百生) 422, 427, 429, 432, 434,
 435, 440, 444, 445, 456~458, 460,
 461
 오백생전(五百生前) 432
 오석령(烏石嶺) 995, 996
 오역(五逆) 1351, 1353
 오와(訾訛) 389
 오위군신설(五位君臣說) 852
 오위설(五位說) 932, 1057
 5조(五祖) 262, 267, 295, 301, 327, 333
 오조법연(五祖法演) 199, 262, 344, 352,
 611, 690, 697, 876, 986, 1229,
 1340, 1351, 1357
 오조법연어록(五祖法演語錄) 60, 61,
 165, 199, 307, 658, 869, 949, 1172,
 1245, 1366

오조사계(五祖師戒) 218, 312, 784
 오중(吳中) 273
 오척피낭(五尺皮囊) 89
 오천축국(五天竺國) 104
 오촉(汚觸) 891, 1211
 옥당(玉堂) 559
 옥리인(屋裏人) 585
 옥말[玉馬] 1206
 와관(瓦官) 754
 와룡(臥龍) 468, 473, 515
 와룡구(臥龍球) 467
 완릉록(宛陵錄) 628, 1375
 완월루(玩月樓) 1263
 왕건(王建) 48
 왕교(王喬) 823, 824
 왕노사(王老師) 371, 467, 477, 490, 495, 497, 544
 왕로(王老) 371
 왕발(王勃) 196, 969
 왕안석(王安石) 139
 왕정(王程) 1253
 왕휘지(王徽之) 714
 왕희지(王羲之) 1194
 외나무다리 352
 요동백학(遼東白鶴) 257
 요선사록(耀禪師錄) 459
 요순(堯舜) 909, 910, 1173
 요연(了然) 799, 806
 요(堯)임금 505
 요천비공(遼天鼻孔) 1314

용(龍) 112, 556, 557, 563, 564, 743
 용광로(鎔鑪) 127, 129
 용담승신(龍潭崇信) 908
 용문(龍門) 431, 479, 869, 870, 1021, 1022, 1272
 용문불안(龍門佛眼) 234
 용문불안어록(龍門佛眼語錄) 234
 용문신(龍門新) 406
 용상(龍象) 706
 용상중(龍象衆) 706
 용아거둔(龍牙居遁) 302
 용왕(龍王) 86, 87
 용제소수(龍濟紹修) 286
 용천보검(龍泉寶劍) 394
 용화회상(龍華會上) 172
 우내(牛犂) 567
 우담발라(優曇跋羅·優曇鉢羅) 139, 140
 우담화(優曇花) 145
 우두(牛頭) 749
 우두종(牛頭宗) 723
 우란분경소(盂蘭盆經疏) 178
 우문(禹門) 869, 870
 우바라화(優波羅花) 139
 우바리(優婆離·優波離) 115, 177, 179, 184
 우열(愚劣) 30, 34, 182, 193, 195, 196, 502, 503, 754, 977, 1089
 우왕(禹王) 489
 우월(優越) 819
 우적(于頔) 555
 우주옹(宇宙翁) 35

운거(雲居) 826, 1019, 1024, 1025, 1029,
1031, 1037

운거도옹(雲居道膺) 825, 1035, 1041, 1191

운거요원(雲居了元) 147, 253, 280, 993,
1367

운거청석(雲居淸錫) 823

운거효순(雲居曉舜) 139

운거자(雲居子) 1083

운문(雲門) 90, 91, 97, 98, 101, 104,
106~110, 112, 117~119, 121, 122,
125, 128, 129, 131, 133, 517, 718,
729, 793, 1127, 1137, 1139~1142,
1145, 1147, 1151, 1153, 1157, 1159,
1161, 1162, 1254

운문광록(雲門廣錄) 47, 60, 72, 85, 98,
146, 165, 179, 368, 418, 459, 468,
494, 517, 672, 673, 699, 793, 841,
931, 963, 993, 1127, 1204

운문대사(雲門大師) 1146

운문문언(雲門文偃) 32, 47, 85, 131, 165,
299, 459, 516, 518, 614, 672, 699,
715, 814, 939, 963, 1127, 1204,
1225, 1254, 1365

운문삼구(雲門三句) 78, 546, 1127

운문종고(雲門宗杲) 157

운봉(雲峯) 718

운봉문열(雲峯文悅) 118, 717, 1299

운봉어록(雲峯語錄) 118, 161, 504, 1052

운암(雲巖) 789

운암진정어록(雲庵眞淨語錄) 422

웅이산(熊耳山) 253

원각경(圓覺經) 23, 535

원각경약소주(圓覺經略疏註) 51

원돈성불론(圓頓成佛論) 60

원두(園頭) 471, 472, 799

원상(圓相) 359~361, 363

원수(冤讐) 478, 567, 568, 573, 574, 1211,
1374

원오(圓悟) 63, 65, 367, 561

원오극근(圓悟克勤) 61, 70, 100, 106,
128, 132, 180, 182, 191, 192, 206,
353~355, 372, 394, 409, 422, 439,
486, 487, 560, 612, 706, 789, 809,
813, 964, 1002, 1004, 1051, 1053,
1076, 1114, 1129, 1139, 1167, 1239,
1251, 1339, 1352, 1359

원오극근선사어(圓悟克勤禪師語) 1317

원오심요(圓悟心要) 353, 705, 809

원오어록(圓悟語錄) 60, 61, 75, 100, 101,
104, 106, 128, 129, 132, 179, 192,
193, 194, 197, 292, 353, 395, 422,
448, 468, 496, 561, 572, 635, 661,
671, 766, 789, 800, 949, 1051,
1055, 1161, 1178, 1304, 1318, 1339,
1352

원융문(圓融門) 764

원자각(元字脚) 1357

원주(院主) 502, 503, 579~581, 583~596

원통(圓通) 71, 126

원통법수(圓通法秀) 296, 300

원통선(圓通善) 62

원통원기(圓通圓機) 125

월량(月亮) 256

월령장구(月令章句) 1199

월림사관어록(月林師觀語錄) 616

위산(滄山) 418, 453, 502, 627, 629, 678

위산모철(滙山慕結) 221, 227, 829
 위산어록(滙山語錄) 502, 1074, 1161, 1245
 위산영우(滙山靈祐) 399, 446, 639, 781,
 874, 1074
 위수(渭水) 584
 위음나반(威音那畔) 382, 1032
 위음왕불(威音王佛) 382, 413, 881, 1115
 위음왕불이전(威音王佛以前) 382
 유(有) 64, 71, 80, 448, 681~684, 686, 688,
 690, 695, 696, 1035, 1111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 47
 유교경(遺敎經) 1369
 유나(維那) 418, 1153
 유두무미(有頭無尾) 181
 유루(有漏) 245
 유마(維摩) 222, 651
 유마거사(維摩居士) 221, 271, 1091
 유마경(維摩經) 127, 173, 234, 271, 499,
 927, 1152
 유마경약소(維摩經略疏) 484, 1031, 1054
 유마경의소(維摩經義疏) 499
 유마경현소(維摩經玄疏) 1054
 유마대사(維摩大士) 1054
 유(有)·무(無) 677, 681
 유방(劉邦) 436, 977, 1147, 1246
 유부율잡사(有部律雜事) 432
 유설(類說) 685
 유심(有心) 1292
 유악(惟岳) 1253
 유양잡조속집(酉陽雜俎續集) 182
 유엄(惟儼) 599

유우단공(劉禹端公) 1019, 1024, 1025
 유위(有爲) 1335, 1342
 육근(六根) 302, 1031
 육도(六韜) 611
 육도사생(六途四生) 539
 육문(六門) 302, 970
 육왕개심(育王介諶) 158, 172, 329, 442,
 583, 692, 728, 967, 998, 1063,
 1140, 1204
 육왕불지(育王佛智) 454, 698
 육욕천(六欲天) 58
 육우(陸羽) 655, 656
 6조(六祖) 262, 267, 285~289, 293, 295,
 297, 298, 301, 310~313, 315~317,
 319, 323, 326, 327, 329, 330, 333,
 335, 340, 395, 538, 599, 827, 1203
 육지사(六知事) 418
 육침(陸沉) 306
 윤수(輪手) 154
 융봉(融峯) 155
 용상(龍象) 706
 은산철벽(銀山鐵壁) 61, 163, 335, 354,
 430, 504, 506, 599, 804, 840, 873,
 874, 911, 1238, 1297
 음광(飲光) 417, 151
 음광존자(飲光尊者) 115
 응신(應身) 1089
 의근(意根) 754, 755
 의발(衣鉢) 285, 301, 333
 의사선화(倚死禪和) 544
 의심덩어리[疑團] 372, 1275
 의존선사(義存禪師) 981

이(噫) 101, 1147, 1148
 이광(李廣) 438, 442, 694, 753, 856
 이구해탈(離垢解脫) 277
 이류(異類) 472, 491, 580, 594, 1200
 이류중행(異類中行) 427, 491, 594, 1318
 이발(李渤) 529, 531
 이백(李白) 524, 639, 715, 869
 이변(二邊) 1002, 1003
 이세간품(離世間品) 57
 이세민(李世民) 280
 이심인심(以心印心) 244
 이심전심(以心傳心) 244
 이십팔수(二十八宿) 491
 이욕실제법문(離欲實際法門) 484
 이의(二儀) 1098
 이정(離亭) 1227
 이정대덕(利貞大德) 249
 2조(二祖) 273, 420, 1097
 이중공안(二重公案) 310, 592, 843, 1141
 이태백(李太白) 556, 557
 이통현(李通玄) 60, 232, 239, 458
 인견(人見) 1110
 인과(因果) 417~422, 427, 431, 432, 440,
 447, 450, 452, 454, 455, 457, 460,
 462, 468, 594
 인다라망(因陀羅網) 236
 인상여(蘭相如) 688
 인아(人我) 89, 1230, 1231
 인왕경(仁王經) 127
 인위(因位) 582
 인종(印宗) 285, 319, 327
 인지(因地) 582
 인천보감(人天寶鑑) 139, 140
 인천안목(人天眼目) 127, 662, 724, 810,
 883, 1050, 1127
 인표(人表) 133
 일구흡진서강수(一口吸盡西江水) 100
 일념(一念) 59
 일대사(一大事) 125, 901, 902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130, 131, 901,
 1054
 일도진언(一道眞言) 517, 609, 1357
 일돈방(一頓棒) 76, 802, 866, 872
 일물(一物) 278
 일미선(一味禪) 52
 일생보처(一生補處) 1054
 일생보처보살(一生補處菩薩) 111
 일심(一心) 831
 일언도진(一言道盡) 1137
 일원상(一圓相) 1185, 1186
 일이관지(一以貫之) 1202
 일인반개(一人半個) 1180
 일전어(一轉語) 117, 417, 470, 471, 931,
 1147
 일조백방(一條白棒) 907, 982
 일존(一尊) 584, 585
 일지두선(一指頭禪) 1318
 일착(一着·一著) 125, 1214
 일착자(一着子) 612
 일척안(一隻眼) 199, 890, 893, 895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 140, 150, 303,
 609, 1031
 일체종지(一切種智) 239
 일할(一喝) 382, 384
 임간록(林間錄) 273, 462
 임기불양사(臨機不讓師) 1076
 임제(臨濟) 29, 186, 383, 384, 411, 412,
 801, 803, 862, 863, 865, 873~875,
 879, 881, 885, 910~912, 1053,
 1159, 1213, 1289, 1327, 1373
 임제사할(臨濟四喝) 809, 879
 임제삼구(臨濟三句) 78, 546
 임제선(臨濟禪) 873
 임제어록(臨濟語錄) 127, 162, 300, 428,
 725, 809, 865, 875, 879, 938, 1154,
 1160, 1300, 1327, 1336
 임제의현(臨濟義玄) 300, 861, 938
 임제할(臨濟喝) 907
 임종개(臨終偈) 1372
 임하(林下) 430
 입세아비담론(立世阿毘曇論) 139
 입수견장인(入水見長人) 458
 입원(入院) 671

자성본용(自性本用) 513
 자성해탈(自性解脫) 277, 278
 자소봉(紫霄峰) 530
 자수징암(資壽澄岩) 815
 자수첩(資壽捷) 296, 427, 489
 자수회심(慈受懷深) 99, 224, 394, 438,
 538, 658, 794, 1037
 자수회심광록(慈受懷深廣錄) 538
 자승(子昇) 36
 자운원조(慈雲圓照) 622, 623
 자자(自恣) 177, 178
 자자일(自恣日) 177
 자전(字典) 1357
 자항요박(慈航了朴) 306, 584, 1056, 1077,
 1205
 자호(紫胡) 218, 684, 694
 자호이종(子湖利蹤) 218, 684
 작가(作家) 290, 363, 409, 845, 964, 1014,
 1181
 작가종사(作家宗師) 322, 363, 1005, 1006,
 1010
 작가종장(作家宗匠) 363, 918, 948
 작무(作舞) 975
 작용[用] 821
 작자(作者) 193, 290
 잔년(殘年) 1314
 잠꼬대 571, 725, 726, 1366
 잠대충(岑大蟲) 748
 잠부론(潛夫論) 325
 잡아함경(雜阿含經) 841, 1031

자고새(鷓鴣 -) 370, 1164
 자규(子規) 75
 자맥(紫陌) 180
 자미궁(紫微宮) 1191, 1192

- 잡화포(雜貨鋪) 412
- 장경초각(長慶超覺) 90
- 장경혜릉(長慶慧陵) 822, 1167, 1171, 1172
- 장두전(杖頭錢) 1158
- 장량(張良) 206, 310, 436, 1147, 1148
- 장령(長靈) 64, 71
- 장령수탁(長靈守卓) 79, 101, 102, 155, 305, 603, 724, 890, 910, 966
- 장령수탁어록(長靈守卓語錄) 102
- 장로분(長蘆賁) 267
- 장로종색(長蘆宗頤) 189, 300, 404, 593, 765, 815, 1014, 1257
- 장사(長沙) 753, 755, 759
- 장사경잠(長沙景岑) 747, 763, 1111
- 장사초현(長沙招賢) 748
- 장산극근(蔣山克勤) 372
- 장산법천(蔣山法泉) 259, 316, 389, 530, 608, 650, 751, 828, 839, 948, 1078, 1128, 1245
- 장산불혜법천(蔣山佛慧法泉) 139
- 장산찬원(蔣山贊元) 113, 827
- 장상영(張商英) 59
- 장수자선(長水子璿) 1335
- 장아함경(長阿含經) 86, 87, 140, 198, 477, 658, 1031
- 장안(長安) 258, 291, 584, 666, 668, 711, 1033
- 장욱(張旭) 442, 1299
- 장자(莊子) 98, 120, 147, 169, 232, 246, 255, 271, 306, 403, 430, 497, 568, 585, 665, 749, 825, 845, 1012, 1161, 1162
- 장자녀암제차사자후요의경(長者女菴提遮師子吼了義經) 1281
- 장자론(長者論) 232
- 장적(張籍) 724
- 장전(張顛) 442, 1299, 1300
- 장주(莊周) 497, 845
- 장착취착(將錯就錯) 397
- 저사(佇思) 600
- 저사(底事) 370
- 저울 133, 158, 432, 685
- 저일규(這一竅) 77
- 저일착(這一着) 612
- 적멸(寂滅) 969
- 적수적동(滴水滴凍) 1054
- 전광석화(電光石火) 548, 549, 1253
- 전국책(戰國策) 109, 707, 918
- 전당강(錢塘江) 664
- 전당수좌(前堂首座) 1005
- 전당시(全唐詩) 639, 1229
- 전도(顛倒) 114, 543, 668, 1153
- 전득신(轉得身) 64
- 전등(傳燈) 45, 48
- 전등록(傳燈錄) 26, 48, 49, 115, 790, 961, 962
- 전박판(檀拍板) 962
- 전백장(前百丈) 421, 426
- 전법(傳法) 45
- 전법계(傳法偈) 273
- 전봉상주(箭鋒相柱) 753
- 전사리(展闇梨) 984

- 전살전활(全殺全活) 1294
- 전삼삼(前三三) 350
- 전신일로(轉身一路) 323
- 전심법요(傳心法要) 325
- 전어(轉語) 1238
- 전좌(典座) 418, 1281
- 절각(切脚) 1357
- 절상여회(折床如會) 748
- 절상회(折床會) 748
- 절성기지(絶聖棄智) 269
- 절자(浙子) 109
- 절자각(切字脚) 1357, 1358
- 점액(點額) 869, 870, 1021
- 접기(接機) 1074
- 접득(接得) 1074
- 정(定) 51
- 정나라적쇄쇄(淨裸裸赤灑灑) 468
- 정념단좌(正念端坐) 255
- 정려(靜慮) 51
- 정명(淨名) 271
- 정명현론(淨名玄論) 1054
- 정문안(頂門眼) 199, 890
- 정반성(定盤星) 104, 158
- 정반왕(淨飯王) 86, 111
- 정법(正法) 127, 140, 144, 165
- 정법안(正法眼) 127
- 정법안장(正法眼藏) 115, 127, 137, 138, 144, 156, 160, 165, 167, 169, 556, 696, 795, 801, 872, 1273
- 정법염처경(正法念處經) 591
- 정삼루(情滲漏) 938
- 정수장지(停囚長智) 1317
- 정식(情識) 164
- 정신단좌(正身端坐) 255
- 정엄수수(淨嚴守遂) 97, 514, 883, 909, 1271, 1337
- 정영위(丁令威) 257
- 정위(正位) 543, 800, 805, 932, 1033, 1057, 1192~1194, 1208
- 정자본(淨慈本) 122, 319, 884, 910, 1044, 1045
- 정전(正傳) 45
- 정혜(定慧) 474
- 정혜초신(定慧超信) 150
- 제망(帝綱) 236
- 제법실상(諸法實相) 95
- 제비 182, 183
- 제3의 눈 199, 204, 205, 258, 890, 1159
- 제야(除夜) 1311
- 제이기(第二機) 1229
- 제이월(第二月) 355
- 제일기(第一機) 100, 1229
- 제일의제(第一義諦) 245, 247, 269, 270
- 제일좌(第一座) 861
- 조계(曹溪) 79, 111, 288, 306, 413, 714
- 조계명(曹溪明) 169, 322
- 조계월(曹溪月) 911
- 조공(趙公) 1117
- 조과도림(鳥窠道林) 723
- 조당집(祖堂集) 49, 255, 602, 789
- 조동오위현결(曹洞五位顯訣) 1319

- 조동종(曹洞宗) 543, 750, 800, 932, 1057, 1200
- 조론(肇論) 47, 246, 247, 250, 269, 825
- 조론소(肇論疏) 269
- 조문(曹門) 630
- 조병(祖病) 635
- 조불흥(曹不興) 695
- 조사(祖師) 25, 29, 32, 180, 184, 186, 189, 224, 225, 499, 514, 635, 907, 1095, 1096, 1098, 1225, 1254, 1374
-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420
- 조사선(祖師禪) 23~25, 31, 37, 38, 51, 52, 60, 105, 127, 262, 359, 369, 377, 516, 523, 599, 609, 635, 819, 821~824, 829, 830
- 조사심인(祖師心印) 244
- 조산(曹山·曹山) 927, 932, 1049, 1052, 1061~1063, 1069
- 조산본적(曹山本寂) 72
- 조산어록(曹山語錄) 72
- 조야첨재(朝野僉載) 182
- 조용(照用) 832
- 조의(祖意) 1225, 1226, 1229, 1230
- 조정검추록(祖庭鉗鎚錄) 790
- 조정사원(祖庭事苑) 140, 156, 177, 459, 639, 689, 706, 779, 793, 827, 1030, 1151, 1281
- 조주(趙州) 295, 352, 371, 447, 451, 467, 468, 470, 472~474, 477, 483, 485, 487~489, 491~497, 501~507, 544, 546, 549~551, 570, 593, 594, 645, 647, 648, 650, 652, 654~657, 660, 661, 663~671, 673, 674, 677, 684, 686, 688, 690~692, 694, 696, 699, 705, 706, 708, 712, 715, 716, 719~721, 723, 743, 744, 824, 826, 852, 961~963, 967
- 조주심노(趙州諗老) 655
- 조주어록(趙州語錄) 295, 371, 448, 471, 593, 677, 1282
- 조주(趙州)의 돌다리 518, 651
- 조주종심(趙州從諗) 498, 1265
- 조주행장(趙州行狀) 650
- 조통설(祖統說) 138
- 존숙(尊宿) 46, 198, 316, 329, 399, 477, 526, 851, 941, 942
- 종감법림(宗鑑法林) 27, 288, 448, 494, 622, 659
- 종경록(宗鏡錄) 142, 240
- 종도자(宗道者) 142
- 종문무고(宗門武庫) 1352
- 종문염고휘집(宗門拈古彙集) 27, 163, 448, 1187
- 종밀(宗密) 178, 512
- 종사(宗師) 380, 475, 649, 840, 1181, 1248
- 종승(宗乘) 142, 981, 1318, 1319
- 종심(從諗) 655
- 종용록(從容錄) 27, 36, 248, 421, 433, 444, 491, 508, 575, 580, 607, 706, 722, 729, 748, 808, 813, 864, 868, 969, 1110, 1244, 1335, 1338
- 종장(宗匠) 649, 910, 1181
- 종전(從展) 984
- 종풍(宗風) 180, 388, 393
- 종현(從顯) 334

- 좌구성로(坐久成勞) 1304
좌전(左傳) 503
좌주(座主) 298
좌참(坐參) 1328
주금강(周金剛) 907, 908
주먹 529~531, 544
주목왕(周穆王) 531
주박(周朴) 639
주부(肘符) 1051
주세영(朱世英) 239
주역(周易) 893
주유마힐경(注維摩詰經) 927
주인(主人) 260, 353, 384, 586, 595, 743,
883, 977, 1110, 1117, 1324, 1327,
1330
주인공(主人公) 119, 1109, 1110, 1112,
1113, 1116~1118
주장자(拄杖子) 189, 190, 215, 220, 227,
359, 360, 363, 461, 462, 478,
518~522, 563, 569, 592, 593, 629,
716, 756, 757, 910, 942, 1217, 1251
주중빈(主中賓) 937
주중주(主中主) 800, 937
주차(周遮) 912
주화엄법계관문(注華嚴法界觀門) 61
죽반기(粥飯氣) 885
죽비(竹篋) 847~850, 1287, 1288, 1290,
1292
죽암(竹庵) 71
죽암사구(竹庵土垠) 157, 345, 396, 442,
507, 605, 691, 700, 846, 885, 892,
897, 921, 922, 967, 971, 1113,
1116, 1158, 1220, 1221, 1247, 1288,
1326, 1315, 1345, 1353
준극화상(峻極和尚) 448
줄 없는 거문고[沒絃琴] 497
줄탁(咄啄) 1177
중아함경(中阿含經) 87, 149, 477
중양절(重陽節) 185
중읍홍은(中邑洪恩) 781, 1110
중천축사위국기원사도경(中天竺舍衛國
祇洹寺圖經) 1011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1319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
禪門師資承襲圖) 512
즉(卽) 379, 695, 729, 801, 1141, 1287
즉리(卽離) 37, 278, 360, 377
즉심즉불(卽心卽佛) 1069
증도가(證道歌) 182, 1203, 1252
증도가사실(證道歌事實) 123
증도가주(證道歌註) 212, 1252
증득(證得) 62, 63, 187, 512, 1056
증삼(曾參) 1202, 1352, 1353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 140, 149, 235,
432
지계제일(持戒第一) 177
지공(誌公) 197, 198, 243, 244, 249,
263~265, 1363
지공화상대승찬십수(誌公和尚大乘讚十
首) 468
지관보행전홍결(止觀輔行傳弘決) 152
지론(智論) 48
지마(脂麻) 647, 648, 657

지문광조(智門光祚) 536, 1251, 1254
 지비자(知非子) 550, 781
 지아야격(池鵝夜擊) 1187
 지은해보(知恩解報) 129
 지인(至人) 271
 지해본일(智海本逸) 111, 824, 844, 948, 1366
 지해지청(智海智淸) 570, 571, 655, 656, 1147
 지허(至虛) 70
 직득무한(直得無限) 38, 117, 729
 직주천동송고(直註天童頌古) 929, 965
 직지(直指) 144, 341
 직지인심(直指人心) 60, 143, 599
 진각국사(眞覺國師) 23
 진각어록(眞覺語錄) 36, 105, 278, 678, 1202, 1254
 진각혜심(眞覺慧諶) 233, 236
 진금포(眞金鋪) 412
 진면목(眞面目) 458
 진서(晉書) 714, 1158
 진속이제(眞俗二諦) 247
 진언(眞言) 516, 517
 진여(眞如) 269
 진여모칠(眞如慕詰) 430
 진여불성(眞如佛性) 679
 진일보(進一步) 747, 753~760
 진점검(塵點劫) 61
 진정극문(眞淨克文) 351, 382, 390, 422, 430, 502, 590, 592, 690, 805, 830, 866, 1129~1131, 1133

진정극문선사어(眞淨克文禪師語) 1346
 진제(眞諦) 247, 268, 269, 1195
 진존숙(陳尊宿) 862, 889
 진중(珍重) 919, 1303, 1304
 진청안상(眞靑眼相) 137
 진퇴양난(進退兩難) 163, 666, 842, 848
 진포혜(陳蒲鞋) 862, 889
 진흙 소[泥牛] 73, 886
 징(徵) 46, 1065
 정일(澄一) 544, 546, 549
 쥔신 483, 485, 487, 491, 493, 498, 500, 502~504, 506, 507, 1145, 1185, 1186, 1251~1253, 1255~1257



차단(此段) 1054
 차별(差別) 66, 166, 381, 518, 519, 523, 543, 569, 595, 602, 800, 932, 1002, 1057, 1193, 1200, 1201, 1261, 1283
 차수(叉手) 233
 착각(錯覺) 34, 213, 296, 370, 397, 417, 427~429, 432, 444, 454, 523, 580, 587, 588, 720, 721, 743, 750, 776, 838, 977, 1246, 1269
 착수(著手) 70
 착어(著語·著語) 27, 36, 119, 454, 477, 486, 563, 564, 593, 832, 850, 851, 1089, 1090, 1167, 1305, 1366, 1367, 1372
 찰(刹) 108

칼간(刹竿) 141, 172, 173, 300, 325, 326, 1206

찰제리왕(刹帝利王) 86

참(參) 121, 185, 186, 1035, 1255, 1366, 1369

참당(參堂) 1009

참새 30, 109, 110, 120, 182, 183

창도사(唱道師) 400

창룡(蒼龍) 258, 807, 808

창천(蒼天) 543

채석(采石) 524, 525

채석기(采石磯) 524

채주(蔡州) 1187

처무애(處無礙) 60

척안(隻眼) 258

천각비공(穿却鼻孔) 1082

천고지후(天高地厚) 93

천동정각(天童正覺) 180, 188, 255, 343, 362, 405, 490, 558, 586, 642, 651, 654, 665, 687, 708~710, 752, 804, 807, 844, 864, 929, 940, 954~957, 964, 969, 970, 1022, 1023, 1035, 1098, 1171, 1172, 1202, 1253, 1262, 1264, 1274, 1283, 1338

천둥 884

천령허조(天寧虛照) 281, 995

천목명본잡록(天目明本雜錄) 143

천민(賤民) 265

천복본일(薦福本逸) 148, 149, 161, 216, 254, 388, 426, 649, 685, 708, 918, 1236, 1283

천복승고(遷福承古) 1305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 90, 100, 124, 127, 129

천성광등록(天聖廣燈錄) 234, 595, 976, 1185

천의의회(天衣義懷) 73, 293, 294, 447, 1024

천착(穿鑿) 71, 73, 668, 678, 679

천축(天竺) 589, 590

천태덕소(天台德韶) 313, 314

천태산(天台山) 293, 305, 518, 699, 700

천태종(天台宗) 763

천황도호(天皇道悟) 621, 623

철보살(鐵菩薩) 910, 911

철산함(鐵酸醢) 1317

철선(鐵船) 354

철안동정(鐵眼銅睛) 224

청계홍진(淸溪洪進) 1281

청량덕홍(淸涼德洪) 287

청량문익(淸涼文益) 312

청량소(淸涼疏) 59, 511

청량정관(淸涼澄觀) 59

청련목(淸蓮目) 137

청룡(靑龍) 940

청봉(靑峯) 1269, 1271, 1272, 1276

청봉전초(靑峰傳楚) 902

청산나반(靑山那畔) 1032

청세(淸稅) 1061

청안(靑眼) 770

청예(淸銳) 1061~1063

청원(靑原) 412

청원행사(靑原行思) 827, 1203
 청익록(淸益錄) 125, 179, 180, 845
 청진국사(淸眞國師) 22
 총령(葱嶺) 253
 초사(楚辭) 1063
 충수록(叢髓錄) 646, 647
 최초구(最初句) 35, 62, 65, 66
 최호(崔顥) 869
 축융봉(祝融峯) 155
 출성가외(出聲可畏) 232
 출신(出身) 1127
 출신지로(出身之路) 118
 출요경(出曜經) 1031
 출초담(出草談) 517
 취모검(吹毛劍) 97, 106, 217, 671, 672,
 679, 1288
 취암가진(翠巖可眞) 1238
 취암기(翠巖璣) 504
 취암문열(翠巖文悅) 75, 1256
 취암사종(翠巖嗣宗·翠巖嗣宗) 302, 507,
 1104
 취암수지(翠巖守芝·翠巖守芝) 501, 695,
 785, 843
 취암종(翠巖宗) 99, 452, 894
 취암종열(翠巖宗悅) 651, 652
 취암종정(翠巖宗靜) 494
 측천무후(則天武后) 458
 치선(痴禪) 1379
 치애한(癡獸漢) 304
 치치화화(哆哆哖哖) 433
 친견(親見) 1283

초경(招慶) 984, 985
 초리한(草裏漢) 1177
 초묵(蘸墨) 1300
 초사(楚辭) 1063
 초산(楚山) 492
 초연거사(超然居士) 706
 초전법륜(初轉法輪) 74, 86
 촉(觸) 592, 891, 892, 1292
 촉례삼배(觸禮三拜) 197
 촉루(觸露) 603
 촌가사무(村歌社舞) 433
 총령(葱嶺) 253, 255
 친밀(親密) 45
 친절(親切) 171
 칠각지(七覺支) 86
 칠처구회(七處九會) 378
 칠통(漆桶) 519, 847, 849, 1141
 침묵(沈默) 222, 271, 776, 838, 840~843,
 1141
 침질비아(寢疾毗耶) 221
 칭제(稱提) 133

칼날 213, 349, 350, 505
 코끼리 182, 183

타근(埽根) 105
 타니대수(拖泥帶水) 881, 1052
 타실촉루전(打失觸臚前) 1341
 타와찬구(打瓦鑽龜) 573
 탁력찬(鞍轡鑽) 131
 탁약(藁簫) 864
 태고보우(太古普愚) 492
 태고어록(太古語錄) 492
 태아(太阿) 394
 태원부상좌(太原孚上座) 308
 태조실록(太祖實錄) 48
 태평광기(太平廣記) 1201
 태호(太湖) 526
 택광장산(澤廣藏山) 1012
 토끼 182, 183
 토주오비(兎走烏飛) 94
 퇴일보(退一步) 758, 760
 투자(投子) 961~963, 967
 투자어록(投子語錄) 1123
 투자의청(投子義靑) 291, 342, 488, 581,
 649, 1032, 1090, 1104, 1122, 1226

파릉호감(巴陵顚鑑) 290, 299, 311, 314,
 316, 317, 320, 325, 326, 329, 1225

파비(巴鼻) 346
 파사(波斯) 94
 파안미소(破顏微笑) 138, 140
 파원(破院) 651
 과정(把定) 71, 329, 348, 380, 383, 404,
 530, 531, 801, 821, 1140
 파조타(破竈墮) 1273
 파주(把住) 71, 77, 369, 377, 530, 1052,
 1082, 1243, 1244
 파주법(把住法) 186
 파파화화(婆婆啾啾) 433
 파하(破夏) 198
 판도봉불(辦道奉佛) 246
 팔곡사두(八斛四斗) 1041
 팔난(八難) 477
 팔룡(八龍) 531
 팔상(八相) 58, 62, 63
 팔상성도(八相成道) 58, 59
 80종호(八十種好) 149
 팔준(八駿) 531
 팔풍(八風) 1110
 편위(偏位) 543, 800, 805, 932, 1033, 1057,
 1192~1194, 1208

편작(扁鵲) 212
 편정오위설(偏正五位說) 543, 800, 1192
 편정호회(偏正互回) 1057
 평등(平等) 182, 188, 190
 평등성지(平等性智) 87
 평상(平常) 409

파격(破格) 1299, 1371
 파단요진(把斷要津) 129
 파릉(巴陵) 315, 1226, 1228, 1235

평상무사(平常無事) 706, 1172

평상심(平常心) 706

평전가풍(平展家風) 646

평지끼교(平地契交) 607

평지풍파(平地風波) 1167

평창(評唱) 27, 36

폐로일(廢爐日) 586

포대(布袋) 194

포대화상(布袋和尚) 420, 441, 442, 1372

포박자(抱朴子) 253

포전(拋塼) 662

포전인옥(拋塼引玉) 662

표복허성(杓卜虛聲) 156

풍류(風流) 157, 468, 830, 869

풍속통(風俗通) 1275

풍진객(風塵客) 1252

풍혈(風穴) 349, 350

풍혈연소(風穴延沼) 1164

피모대각(披毛戴角) 1049

필률(筆筭) 299

필설(筆說) 451

한단(邯鄲) 665~668

한람(閑覽) 1324

한로(韓獺) 424

한비자(韓非子) 1202

한산(寒山) 1243, 1284

한서(漢書) 321

한선(寒蟬) 1199

한수[一著] 65, 1214, 1294

한신(韓信) 204, 206, 207, 310

한암승(寒巖升) 671

한훤(寒暄) 1304

할(喝) 29, 121, 127, 186, 345, 378, 380,
384, 388~392, 394~399, 404, 405,
407, 410~413, 458, 461, 563, 609,
801, 802, 879, 881, 909~912, 1213,
1351

할려(瞎驢) 871

함정(陷穽) 32, 34, 72, 102, 160, 355, 422,
431, 433, 461, 511, 522, 523, 537,
638, 666, 721, 756, 757, 777, 828,
847, 1004, 1146, 1147, 1170, 1205,
1206, 1227, 1269

함호지기(陷虎之機) 1236

항우(項羽) 436, 780, 977, 1147, 1246

항포문(行布門) 764

항하사세계(恒河沙世界) 302

해골(骸骨) 163, 164, 398, 498, 520, 521,
603, 604, 954, 1167, 1169, 1171,
1341, 1342

해공제일(解空第一) 271, 1228

해안하청(海晏河清) 931

해인(海印) 66, 91, 106, 474

하내(河內) 279

하안거(夏安居) 177, 178, 180

학수(鶴樹) 74

한나라 개[韓獺] 424, 425, 1271

응

해인사(海印寺) 249
 해인삼매(海印三昧) 646
 해인초신(海印超信) 76, 96, 121, 123, 150,
 162, 185, 297, 315, 389, 427, 471,
 638, 640, 653, 778, 785, 994, 1237,
 1325, 1339, 1369
 해장(海藏) 530
 해탈(解脫) 277, 278, 281, 423
 해탈문(解脫門) 991, 994, 996, 998
 해탈법문(解脫法門) 277
 해회단(海會端) 164, 165
 핵륜(核輪) 658
 행익(行益) 1153
 행파(行婆) 543
 향거(向去) 1192
 향담(鄉談) 1358
 향산온량(香山蘊良) 875
 향상(向上) 1101
 향상(香象) 88
 향상기(向上機) 571
 향수해(香水海) 193
 향엄(香嚴) 819, 823, 824, 828, 829, 837,
 839, 841, 844~848, 850~853, 855
 향엄지한(香嚴智閑) 1253
 향적국(香積國) 821
 향하(向下) 1101
 허(虛) 110, 125, 213, 262, 263, 310, 325,
 326, 435, 445
 허당송고(虛堂頌古) 27
 허당어록(虛堂語錄) 213, 223, 387, 428,
 1221
 허당지우(虛堂智愚) 213, 428
 허당집(虛堂集) 27, 902, 1076
 허두한(虛頭漢) 360
 허설(虛設) 847, 966
 허언(虛言) 127, 289, 511, 525, 1366
 허유(許由) 505
 허주어록(虛舟語錄) 223, 616
 험(險) 848, 850
 험주문(驗主問) 962
 현각(玄覺) 637, 783, 822, 1065
 현기(玄機) 47, 1009
 현녕(顯寧) 172, 173
 현밀원통성불심요집(顯密圓通成佛心要
 集) 517
 현사(玄沙) 1109, 1115, 1121, 1185, 1186
 현사광록(玄沙廣錄) 1185, 1186
 현사사비(玄沙師備) 305
 현사삼병(玄沙三病) 305
 현사삼종병인(玄沙三種病人) 305
 현사어록(玄沙語錄) 305, 1123
 현사접물이생(玄沙接物利生) 305
 현성공안(現成公案) 171, 312, 470, 848
 현성화두(現成話頭) 601
 현우경(賢愚經) 86
 현칙(玄則) 1270, 1273
 협로상봉(狹路相逢) 539
 형산(荊山) 492
 형산(衡山) 155, 397
 형양(衡陽) 397
 혜(慧) 51

혜가(慧可) 79, 111, 171, 273, 420, 1097,
 1122
 혜각(慧覺) 451, 674
 혜각광조(慧覺廣照) 1323
 혜능(慧能) 78, 111, 262, 278, 285, 293,
 295, 301, 327, 333, 340, 395, 412,
 538, 599, 827, 1203
 혜림덕손(慧林德遜) 711
 혜림사(慧林寺) 579
 혜심(慧諶) 21~26, 35~37, 278
 혜천선사(慧泉禪師) 139
 혜초(慧超) 1270
 혜충국사(慧忠國師) 147, 448
 호념(護念) 232
 호두상좌(虎頭上座) 837, 838, 844~846,
 848, 850~852, 856
 호랑이(虎狼-) 186, 438, 486, 549, 550,
 575, 576, 748, 838, 874, 1004,
 1112, 1113
 호리병(-瓶) 562, 929, 930
 호명대사(護明大士) 114
 호명보살(護明菩薩) 111
 호신부(護身符) 1051, 1052
 호언한어(胡言漢語) 199
 호의(狐疑) 321
 호중일월(壺中日月) 562
 호지(蒿枝) 411, 871
 호표지문(虎豹之紋) 1146
 흑암사체선사어(或庵師體禪師語) 1110
 혼돈(混沌) 98, 658
 혼성자(混成子) 259, 444, 445, 473, 498

홍각(弘覺) 1034, 1035, 1038
 홍각(洪覺) 1025
 홍구(鴻溝) 1246
 홍문(鴻門) 436, 1147, 1148
 홍문회(鴻門會) 436, 1147
 홍시(紅柿) 567, 568, 571~573
 홍영소무(洪英邵武) 236
 홍의(紅衣) 708
 홍인(弘忍) 262, 267, 295, 301, 327, 333
 화단(話端) 604
 화두(話頭) 25, 28~31, 33, 34, 38, 52, 63,
 72, 80, 96, 98, 99, 110, 118, 120,
 124, 125, 127, 128, 132, 133, 170,
 188, 190, 199, 215, 217, 256, 259,
 262, 287, 289, 292, 294, 310, 326,
 330, 350, 377, 389, 403, 451, 473,
 475, 476, 489, 492, 504, 517, 518,
 521, 522, 549, 592, 599, 600, 604,
 607, 610, 616, 621, 622, 636, 638,
 640, 650, 657, 659, 663, 668, 677,
 678, 686, 687, 693, 694, 705, 706,
 718, 749, 754, 756, 765, 801, 840,
 852, 855, 891, 897, 907, 922, 985,
 1021, 1030, 1111, 1137, 1141, 1157,
 1164, 1171, 1172, 1226, 1227, 1230,
 1235, 1246, 1269, 1275, 1290, 1293,
 1298, 1304, 1317, 1357, 1366, 1370
 화라퇴(和羅槌) 495
 화법사교(化法四教) 763
 화산(禾山) 469, 473, 646, 652
 화산무은(禾山無股) 467
 화살 182, 220, 438, 440, 708, 1240
 화성(化城) 114
 화성유(化城喻) 114

- 화신(化身) 1089, 1090
 화신불(化身佛) 582
 화악산(華岳山) 393
 화엄경(華嚴經) 23, 57, 58, 130, 140, 173, 179, 231, 235, 236, 277, 378, 484, 485, 725, 750, 764, 814, 1022, 1023, 1168, 1380
 화엄경소(華嚴經疏) 59, 130, 235, 764, 928, 1102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 232, 928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 59, 764
 화엄경합론(華嚴經合論) 458
 화엄경행원품소초(華嚴經行願品疏鈔) 212
 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 1168
 화엄오교장(華嚴五教章) 814
 화엄현담회현기(華嚴懸談會玄記) 53
 화월흔(花月痕) 1275
 화의사교(化儀四教) 763
 화장세계(華藏世界) 235, 236
 화장해(華藏海) 235, 239
 화정(華頂) 305
 화정봉(華頂峰) 518
 화정선자(華亭船子) 789, 795
 화주(化主) 1194
 화중연(火中蓮) 805
 화표(華表) 1116, 1117
 학연(廓然) 258
 학연무성(廓然無聖) 254
 학탕지옥(鑊湯地獄) 102
 환고자제(紈袴子弟) 572
 환릉(患聾) 305
 환맹(患盲) 305
 환아(患啞) 305
 환중선사(寶中禪師) 635
 활(活) 602
 활구(活句) 31~34, 219, 403, 518, 1141, 1235
 활로(活路) 323
 활인검(活人劍) 384
 황능(黃能) 791
 황도(皇都) 180, 186, 200
 황두노(黃頭老) 63
 황룡(黃龍) 322, 669
 황룡사심(黃龍死心) 238, 288, 321, 718
 황룡삼관(黃龍三關) 669, 1130
 황룡신(黃龍新) 656
 황룡어록(黃龍語錄) 126, 162, 286, 669, 1130, 1364
 황룡유청(黃龍惟淸) 522, 1370
 황룡조심(黃龍祖心) 163, 261, 640, 1146
 황룡혜남(黃龍慧南) 126, 651, 652, 778, 1034, 1130, 1364
 황매(黃梅) 262, 267, 295
 황면구담(黃面瞿曇) 63, 100, 189
 황면노(黃面老) 63, 100
 황면노자(黃面老子) 63, 80, 100, 130, 168, 186, 189
 황문(黃門) 717
 황벽(黃蘗) 377, 378, 383, 384, 390, 393, 396, 398, 400, 404, 411, 412, 418,

440, 446, 861~863, 865~867, 870,
 871, 873~875, 1097
 황벽산(黃蘗山) 669, 670
 황벽희운(黃蘗希運·黃檗希運) 501, 628,
 889, 1097
 황학루(黃鶴樓) 868, 869
 회남자(淮南子) 442, 1089
 회당(晦堂) 896
 회당조심(晦堂祖心) 765, 894
 회로(會老) 751
 회양(懷讓) 278, 1122
 회해(懷海) 392
 효와(誦訛) 148, 389, 461, 713, 842, 1013,
 1237, 1379
 후당수좌(後堂首座) 1005
 후백장(後百丈) 421, 426
 후삼삼(後三三) 350
 후한서(後漢書) 188, 255, 562, 770
 흠(畔) 609
 흑산(黑山) 1062, 1065, 1066
 혼주타지(忻州打地) 782
 흥화(興化) 802
 흥화사(興化寺) 802
 흥화존장(興化存獎) 802
 희수광록(希叟廣錄) 143, 1043
 희족(喜足) 58



譯注者 역주자

● 金榮郁 김영옥...고려대학교 철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강원대·고려대·한국항공대·한양대학교 등 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정진하고 있다. 論著로는 「壇經 선사상의 연구」(박사학위 논문), 「壇經의 복종비판」, 「直指人心의 禪法」, 「조사선의 언어형식」, 「간화선의 화두 공부와 그 특징」, 「간화선 참구의 실제」, 「太古와 懶翁 - 한국 간화선의 개화」, 『비관불교의 파라독스』(공저), 『진각국사어록 역해1』, 『화두를 만나다』 등이 있다.

● 趙英美 조영미...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한문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국문학과 대학원에서 「淸虛休靜의 禪詩 研究」(2003)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정진하고 있다.

● 韓栽相 한재상...성균관대학교 동양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한국철학과 대학원에서 「普照知訥의 看話禪 研究」(2003)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중이며, (사)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 상임연구원으로 정진하고 있다





韓國傳統思想書刊行委員會 한국전통사상서간행위원회

• 간행위원회 위원장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海峰 慈乘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 影潭 · 기획실장 圓潭 · 재무부장 祥雲

문화부장 曉吞 · 사회부장 慧耕 ·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圓徹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宗薰 · 불교신문사장 慧慈 · 기획국장 滿堂

•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

제1팀… 海住 동국대학교 교수

제2팀… 金榮郁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제3팀… 鄭炳三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제4팀… 李晉吾 부산대학교 교수

제5팀… 圓徹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제6팀… 古玉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연구실장

제7팀… 彌山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正德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선임연구원… 金宰晟 · 金鐘仁 · 李洪九

연구원… 權奇燦 · 金惠珍

편집 · 제작… 尙賢淑 · 朴鍾壹





韓國傳統思想叢書 한국전통사상총서

韓國人の歴史와 그 文化의 最古層에 穩연히 자리하고 있는 韓國의 傳統佛敎思想은 우리 精神史의 原型이며 韓民族 數千年 知性史의 基軸이다. 일천칠백여 년간 韓國인 그리고 韓國 내에서 尤구히 傳承· 축적된 韓國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代表하는 작품들을 精選하고 한글과 영문으로 주석·번역하여 “한국전통사상총서[불교편]”으로 엮었다. 韓國의 불교문화와 사상을 國內·外에 널리 刊行·流通시킴을 目標로 대한불교조계종이 文化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

海住	精選 元曉… 晉譯華嚴經疏序·無量壽經宗要 등 17篇
海住	精選 知訥… 勸修定慧結社文·修心訣·圓頓成佛論 등 7篇
金榮郁	精選 休靜… 淸虛堂行狀·禪家龜鑑·禪教訣 등 5篇
海住	精選 華嚴Ⅰ… 華嚴一乘法界圖·法性偈 주석 모음 등 7篇
鄭炳三	精選 華嚴Ⅱ… 海印三昧論·大覺國師文集 등 4篇
鄭炳三	精選 諸敎學… 三彌勒經疏·成唯識論學記(選) 등 6篇
金榮郁	精選 公案集Ⅰ… 禪門拈頌說話(選)
金榮郁	精選 公案集Ⅱ… 禪門拈頌說話(選)
金榮郁	精選 禪語錄… 眞覺語錄·白雲語錄 등 4篇
李晉吾	精選 詩選集… 無衣子詩集·湖山錄 등 26篇
鄭炳三	精選 文化… 往五天竺國傳·三國遺事(選)
圓徹	精選 戒律… 梵網經古迹記·菩薩戒本宗要并序
智冠	精選 韓國高僧碑文… 韓國高僧碑銘 15基

